

향토문화자료

14

내고장 용인

.....

남부지역의 구비전승

박종수 · 강현모 · 이응준



용인문화원

여

백

내고장 용인

남부지역의 구비전승

용인문화원

여

백

발간사

우리 조상들의 열이 담겨있는 내고장 구비전승은 소중하고 값진 유산이며 귀중한 寶鑑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오랜 세월 동안 간직한 구비전승을 스스로 알고 이 전통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발전시켜 후세에 알려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우리의 훌륭한 문화가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용인문화원에서는 그 동안 14권의 향토문화자료 총서를 발간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다시 향토문화자료를 심층 조사하다 보니 구비전승만 해도 올해로 3권째 책을 발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국 문화원연합회 산하에 각지의 문화원들이 郷土史 연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郷土史가 아닌 郷土事 연구에 치중한다는 지적도 있으나 본 문화원에서는 지방사와 생활사 그리고 민속을 체제로 하여 연구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마침 뜻있는 사람들의 관심이 널리 확산되어 우리 고장의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도록 자세히 수록한 『내고장 용인 남부지역의 구비전승』을 발간하여 용인지역의 전통문화를 알고 익히게 하는데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이 책이 민속학 연구에 관심있는 여러분과 관계있는 전문가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용인지역 주민들에게도 많이 읽혀 자긍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 발간되기까지 조사·집필·편집·발간에 관계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8년 5월

용인문화원장 송재권

서문

본 구비전승 자료조사는 예로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는 전설·민담·민요·무가 등을 정밀조사하여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흥미있게 시대에 따라 통시적인 변화 양상을 가늠할 수 있고, 한줄기 연관성과 공통성이 대상에 따라 미래 지향적인 삶을 모색함에 있다. 이를 위해 용인지방을 5개 지역, 즉 동부지역(백암면·원삼면), 북부지역(모현면·포곡면), 남부지역(남사면·이동면), 서부지역(기흥읍·수지읍·구성면), 중부지역(용인시·양지면)으로 나누어 정밀조사를 하였다.

용인문화원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동부지역과 북부지역 구비전승 책자 2권을 발간하였고, 금년에는 남부지역 구비전승으로 3권째 발간하는 것이다. 이 자료는 각 지역 문화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알 수 있으며, 우리의 전통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유용할 것이다.

구비전승 자료조사는 말로 전달되므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대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전달이 가능한 것이기에 전해 들은 내용이 기억되어 다시 말로 재연되기는 쉽지 않다. 구연자(口演者)에 따라 전해 들은 내용만의 전달이 아니고 구연자의 창작이기도 하다. 그러나 구연자의 창작은 공동적인 의식을 가지고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서로 다른 구연자에 의한 각 구비전승에 공통점이 존재하는 것이다. 개인에 의해 구연된 각편은 개인작이지만 그것은 공동의 관심을 반영하며 전승되는 유형에 맞춘 것이기 때문에 공통적 의식을 내포한 것이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구비전승을 정밀조사하여 기초자료를 내게 된 것은 의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자료를 보완하기 위한 조사를 다녀 보면 용인시민들이 그 동안 발간된 구비전승 책자를 보았다는 것이다. 우리 마을을 알려줘서 고맙다느니, 우리 면에서도 관심이 많다느니, 우리 마을의 이런 얘기를 생각해

냈다느니 등의 말을 들으면서, 이런 작업이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데 일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용인시에는 9개 면이 있는데 면지 발간이 전무했다. 그런데 이번에 구성면에서 면지를 발간 중에 있다. 그 동안 필자가 발행한 구비전승 책을 보면서 동기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끝으로 이 책자가 용인시민 여러분과 이 분야를 연구하는 분들에게 좋은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정성을 다해 도와주신 용인문화원 송재권 원장님과 조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남사면·이동면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기꺼이 출판을 맡아주신 태학사 지현구 사장님께 감사드리며 조사·집필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998년 5월

용인대학교 균재 연구실에서

지은이 적음

【일러두기】

1. 이 자료는 1996년 11월 1일~1998년 5월 22일 사이에 용인시 남부지역인 이동면과 포곡면 내의 모든 리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채록 정리한 것이다.
2. 지역개관은 자료발간 대상인 용인시의 남부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읍지군지 등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3. 보고서의 작성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간행한 『한국구비문학대계』의 기술방법을 원칙으로 하였다.
4. 각 리마다 마을 개관을 하고 제보자에 대한 개관은 따로 하지 않았다.
5. 자료마다 일련번호, 제목, 제보자의 성명(나이, 성별), 테이프번호, 조사장소, 조사자, 조사날짜 등을 명시하였다.(단 조사자의 이름이나 나이를 조사하지 못한 자료는 마을별로 제보자1, 2로 표시하고, 나이는 ?로 표시하여 놓았다.)
6. 자료의 배열은 각 리별로 하여 번호를 붙였으며, 그 리별 배열은 면소재를 중심으로 한쪽에서 원형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7. 녹음테이프에 수록된 내용을 일체 가감없이 그대로 활자화하였으며, 와음이나 방언도 그대로 채록하였다.(녹음불량은 기록 상태를 최대한으로 복원시켜 활자화시켰다.)
8. 자료의 본문에서 방언의 설명나 상황과 분위기의 변화 등은 ()안에 부연 설명하고, 조사자나 청중의 개입은 []로 묶어 표기하였다.
9. 필요한 경우에 생략을 ...로 표시하고, 테이프에서 채록할 수 없는 부분은 [청취불능]이라 표시하였다.
10. 수록 자료의 구체적인 자료 분류는 용인시 전 지역이 조사를 마치고 발간할 때 붙이기로 한다.

목차

발간사
서 문
일러두기

I. 개관

1. 남부지역 지역 개관	23
2. 남부지역 조사 개관	27

II. 이동면 설화

1. 송전리	43
1) 마을개관	
2) 설화	
(1) 김영만(76, 남)	안어 고개 • 44
(2) 김영만(76, 남)	도깨비 만난 사람 • 45
(3) 김영한(77, 남)	송전 마을의 유래 • 45
(4) 김영한(77, 남)	호랑이를 잡은 사람 • 46
(5) 어벽우(38, 남)	송전에서 태어난 어탁주 • 47
(6) 어벽우(38, 남)	송전리와 이동면의 유래 • 48
(7) 어벽우(38, 남)	효자가 잉어를 구한 도림천 • 49
(8) 어명봉(80, 남)	겨울에 잉어를 구한 효자 • 50
(9) 어명봉(80, 남)	지혜로 살아난 사람 • 51

- (10) 송한영(76, 남) 타살된 어윤중 대감 • 53
 (11) 송한영(76, 남) 임금 앞에서도 굽히지 않은 송시열 • 55
 (12) 송한영(73, 남) 영터리 지관 • 57
 (13) 어명철(77, 남) 도깨비 일화(1) • 59
 (14) 김정숙(69, 여) 이인 아들로 대맹이를 면한 사람 • 60
 (15) 김정숙(69, 여) 우연히 얻은 명당 • 64
 (16) 김정숙(69, 여) 도깨비 일화(2) • 65
 (17) 김정숙(69, 여) 신령이 자리 잡아준 용덕사 • 66
 (18) 김기정(64, 여) 송전리 아노고개 전설 • 68
 (19) 손승록(68, 남) 친구 죽은 아버지를 만난 사람 • 69
 (20) 정진관(75, 남) 도깨비 일화(3) • 70
 (21) 정진관(75, 남) 정성드리지 못한 사람 • 71
 (22) 정진관(75, 남) 죽음 면한 소 팔아 온 사람 • 73
 (23) 정진관(75, 남) 나이 든 어머니의 욕심 • 75
 (24) 정진관(75, 남) 방구쟁이 며느리 • 78

2. 어비리 81

1) 마을개관

2) 설화

- (1) 혜성스님(38, 남) 동도사와 어비리의 유래 • 82
 ① 동도사의 유래
 ② 어비리의 유래
 (2) 혜성스님(38, 남) 영험하신 동도사의 부처님 • 83
 (3) 혜성스님(38, 남) 용덕사와 용굴 • 85
 (4) 김제춘(73, 여) 장울리의 유래 • 85
 (5) 김제춘(73, 여) 묘를 잘못 써서 죽은 소 • 86
 (6) 김제춘(73, 여) 집안이 망하려면 나타나는 산신령 • 89
 (7) 이종철(52, 남) 어비리와 방목마을 유래 • 90

- (8) 최월례(78, 여) 산제 지낼 때 부정하여 태어난 아이 • 91
 (9) 안제균(59, 남) 영험한 마을의 느티나무 • 93

3. 묘봉리 97

1) 마을개관

2) 설화

- (1) 김학수(48, 남) 목이 부러진 부처님 • 98
 (2) 김영식(76, 남) 빈대 때문에 망한 절 • 99
 (3) 체보자1(?, 남) 마을에 서 있는 비문의 내력 • 99
 (4) 체보자1(?, 남) 효자문 • 100
 (5) 문씨할머니(?, 여) 겨울에 풋대추를 구한 정효자 • 101
 (6) 임병영(72, 여) 도깨비 일화(1) • 102
 (7) 임병영(72, 여) 호랑이 목에 걸린 비녀를 빼준 사람 • 103
 (8) 임병영(72, 여) 반쪽이 • 104
 (9) 임병영(72, 여) 이 명을 짜서 누구하고 먹지 • 107
 (10) 임병영(72, 여) 용굴의 유래 • 109
 (11) 조규숙(72, 여) 호랑이를 만난 사람 • 111
 (12) 조규숙(72, 여)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 112
 (13) 조규숙(72, 여) 쫓겨난 셋째 딸 • 113
 (14) 송상제(49, 남) 임금 태어날 묘자리가 있는 묘봉리 • 114
 (15) 성종애(69, 여) 도깨비 일화(2) • 116
 (16) 성종애(69, 여) 범떡고개 • 118

3) 민요

- (1) 김학수(48, 남) 보리타작 노래 • 119
 (2) 임병영(72, 여) 자장가 • 122
 (3) 임병영(72, 여) 하늘개 들날개 • 123
 (4) 임병영(72, 여) 뱃노래 • 124

- (5) 임병영(72, 여) 창부타령 • 124

4) 기타

- (1) 임병영(72, 여) 수수께끼 • 124

4. 화산리 127

1) 마을개관

2) 설화

- (1) 주금순(61, 여) 돈 많은 석순이 • 128
 (2) 주금순(61, 여) 개 창자 넣은 사람 • 129
 (3) 주금순(61, 여) 멧들의 역할 • 130
 (4) 주금순(61, 여) 선비와 호랑이 • 131
 (5) 정기영(70, 남) 화산리의 유래 • 132
 (6) 정기영(70, 남) 초계 정씨의 효자문 • 133
 (7) 정기영(70, 남) 요산동 지명 유래 • 135
 (8) 정기영(70, 남) 순안 안씨 열녀문 • 135
 (9) 이한수(63, 남) 애경사를 알리는 은행나무 • 136
 (10) 이한수(63, 남) 화산리의 옛 지명 보리미 • 138
 (11) 제보자1(30대, 남) 물이 부족하던 화산리 • 138
 (12) 박유종(48, 여) 애경사를 알리는 우물 • 139
 (13) 정기영(70, 남) 느티나무 가지를 베고 벌 받은 사람 • 140
 (14) 김이정(78, 여) 도깨비 일화 • 142
 (15) 김이정(78, 여) 용이 승천한 용굴 • 143
 (16) 김이정(78, 여) 불길한 징조를 알리는 은행나무 • 145
 (17) 김이정(78, 여) 골프장 공사로 산맥이 끊긴 마을 • 145
 (18) 김이정(78, 여) 아들 낳게 하는 굴암천에 용굴 • 146

5. 시미리 147

1) 마을개관

2) 설화

- (1) 영동상회 주인(50대, 남) 쌍계의 유래 • 148
- (2) 이형순(69, 남) 마을의 지명 유래 • 148
 - ① 빈영
 - ② 시미곡
 - ③ 쌍계정
 - ④ 남짓말
- (3) 이형순(69, 남) 전주 이씨 효부 정문 • 151
- (4) 이형순(69, 남) 시미리에 묻힌 하정승 • 152
- (5) 이형순(69, 남) 고시래의 유래 • 153
- (6) 이형순(69, 남) 성묘하면 죽는 호랑이 혈의 묘지 • 154
- (7) 이형순(69, 남) 호랑이가 태워 준 사람 • 155

6. 덕성리 157

1) 마을개관

2) 설화

- (1) 박순예(76, 여) 주인을 속인 도둑놈의 계략 • 158
- (2) 소진혁(86, 남) 덕성리 유래 • 159
- (3) 소진혁(86, 남) 쇠경보의 지명 유래 • 161
- (4) 소진혁(86, 남) 형설지공 • 162
- (5) 소진혁(86, 남) 도깨비 방망이 • 163

3) 민요

- (1) 체보자1(60대, 여) 새야새야 파랑새야 • 163
- (2) 경주김씨 (80대, 여) 모심기 소리 • 164
- (3) 경주김씨 (80대, 여) 방아타령 • 165

- (4) 경주김씨 (80대, 여) 자장가 • 165
- (5) 박순예(76, 여) 이순일과 심순애 • 166
- (6) 박순예(76, 여) 만주 아가씨 • 166
- (7) 박정희(68, 여) 두메 산골 내 고향 • 167
- (8) 이재영(72, 여) 아리랑(1) • 167
- (9) 박순예(76, 여) 방아타령 • 168
- (10) 박순예(76, 여) 우리 남군은 • 168
- (11) 박순예(76, 여) 연밥 따는 처녀 • 169
- (12) 박순예(76, 여) 물레방아 • 169
- (13) 박순예(76, 여) 강남 갔던 제비 • 170
- (14) 할머니들 아리랑(2) • 170
- (15) 소진혁(86, 남) 백발 한탄가 • 170

7. 목차 173

1) 마을개관

2) 설화

- (1) 정인루(77, 여) 심청전 • 174
- (2) 박소리(12, 여) 여자 꼭두각시 인형을 본 나무꾼 • 182
- (3) 이승주(12, 여) 얘기야 벌러 가자 • 184
- (4) 박소리(12, 여) 상금에 눈이 먼 여자 • 185
- (5) 이홍산(78, 남) 산신령의 미움 산 호랑이 • 187
- (6) 정광수(76, 남) 호랑이를 만난 형제 • 188
- (7) 이순이(69, 여) 호식당한 아이 • 190
- (8) 이순이(69, 여) 내 덕으로 먹고 살지 • 192
- (9) 진옥임(33, 여) 주인 딸을 아녀로 삼은 종 • 195
- (10) 진옥임(33, 여) 할미꽃의 유래 • 198
- (11) 장봉태(72, 남) 용을 물리치고 절을 구한 지네 • 201
- (12) 장봉태(72, 남) 일본놈을 물리친 사람 • 202

- (13) 장봉태(72, 남) 영험한 당산나무 • 203
 (14) 장봉태(72, 남) 아이를 호식 당한 바보 남편 • 204
 (15) 장봉태(72, 남) 집에 들어온 짐승 잡아먹고 망한 집 • 205
 (16) 김천빈(77, 여) 용덕사의 유래 • 205
 (17) 체보자1(? , 여) 호랑이를 만난 사람 • 206

3) 민요

- (1) 이홍산(78, 남) 대장부의 생활 • 208
 (2) 박가순(86, 여) 노세 노세 • 209
 (3) 체보자1(? , 여) 꽃이 곱소 • 209

8. 천지 211

1) 마을개관

2) 설화

- (1) 강신덕(80, 남) 샘골의 유래 • 212
 (2) 임천용(75, 남) 돌을 못 보는 뱀 • 214
 (3) 정창화(68, 남) 수수대가 빨간 이유 • 215
 (4) 정창화(68, 남) 혼자 집을 찾아온 소 • 216
 (5) 박래용(70, 남) 말을 곱게 해서 도움 받은 사람 • 217
 (6) 박래용(70, 남) 거만한 행동으로 고생한 선비 • 219
 (7) 강신덕(80, 남) 시묘 사는 효자를 지켜준 호랑이 • 220
 (8) 박래용(70, 남) 열녀가 얻은 산삼 • 221
 (9) 박래용(70, 남) 살림살이 못해 쫓겨난 며느리 • 223
 (10) 정창화(68, 남) 끝이 없는 보복 • 226
 (11) 박래용(70, 남) 고운 말로 덕을 본 사람 • 228
 (12) 강신용(57, 남) 도깨비 이야기 • 230

① 도깨비의 실체

② 수근대는 귀신들

9. 서리 235

1) 마을개관

2) 설화

- | | | |
|-----------------|----------------------|-------|
| (1) 이정학(70, 남) | 태종대왕 외손주 묘의 선몽 | • 236 |
| (2) 김용덕(82, 남) | 안동 권씨와 세종대왕 외손주의 묘 | • 237 |
| (3) 최갑규(82, 여) | 이무기 바위 | • 238 |
| (4) 김용덕(82, 남) | 범티 고개 | • 240 |
| (5) 김용덕(82, 남) | 떡조현 고개 | • 245 |
| (6) 조현기(74, 남) | 유서방네 묘 | • 245 |
| (7) 조현기(74, 남) | 권도령이 묻힌 묘 | • 246 |
| (8) 이윤희(68, 남) | 삼정승 묘자리가 있다는 서리 | • 247 |
| (9) 이윤희(68, 남) | 고사 지내고 옮겨야 할 삼정승 묘지골 | • 248 |
| (10) 이윤희(68, 남) | 도깨비 홀린 사람 | • 249 |
| (11) 이윤희(68, 남) | 운 좋게 살아난 느티나무 | • 250 |
| (12) 이윤희(68, 남) | 아버지와 삼 형제 | • 251 |

3) 민요

- | | | |
|----------------|--------|-------|
| (1) 조현기(74, 남) | 노동요 | • 254 |
| (2) 조현기(74, 남) | 모심기 노래 | • 255 |
| (3) 이윤희(68, 남) | 모심기 노래 | • 255 |

Ⅲ. 남사면 설화

1. 봉우리 259

1) 마을개관

2) 설화

- | | | |
|----------------|-----------|-------|
| (1) 민인순(80, 여) | 구렁이가 된 스님 | • 260 |
|----------------|-----------|-------|

- (2) 박인예(83, 여) 수수고개의 도깨비 • 262
 ① 도깨비의 형체
 ② 수수고개의 도깨비
- (3) 심이재(84, 여) 도깨비의 둔갑 • 264
- (4) 안용준(67, 남) 산 허리 잘리워진 수수고개 • 265
- (5) 안용준(67, 남) 아기장수 전설 • 266
- (6) 장영희(58, 여) 길을 내여, 다리를 놓아 • 267
- (7) 이규동(62, 남) 부모가 원하는 물건 구한 효자 • 270
- (8) 이규동(62, 남) 지극한 효성으로 하늘을 올린 부부 • 271
- (9) 이규동(62, 남) 호랑이와 꽃감 • 272
- (10) 박봉여(63, 여) 독장수의 꿈 • 273
- (11) 교회집사(?, 여) 오누이의 집 지키기 • 275
- (12) 지성해(63, 남) 도깨비 이야기 • 276
- (13) 유근영(68, 남) 아들을 묻으려는 효자 • 276
- (14) 유근영(68, 남) 삼 형제와 여우 • 277

2. 방아리 279

1) 마을개관

2) 설화

- (1) 황춘수(70, 여) 개떡을 해 딸네 집에 간 사람 • 280
- (2) 정남기(73, 남) 승무가곡노인탄 • 282
- (3) 정남기(73, 남) 아들을 땅에 묻으려던 효자 • 287
- (4) 체보자1(70대, 남) 방축골 유래 • 290
- (5) 체보자1(70대, 남) 빈부가 바뀐 방축과 중붓들 • 291
- (6) 정남기(74, 남) 손순매아형 효자 • 292
- (7) 김간난(75, 여) 콩쥐 팥쥐 • 293
- (8) 김간난(75, 여) 억울한 간계로 죽은 여인 • 295

3) 기타

- (1) 황춘수(70, 여) 수수께끼 • 300

3. 창씨 301

1) 마을개관

2) 설화

- (1) 윤기분(72, 여) 유정무한 • 302
 (2) 윤기분(72, 여) 부자집 손자를 살린 거지 • 307
 (3) 윤기분(72, 여) 삼패전(어사 박문수) • 309
 (4) 윤기분(72, 여) 장화 흥련 • 312
 (5) 윤기분(72, 여) 심청전 • 314
 (6) 윤기분(72, 여) 과부덕과 흠아비 • 317
 (7) 윤기분(72, 여) 바보 색시(1) • 320
 (8) 윤기분(72, 여) 바보 신랑(1) • 321
 (9) 윤기분(72, 여) 바보 신랑(2) • 322
 (10) 안순녀(53, 여) 내 똥인데 • 324
 (11) 이명순(49, 여) 나무군을 살려준 포수 • 325
 (12) 문복남(74, 여) 사나운 시부모를 꺾고 산 며느리 • 327
 (13) 문복남(74, 여) 바보 색시(2) • 331
 (14) 문복남(74, 여) 색시의 모자란 아버지 • 332
 (15) 문복남(74, 여) 구렁이의 복수를 예방한 사람 • 333
 (16) 문복남(74, 여) 못난 자식에 그 애비 • 335
 (17) 윤기분(72, 여) 딸의 지혜로 망신을 모면한 아버지 • 336

4. 아곡리 339

1) 마을개관

2) 설화

- (1) 김홍희(71, 여) 도깨비를 만난 사람 • 340

- (2) 유혜순(85, 여) 늑대가 유씨를 잡아먹지 않는 이유 • 341
 (3) 유혜순(85, 여) 가족을 찢라준 호랑이 • 344
 (4) 유혜순(85, 여) 도깨비 일화 • 346
 (5) 제보자1(? , 여) 늑대와 함께 다닌 아버지 • 350
 (6) 권영주(78, 남) 개심한 불효자 • 351
 (7) 이상목(40대, 남) 처인성 일화 • 352
 (8) 이상목(40대, 남) 처인성 일어난 일화 • 353
 (9) 이상목(40대, 남) 소를 끌어 올려라 • 354
 (10) 이상목(40대, 남) 호랑이에게 새끼를 빼앗긴 소 • 356
 (11) 권영주(78, 남) 어른 말을 잘 들어야 가정이 화목 • 357
 (12) 이상목(40대, 남) 순조 임금의 지혜 • 358

5. 완장리 361

1) 마을개관

2) 설화

- (1) 정현태(84, 남) 술개의 유래 • 362
 (2) 정현태(84, 남) 함봉산의 영험성 • 363
 (3) 정현태(84, 남) 개화상이 새겨진 바위 • 364
 (4) 곤점윤(81, 여) 개가한 여자와 자식(성황당 유래의 변형) • 365
 (5) 곤점윤(81, 여) 이무기 전설 • 367
 (6) 곤점윤(81, 여) 스님을 쫓아내고 망한 심씨 • 368
 (7) 곤점윤(81, 여) 용이 돼서 올라가는 이무기 • 369
 (8) 곤점윤(81, 여) 검은 솔밭에 작대기 받쳐 놓은 것은 • 371
 (9) 곤점윤(81, 여) 진이망 기사 • 372
 (10) 박윤성(71, 남) 애경사를 알리는 느티나무 • 374
 (11) 박윤성(71, 남) 함봉산의 효험이 있는 약수 • 375

6. 복리 377

1) 마을개관

2) 설화

- | | | |
|-----------------|-----------------------|-------|
| (1) 마을 이장님 | 아기장수 전설 | • 378 |
| (2) 구좌정(60, 남) | 품삯을 떼 먹는 양반들 | • 378 |
| (3) 구좌정(60, 남) | 어머니를 출가시킨 효자 | • 379 |
| (4) 구좌정(60, 남) | 어머니의 죽음을 사흘 동안 모른 아들 | • 380 |
| (5) 구좌정(60, 남) | 집을 싸게 사려는 귀신 행각 | • 381 |
| (6) 구충서(75, 남) | 겨울에 수박을 구한 효자 | • 382 |
| (7) 변봉금(63, 여) | 도깨비 불 | • 383 |
| (8) 박광희(56, 여) | 전주 덕진 다리의 유래 | • 384 |
| (9) 박광희(56, 여) | 송장을 치워 주고 복 받은 벼락 부자 | • 386 |
| (10) 백애현(79, 여) | 저승 갔다온 사람(1) | • 387 |
| (11) 백애현(79, 여) | 구렁이가 된 욕심 많은 스님 | • 391 |
| (12) 백애현(79, 여) | 저승 갔다온 사람(2) | • 396 |
| (13) 김시황(86, 여) | 과객 제사상 차려주고 복 받은 만머느리 | • 397 |
| (14) 김시황(86, 여) | 부정한 제사를 알아낸 소금장수 | • 402 |

7. 통삼리 409

1) 마을개관

2) 설화

- | | | |
|----------------|-------------------|-------|
| (1) 구자옥(72, 남) | 원포의 유래 | • 410 |
| (2) 구자옥(72, 남) | 유명한 지관인 목 없는 할아버지 | • 411 |
| (3) 구자옥(72, 남) | 개심한 외아들 | • 413 |
| (4) 이규식(77, 남) | 구대 정승 지지의 산소 | • 415 |
| (5) 이규식(77, 남) | 와우형의 마을 | • 416 |
| (6) 양진숙(50, 여) | 도깨비 홀린 사람(1) | • 417 |

① 도깨비를 만났다는 물감장사

② 도깨비 행세를 한 도둑

- (7) 양진숙(50, 여) 도깨비 홀린 사람(2) • 419
 (8) 양진숙(50, 여) 도깨비 홀린 사람(3) • 420
 (9) 양진숙(50, 여) 호랑이와 꽃감 • 421
 (10) 양진숙(50, 여) 노름에 딸 팔아먹은 사람 • 424
 (11) 윤정숙(50, 여) 도깨비의 장난 • 426
 (12) 구진회(69, 남) 비 오는 날을 알리는 느티나무 • 427
 (13) 구진회(69, 남) 도깨비 홀린 사람(4) • 427

① 자신이 만난 도깨비

② 친구집에 갔다가 도깨비에 홀린 사람

8. 봉명리 429

1) 마을개관

2) 설화

- (1) 제보자1(?, 남) 맹희 장군의 일화 • 430
 (2) 제보자1(?, 남) 이순신 장군의 최후 • 431
 (3) 제보자1(?, 남) 흑부리 영감 • 432
 (4) 제보자1(?, 남) 고려장을 폐지한 유래 • 435
 (5) 제보자2(?, 남) 구렁이에게 잡혀 먹을 뻔한 사람 • 441
 (6) 제보자2(?, 남) 물레방아간의 도깨비 • 442
 (7) 제보자3(?, 남) 여우 구슬을 먹고 지리를 안 박주부 • 444

9. 진목리 449

1) 마을개관

2) 설화

- (1) 최각스님(54, 남) 오세암 전설 • 450
 (2) 최각스님(54, 남) 임금을 알아본 파자 점쟁이 • 453
 (3) 기장석(81, 남) 이성계의 아해조정 강도령 • 455

- (4) 기장석(81, 남) 이성계의 개성 정복 • 456
 (5) 원난성(56, 여) 춘향 아씨 놀이담 • 457
 (6) 김영자(79, 여) 고지식한 선비의 일화들 • 458

3) 민요

- (1) 김영자(79, 여) 모심기 노래 • 460

10. 전궁리 461

1) 마을개관

2) 설화

- (1) 최승림(64, 여) 팔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 462
 (2) 최승림(64, 여) 도깨비 일화(1) • 463
 (3) 최승림(64, 여) 도깨비 일화(2) • 465
 (4) 최승림(64, 여) 며느리 보쌈을 막아낸 할머니 • 466
 (5) 최승림(64, 여) 저승 갔다온 이야기 • 468
 (6) 최승림(64, 여) 고려장이 없어진 유래 • 469
 (7) 김명자(67, 여) 변기통에 목욕시킨 사람 • 470
 (8) 김명자(67, 여) 도깨비 일화(3) • 471
 (9) 김명자(67, 여) 영감을 생각이 나게 하는 음환 • 471
 (10) 한이순(60, 여) 호랑이가 살려준 사람 • 472
 (11) 김명자(67, 여) 가문통을 내 놓소 • 473
 (12) 한이순(60, 여) 소금장수 일화(정성드려 제사 지내기) • 474
 (13) 한이순(60, 여) 고려장의 형태 • 477
 (14) 정순애(46, 여) 나가는 복을 막아준 스님 • 477
 (15) 정순애(46, 여) 정성드려야 할 췌장 • 479
 (16) 정순애(46, 여) 진정한 친구 • 481
 (17) 안일남(65, 여) 도깨비 일화(4) • 484
 (18) 안일남(65, 여) 도깨비 일화(5) • 485

- (19) 안일남(65, 여) 바람 때문에 망한 여인 • 486
 (20) 안일남(65, 여) 애 낳을 때 개 잡고 벌 받은 사람 • 489

3) 민요

- (1) 최승립(64, 여) 자장가 • 491

11. 원알리 493

1) 마을개관

2) 설화

- (1) 정박규(69, 여) 죽지 못한 사람 • 493
 (2) 정박규(69, 여) 청실홍실 천생 연분 • 494
 (3) 정박규(69, 여) 아내가 먹는 것을 아끼지 말라 • 496
 (4) 정박규(69, 여) 효자래도 부부만 못하다 • 497
 (5) 정박규(69, 여) 형의 패철을 흠친 가짜 지관 • 498
 ① 패철이 울어 잡아준 묘지
 ② 칠삭둥이 낳은 여자를 구함
 ③ 우연하게 맞는 풍수
 (6) 정박규(69, 여) 어린 아이의 지혜 • 501
 (7) 권유순(74, 여) 사돈집에 가서 실수한 사람 • 502
 (8) 권유순(74, 여) 방구 때문에 벌어 먹은 며느리 • 503
 (9) 정박규(69, 여) 문상할 소리를 잊은 바보 • 504
 (10) 정박규(69, 여) 첫날밤에 소박 맞은 원귀 • 505
 (11) 정박규(69, 여) 석 삼 년의 시집살이 • 506
 (12) 정박규(69, 여) 흑부리 영감 • 507
 (13) 정박규(69, 여) 발가락 잘라 복 받게 한 관상장이 • 509
 (14) 정박규(69, 여) 억울하게 죽은 장화 흥련 • 510
 (15) 정박규(69, 여)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광쥐 • 513
 (16) 정박규(69, 여) 과부상을 면하게 해 준 스님 • 513

- (17) 진달래(12, 여) 구슬을 찾은 고양이와 개 • 514
 (18) 정박규(69, 여) 별주부전 • 516
 (19) 정박규(69, 여) ‘미련하기가 곱과 같다’는 유래 • 517
 (20) 정박규(69, 여) 인불구환 • 518
 (21) 정박규(69, 여) 할미꽃의 유래 • 521
 (22) 정박규(69, 여) 3년 고개 • 522
 (23) 이정원(51, 여) 사나운 아내 길들이기 • 522
 (24) 이갓난(91, 여) 호랑이 입 안의 비녀를 빼 준 사람 • 523
 (25) 이종덕(70, 남) 도깨비 일화 • 524
 (26) 황유순(78, 여) 호랑이보다 무서운 낫감 • 525
 (27) 황유순(78, 여) 사람 홀린 도깨비 • 526

3) 민요

- (1) 정박규(69, 여) 파랑새 • 528
 (2) 이갓난(91, 여) 디딜방아 노래 • 528
 (3) 이갓난(91, 여) 아주까리 동백아 • 529
 (4) 이갓난(91, 여) 아리랑 • 529
 (5) 이갓난(91, 여) 백발가(1) • 530
 (6) 이갓난(91, 여) 백발가(2) • 530
 (7) 이갓난(91, 여) 할미꽃 • 531

I. 개관

1. 남부지역 지역 개관

가. 이동면 지역 개관

이동면(二東面)은 경기도 용인시 남부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서쪽으로는 남사면, 북쪽으로는 용인시 중앙동과 동쪽으로는 원삼면, 남쪽으로는 안성군 양성면과 접하고 있다.

전에는 상동면(상동촌면)이라고 했는데, 원촌·천동·서동·덕성·목동의 5개 동리를 관할하였었다. 그후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 하동면(하동촌면)의 시미·모산·요산·묘봉·송전·어비의 6개 동리와 남촌면(南村面)의 방목동을 합치고, 상동과 하동의 두 이름을 따서 이동면이라 칭한 것이다. 이동면은 천리·서리·덕성리·목리·시미리·화산리·묘봉리·송전리·어비리의 9개 리를 관할하고 있다.

인구는 1998년 현재 13,333으로 남: 6,771명, 여: 6,562명이며, 총 4,353세대이다. 면적은 76km²로 용인시의 12.8%인데 농경지가 15km²(20%)이며 임야가 50km²(66%)이고 기타 11km²(14%)로 되어있다.

이동면의 행정조직은 법정리로는 9개 리이며 행정 리로는 38개 리에다 84개 반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전 지역이 성장관리 지역이다.

주요 문화재로는 문화유적 0320-80-065호인 용덕사(龍德寺)를 들 수 있다. 용덕사는 신라 문성왕 때 영거선사(靈居禪師)에 의하여 초창되었다고 전한다. 기록을 보면 이를 증명한 사람은 도선국사이며 도선은 절

을 증견하면서 3층석탑 1기와 철인 3위를 조성하였다고 한다. 철인 3위 중 현재 2위가 전하고 있으며 파손된 3층석탑 1기도 절입구에 있다. 법당은 겹처마의 팔작지붕이며 정면 3칸 측면 1.5칸이고 단청이 있으나 최근에 시문(施紋)했다. 내부 정면에는 석가모니불이 안치되고 좌우에 협시보살이 있다. 우측으로 57위의 나한군이 있는데 모두 화강암의 석재이고 백분으로 개금되어 있다.

용덕사 뒷편 석굴 입구에는 신라 때 영거조사에 의하여 초창되었다고 전하는 보살 좌상 1구가 있는데, 이는 신라 말 고승 도선국사가 이 절을 중수하면서 조성하였다고 전한다.

용덕사에서 100여미터 아래의 길 옆에 용덕사 탑재(塔材)가 전하는데 본래는 도선국사에 의하여 조성되었다고 전하는 3층석탑인데 많이 훼손된 채로 방치되고 있다. 또한 3층석탑이 이동면 어비리 산 31번지 동도사(東度寺)경내에 전하고 있다.

이동면 서리 산 588번지에는 고려백자 요지(窯址)가 호암미술관 학예연구팀에 의해 발굴되었는데, 10세기를 전후한 요지임이 밝혀짐으로써 학계에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고려 청자나 백자를 굽던 가마가 주로 해변가에 분포되어 있는 것에 반하여 이곳의 요지는 내륙지방 깊숙한 곳에 있는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이동면 천리 산 9번지에 이유겸(李有謙)의 신도비(神道碑)와 이동면 천동에 이유겸의 아들 이핵(李翺)의 효자정문 그리고 조선 선조 때의 정응규 효자는 부친이 환우 중에 생대추가 먹고 싶다 하였으나 동짓달인지라 구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대추나무 밑에 가서 통곡하며 기원하였더니 생대추가 열렸었고, 부친이 꿩고기를 먹고 싶다 하여 어렵게 구했으며, 노루고기를 구해드린 일 등이 하늘에서 감동하여 도와준 것임을 알고 지극한 효성에 효자정문이 내려졌다고 한다.

그리고 이동면에는 초등학교 2개교에 988명과 중학교 1개교 357명 그리고 고등학교 1개교 177명으로 총 4개교 1,522명의 학생들이 있다. 또한 중소기업 37, 영세기업 68개로 105개의 업체가 있으며 용인복지회관

1개소와 숙명여대 연수원 1개소와 송전 저수지가 있다.

나. 남사면 지역 개관

남사면(南四面)의 일부는 본래 수원부의 처인부곡이었다. 조선 태조 6년(1397년)에 현으로 되어 방리를 관장하다가 태종 13년인 서기 1413년에 용구현과 합쳐 용인현이 된 후 관아를 폐하였다.

그후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현내면, 도촌면, 서촌면, 남촌면 등 4개면을 합치고 용인군의 남단에 위치하였다고 하여 남사면이라 불리웠으며 11개리를 관장하였다. 그후 1983년 2월 15일 월경부락이 평택군에 편입되었다.

현내면은 처인현의 처소가 있던 곳으로서 지금의 아곡리, 완장리 지역에 해당되며, 도촌면은 봉무리와 방아리 지역에 해당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또 서촌면은 봉명, 진목리 지역이었고, 남촌면은 원암리 지역과 그 일대가 이에 속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 아곡·남산·매농·완장·창동·월곡·방축 등의 7개 동리를 관할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 남촌면의 진목·원암·전궁·아곡의 4개 리와 서촌면의 동막·원포·통곡·봉명·외동의 5개 동리와 도촌면의 삼인·상동·산정·내기·수세의 5개 동리, 진멸부 일북면 월경리 일부와 마산면의 월경리 일부를 합쳐 용인군의 남쪽 4면이라 하여 남사면이라 칭하고 통삼리·봉명리·북리·봉무리·진목리·원암리·전궁리·방아리·완장리·아곡리·창리로 개편 관할하여 오다가 1983년 대통령령에 의해 진목리와 봉명리의 일부를 평택군 진위면에 넘겨주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총인구는 7,703명으로 남자가 3,958명(51.4%), 여자 3,745명(48.6%)이다. 2,438세대에 농가가 1,356세대(56%), 비농가 1,072세대(44%)이며 총면적은 59,395km²로 시 전체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행정구역은 34리 72개 반이며 법정리는 11개 리로 조직되어 있다.

주요 문화재로는 지방문화재 기념물 제 3호인 심대(沈岱)묘를 들 수

있다. 남사면 완장리 산 119-1번지에 있는 심대묘는 명종 1년인 서기 1546년 경력 의겸의 아들로 태어났다. 본관은 청송, 자는 공망(公望), 호는 서포(西墩)이며 시호는 충장공이다.

선조 5년(1572) 친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고 사인(舍人), 보덕(輔德)을 지내고 임진왜란 때에는 의주까지 왕을 호종하여 부승지가 되었으며 경기관찰사를 제수받았다. 선생은 본래 문관 출신이나 군병을 이끌고 전사하였으므로 지방문화재에서는 장군으로 호칭되고 있다. 1975년 사당을 개축하고 그 해 10월 신도비를 건립하였다. 사당 내에는 심대 선생의 신위를 비롯하여 3위의 위패를 봉안하였으며 교지, 공신록, 행장 등 서적이 케장되어 있다. 현전하는 정려문의 일부의 기록은 ‘숙종 37년 경인년 명정되어 지금의 임금(今上) 48년 임진(영조 48) 7월에 세우다.’라는 기록이 있다.

남사면 아곡리 산 43번지에 처인성지(處仁城址)가 경기사적 제 44호로 지정되어 있다. 총 5,820평의 장방형의 토축으로 되어 있는데 고려 때 군창(軍倉)으로 사용되었다고 전한다. 성곽의 둘레는 425m이며, 북벽 좌측에 출입구가 있고 남쪽 중간지점에 후분자리가 있었다 한다. 그후 1977년에 남서쪽 성곽 120여미터를 복원했으며 1980년도까지 동남북의 성곽 205m를 수축하였다.

남사면 아곡리 남곡마을에는 효열부(孝烈婦) 안씨(安氏)의 정려각이 있다. 순흥 안씨는 순조때의 사람으로 안동권씨의 가문으로 출가하였으나 시할머니와 시부모의 공경을 지성으로 다하였다. 그러나 워낙 가난하여 샴바느질과 길쌈으로 생계를 이끌어 가던 중 안씨 24세 되던 해 남편을 잃은 것이다. 남편 따라 죽으려 했으나 그럴 수 없는 처지라서 근점질약으로 시할머니, 시부모를 공경하며 어린 자식들을 엄히 성장시키니 그 칭송이 드높았다. 나라에서는 이를 알고 효열부의 정려문을 내린 것이다. 열부(烈婦) 황씨(黃氏)의 정려문도 남사면 완장리 매능동에 전해지고 있다.

남사면 봉무리 산정동 마을의 줄다리기도 유명하다. 이곳의 줄다리기

역사는 수백년이 되었다고 추정하며 줄다리기의 줄을 용줄이라고 하는데 200년이 넘는 용줄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으며 그 동안 줄다리기를 한 해도 거르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남사면은 4개교의 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는 3개교에 504명, 중학교 1개교 310명의 총 814명이다. 연수시설로는 봉무리에 있는 제일생명 일신원과 창리에 있는 신세계 연수원, 봉명리에 기아 훈련원이 있다.

(이상은 용인군지와 이인영의 「내고장의 얼」을 참조함)

2. 남부지역 조사 개관

가. 조사지역의 선정 배경

용인 지역의 구비문학 조사는 조희웅의 『한국구비문학대계』 용인군편(1-9), 용인문화원에서 간행한 이인영(李仁寧)의 『내고장 옛 이야기』, 용인군에서 기존의 조사 내용을 종합하여 간행한 『용인군지』 <구비문학>편이 있다. 이 중에 집중적이고 본격적인 구비문학 조사 방법론에 따라 보고하였던 『한국구비문학대계』 용인군편(1-9)에는 이동면의 설화 19편에 민요 1편, 무가 18편이 수록되어 있을 뿐, 남사면은 조사도 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용인시의 동부지역, 북부지역에 이어 남부지역인 이동면과 남사면의 20개 리를 조사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남부지역 구비전승의 간행 자료는 북부지역에 앞서 조사하였지만, 몇 개 마을의 조사가 미진한 관계로 북부지역에 이어 이번에 발간하게 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동부지역 조사에서 범한 종합적인 조사의 한계를 인식하고, 처음부터 구비문학에 한정하였다. 그리고 광범위하고 세밀한 조사를 위해서, 이번에도 현장에서 직접 조사하고 녹취하여야 할 많은 조사 보조원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한남대와 한양대에 설강된 민속학

수강신청자를 투입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한국민속학 수강신청자에게 현장조사 방법론과 현장에서 조사 요령을 수시로 주입시켰다. 그리고 집에서 되도록 많은 전래 동화나 민담을 읽게 하였다.

이렇게 준비한 뒤에 용인시 남부지역에 해당하는 각각 법정 마을에 3-4명을 한 조로 편성하여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여 주었다. 그리고 마을 조사 담당자들은 선정해 준 마을을 임의대로 모든 행정 마을을 대상으로 하거나 일부를 하도록 하였다. 이때 되도록이면 주어진 5만분의 1 지도상에 나타난 큰 자연마을(행정마을) 1~2개를 선정하여 조사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리고 유능한 제보자가 있으면, 제보자의 주소와 연락 방법을 확인하여 뒤에 추가 조사에 활용하게 하였다.

이들 조사보조원의 활용은 교양강좌 과목으로 설정된 것이고, 하루 동안의 조사이기 때문에 커다란 성과를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만족할만한 것이었다.

나. 조사일시와 개관

이번에 현장 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동부지역에 비하여 많이 줄어들었으나, 북부지역에 비해서 많았다. 이는 이 지역을 조사하는 방법이 동부지역의 조사방법에서 구비문화 중심으로 바꾸면서도 민속학의 다른 분야를 조사하는 방법을 택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이번 발간 자료집의 조사는, 1995년 11월 4일에 한국민속학 수강신청자들을 조사보조원들을 사용한 조사가 주요 조사였다. 즉 이날 오전 10시까지 용인터미널에 도착하도록 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07시 29분 대전발 서울행 기차를 타고 수원에 와서 버스를 타고 오는 방법이 가장 편한 방법임을 가르쳐 주었다. 터미널에서 간단하게 조사요령과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선정해 준 지역을 조별로 이동하여 조사하게 하였다. 그리고 오후 5시까지 현지에서 조사를 마치고 용인터미널로 되돌아 오게 하였다. 이들은 용인시, 이동면, 남사면 전 지역을 조사하였다.

한편 추가조사는 한양대 무용과생을 동원한 1996년 5월 24일과 6월 1일에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일부팀들은 개별적인 조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발간할 무렵에 빠져 있는 시미리를 1998년 5월 22일 간단하게 조사한 것이다.

우선 이동면 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송전리는 1995년 11월 4일에 강지훈, 정미영, 최정욱이 노인들이 일하는 집에 들어가 조사를 시작하였다.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부탁하였지만, 모른다고 김영만할아버지에게 부탁하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설화 2편과 지명파 관련된 일화들을 들었다. 자리를 옮겨 송전리 삼거리에 살고 있는 김영한할아버지를 만나 지명설화와 호랑이 잡은 이야기 등 2편을 들었다. 그리고 제보자를 찾아 옮기는 도중에 길가에서 새참을 먹는 어벽우씨를 만나 설화 3편을 듣고, 노인들이 모였을 것으로 여겨 노인정을 찾아갔다. 노인정에는 어봉명할아버지가 혼자 쉬고 있다가, 찾아가자 반갑게 맞아주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설화 2편을 들었고 용인 낚시를 운영하는 송한영할아버지를 찾아가 설화 3편과 산신제 등 민속들을 채록하고 답사를 마쳤다.

임은아 김종선은 이 마을의 민속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는데, 노인정을 찾아갔을 때, 어명철 할아버지를 만나 거북놀이, 산신제 등의 민속을 조사하는 중에 도깨비에 관련된 설화 1편을 채록하고, 이때 김금택할머니께서 노인정을 찾아와 세시풍속과 관련된 민속을 조사하게 되었다. 그리고 김기정할머니댁으로 자리를 옮겨 조사를 하는 도중에 김정숙, 남금숙할머니 등 5분이 오셔서 이야기편을 형성하였다. 여기에서는 혼속, 산속, 상례, 민간치료법, 민간신앙, 속신어, 세시풍속 등을 조사하였다. 이곳에서 오행점에 관련된 말씀을 하다가 김정숙 할머니께서 이야기를 시작하여 4편, 김기정 할머니가 1편을 하여 주었다.

1996년 5월 24일 추가 조사에 임하였던 김민정, 양현영, 원명희는 송전리에 도착하여 우체국 근처에 있는 송전리 경로당을 찾아갔다. 이곳에 손승록, 정진관 등 5분의 할아버지들이 모여 담소를 하고 계시다가

조사자들이 찾아온 목적을 말하자, 손승록할아버지가 ‘이야기를 밤에 해야지’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이어 정진관할아버지가 이야기 5편을 계속하여 주었다.

어비리는 김상구와 서기주가 1995년 11월 4일에 조사를 하였다. 조사자들은 마을이 수몰되어 옮겼다면 동도사를 소개해 주었다. 마을에서 조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조사자들은 동도사를 찾아가 주지인 혜성스님을 통해 절과 관련된 설화 3편을 채록하고 묘봉리로 옮겼다.

1996년 5월 24일에 추가 조사를 한 장상준, 양창훈, 김은미는 장울마을에서 김제춘할머니를 만나 3편의 설화를 채록하였다. 그리고 이종철씨에게 마을 유래 1편과 최월례할머니께 산신제 관련 설화 1편을 채록하였다. 그리고 안재균씨에게 마을개관, 산속, 산신제, 마을의 느티나무와 관련된 설화 1편을 채록하였다. 그리고 점촌마을로 이동하여 강재춘할아버지를 만나 마을 관련 말씀을 하다가 조사를 마쳤다.

묘봉리는 임광혁, 조재현, 은정은이 묘봉 1리에서 조사를 시작하였으나, 마을이 작고 노인들을 만날 수가 없어 묘봉 3리로 자리를 옮겼다. 이장님을 대동하고 농민대회에서 수상한 김학수씨에게 보리타작 노래에 관한 민요와 설화 1편을 채록하였다. 그리고 장소를 옮겨 김영식씨를 찾아가 민속놀이, 산신제를 조사하는 도중에 설화 1편을 채록하였다. 그리고 마을에 있는 묘소나 놀이에 대해 간략하게 조사를 마치고, 한제보자를 만나 설화 2편을, 그리고 문씨할머니에게 효자 관련 설화 1편을 채록하는 것으로 조사를 마쳤다.

어비리를 조사하고 묘봉리로 자리를 옮긴 김상구, 서기주는 상리에서 조사를 시작하였다. 처음 임귀호할머니 댁에서 민간요법, 혼속을 조사하고 이재원씨 댁을 거쳐 신영부씨댁에서 산신제에 대해 조사하고 풍수지리에 대해 들었다. 그리고 임병용할머니 댁으로 자리를 옮겨 산속, 민간요법 등을 조사하는 도중에 설화 5편과 민요 4편, 수수께끼 3편을 채록하면서 조사를 마쳤다.

1996년 5월 24일에 추가 조사를 한 유수영, 하보영, 최문정은 하리의

할머니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시작하였다. 그런데 서로 피하다가 조규숙 할머니께서 이야기를 시작하여 3편의 이야기를 해 주셨다. 장소를 옮겨 묘봉상회를 지나가다가 송상제씨를 만나 이곳의 풍수지리와 관련된 1편의 설화를 채록하고, 성중애할머니를 찾아가 민속, 시집살이, 민간요법 등을 조사하는 도중에 설화 2편을 채록하는 것으로 조사를 마쳤다.

화산리는 김지현, 박유미, 이희정이 조사하였다. 마을 어귀의 밭에서 일하는 주금순제보자를 만나 이야기를 부탁하자, 옆에 있던 부녀회장의 적극적인 권유에 4편의 설화를 구술하였다. 조사자들은 전설을 많이 수집하였다는 정기영할아버지를 찾아갔는데, 설화 5편을 구술하고서 자신의 삼촌 이야기라며 장광설한 사실담으로 이어졌다. 조사자들은 마을의 정자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 3명의 어른들을 발견하고 찾아가 설화 2편을 채록하였다. 나이가 많은 공석형할아버지를 찾아가 채록한 이야기가 단편적인 내용이어서 수록하지 않았고, 논둑에서 쉬고 있는 젊은 제보자를 만나 화산리의 유래를 들었고, 젊은 여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박유중씨에게 설화 1편을 채록하였다.

추가 조사를 맡았던 김숙경, 윤수영, 김미경, 오재나는 1996년 5월 24일에 마을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만나 조사하였으나, 단편적인 마을 관련 대화만 나누었다. 뒤에 김이정할머니를 만나 도깨비 이야기를 비롯한 마을 관련 전설 등 5편을 채록하고 조사를 마쳤다.

시미리는 1998년 5월 22일 오후 5시에 찾아가 마을 입구에 있는 영동상회에서 조사를 시작하였으나 주인은 아는 것이 없으며, 제보자를 연결시켜 주려고 이곳저곳에 전화하여 이형순할아버지를 소개시켜 주었다. 이때 1시간 정도를 조사하여 지명전설 등 설화 6편을 조사하였다.

덕성리는 양여정, 장미화, 허일경이 조사를 하였다. 이들은 73세 된 할머니를 비롯하여 많은 할머니들을 만났지만 민속에 대한 조사만 이루어졌다. 몇 명의 할어머니들이 답소하고 있는 집을 찾아가 민요 1편을 채록하였다. 이곳에서 소개해 준 교회를 찾아가는 도중에 만난 경주김씨에게 민요 3편을 채록하였다. 교회에 도착하였을 때 답소 중이던 5-6

명의 할머니들이 박순예할머니의 중심으로 여러가지 민요와 일본식 노래, 창가 등을 불러 주었는데, 이중에 민요 5편과 설화 1편, 그리고 다 함께 부른 민요 1편을 채록하였다.

추가 조사를 맡았던 이지옥, 진미옥, 최경미는 덕성 1리인 덕성골에 들어가 소진혁할아버지 댁에 도착하여 채록하게 되었는데 창작성 가요 1편을 비롯한 민요 2편과 설화 4편을 채록하고 조사를 마쳤다.

목리는 윤여훈, 김정원이 마당의 화단에서 잡초를 제거하던 정인루할머니를 만났다. 이야기를 부탁하자 심청전을 길게 구술한 뒤,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때 옆에 있던 손녀딸 박소리와 손녀딸의 친구 이승주양에게 설화 3편을 채록하고 장소를 옮겼다. 이홍산 할아버지의 집 안으로 들어가서 민요 1편과 설화 1편을 채록하였고, 나이가 많다는 박기순할머니 댁으로 옮겨 민요 1편을 채록하였다. 정광수씨 댁을 찾아가 정광수할아버지를 조사하고, 뒤에 아내인 이순이 할머니를 조사하여 각기 설화 1편, 2편을 채록하였다. 채록을 포기하고 떠나려고 할 때 만난 사람이 여러 명의 어린이들과 함께 있던 진옥임씨이다. 그는 시원시원하게 시작하여 이야기 2편을 재미있게 구술하였다.

추가 조사에 임하였던 조문정, 김은아, 오유경은 목리의 장봉태할아버지 댁을 방문하게 되었다. 제보자는 짧은 5편의 이야기와 민속에 대해 구술하여 주었다. 이지영씨 댁에서 사실적인 대화 나누고, 김천빈할머니 댁으로 옮겨 설화 1편을 들었다. 그리고 마을 노인정을 찾아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제보자에게 설화와 민요 각각 1편씩을 채록하였다.

천리는 한재규, 장정임, 송미진 조와 강희득 류영선 조가 조사하였다. 우선 한재규, 장정임, 송미진은 노인정을 찾아가 강신덕, 임천용, 정창화, 박래용할아버지 등에게 점심을 얻어 먹으면서 설화 11편을 채록하였다. 민속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던 강희득, 류영선은 천마동아아파트 경로당을 찾아가 부탁하자 대부분 거절하였다. 그중 강신용씨에게 민간신앙과 관련하여 도깨비 설화 1편을 채록하는 것으로 조사를 마쳤다.

서리는 윤석범, 임종오, 주정식이 중골에서부터 조사를 시작하였다.

처음 만난 이정학옹에게 역사적 전설 1편을 채록하고, 김용덕옹을 만나 조사한 ‘사기덩굴’은 홍수전설의 변형이지만 전설적인 요소를 결부시키지 못하여 수록하지 않았다. 이를 이어서 3편의 이야기를 구술해 주었다. 이때 아내인 최갑규할머니가 설화 1편을 구술하였는데 김용덕옹이 중단시켰다. 조현기옹 댁에서 설화 2편과 민요 2편을 채록하였다. 그리고 조사자들은 하골로 이동하여 이윤희씨 댁에서 찾아가 설화 5편과 민요 1편을 조사하였다.

다음은 남사면 조사과정이다.

봉무리는 박은예, 임추자, 정경순이 조사하였다. 조사자들은 이장댁을 찾아가려다가 만난 민인순할머니에게 부탁하자, 흔쾌히 구술하여 주었는데 녹음이제대로 되지 않아 재녹음하였다. 이 때 박인예 할머니가 오셔 설화 1편을 구술하였다. 길거리에서 만난 심이재할머니는 단편적인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 주었으나 1편만 수록하였다.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안용준씨를 만나 설화 2편을 채록하였고, 이장댁에서는 별소득 없이 나왔고, 장영희씨는 처음에 거절하다가 뒤에 음담패설형 설화 1편을 해주었다. 노인정을 찾아가자 7~8명의 노인들이 화투를 치거나 담소를 하고 있다가, 이규동할아버지가 효자 이야기 등 3편을 구술하여 주었다. 노인정을 나와 집집마다 돌아다니다가 만난 제보자가 박봉여씨로 설화 1편을 채록하였다. 그리고 더 마을 안쪽으로 이동하여 교회집사에게 설화 1편을 듣는 것으로 모든 조사를 마쳤다.

한편 정남영, 김지현, 조은이조는 1995년 11월 26일 봉무리에 도착하여 지성해씨를 만나 거북놀이에 대해 듣고, 소개해 준 분을 찾아갔으나 거절 당하였다. 그러다가 유근영씨를 만나 설화 2편을 채록하였는데, 다른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더 이상 채록하지 못하였다. 남사부동산을 운영하는 손병익을 만나 처인성을 답사할 기회를 얻었으나 녹음을 하는데 실패하였다.

방아리는 윤지선, 류수민, 김혜정이 찾아가 방아 2리에서 조사를 시작하였다. 방아 2리의 마을회관에 들어갔을 때는 5명 정도의 할머니들이

답소를 하고 계셨다. 찾아온 목적을 말하자 서로 미루다가 황춘수 할머니께서 수수께끼를 시작하면서 이야기판을 형성하여, 설화 1편도 구술하여 주었다. 조사자들은 마을회관을 나와 이야기를 잘 한다는 정남기 할아버지를 댁으로 찾아갔다. 제보자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았는데, ‘승무가곡노인탄’이란 효행담 등 2편을 구술하고는 사회, 정치, 경제 등의 말씀을 하였다.

추가 조사는 구수미, 최주영, 홍현정이 1996년 6월 9일에 하였는데, 길가에서 만난 할머니에게 조사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찾아간 방축골 노인정에서 쉬던 노인들 가운데 70대의 할아버지에게 설화 2편을 들었다. 한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잘 한다는 정남기 할아버지댁을 소개 받고 찾아갔는데, 점심을 얻어먹으면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 정남기 할아버지는 전년도 조사팀에서 조사한 제보자로 이번에도 설화 1편을 구술하여 주었다. 그리고 김간난 할머니에게 설화 2편을 듣고 조사를 마쳤다.

창리는 김정은, 박미나, 임미연이 조사하였다. 조사자들은 노인들이 모여 있을 마을회관이나 경노당을 찾아갔다. 새로 준공된 노인회관 앞의 놀이터와 현대적 정자에 할아버지 6분이 마포걸레를 손질하며 답소를 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조사하였는데 서로 미루기만 하고 해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야기를 잘 한다는 윤기분할머니를 소개받고 찾아가서, 찾아온 목적을 말하자 콩을 까고 있던 제보자는 망설임도 없이 시작하여 9편을 구술하였다. 마을에 잔치가 있어 그 집의 일을 도와주러 갔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그 잔치집을 찾아갔으나 너무 바빠 채록할 기회가 없었다. 그런 와중에 음식을 준비하던 안순너씨와 이명순씨에게 설화 1편씩과 민속을 채록하였다. 이야기를 잘 한다는 문복남할머니를 소개받고 찾아갔으나, 일을 끝내고 쉬고 있는 중이라며 거절 당하였다. 하지만 조사자들의 끈질긴 부탁으로 설화 5편을 구술하였고, 중간에 안순너씨도 설화 1편을 더 구술하여 주었다. 먼저 만났던 윤기분 할머니에게 설화 1편을 더 듣는 것으로 모든 조사를 마

쳤다.

아곡리는 김영학, 이흥주, 이승훈이 김홍희 할머니댁에서 조사를 시작하였다. 이들은 개인담을 중심으로 조사를 시작하여 설화 1편을 듣고, 유혜순할머니를 소개받아 댁으로 장소를 옮겼다. 이 제보자는 전도사님의 권유로 시작하였는데, 자신의 가문과 관련된 설화를 3편이나 해주었다. 이후로 김홍희 할머니댁으로 다시 장소를 옮겨 민속놀이나 구령이 신앙 행위, 금줄에 관한 것 등을 조사하였으나 이곳에 수록하지 않았다.

추가 조사에 참석하였던 김은미, 김혜진, 김은숙은 1996년 5월 24일에 마을에 도착하였다. 건축일을 하고 있던 권영주씨와 교회 목사인 이상목씨를 만나게 되어 조사하게 되었다. 조사는 권영주옹의 개심한 불효자라는 설화에서 시작하여 이들이 지었다는 애향가와 처용성가의 소개로 이어졌다. 이야기판은 중간에 권영주옹이 설화 1편을 추가하였을 뿐, 이상목 목사님이 주도를 하여 설화 6편을 해주었다.

완장리는 김현미, 김호성, 박미정, 오명희가 맡아서 조사하였다. 이들은 중동 마을을 찾아가는 도중에 일하던 정현태옹을 만났다. 조사에 응해 줄 것을 부탁하자 막내딸이 못마땅하게 여겼는데, 다시 기회를 얻어 이곳의 지형이나 풍수와 관련된 설화 3개를 채록하였다. 조사자들은 매령동으로 이동하여 마당가에서 김치거리를 다듬고 있던 곤점운할머니를 조사하여 불교적인 색체가 강한 설화와 음담패설형 수수께끼 설화 등 설화 6편을 채록하였다.

추가 조사에서는 강아영, 김진영, 이상준이 완장 3리에 도착하여 이장님을 찾아갔다. 이장님이 이곳에 관련된 일화들을 많이 알고 있는 듯하였는데, 마을에 있는 느티나무와 약수터에 관련된 전설형 설화 3편을 채록하고 조사를 마쳤다.

북리는 정도명, 박성수, 윤영석이 당하동에서 조사를 시작하였다. 처음에 이장님댁을 들렀으나 아무도 없어 오후 2시쯤에 다시 들려 이장님에게 나온 목적을 말하자, 지명과 관련된 짧은 이야기 1편을 해주시면

서 노인들을 초청하여 이야기판을 형성하였다. 이장님의 전화를 받고 찾아온 구좌정 할아버지에게 사회적 현상을 비판하는 설화 4편과 마을 농악대와 신발의 변천에 관한 것 등 민속을 조사하였고, 구충서할아버지에게 효도와 관련된 설화 1편과 명을 길게 하는 민속을 조사하였다. 조사자는 삼인동으로 이동하여 마을 입구 큰 길가에서 콩을 까던 유서 구할머니에게 현실적인 이야기와 일본말 노래를 채록하였으나 수록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집 앞에서 벼를 말리던 아주머니들에게 이야기를 부탁하자, 변봉금씨가 먼저 이야기판을 형성하며 설화 1편을 구술하고, 박광희씨가 2편의 설화를 구술하여 주었다. 그리고 슈퍼마켓 주인인 백애현 할머니에게 '저승 갔다온 사람' 2편을 포함하여 3편의 설화를 채록하고 조사를 마쳤다.

추가 조사는 이이랑, 정주희, 허운영이 1996년 6월 1일에 실시하였다. 마을에 도착하여 나이가 많다는 김시황 할머니를 자택으로 찾아가 조사를 하였다. 할머니는 화투치시길 좋아하였는데, 조사자들은 제보자의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 내용이 긴 이야기 2편을 채록하고 조사를 마쳤다.

통삼리는 박은주, 채한일, 윤영배가 조사를 하였다. 이들은 통골에 도착하여찾아간 구명희옹에게 마을과 성씨 등 마을 개관에 관한 것을 조사하였지만, 구비문학을 조사하지 못하였다. 우체국장으로 정년 퇴임한 구자욱옹을 원포 마을로 찾아가 마을 유래와 집안과 관련된 이야기 등 설화 3편을 채록하고 이날 조사를 마쳤다. 조사자들은 11월 11일 통삼리에 다시 도착하여 통골의 느티나무할아버지 댁에서 주인인 이규식씨에게 풍수지리와 관련된 설화 2편을 조사하고, 원포로 가는 도중에 있는 슈퍼 아주머니인 양진숙씨에게 도깨비 관련 설화 등 5편을, 민가로 이동하여 윤정숙씨에게 설화 1편을 채록하였다. 북정마을로 이동하여 느티나무 주위에서 구진희옹에게 느티나무와 도깨비에 관련된 설화 2편을 조사하였다.

북명리는 김희수, 이수철, 최영수가 맡아 조사하기로 되었으나, 용인 시내에 친척이 살고 있다며 조사지를 변경하여 추가 조사에 의지하였

다. 조사는 유대웅, 유현진, 이지아가 1996년 6월 10일에 복명 4리에서 시작하였다. 조사자들은 이웃마을에 있는 처인성과 맹희장군과 관련시켜 전승된 일화들을 채록하였다. 이 조사에서 제보자의 이름을 조사하지 않아, 제보자1, 2, 3으로 설정하여 수록하였다. 제보자1에게 인물전설 2개와 효행설화를 포함하여 설화 4편을 채록하였고, 제보자2에게 구렁이와 도깨비 설화 2편을, 제보자3에게 풍수지리와 관련된 외래설화 1편을 채록하였다.

진목리는 성기도, 윤경애, 최준석이 순지마을이란 진목 1리에서 시작, 동네 사람들의 소개로 약수암을 찾아가 1년 전에 출가를 한 최각스님에게서 불교관련 설화와 파자점장이 설화 등 2편을 듣고 내려왔다. 조사자들은 마을의 노인회관을 찾아가 쉬고 있던 2명의 노인을 보고 이야기를 부탁하자, 화도패를 떼고 있던 기장석할아버지께서 이성계와 관련된 역사 이야기 2편을 구술하여 주었다. 이후 마을에서 새로운 제보자를 찾아 보았지만 실패하고 더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가 없었다.

추가 조사는 김상미, 조정빈, 진미영이 1996년 6월 1일에 진목 2리에서 시작하였다. 조사자들이 찾아가 마을 이장집은 아이가 태어나 문전 박대를 당하였고, 마을회관 앞에서 소개를 받은 원남성이주머니를 찾아가 마을굿 주당물림 세시풍속 등을 조사하는 도중에 놀이와 관련된 유래 이야기 1편을 채록하였다. 계속하여 놀이와 개인담, 거북놀이에 관해 듣고 있을 때, 박에 나갔다 돌아온 김영자할머니에게 이야기 1편과 모심기 노래 1편을 채록하였다.

전궁리는 구비문학을 강경숙, 유흥조, 이은영조가, 민속 부분을 노미선, 박희순, 심계영, 임재영조가 맡았다. 뒤의 조는 민요나 설화 없이 민속만 충실하게 조사하였다. 앞의 조는 전궁리에 도착하였을 때 대문 앞에서 일을 하던 최승림씨를 만나면서 시작하였다. 이곳에서 제보자는 설화 6편과 민요 1편을 구술하여 주었다. 새로운 제보자를 찾아 나서던 중 텃밭에서 마늘심기를 하던 부인들이 있어 마늘심기를 도와주며 이야기를 부탁하자, 김명자할머니께서 이야기편을 형성하여 설화 4편을, 한

이순할머니가 설화 3편을, 그 밖에 민속과 자신의 일생담을 구술하여 주었다. 조사자는 집집마다 다니다가 정순애아주머니를 만나 설화 3편을 듣고 조사를 마쳤다.

추가 조사는 김명주, 박지나, 이재옥이 1996년 6월 1일에 이사를 오는 집에서 조사를 시작하였다. 산신제를 조사한 뒤 점심을 얻어 먹고 나왔다. 걸어가는 두 할머니들에게 인사를 하자, 어느 집 작은 거실로 데리고 들어가 안일남할머니는 살아오는 동안 겪었던 경험담과 민속을 섞어가면서 4편의 설화를 구술하여 주었다.

원암리 조사는 서현민, 양성수, 임공택, 정민희가 여러 명에게 부탁하자 모른다고 거절 당하면서 시작하였다. 조사자들은 밭에서 일하는 정박규할머니를 보고 부탁을 드렸다. 제보자는 수수께끼를 내면서 시작하였는데, 다양한 이야기를 조사할 수 있었다. 주변에 있던 권유순할머니가 2편의 이야기를 하시고, 윤순구할머니가 개인적 경험담을 구술하여 주었다. 정박규할머니는 집안으로 옮겨 1편의 손녀딸 이야기를 제외하고 19편의 설화와 1편의 민요를 계속 구술하여 주었다. 조사자들은 이정원씨를 댁으로 찾아가 설화 1편을 채록하고, 나이가 많다는 이갓난할머니를 댁으로 찾아가 설화 1편과 민요 6편을 채록하였다. 조사자들은 새로운 제보자를 찾아다니다가 이종덕할아버지를 만나 도깨비 이야기 1편을 듣고, 황유순할머니 댁으로 자리를 옮겨 2편의 이야기를 더 듣고 조사 일정을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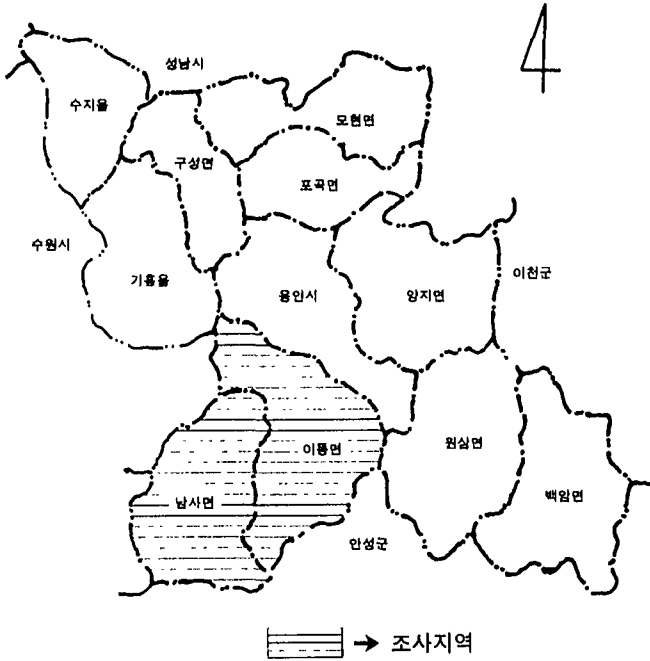
다. 조사자료의 리별 개관

지금까지 조사된 자료의 총수를 리별로 재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이번에 조사된 자료 중에 설화와 민요 등 구비문학으로 범위를 한정하였고, 조사지역도 용인시의 이동면과 남사면 지역으로 한정하여 수록하였다.

	설화	민요	제보자	주요설화제보자(자료수 3편 이상)
송전리	24		10	정진관(5) 김정숙(4) 송한영(3) 어벽우(3)
어비리	9		5	혜성스님(3) 김제춘(3)
묘봉리	16	5	8	임병용(5 민요4) 조규숙(3)
화산리	18		6	정기영(5) 김이정(5) 주금순(4)
시미리	7		2	이형순(6)
덕성리	5	16	7	박순예(1 민요7) 소진혁(4 민요2) 경주김씨(민요3)
묵 리	17	3	10	장봉태(5)
천 리	12		5	박래용(5) 정창화(3)
서 리	12	3	5	이윤희(5 민요1) 조현기(2 민요2) 김용덕(3)
면 계	120	27	58	
봉무리	14		10	이규동(3)
방아리	8		4	정남기(3)
창 리	17		4	윤기분(10) 문복남(5)
아곡리	13	3	5	이상목(6 민요1) 권영주(2, 민요2) 유혜순(3)
완장리	12		3	근점윤(6) 정현태(3) 박윤성(3)
북 리	14		7	구좌정(4) 백애현(3)
통삼리	13		5	양진숙(5) 구자옥(3)
봉명리	7		3	제보자1(4)
진목리	6	1	4	기장석(2) 최각스님(2) 김영자(1 민요1)
전궁리	20	1	5	최승림(6 민요1) 김명자(4) 안일남(4) 한이순(3) 정순애(3)
완암리	27	7	7	정박규(19 민요1) 이갓난(1 민요6)
면 계	152	12	57	
총 계	272	39	115	

※일부 작품은 분량상 제외되었음.

조사지역을 지도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II. 이동면 설화

1. 송전리
2. 어비리
3. 료봉리
4. 화산리
5. 시미리
6. 덕성리
7. 목 리
8. 천 리
9. 서 리

여

백

1. 송전리

1) 마을개관

박종수, 강현모, 감지훈, 정미경, 최정욱, 김민정, 양현영, 원명희, 임은아, 김종선
조사(1995. 11. 4., 1996. 5. 24.)

송전리는 용인터미널에서 버스로 10~15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마을이다. 이동면 면소재지로 직행버스도 멈추기 때문에 교통은 매우 편한 편이다. 그리고 서쪽은 안어고개로 남사면과 경계를 이루고, 남쪽은 70년대 만들어진 이동저수지가 있으며, 동쪽은 산악지대이고, 북쪽에 도립천을 끼고 논들이 펼쳐져 있다.

이 지역은 원래 용인군 하동촌면 지역으로, 옛날에 소나무가 무성하였기 때문에 솔밭이라 하였던 것을 한자어로 고쳐 송전이라 하였다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곳에 갈모처럼 생긴 산이 있어 갈미, 갈산이라고 하였다고 하는데, 미나 되는 모두 산을 뜻하는 것이기에 같은 이름으로 보인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면에서 리로 대체되었다.

이 마을의 안어고개는 많은 이야기들을 간직하고 있다. 이 안어고개는 옛날에 산제당이 있어 산제를 지냈고, 안씨와 어씨의 갈등을 나타낸 고개이기도 하며, 도깨비의 출현지이기도 하다. 이곳의 당제는 10월 초하루날에서부터 보름까지 지냈다고 한다. 그리고 60년전에는 8월 명절에 거북이처럼 도랑이를 집어 쓰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떡을 얻어 먹었던 거북놀이를 하였고, 정월 보름에는 농기 빼앗기인 두레 싸움이 있었다고 한다.

2) 설화

□ 안어 고개

김영만(76, 남/송전리T 1앞
[송전리] 박중수, 강현모, 강지훈, 정미경, 최정욱 조사(1995. 11. 4.)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유도하다가 옆에서 일을 하고 계신 할아버지에게 가서 채록한 것이다. 할아버지에게 옛날 이야기의 중요성을 말하자, 아는 것이 별로 없다고 하시다가 주변의 지명과 관련된 전설이라며 시작하였다. 안성이 고향인 제보자는 옛날에 이것을 수집한 적이 있다고 한다.

여기는 여기 그전 전설이라면 여기 '안어고개'라고 있지. 저기 안어고개.(50m 쯤 떨어진 산을 가리키며.) 안씨라고 안씨, 안씨하고 어씨하고, 그 계리 이리키 서로 시기를 해가지고, 해서 고기서 싸움이 나가주구. (콩깍지 까는 소리가 요란히 들림.) 으음. 그래서 저기가 이름이 안어고개로 됐다구.

저기 저기 저 통밀하고, 저기 저기 하고 저기 통미. [조사자 : 통래요?] 통미. 저기 저 산 똥그라지, 쪼그만 거 있는 거.(턱으로 먼 산쪽을 가리키시며, 계속해서 콩깍지를 까고 계신다.) 그계 통미고. 인제 저기 나가다 보면, 그래서 그전에 거기서 모이를 하고 그랬다는 거지.

[조사자 : 싸울 모이를 했다구요?] 그렇지. 모이를 해가지고 인제 거 안씨네하고 대결이 되가지고, 나중에 지지고 별짓을 다 했다는 거지, 옛날에. 그래서 요기 저 넘어, 저것이 안어고개여.(큰소리로 강조하며) 안씨하고 어씨하고가 그렇게 했다는 것 때문에 그 고개이름을 안어고개로 됐어.

② 도깨비 만난 사람

김영만(76, 남)/송전리T 1앞

[송전리] 박종수, 강현모, 감지훈, 정미경, 최정욱 조사(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호랑이와 마을의 오리재에 대해 말씀을 하다가, 마을에서 귀신에 대해 들은 것이나 본 것이 있느냐고 묻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조사자 : 얼마 전에 들으신 얘기가 두요. 귀신 얘기도 좋구 호랑이 얘기도 좋구.] 그런 거는 몰러. 귀신같은 거 뭐.

그전에는 여기 여 도깨비 불이 있다 그러는데, 다 낭설이여. 여 저기 저 바깥에 물이 차기 전에 논이고 개울이고 있을 적에는, 밤이면 도깨비 같은 불이 번쩍하더니 쪽 가고 그러는 거 있었지? 근데 지금은 그게 사라졌어. 없어. 그걸 도깨비 불이라 그랬는데, 그게 도깨비 불인지 아닌지 몰라두.

[조사자 : 봤다는 사람들도 있구요?] 응. [조사자 : 봤다는 사람들이 있었나구요?] 봤지. 이전 사람들 다 보지. 불 가는 거야 보지. 불이 짝익 나가구 그래지. 그거는 이런 사람들도 다 봐. 옛날엔 그런게 많았어. 어느 고장이나.

③ 송전 마을의 유래

김영한(77, 남)/송전리T 1앞

[송전리] 박종수, 강현모, 감지훈, 정미경, 최정욱 조사(1995. 11. 4.)

조사자는 앞의 제보자 집을 나와 근처를 지나다가 제보자를 만났다. 제보자는 이곳에서 70여년 동안을 살아왔는데, 그 동안 별다르게 전해오는 이야기가 없다고 하였다. 제보자는 현재 손자 손녀와 함께 살고 있는데, 아들이 삼거리에서 서울집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송전리라는 디가 소나무 송자 발 전판데. 옛날 여기 소나무가 많았었
데요. 그래서 송전이요, 소나무가 많다 해서 송전이구.

저기 저 안어, 안어고개, 안어고개가 여기 고개가 안어고개저던. 그
오산으로 나가는 고개가. 그래 이 안씨하고 어씨하고 많이 살었기 땀에
안어고개라 그러는 거여. 그거만 알지 다른 건 뭐.

[조사자 : 안씨하고 어씨하고 왜 싸웠습니까?] 아니 많이 살었다구.
[조사자 : 많이 살었다구요?] 으응. 많이 살었다구 해서 안어고개라구.

4 호랑이를 잡은 사람

김영한(77, 남)/송전리T 1앞

[송전리] 박중수, 강현모, 강지훈, 정미경, 최정욱 조사(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친 후에 마을에 어씨가 많은 이유를 묻고, 다시 호랑이에 대해 묻자
해 주신 이야기이다.

[조사자 : 옹기장수 같은 거나, 옛날 뭐 선녀와 나무꾼 이런 얘기 있
지 않습니까?] 이 동네는 없구. 저 여기서 한 삼리 가면 묘봉리라구 있
어. [조사자 : 묘봉리요?] 묘봉리.

묘봉리라고 있는데, 옛날에 그 에 경삼이란 분이 호랑이 잡었던 얘기
는 있으유. [조사자 : 경삼이요?] 에 경삼. 김경삼. [조사자 : 그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그(헛기침) 하루는 에 칩을 따러 갔는데, 칩(헛기침), 하
칩이 엄청 많더래요. 그래 저 칩을 뜨니까는, 어 저 그냥 호랑이가,
“어흥!”

하거던. 그래 거기 새끼를 쳤던 모앵이라. 근데, 그 옛날엔 조선낫이라,
무서운 조선낫. [조사자 : 예 조선낫이요?] 응. 조선낫. 인저 조선낫을 들

고 인저 침을 뜨는데,

“어흥!”

하고 덤비니깐 냅빠-, 응 뛰어 갈꺼 아녀, 인저 사램이. 뛰어가니깐 큰 낭떠러지가 있는데, 골짜구가 패가지구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리 쟁청 떠내려야 호랭이란 놈이 와서 덤치더라. 덤치니까 이 그 조선낫을 들고 냉겨쳤데는 거여.

그래서 그냥 정설이가 꽃혔다는데. 그 호랭이가 울메나 세고 사람도 울메나 센지, 낮이 비비 틀러가지고 부러졌다는 거여. 잉 꽃친 체. 그래 고서 사람은 사람대로 오고, 또 호랭이는 호랭이대로 내빼고. 인저 그 호랭이가 그 골짜구니 우가 미리내 앞산이거던.

[조사자 : 미리내요?] 미리내 앞산. 거기가 에 두 달을 ‘어흥’ 거렸다 든가 석 달을 ‘어흥’ 댕다든가. 죽겼으니까. 꽃혔으니까 쇠가. 그렇게 한 달을 ‘으르렁’ 거리다가 없드라. 그래가지고 그 좃뜨는 자리 와서 죽었 드래. 그 얘기밖에 몰라. 다른 건 뤄.

5 송전에서 태어난 어탁주

어벽우(38, 남)/송전리T 1뒤

[송전리] 박종수, 강현모, 강지훈, 정미경, 최정욱 조사(1995. 11. 4.)

조사자들이 앞의 이야기를 듣고 장소를 옮겨 조사 나온 이유를 설명하고 부탁하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게 여기 뤄, 여 안어고개에 대해서 저 그것 백에 없는 건데요.(조사 내용 상관없는 대화 생략.) 제가 아는대루 애길하게 되면은, 그 옛날에 그 어윤정이라는 그 어탁주 있죠. 역사책에 나오는 어탁주. 어탁주가 고향이 여기예요.

여기 송전에 인자 어씨가 많이 살고, 어씨하고 안씨가 많이 살았었는데, 그래서 이 고개가 안어고개라는 이름을 그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인저 여기 대부분 안씨하고 어씨가 많이 살죠.

근데 이제 저 당파 싸움으로 어탁주래는 사람이, 예 충주 가다가 예 그 역적, 그러니까 저 어윤쟁이가 옛날에 그 역사에 저기하면 역적으로 몰리게끔 돼 있었어요.

그래가꾸 인저 피신을 해는데, 그 옛날에 여기서 저 가마를, 예 그 어탁주래는 그 사람이, 그 그래서 지금의 말로 군수 직위를 갖고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신부, 그러니까 옛날에 그 신부 가마 행세를 해구서, 여기서 하루 저녁 자구 인저 절루 피신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그때 당시에 그 간신이라고 그러지, 옛날에. 간신이라는 사람들이, 여기 인저 국터래는 데서, 어탁주 그 저기를 작대기루다 그 찢러 죽인 그러한 유래가 있구요. 여 송전리래는 데가. 그리구 송전리에 어씨가 많이 사는 거예요.

⑥ 송전리와 이동면의 유래

어벽우(38, 남)/송전리T 1뒤

[송전리] 박종수, 강현모, 감지훈, 정미경, 최정욱 조사(1995. 11. 4.)

앞의 어탁주의 이야기를 마치고, 어씨가 많이 살게 된 이유를 말한 뒤에 송전과 안어고개에 대한 사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동면이 생긴 유래에 대해 구술하여 주었다.

그 다음에 인저 여기 여 송전리라는 데가 옛날부터 소나무가 많어가 지구 송전리 된 거고. 예 소나무 송자 밭 전자 그렇게 된거죠. (중간부분 생략)

이동면이 왜 이동면이 됐느냐 하면은, 이게 두 개 동이 한 면이 된

거여. 아고 이게, 무슨 저 삼. 지금도 이 이동면이 에 옛날에 거 상부하고 하부하고, 지금도 옛날에 저기에 대해서 트러블이 많잖어. 그래서 상하부를 많이 따져요, 지금도. 게 두 개 동이 한테 합쳐서 이동면이 된 거예요 여기가.

7 효자가 잉어를 구한 도림천

어벽우(38, 남)/송전리T 1뒤

[송전리] 박종수, 강현모, 강지훈, 정미경, 최정욱 조사(1995. 11. 4.)

앞의 이야기에 이어 이곳의 지명과 관련해 송전천이 아니라 도림천이라고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도림천이 된 유래가 담긴 효행담을 구술하여 준 것이다.

거 여기 저기 도림보에 대해서 또 애길하게 되면은, [조사자 : 도림보요?] 예. 그게 인제 저 거기 인제 저 다리가, 이 송전천이라고 이렇게 되 있는데, 이게 송전천이 아니예요. 도림천이라고 도림천.

그 옛날에 역사 저기에 보면 도림천이지. 그래서 여기가 도림뜰이라고 하는 데요, 여기가. 여기 저기가 도림보가 있는데. 거 도림천을 막아서, 다리는 놓은게, 송전천이라고 썼는데, 저것두 잘못된 거예요 예 이름을 찾게 되면 도림교로 바뀌야 되는 거라고요.

[조사자 : 도림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도림이라고 옛날부터 거 내려 왔던 저건데. 그래가지고 여기가 도림보라고 그 옛날부터 보를 막아서 농사를 쪼던게 인자 그 도림이예요. 그리고 옛날 책을 보면 도림천으로 나와 있다고요, 여기가. 도림천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뭐 이 다리를 놓거나 그러며는 뭐 다리는 뭐 송전교라고 그렇게 써 있는데. 저기에도 거 이름이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도림보라는데 옛날에 그, 근가 효자가, 그 어머니가 그 잉

어를, 겨울에, 잉어를 먹고 싶어서 하는데, 이 겨울에 이 잉어하고 대추가 어딴어요 어 그래갖고 인저 이 옛날의 그,

“대추하고 잉어하고 먹고 싶다.”

고 그래서 이 자식이, 이 도림보에 가서, 에 도림보를 딱 가니까, 이 어름이 갈러지면서 잉어가 튀어나왔다는 거여, 그 보 안에서. 그래고 거기서, 인저 어 겨울에 대추가 그 3알이 달려 있었고, 거기에. 그래서 인제 그 옛날의 그런 유례가 여기 있죠.

저 위 요기 가시며는, 그 정문에 그 효자에 대해서 거 이렇게 죽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거 읽어 보시면은, 고기에 도림보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와 있고 근데 저 그렇게 되 있어요 여기 여기 가시면 요기에. 이쪽으로 쪽 가시면, [조사자 : 주유소 있는 쪽으로요?] 예.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거기 그계 되 있어요.

⑧ 겨울에 잉어를 구한 효자

어명봉(80, 남/송전리 T 1뒤

[송전리 경로당] 박중수, 강현모, 강지훈, 정미경, 최정욱 조사(1995. 11. 4.)

길가에서 점심을 얻어 먹으면서 이야기를 채록한 뒤 동네의 노인정을 찾아갔다. 그곳에는 제보자 한 분이 계셨는데, 도깨비에 대해 묻자 이야기를 안 해 봐서 모른다고 하였다. 효자 이야기를 묻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조사자 : 여기 왜 효자문이 있다던데요, 여 위에요. 그 얘기 모르십니까?] 몰려. 그 여 그저 효자문은, 그 잇날에 참 부모가 편찮으셔서 앓으셨거든. 편찮아 앓으시니까 근데 뭐라 하느냐면, 그 동지 선달에,

“잉어를 잡수면 낳는다.”

해서, 동지 선달에 그때 잉어를 어디가 잡아? 지금은 잉어가 흔하지만. 그런데 왜 참 어떻게 구할 도리가 없는데, 부모는 그걸 또 잡수고 싶어

하시고 그런니까 이걸 얼음판에 가서, 이런 내갈 얼음 언데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어.

“부모님이 이렇게 편찮으신데, 잉어를 잡수코 싶어서 하시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 내가 와서 기도를 드리고 있으니까, 하느님! 그 저 잉어가 나오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드렸단 말여. 그런게 거 참 몇 일 몇 날을 드렸던지, 무릎을 꿇고 드리니까 얼음판이 쪽 찢개지면서 잉어가 글로 그냥 벌떡 뛰어 올라 오거던. 거 인제 갖다가 그걸 참 부모한테 보양을 해서, 부모가 그걸 잡수코 나왔단 말이어.

그런까 그게 그래서 그 효자 정문이 있었어. 거기서 그 효자 정문어. 인제 그 효자가 당대도 아니고 3대가 그렇게 효자로 내려왔어. 그래 그 효자 정문을 세운 거거던. 그렇게 된 역사가 그렇게 된 거야.(웃음)

9 지혜로 살아난 사람

어명봉(80, 남)/송전리T 1뒤

[송전리 경로당] 박종수, 강현모, 감지훈, 정미경, 최정욱 조사(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제보자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부탁하려고 하자, ‘자꾸 하면 어떡 허.’ 하면서도 흥미를 느끼며 구술하여 주었다. 이 이야기는 역사로 내려오는 이야기라 한다.

[조사자 : 그 외에 또] 또 자꾸하면 어떡 허. 인제 이렇게 그전에 옛날에는 살기가 어려웠어. 지금보다는 참 살기가 어려웠지. 대개 첫째 배가 고파. 그러니깐 거 참 예 들어 이우지서 어려운데, 저 북만주 벌판으로다가 돈을 벌러 갔거든. 그래 거 가서, 만주 가서 돈을 벌어서, 그러저럭 몇 해가 됐는데, 돈을 참 많이 벌었어.

근데 한 사람은, 한 친구는 술을 먹어서 자주 내빠리고. 한 친구는 돈

을 모았던 말이야, 많이. 그 인저 자기만, 같이 이우지서 갔다가 자기만 올 수도 없는 거 아냐. 먼 데다가 따 놓고 그러니까 뭐라고, 돈벌은 친구가 뭐라고 하느냐면.

“여보게! 가세.”

“아! 자넨 돈을 벌었지만, 나는 돈을 벌어서 다 술 먹어 내뺐었으니 어떻게 가느냐?”

고 인저 그럴 거 아냐,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돈을, 그럼 노자돈을, 가는 거는 대 줄테니 같이 가자?”

구. 그래 이걸 데리고 나오는 거지. 나오는데 이젠 그 전에는 차도 읊고, 그러고 뭐 비행기가 있나 뭐 있어. 그래 걸어가는 거여, 그냥.

에- 걸어가는데, 오다가 이 저 돈 읊는 녀석이 산꼐짜기 내려 오다 거들랑 기운이 신데, 그냥 빨개 뺏기네 그냥. 그 친구를 빨개 뺏기고설랑 돈도 다 뺏어. 그래 빨개 옷을 뺏기는 것은 왜 뺏기느냐 가다 얼어 죽으라고 허 눈이 이렇게 썩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돈도 다 뺏기고, 힘이 약하니까. 옷도 그냥 흘랑 벗고 이러구선 들고(계속) 뺏어. 그냥 거기 섰으면 죽어. 앉던지 하며 빨개 뺏었으니 배겨, 추워서. 그래 들고 뛰어 운동을 하니까는 몸에 서 열이 나지, 그냥 더워서.

그래 어디를 한 동안 뛰다 보니까, 참 산꼐짜기니 언덕 밑에 중국 사 램이 하나 죽은게 있, 자빠졌어. 그래 그냥 가만히 보니까, 그 오바를 입고서 죽어서, 그 오바를 뺏겨서 입고 집이를 왔단 말여.

그 집이를 와설랑은 이제 집안 식구들이 뭐라고 하면은, ‘아 왜’ 인저 이우제 그 친구의 안식구도 찾아왔지.

“아! 우리 식구는 어째 안 오느냐?”구.

“아 식구, 그 사람은 돈 더 벌어가지고 온다고, 나만 벌어가지고 이렇게 왔다고 아 나오자고 해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 사람은 나 혼자 따 놓고 왔는데.”

아 그 그집은 돈이 있어. 그러니까 돈을 죄 빼졌지. 그 사람은 죽은

줄만 알았지, 그 녀석은. 그냥 하 돈 벌어가지고 집안 식구하고 보양하며 잘 살거덩. 아 그래 이 사람이 그냥 죽은 줄 알았더니, 아 참 그 오바, 중국 놈의 오바를 입고 왔으니까 살아왔단 말여. 와설랑 저녁에 인저 부인보고 무슨 난 돈을, 그런 얘기는 안 했어. 안 해고.

“이 옷을, 이걸 내가 중국 사람의 옷을 입었는데, 이걸 갖다 불에 태워라.”

그랬거든, 부인보고 태우라구 인제 그러니까, 부인이 그래도 그 소리를 알 수 없으니까, 한 편 짝을 뜯어 봤어. 이렇게 뜯으니까, 그래 전부 숨같이 그런 돈을 누볐거든. 돈을 그냥 잔뜩 느껴 숨같이 해서 오바를 해 입은 거여.

그런게 븐(번) 돈보다 그게 더 많단 말여 그냥. 그래니까 더 잘 살꺼 아녀. 다 살고 인제 그렇다는 얘기여. 그 사람은 기가 맥히지. 그 친구가 죽었을 줄 알았는데 왔으니. 그 여간 기가 맥히졌나. 저것 탄로는 날 티고. 그래도 이 사람이 탄로 안 하고, 그냥 그 돈 가지고 잘 살다가 어끄저께 죽었데요.

인제 그만 혀요, 학생들.

10 타살된 어윤중 대감

송한영(76, 남)/송전리 T 1뒤

[송전리 용인뉘시] 박종수, 강현모, 감지훈, 정미경, 최정욱 조사(1995. 11. 4.)

조사자는 어명봉 할아버지의 조사를 마치고 다시 뉘시터 근처에 나왔다가 용인뉘시에서 제보자를 만났다. 제보자는 잠을 자다가 이야기를 부탁하자 언변도 없고, 구술할 줄도 모른다고 하면서도 역사적 실화라면서 이야기를 구술하여 주었다. 원래의 고향은 화성군 마산포가 있는 곳으로 국민학교 3학년때에 이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고 한다.

어 근데 그 우리나라 역사의 한 페이지요. 역사 한 페이지. 그것이 뭐

냐면 응 김옥균이 그 반란 그계, 요즘 요세로 말하면 계획이지. 그렇잖아. 김옥균이 그 당시에, 어택기 이 대신이 뭐냐면, 지금으로 치면 저 재정부장관이야. 재정부장관이야. 그 분이 어택기라고, 어운중이라고 그 분이 여기 분이예요.

여기 분인데 3일 천하가 되니까, 그 분이 예 피신을 해야했던 말이야. 피신을 해야겠어. 그래 그 분이 뭘 했냐면, 예전에는 소위 점술과 마찬가지로 술이점이라는 점이 있었어요. 점. 술이점으로 이 이렇게 몇 잎을 쥐어가지고 점을 치는 점이 있었는데. 그래 가만히 보니까, 예 정변이 났으니깐 자기 신변이 위협할 것 아니야. 예 자기 점을 자기가 스스로 보는 거야.

“아 내가 이 시간을 피해야지만, 만일에 이 목숨을 건지지. 그렇지 아니하며는 내가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여기가 고향이거든. 여기를 왔어요. 그래 여기 와 가주고서, 또 못 믿어가지고 또 다시, 그계 뭐냐면 자기 신변이 위협하고, 자꾸 위어서 잡으로, 포졸들이 잡으러 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또 점을 또 쳤다 그거야. 점을 쳐보니까, 을 해지기 안에 여 개울 있잖아, 개울. 개울이 있는데, 개울 섭을 지나서 장서리란 데를 지나가야 자기가 살겠더라 그거야.

[조사자 : 장설이요?] 장서리. [조사자 : 장서리요?] 장서리. 긴 장자 서양 서자 장서리라고. 여기 요 개울이 있는데, 양송면하고 이동면하고 경계. 안성군하고 용인군하고 경계.[청취불능] 이제 고기를 지나가야 하는데, 그 분도 이제 보통 평인이 아니고 하니깐, 예전에 요요라고 이게 가마야. 가마를 타고 어깨에다 걸러메고, 네 사람이 메고 가는 거야.

가는데 그걸 알고서, 여기 순흥 안씨네들. 응? 순흥 안씨네들이 그거를, 낚새를 알고서 목소에 자고 있다가설랑은 그냥 가마채(째) 모두 작살을 했다고. 그래 인자 타살을 했어요.

그러한 그 그건 실지야. 실지 이 김옥균이 반란 내가지고 3일천하 당시지. 저저 그때 그 분이 거기설랑은, 요새 말하자면 순직을 헌거지. 그

래서 이 고개 이름이 안어고개여. 안어. 안어고개라고 안씨하고 어씨하고, 그래 안씨하고 어씨하고는 그 당시에는 혼인을 안 했어요.

서로서로 뭐냐면 대치되는 이런 상황이라. 그래서 그것이 한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그런게 있어, 여기에. 안어고개라고 여기 요기 가다보면 안어고개 정문도 있고. 그런 일이 있어요. [조사자 :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 우리 고장의 한 실화여. 이조 시대에.

㉑ 임금 앞에서도 굽히지 않은 송시열

송한영(76, 남)/송전리T 1뒤2앞

[송전리 용인낙시] 박종수, 강현모, 감지훈, 정미경, 최정욱 조사(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또다른 이야기를 부탁하자 쓸데없고 이치가 맞지 않는, 믿을가지 않는 것을 무엇에 쓸 수 있느냐고 말하였다. 그래서 조사자들은 ‘믿지 않지만, 부모에게 잘 해야겠다.’고 마음먹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 묻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조사자 : 어르신께서 얘기 혹시 아시는 거 해 주시면은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 책을 만들어서 낸다든지 그러면 그걸 들으면 아이들도 믿진 않지만, ‘아 나도 부모님께 잘 해야겠구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효자 얘기라는 거는, 으 요 근처에는 뭐 그런 거 없고.

우리 선대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선대에 있는데, 우리 선조가 어 다 알다시피 노론에의 재상이 송시열씨라고 우리 선조여. 그 분이 은진 송씨인데, 그 당시에 그 분 송시열이, 이 분이 송시열이 원래 숙종 때 분이거던, 숙종 때 분이야.

근데 그 분이 뭐냐면 사부야. 사부라는 것은 지금 임금님의 자제를 가르치는 분이 이 송시열이야. 근데 그 분이 한 대만 가르친 게 아니야. 임금님의 인제 자손을 가르쳤잖아. 이 자손이 또 왕이 되가지구 또 낭단 말여. 그러면 이 자손을 또 가르쳤어. 그러니까 뭐 언제까지나 사부

지. 아주 절대적인 존재지.

그런데도 워낙 꽃꽂해여. 이 송가라는게 고집이 세고, 불의라면 그냥 노코멘트하는 게 아주 송가야. 지금같이 그냥 얼렁얼렁하고 그냥 넘어가면은 후세에 좋고, 와료(뇌물)도 먹고 현대, 그런 게 읊어. 그 왜 그러냐 하면, 실례로 왕비가 저기 돌아갔어요 왕비가 돌아갔는데, 이 뭐냐면 우리 정비가 아니라 후실이다 이거여. 정비라는 건 좀 첫번째 부인이 돌아갔기 때문에, 인제 그 다음에 오는 분이 정실이 아니라 후실이 거던. 후실 돌아갔는데 대신들이 아침 하느라고,

“후실도 정실같이 3년 상을 모시자.”

고 그랬다구. 그러니까 송시열씨가,

“안 된다 말이여. 우리 국법에 이런 일적이 읊단 말이여. 으 후실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나 후실이기 때문에 1년상을 해야 한다. 그래가지구 탈상을 해야 한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탈상을 이 1년을 하면 우리가 옷을 맘대로 벗어놓고, 이러면 이런 것도 벗어놓고 맘대로 일을 할 수 있어도 3년지 간에 그것 흰옷에다가 이것 쓰고 땡기면서 거기 가면은 지사를 지내고 허면, 경제적으로도 그게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여. 근게 우리 국법은 어겨선 안 된다.(Tape2 앞에 계속) 음 그래 인제 저 자기는 신명을 다 받친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국법이니까, 국법을 잃게 할 수가 읊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저 소론파들이 안 되것으니까 노론파를 싸슬이 했잖어. 그래서 어디루 귀향을 보냈냐며는 이 아래 전라도로 귀향을 보냈어요. 귀향을 보내가지구, 그것도 또 못마땅해 여겨가지고, 나중에 귀향살이를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설랑은 사약을 보내가지구선 그걸 사살시킬려구 했는데.

이 분이 벌써 그것을 알구선, 될 했느냐면 자기가 눈 소변을 계속해서 마셨어요. 자기가 눈 소변을 자기가 마셨다구. 그게 왜냐면, 이 위 점막에 가설랑은 염분이 누적이 되가지구선. 그 독약이 들어가도 그냥 씻겨 내려가. 그냥 씻겨 내려가지, 돌아가진 않는단 말이여. 야. 그러니까

그게 약사밭 가져온 사람두, 그 약사밭을 하나밖에 안 가져 왔는데 그 걸 다 먹구도 안 돌아가니 그걸 어떻게냐 이거여. 타살할 수는 읍구. 그 때 그대루 가서 중앙정부에 고했다구.

“그러냐!”

구. 이제 그 다음에 가서 또 약사밭을 또 내려 보냈어요. 그러니까 송시 열씨가,

“내가 시운이 다 됐구나! 응. 내가 내 몸을 이 이상은 더 지켜봐야 소 용이 읍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사람이 읍구 인제가 읍다.”

그래가주구 어떻게 했냐면, 그 분이 이 이 항문을 열면 쇠 내려가는 데, 항문을 오무렸어요, 이렇게. 항문이란게 활약근이 있어 가주구 요렇게 요렇게(손가락으로 모양을 만들면서) 돼 있는게 활약근이거던. 이렇게 이렇게 열면 쇠 내려가는 건데, 이 오무리니까 여기 독이 퍼져가지구, 이 아래 있는 소장 대장 내려가주구선 거기 돌아가셨어.

돌아가가주군 몇 대후에는 요새 마찬가지로 육군 대장이 쫓병되었다가, 다시 인저 복구해가지구 육군대장 된 식으루, 몇 대 후에는 다신 작위를 줘가지구 영의정을 시킨 거거든. [조사자 : 돌아가신 후에요?] 돌아가신 몇 대 후에. 근께 그 분이 쓴 장소가 어디냐면, 충청북도 청산군 청산면 봉황산 으 거기 모셨어요.

⑫ 엉터리 지관

송한영(73, 남)/송전리T 2뒤

[송전리 용인낙시] 박중수, 강현모, 강지훈, 정미경, 최정욱 조사(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이곳에서 행하는 세시풍속과 놀이에 대해 물어보자, 이 마을에서 행하는 산신제에 대해 말씀한 뒤에 구술하여 주었다. 제보자는 이곳에서 태어나 살다가 중간에 논을 팔아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고 하였다.

[조사자 : 영터리 지관 때문에 일어난 일이나 얽힌 얘기 같은 거 있어요?] 영터리 지관이라면 이런 얘기가 있어. 에 동네 초상이 났으니까, 인자 명지관은 돈이 들어가니까 못, 못 모시잖어, 인제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아무게나 끌어다가 쓰지, 뭘 그래?”

인제 그 사람이 와서,

“여기 파라, 저기 파라.”

해가지고서 인제 파설랑은 장살 지내는데, 진짜 그 집안 내에는 배운 사람들, 지술 배운 사람 있고. 지관 중에, 초상난 집안 중에 가족이 아니라, 집안 중에 그러니까, 문 문중이지. 문중에서 와서 조상을 왔으니것 아니여.

조상을 왔으니까 집 장사 지내는 현장에 가 보니까, 이거를 배운 사람들이라 이거여. 배운 사람들인데 와 보니까, 아 이것 뭐 안개라는 것이 있어. 안개라는 이렇게 놓고설랑은 요것 놓고서 허는게 있어.

그것을 놓고서 이렇게 보니까, 아, [조사자 : 녹수요?] 아니 안개라고 놓고 보는게 있잖어. 안개를 놓고 보니까, 아니 뼈뼉하게 낫단 말여, 방향을. 방향을 뼈뼉하게 낫어. 그래 아무리 봐두 틀렸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읊어가주구. 그 지관하고 상주한테다가,

“여보!”

그래 인제 쇠라는 게여. 쇠. 똥그란 거. 그게는 동서남북 가리키는 거 그거거든. 그것을 놓고설래, ‘여보!’ 자기도 주머니에서 그걸 빼서 놓고서,

“이걸 보오 이게 안개가 이게. 여기가 형이 뭐냐면, 어 방향을 뭐냐면 뭐라고 허드라. 저 무슨 좌향, 무슨 좌향으로 봐야 하는데, 왜 좌향으로 그렇게 놓오?”

그 영터리 지관이, 그걸 카바하기 위하여, 격기 위하여 그냥 씀을 내는 거여. 일부러 씀을 내는 거여. 웅 그 자기 게 신분을 노출 안 시키고 돈을 벌기 위해서.

“여보! 그게 말이 되오 응 말이 되오 그걸 이렇게 이렇게 뇌야지, 만 일에 내 말을 안 듣고설랑은, 이분들의 말을 들어설랑은 장사 지내면 당신네 어 댕 식구가 죽어. 영.”

이게 엉터리라 이겨여. 엉터리. 이게 그러니까 아 상주가 그러잖어두 자기 조상이, 아 부모님이 죽어설랑은 애통하는데, 또 죽는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랴. 그러니까,

“알았다구. 알았다.”

구. 그러면. 그 집안내 가져오신 진짜 배운 지관더러, 아이 아저씨라든지 할아버지라든지,

“그냥 모르는 척 하세요 저 지관이 하자고 그러니 그대로 쓴다.”

구. 어 그렇키 모시는 게 엉터리 지관이야. 그게 엉터리 지관이야. 그게.

13 도깨비 일화(1)

어명철(77, 남/송전리T 3앞)

[송전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이응준, 임은아, 김종선 조사(1995. 11. 4.)

조사자들이 마을에 도착하여 노인정이 들렸을 때 홀로 계셨다. 그래서 민속에 대해 묻자 이것저것 이야기 하는 도중에 도깨비에 대해 구술하여 준 것이다.

밤새도록 끌고 대니는 거야. 그래 집을 못 찾지. [조사자 : 그게 진짜 도깨비예요?] 응. [조사자 : 우물에 뭐 눈이나...] 눈에 인자 얼리는 것지. 그래 얼려서 쫓아다니다가, 그 인제 거븐 다 와서, 근데, 나 하 상진, 남자가 똥을 누우는 것을 도깨비 흘렸으니까, 사람인지 안 보고. 아 이놈이 이 여기 와서도 철경 밭길로 차고 보니까, 자식 사람이드랴.(웃음) 그런 저기도 있어.

그래 이런 것은 흘린 건, 허하면 그런 거여. 그래 인자 도깨비이란 게

이전 얘기로는, 그게 워낙 도깨비가 구신이 아니고, 사람 손에 그 뭐 좀, 거기에 피가 나오잖아. 그래 저 빗자루 같은 거나 이 도리쟁이도 사람이 쓰잖아. 이 피칠한 게 인자 그게 저기 해가지고 그 그게 인자 도깨비 노릇을 했다는 거여.

그래서 장력 센 사람이, 하이 뭐 도깨비에 끌려 다니니까, 녹아버린게 혈 수가 읊어. 잔뜩 껴 안고서 이놈을 끈을 저기 해가지고서, 허리띠를 끌러 가지고서 나무에 잔뜩 붙들어 매 놔거든. 잔뜩 붙들어 매고서 이놈의 도깨비 어떻게 됐나 한다고 아침에 가 보니, [조사자 : 누가요?] 그 사람이. 인저 붙들어 맨 사람이.

그 도깨비를 잔뜩 붙어 맨 거여. 그래 가 보니까, 아무 것도 아니고 도리쟁이 장치여. 인저 보리타작 할 때, 그 이 쓰는 도리쟁이, 도리쟁이 장치에 인자 피가 묻어가지고 그 그렇게 됐어. 예전에는 그렇게 저거 했다는 거여. 그러니 도리쟁이 장치만 바짝 붙들어 댔다.

14 이인 아들로 대맹이를 면한 사람

김정숙(69, 여)/송전리T 3앞뒤

[송전리 김기정할머니댁] 박종수, 강현모, 이웅준, 임은아, 김종선 조사(1995. 11. 4.)

김금태 할머니가 노인정에 왔다가 김기정할머니댁을 소개해 주었다. 김기정 할머니께 세시풍속에 대해서 여쭙어 보고 있을 때 남금순할머니와 함께 온 제보자는 세시풍속에 대해 여러가지를 말씀하여 주었다. 아래 이야기는 조사자가 '호랭이 잡은 조흥' 이야기를 먼저 말씀 드리자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주었다.

옛날에 어떤 집에 할아버지가 있었는데,(이상은 녹음하지 못함) 아들을 늦게 낳았어. 늦게 낳는데, 그 아들이 잉 일곱 살인가 그랬어. 그랬는데 그 할아버지 친구들, 친구들도 많알 것 아니여.

그런데 셋이, 3인의 친구가 제일 친절했거든. 친절했는데 그 양반네들

이 어떻게 했느냐면, 말하자면 이 그 엉뚱한 나쁜 짓을 해가지고 재산을 모은 거여. 다. 싹이 다. 똑같이. 재산을 모아서 부자로 살어.

부자로 사는데, 이 한 사람의 그 할아버지 그 그러니까, 그 사람이 늦게, 아들을 낳은게 7살이 됐는데, 한 할아버지, 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 돌아가셨는데, 그런게 할아버지라고 그러나, 뭐 아저씨라고 그러나. 돌아갔는데, 그 양반 돌아가신 뒤에, 예 그 7살 먹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 보고,

“아버지! 오늘 조상 가실 거 아닙니까?”

그랬어. [조사자 : 조상요?] 그러니까 친구가 죽었으니까 가야지. [조사자 : 아, 예!] 가서 산에도 가고 갈 꺼 아니여. 그런게 회장도 가고 그러니까,

“여하 간에. 예 조상 가실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가야지. 왜 그러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시거든, 그 산소를 파는데, 산소를 파는데, 그 할아버지, 그 들어가실 산소를 파는데, 산소 안에 구멍이 셋이 뚫렸습시다 이 말이여. 뽕뽕 셋이 뚫렸을테니 거기를 자세히 보고, 보시오.”

그런 거여. 그래 아들보고, 괜한 소리인 줄 알고,

“별놈의 소리를 다 허네.”

인제 아들보고 그러고 이 노인네가 조상을 갔어. 그 돌아가신 데를 갔어. 갔더니 아닌게 아니라 하관사에 이렇게 해서 보니까, 그 구멍이 안에 구멍이 셋이 뽕뽕 뚫려 있어. 아 그런데 보니까는 신체가 대명(큰 뱀)이 되어가지고 그 구멍으로 들어가느냐고 기냥 피를 흘리고, 그냥 들어갈라고 애쓰고, 들어가드라 이거여. 그 아버지 눈에. [조사자 : 그 헛것 보인 것처럼요?] 그렇게 실지로 그 사람 눈에 보인 거여. [청중 : 아버지 눈에만 보인 거여.] 응. 그 아들이 그걸 보라고 그랬는데, 미친, 인제 그 7살 먹은 아들보고, 그냥 귀밖으로 들었어.

“무슨 구멍이 나니, 이놈아!”

그러고 갔어. 그랬더니 가서 실지에. 하관시에 잘 보니께는 구멍이 셋이 뚫려 있어. 그런데 그 밑에 구멍으로 그냥 그 시체가 대명이 돼 가지고 들어 가느냐고 그냥 피를 흘리고, 그냥 그렇게 간신히 애쓰고 들어가드라 이거여. 그래서 불과 아들놈이, [청중 : 대명은 큰 뱀을 갖다가 대명이라고 그러는 거여.] 응. 아들놈이.

옛날에 애들이 7살만 돼도 이인이거든. 이인이 많았거든. 이 천지를 통해가지고 이인이 많아, 앞날을 내다보고 일어날, 사람이 많았다 이거여. [조사자 : 위인요?] [청중 : 이인] [조사자 : 아! 이상한 사람요?] [청중 :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옛날에는 우리가 알기 쉽게 말하자면, 응 어린애들이 일곱 적에는 이제 뭔가를 인제 말할 적이.] 이인이 알았지. 이인이나 [청중 : 어른 말하기 쉽게, 지금으로 말하자면 무당, 만신 이런 절 그 사람들은 아는 사람이 많았(다) 이거여.] [조사자 : 아! 옛날에는요?]

그래서 애들이라도 벌써 높은 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인이거든. 천지를 통허기 때문에 알아. 그래서 죄 아버지 보고 그랬는데, 아이구 아들 말허고 똑 같거든. 아 그런데 대명이 그 들어가는데 아주 몸서리가 나고, 그 당처 볼 수가 없드라 이 말이여. 그래서 간신히 그렇게 저거하고, 집이 돌아와서.

“아버지! 보셨습니까?”

그러는 거여. 7살 먹은 놈이.

“그래 봤, 저 봤는데 구멍이 셋이 뚫렸는 거는 맞는데, 대명이 되어가지고 그 구멍으로 들어가드라.”

고. 그런 얘기를 했어. 그 아들 보고 ‘그렇더라’ 그러니께,

“다음 차례는 아버지요.”

이 말이여.(웃음) [청중 : 아버지가 돌아가셔.] 응.

“다음 차례는 아버지가 그 윗구멍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 말이여.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며. 그렇게 고생을, 죽을 고생을 하고, 피를 저렇게 흘리고, 대명이 되면 또 어떻게 하나.

“그, 왜 그러냐?”

[조사자 : 대명이 되는 안 좋은 거예요?] 대명이 되었다 이 말여. 뱀 안 좋지. 죄가 많아야 이렇게 되는 거지. [조사자 : 원래 뱀이.] 응 죄가 많아야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 그 아들이, 아들보고,

“그걸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거기 구멍에를 내가 왜 들어가니?”
그러니까,

“아버님하고 그 돌아가신 양반하고, 또 한 분 계신잖아. 사람이 살아 있는데, 그 양반하고는 셋이 그런 데로 들어야야 한다.”

이거여. [칭중 : 셋이 다 죄가 많아서.] 응 죄가, 죄 많아서 그렇다 이거여. 그 노략질 해서 재산을 걷어 모아가지고. 마음을 나쁘게 써 가지고 걷어 모아가지고 부자 노릇하고 사는데. 그래서,

“아! 그러면, 그것 안 들어가게 할라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옛날에 아버지가 어떻게 살으셨습니까?”

이 말이며. 그전에.

“초가삼간에 응 이렇게 살았다.”

“그렇게 맨들어 놔라.”

이거여.(Tape 뒷면에 계속) 하니까, 그렇게 지금 재산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가, 아버지는 좋은 데로 갑니다 이거여. 이 세 분은 아주 최악이다.”

이거여. 그러니 당신 눈으로 봤지요. 그러니 아들 말이 딱 맞았지요. 그러니까 그 많대한 재산을 읊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 불려서 죄(전부) 노나 주었다 이거여. 그리고 초가삼간을 맨들었어. 자기 소시 적에, 그 어렵게 살던 그렇게 맨들었어. 그 아들이 이인인데, 아들이 얼마나 알

어. 그래가지고서 아들이 그 출세해서 성공하고 살었는데는 거여.

[청중 : 지금으로 말하자면 천사여, 천사.] 천사여. 천인여. 천인. 천 하늘허고 땅허고, 하늘허고 땅허고 정기를 타가지(고) 통헌 사람이여. 그래 이인이라 이거여.

15 우연히 얻은 명당

김정숙(69, 여)/송전리T 4뒤

[송전리 김기정할머니택] 박종수, 강현모, 이용준, 임은아, 김중선 조사(1995. 11. 4.)

앞 이야기에 이어서 조사자가 명당에 대해 묻자 해 주신 것이다. 명당에 관한 것은 남자들이 잘 안다고 하면서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였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아주 어렵게 살어.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부모가 돌아갔어. 돌아가서 부모를 걸머지고, 걸머지고 명당 그 자리를 삼시사 방을 찾아 댕기며 어디가 있어? 또 아무 데나 영 부모를 모실 수 없고. 그러니까 어디쯤 가다가 그냥 기진맥진 했어, 이 사람이.

그 돌아가신 부모를 지고 댕기느냐고 근께 기진맥진 해서 이렇게 털 써덕 주저 앉았는데, 그 어머니가 거기 딱 떨어지드라 이 말이여. [조사자 : 그] 돌아가신 양반. 걸머진 양반이 딱 떨어져.

“아이구! 여기가, 웡 여기가 아마 여기다 모시란 건가 보다.”

이러구. 거기다 그냥 무슨 풀도 거하고, 그냥 뭐 사람 발도 안 딛고 그러는디. 그냥 거기다 파고 묻었어. 저 죄 부모를. 묻고서 와가지고 점점 일어나서, 웡 그 사람이 명의(이름)가 나고 부자가 되었다 이거여. 그러니까 그게 명당자리여. 명당자리는.

거기가 명당짜리니까, 그 시체가 거기 딱 떨어진 거여. ‘거기 모셔라’ 하고 거 명당자리가 뭐 따로, 저거 현 거보다, 플라 댕기고 이려고 허는

것보다 그저 아무 데나 거시기 해서 모셔도 명당을 첫째대로 찾으려면 그렇게 집안이 번성하고 대대손손 잘 된다는 거지.

[청중 : 그렇게 좋은 자리는 굳히는 거여.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셔도.]
응.

16 도깨비 일화(2)

김정숙(69, 여)/송전리T 4위

[송전리 김기정할머니택] 박종수, 강현모, 이응준, 임은아, 김종선 조사(1995. 11. 4.)

세시풍속과 민간신앙들에 대해 조사하는 도중에 도깨비에 관련된 이야기를 묻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김기정 할머니가 도깨비가 없다는 뜻이 말하자, 끼어들어 이야기를 구술하게 되었다.

도깨비가 있기는 분명히 있어. 있는 거여. [조사자 : 그 얘기 좀 해 주세요?] 응.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청춘 시대에 어디를 가다가 밤늦게 좀 약주가 건하하셔서 오셨어. 오시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이렇게 집이 많지만, 옛날에는 집이 없어가지고 산길로 이렇게 오니까는, 여자 이쁜 여자, 그 처녀 들어서 등불 하나씩 양쪽에 들고 나오, 오더라. 오면서,

“어디 이렇게 가시냐?”

고 그러면설랑은,

“나는 집이를 가지 어디를 가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따라 오시라고. 우리가 응 안내 혈게.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안내 해 준다.”

고 그래서 그 처녀들을 따라 땡기셨어. 따라 땡겼는데, 개울 뚝, 개울 이렇게 또랑 개울, 그런데로 끌고 땡기고, 우리 아버지를 죽 끌고 땡기

고. 그랬다가 산, 산등생이, 산으로 끌고 올라가더니, 그냥 올라가지도
그래 못하는 비탈 위로 그냥 또 끌어 올리더라. 그래서 저기 정신을 바
짝 차리고서, 주먹으로 그냥 그 산비탈이를 그냥 후려 갈기면서 영, 후
려 갈기면서,

“이게 무어냐? 이게 뭐 까닭이냐, 다?”

이러고 허니까. 불이 번쩍번쩍, 그냥 저만치 번쩍번쩍 해드라. 읊어지
드라. 그런데 보니까는 저 미류나무, 아롬드리 미루나무에다가 그리 끌
어올려서,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헐라고, 그리 끌어 올리니까 산비탈이
아닌가. 말하자면 눈에 산으로 보였지.

그래가지고 그 거기서 그냥 주먹치는 바람에 이 아귀, 악귀들이 몰려
나가지고 거시기 했는데, 거기서 말하자면 추녀(추녀)가 목 메 죽었대는
얘기여. 그러니까 그 처녀가 그렇게 한 거여.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목
이, 목을 매든지 어떻게 되던지 허면, 그 대응으로, 갖다 거기다 집어 넣
어야 혼이라도 나온다는 거여. 대응으로, 거기다 집어넣어야.

[조사자 : 아! 딴 사람을 갖다 놓아야요?] 응. 집어넣어야 혼이 나온다
는 얘기여. 지금으로 말하면 차 사고 나잖어. 차 사고가 자주 나는 데가
있지. 그런데 그 혼신이 거기 집어 넣어야, 또 그 혼신이 나오는 거야.
[조사자 : 그렇게 연이어서.] 응. (이걸 막기 위해서는 곳을 해야한다며
장황하게 구술함.)

17 신령이 자리 잡아준 용덕사

김정숙(69, 여)/송전리T 4뒤

[송전리 김기정할머니택] 박종수, 강현모, 이웅준, 임은아, 김중선 조사(1995. 11. 4.)

앞 이야기에 이어서 아들을 낳게 한다는 기자 풍속에 대해 묻자 여러가지 방법을 말
하였다. 이때 짚에 가서 아들을 비는 방법이 없느냐고 묻자 용덕사에 가서 빌기도 하였

다면서 이 이야기를 구술하여 주었다.

[조사자 : 근처에 절같은 것이 있나요?] 저기 저 굴암절이 있지.

그 굴암절은 용덕사라고 해. 용덕사. 그 절을 이룩할 적에, 상상부 꼭 대기에 이룩했거든. 그런데 거기다 안하고 밑에 좀 판판한 데다 해려고 대들보를, 인자 모두 석가래고 뒤편 대들보고 다 다듬어서 났을 것 아 니여. 거기다 지을려고.

그랬더니 산신령이, 산 신령이 대들보, 대들보를 에 갖다가 그 상상부 꼭대기에다 갖다가 올려다 났어. [조사자 : 옮겨 났어요?] [청중 : 인간 도 모르께.] 응. 인간 모르께. 산신령이.

대들보가 읊어서 삼지사방 찾아 댕겨도 읊어. 그래설랑 그 상상부 꼭 대기에를 올라가 보니까, 거기 가서 딱 대들보가 앉아 있는 거여. 그래서 거기다 절을 이룩한 거여. 거기다 절을 이룩했다고 해. 예초에. 그 용덕사. [조사자 : 용덕사요?] 굴암절 용덕사. 용덕사가 전설이 그게 전 설이여.

[조사자 : 굴암절요?] 응. 굴도 있고 앞에. [조사자 : 굴 안에는 절이 있나요?] 아녀. 굴밖에. [청중 굴 옆, 요기 요 옆에 있어. 용굴이라.] [조 사자 : 용굴? 거기서 용이 나왔어요?] 용굴도 있고, 용이 나갔어. 용이 나갔데. [조사자 : 좀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용이.]

용이 그 안에서 도를 닦아가지고 용이 돼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거여. 응 게서, 그 용굴이라고 있어. 굴암절 가면. 그래서 굴암절에 가면 용굴 도 있고, 양쪽에 이렇게 우물처럼 이렇게 양쪽에 있어요 [청중 : 물이 있는데, 그게 용 눈이라는 거여.] 응. 용 눈이라는 거여. 그 물이.

[조사자 : 우물이 두 개 있는데, 그게 용 눈이라고요?] 용 눈이다 그 거지. [조사자 : 그러면 뭐 거기 가서 빌며는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뭐?] 그렇지. 그렇지. 거기 절이니께. [조사자 : 아무 소원이나 빌어도 돼요?] 그럼. 아무 소원이나 빌면 되지. 오른쪽 물은 못 먹고, 왼쪽 물을 먹어. [조사자 : 오른쪽 물은 안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눈을 조금 다

치셨데. 그래서 흐려. 한쪽이, 물이. [청중 : 용이 거기를 올라가실 때 상처가 나서 이쪽 물을 못 먹고 이쪽 물은 먹고] 한쪽이 흐리고 한쪽이 맑어. 눈을 조금 따치셨데. [조사자 : 오른쪽은 안 먹고] 오른쪽 물은 안 먹고, 왼쪽 물을 먹는다 이거지.

18 송전리 아노고개 전설

김기정(64, 여)/송전리T 4뒤

[송전리 김기정할머니덕] 박종수, 강현모, 이응준, 임은아, 김종선 조사(1995. 11. 4.)

앞 이야기를 마치고 지명전설에 대해 묻는 도중에 채록한 이야기이다.

소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이야. 왜정 때 대동아 전쟁 때문에 소나무가 많이 없어져서 그렇지. 순전히 소나무 밭이었어.

[청중 : 옛날에 거기를 말을 타고 아노고개를 넘어가면 말굽이 붙었다는 거여.] [조사자 : 말굽이 붙어요? 아노고개요?] [청중 : 옛날에. 전설에.] 그 워찌 아노고개냐. 그 전설은 그걸 들어야지. 왜 아노고개냐. 오산 가는 쪽으로다가 이 길을 가게 되어 있어. 면을 넘어서. [조사자 : 오산요?] 응. [청중 : 오산 가는 쪽.]

그런게 그 길이 이 안쪽으로다가, 그 안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아노고개다 이 말이여. 송전 안으로다가. [조사자 : 아! 송전을 행해서 있다고 해서.] 응. 길 안이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런게 전설이지, 뭐 다른 게 있어.

[조사자 : 그런게 말굽이 붙어다는 얘기는?] 가다 말이 딱 설, 그런게 말굽이 바닥에 붙어가지고 못 갔다는 거여. [청중들 : 응 그렇지. 말이 못 갔다는 거지.] [조사자1 : 왜 붙어요? 못 가게 막는 건가.] [조사자2 : 그 고개에 무슨 뭐, 신이나 그런 게 있나?] 저기 옛날에 그 무슨 장수기

리, 거기서 싸움을 했었다나 봐. 싸움을 해가지고 그랬다나 봐.

19 친구 죽은 아버지를 만난 사람

손승록(68, 남)/송전리T 5앞

[송전리 경로당] 박종수, 강현모, 김민정, 양현영, 원명희 조사(1996. 5. 24.)

송전리 우체국 근처에 자리잡은 송전리 경로당에 다섯 분의 할아버지가 계셨다. 조사자들은 이들에게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옛날 이야기를 예전엔 아들 손자를 모아 놓고 많이 해주었다면서,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이 컴퓨터에 미쳐서 이야기를 들질 않는다고 한탄하였다. 제보자도 '나도 손자들이 있어서 만화 보는 것만 쳐다보고 있으니 옛날 이야기가 필요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요즘 컴퓨터 등 기계가 나오니까 범죄가 자꾸만 생긴다고 한다

거기 우곡리라고 이씨라고 살았는디, 그 양반 시방도 살었지요. 그 양반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인제 기곡, 일 년이 되면 제사를 지내는데, 일 년이면 지사를 지내거든. 그런데 기곡이 들어 왔는데, 친구가, 그 아들의 친구가 그 저 살아 있을 때 얘기가 걸음이 빨랐드래요? 걸어 다녔는데, 오다 보니까 그 노인네가 지나 가더라 말이야.

“아휴, 어르신네! 어디 갔다 오십니까?”

아, 그러니까. 그 노인네가 뭐라 그랬냐면,

“오늘 내 생일인데,(웃음) 시간을 돼서 그냥 오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친구가 짓궂게도

“아무게! 아무게야! 여기 갔다 놔. 지사 지네 뭐 하니?”

그러니까. 아들이 이상할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하는 말이.

“미친 놈! 아이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어디를 가셔?”

“아, 할아버지 오시는데 돌아가시데. 가시데.”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마.”

“너, 느그 아버지 그전에 가실 때, 기다렸을 때,”

그랬단 말이야. 그래 일 년 후였는데.

“아, 아무튼 다식이 하나 빠졌을테니 보라.”

말이여. 그러고 동곳이 있었어요 옛날에 상투에 꽂는 요거만한 쇠를 동곳이라고 해.

“그것 너, 찾으려고 고생 많이 했지? 아무 책자, 책자를 펴 보라. 그럼 그게, 그러면 그거 나올 것이다.”

말이여. 다닌게 보니까 다시 빠졌거든, 그것도. 그것 찾았다 말이여. 그리고 나서 왜 그 아들 위해기 친구, 그 아들 위해기 위한 하는 말이, “지사를 꼭 10시에 지내다오 나는 그렇게 하나까.”

그래서 시방 거기는 지금 10시면 지사를 지낸다고 해. 여기 옛날 전 설이라고 그냥 그렇지만 뭐. 그 집은 10시면 지사를 지내. 그런 일은 있어.

㉔ 도깨비 일화(3)

정진관(75, 남)/송전리T 5앞

[송전리 경로당] 박종수, 강현모, 김민정, 양현영, 원명희 조사(1996. 5. 2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도깨비나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묻자 옆에 있었던 제 보자가 구술하여 준 것이다.

[조사자 : 할아버지! 이곳에는 도깨비 같은 거 나타나지 않아요?] 도깨비 같은 거 없어. 이런 이야기는 있었지. 도깨비가 크거든. [라디오 소리로 청취불능] 꺼라 말이여.

나무에다 휘떡 걸어 났거든. 자고 나서 다음날 가서 보니까 도리개

장치, 도리깨 장치가 그 사람의 피가 묻어가지고 그 도깨비가 되었다야. 그래 가 보니까 도리깨 장치가 되어. [청중 : 도리깨 장치하고] 있드라. [청중 : 도리깨가.]

[조사자 : 색깔은 어떤 색인데요 색깔?] 응. 색깔은 막대지 뭐. 도리깨 장치하고, 막대기하고, 흙이 있었어. 도리깨 장치에 사람의 피가 묻어가지고, 피가 그렇게 되어. [청중 : 도리장치에 피가 묻으면 그게 도깨비가 되어.]

㉑ 정성드리지 못한 사람

정진관(75, 남)/송전리T 5앞

[송전리 경로당] 박종수, 강현모, 김민정, 양현영, 원명희 조사(1996. 5. 2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보다 재미있고 긴 이야기를 부탁하자, 생각이 났는지 스스로 구술하여 주었다.

내가 한 마디 허지. 옛날에 어느 바보가 말이지, 바보는 하나도 아는 것이 읊어.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말이지(청취불능), 이 야가 부탁을 하더니, 그 어린 것 키워가면서도 그 사방촌 금강사라고 해야거든. 그를 공부를 시켰데요.

그런데 공부를 앓고도 해필은 결혼은 맞고 난 다음에, 인저 야중에 한문을 조금 가르친 거야. 인자 한문을 가르친다는 것이고, 고른 애들이 7이나 8쯤 되는데, 그전에 안 그랬더니 이 백일 거짐 돌으만 허니께, 얘가, 이 애가 오더니,

“거 아무게 집어 있니? 어이 가자. 가자.”

나오는데,

“애, 거기 있어, 나 옷 좀 입고 갈께.”

그래 옷을 주서 입고 나오니께, 나오고 나니 삽득(삽작)에 가서, 나오다 말고 저 처마 밑에 새끼 늘어진 게 있단 말이여.

“아이구 아버지! 저 고마운 글당에 갔다 오겠습니다.”

인사를 번듯하게 하드랴. 그래 아들도 그것 보고서,

“애 새끼들! 늦다없이 보니까 처마 밑에 있는 새끼를 보고서 인사를 하고 가드라고. 그래 뛰어 나왔다고 그러드랴.”

고 그래 아마 둘이 간게, 이제 거짐 글방에 들어갈만 한게,

“애! 너 처마 밑에 무어가 있길래, 이놈의 새끼를 둘러보고서 인사를 허고 가니?”

그러드랴.

“애이! 알 것 읍어 마!”

“이, 짜식아! 알아야지. 너도 알고 나도 알아야지 않니?”

“너는 알 것 읍어.”

안 가르쳐 주거든. 그런데 이 아들은 갔다 오더니, 그 학장 아들이 또 쫓아 왔드랴.

“이것은 알고 갔으면 좋겠다.”고

“아버님! 글방에 댕겨 왔습니다.”

아니 또 거기다 인사를 하드랴.

“아이 이상한 놈이다.”

[청중 : 자네, 그렇게 얘기 하는 것 다 듣는 걸세.] ‘참 이상한 놈이다.’ 그런데 거꾸 사흘인가 나흘인가 댕겨. 댕기는데 지(계)속 그러거든. 나흘째 들어가고 오일째도 인사를 하면서 들어와. 들어오고 지(계)속 두고 나흘을 단여.

“내가 다소 저것을 어쨌지 해피를 해 보겠다.”

이놈이 글방을 댕겨 나와가지고서는 개 꿈무니 쫓아가서는,

“너 이 새끼야! 이것을 무엇인지 얘기 허라.”

고. 공손히 인사하는 것을 몰라서. 그래 잡으니까 붙었다단 말이여. 인자 사흘만 넘기면, 거기서 무어가 살림을 계약이 따라오는 건데, 그 사흘을

못 넣기고선, 그 사흘을 못 넣기고선 그냥 그것 째했거든. 그래 비싼게 그냥 일도 있었더라.

내가 무어던지 공, 무엇 정성드려서 안 되는 것이 읊더라구. 그래 죽 단잠어가 정성을 드려가지고서 밤이나 낮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조금 춥다고 빠지지, 하루 안 빠지거든. 정성드렸다고 그래서 무선 정신이고 정성을 들이면 안 될 것도 읊을 거라고.

22 죽음 면한 소 팔아 온 사람

정진관(75, 남)/송전리T 5앞

[송전리 경로당] 박종수, 강현모, 김민정, 양현영, 원명희 조사(1996. 5. 24.)

앞 이야기를 마치고 생각이 났는지 계속하여 스스로 구술하여 주었다. 제보자 자신이 아는 이야기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다고 말하였다.

내가 또 한 마디 허지. 그제, 그전에 소 얘기였는데, 신장사가 뚜르고 달란 것을 안 주고서 자기 소를 끌고 저 안성장을 갔어. 안성장을 인자 가지고 가서 소를 팔고 거기서 오는데, 인제 낮이에 왔으면 괜찮은 건데, 낮에도 아니 오고서 밤에 오거든. 근데 어디쯤 오다가 보니까, 아주 반겨 부르드라. 그래 대답을 안 했디야. 그래 대답은 앓고서 이제 오는 건데, 죽 썰서 또 중간쯤 온게,

“아버지! 아버지!”

허고 부르더라. 그래,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러구서 인제 뒤를 돌아보지 앓고서, 인제 얘기도 앓고서 접근 즈 앓드리고 본게. 고 집이를 온게, 나중에 문을 잠고구 자드라.

“야! 문 열어라!”

허고 호령하니께, 아들이 나오더니 문을 열어 주면서,

“아, 어찌 이렇게 저물게 오시요?”

“나 저물었다. 아 집안 다 무고 하나? 백리를 갔다 와도 집안이 궁금 해서 막 안부를 물었다.”

“야 괜찮아요.”

그러고서 들어가서 저녁을 먹고 인자 얘기 얘기, 아니 하지도 않고서 그냥,

“애비, 조금 고단한게 가 자야겠다.”

“하여간 주무시오.”

그러구서 들어가서 인자 자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아 수록한(어수룩한) 놈이 떡을 해서 한 목판을 해서 갖다 주드라.

“이것 잡수시오 이것 맨들었은 게, 이걸 떡을 잡수시오.”

“떡어. 주어서 먹는 것은 고마운데, 떡을 나한테 어떻게 갖다 주느냐?”

고 이것 자기가 먼저 안 먹고서, 그 맨 꼭대기 있는 떡을 한 개 집어서 문을 열고 개를 주더라. 개. 개를 준께 이놈이 그 떡, 먹고 나더니,

“끔! 끔!”

둘러보니 그냥 거기서 죽드라. 나중에 보았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새벽같이, 인저 그 떡 준 사람이 와서 문을 열어 보드라. 죽은 줄 알고서 왔더니, 죽지도 않고서 그 사람이 살았거든.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면 소를 팔러 갔다가 돈을 빼앗으려면 말이여, 동네에서 그랬단 말이여. 그런게 죽으면 돈을 좀 빼앗으라고 떡에다 약을 섞어서는 저가지고 왔단 말이여.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절절 하면서 어찌면 먼저 집어다 개를 주었냐고, 개한테 바로 먹고 그런게 돈도 못 빼앗고, 그놈의 얼굴이 맞추어지.

그래 그래서 어디서 암만 친절하 사람이고, 참 음식이 가져오던지 뭘 가져오면 말이여 먼저 안 먹는다고. 아는 얘기 헐라면 한도 끝도 읊는데.

23 나이 든 어머니의 욕심

정진관(75, 남)/송전리T 5앞

[송전리 경로당] 박종수, 강현모, 김민정, 양현영, 원명희 조사(1996. 5. 24.)

여러 사람의 잡담을 하고 있다가 청중들이 이야기를 해 주라고 옆에서 응원하자 옛날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면서 구술하여 준 것이다.

하나 지나 뭐 먹고 살 수가 없어. 이렇게 시니기께. 지금 응 개발을 잘 허고서, 세상이 이렇게 좋아지고 했지만은. 그 전에는 어려웠거든. 다. 농사 지어도 어려웠고.

왜 어려우나냐. 수확이 없어. 땅이 있는 사람은 그 돈만 가지면 땅을 사서, 더 사면 좋아하고 그 땅을 농사지어 먹잖아. 그걸 지으면 병작이야, 병작. 한 말을 나면은, 한 섬을 나면은 반씩 쪼갬다고. [조사자 : 땅 주인한테요?] 응. 그 다 준 다음에 먹는 거요.

한데 살림이 어렵고 저기해서 아내에게 그 디딜방아를 팔러 가잖아. 그 디딜방아 알지.(디딜방아에 대한 설명 생략) 한데 거기서 품을 팔러 나가지고서는, 몇 집이나 품을 팔았는데, 그 거름 판에 이렇게 저렇게 흘리는 겨란 은었거든. 그 겨 끝은 인자 겨 나온 거 하고, 그 끝에 조금 남은 쓰레기(시래기)하고 그 두 가지는 은어가지고 왔었어.

뭐 허는 겨. 뭐 우거지 같은 것 놓는 그 시방을 말하는 겨랑, 그 가려낸 것이 호박순이야. 그 놈을 따다가 그렇게 베껴 가지고서는, 넣고서는 거기다 계장국을 끓인게 참 응덩이를, 한 방주리를 인자 끓여가지고 들어와서는, 이와같이 두 내외, 시어머니 이렇게 시(세) 식구인데, 미느리도 한 그릇, 또 아들도 한, 그 남편도 한 그릇. 어머니는 한 그릇 가지고 먹어. 그 다음에 시어머니는 아홉 그릇을 먹고, 또 두 내외 젊은이들은 한 그릇씩 밖에 안 먹었던 말이야. 그런게 미느리가 먼저 나가면서, 훌연히 보고를 하고서 보니께, 먹고서 보니께, 한 그릇씩 백에 남었드라.

그 남였는데,

“아이 어머님! 이것마저 잡수시오.”

“아이구! 너도 망칙하지. 아 계장국 아홉 그릇을 먹었으니 무던하지, 뭐 또 먹으라고 주니?”

속으로 욕을 했어. 겉으로는 욕을 할 수가 있나. 그래 물 뜨러 가면서 몰래,

“어쩌면 계장국 아홉 그릇을 먹느냐?”

고 그러면서 한 그릇마저 더 먹더니,

“내가 치우던 줄 아니.”

그리고 가드랴.

“아휴 분해,”

그러면 생각을 허고 그러고서,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어휴 딱헌 양반 다 보겠네. 뭐 그리 어머니! 이놈의 계장국을 다 아홉 그릇씩이 잡수시오.”

그러니까,

“그럼 어떻하니. 애들이 주서 먹지. 차려준 것도 안 먹으면 어떻게 하니?”

“아 그러시기는 그러시지만 너무 많이 잡수셔시오 그것을 시치면 안 나오면 어떡 하실려고요.”

“저런 망할 년!”

“아이 어머니! 돌아가실려고 그러지. 세상에 계장국 아홉 그릇씩이나 잡수는 양반이 어디 있어.”

이런게.

“허고! 누가 아니라데. 직 구미에 땡겨서 먹는 걸 어떻하니.(웃음) 아이고 너도 내 나이 되어서 한 물어 봐라.”

“아이구 그럴까요. 아이구 남들은 어머니만큼 안 잡수셔요. 아이 어휴 구 딱허기도 하다. 무얼 그렇게 많이 잡수셔요.”

그런게 인자 아들이 허는 말이,

“어머니! 쉽게 돌아가시겠시유. 인지.”

“아이구 내가 죽으면 어떻하니, 더 살아야 할텐데.”

“아 참, 어머니! 저도 영창으로 키워셨죠!”

“아이구! 너는 날, 맨날 물어보니. 에미 나이도 모르니?”

“아, 몰려요.”

“아이구! 아흔 여덟이다.”

“아이 그러면 이년만 더 살다가 돌아가시지요. 그럼.”

“아이구! 이년 살다 죽으면 어떻하니?”

“그럼 얼마 더 사실 거요?”

“아녀. 내 못, 못 살아도 150년은 더 살다가 죽겠어.”

“아이구! 욕심은 많으셔.(웃음) 150년 살면은 누가 날 이렇게 쳐다보지도 안 하요. 귀신이 여기 있어도 안 쳐다 봐요.”

“그럼 몇 살이 죽는게 제일 좋, 적당 하나?”

“내 적당한 건 한 80년 갖추고 돌아서면 적당 해요.”

“나 홀로다가 나 죽기를 바라는구나!”

“아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길 바래요. 더 사시라고 그러는 건데. 지금요 어머니 여든, 여든 둘 아니예요?”

그런께.

“아이고! 그렇게 못 얹어. 뭐 더 살 수 있니. 모르겠다. 나는 오늘 죽을 지 내일 죽을 지 모른다.”

그리고서는 나중에 얼마에,

“아휴, 나는 뿔털지 못 베기다고, 약을 지어 오니라.”

그러드라.

“나허고 디딜, 어머니! 더 살 욕심인게베. 또 약 지어 오라고 본께!”

하이 보신제 한약이라면 그게 [청취불능] 그리고 나더니 그냥 갔어. 그러니 무슴 정성으로 정성을 드려서 안 되는 게 없다고 인제 그만하지.

24 방구쟁이 며느리

정진관(75, 남)/송전리T 5앞

[송전리 경로당] 박중수, 강현모, 김민정, 양현영, 원명희 조사(1996. 5. 2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같은 소화의 유형이라 생각났는지 계속해서 구술하여 주었다. 이 이야기는 방구쟁이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창피를 당한 이야기와 방구를 못 꿰 고생한 며느리의 이야기가 결합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해 주지. 옛날에 저 안성 모퉁이, 안성 동교 모퉁이라고 허데, 동교장. 3부자가 일을 갔는데, 산에 약허러 갔어.

며느리가 밥을 해 이고서 거기를 부지런히 갔단 말이야. 갔는데 그 부자간이 둘러 앉아서 밥을 먹는데 뭐라고 했느냐면, 아버지가 둘째 아들, 큰 아들을 보고서,

“이 밥 먹고서 저 방구쟁이 니가 한 번 실어가주고 오너라.”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저 며느리가 뒤에서 들었던 말이야. 옛 듣고서 난게, 또 그럴 기분인게, 그러고서 인저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인자 오는 거였어. 한참 있다가 본게 뭐,

“쉬쉬쉬쉬쉬!”

석허고 그저 뒤따라 오드랴. 그래 뒤도 안 돌아보고서 그냥 오는 거지. 그래 오다가 가만히, 이놈의 여자가, 방귀를 냅대 꾸니께,

“내 방구 달지.”

그러고 아무 소리 안 했디야.(조사자 웃음) 제꿈 또 가다가 또 방구를 ‘뽕-’ 꾸니께,

“내 방구 달지.”

(찾는 사람이 있어 잠시 중단) 시 번을, 인저 두 번을 꾸고서 난 다음에 인제, 세 번째 인제 또 꾸께,

“내 방구 달지?”

아 그런게. 뒤에서,

“얘! 신지 단지 어이 가거나 하자. 얘!”

그 몸쪽에서 보니까, 자기 남편이 오는 줄 알았더니 자기 남편이 아니고 시아버니가 뒤를 쫓아왔다 이 말이여. 그러니 그 얼마나 부끄러울 것이여, 그것. 시아버니 앞에서 방구를 꿰 가면서니, ‘내 방구 달지! 내 방구 달지!’ 했으니.(조사자 웃음) 그 얼마나 부끄러워 그것.

아이 꿈 참고 가서, 아이 집에 가 보니까, 가 보니까 베를 짜놓드락 해서 집붕에 달렸네. 아 방구 한번 꾸면은 시아버지가 퍽 쳐뜨려지고, 또 서로 비틀비틀 허고 또 어떤 때는 방구를 꿰 꾸면 말이여, 시아버니가 저 마당 집붕에가 떨어지고.(웃음) 큰일 났다 말이여.

“게, 저 여자 방구가 얼마나 시(세)면은 저렇게 느껴지냐.”

하면서 인자,

“너 방구, 좀 싫것 좀 꿰 보라.”

그런게 집에 온 뒤,

“아버님은 그럼 상지등 낭구에다 잔뜩 껴안아 주오.”

그런데 자기 영감은 아직 들오지 않았어요

“아, 이것 방구를 꿰 보라!”

이놈의 시아버니는 상지등 나무 옆에서 빙빙빙 돌고, 또 꾸면 또 빙빙빙 돌아간다.

“에이 꽤씸한 것.”(이 뒷부분은 지워져 있음.)

여

백

2. 어비리

1) 마을개관

박종수, 강현모, 김상구, 서기주, 장상준, 양창훈, 김은미 조사
(1995. 11. 4., 1996. 5. 24.)

어비리는 이동 저수지가 생기면서 원래의 마을이 물에 잠기게 되어, 지금의 터전으로 옮기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비리는 저수지를 사이에 두고 장울, 점촌이 동쪽에 자리잡고 있고, 방축리, 당마을, 수역리가 남서쪽에 위치하여 있다. 따라서 이들 마을 사이는 배를 이용하거나 안성시 고삼면 장서리로 돌아서 가야 한다.

어비리는 용인군 하동촌면 속하였던 지역으로, 고기가 살 쥘 마을, 또는 고기가 노는 동네라고 해서 어비울, 어비촌, 어비동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 장울, 점촌, 장서리, 남촌면에 속하던 방목동, 수역을 합하여 어비리라고 하여 이동면에 편입시켰다.

마을을 이루는 작은 마을들의 이름을 보면, 방목은 나무가 울창하여 따오기가 살 야기 때문이라고도 하고, 저수지를 막을 때 쓸 나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수역은 수에기, 수에기라고 하는데, 물이 항상 그치지 않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리고 장울은 장배미, 진배미라고 하여 긴 논이 있다고 해서 또는 살기가 좋고 안전 지대라고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뱀이는 먹는 밤이라 말과 음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한자어로 고칠 때 장울로 쓰인 것 같다. 점촌은 점말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웅기를 굶던 가마가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그리고 장서리는 마을의 지형이 산으로 둘러싸여 서쪽만 길게 보였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은 무척 좋은 샘물이 많이 나는데, 이 물을 마시고 살아 마을 사람들이 장수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 마을은 지금 장수마을로 소문이 나 있는데, 가구수가

총 20여 호인데, 70세 이상 95세까지에 노인이 약 20명 정도로 다른 마을에 비하여 많은 편이라고 한다. 이곳의 샘물은 매우 차가운 물로 아무리 험센 장사라고 하여도 5분 이상을 물에 담구지 못할 정도이며, 상수도 시설을 하여 마을 사람들과 군인들이 함께 먹고 있다고 한다.

2) 설화

□ 동도사와 어비리의 유래

혜성스님(38, 남)/어비리T 1앞

[어비리 동도사] 박종수, 강현모, 이응준, 김상구, 서기주 조사(1995. 11. 4.)

마을에서 이 마을의 변천에 관해 조사를 마치고 절이 있다는 말을 듣고 절에 올라가서 스님에게 절에 관해서 여러가지를 물어보는 도중에 채록한 것이다.

① 동도사의 유래

동도사는 전신이 금단사예요. 금단사고. 금단사는 신라 말 금단 승려인 금단 선사께서 창건을 하셨어. 경기도 일원에 한 다섯 개 정도 금단식인 금단사란 사찰을 창건을 했다는 그런 유래가 있고 이 금단 선사는 그 당시 도선 국사, 도선 국사하고 쌍벽을 이뤘던 선사이었고.

그게 쪽욱 내려오다가 아마 자세한 유래는 모르겠는데, 임진왜란이라는 재란을 통해서 폐허가 되었어요 [조사자 : 절이요?] 응. 그래갖고 어, 원어비리라는 수몰지구 이거든.

원어비리라는 그 동네 어귀에, 동네 산중턱에 거기에 절을 그냥 동네 사람들이 지워준 것 같아요. 절을 창건하고 인자 부처님을 모시고, 동네 사람들이. 이 금단사 터지가 지금도 이 저수지 건너가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 지금도 그 절을 세워져 갖고.

② 어비리의 유래

[조사자 : 저 어비리라는 여기 지명은 언제 때부터?] 그것은 언제라고는 모르겠는데, 유래가 굉장히 오래 되었지요. 고기 어자, 살찐 비자, 마을 리자, 고기가 살찌는 동네다 그것여. 그래 어비리가 결국은 고기가 노는 동네가 되었죠.

[조사자 : 아, 원래는 없었는데, 어비리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이 되었다고요?] 그렇죠. 원래는 이 저수지가 없었어요. 63년대, 60년대에 이것이 준설해 갖고, 69년인가 아니 71년도에 이 담수 되었으니까. 71년에.

지금 세조실록에 어비리 칭찬이 나왔으니, 나왔으니까 어비리가 인자 내가 보기는 신라시대 이후 고려 초기에 전해 내려왔고.

② 영험하신 동도사의 부처님

혜성스님(38, 남)/어비리T 1앞

[어비리 동도사] 박종수, 강현모, 이응준, 김상구, 서기주 조사(1995. 11. 4.)

앞의 동도사와 어비리의 마을 유래를 하면서 생각이 났는지 계속하여 구술하여 준 것이다.

부처님의, 인자 그 동네 사람들의 구전에 의하면, 부처님의 목이 잘려져 나갔다고 그렇게 전해 와요. 그런데 머슴이 자기 부모를 상당히 학대를 했더라고. 그래갖고선 인자 동네 사람들이 인자 아파,

“부모에게 불효하는 놈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명석말이를 했대는 거요. 그래 명석말이를 해가지고 있는 심인데, 동네서 얼마 있다가, 그 때에 목이 없어진 것이를 인자 몰랐어. 동네 사람들이.

어느날 갑자기 동네 사람들 전체가 다 아프드래는 거여. 그러니까 몽

땅 다 아파갔고, 그러니까 밥 해 먹을 사람들 한 사람씩만 남겨 놓고 거의 다 아프드래.

그래서 이제 그 금단사에 가서 부처님을 보니까, 그래서 인자 부처님 목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부처님 목을 찾으러, 얼굴을 찾으러 인재 동네구 어디 다니는 데 없어.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그렇게 일을 했만은 한 놈은 멍석말이 한 놈백에 읍다라는 생각하여서 그 놈을 불러다가 아마 물어보니, 동네 사람들에게 양값음을 한 거여, 사람들한테. 자기 부모한테, 자기가 부모한테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하고 그래갔고 그 금당절 부처님은 옛날 상당히 영험 했는데, 그래가지고 아마,

“엇다 감추었느냐?”

그러니까,

“사원 뒤에 감추었다.”

고 해서, 찾아서 다시 목을 붙였다야. 이런 영험들, 영험, 영험들이 굉장히 많았데요.

그런데 그 절에 이제 불이 났는데,(전화를 받느냐고 잠시 중단) 절에, 지금 먼저 있던 절이, 절에 유사철시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바람이, 인저 저쪽 분당골 쪽인 서풍을 불어 오니까는, 이게 이게 붙었는데, 이 법당이 위치해서 다 난리가 뭐 났었지. 불이 붙었으니까 난리가 났었는데, 별안간 동풍이 딱 불더니 법당까지는 안전하게 불이 못 오고, 불이 딱 끄웠다는 것이여. 그렇게 영험이 있고.

법당 안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들은 잠을 자려니깐, 자다 보니까 그 눈에 가서 그 꺼꾸로 박혀 있더라요. 자기가.

부처님 말따라 [칭취불능] 영엄하시음 구전에 내려온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③ 용덕사와 용굴

혜성스님(38, 남)/어비리T 1앞

[어비리 동도사] 박종수, 강현모, 이응준, 김상구, 서기주 조사(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민간 치료법을 대해 묻자, 이것 저것 간략하게 말하였다. 그러다 지명에 대해 묻자 설명하는 도중에 용덕사에 대해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주었다.

여기 가면 용덕사라는 곳이 있어요. 요기 용인 쪽으로 나가다 보면. [조사자 : 어비리 쪽으로요?] 예. 용덕사라는 데, 거기가 지금 유래가 있어요?

용굴이라는게 있었어. [조사자 : 용굴요?] 응. [조사자 : 용이 나, 용이 나왔어요?] 그렇지요. 용이 거기서 올라가서, 승천된 데란 말이요. [조사자 : 용굴에 대한 얘기는 혹시 알고 있으세요?]

글쎄요. 거기 가서 물으면 확실하지. 빨리 나는 그 뭐. 그냥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만, 옛날에는 한쪽 우물이 흐리고, 한쪽은 맑고 그랬대요. 그런데 양쪽 우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양쪽이 다 물이 맑더라고요.

옛날에 한쪽 물이 흐린 데는 인제, 인제 용이 있는 데서 승천하다가 눈을 다쳐가지고 한쪽 눈의 피가 나서. 거기는 인제 저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거기 들어갔다 한 번 나오는 사람들은 소원 성취를 이루고 특히 아기를 못 갖은 사람은 들어갔다 나오면 아기를 갖는다는 그런 유래가 있어요.

④ 장울리의 유래

김제춘(73, 여)/어비리T 2앞

[장울마을] 박종수, 강현모, 장상준, 양창훈, 김은미 조사(1996. 5. 24.)

조사자들은 어비리 장울마을에 들어가서 제보자를 처음 만난 분이다. 조사자들은 이곳의 지명에 대해 묻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제보자는 18살에 이곳으로 시집을 와서 지

금까지 살아왔다고 한다.

이 동네가 왜 여기가 장올리라 하면, 여기가 안전해서 장올리래. 그래 여기 피난골에다가 거기가 왜 깊거던. 우리 며느리가 거기 가는 건데. 그래서 거기 가서 옛날에 피난을, 왜정 시대부터 피난을 했기 때문에 피난골이여, 여기가. 이 동네가. 그래 여기 장올리 이름들 저기를 지어 놨는데, 이젠 다 잊어버렸지 뭐. 그 전설을 다 잃어버렸어, 몰러.

5] 묘를 잘못 써서 죽은 소

김제춘(73, 여)/어비리T 2앞

[장올마을] 박종수, 강현모, 장상준, 양창훈, 김은미 조사(1996. 5. 2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이곳의 사정에 대해 묻자, 장수마을이라고 하며, 제보자 자신의 현재의 상황을 말하여 주었다. 특히 묘자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생각이 났는지, 그리고 마을에 있었던 걱정에 대해 이야기 하는 중에 들려 주신 것이다.

요전에 그냥 한 오년 전에, 오년 됐나. 한 사오 년에, 내내 저기 무당이 하나 있는데,

“누구네 소 죽는다.”

면. 그냥 그 집 소가 죽고, ‘누구네 소 죽는다’면 소가 죽구. 소가 그냥 썰는 거야, 몽절이 이냥. 깡그리 썰러, 소가 그냥 동네에. 그래서 왜 그랬냐면,

“거기다가 인자 헛묘를 써 놔서 그랬다.”

고 그러는 겨. 저 위이 무당이 있는데. 그래갖구서는 그냥 우리 소가 새끼 밴 겨. 새달에 낳을 것을, 다음 달에 낳을 걸, 금방 낳을 죽였다고 그래가지구서나,

“그걸 사람이 번연히 그러는 거니까, 그걸 믿지 말라.”

말이여. 그래갖구서 몇 사람 그걸 좀, 그 트러진 사람한테 가서 야단치는 거지, 내가 인저. 그러니께 인자,

“알만한 선생이 먹여 살리는데, 왜 그러는 거냐?”

날더러. 그래서 나는,

“먹여 살리는 것보다 사람이, 내가 내 맘대로 남의 맘이지, 그 비싼 땅을 뭐 지금 낭구를 해 떠나 그걸 뭐 하느냐고 사 놓느냐? 안 된다고, 절대러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얼마 있으니 씨도록 해 주라고 말이야. 그래서 당신 하나만 같으면 안 쓰는 거 아니냐?”

구. 하지만 이 동네 한 20호 다 새벽에 돌아다녔다구. 우리 며느리도 모르게. 며느리한테 한 번 혼났다구.

“엄니! 무슨 동네 일나면 어떻게 할라느냐 그러냐?”

구. 그래서,

“그건 사람이 나서 죽인 거여. 번연히 아는데 왜 그러느냐?”

구. 그 뜰물 퍼다가 개 먹이면 개가 죽는데, 사람이 넣은 거 아니냐 그게. 그게 거기 묘이 한다고 산아름 할 것 같으면 동네 사람이 죽지, 왜 짐승 동물이 죽는냐구 그말이여, 내가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돼지 기르는데, 차비 두고 한 댕마리 먹였는데, 우리 아들이 인제 싹 그냥 청소해 놓고 뛰어나가더라고. 그러더니 요만큼은 갖고 들어왔다구. 세기 지쳤더라구. 그런데 고기다 놓았는데, 그게 약이 꼴로 내려가가지고서는 수태지들 그 물 아마 그, 위에는 돼지물에, 물에 갔나 봐. 그래 고걸 먹었나 봐. 그래가지고 이 동네 난릴가 났었어, 그때 그냥. 그래 은수저를 갖다가 그때 거기다가 대니까 새까맣게 죽었더라고. 그냥 은수저가.

[조사자2 : 그러면 그 위, 그 터를 보고, 그 터는 동물이 뭐 먹으면 죽어요?] 아나. 동물이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인자 무당이 자기가 용하다고, 용해라고 인자 그것이 생색 별려고, ‘누구네 소가 죽는다, 증소가 죽는다, 큰소가 죽는다.’ 그러면 그냥 죽는다는 날짜에 죽는 거야, 소가. [조사자 : 그집 소가요?] 응. (중간부분 생략) [조사자2 : 그러면 그 무당이 그 소가 죽는다고 하는 이유가 왜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없이

왜 그러냐면, 이런 사람 생각에는 자기가 용하다고 그냥 맞친다고 그런다고 그런 것 같더라고. 왜 이런 사람 생각에, 생각에 그렇더라고.

그래 인자 그 집이 부자니까, 인제 여기 흘랑 지끔도 다 낭구를 심고 그랬는데. 근방 숲 넘어가는 노인네가 꼭 일로 온 데는 거여. 일로 온 데는데, 이 동네서 막고 못 오게 해는 거여. 그게,

“그때 그렇게 해 놓고도 소가 죽고 그랬는데, 무슨 일이 나면 어떻게 하나?”

고 못 오게 해는 거여. [조사자1 : 뒤에 있는 산이 무슨 산입니까?] 뒷동산. 그냥 뒤에 있으니까 뒷동산이라고. 그래 그 사람이 그래 여기 와서 무엇이고 작년 이맘 때 었었거든. 돌이 지나가는데. 인자 내가 하도 설치고 야단을 쳐서 걱정은 걱정인데, 만날 마음 속으로 기대는 거지. 하나님한테 만날 기대는 거지. 여자가 이렇게 설치고 땡기면서나 자식 하나 위해서 그 대대손손 내려가면서 육 먹을 거 아니야. 그냥 버젓하게 그냥 비석까지 다 해 놓고 참 그랬는데, 그거 못 써 봐요. 누구든지 그집 이장 볼적이 그것, 그것 동네 하나 뒤틀지 못해서 묘를 썼다고 그럴 거 아니여. 그래갖고 그냥 우리 며느리가 그러는 거. 차를 끌고 다니니깐 누굴 태워가지고 가니까,

“이용달이 할머니는 왜 그거 땡기면서 그래갖구 묘를 쓰게 하느냐. 내비 두지. 그 뭐 언제 사돈 삼으려나, 그 왜 그렇게 묘를 쓰게 해 주려고 애쓰냐?”

그러는 거. 그래서,

“나는 누굴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마음을 생각하고서, 사람마다 다 돈 쳐드려서 헬 적에는 부모님 모실려고 쳐드려서 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요전에 4년 5년 전에 난리가 났었다고, 동네가 그냥 그것 때때.

⑥ 집안이 망하려면 나타나는 산신령

김제춘(73, 여)/어비리T 2앞

[장울마을] 박종수, 강현모, 장상준, 양창훈, 김은미 조사(1996. 5. 24.)

앞의 이야기에 이어서 계속하여 사실적인 내용이 이어졌다. 조사자가 다시 이야기를 돌리기 위하여 지명과 도깨비에 대해 묻자 해 주신 것이다.

[조사자 : 할머니가 알고 계신 무서운 얘기 없으세요?] 무서운 얘기 뭐가 있어. [조사자 : 밤마다 아기들이 얘기해 달라고 하면.] 얘기 해달라고 하면 무서운 얘기 그런 건 모르고. [조사자 : 도깨비가?]

내가 그전에 인저 우리 바깥 양반이 속을 새겨서 장마가 지는데, 피난골에서 골짜구니, 그 골짜구니 한 스물 뗏바가지 내려서 쪽 배겨서 그래서 올라가는데, 그냥 비가 억수같이 장대비가 오는데. 밑에서 한쪽 손엔 우산을 들고 한쪽 손에는 후레쉬를 들고, 저 산 밑이를 올라가는데, 이짜 밭에 가서 이렇게 파란불이 이렇게 둘러 있지. 그런데 그렇게 비가 와도 꼼짝도 안 해요 그냥.

[조사자 : 파란 불이요?] 응. 불이. 그냥 파란게스리 불이 선뎡이스럽게 그냥. 꼼짝도 않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니께, 그게 산신령이 내려와 앉았는 거라고 하데. 그렇게 비가 오는데 새파랗게 불이 그렇게 그냥 후라쉬 불보다 더 그렇게 그냥 빨강지도 않아, 그냥 파래여 그냥. 그게 성질이 나서 보았다구. 그래서 날더러,

“거기 죽을라고 갔느냐구 왜 갔느냐?”

집중호우에 사람이 공중 죽어. 그 비 오는데 거기 기냥 올라가서 물 쫓지 수물통 막으러 올라가는다. 그래서 그냥 그게 있더라구. [조사자 : 그럼 여기서 옛날부터 산신령이 그 곳에 계신 얘기 있었습니까?] 여기서 있지. 여기 여 옆쪽 집에 그때 집안이 망하는데, 집안이 막 그냥 체해고 그러는데, 아 체했다구 해는데, 아 암만 해도 낫지 않아서 그 사람

이 거기를 하는데, 그냥 벌안간에 그냥 그냥 벽에 와서 그냥 뭐 후려 때리더라.

그냥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냥 이 이 안채가 있는데, 행랑채가 조금 가깝거든. 요렇게 한데. 여기서 절루 뛰어 넘어가더라, 황소 발짝 같은 게. 아이구 나 소름 끼치는 것 좀 봐. 뛰어넘들래. 그냥 여기서 산 밑창쭝 세 집 건너가는데, 여기서 절루 절루 뛰어 넘어가더라, 호랭이가.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구 하면서, 그래 집안이 망할려면 산짐승이 내려온다구 하더라구. 산짐승이.

⑦ 어비리와 방목마을 유래

이종철(52, 남)/어비리T 2앞

[방목마을] 박중수, 강현모, 장상준, 양창훈, 김은미 조사(1996. 5. 24.)

앞의 제보자의 이야기를 마치고 새로운 제보자를 찾아 나섰다. 함께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곳의 지명에 관해 책에서 보았다며 구술하여 주었는데, 녹음기를 잘못 작동하여 삭제되었다. 조사자들은 점심 대접을 받고 이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제보자를 찾아 나섰다.

그런 얘기는 내가 들은 기억이 나요. 아까 조금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 여기가 용인군 이동면 어비리인데, 어비리인데. 어비리에 옛날에 6개 부락이 있었어요. 그랬다가 저수지가 막히면서 원 어비리라는 부락은 저수지에 완전히 차여가지구 떼고, 나머지 변두리 동네만 일부 남아 있는데, 그 옛날에 누가 이 어비리라는 이름을 짓고, 각 동네마다 여긴, 이 동네는 현재 방목이, 재방뚝 밑에는 수유리라는 동네 뭐 이렇게 있는데,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저수지 막기 그전서부터, 옛날 전서부터 그런 동네가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이 어비리 저수지가 막히면서 그 전통의 얘기가 맞

아 떨어진 것이, 어비리라는 고기 어찌 살쩔 비자 어비리 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필이면 저수지가 완전히 막히면서 고기가 제일 많이 모여 있을 수 있는 위치가 어비리 동네였다구, 지금. 물에 채여서 지금 없지 만.

그래 이 동네가 방목, 막을 방짜 나무 목짜 방목 동네란 말이지. 그런데 방목이는 막을 방짜 저수지가 막혔다 이런 얘기지. 그래 맞아 떨어 지고. 요 넘어는 수역이라고 해서 물 수짜 내걸 역짜래. 수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누군가가 마을 이름을 지을 때, 여기가 이 다음에 저수지가 막힐 걸 예상하고, 마을 이름을 짓지 않았느냐 이 런 얘기가 들려요.

근데 지금 저수지가 막힌 데가 한 근 25년 되는데, 우리는 분명히 저 수지 재방뚝 공사할 때도 뭐 가서 일도 다녀보고, 뭐 기억도 생생히 알 지만 그전서부터 내려오는 그 동네 이름이 지금하고 맞아 떨어지는 것 이 재방을 막았으니까 물이 생긴 것이고, 그러니까 이 동네가 막, 이 동 네에 막힌 거란 말이죠, 위치상으로. 그러니까 막을 방짜 막혔단 말이 지. 고 넘어는 물이 떨어지니까 수역이, 지금 원 어비리가 고기가 제일 많이, 물이 막히니까 고기, 물고기가 제일 많이 모이니까 어비리. 이렇 게 됐고. 그런 전설은 여기에 있고.

⑧ 산제 지낼 때 부정하여 태어난 아이

최월례(78, 여)/어비리T 2뒤

[방목마을] 박종수, 강현모, 장상준, 양창훈, 김은미 조사(1996. 5. 2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산제와 세시풍속에 대해 듣고 있을 때, 제보자가 중간에 미실 을 와서 이야기 판에 참가하였다. 이 제보자는 이곳의 산제와 산속에 대해서 말씀하시다 가 구술한 설화이다.

조금 부정해도 안 되고 일 년에 한 번씩 지내는데, 내로 짐승 새끼를 낳아도 안 되고. 조금이나 부정해도 안 되고. 깨끗하고도 그래도 생지복덕하게 해서 맞아야만 제관 당주 노릇을 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렇게 엄한데, 한 번은 어떤 분이 한 삼 개월 애기가 있어, 삼 개월 된, 된 걸 몰랐지요, 인저 그때는. 모르고 인자 그 날은 그 해에, 당제의 지관이 되어 인제 지관 노릇을 해서 제를 지냈는데.

가을에 애기를 낳았는데 글세, 그 다음에 애기가 낳는데 그 애기가 무섭더라구. [조사자2 : 직접 보셨어요?] 머리가 이것만한 것이, 이것만한게 눈은 그 속애가 속 들어가 있고. 아주 통통한 애기 이쁘더라구, 아 들인데. 똥똥이는 이쁜데, 얼굴이 그렇게 무섭더라구. [조사자2 : 그러니까 아래는 정상 아기와 똑 같은데, 위에만요?] 똑 같은데 얼굴만 그렇더라구. [조사자2 : 어 얼굴이 커요?] 이마가, 이만큼 나왔더라구. 그런데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만, 찢르면 터질 것 같아, 꼭. [조사자2 : 말랑말랑 해서요?] 응. 말랑말랑 한 것이.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갔지! 몇 달 있다가 갔지!

근데 또 한 사람은 보니까, 그 사람도 애기가 있어 낳을 달이 됐는데. 애기를 낳을 달인데, 그 아버지가 개를 잡았대요. 개를 잡았는데, 애기를 낳았는데 글세, 얼굴이 개 형상이여. [조사자2 : 어~ 어머.] 하필 또 이우지에서 날더러 와 보라고 해설랑은

“죽겠다.”

했더니,

“나는 어떡 하느냐?”

고 해서. 난 모른다고 해구. 오라고 해서 갔더니, 금방 낳을라고 허드라고. 그래서나,

“자꾸 힘 주라.”

고 그렇게 했어. 낳았는데, 글세 나는데 보니까, 여기가 홀랑까지고, [조사자 : 어머!] 눈이 여기가 와 이렇게 백히고, 왜 개들 이렇게 모가지를 얹으면 얼마나 눈이 뚱구러 졌요. 천연 그렇더라구. 그라고 똥똥이는 그

냥 밀가루를 들썩 것 같은데, 만지면 들어붙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짹 짹 눌렀어.

“아이구! 어쩐 일이냐?”

고 그랬더니. 그리고선 그냥 애기 엄마가 돌아다보고,

“왜 이러냐?”고

“아 그러기에 왜 개를 잡았어.”

그랬더니만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라고 있더라고. 그래 이렇게 쑥 빠졌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오그리더라고. 그때는 숨기가 있었나 봐. 그래더니 조금 있더니 그냥 죽었어. 난 그냥 하도 놀래서 그냥 던져놓고서 그냥 나오면서, 애기 아빠를 불렀어. 근대 얼굴이 그냥 훌쩍하니 개 얼굴이요, 혼연히. 그래 그런 일을 당해서 그래, 그전에도 그렇게 엄하게 산제를 지냈는데.

9 영험한 마을의 느티나무

안제균(59, 남)/어버리T 2뒤3앞

[방목마을] 박종수, 강현모, 장상준, 양창훈, 김은미 조사(1996. 5. 24.)

중간에 마실을 와서 이야기 편에 참가한 제보자는 마을개관, 산속, 산신제 등을 말씀하시다가, 마을에 있는 느티나무에 대해서 구술하여 주었다.

거 외가리라고 있지, 외가리. [조사자 : 외가리요?] 예. 예 이 새. [청중 : 황새?] 황새 비스무리 한 거. 이 앞에 굉장 했었어, 지금쯤은 우리 어려서 보면, 그냥 이 동네가 새, 새, 새밭이었어, 새. 백로하고, 외가리라는 게 이 동네 저수지 물가생이 올라오다가 느티나무가 한 이십여 주가 천년 된 이런 아름들인데, 속이 비어 있었어요 느티나무 살아 있었는데, 속이 비어 있었어요 이래 썩 있었었는데, 거기에 해나무라고 또 하

나가 서(T3 앞에 계속) 있었거든. 해나무 글루다가 외가리가 이렇게 집을 짓고 살았어요. 저수지 막기 전에는. 그래서 저수지 막으면서 전수 나무를 베어 없어졌는데.

어 그것두 뭐 요즘 얘기 하는, 의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얘기인데. 그 나무를 동네에서 믿었던 나무들였겠지. 나무를. 나무에 손을 못 댔지, 그 나무를. [청중 : 그런데 저수지 막히면서 그 나무가 물가생이 어찌피 물에 채여서 죽게 생겨서, 비기를 되어서 비게 되었는데. 우리 동네 사람들은, '그걸 못 빈다. 그러니까 물에 채서 어차피 죽을망정, 비지 말라.' 했는데. 공사 하는 사람들이, 다른 동네 사람들을 사 가지고설라무니 그 나무를 비었어요. 나무를 비었는데.] 죽었어. 그 사람이 죽었어.

[청중 :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이 한 달을 못 살고 정정해던 사람이 와서 나무를 해 가지고, 해 가던 사람이 한 달만에 죽었어.] [조사자 : 나무를 베 사람이?] 죽었어. 한 달만에 죽었다고. 네. [조사자 : 그 래가지구.] [청중 : 그 시기에 상 당해 가지고 죽었다면은, 요즘 말로 교통사고로 입원해서 죽었다면 별 문제인데, 뭐 한참 그 사람, 한 40도 안 됐어. 시름시름 알다가 그 낭구를 비고서 죽었다고.]

그래서 그 낭구들도 옛날 노인네들이 뭐 떡을 해다 놓고서 비는 노인네들도 있고, 우덜은 그 밑에서 놀아도 그 낭구 하나, 거기서 떨어진 낭구가 귀해도 내빠리면 내빠리지 집에 가서 때지는 않았어. 우리 마을에서는 그 낭구가 오래된 것이 뭐 떨어지잖어. [청중 : 위에 떨어져도, 그 나무는.] 그 나무는 집에 가서 때지 않았어요. 동네 마을에서는. 그전에 낭구가 그렇게 귀했어도.

[조사자 : 그 나무가 특별히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청중 : 이유는 모르지.] 이유도 모르는데 동네 마을에서, 마을에서 원창 굵은 나무니까는, 가정이(가지)도 못따게 하고 그러. [청중 : 다른 동네에 비하면 그냥 정자나무였지요. 무지하게 크기는 했지만은 정자나무였고.] 에 말하자면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거 나무에 대고 1년에 한두 번씩 제사를 지내고

이래던 나무들이었데. 동네에선.

“그 나무는 갖다 때지 말아라. 때면 때면 안 좋다.”

이래가지고 부정탄다, 무슨. [청중 : 이 동네 사람들은 그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 때도, 거기 가는 손을 안 닷지. 낙엽도 안 주어다 뺏어. 그러던 나문데 저수지 막히면서 비계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기 정자나무, 마을에 심은 거는, 우덜이 산에서 캐다가 심은 거야. 다. 념의 (너무) 동네가 허전해서, 우리 마을 청년들이 다 갖다 심은 거야, 심어서 지끔 큰 거야.

여

백

3. 묘봉리

1) 마을개관

박종수, 강현모, 임광혁, 조재현, 은정은, 김상구, 서기주, 유수영, 하보영, 최문정 조사(1995. 11. 4., 1996. 5. 24.)

묘봉리는 이동면 면소재인 송전에서 버스로 5분 거리에 있는 마을이다. 그런데 용인에서 오산, 평택, 안성으로 지나는 국도에 관련이 없는 지역에 있어 교통이 불편한 편이라고 하겠다.

묘봉리는 원래 용인군 하동촌면에 속하는 지역으로, 마을 동쪽에 묘봉산이 있다. 따라서 묘봉산 밑에 있기 때문에 묘봉골, 묘봉동이라고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묘봉리라고 하여 이동면에 편입시켰다. 마을 이름인 묘봉은 마을의 동쪽에 산악지대의 산봉우리가 많이 솟아 있는데, 동쪽에 있는 가장 큰 봉우리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런데 묘는 오행론상 동쪽을 뜻한다.

마을을 이루고 있는 작은 마을들은 다음과 같다. 상리는 묘봉골이라고 하는데, 묘봉산의 바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위쪽으로 여겨 붙여진 이름이고, 중리는 가운데 있어서, 하리는 맨 아래쪽에 있어 붙여졌는데 일명 오얏골 도는 왜골이라고 한다. 그리고 반월은 지형이 반달처럼 생겨서 붙여졌는데, 서독골이라고 한다. 그리고 저수지가 생기면서 오얏골 동쪽에 새로 생겨난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마을은 논도 적어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는데, 저수지가 생기면서 저수지를 통해 어로 작업과 함께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게 됨으로 이 제는 부유한 편이라고 한다.

2) 설화

① 목이 부러진 부처님

김학수(48, 남)/묘봉리T 1앞

[묘봉 3리] 박중수, 강현모, 임광혁, 조재현, 은정은 조사(1995. 11. 4.)

이곳의 민속놀이 형태로 전승되고 있는 보리타작의 노래를 마치고, 이곳과 관련되어 있다는 임경업장군 이야기나 지명에 관한 말씀을 하였다. 그때 조사자가 이곳에 부처와 관련된 이야기가 없느냐고 묻자 스스로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주었다.

[조사자 : 이 묘봉리 일대에, 따른 옛날부터 내려오는 옛날 얘기라든가, 그런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아주 옛날 옛날에 그 사기 장수란 사람이, 이 너머가 미사리라고 그 천주교. [조사자 : 미사리요?] 김대건, 김대건 신부. [조사자 : 김대건 신부요?] 영. 요, 요 너머 거든요. 김대건 신부 문헌 데가 요 너머 거든요. 그레 옛날에는 미사리 그 동네 사람들도 학교를 일리(이곳으로) 다녔어요. 걸어서 저 산 너머를.

옛날에는 그 저 골짜구니에 부처가 요렇게 바위 밑에 있었는데, 그 사기 장수가 저 그 인저 고개를 넘어가야 되니까,

“무난히 넘어가게 해 달라.”

고 그 부처 앞에 다 물을 떠 놓고 절을 했나 봐요. 근데 그 사기 그릇 좋은 거는 아깝고, 팔려고 제일 나쁜 걸로 골라가지고,(웃음) 아마 이빠진 거니. 그런 걸로 떨어져 절을 했던 모양이야.

아, 거기 넘어가다가 사기짐을 며때렸다네. 아 사기짐을 며때린게 홀랑 깨뜨렸지.

아 그 사람이 내려가더니, 골 때려가면서 부처를 땀다 내동댕이 쳐가지고, 부처가 뭐 모가지가 툇 부러졌데나 뭐 했데. 그런 얘기는 내 들립디다.

② 빈대 때문에 망한 절

김영식(76, 남)/묘봉리T 1위2앞

[묘봉 3리] 박종수, 강현모, 임광혁, 조재현, 은정은 조사(1995. 11. 4.)

아곳에서 지내는 산신제와 세시풍속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러다가 절이 있는가 묻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조사자 : 이 마을에 혹시 절 있습니까?] 저 산에 절이 있었다는데, 절이 있었다는데 우리네 알지도 못하는데. 옛날에 거기 절이 있는데. 예 전설들이니까. [조사자 : 절 이름이 뭐니까?] 앵? [조사자 : 절 이름이 무어예요?] 절 이름도 모르죠. 지금도 그 절 있던 자리 터는 있지.

[조사자 : 터는 있어요?] 응. 순 이런 이름드리 돌로. 저만큼 만한, 이상 가는 돌로 다 전부 축대를 쌓아 올라가지고 게다가 절을 짓고 살았다는데. 그 으른들께 그 전에 전설이. 거기 옛날에 절 짓고 살다가 빈대 때미 못 살았데요. 빈대. [조사자 : 빈대요?] 앵, 빈대가. 아 이런 데서도 우리네 으른들이 빈대 때문에 여름에 잠을 못 자잖아요.

이냥 그 빈대가 그냥, 아 그 빈대가 언제 없어졌냐면 육이오 동난 난리통에, 전부 피난 나갔다가 들어온게, 겨울기에 집을 전부 비웠더니 얼어 죽어서 읊어졌다는 거.(이가 많았던 군 시절 이야기 생략)

[조사자 : 절에 빈대가 많았다고요?] 그전에 빈대가 어떻게 많은지 그냥 빈대 기둥을 세, 섰었다야. 아 그냥 굳어버린게 빈대가 됐었어. 그냥 빈대 때때 절이 망하고 못 살았다는 거야.

③ 마을에 서 있는 비문의 내력

제보자(?, 남)/묘봉리T 2앞

[묘봉 3리] 박종수, 강현모, 임광혁, 조재현, 은정은 조사(1995. 11. 4.)

조사자 일행은 지나가는 할아버지께 마을 입구 비문과 효자문 전설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런데 제보자는 성함도 알려주지 않았다. 이에 앞서 제보자에게 세시풍속과 개략적으로 조사하였다. 그런데 제보자는 이곳에 임대까지 살아온 토박이다.

이태조 동서간이 아니라, 개국 공신이 정몽주 때려 죽이고, 저 개경 서. 전장 가다가 돌아서 가지고 이성계 개국공신과 세운 거여, 동서지간에. 거기 올라가면 비문이 전부 적혀 있다고요.

[조사자 : 그런데 왜 그런 효자문이라고 그랬습니까?] 효자문은 처음 듣는 얘기. [조사자 : 그래요. 노자문인가 그쪽에 효자문이라고 얘기가 있다구 그러는데?] 읊시요 [조사자 : 없어요 그랬구나!] 응 거기 가면 비문이.

그런데 개국 공신이지. 새로 임금을 세웠으니깐. 이태조 선생 동서가. 이성계. 원래 장군인데. 개국공신인데, 정몽주가 뭐, 저기 뭐여 괴뢰가 인저 고려당 스고, 왜 그때 돼지 않았어요 [조사자 : 고려당요] 고려당 섰고 이랬는데, 인자 그래 갈렸지. 이태조 선생.

그래 거기 가보면 자세한 내막이 비문에 전부 적혀 있다구요 [조사자 : 임경업 장군요?] 응. 임경업 장군은 그 분의 7대손이라고 합니다. 7대손. 7대 후손인데. 그 당시는, 그전이는 역사를 좀 배웠지만, 중국 가서 왜 왜 공신을 많이 한 분이여요. 중국 땅에 가서. [조사자 : 중국 땅에 가서요?] 응. 중국 땅이지. 그때로 말하면 인자. 중국, 여기가 인지 중국. 중국 여기가, 인자 중국은 천자의 나라이고, 여기는 뭐 소국이구 그러니까는 뻔하지 뭐. 그 조항 저기로 전부 받치구. 조금(조공)도 받치구 이랬으니까는.

④ 효자문

제보자(?, 남)/묘봉리T 2앞뒤

[묘봉 3리] 박중수, 강현모, 임광혁, 조재현, 은정은 조사(1996. 11. 4.)

앞의 이야기를 듣고 설화력을 조사하고 있을 때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준 것이다. 그리고 조사자가 다시 효자문에 대해 다시 묻자 가만히 있어 보자고 한 뒤에 구술하여 주었다. 제보자는 자신의 성함을 알려주지 않았다.

[조사자 : 효자문 전설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들은 풍어리, 나도 옛날 그 노인네들한테 들었는데, 그 돌아가신 양반이, 정, 정 무슨 덕인가 그랬는데, 그 참 아주 그 참 자손들이 부모한테 잘 했디야, 부자로. 그래서 겨울기에, 그래 전설이겠지.

“아이구 그냥 별건 대추 좀 먹었으면 좋겠다.”

구 말이여. 그래 절에 가서 기도를 드렸답고 합디다. 그래서 참 두 군데씩 얻어 왔대요. 아 그거 먹구서 ‘그렇게 효자가 있다구 해서 아주 문이 길거리 안에 하나 세웠시오. 요 요기에. 바로 저기에. 그런게 그거로 잘 뜯어 봐야 된다구.

⑤ 겨울에 풋대추를 구한 정효자

문씨할머니(?, 여)/묘봉리T 2뒤

[묘봉 3리] 박종수, 강현모, 임광혁, 조재현, 은정은 조사(1995. 11. 4.)

조사자는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새로운 제보자를 찾고 있을 때 제보자가 급하게 지나가고 있었다. 그래서 제보자에게 효자문 전설에 대해 물어보자 구술하여 주었다. 이야기는 효자문을 촬영하려고 할 때 만나서 들은 이야기이다.

[조사자 : 효자문 전설에 대해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옛날에 저기 할머니가 아팠대나, 누가 아파 가지고 ‘풋대추를 먹어야지만 된다.’ 그래더래요. [조사자 : 풋대추요?] 응, 풋대추. 그래서 그 아들이 하두 눈구녀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막 그냥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월 달에서 풋대추가 열려서 그걸 잡수시고 낫대요.

그래 족보에도 있다구 그러데요. [조사자 : 정씨요?] 네, 정씨.

6 도깨비 일화(1)

임병영(72, 여)/묘봉리T 3앞

[묘봉리 상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이웅준, 김상구, 서기주 조사(1995. 11. 4.)

조사자는 어비리에서 조사를 마치고 묘봉리 하리에서 세시풍속과 민간신앙을 조사한 뒤에 상리에 도착하였다. 나이가 많으신 제보자를 찾아 일상생활과 풍습에 대해 조사하는 도중에 도깨비에 대해 조사하게 되었다.

[조사자 : 할머니 도깨비 나왔다는 소리는 들어봤어요?] 옛날엔 도깨비가 나왔지. [조사자 : 도깨비 어떻게 나왔어요?] 응? [조사자 : 도깨비가?] 도깨비가 흰해서 도깨비도 읊어. [조사자 : 아니 그때 도깨비 보셨어요.]

아니, 그전에는 여기서 걷고 있는데, 비 오는 날 마실 가면은 도깨비는 못 보았어도, 저기서부터 불이 찌익 이렇게 간다구들 그랬어. [조사자 : 그럼 할머니는 보셨어요?] 나는 못 봤지. 호랑이 불은 보았지.

[조사자 : 호랑이 불은 또 뭐요?] 호랑이불. [조사자 : 호랑이 불이라고요?] 환한 것. 우리 동상 시집 보낼려고 송정에 가서 숨 들어가지고 업니허고 들이 오는데, 저쪽에서 불이 환했다가 꺼지고 환했다 꺼지고. [조사자 : 두 개가?] 요 눈 하나는 감았는지 인제. 감는데 한쪽 눈은 환해서. 어머니가 나 놀렐까 봐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난 본걸 뭐 옛날은, 지금은 차들이나 타고 다니지. 옛날에는 차가 어딴어. 안성장에도 가도 걸어오고 용인장에도 걸어오고.

[조사자 : 그랬다면 그 호랑이 불이라는게 어느, 언제 나타났다가 나타나요. 밤에 껌껌할 때 나타난 거요?] 응. 그땐, 지금은 시계가 있지. 그땐 시계도 읊었는데, 밤이 꽤 오래 됐는지 뭐. 송정서 해 떨어지는데

들어오면서 그렇더라고요. [조사자 : 해 떨어질 때 들어오면?] 응. 송정서 해 떨어져서 어둑어둑헌데 오는데, 그렇게 그렇더라고요! [조사자 : 사람들은 다친 데는 없어요?] 왜 다쳐. 왜 가만히 있는데 뭐래. 호랭이는 해꾸짓 안 해여, 사람한테. [조사자 : 해꾸짓 안 해여.] 그럼. 건드르지 않는데 해꾸짓 해여.

㉗ 호랑이 목에 걸린 비녀를 빼준 사람

임병영(72, 여)/묘봉리T 3앞

[묘봉리 상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이응준, 김상구, 서기주 조사(1995. 11. 4.)

앞의 노래를 마치고 조사자가 ‘호랑이 목에 걸린 가시를 빼준 이야기 없어요’ 하고 묻자 생각이 났는지 곧바로 구술하여 주었다.

[조사자 : 할머니 호랑이가 이빨 사이 가시에 찢려서 빼 주었는데 뭐 은혜를 갚았다느니 하는 이야기 아시는 것 있으세요?]

응. 옛날에는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 먹고 비녀가 이 목에 걸려가지고, 말을 알아 들어야지. 저런 숲속에 가는데, 자꾸 발로 자꾸 이렇기만 하잖아. 그러니까,

“나를 잡아 먹을라면, 얼릉 나를 잡아 먹어라. 왜 그러니? 얼른 잡아 먹어. 내 얼릉.”

그래도 발로 자꾸 이래서,

“왜 그러니? 왜 안 잡아 먹고, 왜 그러니?”

그러니까.

“아! 아!”

목아지 여기를 ‘아! 아!’ 그러드래. 그래서 손으로 구멍을 빼니까, 비녀가 나오드랴. 그러니까,

‘고맙다’고 엮어다 주더래, 문간까장. 그런 소린 들었지, 그렇게. 문간
 까정 엮어다 주더래. 고맙다고. [조사자 : 아아 호랑이가요?] 응. 응. 고
 맙다고 저를 살려 주었다고. [조사자 : 그 뒷 얘기는 없고요?] 없어. 별
 써 잊어버렸지.

8] 반쪽이

임병영(72, 여)/묘봉리T 3앞뒤

[묘봉리 상리 자택] 박중수, 강현모, 이용준, 김상구, 서기주 조사(1995. 11. 4.)

‘호랑이 목에 걸린 비녀를 빼 준’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또다른 이야기를 부탁하
 자 잊어버렸다고 하였다. 그러다가 생각이 떠올랐는지 스스로 구술하여 주었다.

옛날에 아들을 못 낳으니까니, 잉 아들을 삼형제 낳어. 그거 잊어 버
 렸는데. 수수께기인데 삼형제를 낳는데. 가래질을 할래니깐 논뿔이를 밟
 을 사람이 없어. [조사자 : 논뿔을 밟을 사람이 없다고요?] 그래서 인자
 밥을 허는데, 어느 중이 와서,

“동냥을 달라.”

고 그러드라. 그래서 밥을 허다 말고 동냥을 쌀을 퍼다 주었다. 퍼다 주
 었더니 이만한 밥을 주더래. [조사자 : 그 사람이요?] 이만한 밥을 쥐서,
 그걸 가지고 케리침(허리춤)에다 넣어가지고, 이웃 집에 애 못 낳는 집
 으로 떡 불을 가질러 갔네. 옛날에 그렇게 성냥도 읊어. 그래 집에 와서
 인자 밥을 얹히고, 먹으라고 보니켤 밤이 읊어졌어. 그래서 그 집에 가
 서,

“내 밤 찾, 내 놓으라.”

고 하니켤.

“아이, 내가 무슨 밤이 있냐구. 나 밤 안 주셨다.”

고 해서.

“내 놓으라구. 여기 내가 분명히 여기 백에 안 왔으니깐 내 놓으라.”
구. 막 싸우니젠.

“그러면 같이 노뽕 먹자.”

고 그러더려. 그래서 반을 찢아서 노뽕 먹었더니, 그 이는 아들을 잘 낳고 이 이는 반쪽을 낳네 그랴. [조사자 : 반쪽을 낳네. 아들이 반쪽 낳다 구요?] 잉. 아들이 반쪽을 낳았네. 손도 하나, 인자 발도 하나, 코도 하나, 입도 하나, 다리도 하나, 배도 반 이렇게 낳는데. 그게 으뜨게 장사인지 잉, [조사자 : 그 사람이요?] (Tape 뒷면에 계속) 총각이 되었는데, 장가 들어려고 그러는데, 어떤 노인네가 와서, [조사자 : 그러니깐 그 사람이 노총각 삼십이 돼서, 노총각인데 장가 들려고 하는 거죠 반쪽 사람.] 응. 아나지 형아 장가 들여주라고 그러지. [조사자 : 형. 큰형?] 그래서 그게 장가 들여줄라고 잉. 누가 와서, 어떤 노인네가 와서,

“당신이 지면은 우리 집에 머슴살이 3년 살아주고, 나를 이기 주며는 내가 우리 딸을 준다.”

그러드랴. [조사자 : 힘으로?] 응. 딸을 준다 그러드랴. 그래서,

“아이 좋다.”

고 인자 형이 인자 저기 가니께는 수수깅이를 냈는데, 영(형)아 지드랴, 형아가. 그러니께는 인제 반쪽이 뛰어 들어가서,

“할아버지! 할아버지! 저하고 하슈.”

“네까짓게 뭐 하나?”

나를, 나가 했는데, 그래서 인자 가서 허는데,

“할아버지! 시험(쉬엄)이 몇이요?”

그러니께 졌지. 그래 졌으니 어떻게 해.

“딸을 달라.”

고 하니께 안 줘. 안 줘서, 내가 잊어버렸어 이것. 안 줘서 인제, 아 이렇게 안 줘서, 인제 딸 안 줘서, 그냥 밤에 방에서 있는대로 그냥 사람을 불르고는 사흘 저녁을. [조사자 : 딸 달라고] 응? [조사자 : 딸 달라

고?]. 딸 달라고 그래. 오며는 뭐 두드려 내 쫓으려고 그러지. 그래서 반쪽인게.

“엄마는 방에 있는 벼룩을 잡아라.”

고. 딸 아들 하나 끼고 벼룩, 벼룩, 옛날에 된박 있어. 된박에다 잡어가 지고 가고 방에도 가지고 가고. 간게 이냥 꿈 잠을 자드라. 이냥 중들이, 사랑에, 그런게 사랑에 들어가서는, 내가 잊어버렸어 이런 얘기도 인저 저기 사랑에 들어가서, 옛날에 상투 있잖어, [조사자 : 상추요?] 응. 들썹 들썹 죽 붙들어 매놓고, 응. 들썹 들썹 붙들어 매 놓구. 에 저기 올캐 자는 방에는 들어가서, 오라버, 오라버지 여기 팔뚝에는 고두 고두래 똑, 장에 가면 고래똑 있어. 저기 올캐 똥구멍에는 나나벌을 붙여 주고. [조사자 : 나나벌이라니요?] 나나벌. ‘나나나...’ 허는 거. [조사자 : 나나벌레요?] 잉. 붙들 붙여 주고 그리고 또 뭐 종야 종손은 광주리를 폭엎고 그냥, 또 뭐 큰 돌을 갖다 놓았던 말이야. [조사자 : 큰 돌로요?] 응. 그렇게 해 놓고 인저 인자 색시 방에다 문구녀를 뚫고서 된박을 이렇게 집어 넣으니까는 벼룩을 들어잖어. 그래가지고 색시가 나와서,

“아이구! 군시러워서 못 자겠어.”

그러고 나와서 벼룩을 털더래. 그래 나오니께 속 들어가서, 나와서 나오니께, 그 벼룩을 떨어서 그냥 업고 도망을 해 왔디야. 도망을 와서 그냥,

“색시 훔쳐 간다.”

그러고 또 나오니께, 그냥 서로 싸움만 하더래, 멍기면서.

“놔라, 이 자식이! 놔라, 이 자식이!”

그러고 그 올캐, 올캐에서는

“나!나!나!나!”

그러고 그 저기 또 할아버지 그 아들은 할아버지 방에 가서 불 켜 준다고 그러고, 에마 저 쉬염애가 불을 붙이고 그 고드래 떡으로 한 대 때렸더니 얼굴만 깨뜨려지고 그렇게 나와 버렸디야. 내가 잊어 버렸어 그것.

그래 가니, 초례 지내고 첫날밤 잤으니 뺏겨, 그만이지. 옛날에는 그 령다고들 노인네들이 그 얘기하대. 그런께 잊었어, 내가. [조사자 : 재미 있네요 할머니! 참 얘기.] 옛날에 노인네들이 앉아서 얘기한 것 다 잊어 버렸어.

9 이 명을 짜서 누구하고 먹지

임병영(72, 여)/묘봉리T 3뒤

[묘봉리 상리 지택] 박종수, 강현모, 이응준, 김상구, 서기주 조사(1995. 11. 4.)

노래를 부르고 난 뒤에 조사자가 옛날에 손자손녀에게 해 주던 이야기를 부탁하자 호 랑이 이야기나 해준다고 하였다. 좀 우수한 이야기도 좋으니 해달고 하자 웃으시다가 해 주신 것이다.

시어머니 과부, [조사자 : 시어머니도 과부.] 며느리도 과부. 옛날에 길쌈을 하면서 시어머니가,

으르릉 으르릉 이명을 짜서

누구치고 입고 사나

그랬어. [조사자 : 이 명을 짜서 누가 입고 사나?] 응. 시어머니가 그 랐어. 시어머니가. 그래가지고 미느리가 하는 소리가, 명을 짜며,

으르릉 으르릉 이명을 짜서

누구하고 입고 사나

그러니까 바깥에서,

나하고 입고 살지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나하구 입고 살지.' [조사자 : 나허고 입고 살지?] 응. [조사자 :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몰러. 그러니까 그래서 인자 '아이구 이상하다.' 동네 사람들이 얘기 해서 '아이구 우리 집이 그냥, 중이 지팽이 집어던지고, 나올게 읊다고 허니까 지팽이를 집어 던지고 가더래.

그래 그걸 동정해서 갖다 놓은 것밖에 읊는데, '뭘 한다'고 여자들이 델고, '그짓말도 한다.' 고 그러고서 뛰어 나오드랴. 그래서 어매, 시어머니가 또,

으르릉 으르릉 이명을 짜서
누구허고 먹고 사나

허니까 아무 소리도 안 혀. 그러더니 또, 또 미느리가 명을 짜면서,

으르릉 으르릉 이명을 짜서
누구하고 먹고 사나

그러니까

나하고 먹고 살지

근디 지팽이서 그러드랴. [조사자 : 지팽이가요?] 응. 그래 이상해서 동네 사람들 갔더니, 방에서 또 노래를 허는 거여. 시어머니가 인자 또 헐 거 아니여. 시어머니가 하면 아무 소리 안 허거들랑. 시어머니가,

으르릉 으르릉 이명을 짜서
누구허고 먹고 사나

그래. 아무 소리도 안 혀. 그러니까 인자 며느리가 또 따라서 명을 짜면서,

으르릉 으르릉 이명을 짜서
누구허고 먹고 사나

그러니까

나하고 먹고 살지

그 지팽이서 말하면서 그러더래. 근께 젊은이께, 젊은 과부니께니. 그러니 중이 동냥을 달래서,

“우린 동냥을 줄게 읊다.”

고 하니께

“예끼!”

하면서 지팡이를 이렇게 획 던져져서 그것 갖다 놓았는디, 거기서 노래 하더래. 그것 알아 들어. 한 번 해 봐.

으르릉 으르릉 이명을 짜서
누구허고 먹고 사나

그러니깐

나허고 먹고 살지

그러더래. 그 배우가 있어요, 지팽이가 그러니 여간 웃으워. 과부가 둘 사는데, 시어머니가 과부, 며느리 과부. 해 봐.

10 용굴의 유래

임병영(72, 여)/묘봉리T 3뒤

[묘봉리 상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이응준, 김상구, 서기주 조사(1995. 11. 4.)

수수께끼를 마치고 이곳의 지명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도중에 조사자가 앞에서 들었던 용굴에 대해 묻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조사자 : 왜 용굴을, 왜 용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용이 나왔으니까. [조사자 : 용이 나가요?] 응. 거기서 들어 앉았다가. 절굴 절에 다 있지. 거기 가 봤어. [조사자 : 안 가봤는 데요] 왜 안 가 봐. 거기 좋아. 이렇게 굴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가서 요렇게, 여기 가서 요렇게 둘러 쌓아.

그러면 요리 사람이 가면, 요기 물을 못 먹고, 요기 물은 먹더래. 요렇게 맑은게. [조사자 : 이쪽은 한쪽 면은 물을 먹고, 한쪽 못 먹고요]. 이걸 못 먹고 이걸 먹고. [조사자 : 왜 그래요?] 물이 푸르고 이걸 맑대요 [조사자 : 그래서 푸른 물은 못 먹어요] 응. [조사자 :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 용이 나갈 때 한쪽 눈을 다쳐서 피가 나서 떨어져서.] 그래. 그래서 그런데요 [조사자 : 그런 얘기가 있는 거요?] 응. 있으니까 그러지. (중간 불필요한 부분 생략)

아 우리들 처녀쩍부터 있었는데 어떻게 알아. [조사자 : 그 용굴이요?] 그럼. 그 용이 이렇게 용이 앉았던, 간 자리엔 풀도 안 나잖아. [조사자 : 지금도요?] 그럼. 그 가 봐. 안 났어. [조사자 : 이끼도 안 껴요?] 응, 이끼도 안 끼고, 요렇게 뺩 둘러 풀도 하나도 읊어. 거기. [조사자 : 그것 희안 하네, 그것.] 응. 가 봐. [조사자 : 여기서 멀잖아요?] 아 멀지.

[조사자 : 거기,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오면 뭐 좋은, 가면 일이라든가 뭐 있었어요?] 그 초하루 보름에 들어가면 배속 풀려. [조사자 : 왜 재수가 풀려.] 몰라. 장사가 잘 된다. 장사꾼들은 초하루 보름이면 가. 차도 타고 지금도 거기 갔다 오면 장사 잘 된다.

11 호랑이를 만난 사람

조규숙(72, 여) /묘봉리T 4앞

[묘봉리] 박중수, 강현모, 유수영, 하보영, 최문정 조사(1996. 5. 24.)

조사자들이 묘봉리에 들어가 처음에 만난 분으로 옛날 이야기를 청했더니 잊어버려 모른다고만 하셨다. 조사자가 자꾸 부탁하자 할머니께서 말씀을 해 주셨다. 제보자는 이 묘봉리에서 내려오는 전설을 알지 못하였다. 이 곳 묘봉리에는 토박이가 없다고들 말하고 있는데,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울이나 아니면 다른 지방에서 이사나 시집을 온 사람이었다. 그리고 토박이들은 서울이나 다른 지방 도시들로 이사를 가고 없었다. 그 중에서 가장 오래 사신 제보자였다. 이곳에는 제보자 이외 몇 분이 더 계셨지만, 전부 회피하시고 이야기 하기를 꺼려하였다.

[조사자1 : 할머니 겪은 얘기도 해 주시고요 옛날 얘기도 해 주세요. 두 개다.(웃음)] 어 [청중 : 해 줘요. 시집살이 한 얘기, 애들 기르는 얘기.] 지금은 많이 여기 저기 시골들 서울이나 한 가지야, 불이 많고.

옛날에 인제 방아를 찌러 가면은, 저 구석에서 내가 찌어가지고 오면은 여럿이 기다려서 찌잖아. 그러면 인제 해가 저물어 밤에 와.

어 인제 호랑이가 불이 벌건 줄은 난 몰랐거든 불이 눈이 환하게 불이 비치는 걸 몰랐어. 인제 혼자 걸어오는데 불이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있더니 그 불이 산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저거 도깨비 불인가보다.”

그랬지. 그랬더니 호랑이야. 그게 호랑이 불이야. 그래 인제 내가 호랑이 불을 몰랐지. 잠아 잡아먹혀도 모르는 거지.(웃음) [조사자1 : 할머니 아주 어렸을 때요?] 아니야 시집와가주고선, [조사자1 : 그때 호랑이가 있었어요?] 어.

어 방아 찌 인제 찌 인제 지금은 방아를 으 기계에다 찌지는데, 그전엔 방아를 찌러 저기 가거든. 가서 찌어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면 밤에 인제 혼자 걸어오는데, 불이 왔다갔다 해여. 그래서 그게 도깨비 불인

줄 알았거든. 그런데 그게 호랭이 불이야 그걸 몰랐지. 그게 몰르면은 자기가 잡아먹히는 것도 몰라.

그러고 한 번은 인제 교회로 새벽 기도를 가는데, [조사자] : 할머니 교회 다니세요? 응. 저리 인제 가는데, 호랭이가,

“어흥! 어흥!”

하고 쫓아오는 거야. 근데 나는 인제 신작로로 이렇게 가거든. 호랭이는 산으로 쫓아오면서 그 길을 쫓아오면서 자꾸 ‘어흥’ 대는 거야. 그래도 자꾸 그냥 가는 거야. 그랬더니 자꾸 어흥대고 오더니 동네가 닥치니까 도로 오던 길로 가드라구. 그래 한 번 그렇게 봤어. 그래 인제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주시나 봐. 무서워서 다시 못 가나 그걸 몰라고.

또 한 번은 새벽기도를 가는데, 모이어서 공동묘지 옆이어서 불이 뽀뽀해여. 그래도 그냥 갔어. 그리고는 또 한 번은 가는데, 미친 놈이 딱 섰는 거야, 앞에 와서. 그래도 인제 그냥 이러구 갔지.

그랬더니 그 후로부터는 아무 것도 안보여. 괜찮아. 그래 그 후로부터는 계속 나갔어. 그래 세 번을 그렇게 호랭이가 한 번 쫓아오면서 짓고, 한 번은 인제 마귀가 인제 불이 뽀뽀해여 모이서 그러구. 한 번은 미친 놈이 앞에가 딱 섰어. 그래도 그냥 갔어. 그랬더니 그 후로부터는 아무 일 없드라구 세 번을 그렇게. [조사자] : 정말 시험을 당하셨나보다.] 응. 그걸 이기고 나가니까 아무 일이 없드라구. 그러구 옛날에 베풀께.

12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조규숙(72, 여) /묘봉리T 4앞

[묘봉리] 박중수, 강현모, 유수영, 하보영, 최문정 조사(1996. 5. 24.)

이 이야기는 어떤 할머니가 욕심많은 호랑이에게 잡혀 먹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옛날 동화책에서나 할머니에게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다.

그 그것도 딸이, 이것도 호랭이 얘기야. 인제 옛날에는 호랭이가 흔했데. 산 밑에서 사는데, 인제 떡을 해가지구 떡을 해가지구 인자 가는데 호랭이가 뒤에 쫓아가면서,

“그거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그거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그래 하나씩 던져 줬어. 가다 또 하나 던져 주고 가다, 아 낭중엔 할머니를 잡아 먹었는데, 호랭이가. [조사자1 : (웃음)떡 안 쥐 갖구요?] 잉? [조사자1 : 떡 안 쥐 갖구요?] 떡 다 먹구선 인제, [조사자1 : 떡, 다 먹고 또 할머니도 잡아 먹었어요?] 그래.

13 쫓겨난 셋째 딸

조규숙(72, 여)/묘봉리T 4앞

[묘봉리] 박종수, 강현모, 유수영, 하보영, 최문정 조사(1996. 5. 24.)

이 이야기는 녹음이 안된 부분으로 앞에 열심히 받아 적은 내용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째딸이 쫓겨났는데 그 딸이 제일 잘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옛날에 딸이 셋 있는 부자 아버지가 있었거든. 그런데 어느날 하루는 아버지가 딸 셋을 모두 모아 놓구선 똑 같은 질문을 했는데, 먼저 첫째 딸에게,

“너는 누 덕에 먹고 사니?”

라고 하자. 큰 딸이,

“아버지 덕에 먹고 살죠.”

라고 했디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흐뭇해 가지고 또 둘째 딸에게도,

“너는 누 덕에 먹고 사니?”

했더니 둘째 딸 역시 첫째 딸 언니와 같은 대답으로,

“아버지 덕에 먹고 살죠.”

했지. 이제 셋째 딸에게 질문할 차례가 되었는데, 아버지는 유난히 셋째 딸을 귀여워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 덕에 먹고 산다.’ 고 대답할 줄 알고 물었더니. 철없는 막내딸은,

“제 덕에 먹고 살죠”

해서. 아버지가 화가 많이 나서 지나가던 숫장수에게 시집을 보내버렸 다야. 막내딸이 숫장수를 따라 와서 보니, 집 주위에 담으로 쌓아 놓은 것이 들로 쌓아 놔야 하는데, 전부 금으로 쌓아 놔데요. 왜냐하면 숫장 수는 그게 금인지도 몰르고, 그걸 팔면은 부자가 된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 외에도 집안 곳곳에 금이 가득 했어. 한 번은 남편이 나갈 때 금을 주면서,

“팔아 오라.”

고 해서. 남편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아내가 시키니까, 시키는대로 하니, 진짜 돈을 많이 쥐서 집에 가지고 와서 들어서 평생토록 잘 살 았다. 그리고 나머지 ‘아버지 덕에 먹고 산다.’는 두 언니는 남편을 잘 못 만나서 별로 잘 살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누구 덕에 먹고 사는게 아니고 자기 덕에 먹고 산다.’ 고 말해야 혀. 그래야 잘 사는 거. 셋째 딸 봐. ‘지 덕에 먹고 산 다.’ 고 해서 잘 살잖어. 사람의 운명이란 지가 맨들기 나름이여. 여기 우리 아가씨들도 잘 살게 생겼어, 이쁘장하니.

14 임금 태어날 묘자리가 있는 묘봉리

송상제(49, 남)/묘봉리T 4앞

[묘봉리 묘봉상회] 박종수, 강현모, 유수영, 하보영, 최문정 조사(1996. 5. 24.)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묘봉리로 들어가는 길목에 묘봉상회라는 곳이 있었다. 묘봉상 회에서 목을 축일 겸해 들렀다가 우연히 제보자를 만났다. 이 묘봉리란 곳은 명당 자리

가 많은 곳으로 유명하며, 그 모습은 우리나라 지도 모양과 똑같이 생겼다고 했다.

가만 있어 봐. 여기 이 봉우리 보이지 요거. 조금 더 와 봐. 지금은 나무가 많아서 잘 안 보이는데, 요 봉우리 안에 요 있잖아요, 하나이고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이게 임금 왕자여. 두 개 봉우리랑 세 개가 봉우리가 있었는데 옛날, 안 보여, 옛날에 보였는데, 지금은 안 보여. 나무가 많아가지구.

그래 여기가, 저기 뭐냐면 옛날부터 뭐라고 하나 하면, 여기 묘자리를 쓰면 옛날부터 임금이 태어난다고 그랬어. 그래 지금은 대통령이지? 근데 지금 김대중씨 묘가 저 안에 하나 자리 잡았어요. 이번에 김대중씨가 아니라 부친을 갖다가. 그래 옛날 전설이라 확실히 모르겠어요. [조사자1 : 이런 얘기도 괜찮아요, 저희 지금 해 주신 얘기 같은 거요. 그런 것도 되게 좋거든요?]

그런게 임걱정 알죠? 임걱정 할머니가 요요, 이게 요 앞에, 관미봉이라고 고 아래가 임걱정 할머니 묘가 있어가지구 임걱정이 태어난 자리에요. (중간부분 대화 생략) 여기가 옛날에 있잖아요 여기가 무했냐 하면 ‘살아선 진천 죽어서 용인’이라는데, 요기 보이는 산 봉우리가 임금 왕자예요. 요기가. 요기 묘봉리는 토끼 묘자 봉우리 봉자.

김대중씨 부친 묘가 요 안에 있다는데 자세히는 잘 모르거든요. 지금 수원 사는데, 원래 여기다 여기서 한 20년 살았거든요. 근데 여기가 좋긴 좋은가 봐요. 근데 지관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 하는 거 보니까, 고기가 그것 그 사람들은 묘자리가 아 나쁘다 이러는데 물줄기 따라서 그거 알겠다 그러더라구요. 여기가 뭐가 좋긴 좋은가 봐요.

[조사자1 : 여기로 가면 묘가 많이 있어요? 이 쪽으로 가 보면은.] 묘보담 묘자리는 별로 없는데, 산세가 이 용인에서 최고로 좋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 먼저 뭐 여기 뭐, 나도 확실히는 모르거든요. 나도 여기서 한 20년 살다가 지금 수원에서 사는데, 여기 김대중씨 부친 묘가 요 골짜기로 들어가면은, 거기가 지관들이 머리를 흔들더라요. 이게 자리가

아니래는데, 또랑 이 물줄기를 파가지고,

“야! 이게 진짜로구나. 이게 진짜라.”

그걸 얘기 하더라 그래요 요 그늘 요 가운데 보이죠 요거. 그게 하나 죠 그 옆에 있는 것과 같이 임금 왕자라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하고 틀 려, 옛날에는 확실히 이게 봉오리가 하나 있으면 요렇게 있고 요렇게 되 있어서 요게, 이게 임금 왕자란 말이야. 지금은 나무가 많아서 안 보 여요 요게 요 산 관림봉, 관림봉여. [조사자 : 그게 명당자리예요?] 그 아래 그 관림봉 요 아래 산에는 옛날에 임금이 나온다는 그게 임금 왕 자라고 그러거든.

그게 대통령이 그래 김대중씨가 나와서 될지 모르죠 뭐 자기 부친 묘 썼데니까. 지관들이 내려오면서 아 이런 명당이 있었나 그러더라 그 러드래요. 모르겠어요. 김대중씨가 운이 좋으면은 대통령이 되는 것이 고, 그렇지 않으면, 그 양반이 대통령이 되면 여기가 좋아지겠지요. 그 령죠?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조사자] : 전설이 있으니까 되겠 죠] 전설이 있어요.

15 도깨비 일화(2)

성중애(69, 여) /묘봉리T 4앞

[묘봉리] 박종수, 강현모, 유수영, 하보영, 최문정 조사(1996. 5. 24.)

이 이야기는 초상이 난 마을이라 너무나 썰렁해서 마땅한 곳에 차를 대 놓고 제보자를 찾아다닐라고 하였다. 이때 그 집 앞에서 만난 할머니를 붙잡고 이야기를 해 달라고 졸랐다. 처음에는 삼가집에 가야 된다고 잠깐 다니러 온 것이라고 하여서 붙잡고 부탁하였다. 처음엔 잘 모른다고 하더니 이야기를 해주셨다. 끝에 성함을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말도 잘 못했는데 무슨 성함이냐고 자주 빼시다가 가르쳐 주신 분이다.

그 그전에 여기두, 이 동네두 지금 다 여기 이게 마을이 됐지. 그전에

여기도 다 수풀이었어서, 수풀. [조사자 : 여기가요? 마을이 아니구요?] 그럼. 예 요요기 요거 요거(집 대문밖에 땅 차를 주차시켜 놓은 곳을 가르키며) 우리 집만 밭이 그전에 있었고 요요기 짓는 데는 저기고, 이 들로는 다 수풀이었어. 다 가시나무가 그냥 이렇게 길루 자라구. 그래가 주고서냥 그냥 거기 있는데, 그냥 밤이면은 증말 도깨비가 그냥 불이 그냥 번쩍번쩍 해가주고서는, 그냥 도깨비가 그냥 나와가주고서는 똑다 락 똑다락. 밤 어떻게 이렇게(하늘을 가르키며) 이런 좋은 날은 안 나오 고 날이 좀 곳을라고 비가 좀 오고 그래는 날, 그런 날은 그냥 그래서 날을 쭉 비치고 온더.

[조사자 : 아, 도깨비 불.] 도깨비 불을 비치고 온더. 왔다가 또 절로 쭉 갔다가 왔다 또 쭉 갔다 그러더래. 그러는데 인저 그렇게 하고 인저 지나갔는데, 인저 한 노인네가 인저 들에 갔다가 안 오셔서 그냥 찾아 나온 거여 인저. 저물으는, 저물어도 안 오니까, 늦어도 안 오니까. 그랬는데 무서워서 인저 자기두 인저 저길 했는데,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었 디야. 인저 찾아나왔다가 도로 들어갔더.

그랬는데 그냥 궁금해 죽겠지, 집에서는. 그랬는데 한 밤중이 넘어서 새벽녘이 되서 닭이 울으니까는 노인네가 들어 왔드랴. 그냥 여기다 후 즐그리 해가지구, 그냥 그래가주구.

“아니, 어딜 갔다 왔느냐?”

그러니까. 모른덴다 그러드려. [조사자 :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기억 을 못 하는 거지 흘러가지고 도깨비한테 흘러가지구. 그래가주고 그냥 애 뭉뎡이가 그냥 풀 투생이, 기냥 풀에 인저 스쳤으니까 다 이런 데가 까지구(무릎과 팔 등을 보여주면서) 그랬잖어. 마 아무대로나 끌고 다니 니까.

그 사람네 눈에는 이런 길로(아스팔트를 가르키며) 보인더, 환하게. [조사자 : 아 수풀 같은 데가요?] 응. 환하게 보이는데, 수풀인지 뭔지도 몰르고, 길 환하게 보이는 거니까 막 쫓아가는 겨, 그냥 무조건. 쫓아가 니까 덤플 속으로 데리고 가는 거라, 도깨비가. 그래가주고설랑 그냥 와

서 그냥 지쳐 잤구, 그냥 약 사다 맥이구 그래가주구서 살았다구. 그런 얘기들 하더라구 그전에.(웃음) [조사자 : 아, 그런데 도깨비 얘기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많지. 저기 옛날에는 이런 산쪽에도

16 범떡고개

성종애(69, 여) /묘봉리T 4앞

[묘봉리] 박종수, 강현모, 유수영, 하보영, 최문정 조사(1996. 5. 2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계속하여 구술하여 준 것이다.

지금 여기는 이렇게 길을 닦아서 읍지. 저 범떡고개라고 요 고개 말고 저기 가면 범떡고개라고 있어. 거기는 도둑놈도 많고, 옛날에.

거기서 도둑놈도 많아가지구 도둑놈들이 지키고 있는 거여. 산 길, 순산 길이니까. 그래면은 도둑놈들이 지키고 있다가서나 인저, 사람들이 인저 뭐 곡석 사가지고 오잖아. 장에 가서, 소, 소 팔아가지고 오고. 그럼 그거 뺏는 거여, 그냥 칼 들이 대고.

그러니까 어땡 해여 쥐야지. 목숨은 살아야 할테니까 뺏기고 그냥 오는 거지 뭐 그냥. 저 고개, 이 고개 말고 저 범떡고개라고 있어. [조사자 : 예 거기도 묘봉리.] 예,

거 묘봉리는 아니구, 거기는 이 고개 넘어 가지구 저쪽으로 가면, 지금은 길 다 닦아서 어디가 고갯지도 몰라. 그랬는데 그래서 저가 범이 또 있어가꾸 범이 사람을 해치고 그래가지구 그래서 저가 범떡고개래.

그래고 거기 옛날에 무서웠다구. 우리네 중말 새댁 시절만 해도 무서워서 거기 못 지나 땡겼어. 그런데 지금은 다 닦아서 지금 무서운 데가 어딴어?(일동 웃음)

3) 민요

□ 보리타작 노래

김학수(48, 남)/묘봉리T 1앞

[묘봉 3리] 박종수, 강현모, 임광혁, 조재현, 은정은 조사(1995. 11. 4.)

이 마을에서 농민대회 2등을 수상한 보리타작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일부 노래를 불러주었다.

그 옛날에 뭐, 지금은 논이 많지만은 옛날에는 순전히 비료로다가 농사진거 아니요 지금은 약이랑 기계가 발달해서 그냥 밭도 논으로 만들어서 양식만큼 심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논이 얼마없고 밭이지, 밭이니 까 보리 많이 심었잖아요. 보리 많이 심으니까 보리타작을 하는 거예요. 농기계가 뭐 있어! 손수 매가지고 도리깨라고 하는 것 매고, 그래가지고 또 큰 절구통 갖다놓고 털고, 패질하면서 그런 식으로 한 것 갖다가 잊혀지니까는 '우리가 요즘에 잊혀지는 거 나가면은(대회에 출전) 사랑스럽고 참 좋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번 해 보자! 참 그걸 한 번 시험을 해 본거지. 그게 좋더라고. 옛날 생각이 많이 난다는 거. 어른들이 그냥 구경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더 그냥 뜻있게 생각 하더라구. 그래가지고 용인서 할 때(대회) 인기가 좋았대구. 거 뭐 딴 마을은 포크댄스라니, 아! 이거 시골실정에 맞는 거 이런 걸 나가야 된다고, 나가가지고 좋았대구. 그런 식이지. 옛날에 어른들이 보리타작하는 거.

[조사자 : 대충 언제부터 전해내려 온건지?] 전해내려 오는 거. 우리 어려서부터, 어려서 요만 했을 때부터 봤으니까. 언제, 한 근 백여 년 되지 않았을까 보는데. [조사자 :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처음에는 제가 상소리를 넣으면은, 상소리에 맞춰서 도리깨질을 하는 거지. 도리깨질을 하면은 같이 박자가 맞으니까 힘든지 모르고 그런 식으로 박자를 넣어 옛날에 상쇠를 넣어 가면서 타작을 한 것 같애.

[조사자 : 일을 하다가 힘들면 어떻게 했나요?] 힘들고 하면은 농주라고 옛날에 막걸리 있잖아. 그걸 해 놓구서 한 잔씩 돌려가며 나눠 먹으면서 쉬어서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조사자 : 하실 때 중간에 노래가 있잖습니까?] 노래가 있지. [조사자 : 불러 주실 수 있습니까?] 가사가 있었는데 대강 아는 것으로만 할게요.

(말로 합)

야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일들 오셨으니
보리타작 일찌감치 하고 맙시다

아-! 그럼시다 ----- 후렴부,

상소리꾼이,

어- 허야, 어- 허야

이렇게 놓고, 또 받아서

어 - 허야, 어 - 허야

이 보리가 뉘 보리요,
김서방네 보리로세.
밀보린가, 쌀보린가.
사정없이 후려보세
후렴 : 어 - 허야, 어 - 허야

자꾸 후렴을 그 사람들은 '어 - 허야' 라는 후렴만 넣어주고, 상소리꾼은 이런 식을

높은데는 팡팡 찌고,
낮은데는 살근살근,
이 보리를 다 떨어져서
나라에도 봉사하고

그러면 또

이 보리를 다 떨어져서
가마니에 가득 담고,
이 보리를 다 떨어져서
맷돌에다 들들 갈고,
보리개떡 보리죽을
온 식구가 다 먹는다.
잘도하네 잘도하네
우리 일꾼 잘도하네.
높은데는 팡팡 찌고,
낮은데는 살근살근

이런식으로 나와서 하는 거지 (웃음) [조사자 : 거기가 끝입니까?] 아
니예요. 더 있어요. [조사자 : 그럼, 하시는 것을 (사진)찍어 드릴까요]

자 한 잔씩들 하셨으니
우리 일찌감치��고 맙시다
어 -허야, 어 -허야,
어 -허야, 어 -허야

옥신옥신 후려보세,
사정없이 후려보세,
높은 데는 팡팡 찌고

낮은 데는 살근살근.
 잘도 하네 잘도 해요.
 우리 일꾼 잘도 해요.
 왕대초심 꺼꾸로 잡고
 옥신옥신 후려보세.
 어 -허야, 어 -허야.
 옥신옥신 후려보세,
 사정없이 후려보세

[조사자 : 거기가 끝입니까?] 하하! 잘 모르겠네요. 지금 할려고 하나
 까 가사를 다 기억 못 하겠네. [조사자 : 저번에 그런 식으로 해서 나간
 겁니까?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15분 연기를 했나? MBC가 15분만 하라고 해서 내용이라고 해
 야 자세히 말씀드릴 게 있나 뭐. 하여튼 이게 옛날 어른들 했던 걸 재연
 했다는 거, 그거 하나가 뜻이 깊더라구. 그거 한 가지가 좋더라구. 하하!
 노래하면 그 앞에서 또 이제 치구박구, 까불고, 키질도 하고, 절구질도
 하고, 패질이라고 이제 보리단을 이렇게 묶으면은 이삭을 대충 떨어져서
 도리깨질 할 걸 맨드는 거야. 도리깨질 할 걸 자리 이삭할 때 싹 떠넘어
 지게, 두금 이상 떨어져서 저 쪽에 넘겨주면 도리깨질 자리 이삭할 때 털
 어 넘긴다구.

② 자장가

임병영(72, 여)/묘봉리T 3앞

[묘봉리 상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이웅준, 김상구, 서기주 조사(1995. 11. 4.)

이야기를 마치고 또다른 이야기를 부탁하자 모른다고 하였다. 그래서 옛날에 어린 아
 이를 재울 때 부르던 것을 부탁하자 해 주신 것이다. 뒤 단락은 앞 단락 사이에 다른 민

요가 삽입되어야 하는데, 독립시키고 바로 이어서 기록하였다.

동네 개야 짓지 마라
 멍멍 개야 짓지 마라
 우리 애기 잘도 잔다
 (새야) 새야 짓지 마라

동네 개야 짓지 마라
 꼬꼬 닭아 울지 마라
 멍멍 개야 짓지 마라
 우리 애기는 잘도 잔다

③ 하늘개 들날개

임병영(72, 여)/묘봉리T 3앞

[묘봉리 상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이응준, 김상구, 서기주 조사(1995. 11. 4.)

앞의 노래 사이에 붙였던 노래를 독립시켜 놓았다. 이 노래는 옛날에 놀 때 부르던 것이라 한다.

하늘개 들날개
 삼사 나가니
 인간이 백다귀
 바리니 수채국
 용용 두고
 갈대 장군
 도드래 마드래
 땅.

4 뱃노래

임병영(72, 여)/묘봉리T 3뒤

[묘봉리 상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이용준, 김상구, 서기주 조사(1995. 11. 4.)

반쪽이 이야기를 마치고 생각이 났는지 민요를 불러주었다.

어스런 달밤에 개구리 우는 소리
 시집 못 간 노처녀가 안달이 났구나
 어야루야루루야
 어야루야루어기어차 뱃소리 가잖다.

5 창부타령

임병영(72, 여)/묘봉리T 3뒤

[묘봉리 상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이용준, 김상구, 서기주 조사(1995. 11. 4.)

앞의 노래를 마치고 노처녀에 대한 노래를 부탁하자 불러준 것이다.

낭구 들고 고목이 되면
 놀던 새도 아니 온다.

4) 기타

1 수수께끼

임병영(72, 여)/묘봉리T 3뒤

[묘봉리 상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이용준, 김상구, 서기주 조사(1995. 11. 4.)

*바탕안에 기둥, 바탕 안에 기둥, 기둥에 사기조, 사기조 안에 문조, 문조 안에 뭐, 뭐 잊어 버렸어. 그것도 즉 기둥-바탕-사기-물조-삼지조 이게 뭐야.

—덴맹두(남포동)

*아들 셋이 아버지 귀를 뚫고 어깨 넘어다니는 것은?

—도루깨

*도래팡팡 꼬여서 요단지는?

—우렁

여

백

4. 화산리

1) 마을개관

박종수, 강현모, 이희정, 백유미, 김지현, 김숙경, 윤수영, 김미경, 오재나 조사
(1995. 11. 4., 1996. 5. 24.)

화산리는 용인터미널에서 완행버스를 타고 면소재지인 송전에 가기 전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은 국도에서 한참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한 편이다.

화산리는 용인군 하동촌면에 속하였던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요산동과 모산동을 합하여 이들이 공통으로 있는 산자를, 이들 마을 뒤에 있는 화학산의 화자를 앞에 놓아 화산리라고 칭하여 이동면에 편입시켰다.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작은 마을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요산동은 요산골이라고 하는데, 마을 뒤에 있는 시궁산의 다른 이름이 요산으로 이 산 밑에 있는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리고 모산동은 보리미라고 하는데, 이곳은 물이 부족하여 보리가 잘 되고 많이 낫기 때문에 붙여졌다. 그런데 미는 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자어로 표기하면 모산이라고 하겠다.

이 마을에는 애경사를 알리는 신이한 은행나무와 우물이 있다. 은행나무는 은행이 열면 불길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며, 우물도 4.19때 물이 빨갛게 뒤집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가서 빌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굴암천의 용굴 등이 있다. 이처럼 마을에는 신앙성을 가진 장소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2) 설화

① 돈 많은 석순이

주금순(61, 여)/화산리T 2앞1앞

[화산리 밭에서] 박종수, 강현모, 이회정, 백유미, 김지현 조사(1995. 11. 4.)

마음을 심고 계시던 이 할머니는 우리의 성화와 부녀회장님의 말씀에 못 이겨 이야기를 시작했다. 바람이 몹시 불었고 아외였던 탓에 녹음이 깨끗하지 않아서 청취 하기가 어려웠다. 이 이야기의 앞부분이 tape와 앞과 연결된 것은 녹음기 작동의 미숙으로 일어난 실수였다.

되게 부지런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하루에 나무를 두 짐을 허는데, 자구 나머지는, 자구 나머지는 이 놈의 한 짐이 옮겨지고 옮겨지고.

“참 이상하다. 이 놈의 나무가 어디 가, 다 갔나?”

그래서 이냥 하루는 나무를 석 짐을 부지런히 해다 놓고, 그 냥구 속에가 딱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무짐이 그냥 하늘로 막 올라가드랴.(tape 1앞에 계속) 그래서 그 냥구짐에 따라서 그냥 올라간 거지, 그 냥 하늘루. 그래서 인자 올라가고 있으니까는.

“여기를 왜 왔고?”

그러드래. 그리고 보니까,

“니가 올 줄 알았다. 그러나 니가 부지런한 지는 내가 다 안다.”

그러디 나무가 산더미 같이 쌓여드래요.

“그래, 너는 하루에 냥구 석 짐을 복인데.”

니가 부지런하여 나무를 너무 많이 해서 뺏어 온거래. 복이 아니라구.
[조사자 : 복이 아니라구요?] 응.

“복을 어디 두었느냐고 복 좀 달라”고.

“복이 어디 있느냐고. 복이 없는다. 너는 석순이 복이 켈 많다.”

고 그러드래. [조사자 : 어떤 복이요?] 석순이 복. [조사자 : 석순이?] 석순이. [조사자 : 그게 뭐예요?] 복을 잘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청취불

능 석순이 복을 빌려 주드라. 그래서 도로 내려와서 사는디, 어떤 배가 많이 아픈 여자가 그냥 애를 낳을라구 그냥 저길 하더래요 그래서,

“식당 같은 디서 가서 낳으라.”

구. 그러자 마루 끝에 와서는, 거기서 그냥 인자 애를 낳아버린 거여. 방에도 못 들어 가고. 그냥 멧돌을, 옛날에는 집집마다 멧돌이 있었잖아. 그 멧돌을 끌어 안고는 그냥 애를 그냥 낳았어. 그러니까 인자 그 엄마가,

“그냥 애를, 그냥 멧돌에서 낳았으니까 석순이라고 해야겠다.”

(일동웃음) [조사자 : 그래 석순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가, ‘석순이 복이 제일 많다는 바로 저 놈이로구나!’ 그 여자를 못가게 하고, 절(결)에 놔두고 같이 산 거여. 그래서 그냥 금방 부자로 살았대. 그런 애기 있어.

② 개 창자 넣은 사람

주금순(61, 여)/화산리T 1앞

[화산리 밭에서] 박중수, 강현모, 이희정, 백유미, 김지현 조사(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할머니께서는 마늘 심기에 주력하였다. 그래서 조사자들은 마늘 심는 일을 도와주면서 구술하여 줄 것을 부탁하자,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주었다. 이야기는 어릴 때 어른들한테 들은 이야기로, 허리를 쥐고 웃었다며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옛날에 어떤 선비가 엄마가 하도 배가 아프다고 맨날 그러니까,
“개울로 가자.”

고 그러더래. 엄마를. 그래서 인자 개울로 엄마를 데리고 가서, 배를 툅 갈랐대요. 갈라 가지고, 개울물에다 씻어가지고 넣을라고 그러니까는, 이놈의 저기 까치가 한 마리 오더니, 이냥 창사구(창자)를 물어가 버렸

대요. 그러니 어떻게 그냥, 그 놈을 도로 다 씻어서 넣어야 하는데.

그러니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는 그냥, 개를 이냥 잡아가지고, 인자 개 창사구를 거기다 이어서 꼬맷어, 엄마를. 그랬는데, 그러고 낫는데 인자 배 아프다는 소리는 안 하는데, 그냥 손자들이 이냥 똥을 싸면은,

“아이고 또똥해서 가서 묵으야겠다.”(조사자 웃음)

그게 고깃말 얘기여, 그게. ‘또똥해서 가서 묵으야겠다.’ 하고 가서 그냥 먹고먹고 그러드래요. 그런 얘기여. 옛날 그런 고깃말 얘기. 개 창사를 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인자 지금, 그런 인자 기술이 다 나왔잖어. 그냥 배도 짤르고 갈르고. 그 옛날 그 선비, 인자 그 기술이 인자 나온 거야, 죄. 그 놈의 까치가 물어가가 주고.

③ 땃들의 역할

주금순(61, 여)/화산리T 1앞

[화산리 밭에서] 박종수, 강현모, 이회정, 백유미, 김지현 조사(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들이 제보자에게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다며 칭찬하자, ‘다 잊어서 알고 있는 것이 얼마 안 된다’고 말씀하다가 생각이 났는지 이야기를 구술하기 시작하였다.

그냥 혼자 몸똥이 그냥 살아쏜디, 혼자서 먹고 살려니까 그냥 일을 해야 되잖어. 그래서 맨날 내 목구녕 하나 먹자고 그냥 밤날해니까는, 지 생각에 인자 그제 인자 저기가 들어간 거여. 혼자 먹자고 그렇게 바쁘게 이냥 사는가?

하루는 그냥, 그냥 사흘을 굶어 버렸어. 그러니까 그냥 배 속에서 한다는 소리가 그냥,

“꾸르륵!”

하더래요. 그러면서,

“너는 한 가지 책임을 가지고 일을 허지만, 나는 세 가지 책임을 가지고 있다.”

[조사자 : 그 세 가지가 뭐예요?] 멧들이 맥혀서 못내려 가니까. ‘응! 저기로구나.’ 잘못 했네. 그냥 사흘을 굶어 버렸어. 굶으니까는 그냥 배가 ‘꾸르륵 꾸르륵’ 그냥 고평 죽겠지. 그래서 그냥 밥을, 그냥 또 진탕 먹어 버렸어. 진탕 먹어버리니까 그냥 이놈이, 그냥 꼭 맥혀 버렸지. 그러니까는 그냥 멧속에서 ‘꾸르륵’ 해면서.

“너는 한 가지 책임이나 가지고 일하지만, 나는 세 가지 책임이나 가지고 있다.”

그런 소릴 들으니까 그냥 요게 꽤썸하거든. 그러니까 멧들이,

“맥혀서 못 내려 간다.”

아 가서 그냥 콧,

“나는 좋은 거는 피로 보내고, 맑은 것은 오줌으로 보내고, 찌꺼기는 똥으로 보내고, 세 가지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한 가지만 가지고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가서 그냥 멧들이 맥혀서 못 나간대니까 그냥, 토해 버리니까 이냥 쪽 내려 가더래. 그런 거야. [조사자 : 말씀 잘 하시는 데요?] 할 말도 없어, 인자 다 했어.

4 선비와 호랑이

주금순(61, 여)/화산리T 1앞

[화산리 밭에서] 박종수, 강현모, 이희정, 백유미, 김지현 조사(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들이 새로운 이야기를 부탁하자, 한참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러다 조사자들이 열심히 도와줄 때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기 시작하였다.

천둥 번개가 그냥 치고, 그냥 하늘에서 그냥 번갯불이 그냥 머리 위에서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고 그냥 그러는데. 옛날에는 다 그냥 걸어 다녔으니까, 산길루. 이렇게 굴이 요렇게 패였더라고, 산골짜구니까.

그래서 길 가던 사람이 그리 싹 들어간 거여. 그래서 인제 비를 피할 라구 서 있는데, 별안간 어디서 그냥 호랑이가 그냥 나타나더니, 그냥 그 앞에서 그냥 막 ‘으르렁’ 거리는 거여. 그러니까,

“그냥 다 죽을 순 없다고 아무나 여기서 옷을 벗어서, 바깥에다 던져 가지고, 고 옷을 물어간 사람이든 나가거라.”

그러니까, 인자 옷을 벗어서 던지니까 그냥, 그 선비 옷을 그냥 호랑이가 물고 가더라. 그러니까,

“너 뎀에 우리가 다 죽을 순 없으니까, 너 나가라.”

고 그러니까 그냥,

“아나, 잡아 먹어라.”

하고 그냥 획 뛰어 나왔더라고. 뛰어 나오니까 그냥 그 호랑이는 간 곳도 읊고, 그 굴이 그냥 ‘와르르르르’ 무너져 버리더라. 그러니까 그 갇힌 사람들은 다 죽구, 그 한 사람만 살아 나온거지. 그러니까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나올 구멍은 있다.’ 그러니까 ‘살 사람은 어디로 가던지 다 산다.’ 그거여.

그 사람을 살려야 겠으니까. 저기 얘기 잘 나오네. 누가 막 빠져 죽었다고.

⑤ 화산리의 유래

정기영(70, 남)/화산리T 1앞

[화산리 제보자택] 박중수, 강현모, 이회정, 백유미, 김지현 조사(1995. 11. 4.)

원삼년에 태어나 이곳 송전초등학교 등에서 38년간을 재직하다 퇴직하였다. 그리고

제보자는 동네의 유래와 효자문, 열녀문 등을 조사하러 다니기도 하였는데, 이야기한 것은 이때 조사한 것이라 한다. 제보자는 지금 양봉업을 시작하였다고 하는데, 조사자들에게 꿀물을 한 대접을 타 주시기도 하였다.

여기 여기가 화산리여. [조사자 : 화산리요?] 응. 화산리. 요산골은 아니고. 그건 저 자연 부락 얘기한 거구.

왜 화산리냐 하면은, 저기 저 산이 저 시공산이라고 그러는텐데. 녹음하는 거여? [조사자 : 예.] 저게 저 시공산이여. 시공산인데,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은 이렇게 화산이 터졌다고, 그전에.

왜 그전에 터졌다는 것을 아냐 하면은, 시커먼 돌이 사방에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화산이 터졌다는 거지.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화산리라고 그런 거여.

⑥ 초계 정씨의 효자문

정기영(70, 남)/화산리T 1앞

[화산리 제보자택] 박종수, 강현모, 이희정, 백유미, 김지현 조사(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친 제보자는 이곳에서 조사하였던 효자나 열녀문에 대한 것 중에서 이 동네와 관련된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주었다. 제보자는 이에 앞서 시공산에 대해 간략하게 말한 다음에 이 효자문에 대해 구술하여 주었다.

여기 가면은 노다골이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 나도 인제 들은 얘기지. 근데 거긴 노씨들이 많이 살았대요. 지금은 집이 한 채도 없어요. 그래서 노다골이라고 그랬고.

나도 이걸 그전에, 내가 교육공무원이루 있다가 퇴직한 사람이에요. 그래 나도 이거 우리 고장을 전부 걸어 땀기면서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조사자 : 그래 아셨군요. 이것 녹음하는 것.]

그래 요너머 인저 가면은 초계 정씨들 정자문이 있어요. 인자 그러니까 효자문이지. [조사자 : 여기 효자문이 있어요?] 응. 요너머 가면은, 화산리가 아니고 모산동인데.(이곳 마을에 대해 설명 생략.) 그런데 거기에 효자문이 있었는데. [조사자 : 근데 그 효자문은 어떻게 해서?] 그건 내 유래를 얘기할게요 거 나도 거 조사하러 땡길 적에 들은 얘기여.

아버지가, 그러니까 딸이지. 딸이 아버지가 병이 났었대요. 근데 그때 때가 어느 때냐 하며는 아주 겨울 때예요. 눈이 이렇게 그냥 뭐 쌓이고, 땅이 팡팡 얼고. 그랬었는데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중병이지. 중병인데. 그래 인제 별약을 다 쓴 거여. 그 딸이. 인저 그 저 초계 정씨래요, 초계. 근데 약을 별 약을 다 써도 영 듣질 았더라고. 그래서 인저 아버지가 인저 돌아가실 지경까지 되고, 인저 그 아버지에게 인저 최후루다 소원을 물어 봤더라고.

물어보니까 그 대추가, 대추도 이런 빨건 대추 말고, 퍼런 대추, 그러니까 저, 인저 대추지.(나무를 가리킨다.) 지금은 장에 가면 그 빨건 거 팔고 그러잖아요. 근데 파란게 먹고 싶더라 그거여. 그 할아버지가. 그 아버님이.

아 그때 눈이 이렇게 쌓이고 그냥 겨울기인데, 어디 가서 파란 대추를 구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여자가 에 대추나무 밑에다가 명석을 깔고, 명석이라는 것 알어요? [조사자 : 알아요. 돛자리 비슷한 것.] 그냥 계속 그냥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응 그 대추, 햇대추가 열리도록 그냥 계속 공을 드린 거여. 아 그러구서 인저 하나 그냥 며칠을 두고서 참 공을 드린 거지. 아 그러구서 인저 거기서 그냥 그 자리에서 자구 그냥, 떨구 그냥 먹지도 았고 그냥 했으니 효녀지. 효자지.

아 그래 잠결에. 아 어떻게 그냥 잠이 들었대요. 그래서 잠결에 이렇게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아 대추나무에서 그 하-, 파란 대추가 열, 열렸드래요. 그래서 그 대추를 따다가 아버지를, 그래 인저 다려드리고. 그랬더니 그 병이 낫더라고. 그래서 지금, 지금 열녀문을 그렇게 세워

났어요.

나도 그래서 그때, 그거, 그런 걸 나도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했었는데. 그래서 나도 그때 그걸 알은 거유. 그래 지금도 그 문이 있어요. 호자문이라고 이렇게 세워 뒀지요. 근데 그, 그런 유래같은 거는 써 있지 않지. 그리 그, 그런게 있어요.

⑦ 요산동 지명 유래

정기영(70, 남)/화산리T 1앞

[화산리 제보자택] 박중수, 강현모, 이희정, 백유미, 김지현 조사(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계속하여 이곳 마을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하였는데, 교육공무원일 때 조사하였던 것이라 한다.

마을의 석전골에 웅달샘이 있어 임금님이 지나시다 물을 드셨는데 물맛이 너무 좋아서 그 후에도 쌍가마를 타고 오셔서 드시고 가신 곳이라 요임금 요자와 되 산자를 따서 요산동이라고 불렀다지.

근데 거기 가면은 산꼭대기, 시공산 꼭대기 올라가면은 이렇게 물이 나온 자국이 있어요. 그전에 그 물을 뭐 퍼다 먹구 그랬다고 그러대요.

⑧ 순안 안씨 열녀문

정기영(70, 남)/화산리T 1앞

[화산리 제보자택] 박중수, 강현모, 이희정, 백유미, 김지현 조사(1995. 11. 4.)

이 이야기도 이곳을 조사하였던 과정에서 듣게 된 것으로, 앞의 요산동의 유래에 대해 구술한 뒤에 계속하여 구술하여 주었다. 이야기 뒤에는 이곳 화산에 대한 자연스러움

과 이곳에 태어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구술하여 주었다.

여기 같이 용인군이에요 요기서 한 20리 되요 거기두, 거기는 에 그 성씨를 알아 보니까 순흥 안씨예요 순흥 안씨. 거기두 열녀, 에 효자문 이에요 근데 거기두 그런 문구를 써 있지 않구. 그냥 그 열녀, 그 문을 세우고, 그냥 '순흥안씨 누구누구 열녀문'. 이렇게 써 놓았더라구. 그래 열녀는 열녀예요.

인제 거기두 부모한테 그렇게 아주 저, 자부여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 노인네, 노인네 자부가 그렇게, 그렇게 저 효자루 살은 거여. 그런데 거기두, 거기두 그런 저 그 공적을 살펴보면 대개 그래요 무슨 뭐 거기 는 열녀가 그러니까, 자부가 시아버지가 홀로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중병이 앓았는데. 그 자부가 자기 살을 비어서, 에 그 걸을 약을 해 드렸대요. 그런 전설이 있구. 그 뭐 자꾸 내려오다가 그것 도 변해고 그런 거여. 여기는 그게 확실한 거야.

9] 애경사를 알리는 은행나무

이한수(63, 남)/화산리T 2앞

[화산리 정자나무 밑] 박종수, 강현모, 이회정, 백유미, 김지현 조사(1995. 11. 4.)

조사자들은 화산리에 들어와 정기영할아버지댁에서 조사를 마치고 마을 돌아다니다가 세 분이 모여있는 정자나무를 발견하였다. 그러면서 은행나무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올해에 은행이 열린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다.

[조사자1 : 은행나무 어땡더는 거야(요)?] [조사자 : 신문에 났다면서요?] 은행이 열렸지. 안 열리는 건데 올해 열린 거야, 은행이. 그러니까 몇 년도에 열린 건가? 6. 25, 6. 25가 몇 년도지? [청중 : 50년.] 50년도 해방이? [청중들 : 45년도.] 그러면 50년 만에 딱 열린 건가? 50년 만에

또 열린거지. [청중들 : 아니, 45년 만에.] 왜 95년이니까 50년에 만에, [청중 : 아니 50년도에 열렸었다매? 아하 6.25가 났구.] [청중2 : 아하! 6.25가 나고] [청중 : 사진이나 찍어가지고 가지. 요기 고, 고대로 있어. 있는데 가가지고 여 또 호도송이 같이 요래요래 달려가지고 요기가 딱 요런게 하나 있어. 그런 거 가가지고.]

[조사자 : 그러면 그 전에는 잘 안 열렸어요?] 안 열리는게. [청중들 : 안 열리는 열매가 열렸으니까, 그 나무가.] [청중 : 해방 되던 해 열었고, 6.25때 열었고, 금년에 열었다 이그야. 고때 그 열매가 열리면 세상 난리가 나고, 야단이 날 때에만 열었는데. 금년에 또 열었어.]

우리나라에 변이 있는 거 아냐. 6.25, 해방, 응 [조사자 : 참 이상하네요?] 응 그러니까. [청중3 : 그러니까, 이장이 전변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년에 조국통일 된다고 그랬대.(일동웃음) 통일이 될지 전쟁이 날지 모르는 거지.](중간 부분 생략)

[청중3 : 우리는 인제 얘기만 들었는데, 하야튼 45년 해방되던 해 그 개 열었고. 또 저개 나무가 은행나무는 숫나무, 그 암수가 있는데, 숫나무는 열지 않는다고. 근데 이제 이걸 이 양반(이장님)이 조금 의심스러워 가지고, 뭐 이리저리 물어본 식물계통에 말이지, 물어본 결과에 그 은행나무는 숫놈도 연다고 이기야. 그런까 아무 것도 아니라고. 그 얘기 들어보니까 안 그래. 근데 이 동네 있는 사람은 벌써 45년도에 해방될 직에 그 놈이 한 번 열었고, 또 통 안 열다가 6.25때 한 번 열었고. 또 금년에 열었으니까, '이거 무슨 세상에 난리가 안 나겠느냐.' 그저 그런 얘기 그저 여론이지. 무슨 놈의 확고하게 이런 것은 읊어. 읊고 그래서 이 양반이 이것 하야튼 뭐 고약한 것이니까, '수놈도 그 숫나무도 열매가 여느냐?' 물으니까 '연다.' 카더래. 그래, 그것은 확인한 양반이야. 그래 그 사람도 은행나무 그 전문인데, 이 은행나무가 숫놈도 영양 상태가 좋을 때, 고 때는 숫놈도 열리는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숫놈은 안 열린데. 은행나무는.]

10 화산리의 옛 지명 보리미

이한수(63, 남)/화산리T 2앞

[화산리 정자나무 밑] 박종수, 강현모, 이회정, 백유미, 김지현 조사(1995. 11. 4.)

제보자는 앞의 은행나무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다. 그리고 올해에 은행이 열린 것에 대한 앞의 이야기에 대해 말씀을 계속하다가, 이곳의 지명에 대해 조사자들이 묻자 구술하여 주었다.

옛날엔, [조사자 : 옛날에 보리면이었어요?] 보리, 보리.

보리를 많이 심었다고, 보리미래. 그런데 인자 요렇게 요기가 보리면 여. 저 윗동네가 요산골, 그 옛날에 이름으로.

11 물이 부족하던 화산리

제보자(30대, 남)/화산리T 2앞

[화산리 논가] 박종수, 강현모, 이회정, 백유미, 김지현 조사(1995. 11. 4.)

이 이야기 앞에 공석형 할아버지가 이 마을에 대한 다양한 것들은 말씀하여 주었는데, 사실적인 것들이어서 이야기로 가치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 조사자들은 새로운 제보자를 찾아 나섰다. 만난 제보자이다. 마침 일을 마치고 점심을 논둑에서 먹고 있는데, 젊은 사람이라 꺼렸으나, 제보자가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였다. 그래서 조사나온 목적을 말하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2명 젊은 남자와 2명의 아주머니가 함께 들었다.

밑에 부락하고 윗 부락하고 서로 나누어져 있죠? 저 원래는 이 부락이, 현재 작년 재작년인가 경지정리가 되가지고, 이 앞에 논이 예쁘게 이렇게 잘 만들어졌는데, 삼 년 전만 해도 이렇게 다랑이 논이라고 해야 되나요. 좁은 마지기에. 그렇게 생긴 논이었었던거든요.

그때 당시 와 봐도 여기가 물이 그렇게 귀한 데예요 저수할 수 있는 데가 읊는 거예요. 그 윗부락에 가며는 조그마한 저수지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건 너무 적어가지고, 여기 들판을 다 감당할 수 있가? 없겠드
라구 내가 봐도.

그래 대부분 품어 저수지, 저수를 하고. 옛날에 저쪽 송전에 큰 물을
갖다가, 품어들려서 가져오는 공사까지만 했었는데, 그게 실패를 했더라
구요. 실패한 그집 뒤 세면(시멘트) 탱크라던가 그런게 한쪽에 지금도
있어요. 수로 길이. 이젠 없어져 버렸지만. 인제 그래되어 왔던게, 최근
에 다지 그렇게 경지정리를 하고, 그랫, 그래 가지고 원만히 물을 그대
짓고 그러는데. 아마 그전에는 뭐, 전해온 내력으로 봤을 때, 저기 보리
가 잘 되었던가 봐요. 그래 그것 때문에 이름을 갖다가 인제, [조사자 :
모산동이다.] 모산동이라고 부르게 되고.

모산동 얘기도 들어봤어요? [조사자 : 아니, 이거는 못 들었어요.] 요
윗 부락 얘긴데, 윗 부락에 석전골이라는 웅달샘이 있어가지고, 임금님
이 지나가다가 그 물을 드셨다데, 물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후에도
쌍가마를 타고 와가지고 그걸 드시고 가셨다고 해서, 임금 묘자에 그
자를 따서, 그리고 산, 퇴 산자 산 그쪽에 시봉산이란 금산이 있으니까.
그 산수를 따가지고 묘산동이라고 했대고 그래요. 그래서 윗 부락 묘산,
여기는 모산. [조사자 : 우리 한 번 가 보는게 좋겠다.]

지금 가게 되면은 그 웅달샘이 찾을 수가 없더라구요. 나도 한 번 올
라가서 불려고 했는데, 거기가 지금 골프장으로 되어 있는, 골프장 안에
지대 어디인가 봐요.

12 애경사를 알리는 우물

박유중(48, 여)/화산리T 2투

[화산리 길가] 박종수, 강현모, 이희정, 백유미, 김지현 조사(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들에게 점심을 권하였다. 이때 조사자들이 새로운 이야

기를 부탁하자 생각이 났는지 스스로 구술하여 주었다. 청중으로는 2명 젊은 남자와 2명의 아주머니가 함께 있었다.

또 4·19혁명 같은 거, 그런 때에 그 물이 빨갛게 뒤집혀졌다는 얘기 들었을 때, 회안한 적에 가 들여다 보거나 그런게 아니죠 [조사자 : 그래도 뭐?] 응 그런 얘기 밖에는 몰라요 [조사자 : 참 이상하지요. 그런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옛날서부터도 그게 온 동네가 그 물 하나 먹었는데요. 여 날르고, 저 날르고 했잖아요, 옛날이. 그런데 그 옆에 향나무 하나가 커. 꽤 커 아주. 그런데 4H에서, 그 청년들이 회관을 지으면서 그 놈을 잘랐다가 벌을 썼다는 것 같으더라고요. 나도 그때 아직 상포리로 안 왔을 때야.

그런데 그 우물을 지금 동네가 인제 막 바뀌니까, 다 집이 들어와 섰죠. 동네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논이었었으니까. 지금 거기 논이 찾아볼래야 없어. 그, 그 다 철고 지금 집을 지어버렸는데, 옛날에 그러더라고. 경사스러운 일이던가, 4·19 때 같은 때 이런 때에 물이 다 뒤집혀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동네에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동네에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그 우물이 인, 잇날(옛날)부터 그렇게 위해 내려오던 것을 저렇게 방치해 두고, 또 그 향나무도 버다 갖다가 그 벌을 쓰고, 막 그래서 그렇게 동네 안 좋은 일이 생기나 보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13 느티나무 가지를 베고 벌 받은 사람

정기영(70, 남)/화산리T 2위

[화산리 제보자택] 박중수, 강현모, 이회정, 백유미, 김지현 조사(1995. 11. 4.)

원삼면에 태어나 이곳 송전초등학교 등에서 38년간을 재직하다 퇴직하였다. 그리고 제보자는 동네의 유래와 효자문, 열녀문 등을 조사하러 다니기도 하였는데, 이야기하는 것은 이때 조사하였다고 한다.

그런 거 있어요 우리 동네는 그렇지 않는데, 요 저 넘어 동네에 가면 은, 거기도 느티나무가 있는데, 느티나무가 길 옆에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얘기를 들은 건데.

거기에 사람이, 요 근래 그랬다야. 거기 사람이, 아들이, 아들이 집을 질라고 차에다가 모래를 파가지고 왔는데, 인제 이렇게 벽이 여기 있고, 그래 인제 모래를 파가지고 와서 이렇게 여기다 베겨야 되겠는데, 그래 운전한 사람은 차를 운전해야 할께 아녀. 빠꾸 해면은 ‘오라이 오라이’ 하고, 인제 내가 안내를 하는 사람인데, 인제, 차 그 뒤에서

“오라이. 오라이.”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그 얘기 듣고, 지가 빠꾸할 것 아니여. 근데 여기 뒤에 벽이 있는데, 벽을 모르고 그렇게 될지 몰랐지. 그래 벽에, 벽에 지대(기대)가지고서 ‘오라이, 오라이.’ 했는데, 이게 이 사람이 자꾸 빠꾸를 했던 말여. 그래 벽하고 차하고 그냥 이렇게 돼야가지고서 사람이 그냥 죽어 버렸어.

그거 뭐 교통사고도 아니고. 뭐 참 기가 막힌 일이지. 인자 그러다가 아버지가 또 몇 달만에 이 저 교통사고로다가 죽었어. 그러니까 부재가 죽은 거여.

근데 그 전에도 대개 그 농촌에 뭐 큰 고목나무가 있으면 대개 민어 요 아 뭐, 떡 해다 놓고 빌기도 하고, 별짓들 다 하지. 내 그전에 많이 봤어. 저 뭐 그전이 이런 농촌에도, 이 저 디딜방아라고 방아가 있었어요. 인제 사람이 디디고 방아를 짚는 거, 뭐 그것도 뭐 방앗간에도 떡을 해 놓고서 빌고 그러는 거도 봤어요.(민간신앙과 상황을 제시하는 부분 생략)

그런데 그 동네에, 그러다가 부재가 죽은 거여. 인자 그 전에도 그 느

티나무, 거기 느티나무가 커다래요, 그 느티나무. 그런데 길 옆에 있어요 거긴 내가 재주(자주) 가요, 내 손자가 살아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길 옆에 있으니까. 이 놈의 가지가 요렇게 질(길)로 뺏었을 거 아냐? 근게 인자 뭐 타작 해머는 뭐 벼(벼)가마 같은 거, 뭐 가지고 다니면 근게 인자 걸리고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 아들이 그 나무를 베었대요 그 저가쟁이를요 비고 나서는 그렇다는 거지.

14 도깨비 일화

김이정(78, 여)/화산리T 3앞

[화산리] 박종수, 강현모, 김숙경, 윤수영, 김미경, 오재나 조사(1996. 5. 26.)

조사자들은 화산리의 이곳저곳을 헤매이던 중에 제보자를 만났다. 제보자는 충북 제천에서 태어나 33살에 이곳으로 시집을 와서 56년째 살고 있다고 한다.

[조사자 : 옛날 얘기 없어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호랑이나 늑대가 나타났거나.] 그런 건 모르고. 도깨비가 나타났다고 뭐 그런 일이며.

한날 저녁에 머 저 아래 갔다가 오는데, 머 도깨비가 나타나가지고서는 사람 뭐 놀래고 그랬다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불 들고 가서 불라고 그러면 아무 것도 없네요. [조사자 : 어딘 데요?] 저 아래 돌간 있는데. 도깨비 나타난다고. [조사자 : 돌간이요?]

저 아래 올라다 보면 머 동사구리에 있어요 거기서 도깨비가 나타났다고 그러드라도 그전에 돌을 띠다 팔았어요, 돌을. [조사자 : 아. 돌을 팔라 가지고.] 어. 반듯반듯하게 그래. [조사자 : 아 산에 있는 돌을 가지고요.] 어어, 도깨비 나타났다고 그래고.

아래 조합장 비가 서 있었어. 비 있는데 가면 무섭다고 가질 못했다고. [조사자 : 왜요?] 도깨비 있다고 그러니까 고 가졌어. [조사자 : 그럼

사람들이 많이 봤겠네요] 대부분 술 먹고 막 어정정하게 이러게 하는 사람에게 꼬리치느가 봐. 가만히 보니까 바른 정신에, 장담이 썬(썬) 사람에게는 안 그러니까 그래.

내 어렸을 때 콩을 까붙었어. 콩을 까붙리는데, 여기 지순 할아버지가 저기 그 노인네 있잖아. 그 노인네가 성당을 갔다 오시다가 길을 잃었어.

그러다가 그냥 불러 쌓는데, 우리 노인네는(를) 불렀어요. 거기가 어딘가, 내가 콩을 까붙리는 소리가 나니까. 그 소리 듣고 부르는데, 그래서 여기서 대답은 하는데, 여기서 사람 소리가 들리고 하니까 지순 아버지가 나왔어. 모시고 갔다고 술이 얼간 하면은 올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콩을 까붙리니까, 콩을 까붙리는 소리가 나니까 여기서 향해서 우리 노인네 이름을 불렀어.

한 번은 큰 시아버지가 저 한산강에 갔다가 오시는데, 저 송전 아래 다리가 있는데 공동묘지야.

그땐 글루 전부 들어가시고서 그냥 그 산을 다 헤매게 되는데. 그 아래는 아주 깊은 물가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 가서 돌아다니는 데도 길은 못 찾아가지고, 밤새도록 그러다가 거기서는 그냥 사람에 소린데, 지금이 어느 때네 이런가 하고, 소리긴 사람 소린데 그 산은 공동묘지가 조간에 여기는 연못이데, 이 가생이를 그래고 그 물에 빠지지 않고 그 때 찾았는데.

15 용이 승천한 용굴

김이정(78, 여)/화산리T 3앞

[화산리] 박종수, 강현모, 김숙경, 윤수영, 김미경, 오재나 조사(1996. 5. 2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생각이 났는지 계속하여 구술하여 주었다.

[조사자 : 용뭇인네요?] 연뭇이요 거기가 용뭇이라고 용이 나간 곳이라고 얼마나 싶은지 몰라. 그 시방은 사람 목간 하다 보면, 여름에. [조사자 : 거기서 용이 나왔는 데요?] 용이. [조사자 : 옛날에 어떻게 용이 나왔데요?] 옛날에 용이 올라 갔다는데, 그 개울에서 용 나갔다는데, 지금은 자꾸 모래가 썰리니까 그래서 지금은 많이 메였어요. 거기 서 있으면 점점 몸이 썰려 들어가.

[조사자 : 그래서 사람이 자꾸 죽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로 막대기로 막아 났어. 까다하면 거기 가면 귀신이 잡아당겨가지고, 서울에서 학생들이 와가지고 미역 감다가 영낙없이 그러지. [조사자 : 거기서 용 나왔다면서요?] 그래도 시방은 다 평평해졌는 데도, 그래도 사람들이 기여 들어가 버린다고 그래.

[조사자 : 용 같은 거 나왔다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좋아두 한 사람, 두 사람 빠져 죽으니까는, 그 귀신이 자기가 나올라구, 사람을 잡아놓아야 자기가 나온대. [조사자 : 어 그래요?] 귀신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또 한 사람 집어넣으면. 그럼 그 대신 귀신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고 자리만 가면 자꾸 죽는 거야.

[조사자 : 그게 어딘 데요?] 저 아해 송전이랜데. [조사자 : 송전이요?] 응. 그런데 자꾸 금지도 하지만, 거기가 그런지 뭐 알아요. 거기서 여러 명 죽었다고 그래. 우리 사춘 형님 오빠 사람들이 같이 갔는데, 물이 오리 야튼데 고기 들어가가지고 그냥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뭐 하나부다 그랬대. 근데 앉아서 물이 차지 않으면 낮은 건데,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접시 물에도 빠져 죽는다고 그런단다.

16 불길한 징조를 알리는 은행나무

김이정(78, 여)/화산리T 3앞

[화산리] 박종수, 강현모, 김숙경, 윤수영, 김미경, 오재나 조사(1996. 5. 2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여러가지 민속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중에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주었다.

우리 동네에는 은행나무가 한 그루 있어. 은행나무가 항상 크지도 않고 그래도 있어. 은행나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은행나무가 생전 가도 열매가 열리지 않는데, 작년에 딱 두송이가 열렸는데, 동네 사람들이 하두 '이상하다, 이상하다' 생각 했어.

은행나무에 열매가 열리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전설이 있는데. 아 작년에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구속되어서, 마을 사람들이 혹시 은행나무가 열리지 않아서 그런가 생각이 돼.

17 골프장 공사로 산맥이 끊긴 마을

김이정(78, 여)/화산리T 3앞

[화산리] 박종수, 강현모, 김숙경, 윤수영, 김미경, 오재나 조사(1996. 5. 24.)

앞 이야기를 마치고 계속하여 구술하였다.

하루는 우리 동네에 골프장이 생긴다고 난리가 났어. 큰 산맥이 하나 있는데, 그 산맥을 다 깎아버리고 골프장을 만든다고 혀. 하루는 한 젊은 남자가 장사를 지내러, 그 산맥을 올라 갔는데, 갑자기 숨이 차다면서 갑자기 쓰러지며 죽었어.

젊은 남자들이 그 산맥을 오르기만 하면 계속 죽는 것이여. 하두 이

상하다 생각했어. 아마 그 산을 골프장으로 만들어서 그런가 봐.

18 아들 낳게 하는 굴암천에 용굴

김이정(78, 여)/화산리T 3앞

[화산리] 박종수, 강현모, 김숙경, 윤수영, 김미경, 오재나 조사(1996. 5. 24.)

앞의 이야기를 이어서 계속하여 구술하여 주었다.

굴암천이라는 절이 산에 붙어 있는데, 거기 가면 굴이 두 개 있다. 그 굴이 용이 지나다니는 굴이라고 해. 자식 못 낳는 사람이 그 굴을 지나가면 아이를 낳는다는 전설이 있어.

[조사자 : 할머니는 그 전설을 믿으시는지요?] 글썸, 나는 용이라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옛날 할머니한테 나도 들은 얘기에. [조사자 : 그 용 굴을 지나가면 아이를 낳는다는데, 아이를 못낳는 사람이 진짜로 아이를 낳은 사람이 있나요?] 글썸. 나도 보지는 못하고 얘기만 들었는데, 사실이니까 그런 얘기가 있겠지. 그게 이상이 없어야지 이상이 있으면 안돼.

나는 자식이 아홉이야. 아 낳기 싫어도 자꾸 쏟아지는 걸 어떻게.

5. 시미리

1) 마을개관

박종수, 강현모, 문경옥, 박주경 조사(1998. 5. 22.)

시미리는 용인터미널에서 버스로 1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위치한 마을이다. 이 마을은 안성이나 오산 평택으로 나가는 국도가 서쪽에 있다.

시미리는 용인군 하동촌면에 속하였던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세때배기, 쌍계정, 비룡동(빈양점)을 합쳐 시미리라 칭하고 이동면에 편입시켰다. 이 시미리는 시묘굴, 시묘동 등으로 불리다가 시골, 시미동, 시미곡이 되었다고 한다. 마을의 유래는 주산이 삼봉산에 큰 산소들이 많은데, 옛날에 시묘를 살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서 붙여졌다고 하기도 하고, 연산군 때 어느 효자가 3년간 시묘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시미리를 이루는 작은 마을의 유래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쌍계정은 시미곡 남쪽에 있다고 해서 남진말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남진말의 서쪽 마을 입구에 느티나무 두 그루가 있고, 그 나무 밑에 정자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그런데 남진말은 남쪽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산벼락은 개간하였을 때 매우 질어서 진말이라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비룡동은 쌍계정 서쪽에 있는 마을로, 비냥이 또는 빈양점이라고 한다. 이곳의 유래는 주위의 산세가 용이 날아오르는 형국이라고 해서 비룡동이라고도 하였고, 옛날에 빈양점이란 주막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비냥이라고 불렀던 것이 한자어로 빈양점이라고 표기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세때배기는 시미골 서쪽에 있는 마을로 청해 이씨 문중에 효부가 있어 효대를 세우고 효대박이라는 부르던 것이 차츰 변음이 되었다고도 하고, 솟대가 박혀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하는데, 후자가 더욱 신빙성이 높다 하겠다.

이 마을은 동쪽에 삼봉산이 있고, 서쪽에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하천과 함께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다. 그런데 그 들판은 넓게 형성하지 못하고 다시 서쪽에 산록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마을은 최근에 여러가지 공장들이 들어서 주민들 중에 일부는 공장을 다니는 것으로 주 수입원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논농사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2) 설화

① 쌍귀의 유래

영동상회 주인(50대, 남)/시미리T 1앞
[남짓말 영동상회] 박종수, 강현모, 문경옥, 박주경 조사(1998. 5. 22.)

조사자 일행은 오후 수업을 끝내고 박종수교수의 차를 타고 시미리를 찾아가 남짓말 영동상회 앞의 공터에서 조사자를 물색하였다. 그리고 제보자를 찾기 위하여 상회에 들어가서 주인에게 이것 저것을 묻는 도중에 이 마을의 유래에게 대해서 듣게 되었다.

어른들 말씀은 저쪽 초입에요 느티나무쪽에가, 정자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서, [조사자1 : 느티나무요?] 느티나무요. [조사자2 : 마을 입구가 여기가 아니고 저긴가 보지요?] 아이 이쪽이 큰 길이고요, 그쪽이 소롯길이었는데, 옛날부터 나무가 커요. 그렇게 부르는 거 같아요.

② 마을의 지명 유래

이형순(69, 남)/시미리T 1앞
[남짓말 영동상회] 박종수, 강현모, 문경옥, 박주경 조사(1998. 5. 22.)

영동상회에서 주인에게 이것 저것을 묻자 그에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였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한 분이 왔는데, 그 분이 바로 제보자이다. 제보자는 이곳에 태어

난 분으로 젊었을 때에는 마사회가 특성에 있을 때 7~8년간 근무를 하였다고 한다. 제보자는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으로 보았을 때 유식한 마을의 상층계층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민담을 많이 알고 있으나 조사 상황이 제대로 되지 못하여 채록할 수 없었다. 따라서 들은 것은 이 마을에 전해오는 전설이었다. 제보자는 조사를 마쳤을 때 뒤에 만나 이야기를 많이 하여보자고 제의하였다.

① 빈영

저기를 시미곡, 여기를 남진말, 요 앞이는 빈영이라고 원, [조사자 : 빈영?] 빈영. 빈영이. [조사자 : 빈영.] 빈영. 빈영동이라고. [조사자 : 빈영요?] 예. 빈영동이라고 그런다고.

그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이 빈영이는, 옛날에 이 앞에다가 이 저 서울로 올라가는 이 대로가 있었어요. 일로(이곳으로) [조사자 : 이 길이에요?] 예. 요 앞에 한 길짜리 고 넘어가며는. [조사자 : 삼거리에서 올라오며는, 천안 삼거리에서 올라오는 길이에요?] 그렇지. 그렇게도 올라오지, 이게.

그리고 이게 과거보러 가고 그러는, 가는 길이에요. 경상도서 올라오는. 그런데 그 이 빈영이는 어, 오다가 중간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그 저 주막이 많았다고. 그 때는 말두 맥이구 사람두 자구 하는.

그래서 빈영이가 손 빈자 맞을 영자를, [조사자 : 빈영.] 응. 빈영점이라고 빈영점. 원 이름이.

② 시미곡

그러구 저 넘어 저 시미곡이라구 있는데 거기는 시미골이라구 그래요. 시미골이라구. 시미골. 시미골은 거기가 연안이씨 아주 집성촌이며, 거기가. [조사자 : 시미골이.] 시미골이.

그래갖고 저 산에 삼봉산이라고. 삼봉산이 연안이씨네 종산인데. 거기를 가면은 이 저 큰 산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서부터 그 이조 때

니까 세묘살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여. 그 골로. 그래서 원 세묘골인데, 그게 저 말이 자꾸 변, 변해가꾸서 지금 시미골이라고 그런 거구 시미골. 그 동네를.

③ 쌍궤정

그러구 우리 동네는 여기 남진말이라구 해고, 여기를 남진말. 저기 저 간판들 보시지만. 남진말이고, 여기 시미리 남진말. 그렇지 않으면 쌍궤정. 쌍궤정. 옛날에는 쌍궤정이라구 했어. 어 쌍자 이거에다 이 저 느티나무 궤자를 쓰고 정자 정자를 썼어요, 우리 동네를. 쌍궤정.

이게 왜정 때는 계속 그렇게 불렀어요 쌍궤정. 시미리 쌍궤정이, 시미리 시미곡, 시미리 빈영정. 이렇게 세 그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여기가 쌍궤정은 우리 동네가, 이 동네 지금 있는 동네는 없었구, 옛날에는. 한 백이십 년 전 되면 여기 집이 없었어요. 하나두 없었어요.

그러구 저 산에서 내려오면서, 이 저 별판으로 이저 진폴다 참나무가 이런 것들이 여기 그냥 죽 있던 데라구요. 그래가구선 이저 원동네는 저 안터라구 있구. 요기 여기는 안터. 동네 이름이 있어요. 일루 저 방 죽 있는데루 절루 들어가면 아낙골, 고 넘어 골짜기루 들어가면 작은 아낙골, 그러구 고 넘어가며는 상진말, 그러구 그 넘어가면 영선골. 이렇게 돼 있는데.

예전에는 사람들이 집을 살아도 이렇게 별판에 살지 않구, 전부 골짜기를 찾아 들어가서 살았다구. 그래가구선 여기나 여기쯤 될 꺼야. 여기나 이 길이 그후 요새 근자에 난거지 뭐, 옛날에는 없었으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연속 들이됐으니까, 아마 여기 여기쯤 됐을꺼야, 여기. 여기 느티나무가 크게 두 개가 있어갓구 있구, 여기 정자를 지어논 게 있었어요, 정자를 지어서.

여기 우리 동네 사람들이 옛날에는 전부 오산장들을 봤는데, 용인이 용인에 읍구 용인은. 인제 저기 저 구성면에 가면 거기도 그 옛날 그 구

읍이라고 있지. 거기로 약간 땡기구, 주로 아마 오산에 가서 소금이구 아마 그런 걸 사왔던 모양이여. 거기만 해도 바다가 가까우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장에 간다면 주로 소금들을 사온 모양이여, 소금들을. 그래가 구선 이 사람들이 장에 갔다 와가구는, 여기 정자에 쉬어가면서 그래서 얘기하면서 헤어진 것이 각 골짜기로 들어가서 살았던 인자 살았던 모양이여.

그래선 여기 여기가 쌍궤정이라구. 그래서 여기가 동네가 들어섰거든. 그래서 쌍궤정으로 이름이 돼 있다구. 여기가 말하자면.

④ 남짓말

그런데 여기를 남진말이라구두 하구 그러는데, 남진말은 이 진포를, 진포를 개간해가지구 동네가 서가지구, 그냥 거기를 아주 진말이라구. 아주 옛날에는 엄청 질었, 질었을 거예요, 여기. 산벼락을 개간했으니 여간 질을 거예요, 동네가. 그래서 진말이라구 그래서 동네가 진말이 됐구.

③ 전주 이씨 효부 정문

이형순(69, 남)/시미리T 1앞

[남짓말 영동상회] 박종수, 강현모, 문경옥, 박주경 조사(1998. 5. 22)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호랑이나 효부에 관한 이야기를 묻자 있었던 사실이 라며 말씀을 하였는데 실화적 구성을 이루지 못하여 기록하지 않았다. 그 후에도 이 마을에 있었던 사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다가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주었다.

효부가 있었지, 효부. [조사자 : 효부 정문?] 응. [조사자 : 그럼 그 효 부가 어떻게 해서 정문까지 세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집안 구석이

가 나무데기가 우리 어려서까지 다 있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인저.

여기 요기 가면 집이 큰 집이 거기 있어요 그 전주 이씨가 전에 살던 집인데, 그때 그 전주 이씨네 며느리에, 며느리 그 양반에 정문인데, 응 남편이 그냥 앓다가 돌아간 거 같아요. 앓다가 돌아갔는데. 앓는데 그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인고기가 좋대니까 그 자기 넙적다리를 칼로 자기가 그냥 그었대요. 그냥 자기가 그냥, 그래가지고 그걸 맥였는데두 그 남편이 돌아갔다고 그 사람들이 여기 뭐 권하고도 뵈 되는 사람들이여. 그런데 그러고나도, 그래도 남편이 낱질 앓아서, 그냥 심애를 하다가 단식을 했어요. 계속 단식. 거 우리 거기가, 그 집이 현재 있고, 우리 사촌이 그 집에서 사는데.

그 건너방에서, 옛날 지적(거적?)을 깔았대요, 자리. 자리 깔구 자는데, 그 여자가 더군다나 다리를 찼았으니 뭐, 이렇게 고기를 띠었으니 뭐, 그 때 무슨 약이 제대로 있었겠어요 근데 그 얘기가 크게 오래 된 것도 아니에요 이조 말엽 그때 얘기에요. 그래가구선 밥을 상에다 바쳐다가 그 뭐여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종이 종들이 이렇게 갖다 바치면 밤낮 빈그릇이 나와, 나왔대는 거여. 밤낮 빈그릇의 밥이.

그래서, 그래두 밥은 억지로라도 자시는가 보다 했더니, 나중에 이 양반이 죽을 때가 됐는데. 들어가서 방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자리 밑에다가 밥을 한없이 죄 쏟아부었더라, 한없이. 그리고 단식을 해갖구 죽었어요 노인, 그 마나님이. 그래서 효부, 효부 정문이 여기 하나 있어요.

④ 시미리에 묻힌 하정승

이형순(69, 남)/시미리T 1왕

[남짓말 영동상회] 박종수, 강현모, 문경옥, 박주경 조사(1998. 5. 22)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이곳에 전해오는 명당에 관한 이야기를 묻자 해 주신

것이다. 이 이야기도 완전한 서사구조를 갖추지 못하였지만, 지명전설로 가능성 때문에 이곳에 실었다.

그러구 저기, 여기서 조금 들어가면 골짜기가 하나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하정승 묘라구 그렇게 구전되어 내려온 데가 있어. 하정승. [조사자 : 화정승?] 하! 하.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지금도 그래요 이 저 전고대방이나 뭐 이런 책을 보면, 이조 때 정승 해먹은 하륜이 백에 읍어요 그래서 ‘하륜이 묘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두 하구 있다구. 그런데 그게 확인이 안 되구 있지.

5] 고시례의 유래

이형순(69, 남)/시미리T 1앞

[남짓말 영동상회] 박종수, 강현모, 문경옥, 박주경 조사(1998. 5. 22)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논에서 밥을 먹고 첫순갈을 버리면서 하는 것이 무엇이나’고 물었다. 그래서 고시례의 유래에 대해 묻자 해주신 이야기이다.

[조사자 : 그러면 아까 저 아저씨한테 물어왔는데, 고시례한다는 것은 왜 고시례 한다는 것인지 혹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응 고시례. [조사자 : 고시례 허지요?]

고시례가 그게 도선이 어머니래. 고씨가. 고시, ‘고씨네’ 그러는 거지 ‘고시례’가 아니래. 응. 그래서 그 도선이 어머니가, 그렇게 도선이가 돈을(지리의 잘못된 듯) 저기 저 용허고 뭐 증으로서 용허고 그렇게 살았어도, 그 어머니 하나를 제대로 봉양을 못했드라구, 도선이가.

그래서 어머니, 그러구 하야튼 증말들 가난허고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그 동네가, 그 그 후서부터 그렇게 동네가 비도 안 오고 그래갖구선

그래,

“고씨네!”

하구선, 그 밥을 퍼서 먼저 그 집어던졌더니, 그 다음서부터 좀 나아졌다는 이런 얘기를 그 구전으로 내려오드라구. 그래 그것도 글을 아는, 알는 노인네들한테 들어야 그계,

⑥ 성묘하면 죽는 호랑이 혈의 묘지

이형순(69, 남)/시미리T 1앞

[남짓말 영동상회] 박종수, 강현모, 문경옥, 박주경 조사(1998. 5. 22)

앞의 고시례에 관한 말을 마치고 조사자가 이것저것 유도를 하다가, 용인시에서 들었던 호랑이 혈에 관한 이야기를 묻자 해 주신 것이다.

[조사자 : 요 위에 가면, 호랑이 혈에 무덤이 있다는데 그건 못 들으셨어요?] 조기 저기 위에 가야 호랑이 혈이라고 허지. 그런게 그 산에 지금 큰 산소가 써 있다구요, 지금 거기. 그 분들 성이 뭐라구 그러드라. 뭐 당췌 한 사람두 안 와요. 안 오는데 여기 와서 성묘만 해고 가면 죽는 데요, 하여튼.

[조사자 : 그런 묘에다?] 네. 그 놈의 호랭이 혈이라는데, 거기다. [조사자 : 그럼, 그 묘의 형태는 그냥 있어요 그대로?] 그대로 그렇죠. 그냥 있어요.

원래 크게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다 있어요 [조사자 : 그게 누구의 묘라는 것도 모르고?] 그계. 고씨네라구 그러는가 박씨네라구 그러는가. 그렇게 나와요 [조사자 : 성묘를 하면 죽어요?] 네. [조사자 : 그것 참 회안하네.] 아니 그래두, 글세 거기 자손은 오지 못하게 돼 있는 묘라구. 그래 오기만 하면 죽는데, 거기는 아주 성묘만 하면 죽는데.

⑦ 호랑이가 태워 준 사람

이형순(69, 남)/시미리T 1앞

[남짓말 영동상회] 박종수, 강현모, 문경욱, 박주경 조사(1998. 5. 22)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같은 용인시내에 있는 김량장유래에 관해 묻자, ‘그것은 그 사람에게 물어봐.’ 하면 말씀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먼저 호랑이에 말씀을 많이하였던 집에서 호랑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묻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그게 무슨 장난이냐?”

구. 그러면 여기 가랭이루 들어왔다는데, 호랭이가. 그래갖고서 태워 갖구 갔데, 그 처가댁까지. [조사자 : 호랭이가 태워 갔데요?] 영. 그래갖고 가구선 그 그냥 보내면 호랭이가 해꼬질 한대요. 그래서, 근데 그 호랭이가 여간 대문 안에는 안 들어온대요. 절대 습격은 안 한대요.

근데 가면은 그 처가댁에 가서,

“손님 왔다.”

그러면, 손님 왔데는 걸, 그걸 왔대라고, 호랭이가 데려왔다는 얘기를, 그걸 암호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대문에서 조금 더 나가서 울타리 있는데 가가꾸는, 옛날 오줌똥(오줌통)이나 말야, 그렇지 않으며 무슨 자백이나 뭐 이런 그릇을 하나 담 울넘어 확 집어 던지면,

“퍽각!”

하는 소리가 나면, 호랭이가 그쪽으로 간대는구만 그려. 그러면 대문을 열고 들어가구 그랬다고. 그런 얘길 하시더러구.

여

백

6. 덕성리

1) 마을개관

박종수, 강현도, 양여정, 장미화, 허일경, 이지옥, 진미옥, 최경미, 조사
(1995. 11. 4., 1996. 5. 24.)

덕성리는 용인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8정도의 거리에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 역시 동쪽과 서쪽에 산이 형성되어 있고, 마을의 중앙에 국도가 놓여 있다. 원덕성리는 국도 서쪽인 들판 건너에 형성되어 있고, 나머지 마을들은 국도 동쪽에 위치하여 있다.

덕성리는 용인군 상동촌면에 속하였던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덕성골 또는 덕성동에 목동의 일부를 합쳐 덕성리라고 하여 이동면에 편입시켰다. 덕성리가 생긴 유래를 보면, 옛날에 이 마을에 소씨들이 많이 살았는데, 이들이 선덕을 많이 베풀어 마을을 크게 이루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덕성리를 이루고 있는 작은 마을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원덕성리는 덕성리의 본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국도와 하천의 서쪽에 위치하여 있다. 금현은 일명 쇠재라고 하는데, 철과 관련된 지명이 아니라 마을 뒤에 있는 쇠재고개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즉 쇠재가 있는 산의 형상이 소가 누워있는 형국이라고 하는 데서 유래되었는데, 뒤에 한자어로 소를 가르키는 쇠를 철의 의미하는 쇠로 받아들여 금현이라 하게 되었다고 한다. 새터말은 금현과 원덕성리는 중간의 국도변에 생긴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한자어로 신기라고 한다. 삼배울은 한자어로 삼파라고 하는데, 전설에 의하면 도선국사가 이 마을을 지나다가 마을이 아주 잘 생

긴 길지라며 절을 세 번 하고 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신창은 사창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이곳에 사창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인데, 뒤에 새롭게 사창을 지었다고 신창이라 하게 되었다고 한다.

2) 설화

① 주인을 속인 도둑놈의 계략

박순애(76, 여)/덕성리T 1뒤

[덕성리 교회] 박종수, 강현모, 양여정, 장미화, 허밀경 조사(1995. 11. 4.)

앞의 노래를 마치고 할머니들 사이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심순애의 이야기가 나오자 노래로 불러준 뒤에 일제시대의 정신대에 대해 말씀하였다. 조사자가 자장가나 귀신 이야기를 부탁하자 부탁하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옛날에 말이여, 응 옛날에 산골 두메에 산골 두메에가 딱 두 집이만 살았어. 두 집만 사는데 한 집이서 부인이 죽었어.

죽었는데 인자 그 죽은 부인 시체를, 여기 저 뒤에다, 방 밑에다 놓고 서는 병풍을 쳐 놓고 있는데, 두 집 식구니까 두 집 식구만 모였는데, 저 집 내외하고 이 집이 남자 하나 허고 식밖에 더 있겠어.

그런데 그 밤중에, 겨울경 추운 겨울인데, 밤중에 이쪽에 그 마누라에, 마누라 죽은 그 남자,

“아버지가 돌아갔다.”

구. 그 눈구석에 또 기별이 왔어. 밤중에. 그러니 어떻게 마누라 죽었으니께, 그냥 두고 갔다 말이여. 가니까, 갔는데, 이웃집 남자 혼자만 있는 것여. 그 부인은 또 집이도 가 봐야 되고. 그래서 혼자 있는데, 얼마를 있는데 그냥 서먹서먹 해지. 뭐 남의 아내 죽은 여자, 죽은 여자만 평풍 뒤에 두고서 빈 집에 그렇게 있는데.

별안간 그냥 얼마 있더니, 이게 흔들흔들 하더라, 평풍이. 아 그러더

니 손이 이렇게 나오는데, 하얀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 이 남자가 그냥 기절 했어. 그냥 나동그라졌었던 말이여.

그랬더니 그것이 알고 보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질 않았는데, 잉 도둑놈이 그래져 해가지고 두메 산골에 와서 훔쳐갈라고 오 도둑놈이 계획을 해 가져고, 짜고서는 와가지고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서’ 주인네 가게 하고, 그러니까 와서 시체를 일으켜서 놀래게 하고, 또 그 사람을. 찌리케 해서. 그렇게 하고서는 훔쳐 갔대. 그렇게 도둑놈 계획이.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다구. 돼요. 다 잊어 먹었어.

2 덕성리 유래

소진혁(86, 남)/덕성리T 3뒤

[덕성 1리 덕성골] 박종수, 강현모, 이지옥, 진미옥, 최경미 조사(1996. 5. 24.)

앞의 노래를 마치고 조사자가 이곳 덕성리의 유래에 대해 물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이것은 덕성리에 생긴 유래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 때에 우리가 할아버님이 여기를 갖다 뭐냐 허면은, 일본군이 부산에 침략해가지고서 서울로 쳐들어 올 적에, 전라 충청, 그러니까 지금은 경상남북, 전라남북 이랬는데, 옛날에는 전라 충청 경상하면 삼, 삼남이라 하지 않았어? 그 인제 연합군이 모다 올라오는, 쳐들어 오는 왜병을 막기 위해서, 인제 그때 지금 얘기하자면 신립장군이니 권율장군이니 하는 얘기 있잖여?

그 신립장군이 그 당시에 충청병사하고 권율장군 뭐 이런 이들 같이, 그 양반이 그때 싸울 때이거든. 그래서 여기에 이 문수산 전투라고 있어, 용인에. 이 전투에 당시에, 그 이 양반이 인제 참전을 해가지고, 용

인 전투엔 이 우리 아군이 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수원 독산동이라고 하는 데, 수원 가서는 지금 승리를 했었거든.

그래가지고 그 후로는 약 오늘날까지 여기에서 400여 년 이 자리에서 살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여기가, 이 뒷산 저 앞에 보이는 산이 옛날에는 어떻게 됐냐 하면, 그 저 뭐 왕조시대인만큼 그저 거기서 하사해 내면, 이진 내꺼다 하고 이렇게 다 받은 거야, 우리가. 그래가지고서 여기 이름이 덕성군이, 여기가 덕성군이라고 하지. 이 덕성군이라는 지명도 으째 지명이 났느냐 하면은, 가만 있어. 내가 그 책을 가져올까.(이 곳에 대한 책을 가져오기 중단.) 내가 지명을 가지고 올게.

그래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한 130년 간을 갔다가 그렇게 이걸 전부 다 했으니깐, 참 우리 할아버님들이 인저 이런 걸 받아가지고서는 어떻게 짓을 했느냐 하면. 아주 적선적덕을 많이 행 분이라 말이여. 응. 자기가 그러니깐 이 여기 보이는 산, 들이 이게 점령한 곳이니깐, 그래가지고서 적선적덕을 많이 하고, 또 저기 저 동네 있잖아. 이 동네가 사위 거든. 그래 저 동네 있는 사위도 전부 산하고, 논하고를 노나 줘서. 전부 저기하고 저작에도 그래 이 삼개 부락이라는 것은 사천 옥씨하고, 요기 저 부락에. 여기는 연안 이씨하고, 또 이동에는 진주 소씨하고, 이 삼개 부락이 집성촌이 된 데가 덕성군이야, 여기가.

그래서 옛날에는 서울에 다니게 되자며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청혼의 꿈을 품은 선비들이, 요 앞이 삼남대로였어. 옛날에 과거를 보러 가자면, 왜 이리 울르지 않았어, 흔히. 그래가지고서 이길 지나다가 여기, 여기 우리가, 여기가 서창골이라고 그러거든. 여그. 저 위는 서 서당, 여긴 서장, 저긴 서창골. 그러니깐 그 생활 규모만 보더라도 서적 창고가 있었고, 서당이 있었고. 이렇게 해니깐 인저 이때나 그때나, 왜 지금 아마 학생들은 그것 모를 꺼여. 옛날엔 집안에 못한 사람이면, 관청에서 어디 가야 하면, 흔히 그 집에 가서 많이 피해를 끼치고 다녔거든. 지금은 그런 예가 별로 없지만은. 요 불과 20~30년 전, 요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전부 동네 이장이라든지, 또 동네에서 잘 사는 사람은, 공직 생활

하는 사람이 가다가 점심을 그 집에 가 먹을 예정을 하고 전부 이랬거든, 예전에.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그랬어. 20년 전만 해도.

그래서 그때 우리 할아버지 직은 뭐냐 하면, 삼남에서 서울로 과거보러 다니는 사람들, 또 중앙 관속들이 뭐 지방에 출장가고 이러는 데는 여기 들려서 꼭 유해시고 가고.

용인이 뭐냐 하면은, 옛날에 봉화대라는 거 알지? [조사자 : 예. 알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나라에 무슨 불상사가 생길 때는, 불을 들 든다든지 하날 든다든지. 이러면 무슨 일이 있다 했겠지. 여기 용인에 봉화가 있어. 성산 봉화대가. 그리고 역말이라는 것, 우리 동네에 있었지. 역말. 역. [조사자 : 역말요?] 역. 역말이라 있지. 그 위치가 오늘로 말하면 정거장이지. 그러니까 역말이 동네에, 아마 한 70~80리 사이에 역말이 전국적으로 없는 데가 없었어. 역말인 데가.

왜 없느냐, 옛날에 관속들이나 뭐 지방에서 여기서 드나드는, 충청 말 타고 가다 보면, 하루에 70~80리 가다 보면 자야 될 거 아니여. 그러면 어디 가서 자고, 말은 거기다 말 먹이간에 자고 거기서 관 인자 관원이 라고 있거든. 뭐냐 하면 국가에서 지정해 놓은 여관 같은 데가 있었어. 그래게서 쉬고 유숙하게 됐었거든. 그때에 인저 이 할아버님이 많은 저기를 허고서, 이 동네 이름을 어떻게 졌느냐 허면은 덕성골이라는 이름이, 아마 덕을 많이 베푸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걸 덕성고을이라고 그때부터 이름이, 그래서 이 덕성리가 된 거야.

③ 쇠경보의 지명 유래

소진혁(86, 남)/덕성리T 3취

[덕성 1리 덕성골] 박종수, 강현모, 이지옥, 진미옥, 최경미 조사(1996. 5. 2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상의 향기가 있는 곳에 대해 말씀을 하시다가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주었다.

요 앞에 보 막은 거 있는데, 이 보 아나, 저수지 같은 거. 지금 개울을 막아서 물을 관개수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런데 설화 같은 것도 요 앞에 보는 이 보는 이름이 쇠경보라 그러거든.

왜 쇠경보냐 하면은 여기가 좀 깊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를 막는데, 그전에는 여기가 인저 남짓말보라 그랬는데, 쇠경보로 된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쇠경이 그만 지나가다가 여기에 빠져 죽었으니까 쇠경보라 그런 지명같은 것, 그 모든 것, 그런게 많이 나오는 거거든.

4 형설지공

소진혁(86, 남)/덕성리T 3뒤

[덕성 1리 덕성골] 박중수, 김현모, 이지옥, 진미옥, 최경미 조사(1996. 5. 24.)

이 동네에 사금이 많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 많음을 하시었다. 그래서 조사자가 동네의 무서운 이야기에 대해 묻자 오히려 옛날에 경험하였던 이야기라며 구술하여 주었다.

무서운 얘기? 있지. 너 그거 있지. 옛날에 그게 우리 어려서두 그러거든. 우리 어려서도 이렇게 개울을 보면 불이 쪽 이거든, 무섭거든. 개똥벌레 봤나? [조사자 : 전 봤어요 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요?]

영(형)설에공이라고 그러잖아. 왜 그게 불을, 공부하는 것을 갖다가. 자네들은 그, 옛날에는 그 왜 영설에공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불이 읍고, 잉 할 때 공부는 해야 할텐데 이걸 갖다가, 밤에도 공부해야 할텐데, 깜깜한 데서 공부할 재간이 읍잖아. 불을 켜야 할텐데, 석유나 기름이 읍잖아.

그렇게 되면 그 개똥벌레라는 것 있어. 벌레를 잡으면 그 놈의 벌레는 반사가 일어나서 환해지거든. 그래서 글씨를 이렇게 대고 읽어다는

거여. 벌레를 가지고. 잉.

그걸 갖다가 영설에공이라고 그러지. 왜 개똥벌레로.

5 도깨비 방망이

소진혁(86, 남)/덕성리T 3뒤

[덕성 1리 덕성골] 박종수, 강현모, 이지옥, 진미옥, 최경미 조사(1996. 5. 2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도깨비에 대해 묻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여기에는 물레방아 두 개가 있었어. 이 동리에 물레방아 같은데 가면 도깨비가 있다. 그래서 저녁에 보면 사람이 왔다 갔다 그랬었지. 하지만 지금은 없어졌지만 얘기하면 전기가 타 없어져서 그랬을 수도 있지 뭐. 히히히. [조사자 : 도깨비들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나요?]

어. 도깨비 때문에, 도깨비에 죽은 건 별로 없어. 누구든지 도깨비란 건 옛날에 어쩌거나 잘 친해면은 부자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 왜 도깨비 방망이라고, 뭐 뭐해서,

“뭐 나와라!”

하면. 그게 다. 도깨비라는 것이, 그 생기긴 숭상맞게 생겼어도, 그게 아마 그 사람에게 해치는 적이는 아닌 거 같어.

3) 민요

1 새야새야 파랑새야

제보자(60대, 여)/덕성리T 1앞

[덕성리 개인집] 박종수, 강현모, 양여정, 장미화, 허일경 조사(1995. 11. 4.)

조사자들이 이재순할머니택에서 조사를 마치고, 그 뒷집인 제보자 집으로 이동하였다. 제보자택에서 여러 가지 생활에 관한 것과, 옛날 이야기나 노래에 대해 묻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제보자는 이 마을에 몇 년 전에 이사를 와서 잘 모르겠다며 구술하지 않으려다가 조사자의 유도에 의해서 구술하게 된 것이다. 제보자는 청포장수를 잊어버려 무슨 장수라고 하였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 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무슨 장수 울고 간다.

② 모심기 소리

경주김씨(80대, 여)/덕성리T 1앞

[덕성리 개인집] 박중수, 강현모, 양여정, 잠미화, 허일경 조사(1995. 11. 4.)

제보자는 이곳으로 14살에 시집을 와서 평생 살아왔다고 한다. 여러 가지 생활, 특히 시집살이에 대해 물으면서 민요를 해달고 하자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모를 심으면서 부르던 노래가 없느냐'고 하자 불러주시는 것이다. 가사는 연속으로 불러 주신 것이 아니지만, 가사만 정리하여 붙여 놓았다.

여기 여기도 심었네
 저기 저기도 심었네

여기 여기도 꽃었네
 저기 저기도 꽃었나

③ 방아타령

경주김씨(80대, 여)/덕성리T 1앞

[덕성리 개인집] 박종수, 강현모, 양여정, 장미화, 허일경 조사(1995. 11. 4.)

앞의 모심기 소리를 마치고 보리나 벼를 수확하고 절구질할 때 부르던 노래가 없느냐고 묻자 해주신 것이다. 조사자 방아타령은 '쿵쿵, 방아 소리 쿵쿵' 하는 것이라고 하자 노래하였다.

달가닥 달가닥 찢는 방아
금년에 찢고서 이제 가나

달가닥 달가닥 찢는 방아
언제나 찢고서 일어나나

④ 자장가

경주김씨(80대, 여)/덕성리T 1뒤

[덕성리 개인집] 박종수, 강현모, 양여정, 장미화, 허일경 조사(1995. 11. 4.)

제보자의 일생에 대해 묻고서 어릴 때, 또는 아기를 키울 때 아이들에게 불러주었던 노래를 해달라고 하자 불러 주었다. 제보자는 충남 홍성에서 시집을 왔으며, 종교를 믿지 않는다고 하였다.

자장 자장 우리 얘기
잘도 잔다

5 이순일과 심순애

박순애(76, 여)/덕성리T 1뒤

[덕성리 교회] 박중수, 강현모, 양여정, 장미화, 허일경 조사(1995. 11. 4.)

조사자들은 개인집에서 조사를 마치고 할머니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교회를 자리를 옮겼다. 그곳에서 조사자들이 찾아온 목적을 말하자 할머니들 사이에 이런 저런 말씀을 하다가 심순애의 이야기가 나오자 노래로 불러준 것이다. 이 노래는 창가조로 불러진 것으로 일본놈의 것이라서 불러서 안 된다고 하였다.

대동강변 도로변에 삼보하는
이순일과 심순애의 양인이로다
약수건정하는 것도 오늘 뿐이요
도보행진하는 것도 오늘 뿐이다.
서인선애야 내일...

<음영조>

여자의 절개가 제일이다.
순애야 내년에 저기 몇 월 몇 일
그거 수유리가 피눈물을 보여준다고
김중...
당신을 믿으며 기드려 하면
부모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요
김중배의 가정으로 시집을 가요

6 만주 아가씨

박순애(76, 여)/덕성리T 1뒤

[덕성리 교회] 박중수, 강현모, 양여정, 장미화, 허일경 조사(1995. 11. 4.)

앞에서 이야기를 마치고, 여러가지 민속이나 생활상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다. 제보자는 이 노래가 일본어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말로 번역하여 부르는 것이라며 잘 모르겠다고 하였다.

나는 17살 만주 아가씨
꽃피는 3월이 돌아오면은

7] 두메 산골 내 고향

박정희(68, 여)/덕성리T 1위
[덕성리 교회] 박종수, 강현모, 양여정, 장미화, 허일경 조사(1995. 11. 4.)

앞의 제보자가 노래를 마치고 여러가지 대해 말을 하는 동안에 생각이 났는지, 제보자가 지칭하여 불러주었다. 신식노래 형태를 띠고 있다.

가을이 온다 떠나려 한다
어린아들 손을 잡고
감자 심고 수수 심는
두메 산골 내 고향에
못 살아도 나는 좋아

8] 아리랑(1)

이재영(72, 여)/덕성리T 1위
[덕성리 교회] 박종수, 강현모, 양여정, 장미화, 허일경 조사(1995. 11. 4.)

이 노래는 앞의 노래를 마치고 여러가지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도중에 생각이 났는지 불러준 것이다. 이 노래는 창가조로 불렀다.

첫 이월은 다가고 3월이라네
 강남갔던 제비가 돌아오면은
 이 땅에도 또 다시 아리랑 아리랑
 강남은 어서나 가세

9 방아타령

박순예(76, 여)/덕성리T 1뒤

[덕성리 교회] 박종수, 강현모, 양여정, 장미화, 허일경 조사(1995. 11. 4.)

앞의 노래를 마치고, 조사자들이 식사하지 않은 것을 알고 할머니들이 음식을 차려
 먹게 하였다. 그리고 할머니들 사이에 이야기를 하다가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였다.

떨끄덩 떨끄덩 짚는 방아
 원제나 다 찌고 밤마실 가나

10 우리 낭군은

박순예(76, 여)/덕성리T 2앞

[덕성리 교회] 박종수, 강현모, 양여정, 장미화, 허일경 조사(1995. 11. 4.)

방아타령을 요구하였는데 제보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노래가 이런 것이라며 구술하
 여 주었다.

남의 낭군은 신식 생활하는데
 우리 집 저 명탕구리는(웃음)
 콩박꿀만 지키나

11 연밥 따는 처녀

박순예(76, 여)/덕성리T 2앞

[덕성리 교회] 박종수, 강현모, 양여정, 장미화, 허일경 조사(1995. 11. 4.)

앞의 노래를 마치고 다른 노래를 요구하자 곧 이어서 구술하여 주었다.

상주 한발 공갈못에
연밥 따는 저 큰 애기
내 품에 잠을 자오
연분없이 잠을 자나
연분이 따로 있나
자고 나면 연분이지.

12 물레방아

박순예(76, 여)/덕성리T 2앞

[덕성리 교회] 박종수, 강현모, 양여정, 장미화, 허일경 조사(1995. 11. 4.)

앞의 노래를 마치고 다른 노래와 이야기를 요구하였다. 조사자가 응기장수나 물레방아를 묻자 물레방아와 관련된 소리가 있다면서 불러주신 것이다.

물레방아는 물만 안고
밤낮없이 도는데
우리 님 나를 안고
돌 줄 왜 몰라나

13 강남 갔던 제비

박순예(76, 여)/덕성리T 2앞

[덕성리 교회] 박종수, 강현모, 양여정, 장미화, 허일경 조사(1995. 11. 4.)

앞의 노래를 마치고 다른 노래와 이야기를 요구하였다. 조사자가 ‘강남이 어찌고 제비가 어찌고 하던’ 노래라고 하자 곧바로 불러 주었다. 낭송조로 노래하여 주었다.

강남 갔던 제비가 죽어도 강남 가고
참새가 죽어도 알은 낱내

14 아리랑(2)

할머니들/덕성리T 2앞

[덕성리 교회] 박종수, 강현모, 양여정, 장미화, 허일경 조사(1995. 11. 4.)

조사자가 ‘할머니들이 이제 노래 한번 해 보시지요’ 하자 여러 할머니들이 함께 불러 주신 것이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15 백발 한탄가

소진혁(86, 남)/덕성리T 3앞

[덕성리 덕성골] 박종수, 강현모, 이지옥, 진미옥, 최경미 조사(1996. 5. 24.)

앞의 노래를 마치고 또다른 이야기나 노래를 부탁하자 음영조로 구술하여 준 것이다.

조석상대	정든친구	구름같이	흩어지고
평생지교	맺었으니	유수같이	흘러갔네
천지일월	불변하나	인생백년	가련하다
하루천리	걷든거름	상투끝이	머저가고
살때같이	곧은허리	길마가지	방불하며
백옥같이	히든허리	금버섯이	절로나고
명월같이	밝은눈은	반판수가	되었으며
청산유수	같은말은	반병어리	되었으며
전 날의	밝든귀는	동문서답	일수이고
박씨같은	치아속은	목탁속이	되었으며
하든직업	도망치고	맑은총명	간데없는
묵묵무언	앉어쓰니	불도하는	노승인가
장만한건	늙은몸요	마련된건	백발이리
자식보고	공갈하면	구석구석	웃음이요
웁은말로	훈계하면	대접하여	망령이라
지각나자	늙었으니	후회막급	한이없네
일생일장	춘몽이란	진담중의	진담이라

여

백

7. 목리

1) 마을개관

박종수, 강현모, 윤여훈, 김정원, 조문정, 김은아, 오유경 조사
(1995. 11. 4., 1996. 5. 24.)

목리는 용인 터미널에서 다니는 버스가 하루 몇 차례 되지 않아서 거리에 비하여 대중교통이 불편한 편이다. 목리를 가기 위하여 조사팀은 용인터미널에서 오전 11시 40분에 버스를 타고 11시 50분이 못 되어서 천리에서 내렸다. 그런데 목리까지 들어가는 차가 별로 없어서 지나가는 트럭을 잡아타야 했다. 그래서 목리에 들어가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목리는 용인군 상동면 지역으로, 먹을 만들던 곳이라고 해서 먹방이, 먹뱅이, 묵방동, 묵방, 묵동이라고 불렸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한덕, 굴암, 장촌, 거문정을 합쳐 목리라고 칭하고 이동면에 편입시켰다.

목리는 마을 입구에서도 한참 들어가 있는데, 그 끝에는 3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마치 강원도의 산촌을 연상시켰다. 마을은 넓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달도 되어 있지 않은 작은 분지형태의 마을이었다. 마을 한 가운데로 길이 뚫려 있고, 그 길 양쪽으로 집들이 밀집하여 있었다.

이 마을도 요즘의 농촌 문제를 반영하는 듯 인적이 거의 없고, 마을 주민들의 대부분은 나이가 많이 드신 노인분들만 남아 있었다. 그나마도 마을 주민수는 이곳에 있는 기도원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외부인들보다도 적기 때문에 답사상 애로 사항이 많았다. 이곳 주민들의 생업은 주로 벼농사를 짓는 것이며, 일부 부업으로 여러가지 동물들을 기르고 있었다.

종교는 마을에 절이 두 곳 있었는데, 주로 다른 마을에서 찾아 오는 사람들이 많

다고 한다. 많은 편은 아니지만 절과 산에 대한 설화가 있었다. 집집마다 개를 키우는데, 나중에 팔아서 살림에 기여하는 부업이라고 한다.

언어는 사투리를 쓰는 사람과 표준말을 쓰는 사람 등이 있으나, 사투리가 심한 편은 아니었다. 마을에는 오래 살았던 분이 그리 많지 않았다. 그래서 마을에 대한 깊은 속사정을 아는 분이 없어서 여러 곳을 돌아다녀야 했으며, 또한 찾았어도 말 씀을 잘 못하셔서 애를 먹었다. 또한 한참 농사일로 바쁜 때여서 마을 주민의 호응도가 낮았다.

2) 설화

① 심청전

정인투(77, 여)목리T 1앞

[목리 제보자택] 박종수, 강현모, 윤여훈, 김정원 조사(1995. 11. 4.)

우리가 목리에서 한참 제보자를 찾고 있을 때, 마당에서 잡초를 뽑고 있는 제보자를 발견했다. 그는 처음에 다 잊어먹어서 모른다고 거절하다 결국 우리의 목적을 듣고서 조용한 가운데 이야기를 하기 위해 방으로 안내하였다.

심청이 얘기나 해 줄까.(웃음) [조사자 : 예! 아무 거나 괜찮아요. 할 머니가 아시는 것이면 다.] 그런데 죄 잊어 먹었어. 대강 해야지 뭐.

심청이 아버지가 심학균데 그것, 거기가 저기 도화동에서 태어났거든. 그 도화동에서 인저 곱씨 부인을 결혼해가주구선 중간에 안맹(실명하다) 했어, 그 노인네가. 곱씨 저 심학규가. 안맹해서 앞을 못 보니까, 인저 그 곱씨부인이 벌어 맥졌거든. 맹인을.

[조사자 : 맹인올요?] 그 심학규가 저기 눈이 멀었으니까. 아무 것도 못 하니까, 인저 곱씨 부인이 벌어서 매기구 살다가는, 사십이 되도록 자녀가 없으니깐, 그 곱씨 부인이 웬(은)갓 정성을 다 드러가주구선 심청이를 낳았어. 그래 심청이 날 때 태몽을 꾸니까느루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오더니,

“난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 집 부인이 하두 정성이 지극해서 무토 신령이 나는 일리 지시해서 왔다.”

구 그러구선. 와가주구 그 집에서 태어나서, 열 달을 맞춰서 낳는데, 겨우 칠일만에 지 엄마가 죽었지 뭐야. 그래가주구서는 심학규가 그걸 품에 안구선 돌아다니면서 동냥젓을 얻어 매겼어. 길렀어.

길러서 인저 제가 일곱 살부터 개가 밥을 빌어서 지 아버지를 봉양하는 거여. 죄다 그냥 밥을 빌려서 그냥 발발 떨고 옷도 없고 그런데다가, 겨울에도 그냥 제 떨어진 그냥 베 중이 그런 걸 입고 다니면서 밥을 빌리다니고 그러는데. 보는 사람들이 딱해서 그냥 밥도 주고 그냥 돈도 주고 이래서 간신히 인저 열세 살까지 자라가주구서는.

그때부턴 인저 또 심청이가 벌어먹는 거지. 빨래도 하고 샅바느질도 하구 해서 벌어먹는 거지. 십오 세가 됐는데, 그냥 인물이 절절색이구. 뭐든지 그렇게 잘 하구 하니까 인근에 최씨 부인이,

“심청 심소저는 그렇게 재주가 좋고 인물이 절색이라구. 그러니까 그 물건너 인저 장승상 부인이 심청이를 청해가주구서는 자기 수양딸이 되 달라.”

구선, 그러니까.

“부인의 말씀은 황송하나, 소녀의 애비 저로 칠 일만에 에미 잃은 저를 동냥 젓을 얻어 매겨 이만큼 길렀으니, 어찌 일수인들 떠나리까. 장승인들 떠나리까. 못한다.”

고 그랬거든. 그러니까느루,

“늙은이가 미처 생각치 못했다. 그래도 수양녀만큼은 잊지 말라.”

구. 그러군 그날부터 수양 딸녀가 되가주군, 날마다 그냥 그 집에 가서 일을 하는 거야. 그럼 그 집에서 돈두 주구 쌀두 주구 옷두 주구 이래서 먹구 사는 거여. 그냥 심청이 인자 그 집에 일하러 간 김에 어두워도 안 오니까, 심봉사가 지팡이를 짚고 살살 마중 나온다고 나오다가 개울 언덕길에서 미끄러져서 물에 빠졌잖아. 그러니깐,

“아, 날 살려 달라.”

고 돌고 소릴 지르니깐, 그 어떤 중이 지나가다는.

“아휴! 사람 빠졌다.”

구. 건져서 데리고 와서 옷을 가라 입히고 그러곤.

“아니, 이게 우찌다 된 일이냐?”고.

“그냥. 근처 사는 내가 사십구에 열맹해서 이렇게 못 보니, 못 보는 게 철천지 원이라.”

고 그러니깐.

“우리 절은 영험하셔서, 시주를 많이 하며는 눈을 뜨게 한다.”

고 그러니깐.

“그럼 그게 사실이냐고. 적으라고. 적어서 올리라구. 올마나 하면 되느냐?”

구 그러니까.

“쌀을 삼백 석을 올리라”

고 그랬거든. 절에다. 그러니 딸이 간신히 벌어먹는 집이 쌀이 삼백 석이 어딴어.(웃음) 그래 그 중이 적어가주구 갔지 뭐야. 적어가주구 간 뒤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딸이 간신히 벌어 먹는데 자기가 적기만 했지, 필로 삼백 석이난 말이야. 일백 석도 아니구. 그러니깐 그냥 군심을 하구 앉아서, ‘큰 일 났다구. 괜히 적었다’고 하고, 인저 딸이 저물게 와가주구 밥을 짓고 하면서.

“아니 아버지! 시장하셨죠, 여기 진지 잡수시라.”

고 이러니까.

“나, 밥 안 먹는다.”

그러곤 괜히 화를 내는 거야.

“그래 왜 그러시요? 소녀가 더디게 와서 그러시요. 어서 진지 잡수시라고. 뭇 뺨에 화가 나셨냐?”

구. 그래 묻고 그래도 말은 안 해 주니, 난중에 심청이가 울고 그래. 그러니깐으로.

“그냥 늙은이 망령으로 이렇게 왔으니, 이걸 어떻게 하나?”

구 그러니까.

“아버님! 걱정 마시오. 정성이 지극하면 돌아오는 게 있으니까 걱정 말고 진지나 잡수라.”

고 그러드래. 밥을 먹고 났는데, 그날부터 인저 심청이는 불안에다가 청수를 떠놓곤 날마다 비는 거여 그냥. 하나님께 빌어서,

“어떻게든지 우리 아버지 눈을 뜨게 해 달라.”

고. 그냥 정성을 드리니깐으루, 하루는 저 임당수 상인들이 와서,

“사람을 산다.”

고 그러드래.

“사람 사되, 십오 세 된 처녀를 산다.”

고 그러니까 옆에 부인이 와서,

“별놈의 사람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는,

“무슨 사람이 왔는데?”

그러니까는,

“아, 저기 임당수 상인들이, 장사꾼들이 왔는데 글썽 처녀를 산다는 데, 글썽 십오 세짜리 처녀를 산 데요.”

그러니까.

“아! 그 사람 이리 데리고 오라구. 내가 본다구. 이리루 데리고 오라.”

고 그랬거든. 그게 데리고 와서,

“저기 당신네들은 장사꾼이래니깐, 사람을 산 데니 무슨 사람을 사냐?”

구. 그러니까.

“십오 세 된 처녀를 산다.”구.

“그거 잘 됐다구. 내가 십오 세니 나를 사 가라.”

구. 그러니깐 그냥 인물도 잘 나고 그런 색시가 그러니깐, 자세히 쳐다 보구 그러더니.

“짜장, 팔러 가실 거냐?” 구.

“간다.” 구.

“그럼 값을 정하라.”

구 그러니까.

“쌀 삼백 석을 달라.”

구 그랬어. 그래니까,

“그럼, 그러라.”

구. 그냥 적어 적어 가줘 갔거든.

“그럼, 내월 십오 일날 온다구. 그날 꼭 갈 줄 알라.”

구. 그러구 갔지 뭐여. 그래서 심청이가 인저 그날을 날마다 그래도 기도하면서, 그냥 지아버지 옷이구, 뭐 생선이구 옷을 죄 짓고 양식도 매련해 놓고. 하이 그냥 옛날엔 갓, 망진 그런 거래니까, 그런 거까지 새로 죄 꾸며 놓고 그리구선, 그날이 닥쳤지. 닥쳐선 그냥 그날까진 지아버지 안 알린 거여. 몰래.

“저기 승상 댁에서 십오 일 날 저를 아주 데려 간다.”

구 그러니까,

“그래도 괜찮다. 난 너 거기가 잘 살면, 난 혼자 살아도 괜찮다.”

구. 좋아 했거든. 쌀 삼백 석에 거기서 데려 간다니깐. 그런데 인자 그 날은 그냥 밥상은 잘 차려서 갖다가 아버지 앞에다 놓고, 그냥 반찬도 뜯어서 수저에 올려놓고 김도 싸서 입에 놓고.

“아버지! 오래오래 살으세요.”

그냥 갖다가 막 울면서 그러거든. 그래,

“너 왜 우니? 누가 쇠경의 자식이라구 놀리데? 왜 우느냐?”

구. 들구 그러니까. 막 울면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식였어요. 누가 나를 사는데 쌀 삼백 석씩 주 오리까. 임당수 상인들에게 팔려 가서 됐는데, 오늘이 행산 날이라.”

구 그러니까.

“못 간다.”

구. 그냥 막 야단을 치구.

“이 불쌍 놈들. 이놈들! 내 말 없이 내 눈먼 놈의 무남독녀 데려 간다.”

구. 막 울구 야단치는 거여. 그냥 손으루 때려 죽인다구 야단이구. 그냥 그래도.

“아버지! 제 잘못이지, 그 사람의 잘못 아니라구. 아무 걱정 마시라.”

구. 그냥 이라구 떠날라구 나가니까, 그냥 붙들고 웬 야단이나구, 동네 사람이 다 울구 야단이지 뭐. 그러니깐 그냥 그래도 헐 수 없이 가게 되 니깐두루. 또 선인들이 오십 석을 덤 했어. 쌀을 삼백오십 석에.

“그래 삼백 석은 절로 가져가구. 오십 석은 모두 장내 나(좌)서 이 노 인네 생전 먹구 살게 하라.”

구. 동네다 드려 놓고 갔지. 그러구 심청이는 떠나서 가는데, 그냥 울구 심청이도 울구 지아버지도 울구 그래 야단이야. 그래 임당수에 가서 죄, 줌, 거기 선인들이, 사공들이 죄 큰 소 잡고 슬하고 해서, 인자 지달리고 매기는 거지 뭐여. 심청전에 옛날에 보면, 죄 애빈 져, 저 심청이는 지아버지 있는 데로 기도하고 절을 하고는 치마를 쓰고 빠지고, 그 그 선인 들은 제사를 지내고.

그냥 참 그 사공들도 죄 통곡을 하는 거여. 세상에 부모처자 죽어선 들 이에서 더 슬프려구. 아깝고 불쌍하다구. 그렇게 죄 울고 야단이구 선, 그 장사꾼은 인저 멀리 떠나서 장사하러 나가구. 심소저는 인자 그 길로 용궁에 들어가서 지어머니 만나구, 그냥 인저 그 용왕이 도로 내 보냈잖아. 큰 꽃송이, 저기 연꽃송이 [조사자 : 연꽃이요?] 잉. 옆에 그 큰 천상 하는 꽃이래 그게. 연꽃을 큰 걸 해서 그 안에 싸서는 도루 물로 내보낸 거야. 그래 인저, 그래도 몇 달이 됐던지, 그 사공들이 그 심청이 빠졌던 자리에, 거기 와서 심청이 혼을 불러 제사지내는 거지.

“심소저야! 심소저야! 우리는 소녀를 넣고 가서 억십만금 이를 냉겨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구. 소녀 부친 만나가주구 안부 전한다.”

구. 그러면서 지사 지내는데, 아- 큰 꽃송이가 물에 떴거든. 그러니깐,

“아이구, 저 꽃이 아마 심청이 죽은 저기 혼인가 보다구.”

건지러 들어, 이 건질라구 그러니깐스루 공중에서,

“그 꽃이 천상 꽃이니깐, 고이고이 모셔다가 임금께 바치라.”

구. 그랬거든. [조사자 :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응, 공중에서. 그랬던 게비여. 그러니깐스루 사공들이 깜짝 놀래서 곱게 모셔다가 배에 싣고 가서 임금께 바쳤지 뭐야.

그랬더니 임금이 인저 마누라 죽고 얼마 안 된 데요 황후지. 그러니 까 죽구 얼마 안 돼서, 그걸 곱게 해서 책상에 이렇게 바쳐 놓고는 잠이 들어 자는 데, 하늘에서 사관이 내려오면서,

“저기 황후 돌아간 걸 하늘에서 알으시구 인연을 보냈으니 깨서 살펴라.”

구 그러더래. 그래서 깜짝 놀라 깨니깐, 꽃은 간데 없구, 그냥 꽃같은 처녀가 앉았거든. 그러니깐 바로 그 이튿날 날 그냥 날 택일 해가주구 장가를 든 거여. 그래서 나라의 황후가 됐지 뭐여, 그냥. 그래가주구 그렇지. 높이 돼서 백성을 다 거느려도, 일상에 심여(심려)를 하구, 눈물이 마를 날이 없거든. 그러니깐 임금이 하는 말이.

“아니 천하를 당신 다 사리고 이렇게 귀이 됐는데, 왜 그렇게 황후는 노다지 수심에 쌓여 있느냐?”

구 그러니깐. 그때 인제 사실 얘길 하는 거야.

“난, 천상 선녀가 아니라 인간 사람인데. 우리 부친을 칠일 안에 모친을 잃은 우리 부친 안맹 하셨는데, 나를 칠일부터 동냥젖을 얻어 매겨 길러 냈는데. 부친의 은혜를 모르구 세상에 이러니 안 울겠냐?”

구. 그러니깐 ‘천하의 맹인 잔치를 해라.’는 거여, 인자.

“쇠경 잔치를 하며는, 혹시 부친이 올런지 모른다.”

구. 그래서,

“그래라.”

구. 그냥 임금이 이런 각처, 때 소경들을 죄 모으는 거여, 잔치 한다구. 그러니까 각처에 여자, 남자 없이 우째 쇠경들이 죄들 모여 잔치 먹구

가는데. 그냥 마지막 날이 되도록 자기 부친이 안 보이거든. 날마다 나와서 부친을 불러구 해도. 그래 그 동안 장가 들어서 아들 낳아서 눈을 떠서 잘 살으시나. 어찌나 그냥, 한쪽에서 인자 마지막날 나와서 가만히 보니까, 지 아버지가 한편에 있더라. 가찬데 있더라. 아, 그래서 인자 모신 시녀들 보고,

“가서 모시구 오라.”

구 그랬거든. 그래 지 아버지여 그제. 그래.

“아버지! 심청이 여기 왔다?”

구 그러니까깐두루.

“우리 딸 심청이가 있을 리가 만무라고. 내 딸 심청, 무남독녀 내 딸 심청은 입당수에 가서 죽었다.”

고 그러니까누루.

“죽은 심청이 왔다.”

구. 하는 바에 눈을 번쩍 떴어. ‘심청이가 왔다’는 말에.(웃음) 그래 눈을 번쩍 떠서 그냥 서로 얼싸 안고 울구 그냥 그래더니 그냥,

“내 딸 심청이가 이렇게 크기 될 줄 어떻게 알느냐?”

구. 서로 춤을 추구, 좋아서 난리여. 또 심봉사는 거기 가는 길에, 가다가 인저 뺑덕 애미라는 인저 그 심청이 간 뒤에 얻었거든. [조사자 : 아! 의붓어머니요?] 응. 의붓어머니를 얻었는데, 그 년이 그냥 그 오십 석 있는 것을 알구서는 가진 짓을 해서 그 오십 석을 다 털어 먹었어. 그냥. [조사자 : 어휴.] 술두 쳐 먹고 그냥 돈도 빼내고 이레가주구 다 털어먹고 읊는데, 그냥 안맹, 저 쇠경 잔치에 간다니깐 저도 따라 간다구. 그레가주구는 모두 인자 돈을 챙겨서 짐을 싸가지고 간다고 하다가는, 이년이 짐을 가지고 도망을 했어. 그에 심봉사만 남겨 놓고. [조사자 : 데리구 가다가요?] 잉 데리구가다가.(웃음) 그래니깐 심봉사가 그냥.

“마누라! 마누라! 나를 두고 어디 갔느냐?”

구. 그냥 그러다가 삼복더위였더나 봐, 아마. 어디 가서 개천이 있어서 애들이 목욕하는 걸 알구.

“여기가 개울인가보다. 목욕을 해야겠다.”

옷을 벗어 놓고 목욕하고서 인저 일어나서 갈라, 잤어, 그래도 더듬 더듬 지팽일 짚고 거진 서울을 거진 다 갔는데, 거리에 앉아 쉬니깐으로 어떤 기냥 장정 두 놈이 나서더니, 그냥 붙들어 가주구 그냥 어디로 가거든. 그래더니만 어떤 방에다 넣고 가두더라. 그랬는데 보니깐으루 거기도 또 안맹한 여자가 있는데, 삼십까지 시집을 못 가고 있어 인제. 쇠경을 쇠경이니깐. 시집을 못 가고 있는데, 그 쇠경이 점을 잘 친 데요. 그래서, [조사자 : 그 여자가요?] 응. 그 쇠경 여자가. 그래 그 점을 해서 보니깐으로 그 심봉사라고 자기하고 인연이더래라는구만. 그래서 시녀를 풀어서,

“그 쇠경을 데려 오라.”

구 그랬어. 그래서 그 쇠경을 인저 데려다가 그 방에다 놓고 신방을 꾸몄지 뭐야. 그리고 그 인저 여자까지 생겼잖아, 쇠경이래도.(웃음) 칠십된 쇠경이. [조사자 : 세번째 부인이네요, 어휴.] 그래서 부인까지 있구 또 딸 만나구. 그랬으니 얼마나 좋아. 그래가주군 칠십에 또 아들을 낳아시어요, 그 노인네가.(웃음) 아들까지 낳고, 눈 뜨고 그렇게 귀이 됐지 뭐야 이게. [조사자 : 아! 행복한 결말이 났네요] 응! 그래 행복했지. 그래서 심청이 그렇게 잘 돼서 잘 살고, 심청이가 어질고 착해가지고, 나라도 그냥 심봉사. 심,

“심황후 잘 되라.”

고, 만세를 부르고 야단이 그랬어. 어휴 더 못 해겠어.

② 여자 꼭두각시 인형을 본 나무꾼

박소리(12 여)/목리T 1앞

[목리 제보지집] 박종수, 강현모, 윤여훈, 김정원 조사(1995. 11. 4.)

노인분들을 찾아다니다가 어느 집에 들러 어른들을 찾았으나 아이들만 있길래 그냥 이야기 하나 해 달라고 조른 끝에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듣게 된 장소가 마당이었고 친구와 개 때문에 이야기의 전개가 부드럽지 못했다.

한, 어느, 옛날에요 한 나무꾼이 있었어요. 산길을 가다가 굉장히 막 휘몰아 치는 날씨 때문에, 휘몰아 치는 그 날씨가 휘몰아 쳐가주구요, 그 산 속에서 길을 찾으려고 했는 데요. 막 거기는 아무, 그 산 속에서 아무 집, 막 사람 집도 있고. 그런 집이 하나 있었는 데요. 사람은 아무도 살지 않구요. 어느 술집이, 술집을 딱 보구서는요. 그 옛날 술집은요, 술집도 하고 같이 자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룻 밤만 목계 해 달라.”

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서요, 거기 근데 거기 술집에, 그 한 집에만 사람이 살구 있어가주구요, 거기서 들어가자주,

“차 한 잔만 달라.”

구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차 한 잔만 들어가 달라’구 그레가주구는요, 그랬는데요. 그 여자가,

“한 잔 드릴테니까, 절대로 부역을 보지 말라.”

구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딱 한 잔만 갖다 달라’구 그랬거든요. 한 잔을 갖다 줬는데요, 저기 저기 아주 술이라면 사양할 줄 모른다고, 아니 찬가 술인가? 사양할 줄 모른다고 그레가주구.

“거 한 잔만 더 달라.”

구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절대 부역을 내다보면 안 된다.”

고 그랬어요. 그레가주구 ‘부역을 내다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아! 그냥 해가지고, 거기 했는데, 조금 맛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한 잔만 더 달라.”

구 그러구. 그 여자를 몰래, 몰래 봤는데, 거기 부역에서 딱 봤는데, 거기 부역에서 딱 보니까, 부역에서 보니까, [청중 : 입에서! 입에서!] 입에

서 아니야. 용이에요. 용! 용피가. [조사자 : 그 여자가 용이에요, 그 여자가.] 아니요. 거기 그 부엌에 용 한 마리가 있는데, 부엌에 용 한 마리가 있긴 있는데, 부엌에 그 용피를, 용피를, 그게 용피를 차로 해가주구, 차로 해서 갖다 쥐가주구요. 그거를 몰르구 마셔가주구 무서워서 막 도망쳐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가 같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건 죄다 소문이 퍼지잖아요. 마을 사람들에게 말 해가주구. 거기를 그 잡귀를 잡으러 갔는데, 거기 산 속에는 아무 것도 없고, 그런 집도 없고. 한 여자 인형 꼭두각시가 하나 있었어요.

③ 얘기가 벌러 가자

이승주(12, 여)/목리T 1앞

[목리 박소리양집] 박종수, 강현모, 윤여훈, 김정원 조사(1995. 11. 4.)

제보자는 박소리양의 집에서 놀다가 박소리양의 권유로 조사에 참여했다.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거리낌없는 진술 태도와 흥미를 가졌다.

그 어느 산이 있었는데, 그 산에, 사람들이 그 산에, 귀신이 나온다고. 아니 어떤 얘기를 엮은 가난한 여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요 남편을 여의었어요. 잃었어요. 근데 그 남편 잃어가주구 이제 가난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요 그 얘기를 엮고 매일 가는데, 돈을 벌러 다녀요.

근데 어떤 술집에서요, 어떤 산을 올라갔다 내려오면 열 냥을 준대요. [청중 : 물건을 띠어 가지고 오면.] 어 물건을 띠어가주구 오면 열 냥을 준대요. [조사자 : 어느 산 속예요?] 예. 그래가주구요, 거기 그 여자가요 도끼를 들구요, 귀신 나타날지 몰라가주구요, 아기를 뒤에 업구요. 도끼

를 들고 올라 갔어요.

근데 아기가요, 엄마 뿔 하나 뿔 가만히 잡아 당겼어요. 그런데 엄마가 귀신인 줄 알고요, 막 도끼를 막(손짓을 하며) 했거든요. 그런데요 그, 아니 낮을 들고 갔는데요 그 낮에 낮이요. 그거 물건을 가지고 내려왔는데요, 애기 얼굴이 없는 거예요. 여기(목을 가리키며)까지 없어요. [조사자 : 물건은 뭐예요, 그 물건은?] 그 물건은 어떤 머리, 머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머리털을 잘라가지고 왔던가, 물건? 애기 머리털인가 그거 아닌가? [청중 : 아니야, 거기 벽에 무슨 머리털이 붙어 있었는데 그걸 낮으로 좀 찌르려다가 못 찌르구 왔잖아.] 그 애기, 그 귀신 때문에 무서웠나 봐요. 그냥 왔는데요, 열 냥을 썼어요. 근데 애기 보니까 여기(목을 가리키며)까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나중에요 자기가 귀신인 줄 알고 이렇게 한 걸 알구요, 나중에요 그 애기가 죽었잖아요.

그래두요 그 여자가, 그 술집 여자가요 갔다 오면 돈 열 냥을 준데요. 그래서 그 엄마가요(말을 반복하며) [조사자 : 어떤 사람이 술집 여자였어요? 처음에도] 네. 아, 술집 여자가 아니라 그냥 남편 여원 여잔 데요, 그 여자가 나중에요 그 애기 보고,

“우리 열 냥 모으러 또 가자.”

그러면서 오셨어요.

4 상금에 눈이 먼 여자

박소리(12 여)/목리T 1앞

[목리 제보자집] 박중수, 강현모, 윤여훈, 김정원 조사(1995. 11. 4.)

계속해서 박소리와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거는 요 어느 마을에요, 그 그 마을을 지켜주는 느티나무 하나가 있었대요 근데 그 느티나무를 공사하다가 그게 딱 걸려가주구요, 근데 그 나무를 상의를 하다가 그 나무를 아예 잘라 버리자는 의견이 나왔는 데요.

그 나무가 굉장히 크고 가지가 막 너무나 크게 퍼져 있구 그래가주구 요 그거를 잔가지부터 잘라 내기로 했는데요. 그 젊은 사람이 그것 짜른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른다는 사람마다 잘르고 나서 병에 걸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병에 걸려서 죽어가주구, 어쩔 수 없이 그 무당한테 부탁을 했 거든요. 무당한테 어떻게 해 달라구요.

근데 그 무슨 얘기했는 줄은 모르고, 그 얘기업은 한 여자를, 한 여자가 거기 굉장히 비 오고 보름달 뜨는 날에, 그 굉장히 나무에 검은 색 가지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올라가서 그 나무 가지 검은 나뭇가지를 잘르며는 굉장한 성금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꾸자꾸 성금이 올라도 사람이 안 와가주구요 굉장한 돈을 이렇게 걸었는데요, 옆 마을에 굉장히 그 돈을 밝히는 얘기 업은 여자가 그걸 한다고, 짜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무당하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비 오는 날에 그 보름달 뜨고 그런 날에 거기를 막 무당도 막 춤추면서 막 그렇게 했는데. 그 여자가 올라가다가 갑자기 번개가 쳐가주구요, 그 여자는 미쳐 버렸구요.

그런데 그 느티나무의 검은색 나뭇가지는 그대로 매달려 있었구. 마을 사람들은 목 얘기 뒤가, 그래서 막, 그것도 마찬가지로 막 낮으로 막 휘둘르니까 얘기가 목이 잘라졌대요. 그런데, 그래서, 인자 그 마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느티나무의 그 검은 나무 색, 검은 색 나뭇가지하고, 그 여자 미친 여자가 얘기 목 잘른 얘기를 업구 다니면서 낮을 휘둘르는 그런 여자를 자주 목격한 데요.

⑤ 산신령의 미움 산 호랑이

이흥산(78, 남) /목리T 1위

[목리 제보자택] 박종수, 강현도, 윤여훈, 김정원 조사(1995. 11. 4.)

민요를 해 주신 이흥산 할아버지에게 옛날에 사랑방에서 듣던 이야기를 부탁하자 배운 것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였다. 조사자들이 여러가지 예화를 들어 겨우 설득해서 듣게 되었다.

옛날에 소금장수가 지게 지고 땡길 적에여. 간데 산골에 가다가 길 잃어 부렸는데, 선황이라고 알지, 선황? [조사자 : 선황당이요?] 산에 가며는 왜 선황이라고 있지. [조사자 : 예예.] 그래 그 전에 동네가 십 리, 한 삼십 리 가야지 동네가 있거든. 그래 잘 태가 없고 하니까, 소금 지게를 그 선황 있는 데다 놓고, 선황 밑에 가서,

“아휴, 아들네 집에서 하룻 저녁 자구 가야 졌다.”

그러구서 인저 자는데, 쟤금 있더니 또 한 사람이 와서,

“아이구, 길은 저물고 갈 때는 없으니께, 아버지네 집에서 하룻저녁 자구 가야졌다.”

하나는 아들네 집에서 자구 간다구 그러구. 하나는 아버지네 집에서 자구 간다구 그러거든. [조사자 : 선황당에서요?] [조사자2 : 그러니까 아들네 집에서요?] 그렇지. 인저 둘이서 자는데, 아 밤중에 호랑이가 와서 하나 달래는 거여, 밥을. 그래 호랑이가 사람 잡아먹을 때, 산신이 내 주어야 잡아먹지 마음대로 못 잡아먹어. 시방이나 그때나. 그래도 우니까, 배 고프다구.

“자꾸 배 고프 죽겠으니 하나 달라.”

구. 그래 선황이 가만 생각하니깐, 하나는 ‘아버지라구 그러구 자구 간다’고 하고, ‘하난 자식이라’구 그러는데, 자식을 주느냐 아버지를 주느냐. 그거는 자식도 못 주구 아버지도 못 주는 일이란 말이야. 그래 하두

줄르니젠,

“음, 좋은 수가 있다. 저 아래 내려가면 동네가 있는데, 그 저 며느리가 애기를 낳는데, 시방 낳는데, 그 시어머니가 첫 국밥을 혀.(청중의 말은 이야기와 상관이 없어 생략) 그래 아들도 줄 수 없고 아버지도 줄 수 없어서, 그 집에 며느리가 애기를 낳고, 시어머니가 첫 국밥을 하니 거기 가서 밥 좀 하나 가져와서 먹어라.”

그래서 인저,

“좋다.”

구. 마구 내려가니께, 짜장 며느리 방에서 애기 낳고, 시어머닌 첫 국밥을 짓거든. 그래 그전엔 낭구(나무)를, 산골에서 살면 낭구를 꺾어서 때 거던. 그럼 부지갱이라고 있어, 이렇게 찢러 넣는 거. 그래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인저, (부지갱이로 찢르는 시늉) 그런게 무슨 소리가 나거던.

그러니께 부지갱이로다 불을 땀으니께, 이 부지갱이애가 불이 그냥 벌췌게 붙었지. 그래 무슨 소리가 나니께, 이렇게 불을 비추니께 아니 호랭이가 달려들지. 그런게, 그냥 깜짝 놀라니께 그냥 호랭이 몸에다 그냥 붙였다구.

그러니 타니께 그냥 호랭이, 저기 그 불이 붙으면 꺼지지 않는 거여. 불이 붙어서 활활 타니께, 그냥 뭐 베길 수 없은게. 뭐 몸부름 치고 그냥 나가서 죽어 자빠졌대, 호랭이가. 그래서 그 인저 하두 달라니께 꽤 씹해서 호랭이를 죽인 게요, 말하자면. [조사자 : 산신령이요?] ‘고얀 늬이다’ 해서. 그래 거기 가서 불에 타 죽으라고 지시한 게 아니여. 옛날에 그런 얘기가 많았어, 산골이서.

⑥ 호랑이를 만난 형제

정광수(76, 남)/목리T 1뒤

[목리 제보자택] 박종수, 강현모, 윤여훈, 김정원 조사(1996. 11. 4.)

박기순 할머니의 조사를 마치고 길거리를 지나가다 우연히 만나 제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제보자는 부인까지 불러내어 이야기판에 참여시키는 성의를 보이셨고, 우리의 목적에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다. 제보자는 우리가 텔레비전의 기자로 잘못 알고 그런지, 우리보고 텔레비전에는 언제 나오냐고 물으셔서 조금 곤란하였다. 제보자는 50년대에 강원도 양구에서 살았다고 한다.

이것 막 해도 괜찮다니께, 그전에 나 겪은 때 애긴데, 간단하게 내 몇마디 할테니께. 그전에 몇 년도래는 건 모르구. 에 설달 그믐날이래서 옛날에는, 이 저 푸주간이 없어가주구서 말이며, 동네서 돼지를 잡아서 이제 그걸 근으로 노놔서 이렇게 먹거든.

근데 우리 큰 맥이 저 먼데 있시오 그래서 인제 설달 그믐달 저녁에 에 그 돼지를, 피기를 큰, 그전에는 이렇게 근으로 안하고, 쟁기, 이 저 다리 채로 팔았거든. 그래 그 한 다릴 해서 우리 형님이 계시거든.

우리 형님이 허구 나하고, 나는 나이가 어리구 우리 형님은 큰 어른이구. 그래서 내 망태기에다가, 시방은 니꾸사꾸지. 니꾸사꾸에다 해서 젊어지고서 인제 저 산골짜기 옆을 가는데. 거 골짜기 이름은 음목골이라 하는 데여. [조사자 : 음목골이요?] 음목골 골짜기서 나오는 냇물이 있는데, 이렇게 못에 셋둑이 크게 있는데.

설달 그믐날 저녁인데 날이 춥고 눈이 드문드문 떨어지구 그랬다구. 그런데 아 가냥 우리 형님이 앞에 가시더니 움짚 하시더라므네, 날 어깨를 툭 친단 말이야. 그러더니 보니까 앞에 호랭이 불이 그냥, 호랭이 불인지 뭔지 나는 몰랐는데, 우리 형님은 벌써, 난 나이가 어리구.

“아이구! 저거 무슨 불이냐?”

구. 푹 자동차 라이트 같이 흰하게. 그래서가주구설랑 이제 우리 형님이, 내가 ‘미섭다’고 그러니께, 막 야단을 치구. 그전에는 담배가 마코, 마코라는 게 있는데, 5전 짜리 그걸 사서 퍼 물구셨다무네. 그러구설라 무네 지침(기침)을 하니께 내 빼요. 그놈이. 내빼더니, 아 조금 간께 또 앞에 와서 또 그러구 있더라구. 그래 그러니께, 그렇게 일매 일매 몇 번을 가다가, 한 오십보 가 가지고설랑므네 인제 우리 큰맥 집이 이렇게

들여다 보이는데, 거길 드러다가 보는데, 거기서 이제 동네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께, 이놈의 호랑이가 거기 가서 없어지더라구요.

그래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형님은 선달 그믐날인데, 그냥 이 수염에 구드름이 이렇게 나 달리고.(웃음) 하두 무서워니께. 그냥 함박 젖었거든. 나는 나이가 어리니께, 뭐 그냥 무서운지 모르고 그냥 형이 있으니께. 그래 가서 들어갔는데, 그 우리 할아버지도 계시고. 그러니께 우리 할아버지가 허는, 허는 얘기를 사실 얘기를 죄 하니께, 우리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이.

“아이, 그 뉘가 어두워서 그러는구나!”

그게 쫓아오며는, 그 호랑이가 쫓아오면. 근데 그걸 마음대로 못 한대요. 그렇게 했다가 그 동네 가서 사람이 없으면, 저 짐승이 없으면 그 저 사람이라도 물구 간 데요. 그래 어느 동네에 가서 그걸 띠어 놓을래면,

“이 동네 손님 들어가니 밥 잘 대접해서 보내라.”

고. 이렇게 하면 그놈이 어디서 떨어진데 거든. 그런데 그냥 그걸 모르구서 갔지. 그러니까 고생했다구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그것도 못 할 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그 동네 들어가서 무슨 개 짐승도 없으면, 사람이래도 아무 거래도 끌구 가져든. 그런 얘기 간단하게 그냥, 그런 얘기나 한 마디 심심하니깐 한 거지.

7 호식당한 아이

이순이(69, 여)/목리T 1위

[목리 제보자택] 박종수, 강현모, 윤여훈, 김정원 조사(1995. 11. 4.)

정광수 제보자의 부인이다. 제보자는 백암면 장평마을에서 태어나서 이곳으로 시집왔다고 한다. 제보자는 남편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스스로 구술하여 준 것이다.

옛날 우리 친정 어머니가 얘기 해 주시더라구요. 현지에 그랬대요. 여름인데 보리 방아를 찌러, 디딜방아를 그 이웃집 노인네가 거기 사는데 밤새도록 찌구서 보니까는 마당에다 멍석을 깔어 놓구서는 애들을 쪽 뉘었는데, 그냥 그저 거진 새벽인데 다 쪼고 나니까는 아이가 하나가 없어요. [조사자 : 예? 없어요?] 예. 남자 애가 ~~없~~어졌더라요. 그래서, “아휴, 여보! 여기 아무개 애가 어디로 갔어요?”

“몰러 난.”

귀가 자셔서.

“아까 찼 달탁하는 소리가 났더구먼.”

그러더라. 그래서 그냥 찾아 댕기고 없어서, 그냥 날을 지치며 밤을 샜어. 그 이튿날 식전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냥 낮을 들고 거기 해 실이 고개를 넘어가면 꼬추골이라는 데 가는 데가 있어요.

그 장등에를 다 동네 사람들이 낮을 들고 가서는, 그 장등 위에 가서 그 큰 짐승이 잡아먹고서 대가리만 남겨 났더라요. [조사자 : 애 머리만 남겨 났어요?] 응. 다 먹구. [조사자 : 호랑이가 그런 거예요?] 응.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두 귀가 자셨다구. 그래서 어끄졌께 그래서 저기다가 닭을 쉰 마리를 키웠어요, 봄에. 그랬더니 알은 그냥 세 개도 낳고 두 개도 낳고 그래더라구. 그래서 근데 밤중에 2시는 됐는데, 그 닭이 그냥 ‘끼깅’ 하더라구. 그래서 이 아저씨는 귀가 어두웠어요.

“여보, 여보! 저 닭 물어 가나 보다.”

구. 그래구 그냥 그랬더니, 쫓아가서는 거 등불을 켜 놓고 그냥 뒤뒤 하니까, 그냥 큰 개가 그냥 두 눈이 반짝 하더라구. 그래서 보니까니 그냥 다 죽여 났어. 그걸 다 뜯어 먹으려다가, 내가 그래도 귀가 밝아서 야단 했더니, 여기다 죄 집어던지고 내뺀더라구. 그래서 내가 접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뒤는 자신의 귀가 밝음을 자랑하는 내용이었음.)

8 내 덕으로 먹고 살지

이순이(69, 여)/목리T 1위

[목리 제보자택] 박종수, 강현모, 윤여훈, 김정원 조사(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정광수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자, 생각이 났는지 막 으시면서 하셨다. 이야기를 시작하자 옆의에 찬 모습으로 해 주셨다.

내가 한 마디 할까요 저기 가만히 계슈. 옛날에 저기 한 사람이 살았는데, 딸을 셋을 낳데요 그런데 지 아버지가 하는 말이 큰 딸을 데리구,
“너는 누구 덕에 먹구사냐?”

그랬더니.

“나는 아버지 덕에 먹구 산다.”

구 했어. 또 하나를 물으니께는,

“나도 아버지 덕에 먹구 산다.”

구. 막내 딸을 하날 데려다 놓구선,

“너는 누구 덕에 먹구 사느냐?”

구. 그러니께는.

“내 덕으로 먹구 산다.”

고 그러더랴. 그래가주구 하두 서운해 가주구서는,

“이년, 그래도 아버지가 이렇게 벌어 매기는데, 내 덕으로 먹구 산다 니, 너 저 두메 산골에 가서 숯장사한테 그냥 시집을 보낸다구. 그리 보낸다.”

구. 거기다 갔다가, 그냥 나이도 많고 수염이 부들부들한 사람한테 그냥 갖다가 줬대요. 그래 거기서 그냥 사는데, 산중에서 숯을 구고 사는데, 여기쯤 돼서 인제 점심을 해가주구 거길 간데요, 신랑한테로 가며는 그 걸 그냥 검게 그슬고 불을 때더래. 그런데 이렇게 가니께, 그 왜 숯가구 아궁이에, 직 돌로 이렇게 아궁지 한게 있잖아요. 그게 그냥 금덩어리가

번쩍번쩍번쩍 뵈더래요. [칭중 : 허.] 그런데 그냥,

“저 점심 잡수시라.”

하고 앉아서 인자,

“여보! 이거 그만 두고서는 인자 지친 일이니께, 이맛돌(아궁이 만침 돌) 이런 걸 빼어가지고 지고 가자.”

고. 그런께 필쩍 뛰면서.

“나는 이거 아니면 굶어 죽는데, 왜 그걸 가주 가자고 그러냐?”

구 그랬어. 그랬더니.

“저게 인제 있으니까 가자구. 내 말이나 들으라.”

구. 그래서 이제 그걸 지구 집으로 와가주구서는,

“저기 서울 장안에 가서 하나를 지구 가서 그냥 있으면서 살 사람이 있을 거라.”

구 그러더래. 그래서 그냥 참 부잣집에서 장갈 들어 왔으니께, 뭐 남편 이 여자 하라는 데로 했던 거지. 그랬는디, 지게에다 짊어지고 있으니까 는, 참 부자한 그냥 선비가 와서,

“이걸 팔거나구? 팔으라.”

고 그랬어.(기침 소리)

“팔은다.”구.

“그럼. 얼마 저기 하나구. 얼마 달라.”

구 그러더래요.

“암만 암만, 한 천 냥 달라.”

구 그러던가

“아휴! 그거 밖에 안 받으실라구 그래요? (조사자: 허허.) 더 드릴께.”

그래구선 그냥 더 드리구서, 그걸 팔았대요. 집에 와가주구서 인자 신 바람이 나가주구,

“아이구! 암만 암만 달랬더니 더 줬다.”

구. 그래서 그걸 다 팔아다가 지털 세상에 있는 벼랑같이 인자 찌글어진 그냥 집에서 살았는데, 잘 졌대요. 그래 놓구서 대문을 해 달았는데,

이후 마른 흙이 읊어. 대문을 열으면 ‘뽕’ 하잖아? 근데 그냥.

“내 덕으로 먹구 살지 네 덕으로 먹구 사냐구. 그렇게 목소리가 나오게 해달라.”

구. [조사자 : 대문 열면요?] 예. 그랬데요. 그랬더니 정말 열으며는 그냥
“내 덕으로 먹구 산다.”

고 그냥 소리가 나더래요. 그러구 그냥 안실에는 그 높은 참 별장같은 데서 사는데, 한 십 년이 됐나 그렇게 됐는데.

“이년이 어떻게 사나 꼬락서닐 가 본다.”

구. 지 아버지가 찾아 갔대요

“근데, 여기 저기 아무개 사는 사람이, 이 동네 사느냐?”

구 그러니까.

“산다.”구.

“그럼 어디냐?”구.

“아이구! 그 그 참 저기 계실 때, 그 양반네서 아주 저기저기 큰 대문 달린 집이, 제일 잘 짓고 한 집이 거기라.”

구 그랬어요 그래서 나,

“밤낮 어딜 가서 도둑질을 헤가주구 와서 사느냐구. 어디 찾아나 가 본다.”

구. 그러구선 거길 가서,

“지은(주인)네 있냐?”

구. 이자 찾으니께 나와선 문을 여는데 그냥,

“내 덕에 먹구 살지 뉘 덕으로 먹구 사냐?”

구.(웃음) 소릴 그냥 들어가니까, 그 친정 아버지가 그냥 놀래서 벌렁 자빠졌대요. 하두 그냥 기가 막혀서. 그래서 그냥 와가주구,

“나는 내 덕으로 먹구 사는데, 잘 하구 먹구 산다.”

구. 그러구선 그냥 그 언니들을 다 그냥 저기 재산을 쥐가주구 다 잘 살게 했대요. 다 누구든지 내 덕이 있데요. [조사자 : 사람마다요?] 응. 사람마다 내 덕으로 사는데, 이 부부가 이렇게 살잖아. 하나는 덕이 읊고,

하나는 덕이 있으며는, 부부는 같으니께 그 덕에 의해서 잘 하고 잘 산 데요.

그러때미네 학생들도 어디 가서 혼날 때, 내 덕으로 있는, 그 형제들을 참고 살아. 참 선생님에게 혼나도, 다른 사람도 뭐 한 사람도.

9] 주인 딸을 아내로 삼은 종

진옥임(33, 여)/묵리T 1뒤

[묵리 제보자택] 박종수, 강현모, 윤여훈, 김정원 조사(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제보자 집을 나와서 새로운 제보자를 찾아야 했다. 답사를 거의 포기한 상태로 찾아간 집에서 의외로 젊은 아주머니에게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집에는 애들이 많이 있어서 매우 소란스러웠다.

내 제목이 뭔지도 몰라요. 제목이 뭔지도 모르는데, 얘기해 줄게 너네. 응.

옛날에 옛날에 어떤 큰 대궐 집에, 대궐 집에서 그 집에는 그 종 하인들도 있고 대궐 마님, 이렇게 그 집 그 옛날엔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한 남자 종이 있었데요.

근데 그 주인집 마님의 딸이 예쁜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옛날에는 이렇게 신분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안 주고, 양반 가문은 양반 가문에 이렇게 막 출가를 시켜야 되니까. 곱게 길러 가주구 양반 가문에 이렇게 시집을 보낼려구 했는데, 그래가주구 한복을 입히고, 그래가주구 이쁜 딸이 있었는데.

이 종은 매일 말이야, 자기는 종이면서도 그 딸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가주구 딸을 사모했는데 피를 낸 거예요, 이 종이. ‘어떻게 해야지 저 이쁜 딸을 자기 색시로 맞이할 수 있을까.’ 그래 자기 신분이 종이기 때문에 ‘팬일 맨날 어떻게 해야지 저 저 색시를 내 색시로 만들 수

있을까' 궁리를 했어요.

그랬다가 이제 하루는 방안에 들어가서 꼼꼼히, 꼼꼼히 저녁 내내 생각을 했어. 근데 생각해 갖구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고. 인자 자기 혼자서 그 말하자면 딸의 행동만 매일 날 살피는 거야. 이제 기회를 보는 거야.

그랬는데 그 딸이 어느 날 외출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주구서는 무슨 일이 있어서 외출을, 나가는 같이 이제 외출 나가는 걸 지켜보고 있다가, 그러니까 딸이 아침에 일어나갔구, 막 허겁지겁 이제 뭐 이렇게 준비하고 나가느냐구, 방에 치우지도 않고 그냥 옷을 벗어 놓은 채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몰래, 그 아무도 몰래 그 아가씨 방이를 숨어 들어갔어. 숨어들어 가갔구, 아가씨 급히 나가느냐구. 이 속, 그 옛날에는 이 치마저고리 밑에 속바지 속고쟁이라구 그런 거를 입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미처 치우지 못하구 구석에다 놔둔 속, 속고쟁이를 입은 거예요. 속고쟁이를.

그 아가씨 속고쟁이를 자기가 턱 입구서에는 나갔어. 그러니까 아침 일찍 종들은 일어나서 그 넓은 마당을 다 쓸어야 되잖아요. 인제 그 주인집에. 근데 이제 그 넓은 마당을 이제 치는데, 일부러 그 속고쟁이가 보이게 할려구, 막 펄렁펄렁 대면서 막 허는.(얼버무림)

근데 이제, 아침에 이제 대감 마님하구, 대감이랑 마님하구 이렇게 딱, 이렇게 대청마루에 앉아서 이렇게 내보는(얼버무림) 아 종이 막 마당을 쓸고 막 펄렁펄렁 대는데, 여자 속곳을 입고선(웃음) 마당을 쓸고 있는 거여. 그러니깐 종을 불러 가주구서네,

“아니, 어떻게 된 거냐?”

구. 그러니까 이 시침이 딱 떼고 턱 걷어 올리면서,

“오! 내가 왜 이거를 입고 있지?”

(일동 웃음) 딱 그러는 거여.

“아침에 일, 너무 일찍 일어나서 허겁지겁 나오는 바람에 내가 잘못

이거를 입고 나왔다.”

고. 인자 당황하는 척 한 거야. 그러니 마님이 생각하니까,

“아이구!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이 종이 인제 자기 딸과 거기서 인제 함방을 했는지 알구서. 함방을 하구 아침 일찍이, 자기 몰래 얼른 빠져 나오느냐구 자기 딸의 속 곳을 입고 나온 걸로 생각을 했으니까. 아주 그 큰 창피가 났지, 옛날에는. 그러니깐 큰일 났다구, 이게 누구한테 얘기를 이렇게 할 수도 없구. 자기 딸이 좋하구 그렇게 했다구 그러니깐. 그래가주구 큰일 났다구. 이렇게 막 걱정하고 이제 쉬쉬하고 이제 얘기도 하지 않는 거야.

그러는데 딸이 이제 갔다가 돌아 왔어. 이제 딸을 데려다가 얘길 했어. 딸은 그거 아닌데, 자기는 아니라구 변명을 해두 통하지가 않지. 더 속고쟁이를 입고 나와서 그랬으니까.

“큰일 났다구.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구. 인제 막 저거를 했어. 그래다가 생각한 끝에 이 대감이, 이 집안에서 정식으로 혼례를 시킬 수가 없잖니. 종놈 하구. 그러니까 둘이 도망을 시키기로 한 거야, 인제. [조사자 : 딴 동네로요?] 따른 데로 인제, 따른 데로 이제, 따른 데로 이렇게. 옛날에는 저런 거, 오늘 같은 옛날의 엽전 꾸러미를 만들었어. 만들어 갖구 짐꾼한테 잔뜩 짊어질키구, 그래가꾸 거기서 인제 떠나라구 했어. 몰래. 인제 거기 몰르게 인제. 이제 그 동네 모르게.

“다른 데로 가갖꾸, 느네 둘이 도망가서 살으라.”

막 그러니까. 그래구서는 비밀리에 그래가주구선에 비밀리에, 이제 오밤중에 이렇게 돈을 갖구서니, 이제 다른 데로 이제 도망을 가서 사는 거예요. 이제 이 대감 몰래. 그래가주구 그래가꾸, 그 다음에는 잘 모르겠네.(웃음) [조사자 : 예?] 그 다음엔 또, 그래서 도망을 가서 살았는데. 도망을 가서 이제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그래갖꾸 이 피많은 좋은 자기 피로, 자기 그러니까 피를 부러가주구

이 대감집의 이제 그 딸을 차지한 거예요. 그래가지구 멀리 도망가서 살았대. 근데 그 다음엔 모르겠네, 어떻게 됐는지? [조사자 : 예, 고맙습니다.]

10 할미꽃의 유래

진옥임(33, 여)/목리T 2앞

[목리 제보지대] 박종수, 강현모, 윤여훈, 김정원 조사(1995. 11. 4.)

조사자가 다른 이야기를 부탁하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주변은 아이들이 많이 있어 소란스러웠으나, 제보자는 이야기를 조리 있게 끌고 나갔다.

[조사자 : 할미꽃 전설요?] 그것 할미꽃 전설이라고 그러는 거지. 옛날에 옛날에 할머니가, 인제 그 엄마가 딸만 셋이 있었어요. 딸만 셋이고 아들도 없고. 딸만 셋을, 셋을 나아서 기르는데, 딸들이 딸들이 다 출가를 하며는 할머니 혼자 있어야 되잖아요. 딸들을 처음에 기를 때는, 자기네들이 셋다 다,

“난 시집은 안 가고 엄마하고 살겠다.”

맨날 그랬어요. 그런데 인제 장성해서 크구 한 스무 살씩 돼, 되니까 이제 출가를 어렸을 때 안 간다고 했지만, 자기네가 인자 나이가 되니까는 인자 하나 하나 보냈어.

첫 딸은 이제 시집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딸 하구 막내 딸 하구 남았어. 그런데 둘째 딸도,

“나는 시집 안 가구 엄마하고 살겠다.”

구. 그랬는데도 둘째 딸도 나이가 되니까 또 시집을 갔어요. 그리고 또 막내가 인자 하나 남았는데, 막내 딸이 나이가 됐는데,

“난 엄마하고 살겠다구. 죽어도 엄마하고 살겠다.”

구. 그렇게 약속을 했는, 했구 그랬지만, 엄마는 보내려고 했는데. 딸은 '엄마하구 산다'고 그랬지만, 나이가 되니까 또 세째 딸도 이제 시집을 보낸 거예요.

[조사자 : 첫째 딸요?] 인제 그래 첫째 딸도 보내고, 둘째 딸도 보내고, 셋째 딸도 인제 다, [조사자 : 다보냈어요?] 잉. 다 보내버린 거여. 이제. 나이가 되니까는 '다 안 간다'고 그랬지만 다 갔어. 그래 할머니 혼자서 인제 사시는데, 딸들은 시집을 가는,(말을 바꿔서) 친정을 인제 자주 못, 못 오잖아요. 자주 못 오고, 인자 뭐 무슨 날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날이 있어야만 오고, 그러지 않으면 못 오는데. 그래갓고 할머니가, 할머니는 혼자서 늙으니까 늙었어.

꼬부랑 할머니가 되가주구서니는 딸네 집이를 가서 인제, 처음에는 첫째 딸네 집이로 가는 거여. 가서 자기는 다들 자기하고 '살겠다'고 엄마한테 호너였는데, 첫째 딸네 집이를 가갓구 이틀을 묵으니까 이 딸이 눈치가 보이는 거여요. 그래갓구 사위랑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인제 그 눈치를 알고,

“안 되겠다, 난 여기서 대구(?) 둘째 딸네 집에 가서 있어야지.”

이제 딸이 셋이니까. 인자 돌아가면서 있을라구. 그래 또 할머니가, 근데 며칠은 걸려 걸어갓구, 그전에 인자 고개를 넘구 넘어 가주구 둘째 딸네 집이로 또 간 거여요. 그래서 둘째 딸네 집에서도 인제 며칠 그 묵으니까, 늙고 일도 못 해구 그러니까 둘째 딸도 인제 싫어하는 거여. 인제 며칠 있으니까. 둘째 딸도, 그래가주구 참 할머니가,

“인제 그 안 되겠다. 요번에 인제 세째 딸네 집이로 가야지.”

하구서는 이제 날이 추워졌어. 눈이 막 오고 날이 추워서 고개를 넘어 가야 되는데, 할머니가 그 고개를 이제 밤중에 나와가주구 인제 걸어서, 그 눈길을 헤쳐서 셋째 딸네 집이를 걸어가다가 할머니가 기력이 없어가주구 인제 쉬어 가고 쉬어 가고 그러다가, 날도 춥고 그래서 할머니가 눈길에 쓰러진 거예요. 눈길에 쓰러져서 언덕에서 인제 일어 죽으셨어. [조사자 : 언덕에서요?] 응. 언덕에서 일어, 일어 죽, 일어서 죽으셨

어.

그랬는 데도 인적이 인자 드므니까, 사람들이 죽었는지도 모르고 이듬 해가 됐어요 그 이듬해 봄이 됐어요. 봄이 됐는데 이제, 세째 딸은,
“아, 우리 어머니가 한 번도 자기네 집에 아직 안 왔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되셨나?”

하구 이제 궁리해서, 어머님 집을 찾아 다니거든. 찾아 갔는데, 어머니가 그 거기에서는, 인자 그러니까,

“딸네 집으로 갔다.”

구. 그래서 언니들한테 얘기를 하니 물어 보니까. 언니, 첫째 언니는,

“아, 우리 집에서 몇 일 있다가, 둘째 언니네 집으로 갔다.”

구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둘째 언니네한테 인자 가니까, 둘째 언니가,

“너네 집으로 간다구 갔다.”

구. 그런데 인제, 셋째 딸네 집에는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막내딸이 제일 인제 그래도 엄마를 사랑하는 거여. 늘 걱정[칭취불능] 그래가지고서는 엄마를 찾아서 그 고개 너머를 봄에 오는데, 이제 눈이 다 녹고 봄이 되 왔으니까 풀이 났는데, 그 언덕을 넘어 오는데, 할미꽃 한 송이가 그 언덕에 이렇게 피어갓구 구부려져 있고. 할머니는 돌아가셔가주구 이제 그 이듬 해에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시체만 남았잖아요.

근데, 그 그 옆에 이제 고개 아니구, 할머니가 돌아가신 먼저 참 시체를 봤지. 그래서 그 언덕에다 인자 양지 바른 곳에다가 묻어준 거여. 세째 딸이. 물어 주고 했는데, 그 인제 4년마다 한 번씩 이제 성묘같이 오잖아요.

그래서 또 다시 그 이듬 해가 되서 왔더니, 그 묘지 위에 그 할미꽃 한 송이가 피어 났드래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죽은 혼이 할미꽃이 됐대요. 할미꽃이 그 할머니여.(웃음)

11 용을 물리치고 절을 구한 지네

장봉태(72, 남)/목리T 3앞

[목리] 박종수, 강현모, 조문정, 김은아, 오유경 조사(1996. 5. 24.)

조사자가 방문하였을 때는 세 분의 할아버지가 모여 계셨다. 조사자들은 장소도 어색하고 불편한 자세로 들을 수밖에 없었지만,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질문을 던지며 청취하였다. 제보자는 자신의 과거 경험을 토대로 말씀하였다.

아래 내려가가지고 큰 연못이 있었는데. 연못이 있었는데 이무기가 뭐 이름드리가 있었다나.

그런데 그게 있는데 그냥 소가 갖다 매면 그 놈이 다 잡아 먹고 사람도 다 잡아 먹구 그래가지고서는, 나중에는 요 아래서 지네가 바다만 한게 내려와서 그냥 그 놈을 잡아 먹었다야. 그 용을 물었다야.

물어서 죽고 뜯었다, 그, 그 지네는 이 절로 올라갔다. [조사자 : 이쪽은 뭐요?] 절요, 절. [조사자 : 아! 절요.] 응 그 놈은 절로 올라가고, 그 래고 이쪽에 절을 지을라고 했는데, 그 대들보 그러게 땃백 년 전 얘기 이지. 대들보를 갖다가 저쪽에다 났는데, 이쪽에 해야간 빈대가 많았었다. [조사자 : 빈대요?] 응. 그 저쪽에 지을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놈의 대들보가, 밤에 자고 나니까 여기다 갖다 났더라. 이쪽 절개로. 그래서 거기에 절, 절을 지었는데요 거기다가. 그게 그래서, 그런데 인자 그전에 날이 좋아가지고 저쪽에 지금 절 지은 데서 능구렁이가,
“뽕뽕!”

울렸대요. 그런게 그게 무슨 소리가 하였더니, 그냥 대낮에 이냥 사태가 나가지고, 그냥 골짜기를 다 찢어버렸어, 골짜고니를. 그리고 능구렁이 우는 소리 못 들었지, 여기서 아주 몇 해 전, 작년 꺼정도 울었어 능구렁이가. 능구렁이만 우는 것이 아니라, 저 뭐 우는 소리가.

“꺅! 꺅! 꺅!”

해요. 그런데 금년에는 안 울어. 나는 능구렁이 울음을 하도 많이 들어 가지고. 그런데 요즘에는 능구렁이를 보지도 못 해.

12 일본놈을 물리친 사람

장봉태(72, 남)/목리T 3앞

[목리] 박종수, 강현모, 조문정, 김은아, 오유경 조사(1996. 5. 2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구렁이와 관련된 민속과 옛돼지 사냥, 산속에 관한 것 등을 이야기하였다. 불공을 드러 큰 아들을 얻은 이야기를 묻자, 불교와 관련된 사명당의 일화가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주었다.

일본놈하고 인저 전쟁, 그전에 싸울 적에 자기 제주로다가 뭐 총구에 다 물이 고이게 해 못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저 이런 얘기하면, 왜 일본놈이 그래가지고, 저 그래서 일본을, 이런 얘기하면 일본을 그 사람이 데려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여.

[조사자 : 일제시대요?] 아니 일제시대가 아니라 오래 적어. [조사자 : 그전 이야기에요?] 응 일본놈들. 그런 얘기 들었을 텐데. 그래 일본놈도 들으라고 무쇠방아에다가 벨강게 달아가지고 있으니까, 뭐 죽어? 그냥 고드름이 족 달려 있지. 그런 얘기는 잡것스러운 얘기도 있지만, 그것은 못해. [조사자 : 왜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인자 잡아다 허니까, “그럼 나라를 살릴라면, 너를, 너희들 나라를 망하게, 안 망하게 하려면 응, 그 여자, 젊은 여자 인피 가죽을 300장, [조사자 : 인피여?] 응. [조사자 : 가죽?] 응. 사람. 여자들. 그러니 씨를 말릴라고 그러는 거여. 말려서 300장을 가져오니라. 그 남자 인자 아래 불알을 삼, 3말을 까 와라.”

그래가지고 그걸 했는데, 비만 오면 막 썩고 썩고 그러니 그게 인자 다 그냥, 아주 이냥 인촌이 씨리니까,

“그럼, 그만 해라. 그럼 내 말만 들어라.”

그래가지고 불도를 믿어가지고, 거기 불도가 많데잖아. 그래서 나중
에 인덕이 모지라 가지고 그거 일본놈들이, 여기 지금은 안 뒤지는 거
여. 요렇게 지구 대니는 것 있어. 그것 인자 인종 퍼뜨릴라고. 그래가지
고 인종을 퍼뜨려가지고 그랬다는 거여.

13 영험한 당산나무

장봉태(72, 남/목리T 3앞

[목리] 박종수, 강현모, 조문정, 김은아, 오유경 조사(1996. 5. 24.)

제보자는 앞 이야기를 마치고 생각이 났는지 계속하여 스스로 구술하여 주었다.

그리고 옛날에 요 아래서, 우리 동네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지금도 산
제사 지내는데 있지만, 거기도 지사를 지내는데. 저기 길거리 이렇게 지
사 지내는 나무가 이렇게 뺨어나갔어. 그런데 이렇게 옛날에는 사람이
인자 그는 입이 길거리에서 풀을 꺾었거든. 깎았는디 그 버드나무가, 어
른들이,

“잘르지 말아라. 잘르지 말아라.”

했는데, 그 머슴 사는 사람이 그 잘라버렸어. 그냥 낭구를. 잘라가지고
그냥 그 이튿날 애편 죽 잘르 듯이 죽는다고 야단을 해 가지고선, 그냥
거기 가서 밭고 그냥 밭고 허고 그래서 낫았어. 그래 옛날에는 그런 일
이 많고.

14 아이를 호식 당한 바보 남편

장봉태(72 남)/목리T 3와

[목리] 박종수, 강현모, 조문정, 김은아, 오유경 조사(1996. 5. 2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전설에 관해 이야기 해 주세요' 하자 스스로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주었다.

그 얘기는 인저, 옛날 전설 들은 얘기지만, 저 아래 저 동네가 있었거든. 그런데 저녁에 인저 자는데, 남자는 병신 같아고, 여자는 인자 아무래도 좀 나온 모양이야.

그런데 인저 자는데, 뉘이가 더듬더듬 해서 보니까, '돼!' 그러니까 호랑이가 내려왔더라. 그런데 그래 죄 저기가, 그 마누라쟁이가,

“뭘 그렇게 때문이 그래요?”

“호랑이가 내려 와서 그냥 그랬다.”

고 그냥 그러더라. 그런데 그 이튿날 또 내려왔더라. 내려와 가지고 그냥 아- 이거 그냥 잡아갔데. 어린애를 잡아갔는데, 그 마누라가, 그리하면 천치지,

“아이, 왜 또 왔시오. 뭘요.”

그러니까,

“아! 그놈의 새끼가 그냥 애새끼 하나 물어갔다.”

구. 그러니까 저기 동네, 그 앞에, 우리 집 앞, 안에 들어가면 범이 한 두골 있어, 거기다 옷을 벗어 두고 가더라. 그래 동네사람들이 죄 나서 보니까, 이장도 저 위에도 대가리만 내놓고 먹었는데, 호랑이가 내놓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그러니까 그냥 쫓겨 났지. 그리고 그 대가리는 그냥 거기다 묻고.

옛날에는 다 그런 거여. 그런데 뭐 다 그래도 옛날에 내려오는 전설이지. 뭐 거짓말은 아니거든.

15 집에 들어온 짐승 잡아먹고 망한 집

장봉태(72, 남)/목리T 3앞

[목리] 박중수, 강현모, 조문정, 김은아, 오유경 조사(1996. 5. 2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민속적 상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집안에 들어온 짐승을 잡아먹고 망하였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주었다.

그래 인저 이가, 이씨네면 우리 집안이여. 우리 할아버지 우리 작은 아버지이여, 그런데 눈이 굉장히 왔었다. [조사자 : 예 겨울에요] 근데 지금도 그런 얘기가 있어, 꿩이 집이 들어 왔더라. 그걸 잡아 먹었다.

잡아 먹었는데, 그냥 그 집안이 훌딱 망해가지고 딴 데로 이사 갔대. 그 저기 그 이사간 사람이 어디서 사느냐 하면, 이 너머 해곡리라는, 저 해곡리에 원삼면 살어. 그래서 그렇게 이살 갔어. 여기가 저 그랬어.

지금두, 지금두 그런 걸 들어면은 노루 같은 거 옛날에는 들어오면, 대개 집으로 들어오는 거 잡아 먹으면은 그게 좋지가 않다. 지금 시대도 그렇대요 지금두.

16 용덕사의 유래

김천빈(77, 여)/목리T 4뒤

[목리] 박중수, 강현모, 조문정, 김은아, 오유경 조사(1996. 5. 24.)

조사자들은 새로운 제보자를 찾아서 동네의 사정에 대해 물었다. 제보자는 동네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와 직접 겪으셨던 이야기를 주로 해주셨다. 처음에는 이야기를 잘 못하신다며 거절을 하셨지만, 적극적으로 묻자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주었다.

그걸 지금 절 지은 터에다 갖다 놓았어. 그 이런 대들보를. 그 대들보

각은 거를.(조사자가 다시 질문하는 과정 생략) 이런 통나무. 이런 통나무를, 이런 통나무를 절 지을려고 각았어. 이 아랫절을. 아랫절에다.

이 아랫절 펴퍼집한 데다가 각았어. 각았는데 하룻 저녁 각아 놓고, 인저 절을 세울라고 각아 놓았는데, 그거를 들어다가 그 큰 통나무를 들어다가 저 윗절, 지금 절 지은 데다 갖다 놓았어. [조사자 : 누가요?] 절 지은데. 거기가 동굴이거든.

[조사자 : 산신령이요] 응? 응굴. [조사자 : 산신령요?] 응, 용덕사. 용덕사 용굴이야. 용덕사에. 용덕사 용굴인데, 거기다 갖다 놓아서 거기다 집, 절을 짓었어, 인제. 거기 갖다 놓아서, 그 대들보이, 대들보를 안어다가, 그 큰 것을 여기서부터 저까장, 큰 아름나무를 각아 놓은 걸 안어다가 거기다 놓았어. 그래 거기다 들어 썼어.

지금 지은 자리에다 절을 지었어. 산신령인지(웃음) 산신령이 그랬는지, 으트게 해서 그렇게 그걸 갖다가 거기다 놓았는지 몰라. 거기다 갖다 놓아가지고는 거기다 절을 지었어. 그런데 아주 지금 되게 좋아. 잘 지었어. [조사자 : 커요?] 커지. 커.

17 호랑이를 만난 사람

제보자(?, 여)/목리T 4뒤

[목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조문정, 김은아, 오유경 조사(1996. 5. 24.)

조사자들은 김천빈 할머니택을 나와 새로운 제보자를 찾아 다녔다. 다행히도 노인분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게 되었는데, 할머니들께 이야기를 해 달라고 부탁하여 몇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분위기 조성을 하지 않았는데 말씀을 하여 주기도 하였다. 주변에는 4분의 할머니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이 이야기를 해 주었다. 두 분은 말씀하시는 것을 꺼리지 않고 잘 말씀해 주었다.

그런데 고사리를 뜯으러 갔거든. 저 산꼭대기에서 가서, [조사자 : 고

사리요? 응 고사리도 꺾고, 달래도 꺾고, 저 산 꼭대기 평상이 꺾어가
지고 내려오는데, 동네 아줌마들이 한패들로, 여기(녹음기를 가르키며)
다 들어가는 거여. 한패로 올라가는 거여. 그런데,

“아줌마! 아줌마! 날 송아지, 송아지가 왜 두려누워서 자요.”

그랬어. 송아지가 두려누워 자니까.

“아니 애가 미쳤나 봐. 왜 송아지가 산에로 와.”

그래요 아 그런데,

“아니 송아지가 두려누워 자는 데요. 새밭에 가세요.”

하얀 새밭에. 그래서.

“아이, 저 아줌마들 빨리 올라와 봐요.”

“아이 우리 올라와 소리 해지 말고 내려 와! 그게 노루지. 그냥 증말
그게 송아지가 왜 거기 와 있어.”

그래요(웃음) 그게 참말로 그래 이상하지 물론. 송아지가 집에서 송
아지를 낳지, 산이 가서 송아지를 어떻게 길러. 아 그것을 생각허니까,
그로다가 그냥, 하얀 새밭에 가 이렇게 두려누워 있테요, 모두. 그래 어
떻게 놀랐는지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 밋만 올르다 댓 명, 나물 뜯으러.
그런데.

“아줌마! 그런 소리 말아요. 나 죽으면 무서워서 죽겠소. 인제 내려갈
거요.”

그러고 허니께. 참말 호랭이 새끼를 보여, 호랭이 새끼. 호랭이 새끼
를 송아지라고 내가 보았네. 하이얀 새밭에 가서. [청중 : 호랑이 새끼
를.] 응. 하이얀 새밭에 가서, 그냥 쪽 뺨고 두려누웠지 뭐요, 그냥. 근데
나도 송아지인지 알고 겁도 안 나고 말이요 ‘송아지가 요기 와서 이러
게, 산에 와서 두려 누웠느냐.’고 했시요. 아니 저 근네를 보니깐 그 호
랑이가 두려누워 있어. 아줌마들이 나물 뜯, 뜯으러 한 댓명 올르더니,
“알았어.”

그러드라고.

“아줌마! 아줌마! 여기 왜 송아지가 두려누워 있으니, 왜 여기 와서

두려누워 있지. 산에 와서.”

그러니까.

“아이 이 아줌마 좀 봐. 내 송아지가 거기 와 있느냐구. 큰 짐승이라.”

뛰지 말고 내려 오래, 내 보고

“뛰지 말고 내려 내려 오지. 뛰면 벌떡 일어나서 해 끼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러더니 뛰어내려 왔어.

“너무 뛰지 말고, 천천히 뒤에서 쫓아올테니 천천히 오라.”

고. 그리고 하야간 내려오고 나니깐, 아줌마들이,

“찬찬이 와요. 찬찬이 와.”

내 그래.

“뛰면 그냥 벌떡 일어나서 잡는데요, 호랭이가. 그래고 한 번 그렇게 나물 갔다와 보고는 그냥, 다시는 나물허러 갈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서, 아 태권(?) 넣어 가시라고, 아침 저녁. 그렇게 하고는 그렇게 하고 내려 오고는 다시 그냥 나물 안 갔어요.(웃음) 무서워서.

3) 민요

□ 대장부의 생활

이흥산(78, 남)/목리T 1앞

[목리 제보자택] 박종수, 강현모, 윤여훈, 김정원 조사(1995. 11. 4.)

여러 곳을 헤매다가 우리가 방안까지 직접 찾아 들어갔다. 몸이 편찮으셔서인지 억양이 떨렸으며 틀니 때문에 발음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셨다. 주변에 청중 한 분이 계셨다.

태커야 경칭(충) 뛰지 말아라

너를 잡으리 내 아니다

성상이 보리세면
 너를 좇아서 예 왔구나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서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가
 이만하며는 넉넉하지
 일천관장 맺힌 사람
 부모님 생각 뿐이로다

② 노세노세

박가순(86, 여)/목리T 1뒤

[목리] 박종수, 강현모, 윤여훈, 김정원 조사(1995. 11. 4.)

이홍산 할아버지의 조사를 마치고 새로운 제보자를 찾아나섰다. 제보자는 고령이라 조사 하기가 어려웠으며, 발음도 좋지 않았다.

젊어서 놀아라
 늙어지면 못노나니
 화무는 십일홍이요
 달도 차며는 기우나니

③ 꽃이 곱소

제보자1(? , 여)/목리T 4뒤

[목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조문정, 김은아, 오유경 조사(1996. 5. 24.)

앞에서 이야기를 마치고 옆에 있던 한 할머니께서 노래를 시작하였다. 제보자는 자신

의 이름과 성을 알려 주지 않고 말씀을 해 주셨다.

꽃이 곱소 내가 곱소
지 아무리 곱다한들
복사 같이 고울소나

8. 천리

1) 마을개관

박종수, 강현모, 강희득, 류영선, 한재규, 장정임, 송미진 조사
(1995. 11. 4., 1995. 11. 11.)

천리는 용인터미널에서 버스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의 한 복판에는 약간 거리를 둔 사거리 길 있는데 동쪽이 묵리를 들어가는 길이고, 서쪽은 서리로 향해 있다. 그리고 남쪽은 이동면의 다른 마을이나 남사면으로 가는 국도변에 위치한 마을이다. 가옥들은 길을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다.

천리는 용인군 상동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통저골, 구시울, 노루실을 합쳐 천리라 칭하여 이동면에 편입시켰다. 그런데 이곳은 찬 샘이 있기 때문인데, 샘곡, 샘골, 천이라고 하며, 천동이라고 했다가 천리가 되었다.

천리를 이루고 있는 작은 마을로는 원천, 구수동, 적동, 원촌이 있다. 원천은 천리의 원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천리의 유래는 이재라는 사람이 골생골에서 공부를 하다가 독서대의 샘물을 보고 샘골이라고 한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구수동은 구시울이라고도 하는데, 서리 쪽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마을이다. 적동은 통저골이라고도 하는데, 옛날에 통점(뚝쇠점)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또다른 유래로는 임진왜란 때 원씨 성을 가진 의병장이 왜군들을 유인, 통소 소리를 신호로 적을 기습하여 대승을 거두고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통저골이라고 하였던 것이 한자음으로 기록하여 죽동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원촌은 옛날에 이곳에 한천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이름으로, 서원말의 준말로 섬말이라고도 한다.

이곳은 용인시와 가까운 관계로 이곳에 거주하면서도 시내에 직장을 구한 사람

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60대 이상의 노인들이다. 따라서 이곳의 환경은 농촌이면서도 도시적 냄새가 진하게 풍기고 있다.

2) 설화

① 썸골의 유래

강신덕(80, 남/천리T 1앞

[천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한재규, 장정임, 송미진 조사(1995. 11. 11.)

우리가 도착한 천리 노인회관 안에는 세 분의 할아버지께서 계셨다. 방에 계시던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이야기를 듣기 위해 대전에서 올라왔다고 하자 반갑게 맞아주셨다. 하지만 별로 해 줄 이야기라고는 없다고 하시면서 회피하셨다. 그러나 천리에 내려오는 전설이라고 하시면서 용굴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다.

먼 옛날부터 내려오는 얘기는 썸(썸)골이여, 썸골, [조사자 : 썸골] 썸골인데, 예날엔 물이 많이 나와서, 썸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썸골이라고 지었었는데. 옛날 노인네들은, 근데 지금 와서는 썸골이라고 하며는 딴 데서는 잘 몰려. 천리라고 해야 잘 알지.

[조사자 : 썸에서 용 나오고 뭐 그런 것 없었어요?] 응? [조사자 : 용 같은 것 나온 거요] 용 있지. 요기서 한 십 리만 올라가면 용굴이란 곳이 있어, 절인데. [조사자 : 그게 어떻게 된 건데요?]

용이 인제 하늘로 올라간 굴이 있어. 용굴. [조사자 : 이무기가 용 되서 올라간 거예요, 그럼요?] 모르지, 그건 못 봤으니 모르지만, 용굴이라는 것이 있어. 용굴. [조사자 : 근데 그럼 왜 용굴이라고 그래요?] 용이 올라갔으니깐. [조사자 : 굴에서 살다가요?] 용이 거기서 살다가 올라갔으니깐. [임천용 : 살았는지 워렸는지 우리가 알 것냐고] 거 가 보면 좋지. 요기서 한 십리 되는데, 시내버스 타고 갈 수 있어. 절이여 절.

[조사자] : 절이에요? 절인데 굴이 있는 거예요? 뭐, 이 가근방에서

그보담 더 좋은 절이 없어. 절 암자는 쪼그만지만 경치는 그보담 더 좋은 데가 없어. 이 근방선. 치구는 거기가 제일이여. [임천용 : 절은 쪼그만 혀.] [조사자 : 작어요?] 절은 질 데가 없어. 워낙 고 터가 고 절, 법당 하나 질만큼밖에 없어. 그 안에는 천여만리 하게 떨어지고, 고 뒤로는 용이 그냥 하늘로 올라가서, 뚫고 올라갔어 그 바우를.]

[조사자1 : 바위를 뚫고 올라갔다구요?] 그럼, 그래서 용굴이여, 용굴. [조사자1 : 그래서 굴이 됐구나.] 그래서 인자 여기서, 여기는 인저 나중에 인저 날이 가물잔여. 인자 모 숨(심)을 때, 뭐 이럴 때가 인자 물이 없으면 거기 가서, 군에서 가서 돼지 잡아가지고 가서 기도하. 그게 기우제라는 게지. 그걸 지내면 인자 비가 온다고.

[조사자1 : 비가 와요?] 그럼. 아주 명산이지. 거기보담 더 좋은 산은 없어. 한 번 가 보셔, 거기 한 번. 여기서 시내버스 타고 올라가면 되. 쪼끄만 차 타고 가면 비싸고. [임천용 : 거기가 용덕사지?] [조사자 : 용덕사예요? 그래서 절이 용덕사예요?] [임천용 : 절이 아주 용덕사라고]

아, 용굴 있는 데는 여기 남한에도 없어. 용굴이라는 데는 남한에도 없다고 여기밖에. 거기 큰 용, 쪼끄만 용굴은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 들어갈 수 있지만. 큰 용굴에는 여간 사람 못가. 못 올라가. 넓기도 넓지만 천여만리 하고. [임천용 : 옛날에는 애덜들을 용굴로 나가기도 했는데.] 지금도 나가요. [임천용 : 근데 우리는 거기 못 가고.]

근데, 거기 가면 용의 눈이라고 그러는데 우물이 굴속으로 요렇게 들어가면서 우물이 이것만큼 큰 게 두 개 있어요. 팽창히 물이 맑아서 청수고 여간 좋지 않다고. [임천용 : 그런데 그 물 변했데요. 이쪽도 솟물도 변해고.] [정창화 : 저게, 들어가며는 한짝 물은 뿌옇고 한짝 물은 말강찬았어. 거기.]

그래서 눈이 멀었다고 그랬었는데. [정창화 : 그래 이짝 뿌연 물은 용의 눈이 멀었다고 그랬었는데.] [조사자 : 용의 눈이 멀었다구요.]

[정창화 :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변해서 양쪽이 다 맑잖다. 그래 입구에 이게 용굴 아녀. 요기 입구에 들어가면

이쪽 이쪽 이렇게 양쪽에 우물이 있어, 요만한게, 그 물을 떠다가 절에서 사용한다는 거. [강신덕 : 그 물이 여간 좋아.] 바우에서 나오는 물이여 그게. 여기서 한 3킬로 될까.]

[조사자 : 용이 뚫고 올라갔다는 전설밖에 없어요? 근데 왜 뚫고 올라갔어요?] [강신덕 : 아니, 인제 용이 등산을 해야지, 땅에만 있으면 어떻게 혀.]

② 돌을 못 보는 뱀

임천용(75, 남)/천리T 1앞

[천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한재규, 장정임, 송미진 조사(1995. 11. 11.)

제보자는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같은 소재의 내용이라 생각이 났는지 계속하여 구술하여 주었다.

저기 저, 뱀이라는 것은 말여 이 돌을 못 봐요. 돌을. 돌을 못 보게 되 있고. 이 호랭이라는 것은 창호지를 못 보게 되 있고. 닭은 먼지를 못 보고. 사람은 귀신을 못 보고.

용이 그 심(힘)이 그렇게 시덴다, 바우를 들이 받았은게 바우를 뚫고 나왔다는 게여. 사람이고 짐승이고 못 보는게 한 가지씩 있어.(조사자가 반복해서 내용 확인 과정 생략.) 그렇게 내려오는 게 있어. 그렇게 심이 셔서 돌을 이냥 뚫고 나갔다는 거.

[강신덕 : 그 용굴에 가면 참 어마어마 해요. 그 용이 거기 바위를 뚫고 올라갔다는 것을 보면 용이 상상할 수가 없어.] 법당에, 절, 법당에서 이렇게 뒤쪽으로다 가며는 이만한 굴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 입구에, 인저 여기서 들어가면 여기 양쪽에 우물이 있어요. 그것이 용의 눈이라는 거여. 근데 한 쪽은 어떻게 되서 물이 흐리고, 한 쪽은 맑다고.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며는 바우, 바우 속에 이런 굴이여. 이만한 굴인데, 여기 인저 들어가며는 턱 있어. 턱. 근데 턱에 올라가며는 이 용이 빠져나간 굴이 있다고, 이만한. 그런데 사람이 간신히, 으른은 이런 이는 못, 못 나가. 애덜 꺾에는 간신히 빠져 나갔다고. [청중 : 왜 못 나가요. 나가요.] 이렇게 입고 나가.(일동웃음)

[강신덕 : 근데 그것도 굴이 들어. 작은 용굴, 큰 용굴이 있어요. 작은 용굴은 사람이 올라갈 수 있어도 큰 용굴은 여간해서 못 나가.] 가서, 위에 가서 내다보면, 천여만여 하께 내다 보여. 전설이니까 우리가 봤어 뭐. 전설이라니까 우리가 옛날 어른들 얘기만 듣고.

[조사자1 : 굴이 두 개며는요, 왜 굴이 두 개예요?] 하나는 말인즉슨 작은 용굴, 큰 용굴이라는 거지. 작은 용굴이라는 건 사람이 나가지만, 큰 용굴이라는 건 하늘로 툽 곧장 뚫고 올라갔거든. 그래서 거긴 못 올라가. 사람, 여간 사람은. [조사자1 : 용이 두 번 갔다는 거예요?] 그렇지. 작은 용굴, 큰 용굴이라니깐. 우리도 얘기만 들었지 보진 못했으니깐, 그냥 굴이 두 개라.

③ 수수대가 빨간 이유

정창화(68, 남)/천리T 1앞

[천리 노인정] 박중수, 강현모, 한재규, 장정임, 송미진 조사(1995. 11. 11.)

이야기 중에 수수에 대한 말이 많이 나왔다. 수수를 많이 재배한다는 이야기에, 혹시 수수에 얽힌 전설이나 이야기를 해 달라고 부탁드렸다. 이와 관련된 것은 수수떡을 팔았다는 머슴의 실제담이 있으나 생략하고 이 부분만 수록하였다. 일제시대와 관련시킨 것이 특이하다.

[조사자 : 수수가 끝이 발깡잖아요] 응 그렇지. [조사자 : 그거 왜 빨간 거예요?] 왜 빨간 하느냐고?

거 수수가 말어요, 그 어떤 사람이 서울 구경을 시켜준다고. 옛날에 서울을 구경들을 못 했거던. 참 그 때 차도 없고,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와서 차를, 기차고 무슨 도루꾸고 버스고 해 논 거지. 그전에 우리나라에는 아무 것도, 마차도 그제 일본 사람이 맨든 거지. 우리나라 사람은 마차도 없었다고.

그런 시절에 그 수수, 아마 처녀 수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수수가 왜 빨개냐? 수수를 이렇게 심어서 벼서 이렇게 먹고, 애를 데리고서 그전에 덜은 쪼끄만한에 한 뼛 살 먹고, 그제 대여섯 살 먹은 애들을 서울 구경시켜 준다고 여기를 쥐고서(양쪽 귀를 잡는 시늉을 하면서) 이렇게 장정들이 올리면서, 이렇게 뭐, 멀리 서울, 서울이 여기서 멀잔여. 그래서 '서울 구경시켜 준다'고 여기를 이렇게 들었던 말여.

그러다가 애를 털씩 놓쳐버렸어 그냥. 털씩 놓치니깐 인자 수수 끝으로다가 그냥, 여기 뒤에 향문이가 그냥 확 뜯렸다고. 그래서 그 수수 끝은, 수수 밭 저기를 보면, 빨, 잎사귀에도 그렇고 빨건 줄이 이렇게 쳐쳤다고. 그래 그 때 향문에서 나온 피가 묻어서 그런, 하도 억울하고 그러니까 그제 전설로다 내려오면서 그런 거여.(일동 웃음) 그래서 수수가 끝이 이렇게 빨정다는 거라.

[강신덕 : 그러니까 수수깡은 나중에 찢르면, 며칠 있다 보면 거 속안에도 빨강지만 거기서 물이 나온다고] [조사자 : 빨간 물이 나와요?]
[임천용 : 그게 피로구나!] [강신덕 : 물이 나와요]

④ 혼자 집을 찾아온 소

정창화(남, 68)/천리T 1취

[천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한재규, 장정임, 송미진 조사(1995. 11. 11.)

조사원들이 식사준비를 하는 동안, 다른 할아버지들은 모여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

셨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세시풍속인 줄다리기 이야기를 계속한 뒤에, 한쪽에 계신 정창화 할아버지께 전에 하시던 이야기 도중에 잠깐 나온 ‘소가 돌아온 이야기’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러자 제보자는 자세하게는 잘 모른다고 하시면서 이야기 해 주셨다.

[조사자2 : 소가 왜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응? [조사자2 : 소가 혼자 돌아왔다는 얘기는요?]

글쎄, 나도 거 대강만. 좌우간에 다 잊어 빠리고 근데 내가 그걸 읽겨 들으기를, 그것 하나도 빼놓고 말고. [조사자 : 그냥 대충하셔도 돼요.] 아이 나는 그냥 기억 못해. 저 양반 보고 물어. 저기 왜 뭐. 소를 갖고 뭐 뭐, 며느리가 친정에 시집을 갔다나, 뭐 가갖고서.

[강신덕 : 뭐?] 소 왜 도로 소가 도로 찾아왔다고 하지. 저 먼저. [강신덕 : 나는 그것 듣는 중 처음인데.] 아 왜 저기, 서리 그 어떤 사람이 잘 살고 그래서, 과부가 되갖고서 그 친정인가 뭐 어디로다가 인저 그 옷같은 거 뭐 이런 거를 죄 해서 인저 길마에다 이렇게 해서 실려서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인자 한 그, 주인이 일꾼이라고 하지, 일꾼. 일꾼이 인자 실어서 그 친정으르다, 그 친정은 그 인저 거 가서 인자 살던지, 며느리 재혼을 하던지 그래 보내고서. 소째 다 줬는데. 그 소가 거기서 인제 신부 실고 가고 다 내려 놓고 이렇게 해서 외양간에다가, 왜 소 자는 데다가 매 났는데, 그게 어떻게 끌러갖고 도루 자기 살던 집이를 찾아왔다 이말이여, 저 혼저.

거기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어.

5] 말을 곱게 해서 도움 받은 사람

박래용(70, 남)/천리T 2앞

[천리 노인집] 박종수, 강현모, 한재규, 장정임, 송미진 조사(1995. 11. 11.)

식사 후에 별로 대화가 없어 어색하기까지 했다. 이때 누워 계시던 임천용 할아버지께서 전화를 해 이야기를 많이 아신다는 박래용 할아버지께서 오셨다. 다른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다른 쪽에 모여서 노시는 분위기였다. 박래용 할아버지와 임천용 할아버지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셨고, 정창화 할아버지께서도 가끔 동참하셨다. 박래용 할아버지는 옛날 이야기, 특히 교훈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다. 우리들이 옛날 이야기를 들으러 왔다는 말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옛날에 그 저 객이, 이 선비가 여름인데. 여름인데 아 저 부자집이라고, 그 저 벼슬을 하다가 인저 벼슬 내놓고 이제 나온 사람이니까.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는.

여름에 인저 들구경이나 간다고, 인저 슬슬 들루다가 인저 나가는데. 그 여름이니까 목이 마르니까, 동네 인저 쑥 들어가서 인저 그 향나무가 있단 말여. 그 밑에 우물이 있어. 그 우물이 있는데 거길 좀 물을 먹을라고 가니까는, 그 옆에 집에서 저 다 큰 색시가 물동이를 이고 나온단 말이어. 물을 뜨러. 그러니까,

“아유, 지나가는 객인데, 목이 말라서 물을 먹어야 할텐데, 바가지 좀 빌려 달라.”

고 하니까는. 물을 떠가지고서는 향나무 잎을 뽑아서 띄워가지고 주더라 이거여. [청중 : 물바가지다.] 응. 물바가지에다가. 그 이상스럽잖어. 그래 물 떠주는 건 고맙긴 고마운데, 향나무 잎을 뽑아가지고서는 띄워준단 말이어. 아 그래 인저, 그래 인저 마시고서는, 인저 훌훌 불어가면서 마시는 거지 인저. 향나무 잎파리 등등 떠, 뜨니까. 후후후 불어 마시고서는,

“그 왜, 향나무 잎파리를 띄워 주냐?”

고 그러니까.

“물도 급히 먹으면 체한다.”

고 그래더라는 거여. 그래 그,

“고맙다.”

고 인사하고 인저 물 이고 들어갔는데. 안채는 초가집이, 아니 안채는

기와집이고 행랑채는 초가집인데 지붕이 두툼하단 말이여. 그래 살만한 집이여, 부자는 아니라두. 근데 그 저 한 사랑방에 그 저 들마루가 있, 있거든, 옛날에는. 그 들마루가 있는데, 거기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을 보니까는 자기 나이 또래보담 약간 즉(적)은 것 같드란 말이여. 그래 여 거기를 가서,

“아! 저 지나가는 객인데, 좀 쉬어서 가겠다.”

고. 그러니까,

“아이, 앉으라.”

고. 앉아서 이 얘기를 해 보니까는 글자나 배운 분이여. 그래 이런 얘기 하다, 저런 얘기 하다가 인저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Tape가 끊김.)

6] 거만한 행동으로 고생한 선비

박래용(70, 남)/천리T 2앞

[천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한재규, 장정임, 송미진 조사(1995. 11. 11.)

다른 분들은 계속해서 모여서 노는 분위기였고, 박래용 할아버지께 새로운 이야기를 부탁드리자 할아버지도 즐거운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다.

그래. 옛날에 큰 저 부자가, 말을 타고 인저 여름인데. 어디 가는데. 사거리에 가서는 이리 가야 옳은런지, 저리 가야 옳을런지 모르겠거던. 그래 말 위에서 말이여,

“농부! 그 아무데 갈려면 어디로 가나?”

그랬거던. 그러니까 아 이 농부는,

“배운게 읍어서 무식해서 모릅니다. 저기 저기 저기 일하는 분, 거기 가서 말에서 내려 가서, 내려 서서 물으론 알 것 입니다.”

그래거던. 그러니까 거길 가서 인저, 말에서 혁 내려가지고서는 가르

켜 주니까는, 아 참 몰으니까는,

“이리 이리 해서, 저 고갯 넘어가면 됩니다.”

그랬드란 거여. 아 그래 그래서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내가 잘못 했어. 내가 배운 게 있고 재산 있다고 내가 너무 거만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거던. 왜 그러냐며는, 지금도 그러. 지금도 차 타고 가다가 말여, 우편 차는 차에서 떡 앉아서 말이며,

“어디로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에?”

그렇게 묻거던. 그러니까 사램이, 내가 암만 돈이 많고 배운 것이 많아도, 누구한테 물을 적에는 반드시 내려서 물어야 한다고, 웅.(기침) 그렇게 너무 거만을 피우지 말고, 잉. 사램이 그게 바르게 시는 거여.

⑦ 시묘 사는 효자를 지켜준 호랑이

강선덕(80, 남/천리T 2앞

[천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한재규, 장정임, 송미진 조사(1995. 11. 11.)

백래용 할아버지께서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바른 말을 써야 한다고 말을 하였다. 그런 뒤 약간 지겨운 모습을 하셔서 다른 이야기에 대해 묻고 하고,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묻자,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옛날에 인저 정성이 지극하면 안 될 것도 된다는 말이지. 그건 아부지가 인제, 어무니 아부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모이, 그 모이 있는데 가서 이렇게 쪼그랑게 이렇게 집을 짓고서는, 짚을 엮어서 이렇게 둘러거던. 그건 묘막.

잉. 세(시)모 산다는 거여. 거기 가서 삼 년을 세모 사는 거여. 그래 자손이 하두 지극하니까는 호랭이가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더래요. 그래 내가 정성이 지극하며는 잘 되는 거여. 정성이 지극해서 안 되는 게 없어. 내가 맘을 정직하게 가지면 안 되는 일이 읍어요.

그런게, 그래서 그 내 마음을 정직하게 가지면 집안도 다 편(평안)하고, 그래 가화만사성이란 말이 있잖아요. 집안이 화목해야 만사의 일이 뜻대로 된다는 것.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8] 열녀가 얻은 산삼

박래용(70, 남)/천리T 2앞

[천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도, 한재규, 장정임, 송미진 조사(1995. 11. 11.)

임천용 할아버지께서 스스로 사회자라고 나서며 말을 하라고 시키니까, 담배를 피우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다. 임천용 할아버지께서 이번엔 도깨비 이야기를 해 보라 하자, 박래용 할아버지께서 귀신이 좋다고 하며 이야기 해 주셨다.

옛날에 그저 아주 가난한 집에서 말여, 가난한 집인데 남편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 갠신히 농사, 두 내외가 농사지어 먹고 사는데 병이 들었던 말여 그냥.

그래서 인저 고상을 몇 해를 하는데, 어느 중이 와서 말여, 동냥을 달라고 목탁을 두드리거던. 그러니까 쫓아나가서 말여, 이렇게 이렇게 인사를 하구서,

“저는 우환이 있어서 이제 도사님 드릴게 읍다.”

고 그러니까는 그 중이, 도사가 하는 말이 가면서,

“야! 이 맥에 큰 우환이 있다고. 근데 좋은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른다.”

구 그러거던. 아니 그래,

“그게 무엇이냐.”

고 그냥 메달려서 애걸복통을 하는 거지. 뭐 인저 그러니까는,

“그러면, 내 말을 들을 것 같지가 않다고 응 여자로서는 내 말을 들을 것 같지가 않다고. 그래 내 못 일러 주겠다.”

고 그러니까. 그냥 도포, 장삼자락을 그냥 쥐고서 늘어지는 거여 그냥.

“그저 무어든지 내 죽으라면 죽겠다.”

고 그냥 장삼자락을 쥐고서 늘어지는 거여 그냥.

“그러냐구. 그럼, 그러면 저기 저 어느 공동묘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어느, 어느 동네서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서는 날 송장을 집어느며는 동네가 망해요. 그래서 물질 앓고 일 년 후에 묻기 땀에, 그 날송장을 거기에 갖다 논게 있어. 그러니까 그 다리를 찢라다가 당신 남편을 과 맥이며는 당신 남편은 낫소”

그래저던. 그래고서 그냥 가뿌린단 말여. 그러니까 여자도 대단하지. 그 죽은 송장 다리를 찢라라고 칼을 쓱쓱 갈아가지고서는 인저 해 넘어갈 땀 기다렸다가 인저, 그 공동묘지를 가는 거. 그 공동묘지를 가니까. 옛날엔 짐승이 여간 많아. 여우, 늑대가 그냥 ‘캐캐’ 거리구 그냥, 팽장하단 말여 그냥. 달밤 어시름한 달밤인데.

그래 가보니까 거적을 이래 덮어 논게 있는데, 제치고 보니까는 참 송장이 하나 있단 말여. 그래 칼루다가 그냥 다리를 찢라다가 그냥 이놈을 직어서, 인자 반을 살을 도려가지고서는 인저 파서 인자 남편을 퍽엿단 말여. 퍽이고 이걸 뉘게 들키면, 이거 큰일 나잖어. 죽잖어.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담밑에 갖다가 그냥 묻엇단 말여 그냥. 냉겨야 되잖아. 그저, 근대 그거 먹구서 며칠 후에 나왔단 말이며. 그래 나오테 인저,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러냐구. 그러면 우리가 그냥 있을 수가 읍다구. 그 분을 우리가 지사라도 지내 줘야 한다.”

구. 그래 인저 어떻게 인저 간신히 돈 줌 얻어가지고서는 인저, 과일 몇개 인저 떡 조금하구, 밥 한 그릇하구, 이저 담밑에다가 갖다 놓고 지사를 지내는 거여 인저. 그래 지사를 지내고,

“우리가 이걸 도로, 인저 내일 저녁엔 우리 도로 거기 갖다 묻어 주자.”

고 그리고서 인저 그 이튿날 파 보니까는 말이며, 죽은 송장의 다리가 아니고 삼이더랴. 삼. [조사자 : 산삼요?] 응 산삼.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잘 쓰고 착하게 살며는 누가 도로 봐주던지 봐 주는 거여.

9] 살림살이 못해 쫓겨난 며느리

박래용(70, 남)/천리T 2뒤

[천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한재규, 장정임, 송미진 조사(1995. 11. 11.)

제보자가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이야기를 잘 한다는 소문이 나면 자꾸 찾아와 걱정이 라며 웃으셨다. 조사자들이 계속해서 더 해 달라고 하고, 임천용 할아버지가 권유하려고 할 때도 꺼려하였다. 주변에서 이번은 길게 해 주라고 권하여 구술하여 주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부자집하고 가난한 집하고 혼인을 하는 수가 있었지마는, 보통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저 사는 사람끼리 혼인 하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제 그런데, 옛날에 그 저 벼실보다가 이저 그, 정부에서 인저, 나라에서 인저 간신들이 많이 생기고 하니까 저, 벼실들을 다 내놓고 인저 시골 와서 인저 농사나 짓는 거여, 인저. 자손들하고.

그런데 인저 그 저 대감끼리 인저 혼인을 떡 했던 말이여. 혼인을 떡 했는데, 아 딸이 인저 오늘 대례 지내고 인저 신랑 집으로 갔는데, 아 한, 댁세 후에 쫓겨 왔단 말이여. 쫓겨 오는데 어떻게 쫓겨 왔냐면,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인저 인저 댁세 후에는 부엌에 나오거든. 하인은 있지마는, 하인은 많지마는.

한날은 며느리 첫 나오는 날에는 하인을 얼씬 못 오게 했던 말여. 부엌에 그냥. 얼씬 못 하게 하구서는 새 며느리를 보구서는 인저, 아침을 하라는 거여, 인저.

“아침을 하되, 콩밥을 해라.”

그래 그랬거든. 그래 쌀은 어느 광에 있고, 반 응 고기는 어느 광에 있고, 그걸 죄 일러주거든. 아 그러니 부자집 과계집 막내딸이 말여, 해

다 주는 밥, 빨아주는 옷만 입고 책만 본 색시가 될 알어. 그래 인저 부엌에서 팔짱만 끼고 탄식만 하는 거여 그냥. 아 그런데 아침 밥상이 들 어올 때가 됐는데 영 안들어 오거던. 그래 시어머니가 나가보니까 부엌에서 팔짱만 끼고 이렇게 있단 말여. 그러니까 이것 시어머니가,

“안 되겠다.”

고 인저 아들하고 인저 자기 남편하고 인저 자기하고 먼저 의논을 해가지고서는 내 쫓아버렸어 그냥. 그 인제 신랑은 인저 가마 뒤에 쫓아가는 거지. 이제. 아 이그 인저 딸 보낸 집에서 며칠 후에 보니까는 아, 가마 하나가 어디서 온단 말여. 이 여기 문을 열고 보고 있는데, 차차 자기네 집으로 다가온단 말여.

“이거 우짜된 일인가. 누가 이 질로 지나가나.”

하구서는 여사로 여겼는데, 아 그 대문 안으로 쏙 들어온단 말이며. 아 내리는데 보니까 자기 딸이거던. 그래 자기 딸인게 통곡을 하구 이냥 가더라 이거여. 방으루다가 들어가더라 거여. 아 그래, 이 하두 이상스러워서 인저 이 얘기를 인자 시키니까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 말이며.

“아침을 시키는데 할 줄 몰라서 못했더니, 친정에 가서 일 년 배워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구.

“그러냐.”

구. 이제 그렇하구 인저 신랑은 가구서는 인저, 이 색, 새댁이 벗어차치구서는 인저 하인들 하구 같이 하는 거여. 발두 같이 하구 공도 같이 하구. 하인들이 인저 텃밭을 매면은 같이 나가서 매구. 이래 이랬단 말여. 그래 일 년을 배우고 나니까 다 배웠어, 아주 그냥.

그런데 일 년 후에 온다는 날 그 신랑이 데릴루 왔어. 아 그 장인이 생각을 해 보니까 꽤쌌시렵거던, 그 신랑이. 사위는 사위지만 꽤쌌스럽단 말여. 그 사둔두 꽤쌌스럽구. 그 모른다구 해서 이럴 수가 있나 하구서는, ‘내 이놈의 사위를 골려 주겠다’구. 봄철이여. 늦은 봄철인데, 인저 그 농촌에서 인저 논도 갈구, 밭두 갈 때거던. 그래 인저 이 하인을 시켜서,

“가서. 너 논 좀 갈고 있어라.”

하구서는. 아침을 먹구 늦게 그 사우를 데리구 나갔어. 논 가는 데를.
인자 데리구 나가서 인저,

“사우, 저 논 좀 갈아 보게.”

저 사우를 끌려 먹을라구.

“아, 같지요.”

하이 그저 그냥 두(도)포를 벗어서 밭둑에 놓구, 그저 논둑에 놓구서 훌
령 걷어 붙이고 들어가더니,

“이랴, 이놈의 소.”

하구. 냅다 모는데, 아 이따 하인보담 더 잘 갈거던. 아 한때 서너 두럭
갈더니,

“아이, 목이 마르니 술 한 잔 가져 오라.”

고 하인보고 그랬단 말이여. 아 그러니까 그런 집에서 막걸리 먹어? 동
동주 먹지 뭐. 아, 동동주 한 주전자를 가지고 왔단 말여.

“어, 이거는 안 되. 이건 양반이 사랑방에서 먹는 술이지. 이거 농촌
농민들이 이거 먹는 술이 아니라고 막걸리 가져 오라.”

고 아 쫓아 버렸거든. 그래 막걸리를 갖다가 주니까는 한 잔 똑 따르시
구, 그 짓갈 읊것어, 그런 집에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째지 하나를 집어
넣고서 바지에 이렇게(웃음) 씻으면서, 아 씻구서 저 또 같으니까. 아
그전같이 잘 갈아져키거던.

“아, 이것 안 됐다, 내가 졌다. 들어 가세, 우리 사랑으로. 그래 내 자
네 그거 운제 그렇게 배웠나?”

그러니까,

“저희 집은 자손들이 못 하는 게 없습니다.”

전부 다 한다는 거여. 모두 심을 줄 알구, 밭두 맬 줄 알구, 논두 씨릴
줄 알구, 논두 갈 줄 알고, 다 이냥 하니,

“우리 부모가 왜 시켰느냐며는, 양반은 언제 죽을는지 몰러. 망할 때
는 하루 식전에 망해요. 그러며는 그 여러 식구에 누가 살던지 하나 살

거다. 그 살며는 저 산골짜구니 들어가서 밭농사라두 짓구 먹구 살구서 대를 이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부모는 뭐든지 다 시, 가르켜 줘서 우리가 죄 배워가지구 있다.”

구. 그러니까 그 딸 친정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탄식을 하드라. 글만 배워도 안 돼. 뭐든지 남 하는 걸 해서 남이 고상하는 것두 알아야 하구. 배워서 뭐 나쁠 건 없잔어. 남 고상하는 걸 알아야 한다는 그런 뜻 이어.

10 끝이 없는 보복

정창화(68, 남)/천리T 2위

[천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한재규, 장정임, 송미진 조사(1995. 11. 11.)

옆에서 말없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정창화 할아버지께서 “얘기 깊지 않은 이야기지만, 이번엔 내가 얘기 할까” 하시며 자진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다. 다른 분들은 계속 따로 모여서 노셨다.

한 집이서는 아덜을 4형제를 두고, 한 집에서는 아덜을 3형제를 뒀단 말이야. 혼네, 한 동네 사람이여. 동네.

그런데, 음, 아들 4형제 둔 집이서 3형제를 그 둔 집 아들하고, 아들과 아들끼리 그렇게 참 친절하고 이룬데, 우떡허다가시리 말다툼이 되었어. 근데 인저, 음 시방 말로는 급수를 때리면 죽는다 그러지만, 옛날엔 싸우다 이렇게 죽으면 ‘살갔다’ 그랬다고, ‘살갔다!’ 많이만 안 때리고 한 대나 두 대만 때려서 죽으면 ‘살갔다’고 그랬다고. 시방은 그저 의학이 발달되서 급수를 치면 죽는다 우쩐다 그랬지마는, 그 때 그렇게 이 야길 했다고.

헌데, 이 4형제 둔 집이서 3형제 둔 집 아들하고 어떻게 그냥 말다툼을 하다가시리, 어떻게 몇 대, 두어 대 쳤는데 그렇게 죽어버렸어. 죽었

으니 그 집에서는 가만히 있겠냐. 그런데 그 때린 사람이 집으로 갔단 말이여.

집으로 오니게스리 이 사람이, 어디 도망이라도 가야겠다야. 뭐 옛날 에두 다 시방으로 말하면, 음, 뭐 이런 그 시방으로 말하면 경찰 뭐 그런게 다 있고 그런데. 밤낮 붙들려 갈텐데 집에 있을 수가 있어. 금께 집이 와서 분주하게, 좀 아 그냥 좋게 보려고 틀모시로다가 응 갈아 입는데, 그 막내 동상이 있다가,

“형! 어디 갈라고 그라?”

이러니까시리,

“야! 아무개를 내가 죽였는데, 내가 죽여서 내가 실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도망을 갈라고 그러다.”

그러니까.

“형도 시원찮은 소리 허지도 말고 있고, 사람을 죽여놓고선 형이 도망을 간다는 거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여. 형 방에 가만이 있으.”

그리고 인제 시방은 이런 미달이 이런 거지만, 옛날에는 그 문이, 종이로 이렇게 좀 붙이고, 이런 거루다가 문고리가 이렇게 달아서 안의 문도 있고, 바깥 출입문도 있고. 이걸 바깥으루다가 다 잠구는 거여. 잠구 놓구,

“거 가만 있으라 이말이여. 사람 죽인 사람이 어딜 가느냐?”

이 말이여. 그러구 이거만한 식칼을 부엌에, 거 있는 김치도 쓸고 뭐 하는 거, 그 칼을 가지고 나와서 솥틀에다 이냥 ‘씩씩’ 가는 거여. 갈고 있으니까 그 사람, 죽은 집이서, 죽은 사람의 동상이 찾아온 거여. 찾아와서 그 칼 가는 애 보고,

“네 성 어디 갔니?”

이 말이여. 근께,

“우리 형, 방에 있어. 어 내뻘다 그래서 내가 그냥 문을 꼭꼭 걸어 잠꿨어.”

그러니까. 그 칼 갈던 거를 딱 손에다 채워 주면서,

“이 칼루다 우리 형을 찍여. 우리 형은 죽어야 마땅 허여.”

근게. 이 사람이 칼을 받아들은 거여. 인자 분김에. 동상도 뭐 그렇게 하기로 얘길 해 주고 그러니까.

“형이 우리 형을 찍이면은, 우리 둘째 형이 형을 또 찍일 꺼여. 그러문 형 동생이 또 우리 또 넷째 형을 죽일 꺼여. 그러문 내가 나중에는 형네 마지막 형을 내가 죽일 꺼여.”

아, 이렇게 하고 보니까시리, 찍였다고 죽이고, 죽였다고 또 죽이고, 죽였다고 또 죽이구 이러다 보니까, 자기네가 에이구 그러다 보니까 다 죽겠거덩. 그러니까 그 찍일려구 맘을 먹구 왔던 사람이, 칼을 슬그머니 놓치면서,

“참구 봐야 되겠구나!”

사람은 참어야지. 내가 사실 제 말잖고 이 사람을 내 보인다고 내가 내 형을 죽였다고 해서. 내 동상이 저 사람을 죽이면, 이 애, 이 사람 동상이 또 우리를 또 해칠 꺼다. 그럼 우리 내 동상이 또 이 사람네 또 해칠 꺼다. 그러구 보면 죽는 건 자기네가 전부 죽구, 하나가 이짝이 숫자가 많으니까. 저기 한다고 해서, 음, 거기서 참고서 자기가 칼을 거기서 내빼고, 에 그 방을 칼로 달래서 들어가갖고,

“너도 고의가 아니고 음, 싹박도 아니고 이러니까시리, 장살 같이 지내고 화평하게 살자.”

그런 거여. 어 그런 얘기를 내 어디서 들은 적이 있어.

㉠ 고운 말로 덕을 본 사람

박래용(70, 남)/천리T 2취

[천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한재규, 장정임, 송미진 조사(1995. 11. 11.)

정창화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끝나고, 또 해달라는 재촉에 박래용 할아버지가 이야기

를 해 주셨다.

그것도 이것두 이 선비 애긴데. 선비가 여름에 어딜 저 가다가 보니까 저녁 때가 되고 동구를 지나 가니깐 큰 느티나무가 하나 있단 말여. 그래 거기 앉아서 보니까는 그 옆에 향나무가 하나 있는데, 향나무 밑에 우물이 하나 있어.

근데 우물은 바가지 우물이여. 그래 물을 먹을라구 가 보니깐 바가지가 옮겨던. 바가지가 있어야 떠 먹는데. 그래 쪼끔 앉아 있으니까는 아주먼네가 한 분이 저녁 할라고 저녁물을 뜨루 왔어. 그래 따라가서,

“아이고 지나가는 객인데, 목이 말라서 물을 먹을라도 바가지가 옮겨 못 먹겠다고 물 좀 한 그릇 떠 달라.”

고 그러니깐. 떠 주드라 이거야. 그래 물을 떠구서 가만히 그 여자를 쳐다보니까는, 나이는 한 40된 아주먼네데, 꼴이 잔뜩 나서 기냥, 입이 그냥 주먹만큼 이렇게 나왔단 말여. 필연 저게 아마 두 내우 싸웠나부다 하구서는, 그래 선비가 앉아서 하는 말이,

“부부언심이라. 부부라도 말을 삼가하라.”

그랬거든. 그러고 그래 부부라도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거던. 친구래두 그러. 친구래도 ‘친우언심’이라. 친구래도 말은 함부로 하지 말란 것이여. 삼가란 거지. 그러구선은 인저, 그 부군,

“부군신시부라, 남편을 군신으로 모시니, 정경부인이 되더라.”

남편을 높이 모시니깐 나도 높은 남자의 부인이 된다는 뜻이란 말이여. 그러구 저렇게 떡 앉아 있는데, 그 아주먼네가 인자 물을 이구서 들어간 뒤에, 조금 있다가 한 40된 남자가 쪽 나오더니마는 다가와서,

“댁은 어디로 가는 뉘시우?”

그러니까,

“아, 나는 이렇게 땡기는 객이라.”

고 그러니까는.

“그럼, 우리 추하지만, 누추하지만 우리 집에서 하룻밤 쉬어서 가시

오”

저 그래거던. 아 그러니까 여간 좋아. 그래잖아. 잘 자리를 구할 판인데. 아 그래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 드러가선, 저 인사를 하고 저녁을 먹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다 과개 보다가 떨어져가지구서는 집이 내려와서 공부하던 사램이여. 공부만, 인자 책만 보는 사람이 아녀. 농사 지어 가면서.

그러니까 내가 어딜 가드래두, 말 한 마디래두 내가 점잔케 하구 옳은 말을 하면은 술밥이 거저 생길 수도 있다는 거. 그런 뜻이여. 게 어딜 가두 말을 함부로 해선 안 되거던. [청중 : 그럼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 저, 그 뭐 반드시 그래요 그건. 어디 가던지 말 한 마디래두 공손하고 점잔케 하며는 술밥이 생길 수도 있는 거여. 말이 있잖어. ‘사 언백분’이라 생각하고 비단같은 말을 하며는 예, 좋은 일이 있다고.

⑫ 도깨비 이야기

강신용(57, 남/천리T 4앞

[천리 동아아파트 경로당] 박종수, 강현모, 강희득, 류영선 조사(1995. 11. 4.)

오전 11경에 길을 물어 동아아파트 경로당을 찾아가 부탁을 드렸더니, 노인회 총무님이 못하겠다며 대신 몇 분을 추천해 주셨다. 그 중 한 분인 제보자는 점심 식사한 후에 안 하겠다고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셔서 이야기를 구술하여 주었다.

① 도깨비의 실체

이 도깨비는 그걸 무시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고, 그게 도깨비 흘렀다고 허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인자 집이 좋고 자동차 타고 왔다갔다 하고, 교통수단 그런데. 그전에는 시골서 오일장이었었는데 보통.

이 장에 갔다 올라면 보통 한 4키로 아니 8키로를 보통 걸어다녔다

고. 그래서 인자 시골에서나 물건을 해갖고 농사진 물건 뭐 이렇게 해 갖고서나, 아침에 가서 매매를 빨리 팔아버리면 일찍 오는데, 그렇지 못하고 인자 늦게 팔게 되면 지금, 지금 시간으로 한 다섯 시나, 네 시나 다섯 시나 고때쯤 매매가 되면, 한 8기로 되는 데를 걸어올라면, 우리가 걷는다면 한 시간에 4키로를 잡거든.

그러니까 다섯 시나 팔면, 물건을 팔고 나면 인자 친구 만나서나 인자 한 잔 먹고, 술을 한 잔 먹고, 그러고 나면 인자 늦는다고. 그러면 거기 집이 오는 동안에 두 시간 잡는데, 지금 시간으로 아홉 시쯤 되면 상당히 늦은 시간 아냐? 그래 인제 옛날이는 초롱불도 많이 켜 있고, 인자 사람이 왔다갔다 잘 안한다고.

고 한 잔 먹고 이렇게 오다 보면 어떻게, 특히 비 오고 난 뒤거든. 비 오고 난 날 뒷면 그 길 옆에는 개울이 거의 다 흐르게 되 있지. 개울이 흐르게 되 있는데, 그 개울을 따라서 인자 오다 보면, 길은 술을 한 잔 먹구, 조금 몽롱, 조금 몽롱한 그런 상태에서, 술은 한 잔 먹었으니까, 날은 춥고 그런게, 그 비 온 끄트머리고 또 여름같은 비가 와서는, 비는 구질구질하게 오고 그런게, 고것을 이 오다 길을 잃어 먹는 거여.

왜 길을 잃어 먹느냐면, 길을 따라 오면 되는데, 고 길 옆에 냇갈이기에 때때, 냇갈은 밤에 달 뜨거나 이렇게 보면, 물이 흐르면 흰허니 길이 그렇다고. 그런데 그 길은 침침허니 잘 안 보인다구. 그런게 길을 잃어 먹구, 인자 냇갈만 따라오다 보니까, 물이 침침침침 빠지고 인자 그, 그 냇갈 따라 오다, 오다 보면, 그러니 물 짙은 데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들판에서 헤메는 거여, 술은 한 잔 먹고.

그렇게 인제 밤새도록 하다가 날이 부여시 되면, 인자 정신이, 제 정신이 든다고. 그렇게 해다 보면. 그것 보고 아마 도깨비 흘렀다고 허는 모양이여. 그렇게 헤메다 돌아오면 도깨비 흘렀다고 그러구.

그러구 왜 참나무가 이렇게 썩으면, 그 뒤여, 또 개똥벌레마냥 그렇게 된다구. 참나무가 썩어갓구서나 이게 오래 되면. 그것이 비 맞으면 개똥벌레마냥 불이 흰허게 비친다구. 그런게 아까 얘기헌대로 숲이 사람도

안 살구, 불빛도 그래 옅고 그러니까, 흰허니 있으니까, 그 물이 있으니까 그걸 막 쫓아간다구. 쫓아가다 보면 논뜰 밭뜰 막 헤메게 되지. 그것을 보고 도깨비 흘렀다고 그러는 거 같고요. 개똥벌레 같은 거 그런 거 했다고.

그러구 왜 사람들 죽으면 인이라구 허지. 그게 나와서나 불만이 이렇게 흰허니 파란불 비친다구 허더라구. 고것은 이 한 잔을 얼키니 했겠다. 그래서 인자 말짱한 정신 아니면, 또 이렇게 술도 안 먹고 말짱한 정신이면 도깨비 흘렀다 잘 앓고, 한 잔 먹은 사람들이, 흔히 어려서 보면 밤새도락 그제, 그렇고 인자 나무조각이나 뭐 보면 그제 무슨 사람 형태로 우리들이 헛 본다구. 그런게 그것 보고 밤새도락 흔들구. 그러구 날 새 보면 나무도막 아니면 빗자루 도막이나 이런 거 갖구 헤멘다구. 그래서 도깨비 흘렀다구 그러구.

② 수근대는 귀신들

그러고 인제 내가 본걸로서는 육이오 사변 후에, 그 대한민국에서 논산군 성동면 있는 디가 사람이 젤 많이 죽은 디여. 빨갱이 정신이라 죽은 것도 아니구, 이 지방 빨갱이라 해서 인자 그때 육이오 사변 일어나니까, 서로가 얘기가 빼끌러 가는 모양이다. 얘기 허잖어.

말이 그렇게 나와서 그런디, 서로가 유감이 있을 적이, 저 이북이서 밀고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지금 세대에서,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 민주화 아녀. 민주. 여기 공산주의가 아니고 민주주의가 아녀. 그런데 약간 본 사람, 여기서 약하게 지금 지낸 사람, 지금 업신 여기서 사는 사람들 있잖어.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이렇게 이북에서 내려고, 내려 오고, 밀고 내려오니까 다 충신이 되더라구. 공산 출세.

그런게 혐의있는 사람 무조건 다 죽이구, 막 그냥 난리가 났었어. 그러구 그때 사람이 젤 많이 죽었다구. 그래 그래갖구서나 나 어려서 보

니까, 여름이 여름에 육이오 아녀. 그 막 갈대 속이가 한 질도 더 되고, 종 두어 질 되었어도, 저기서나 밀고 내려와서나, 인제 그래서나 사람을 강가시 저녁 때 돼서 끝구 가서나 많이 죽이드라구. 많이 죽었는데, 그것이 그때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는다.

그 뒤에 얼마 지나서 말여, 거기 사람 많이 죽은 그곳 지나 갈려니까, 장마만 질라면 그 놈의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말여, 수근수근 허고 막,
“아이고! 아이고!”

막 소리 질르구. 그런 음성이 들렸다구. 지금은 인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런 거 읊어졌는다. 아마 그런 것 보고 귀신이라구 허나 어찌나 모르겠어. 그랬다고 그런 거 내가 본 일이여.

여

백

9. 서리

1) 마을개관

박종수, 강현모, 윤석범, 임종오, 주정식 조사(1995. 11. 4.)

옛부터 수도(서울)와 인접한 수도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해 내려오는 민속문화, 구비문학이 타지역보다 현격하게 부족함을 인식하고 사라져 가는 전통의식과 재담 등 이야기와 전설을 발췌 수록하고자 이 지역을 택하였다.

이 마을에는 주로 박氏들이 많이 모여 살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농촌 치고는 공단이 많이 들어선 것이 특징이다. 80년대 중반 정도에 공장들이 입주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꽤 많은 공업단지가 조성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공업단지가 들어서자 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거나 매연과 수질오염 등 피해가 많이 발생해 고통을 받고 있다. 마을의 거주자들은 50대 미만은 희박하고 대부분 그 이상이라 한다. 처음에 평양조씨가 먼저 이주해 들어와 9대째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서리는 상골, 중골, 하골의 세 단위로 나뉘는데 가구수는 약 20~30 가구씩 옹기종기 모여 있고 마을마다 꽤 떨어져 있는 것이 특색이다. 주위는 산으로 둘러 싸여 분지를 형성하고 있는 느낌이었다.

옛날에 절터골이라 하여 불당곡이라고도 불리웠으며 서쪽에 있다 하여 서리라 불리운다고 한다. 상골, 중골, 하골에 걸쳐 계곡이 형성되어, 그곳으로 개울이 흐르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2) 설화

① 태종대왕 외손주 묘의 선몽

이정화(70, 남/서리T 1왕

[서리 중골 자택] 박종수, 강현모, 윤석범, 임종오, 주정식 조사(1995. 11. 4.)

조사자들이 직접 자택에 찾아가 조사 목적을 설명하니 쾌히 제보해 주셨다. 손자를 돌보고 계시는 중이라서 그런지 약간 산만함을 느꼈지만 침착한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다. 본 설화를 제공한 이정화옹께서는 윗어른에게 들은 이야기라 하셨다. 이야기의 중심인 묘를 직접 관리하신 분이 제보자였다. 이 이야기 후에 다른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지만, 설화와 직접적 관련이 없기에 수록하지 않았다.

그 묘가 옛날에, 그 자손들이 그 묘를 잃어버렸어요. 실전했다고 그 래 가지고 이젠, 그 묘가 그 자손들 그 묘가, 조상들 묘가 있는 줄 모르고 있다가, 그 후손에서 그 묘를 찾으러 나섰다고

그래서 나섰는데 옛날에는 교통두 없고 그리니까는 걸어서 나선 거지. 이젠 찾을라구. 물어가며 나섰는데, 대니다가 요 아래, 천리라는 동네가 있어. 천리 이 동네 천리. 여기서 한 4Km 정도 아니 2Km정도 돼지. 거기를 자게 되였드란 말이여.

아 거기서 자는데, 꿈에 선몽을 해 버려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면, “자고 일어나면은 눈이 왔는데, 올 테니까 눈 위에 지팡이 끝은 자국이 있을 거다. 그럼 그 지팡이 끝은 자국을 쫓아가거라.”

그래서 인자 자고서 일찍 일어나 본께 정말 눈이 왔드라요. 그래 인자 나가 보니까는 있드라, 그 자국이. 그래서 그 자국을 쫓아 나가니께 거기 있드라. [조사자 : 그곳이 요기서 먼 동네예요?] 응. 요기 얼마 안 돼. 근데 그 묘를, 그 묘가 누구냐 하면은, 잉 태종대왕의 외손주 묘라고, 근데 그거를 요, 요 며칠 전에 이장을 했어. 여주로.

[조사자 : 여주로요?] 응. 여주로다. [조사자 : 조선시대 태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2] 안동 권씨와 세종대왕 외손주의 묘

김용덕(82, 남)/서리T 1앞

[서리 종골 자택] 박종수, 강현모, 윤석범, 임종오, 주정식 조사(1995. 11. 4.)

이전에 이정화옹께서 들려주신 설화이지만 내용이 약간 다르고 김용덕옹의 말씀이 더 정확한 것 같아 재기술을 하였다.

권도령이라고 이 묘지가 있었거든. 그런데 그게 둘이 그러니까, 옛날에 따지면 왕의 사위 아녀. 우리에게 듣기에. 거기 산소를 잊어버렸다가 찾았다는 저기가 있드라고. 안동 권씨네 산소네, 권도령이라고. 산소를 자손이 잊어버렸디야. 그래 가지고 뭐, 그 자손데 선물을 해 가지고, 그 노인네가,

“지팡이를 끌고, 그 지팡이 자국을 쫓아 와라.”

그래 가지고. 꿈에 선물을 했기 때문에 인자 그것을 밟아가지고 그걸 찾았다고 허드라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지방에 무슨 내려오는 역사는 별로 없구. 우리가 듣기로는 여기서 조금 내려가면 큰 산소가 있어요. 모이가. 거기가 그랬는데 안동 권씨네 산소네 안동권씨네 산소네.

그게 부마라는 게 있는데, 부마라는 건 임금의 사위 갖다가 부마라고 그러지. 나라의 왕의 사위 갖다가. 왕의 사위에 묘가 여기에 있었어. 그런데 그게 세종, 세종대왕의 사위라는 말이 있더구만. 그래서 그 비석을 굉장히 잘 해 세웠다고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고기 상석덜 해 놓은 것 보며는. 거기 상석을.

그래 그 중간에 어떻게 됐는지, 자손이 실상을 했어. 묘를 잃어버렸어. 묘를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잘 쓴 산소의 자손들이 어떻게 무슨 일인지 몰라도 중간에 실상을 했는데, 그 자손들이 언제든지 우리 조상님들의 산소를 찾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차, 그 안

동권씨 한 사람이 저 샘골이라고 이 아래 천리라는 동네가 있어요. 천리 동네에 주막이 있는데, 거기서 잠을 자니까 저녁에 현몽을 했다.

“네 조상 산소, 몇 대조 산소를 찾으려면 내일 아침에, 오늘 저녁에 눈이 올테니, 눈에다가 이것 지팡이 구멍을 뚫어 놀테니 거길 찾아가면 네 조상을 찾을 수 있다.”

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참 눈이 왔더라. 그래 눈을, 저 나와, 집에서 나와서 저 지팡이 구멍 난데로 가 저렇게 차츰차츰 온 것이 여기 산소에까정 도착을 했어.

그래서 인제 거기에 그 비문 같은 것도 보고, 또 그 옛날에 에 저 묘를 쓸려면은 그걸 잃어버릴 염려가 있을 때에는 나중에 자손이 찾기 위해서 지석이라고 있어요. 지석이라는 것을 묻었어. 그래서 지석을 이렇게 캐 보니까, 자기 몇 대조 할아버지 산소가 분명하다고 해서.(이웃에서 손님이 와, 잠시 이야기를 중단) 찾았는데. 그 자손들이 찾아서 매월 10월 초하룻날 시앙(시향)을 지내려 왔다구, 그 자손들이. 어디 사는고 하니 충남 조치원이라고 있어, 조치원. 사는 자손들이 와서 매년 초하루 날이면 와서 시앙을 지내고, 여기 전답도 장만하고 해서.

또 이 자손들이 어떻게 된 건지 작년까지 그걸 파 갔다고, 그 묘지를. 묘지를 팔고, 자기네 여기 있는 산소를 파헤치고선 여주에다가 자기 조상들 묘에다 합장을 할라고, 그런 말이 있는데, 아직 파갔든 않고 그저 여기 남아 있어. 그런 전설은 있지, 여기. [청중 : 파 갔어. 갔잖아요.] 파 갔을 거여, 아마.

③ 이무기 바위

최갑규(82, 여)/서리T 1앞

[서리 중굴 자택] 박종수, 강현모, 윤석범, 임종오, 주정식 조사(1995. 11. 4.)

최갑규 할머니께서는 김용덕옹의 부인으로서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가 생각하는 게 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 주셨다.

옛날에는 누에를 치면, 누에는 저렇게 치는게 아니라 조금씩 쥐서 누에를 치는데. 뽕이 안 실을 땐 뽕이 없다. 그래 산골에 가면 요러 밭을 보면, 요만한 조선 뽕이 있거든. 그래도 그걸 주워 다니느라고, 인제 남자, 여자 해서 여럿이 갔지 뭐. 뽕을 따러 저 산골짜기로.

그래 갔는데, 얼른 가서 인제 뽕을 따서 한 자루씩 이렇게 해서 지고, 이제 더우니까 쉬러 갈라고 앉아 있으니까, 시커먼 바위가 요렇게 길다란게 있더라. 그래 거기 앉아서 이래 실컷 쉬고, 담배를, 옛날에 긴 담배 아니여. 지금은 콜련이 읊거든. 옛날에 잎담배 집에서 심어가지고 그거 들들 말아 먹고, 그러려면 담뱃대 기다란 데다가 해서 먹지. 그래 그걸 먹으니까 담배를 한 대 긴 것 다 먹고 재 떨 때는, 재가 다 타서 재 떨 때는 그게 오래도록 먹은 거 아냐? 이 권련마냥 금방 피우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대쪽지가 쇠 아냐? 쇠. 이제 다 넣지 한 대 다 달아가 지고 다 넣었어.

그걸 바위에다 그걸, 대쪽지를 탁탁 떠니께 피가 술술 나오더라. 그래서 이게 바위가 아니여. 이제 그게 이무기여. 이무기가 옛날에 용이 올라가서 뭐, 어린네 뱀이가 쳐다보면 떨어진다. 이무기가 못에서 천 년, 산에서 천 년, 이 집에서 천 년, 삼천 년을 묵어야 용이 올라간디야. 용 올라가는 것 어린네, 뱀이나 무슨 이런 뱀이 올라가는 걸 쳐다보면 떨어진다고 이젠. 그럼 그게 이무기가 된데.

이무기가 되서 산에 있는데, 아 그걸 그걸. 어떻게. 대갈박으로 가야 살지, 콩지 버둥대고, 아유 콩지를 이렇게 쉴쉴 감으면 죽는데, 다 사람이. 그래서 어디가 콩지 쪽인가 알아, 그렇게 큰 뱀을. 점점 더 굵은 데가 대갈박이겠지.

그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인제 여럿이 갔다 바위가 더 굵더라, 이쪽으로 아주 그냥 이런 나무하고 똑같이, 그냥 이런 비늘이 적지가 나고

아주 그렇지 뭐. 그런 놈인데 저기서 왔을 때, 사람내 말고 썩지 오무려 들이더라, 잡아 먹으라고. 이렇게 썩지를 오무려 들이니까 나무가 부러지느라고,

“우지끝 똑딱! 우지끈 똑딱!”

거리더라. [청중 : 쓸데없는 소리.] 그래 그걸 보고서는, 썩지가, 나 옛날 얘기여. 이것 옛날에 들은 얘기. 그래 저, 그래 들어오니께, 그 아가리, 대가리 땀으로 가니께. 그냥 나무 부러지는 소리가 툼으로 베어제끼는 것 같이 그냥 ‘우지끈 똑딱’ 그러드래. 그래 그리고 자꾸 가니까, 나중에 썩지로 확 찍더라. 그랬는데 그래서 살았대, 대갈박으로 가서. 그 옛날에 그런 나무가 있데.

그러고 안전 소나무, (이야기하는 도중에 김용덕 옹의 호통에 이야기는 그치고 조사자는 할머니와 비밀 면담을 통하여 끝까지 들었으나 녹음하지는 못함.) 부러진 나무에 송진이 나와서 불이 난 거여. 그래 이제 이무기가 그 불에 타 죽자, 그 지방에 있던 머슴이 탄 이무기를 내버리고 나니, 그 곳에서 쌀이 나오더라.

그래 이제 쌀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 장가를 가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잘 살았다는 그런 얘기여.

④ 범티 고개

김용덕(82, 남)/서리T 1뒤

[서리 중굴 자택] 박종수, 강현모, 윤석범, 임종오, 주정식 조사(1995. 11. 4.)

제보자는 아내가 이무기 바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호통을 해서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는 잠시 후에 ‘서리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할 꺼리가 없고, 옛날 얘기 한 마디 하려면 내가 한 마디 하지.’ 하면서 구술하여 주었다.

그렇게 고려, 고려 말 아— 이성계의 태조대왕. 왕씨가 망하고는 이씨

가 조선을 맨든 것 아녀? 그렇지. 근데 고려조 말기에, 그런께 이성계 그 양반이 등극하기 전, 고려 말기에 무월(물음) 문자, 외자 이름 가진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승은 김씨구.

그 양반이 열일곱 살 되던 해에 돌아갔어. 사망하셨어. 그 벼슬은 그 때 벼슬로 감찰이라는 벼슬을 하셨는데, 그 양반이 돌아가니까 그 부인이 과부가 됐을 것 아녀? 그 과부의 성씨가 양천 허씨여. 양천 허씨.

양천 허씨데 그 열일곱 살에 상부를 했으니, 남편이 돌아가서 과부가 됐으니, 지금 세상 같으면 우리네 아무 뭐 100번 천번이라도 재가 해도 무방하지만, 그때 시절에는 재가하면 그것을 집안이 큰 망신거리로 생각했었어. 그런께 불사이군이구 두 임금을 섬겨서도 안 되고, 또 여필종부라고 여자는 반드시 남편을 따르야 한다는 그런 엄격한 그 법규가 있어 가지고, 그걸 지켜야만 사람 노릇을 한다고 여겼어, 옛날에는.

그래 일단 과부가 되면은 평생을 과부로 살아야 망정이지, 만일 후가를 가면 그 집안의 명예가 손상되고, 자기가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을 받았더라도 그게 여러 사람의 웃음거리 백에 안 된다구. 그래서 그 여자는 절개라구. 여자는 정절을 지켜야만 반드시 사람 노릇을 하는 거라구.

그래 이제 자기 남편이 죽구, 자기 시아버지는 충청도 관찰사라는 벼슬에 있었어. 충청도 관찰사. 관찰사는 지금 말로 따지면 도지사여. 충청도지사. 지금은 충청남도 북도가 있지만, 예전에는 그냥 충청도 그랬어. 응. 남·북이 없고 그냥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지금은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로 해서 각 도마다 지사가 있지만, 그때는 충청도 하면은 남·북도 합해서 도지사가 하나여. 그래 도지사에 그 때의 벼슬을 하면 관찰사여.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인저 충청남도 관찰사니까, 아마 공주겠지? 아마 공주 거기서 계셨고, 자기는. 개성이 도읍이니까, 개성에 왕씨에 그 도읍이니까. 그 개성에서 남편하고 같이 살다 남편이 죽으니까, 이 여자가 할 수 없이 친정으로 갔어, 인저. 그래 애를 하나, 유복자, 유복자란

말도 있고. 또 애기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하였든 유복자 아니면 아주 어린애, 열일곱 살이니까 첫 애 아녀? 첫 애니까 아주. 그래 친정을 가니까 친정 아버지가,

“꽃같은 열일곱 살 나이에 혼자 과부가 되서, 그 앞으로 그 긴 세월을 어떻게 지내야 하느냐?”

그 딸에게 얘기해서 다른 데로 재가를 시킬려고 했거던. 다른 데로 시집을 가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 여자가, 남편 잃은 양친허씨 부인이 그 자기 아버지, 친정 아버지가 그 자기를 다른 데로 그 시집 보낼려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고, 그날 저녁으로 그냥 내 나갔어.

그냥 어린애지, 아주. 짓맥이 어린 앨 데리고 밤으로 나갔는데. 지금은 교통이 좋고 여자가 길을 가도 흠이 없지만, 옛날에는 낮에도 못 땡겨, 여자가. 혼자 못 땡기고. 그 혼자 땡기면은 반드시 봉변을 당하는 일이 있어. 그래서 낮에는 그냥 산에 가서 숨고, 밤으로만 이렇게 자기 시아버지한테로 가는 거여. 인저 충청도로다가, 개성에서 충청도로 가는 거여. 그러니 개성서 지금 충청도가 몇 백 리여? 한 오륙백 리도 넘지 않아? 그거를 여자가 간약한 몸으로 낮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밤에 그냥 길을 길을 찾아서 가니 그것 며칠을 가야될 것 아녀?

그런데 하루는, 이렇게 내외가, 그 가는 길에, 하루는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다는 거지. 호랑이가 이렇게 길을 가로 막았어. 못 가게 길을 막았으니 갈 수가 있나. 그런데 호랑이가 왜 잡아 먹으려고 하지도 않고, 덮어놓고 이렇게 그냥 앉아 있는 거. 그래 이게 그 거짓말 같지만, 그때 호랑이도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손짓으로 서로 의사가 통했는지 그건 몰려도,

“나를 니가 잡아 먹으려고 할려거든 잡아먹고, 잡아먹지 않으려고 하거든 길을 비켜라.”

그러니까. 그런게 손짓으로 이렇게 서로 통하는 거지. 그러니까 호랑이가 잡아 먹지 않는다는 거여. 잡아 먹으래라냐고, 고개를 흔들흔들.

“그럼 나를 인도해 줄레느냐?”

하니까. 이렇게 고개를 끄떡 거려. 그래 호랑이를 다가가니까 아가리를 딱 벌린데 보니까 거기 비녀가 하나, 비녀라고 여자들이, 지금은 쪽을 안 찌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쪽을 찌서 그 사뭇 각을 이렇게 지르는 그 거 있잖아. 그걸 비녀라고 하는데. 그거 비녀가, 이놈이 여기 걸려가지고, 뭘 먹지도 못하고 그냥 걸려서 이놈이 신음을 하고 있는 거여. 그래서 그 걸린 거를 아마 빼달라는 시늉을 했겠지? 호랭이가. 시늉을 하니까, 이 허씨 할머니란 양반이 그것 손을 넣어가지고 뽑아 냈어.

그래 그 호랭이가 너무도 고마워서 ‘내 등을 타라’ 는 시늉을 했어 그 다음에 허씨 할머니가 호랭이 등을 올라와 앉으니까, 그냥 순식간에 자기가 애기도 안 했는데, 그 시아버지 사시는 관찰사 본부까지, 그때는 공주가 아니고 연산여, 연산. 충청남도 연산이라고 있어요. 논산군 연산면이란 데가 있어. 그래 거기까지 가서 내려 놓는데, 그 고개 이름이 범티 고개여. 범이 허씨 할머니를 내려줬다는 걸로, 그게 그때부턴 범티 고개라는 이름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어이.

그래서 그 아들이 차차 자라 가지고, 차차 자라가지고서, 그 인저 허씨 할머니는 거기 가서 기거하고 있는 동안 평생을 통 시집가지 않고, 시집가지 않고 절개를 지키고서 고 뒷동산에 암자를 하나 댄들어 갖고, 거기서 날마다 기도 하는 것이,

“우리 자손들, 대대손손이 천 년, 만 년 참 무성하고 잘 되 달라.”
 는 기도를 날마다 그 산에 가서 올렸다는 얘가지. 그래 그런 정성이 지극해서 그런지, 그 데리고 온 갓난 애기가 차차 자라가지고, 참 등과해서 급제를 해서 벼슬까지 오르고 인자 그때 그 이태조 그 양반이 등극을 해서 조선, 이씨 조선이 됐는데, 그 손자가 나라 국자 빛 광자 국광이라는 양반이, 허씨 할머니의 손자가 좌의정까지 했어. 좌의정이면 지금 국무총리 다음에 가는 게, 부총리 경제 기획총리니 통일장관, 그 부총리이지 그러지 않아? 부총리격인 좌의정일 거여. 그리고 그 후손들이 참 잘 되서, 참 사계라든지 사계 선생에는 7대 조모가 되고, 사계 아들 심독재라는 양반에게는 8대조 조모할머니가 되는데. 그 사계라는 양반

과 사계 아들 심독제라는 양반은 문묘배향이라고 있지. 각 군마다 향교라는 게 있지. 지금도 다 있어.(향교 문제 생략)

그래 그 양반 허씨 할머니가, 이 나라에서 참 가룩한 여자라고, 참 타의 모범이 될만한 덕행을 가진 여자라고 해서 나라에서 정경부인, 여자로서는 최고 벼슬이지, 정경부인이란게. 저 정경부인이라는 벼슬을 내려줬어. 그, 그 허씨 할머니에게 정경부인이라는 벼슬을 내리고 유희비이라는 것, 유희비라는 조그맣게 정각을 맨들어서 놓고, 거기다가 허씨 할머니의 그 사적을 거기다가 이렇게 쓴데 있어요. 그것이 지금도 가 보면, 논산군 연산면 고정리에 가 보면, 그 정녀문이 지금도 있어. 지금도 있고.

지금 산소가 연산면 고정리에, 지금도 허씨 할머니의 산소가 있는데, 그 산소 시양이 10월 5일, 10월 5일인데 광산 김가들이 그날은 굉장히 많이 모여서, 지금도 수백 명 그 날은 모여 가지고 허씨 할머니의 고마운 은덕을 생각하고, 광산 김가 어느 시양보다도 허씨 할머니의 시양을 제일 융숭하고 정성껏 차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유래가 있어. 나는 그것 얘기는 그것 뿐이여.

그래 옛날에는, 지금은 그 여자라는 게 정조라는 게 없어져서, 한 번 시집 가거나 두 번 시집 가거나, 시 번을 시집을 가도 흥이 읊지만, 옛날에 그게 여러 사람들이 세상에 아주 수치거리고 살았어. 그러게 옛날에 법으로는 부모가 돌아가면 거상을 3년을 입지만, 거상을 3년을 입지만. 옛날에 남편이 돌아가면 그건 평생을 입어야 혀. 평생을 입었다고, 그건. 지금도 뭐 옷도 안 입고 그냥 뭐, 죽으면 빨간 치마도 입고 흰 치마도 마음대로 하지만, 옛날 법은 그렇게.

며느리 부자 손님이요, 지애비 부자는 부군이라고 그러지 않아. 지애비 부자는 이 하늘 천에다가 이것 하나 더 이렇게 이렇게 한게 지애비 부자고. 부군이라는 남편이란 말이여. 하늘보다 높다 그 얘기여. 남편은 하늘보다 높다. 그렇게 남편을 여자들이 존중하게 여겼지.

5] 떡조현 고개

김용덕(82, 남)/서리T 1취

[서리 종골 자택] 박종수, 강현모, 윤석범, 임종오, 주정식 조사(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세시풍속에 관련된 이야기와 조광조, 정포은 등에 관한 사실적인 말씀을 하다가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준 것이다.

남사면 마치 부자 허고 아래 화자 허고 부화산이라는 산이 있고 그리고 인자 그 부화산 거기에 떡조현이라는 고개가 있어요 떡조현. 이 찾을 떡자가 안동변 고자한 자. 찾을 떡, 할아버지 조자, 떡조현이라는 건 고개. 떡조현이라는 동네가 있어. 거기.

그래서 그 부화산 그 밑에는, 응 천하명당이란게 있다고 해서, 서로 명당이,

“내가 명당을 찾았다고 해서, 그 산 속에 써서.”

그런 속설은 있지. 아버지가 아이를 지고서 할아버지를 찾는 형국이 라구. 그런 산소 자리가 저 부화산에 있다고 해서, 그래 부화산도 있고 떡조현도 있고 그래요. 내가 그 밑에다 전부 그 풍수각들이, 지관들이 명기면서,

“여기가 그 자리라.”

고. 해가지고서. [칭취불능] 서씨든지 남씨든지, 거기서 자꾸 묘이를 쓰고 있는데, 과연 그런 명당을 찾아서 썼는지는 모르겠구.

6] 유서방네 묘

조현기(74, 남)/서리T 2앞

[서리 종골 밭] 박종수, 강현모, 윤석범, 임종오, 주정식 조사(1995. 11. 4.)

앞에서 민요를 마치고 조사자가 귀신이나 묘자리에 관한 이야기를 부탁하자 좀 생각에 잠기었다가 구술하여 준 것이다.

[조사자 : 저 위에 지기 뭐야, 이래 나무 해 놓고 위에다 묘같은 게 하나 있는게, 그게 왕, 왕묘가 그거요?] 아니지. 왕묘의 묘가 어디 있어. 정승의 묘도 읍, 정승은 연안 이서방네라고, 여기 산 너머, 거긴 삼정승이 묻혔는데는 거여. 이서방네 하고, 유정승이라는 그, 정승이 인제 그 너머는 묻혔다는 그런 거지.

[조사자 : 삼정승이 묻힌데, 뭐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요?] 그걸 아나. 정승이, 연안 이서방네가 둘 묻히고. 유정승이라고, 예전에도 맨 처음에는 유정승이라고 와 묻혔다고 하더만. 그게겠지만 뭐. 그런 걸 뭐 아남. 그걸 또 말 해.

7 권도령이 묻힌 묘

조현기(74, 남/서리T 2앞

[서리 중골 발] 박종수, 강현모, 윤석범, 임종오, 주정식 조사(1995. 11. 4.)

앞의 묘자리 이야기를 마치고 같은 유형이라 생각이 났는지 스스로 구술하여 주었다.

또 저기 불러오기는 권도령 묘라고 있었어. 이 너머 그저 있지만. 그런데 그런데 수십 년을 묵었는데는 거지. 그런데 예전 말씀이니까 누가 알아.

그 묵었었는데, 그 자손이 권 뭐라더라. 그 사람이 이 천리라는 데 여길 말 타고 지나가는데, 반짝 눈이 왔는데,

“네의 조상이, 위대 처음 조상이 여기 묻혔는데, 요 말 가는대로 가서, 그 말 그치는데 가면 너 조상이 있을 거다.”

그 하난 전설이 내려와 있는 거여.

⑧ 삼정승 묘자리가 있다는 서리

이윤희(68, 남)/서리T 2앞

[서리 하골 자택] 박종수, 강현모, 윤석범, 임종오, 주정식 조사(1995. 11. 4.)

조사자들은 조현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제보자를 찾아 아래마을로 이동하였다. 아래마을로 내려와서 돌아다니다가 제보자를 만나게 되었다. 조사자들이 옛날 이야기를 부탁하자 스스로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주었다.

여기가 배밭인데, 저 건너 개울이 그전에 이 서리 길이 저기 저 건너로 났었어요. 저기가 서해 못여. 서해 못이라고 그러는데. 그에 아주 거기가 옛날에는 짐승 길목여. 짐승 길목여. 아주 저 위에 와설라나 돼지나 노루 통기며는 우선 길 묻는 데로 와설라나 여기서 목잡던 데여.

그라고 인저 요 아래가, 내가 요 아래 살다 나왔는데. ‘불당거리’라고 그러는데, 거기 옛날엔 여덟 집이 살았는데, 지금은 네 집이 살구서. 거기 연안 이씨에 그 증중 땅인데. [조사자 : 비타귀골요.] 불당, 불당곡이지. 불당곡. 그래 인제 거기 그 아래 정승묘가 셋여. 삼 정승, 삼 정승이 거기 묻힌 자리여, 그 안에.

그래설라나 옛날에 거 우리 뭐, 우리가 삼십 시절만 해도 노루 같은 것 상당히 많았지. 많았는데 그 이곳 아니라, 여기 한 척 정도 되는데, 뺑둘러 맥힌 데야. 아주 뺑둘러 쪼금만데야. 요기 요 산 끝에서부터, 요기 산 끝에서부터 개인 소유가 하나도 읍어요. 그 안에 뭐 다 연안 이서 방네 그 사패지, 옛날에 사패지지. 그 거시기란 사람들.

사패지인데, 그해 해방 후만 하더라고 노루 같은 것, 돼지 같은 것 많았는데. 꾀(포)수들이 그 골짜기에 들어와선 전혀 짐승을 못 잡았어요. 거기서 통겨 가지고서 산 넘어가서만 잡았어도, 거기서는 못 잡았다구. 그래 그 삼정승 묻힌 자리, 묻힌 골짜구리나, 그 뭐여 짐승을 그러니까 못 잡는다 그런 그런 전설이 있구.

그 안에 뒹어. 옛날 삼정승이 붙었다면은 그 보통 뒹 무슨 자리가 아니거든. 이게 옛날 삼정승 아냐? 삼정육판이라 그랬는데.

그 거기 전설로 말하자면, 거기 그 동네 뒤에, 그 큰 배나무가 있었어. 큰 배나무가. 옛날 아주 배나무가, 우리 지금 한발 받은 되어, 한발 받은. 그렇게 큰 배나무가 있었어.

그러니까 나이가 고복이 됐으니까, 인제 그 늙이 인자 뭐여, 뭐여, 죽어 뭐여, 죽게 됐다 말이여. 그러니까 그 옛날 어른들이, 나는 모르지만 으븐들 말씀이, 그거를 팔았대요. 그거 옛날에야 그 가구, 배나무 가구 맨드는데 아주 좋거든. 그래 팔았는데, 그날 저녁에. 그 호랭이가 뒷산에 가서 울었다는 거여. 그래서 그거를 도루 해약을 했대요. 그래 고기에 그런, 고기에 그런 전설이 있구.

9] 고사 지내고 옮겨야 할 삼정승 묘지골

이윤희(68, 남/서리T 2앞

[서리 하골 자택] 박종수, 강현모, 윤석범, 임종오, 주정식 조사(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계속하여 구술하여 준 것이다. 이 이야기는 실존 인물이 직접 경험한 것이라 하셨는데, 아무래도 전설쪽에 더 가까와 기술하였다.

여기 저 이 골짜기에, 서리가 살다가 그 절루(저기루) 간 뭐여, 천리루다가 간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목수여. 그 사람이 집을 질라구 옛날에 그, 저 나무 목재 이런 걸 장보 얻는다고 그러지. 장보, 장보 얻는 집이면 그것 잘 짓는 집이지.

장보(대들보)감을 거기서 샀는데, 장보감을 샀는데 그걸 가져 가야 할텐데, 옛날에야 천상 인력이 아니면 뭐 소 이용하는 방법 밖에 읊는 거거당.

그래 산에서 끌어 내리는데, 거 후성리에 아주 그 채칠령씨라구. 그분이 굉장히 억서. 그래서 소를 맥여도 꼭 받는 소만 맥여. 그렇게 억신분인데, 그분을 하고 그걸 끌어 내리는데, 아 이놈이 중간에 오다가는 비알(비탈)도 비알, 비알인데, 편편한 데도 아닌데 소가 딱 서.

서가지구선 움직이지 않아요, 소가. 소가 움직이지 않아구설라나, 가진 소를 패고 뭐 그래도 그게 움직이지 않아. 그래서 그래 그 목수라는 사람이, 아니 그 채칠령씨라는 분이,

“이거 나무 빌 때 고사를 했느냐?”

그래드라. 그래서,

“안 했다.”

고 그러니까.

“어이 그러면 알았다.”

고 그러고서 소를 떠 가지고서 그냥, 그냥 집으로 간 거여. 그냥 이저 이렇게 끌어 내리다가, 이제 멩에 벗겨 가지구설라나 집을 가구 설라나.

“그 고사를 가서 해라.”

구. 그래설라나. 그 이튿날 와서, 나는 고사 뭐 옛날엔 북어하고 그저 포나 하고 해서, 잔하고 해서라나 갖다 해서 고사해구설라나. 그 이튿날 가서 끄니까, 소가 힘없이 그냥 내려와. 힘 안 들이고 내려와. 그래 고런 전설이야. 그러.

그래서 채칠령씨 그 분 얘기가, ‘거기 삼정승이 묻힌 자런데, 그 고사도 안 해구서 그냥 길쌈 불리냐.’ 인자 이런 전설이 있어.

10 도깨비 홀린 사람

이윤희(68, 남)/서리T 2앞

[서리 하골 자택] 박종수, 강현모, 윤석범, 임종오, 주정식 조사(1995. 11. 4.)

앞에서 노래의 후렴만 부른 뒤에 조사자가 귀신 도깨비 이야기를 부탁하자 계속하여 구술하여 준 것이다.

요 동네, 요 동네 아닌 얘기는 그게 그 동네 가서 얘기 해야지. [조사자 : 상관 없습니다.] 상관 없어요 요, 요 천리에 최정식이란 사람이, 우리 나보다 몇 살 더 먹었어. 그 사람이 그 도깨비 흘렀다고 하지.

도깨비 흘린 얘기인데, 아이 밤에 어디를, 골짜구니를 갔는데, 안 와 설라나, 안 와설라나 그레 동네 사람이 찾아갔는데, 저 덩불 밑에 가서 있어. 그레,

“왜 거기 가 있느냐?”

고 그러니까 허는 얘기가 그러드라.

“너 임마! 김가의 자식 아니냐?”

고 그러드라. 그레 도깨비에 흘려서 그렇다고들, 그레 그런 얘기를 해 요 그 나보다 세 살인가 위 되는 사람인데,

“아이 사람하고 같으냐. 같은 게, 얘기하는 데 사람 같으냐. 같은데, 따라가다 보니까 그랬다.”

그러드라. 따라가다 보니까 덩불 밑, 그레 덩불 밑이 이렇게 보이는게 아니라, 이런 저 집같이 보이더라 이거여.

㉫ 온 좋게 살아난 느티나무

이윤희(68, 남)/서리T 2앞

[서리 하골 자택] 박종수, 강현모, 윤석범, 임종오, 주정식 조사(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생각이 났는지 스스로 구술하여 준 것이다.

요 부근에, 요 아래 골짜구니 살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눈치가 어 두었는데, 그 동네 참 느티나무 얘기를 하나 해야겠네. 느티나무, 왜정

때에 뭐 느티나무 좋은 거는 일본 사람들이 그 배 만든다고 그냥 뭐 몰수 해 가는 거지. 뭐 강제로 그냥 해 가는 배어 가는 건데.

그 때에, 그런게 왜절 말엽이지. 그 때 대동아 전쟁 땐데, 그 인자 책임자들이 비타[청취불능]바 있어 가며, 동네 다니며 봐가지구서 좋은 건, 뭐 못 쓸 건 안하고 좋은 거는 정말 찍어 놓고 가는 거. 그런게 저게 정말 찍혔어. 그래가지고설라나 이것 사람을 보낸 거야.

“이걸 비라고 어느 골짜구니 가서 비라.”

구.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비는 사람이 탄 소리, 탄 데, 탄 골짜구니를 들어갔어. 그래 거기를 안 가고. 그리구 그러구서 10일 있다가 해방 됐어.

그래서 그 느티나무가 굉장히, 그게 참 그 지금 보호수로 되어 있는데, 보호수로 되어 있으니까 인자 손을 못 대는데, 그 때 비는 사람이 올바루 왔으면 그 나무가 베어지는 건데. 골짜구니 잘못 들어가가지고 탄 나무를 비는 바람에 그 나무가 살았어. 지금 보호수로 되어 있어.

12 아버지와 삼 형제

이윤희(68, 남)/서리T 2뒤

[서리 하골 자택] 박종수, 강현모, 윤석범, 임종오, 주정식 조사(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사랑방에서 하시던 이야기를 부탁하자 스스로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준 것이다.

옛날에 그 한 동네에서 두 친구들이, 친구가 있었는데 같이 이렇게 공부 했는데, 이저 공부를 하고 나서 한 사람은 돈버는 거에만 그냥 뇌를 쓰고 그래하고, 한 사람은 그저 마누라 얻어가지고 자식 낳는 것만 힘을 쓰는 거여.

그래 한 사람은 뭐여, 그 어떤 돈 벌러, 돈 버는 사람이 삼 형제를 두었는데, 삼형제를 뒀는데. 그 돈을 어느 정도, 돈을 크게 많이 벌었어. 그래 이제 돈을 많이 벌이가지구선, 이제 벌만큼 어느 정도 벌이 놓구선 그 다음부터는 쓰기만 해여. 벌진 않고 쓰기만 하는 거여.

그래 아들은 삼형제를 뒀는데, 그 둘째 아들이 외국에 나가가지고설라나 살인을 했어. 살인. 그 옛날에는 살인자는 살하고, 살인한 사람은 그 죽였거든. 그래 그러니까 돈을 쓰기만 하니까 친구들이 많이, 많이 와설라나 그냥 놀고 또 놀고. 참 옛날엔 사랑방에설라나 그냥 그렇게 해서 뭐 음식 대접하고 그래설라나 노는데, 아이 이 ‘살인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냥 아무 변색이 없어. 살인했다구 해도 그랬더니 작은 아들이, 그 막내 아들이 아 들어오더니, 지 아버지한테 하는 얘기가,

“아버지! 형이 외국에 가서 살인을 했느니까. 천상 돈으로 가서 빼오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고 그러니까.

“아! 그렇게 하라구. 그럼 니가, 니가 그럼 갔다 와라.”

‘니가 갔다 와라.’ 그러드랴. 이젠 조금 있으니까 큰 아들이 들어 오더니, 하는 얘기가,

“아이구. 그 막내 얘기를 보내느니 지가 가설라나 거시기 데려 오겠다.”

고 말이지. 그러니까 태도가 그냥 확 변해. 뭐 아 못마땅한 태도가 얼굴색이 확 변해. 그래 그냥 뭐 ‘갔다 와라 마라’도 안 하고, 그냥 끄떡끄떡하고 그러거든. 그래 큰 아들이 나간 다음에 그 친구들이 물었어.

“왜, 막내, 막내 아들이 와서라나, 막내 아들이 와서 그럴 때는 기분 좋게 그러더니, 왜 큰 아들이 간다니까 그렇게 안색이 변하느냐?”

하니까.

“그럴 이유가 있다.”

그러드랴.

“그래, 그럴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큰 아들은 내가 돈 벌, 벌적에, 돈 벌적에 돈 버는 것만 보고 자랐다. 이 막내 아들은 돈 쓰는 것만 보고 자랐다.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살인을 했으며는 빼올려면 돈을 써야 되는데, 큰 아들은 돈, 뭘여 버는 것만 알기 때문에 돈을 안 쓸거다. 그렇게 하면 죽는 거다”

그래 이 친구들이.

“아이, 그 사람 살리는데, 그 동생이 죽고 사는데 돈을 안 쓰겠나?”

그러니까,

“그래두 그렇지 않다”

그러드라. 그래 그 큰 아들이 돈을 한 보따리 가지고서 참 외국엘 갔어. 가 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조사자 : 가기는 큰 아들이 갔었요?] 응. 큰 아들이. 그러니 아 가 가지고서 인저 참 고위직, 지금으로 말하면 검사나 판사한테 가서 뭉텅이로 돈을 준 거여. 아 그러니까 그냥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냥 뭘, 그냥 이튼날 석방이 되었어.

근데 그 이튼날 석방이 되는데 보니까, 지 동상만 나오는게 아니라 수십 명이, 그 여러 사람이 나와, 그 감옥에서. 옛날이나 그 지금으로 말하면 감옥이지. 그래 여럿이 나와설라나, 아 어떻게 된 것인가 알아 보니까, 국가에 경사가 있어 가지구설라나 그래 석방되는 거여. 그 감옥에 경범들.

아 이거 하루만, 조금만 참었으면 돈을 안 써도, 안 써도 나올 놈으 거, 그냥 이 돈을, 돈을 썼거던. 아 이놈의 돈이 아깝지 뭐여. 아 그러니까 가설라나 그 얘기를 한 거여.

“돈을 도로 달라.”

고. 그리 안 해도 나올건데. 그러니까 그 군말 앓고 줘. 그라구설라나 지금으로 말하면 그 뭐 검사랄까, 판사가 아 다시 가설라나, 뭐 그 서류를 이렇게 들춰 보더니,

“외국인이 들어와설라나 살인한 것은, 이것은 석방할 수 없다. 그런데 다시 잡아 들여라.”

그래 잡아들여서 이냥 사형을 시켰어. 그래 아이 시켜가지구서 그러니 이 큰 아들이 그걸, 그 시체를 가지구설라나 직 집으로 온 거여. 그래 그 친구들, 친구들한테 인자 그러는 거여.

“별, 버는 것만 보고 자란 놈은 버는 것만 알지 쓸 줄 모른다. 막내 아들이 갔으면은 그놈은 쓰는 것만 알기 때문에, 그냥 돈 안 써도 나올 거래도 그 놈은 그냥 그 돈을 안 찾아가지고 왔을 거다.”

그러니까 이 저 뭐여, 부모들한테 이 부모 교육이 그만큼 소중한 거다 그런 얘기여. [조사자 :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중요하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지.

3) 민요

① 노동요

조현기(74, 남)/서리T 2앞

[서리 종골 밭] 박종수, 강현모, 윤석범, 임종오, 주정식 조사(1995. 11. 4.)

조사자는 김용덕옹의 택을 나와 새로운 제보자를 찾아 나섰다. 이때 농업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제보자가 뒷밭에서 낙엽을 긁어 모으고 있을 때 만났다. 그래서 조사자들이 찾아온 이유를 말하고 민요 한 가락을 부탁드렸는데, 완전히 기억을 못하시어 일부분 밖에 수록을 하지 못하였다. 노래는 음영조로 구술하여 주었다.

저 건너 감리봉 농부들아
우장 입고 나오너라
저 건너 가리봉아
비가 시려 들어 온다
우장 입고 눈에 나가
논일 하세.

② 모심기 노래

조현기(74, 남)/서리T 2앞

[서리 중골 밭] 박종수, 강현모, 윤석범, 임종오, 주정식 조사(1995. 11. 4.)

앞에서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농사지을 때 부르던 노래를 부탁하자, 음영조로 불러 주신 것이다.

열열 상사디
서마지 논 뱀이가
반달만큼 남았네
에라 농부들
어미 매고 술을 먹자

③ 모심기 노래

이윤희(68, 남)/서리T 2앞

[서리 하골 자택] 박종수, 강현모, 윤석범, 임종오, 주정식 조사(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농사지을 때 부르던 노래를 부탁하자, 구술하여 주었는데, 후렴조만 해 주었다.

<후렴> 에어~라 방아호

여

백

III. 남사면 설화

1. 봉무리
2. 방아리
3. 창 리
4. 아극리
5. 완장리
6. 북 리
7. 통삼리
8. 봉명리
9. 진목리
10. 전궁리
11. 원알리

여

백

1. 봉무리

1) 마을개관

박종수, 강현모, 박은예, 임추자, 정경순, 정난영, 김지현, 조은이 조사
(1995. 11. 4., 1995. 11. 26.)

이 마을은 용인군 도촌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산정리와 내기리가 합해진 이름이다. 이곳에 있는 봉바위의 형상이 춤을 추는 형국이라고 해서 마을의 이름을 봉무리라고 하였다고 한다.

이 지역은 미군의 상수도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장을 하나도 짓지 못하게 하는 등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최근에야 제재들이 조금씩 풀리어 공장들이 하나 둘씩 들어서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형편이라 한다. 이곳의 주민들은 대부분이 무뚝뚝하거나 귀찮다는 표정들이었는데, 오랫동안 누적된 피해의식과 소외감이 외부인들에 대해 무관심이나 거부감으로 표출된 듯한 인상이었다.

봉무리는 면소재지로 봉무 1-3리로 이루어져 있다. 봉무 1리는 행정 명칭이고 마을 사람들은 내기동이라고 부른다. 봉무 1리는 250여 세대로 큰 동네였다. 이곳에는 학년별로 3반씩 있는 중학교 1개, 학년당 2반씩 있는 초등학교 1개가 있다. 이곳의 교육환경은 열악하다고 할 수 있으나, 학생들은 용인에서 공부를 잘하는 편이며 문제가 없다고 주민들이 자랑하였다.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다방이 3개, 음식점 5~6개, 약국, 주유소, 부동산, 슈퍼 3~4개 등으로 상가를 이루고 있다. 주산업은 농업이나 부업으로 상가를 운영하는 가구도 있다. 상가를 운영하는 가구도 대부분 자기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자급자족할만큼 농사를 짓는다고 한다. 이 동네는 면소재지로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많

아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봉무리는 산악의 분지형임에도 농사할 지을 성지가 넓은 편이라고 한다. 봉무리의 민속놀이는 소멸되어 별로 내세울 것이 없다. 구전설화나 민요도 전해지는 바가 거의 없었다. 민속놀이로는 상짚말(산정동)의 줄다리기가 유명한데 MBC TV에 방영되기도 했다고 한다. 그외에는 남아있는 놀이가 별로 없고 마을별로 설날과 추석에 농악놀이와 윷놀이가 행해질 뿐이다. 교통편은 30~40분 간격으로 용인-오산간 좌석버스가 운행되고 있어 불편한 편이 아니다. 용인 터미널에서 남사까지는 한 시간 가량 소요되고, 오산에서는 30분이면 된다. 마을을 연결하는 시멘트 도로는 산길을 따라 이어져 있어 차가 많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길도 좁아 경운기와 버스가 만나면 버스가 지나간 후에야 경운기가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길이 면소재인 봉무 1리에 들어오면 포장도로로 오산과 용인까지 연결이 된다.

2) 설화

① 구렁이가 된 스님

민인순(80, 여)/봉무리T 1앞

[봉무리 지택] 박종수, 강현모, 박은예, 임추자, 정경순 조사(1995. 11. 4.)

우리가 처음으로 이집을 찾아가 부탁을 했을 때는 친절이 할머니께서 맞아 주셨고 기분 좋게 들어갔다. 할머니는 고르고 있는 콩을 같이 고르며 이야기를 부탁드렸다. 우여곡절이 많은 이야기이다. 왜냐하면 녹음을 하였는데 녹음이 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녹음을 다시 해야 했기 때문에, 말씀하기 귀찮아 하는 할머니를 좀라 듣느라고 매우 힘들었다. 할머니는 모른다고 하다가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절 얘기 한 번 더 해 주세요. 두번째 한 얘기 더 해 주세요.(자꾸 조르자 할머니께서 귀찮아 하셨다.) 아고. 아 뭐, 절 얘기 한 번 더 해 주세요. 구렁이 난 진짜 잘 못 들었어. 아이 난 싫어.(자꾸 조름). 이만 빠지고 할 수가 없어. 다 저기 했어.

[조사자 : 할머니님! 절에서 살다가 죽었, 아니 돌아가셨다고 했죠? 그

래서 돌아가서 가지구?] 죽어가지구 환생해서 저 구렁이가 됐다구. 저 부처님은 안 모시고 그냥 허랑방탕 땡기면서 그냥 그래서 그 죄로다. [조사자 : 그 죄로, 뭐?] 그 죄로다가 저기가 됐는데. [조사자 : 뭐가요?] 죽었는데 구렁이가 됐다구. [조사자 : 그 스님이요?] 응. [조사자 : 잘 부처님을 잘 안 모셔가지구요?] 그렇지. [조사자 : 환생한 거예요?] [조사자2 : 이제 이해가 가, 나는.] 그래 그냥. [청중 : 아니 나 같은 노인네가 얘기 다 꺼내면 그것도 안 되는 거여.] [조사자 : 왜요? 재밌죠. 재미있어서 재밌어요.]

어려워. 그런 것도 증말 그래서, 그렇게 얘기 아까 했잖여. 구렁이가? [조사자 : 할머니 한 번 만요] 그리구 뭐 배운게 없으니깐은 들으면 다 잊어버려. 에이- 다 잊어버려서 읍서. [조사자 : 그래서 구렁이가 그 보살(스님?) 부처님 불공 들이는데?] 죄를 받아서 그 스님이 와서, 스님이 들어와서 이 신도들이 보고,

“쌀을 스되쫂만 실어 오라.”

고 해서, 그래서 실어서 가져왔던,

“죽을 썬라.”

고 했어. 죽을 썬었더니 그걸,

“다 마시라.”

고 그래. 구렁이 보구. ‘다 마시라’구 그러니까, 그거를. 다 마시구 이제 배가 불러서 그냥,

“너, 갈 길로 가라.”

고. 그래서 산을 넘어가는데, 산고개 넘어가서, 언덕을 내려와서 그냥 배가 툭 터졌데! 툭 터져서 거기서 파랑새가 나, 나왔는데. [조사자 : 응 - 파랑새가 나왔어요?] 나와서 얘기도 못 넣고, 그냥 시는 두 내위(내외) 산적이 집에서 사는데. [조사자 : 근데요?] 그래서 그 시님이 인저,

“이달부터 태기가 있을테니 기다리라.”

고 그런께. 증말 기다리고 있더니, 태기가 있었어. [조사자 : 근데 아까 돌아가신 스님 말고 다른 스님이?] 응? [조사자 : 다른 스님이 말씀하신

거어요?] 응. [칭중 : 또 다른 스님이! 절에.] 절에 인저 부처님 모시러 시님이 돌아왔어. [조사자 : 스님 있으니까, 다른 스님이 오셨구나!]

그럼. 부처님을 모시야 되잖아. [조사자 : 그래서요?] 그런데 그렇게, 그렇게 죄를 짓고 못 사는 거야, 죄를 짓고는. 그 죄 죄를 지어서 그렇게,(이때 콩 고르신 것을 그릇에 담은 바람에 커다란 소리가 남.) 그렇게 절법에 죄는 무섭다는 거여.(다시 콩소리) [조사자 : 애기, 애기 놓고 서는, 그래서 태기가 있었잖아요.] 애? [조사자 : 태기가 있다고 했잖아요요?] 그래 그 달부터 태기가, 아이 있는 거지. [조사자 : 그렇게 해서요?]

그래가지고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얼마나 구엽겠어. 그런데 뭐 시님이 그런 거까장 가르켜 주졌어? 시님은 다 알지만. 그래,

“다섯살 먹으른 내가 데릴러 온다.”

구 그랬어. 그래서 도로 그 죄를 벗고선 도로 시님이 되. 그래서 절법이 무섭다는 거. 응- [조사자 : 그래서 데릴러 왔죠?] 그래 절법이 무섭다고 하는 거.

② 수수고개의 도깨비

박인에(83, 여)/봉무리T 1앞

[봉무리 일대] 박종수, 강현모, 박은예, 임추자, 정경순 조사(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듣고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물었지만 이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도깨비에 대해서 묻자 이 지역의 수수고개란 곳에 도깨비가 살았다고 말하였다. 이 이야기는 박인에 할머니가 민할머니택에 오셔서 들려주인 이야기이다.

① 도깨비의 형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죠? 도깨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리지. [조사자 : 안 보셨어요?] 불만 이렇게 흑 지나가는 것만 봤어. [칭중 : 도깨비

가 저 어딴어.]

옛날에는 이 나쁘게 비 비자루 같은 게 있잖아. 이 비자루 도깨비, 이 아들 그이 [조사자 : 부지깽이.] 그런 거에 피가 묻으면 그게 인저 환상을 하게, 도깨비를 메어.

[조사자 : 그러니까 그런 얘기, 거런 이야기 있어요?] 그럼. 독꺼비에 흘려가지구, 해가지구 쉿쉿 도깨비를 밤에 이제 칠푼쿨에 쉿쉿 울거(얼어) 매놓고 아침에 가 보면 빗자루여. [조사자 : 어-, 도깨비인 줄 알고.] 그게 약한 사람은 밤새도록 끌려 땡기구. [조사자 : 어 어떻게요?] 도깨비가 끌고 다녀. 담렴(담력) 신 사람은 못 그려. [조사자 : 거 이야기 없어요? 누가 동네 어른 중에 누가 살았는데, 도깨비에 흘려가지구 저 들은 얘기로는](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시작됨.)

② 수수고개의 도깨비

[조사자 : 할머니! 수수고개 이야기 해 주세요. 수수고개 도깨비, 도깨비가 수수고개에 나와요?] [청중 : 거기 도깨비가 많아. 저기 있었어. 저기 거긴 무서워. 낮에 가도 무서워.] [조사자 : 어떤 건데요? 어떻게.]

[청중 : 고개 넘어 가는데 저게 서낭 있거든. 그 서낭에 이렇게 낭구(나무)가 우겨져서. 근데 거기 옛날에는 증말 길이 어딴나 그냥. 그 고개를 장애를 가고 그랬지. 어 밤에 보면 도깨비가 나오고 발이 안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구.] [조사자 : 또 그런 얘기 없어요?] [청중 : 다 말만 들었지 뭐. 말만.] [조사자 : 그러니까 뭐 겪으신 거.]

우리 친정 아버지가 옛날이 뚜두령 말을 타고 다니셨거든. [청중 : 음 말타고 땡기셨지.] 그런데 저 밤중에 그때는 부자집, 있는 사람이나 시계가 있지 어디 있어. 시계. 기름불 키고 등잔불 키구 그랬지. 어디 말이 뱅 날아와서 야황을 치구 냥 [청중 : 니, 말도 무서움을 탄대.] 와서 그냥 대문을 탁탁탁탁 굽으며 지랄을 하는데, 이제 그게 다른 사람도 아녀.

에? 그 양반이라고, 그 시동생 하나라고 있잖어. 그이가 와서 사는데 그이가 가는 귀가 먹었다고, 가는 귀가 먹었는데도 말이 그냥 대문을 벽벽 극고(꺾고) 소리를 질러 쩌저가고,

“일어나라고, 일어나시라고, 말이 와갔구 야단이라.”

구. 그래가지구선 우리 친정 어머니가 억시잖어. 억시지. 억신데 이제 이 분을 데리고 말을 끌고는 말 가는 데로 갔더니. 그 수수고개, 수수고개? 그 가시 덩쿨에 가서 우리 아버지가 그냥 모시 드루매기 머세 머시 주주잡잡한 거 홀라당 킁고, 기냥 앞푸러져 계시드라.

그레가주 우리 아버지가 속달 열흘만에 일났어. 히?(놀라시며.) 아휴. 아 도깨비에 홀러가지구—.

도깨비 홀려 가지구 돌아가신다 하는데. 그래도 그 말이 참 그렇잖아 봐. 말이 영물이어. 영물이어 영물. 말이 데리고 왔구나. 말 타고 가시다 그랬지 뭐.

③ 도깨비의 둔갑

심이재(84, 여)/봉무리T 1앞

[봉무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박은예, 임추자, 정경순 조사(1995. 11. 4.)

조사자들은 할머니께 이야기를 부탁하자 자신의 집에 가서 해 주신다고 하셔서 할머니 댁으로 갔다. 그러나 정작 하실 이야기는 안 하시고 우리에게 되려 이야기 해달라고 하시어 곤란했다. 조사자들이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무엇인지를 아시고 이야기를 해주셨다. 과일을 내주시기도 하여 시골의 인심을 느끼게 해 주셨고, 자꾸 조사자들의 신상에 대해서 물으시고 자기 손자 이야기를 자꾸 하셨다. 임행이사 이야기와 시집살이 이야기 그리고 도깨비 동을 들었지만 내용이 없었다. 이곳이 고향인데, 양주군 진잠면 내왕리로 시집을 갔다가 이곳으로 다시 들어와서 살고 있다고 한다.

그전에 누 집이 들어가서 돈도 제 흠쳐다가 주면은 그걸로 땅을 사야지. 그냥 흠쳐다 봤다 곧 나면 다 돌(도로) 가져간데. [조사자 : 어— 땅

을 사야 되요?] 영.

땅을 도깨비가 돈을 많이 주잔어. 뭐든지 보물을 많이 갖다 주면, 그 보물을 갖다가 그걸 가지구 땅을 사놔야 못 가져가지, 인저. 그렇잖으면 다 가져간데. 그렇다.(일동 웃음)

그리고 도깨비 불이 번쩍번쩍 하잖어. 번쩍번쩍 해봐야. 그 도깨비가 별 귀신이 아니구. 도로 고개 가서, 거기 가서 헤치고 보면, 이렇게 별 것두 아니구 피묻은 게, 그렇게 도섭을 한데. 피묻은 것이 도섭을 하고, 인제 피같은 것이 이렇게 나뭇대기 같은데 묻잖어. 그러믄 그개 도섭을 해. [조사자 : 거기에 도깨비가 써요?] 어-, 그렇지. 도깨비. 도깨비가 귀신이 아니라. 지금은 도깨비 없잖어.

“너는 여기 들어오지 말고 나가라.”

구 막 때렸다. 그래서 깜짝 놀라 뵈니까는 이 오얏인 저기 영한 거지 오도록 떨어지더라. 근데 이 잘가냥 이게 죄 자리가 났더라. 거런 소리는 했어. 나는 못 봤어.

④ 산 허리 잘리워진 수수고개

안용준(67, 남)/봉무리T 1앞

[봉무리] 박종수, 강현모, 박은예, 임추자, 정경순 조사(1995. 11. 4.)

제보자는 시간을 아껴주신 고마운 분으로 현장 학습을 중요시 하였다. 이 마을의 행사를 직접 담당하는 분이어서 해설을 조목조목 잘 해주셨다. 마을의 행사를 주관하는 사실을 자랑스러워 하며 이야기 도중에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야기를 마치고 새로운 이야기를 부탁하였지만 자신이 듣지 않고 보지 않은 것은 절대 안 한다면 거절하였다. 제보자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해 주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마을이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산으로 이동하여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저기 빨간 직진같이 땅에 흙이 보이지. 저기. 그것이 왜 그냐면 옛날

에 임금을 얹고, 왜 그러냐면은 이 장부고니 고개를, [조사자 : 장보고?] 응. 피난 나왔을 적에 얹고 갔다 그런 말이여, 저길.

그래서 그 분이 이쨌데. 왜 그것이 뭐냐면, 그렇게 임금을 엮구 갔다고 해서, 그 죽을 적에 군으로다가 이렇게 붙였어, 그 사람을. 임금의 아들이 아닌데 군으로 붙였다구.

그러는데 그 자리에 묘를 썼을 적에, 그게 묘를 썼었는데 저기 짚록 하지, 저기가. 게 이동박문이가 그 묘를 쓰고 왔는데, 왜 그러냐면 큰 장사가 난다 해서 그 허리를 꿰었어. 산을. [조사자 : 네! 짚랐어요?] 예. 허릴 꿰었지. 응 그래서 꿰어서, 왜 이러냐면 저기가 옛날에는 그 거기서 꿰을 적에 피가 흘렀다 그런 얘기야.

그랬는데 왜 이러냐면, 에 피고개라 할 수가 없어서 그 뒤에 수수고개라고 바꿨어. 수수깡 잎파리가 이렇게 빨경지. 그래서 수수고개라 했다 그런 얘기야.

5] 아기장수 전설

안용준(67, 남)/봉무리T 1앞

[봉무리 1리] 박종수, 강현모, 박은예, 임추자, 정경순 조사(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이곳의 마을에 대해 설명하는 도중에 생각이 났는지 계속하여 구술하여 준 것이다. 산 위에 서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명을 일일이 손으로 가리키며 구술하였다.

글세. 수수고개. 인저 그런데, 이 밀창에 굴봉산에 면소재지 있는데, 굴봉산이라는 데가 있어. 거기서 고개를 꿰고 나니까, 거기서 용마가 말이지. 뛰어 나와서. [조사자 : 용마?] 용굴이 있단 말이여, 거기에. 예. 그래서 용마가 있다 해서, 왜 그러자면은 그냥 뛰어 내려서는 거기서 용마가 죽었다는 거여. 그래 굴이 있어, 거기.

그랬는데. 그러구 나서 용마가 죽구 난 다음에 고 건너 부락에서, 왜 이러자면은 어린애를 낳는데, 벽구에 붙구 천장에 붙어섰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용마가 죽구 나서 그 어린애도 죽었다구. 멧돌대가 짝어 눌러 죽었어. [조사자 : 진짜요?] 그래 진짜지. 이게 그건 모르는 얘기가야.

그래서 나만 인저 에— 우리, 여기가 인저 7대까지 여기서 사시는데, 요기 봉백산여, 이것이. 여 위에 와 보면 강당 바위가 있어. 삼 형제 분이 옛날에 인제 굴 입구 거기서 일하시다가, 왜 이러자면은 그래서 나는 시방두 옛날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삼 형제 분들이 내려와서 거기서 산신 기도두 시방두 내가 혀여. 그래서 그렇게 전설이 그런 것이 있어.

그래서 저기 그 모이가 이렇게 되 있구. 그래 이서방네, 그 경준 이서방네 그 산이야. 그래서 이 장군, 임금이 가서,

“너는 뭐이가 소원이냐?”

그러니계시리 배우지 못했으니께, 그래서 옳구 올라가셔가지구 저 위에 가서, 저 꼭대기서,

“이 아래 보이는 산을 다 주시우.”

그래서. 그 이 산이 경준 이서방네 산이었어. 이게. 시방은 인저 다 인저 하나하나 풀려가지구 이렇게 됐지. 인자 끝.

⑥ 길을 내여, 다리를 놓아

장영희(58, 여)/봉무리T 1뒤

[봉무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박은예, 임추자, 정경순 조사(1995. 11. 4.)

전 마을 이장님 댁에서 정초의 줄다리기에 대해 듣고서 이야기를 채록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장소를 옮겼다. 마을을 옮겨 어느 집에 들어 가자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셔 부탁을 드렸다. 그랬더니 아주머니께서는 노인정 위치를 알려주시면서 그리로 가 보라고 하였다. 조사자들이 갈려고 하는데, 아주머니께서 붙잡으시면서, “내가 아는 얘기가 하나 있

는데 해주께.” 하면서 집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리고 앉도록 한 다음에 마을의 다리가 놓여지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 해주셨다. 아주머니가 이야기를 너무 재미있게 해 주셔서 피곤하던 조사자들도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즐거운 시간을 내 주신 아주머니께 고마움을 느꼈다.

옛날에 옛날에 한 사람이 살았었데. 근데 한 사람은 잘 살았데, 부자루. 알아 몰라? [조사자 : 몰라요.] 한 사람은 인저 가난하게 살았구. 그 집에 와서, 그 집에 와서 머슴을 살았데.

머슴을 사는데, 머슴 사는 색시가 되게 이쁘게든. 근데 그 사람은 옛날에 여기 다리가 읊었지, 인저. 그냥 냇갈 물이지 인저 큰 물, 사람이 못 건널 정도루. 그런 옛날 얘기야. 잉?

그랬는데 근데 여기 와서 머슴을 살고 있는데, 고 영감이 고 부인을 꼭 한 번 봤으면 좋겠더라. 응. [조사자 : 머슴 사는 부인요?] 응. 머슴 사는 사람의 부인을. 응. [조사자 : 한 번만 봤으면!] 한 번만 자기가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그 놈의 물때매, 돌아갈라든, 돌아가라든 굉장히 멀리 돌아간단 말이야.(일동웃음) 돌아서, 돌아서, 이 영감님이 거시기, 머슴을 이 일꾼이라고 해. 딱 인저 시장을 보내고, 보내고 인저 거길 돌아서 갔어. 가가지구 하는 소리가,

“어이 새닥! 신랑이 오늘 내가 장애를 보냈더니 에기를 가졌대며!”

그러니까.

“예!”

“근데, 다리를 하나 안 만들었다구, 날더러 가서 다리를 만들라구 그러대.”

다리! 발, 발. 이 다리, 이 다리.

“아이, 그러시냐?”

구. 그래서 둘이 동침을 했어. 했는데 하구 딱 왔단 말여. 이 영감 와서 시침을 딱 떼고 있는데, 이 여자가 어시룩 해니까, 저녁에 신랑이 들어왔는데,

“아니, 무슨 영감님보구 다리를 하나 맹글라구 허소, 애기 다리를 들 맨들었다며, 당신이! 그래서 애기 다리를 하나 만들자구 해서 만들었다.”

구.(웃음) 영감한테 내가 당했으니까 복수를 해야겠구나. 그래 영감님이 시장에 간 틈을 타고 그 집주인 딸이 있어. 어 막내 딸이 있는데,

“아가씨! 얼마 있다가 결혼을, 결혼을 헬게 아납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걸 길을 내렸는데, 길을 내렸는데, 내가 날더러 길을 잘 달여서 길을 내라 그랬는데.”

데리구 잔거야. 그러니까 딸이,

“아버지! 내일 길을, 모레 얼마 안 있으면 시집두 갈텐데, 무슨 아무게, 김씨면 김씨, 박씨면 박씨한테 무슨 다리를, 아니 길을, 길을 내라구 해서 그하구 잤다.”

이거야! 하 그런데 이냥, 승질은 서로 급해지. 이 노인네가 막 화살같이 건너 가서 고 이렇게 마주보니까. 동네에다 대고,

“야 임마! 길을 내여! 길을 내여!”

그라고 막 욕을 한단 말여, 아무렇게나. 고 다리를 인저 그 물 물 사이를 놓고 못 건너가구. 그리 건너갈라면 한참 걸리니까, 승질이 급하지. 그러니까 꼴장 가가지구.

“임마! 길을 내여! 길을 내여!”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알아 듣구, 요 영감이 올거다 딱 나와 갖구
“다리를 맨들어! 다리를 맨들어!”

그래가꾸.

“길을 내?”

“다리를 맨들어?”

“길을 내?”

“다리를 맨들어?”

막 싸운거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듣다가,
“하하! 저 같하고 다리 때문에 저렇게 싸우는구나!”

그래서 이 다리가 놔진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다리가 놔지구 길이 난 거야. 길을 다 이리저리 뚫구, 산업도로도 만들구. 알았죠? 처음 들었어요? [조사자 : 예. 재미있다.] 됐어. 그만 끝내.(웃음)

⑦ 부모가 원한 물건 구한 효자

이규동(62, 남)/봉무리T 1뒤

[봉무리 노인정] 박중수, 강현모, 박은예, 임추자, 정경순 조사(1995. 11. 4.)

조사자들은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알려준 노인정으로 자리를 옮겼다. 노인정에서 출구를 찾고 있을 때 어떤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노인정에는 5~6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화투를 치며 담배를 피워 연기가 가득 차 숨 쉬기가 곤란했다. 조사자들은 찾아온 목적을 말하고 해주실 만한 할아버지를 찾아 말을 걸었다. 처음에는 아는 것이 없다고 하다가 조사자들의 간곡한 부탁하자 한 할아버지께서 자청 하였다. 제보자의 목소리는 높고 가늘며 좀 탁한 목소리이기에 알아 들을 수 있을지 고민 되었지만, 다행히 또박또박 말씀해 주셔서 이해하기 쉬웠다. 작은 키에 수터분 하신 모습이 시골 할아버지 같아서 편안하게 들을 수 있었다. 조사자들이 이때 앵글 먹은 한 가지가 있는데, 한 할아버지가 들어오셔서 조사자들을 교회(영생교)에서 나온 사람들이라 나가라며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을 께방 놓았다.

(한 할아버지께서 영생교에서 나왔다면 이야기를 못하게 방해를 하자.) 야나 나냐. 내 들은 얘기라니께 그 낭반이(양반이) 어떻게 애길 하셨냐른, 누워 기시는 어머니가, ‘나 참...’ 응? 동지 셋달인데,

“난 참이가 먹고 싶다.”

[조사자 : 참외! 동지 셋달에?] 옛날에, 겨울기에. 지금은 온상하니까 되지만, 그때는, 겨울 때로서는 한두 같혀. 겨울때미 못헤니까로. 자기 심껏 하는 데까로, 인저 참이밭만 땡기는 거야 그냥.

차무(참외) 참이밭 있는데, 그때 참이를 이렇게 싸 냈으니까롱. 거기서 참이가, 그게 한쪽에서 그거는, 애 그걸 따다 드려서 그거 효도한 거 있구.

⑧ 지극한 효성으로 하늘을 올린 부부

이규동(62, 남)/봉무리T 1위

[봉무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박은예, 임추자, 정경순 조사(1995. 11. 4.)

앞의 효자 이야기를 하면서 같은 유형의 이야기라 생각이 나셨는지, 계속하여 스스로 구술하여 주었다. 이 이야기는 손순매아의 전설과 같은 유형이다.

에 그리구 또 한문책에도 나온 거. 그것도 하나 있는데, 그거는 소정 이라구 아실 곁? [조사자 : 소쟁이?] 솟정! [조사자 : 소정?] 소정! [조사자 : 아, 솟정!]

그 낭반이 어땡 해냐믄. 하두 가물어서 인저 송년이 들었는데, 송년이 드는데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을 제 식구 먹을 게 읍지. 아들 줄 거 읍지? 그러니까는 두루 가서 뭐라고 하느냐믄, 손자가 이냥 그 할머니 갖다 드리믄은, 손자가 뺏어먹는 거여, 손자가. 손자가 뺏어 먹으니까는 뭐, 뭐라냐믄 자기 마누라부터,

“우리 이, 우리 애때메 어머니 얼마 못 사니까루, 우리 애를 갖다 잉, 뒷동산에 가서 잉 묻고 오자. [조사자 : 하?] 아우. 응. 우리는 낳으면, 나면 응 자식이가루 갖다 묻자.”

구. [조사자 : 낳면 되는데, 대게 하나밖에.] 응! 그러니까는 우리는 어머니는 돌아가시면 못 사고. 애는 나믄은 응 우리 자식이가루, 우리 이 애가 뺏어갖고, 할머니 머 자꾸 갖다 드리믄은, 이 늙이 가서 뺏어 먹으니까루 할머니 잡술께 있어. 그런께 고걸 가서, 그러니까로 그 안식구가

그러는 거여.

“아, 그러자.”

구. 그런데 그 어린애를 업고, 그 어머니는 자기 아들, 애를 업고 뒷동산에 가구. 또 자기는 인지 지 삼을 매구 또 인지 뒤 쫓아가는 거여. 쫓아가서 파는데, 땅을 파는데 항아리가 나온단 말여. 응, 이상하게. [조사자: 애를 묻을려구 하는 태요?] 응! 땅을 파는데.

“이거 이상스럽다. 응? 이상한께루 우리 이것 애를 묻지를, 저 묻지를 말고, 우리 저기 나라 임금님께 한 번 바치자.”

잉. 그래 임금님한테 가니께, 이게 항아리가 아니라 좋은 항아리니까로, 임금님이 그 자기 벽을 거 삼백 냥인가 이백 냥 주구. 상급 주구, 그 애두 안 죽이구. 효도 상두 타구.

그런 얘기라면 내가 요, 요거는 어디 가냐른, 에 구한문 여, 저거 여 한문책 있잖여. 명심보감 고 구절에도 약간 나오더라고 거 야중에 읽어 보시믄 알이요 난 고고는 봤으니까노 에 그 본 얘기는 내가 하고 듣구, 고거는 명심보감에 거기에 거기 뭐? 효행편인가 고기에 쪼끔 나왔구. 내가 고런 거는 얘기해 드리는 거구. 다른 거는 자세히 몰르구.

9 호랑이와 꽃감

이규동(62, 남)/봉무리T 1위

[봉무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박은예, 임추자, 정경순 조사(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제보자가 잠시 이야기관에서 물러났다. 그래서 조사자들은 할아버지께 옛날에 들은 이야기를 해 달라고 조르자 모르겠다며 모두 물러앉았다. 그래서 제보자에게 다시 부탁하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심술장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주변이 소란스러웠다.

우리가 지금 응? 애들 가르키기도 힘들지유. 응 또 옛날엔 더 심들었

시요. 근데 저 인저. 어린애가 우는 거여, 어린내가. 방에서 막 우니까로, 어린애가 암만 배가 고프거던. 배가 고파 우는 애를 뭘루 달래. 배가 고파서 우는 애를. 어머니가 젖이 있으면은 젖이라두 주는데, 젖이 모자르니까는 그냥 먹두 못(못)해 자꾸 우는 거여. 그런까는 애가 우니까루, 호랭이는 배깁에서,

“으르릉! 으르릉!”

해두. 문 배깁에 서서. 호랭이가 와서 잡어 먹을라구. 근데 ‘으르릉 으르릉!’ 하니까는, 즈 어머니가 하는 말이,

“네! 우리 응? 널 뭘 주래, 뭘 주래?”

해두. 그냥 우는 거여, 애기가. 애기가 우니까로, 호랭이는 배깁에서 자꾸 이걸 문을 드룩드룩 긁, 긁으니까 뭐라냐믄, 난 옛날 애기 듣고 하는 거여, 그거는. 그니까는 뭐라냐믄, 즈이 어머니가,

“아가야! 우지마. 응? 호랑이 왔다.”

해두 울지. 호랭이가 배깁에 있는 데두, ‘너 울지 말라’두, ‘호랑이 왔는 데두’ 애가 우는 거여. 이냥. [조사자 : 모, 모르니까.] 예! 우니까는,

“아가야! 너 우지마. 내 에 꼬잠 주께, 우지마.”

그래 꼬잠을 준다니까, 애가 딱 꼬치는 거여. 그러니까 호랭이가,

“아! 나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호랭이가 이냥 도망을 갔데요. 거 애는 울음 울음두 꼬치구. 이런 데는 저기 옛날 애기 있구. [청중 : 아, 자네가 무슨 얘길 하는 거여. 게.]

10 독장수의 꿈

박봉여(63, 여)/봉무리T 1위

[봉무리 자택] 박중수, 강현모, 박은예, 임추자, 정경순 조사(1995. 11. 4.)

조사자들은 방해꾼 때문에 소란하여 노인정에서 나와 마을 안쪽으로 옮겨 집집이 방문하였다. 할머니가 계실 것 같은 집을 방문하다가 메주를 찜고 계신 한 할머니를 발견하였다. 나이는 할머니이었지만 걸으로는 아주머니라고 해도 될만큼 정정하셨다. 죄송스럽긴 했지만, 메주를 찜는 옆에 가서 찾아온 목적을 말하자, 아주머니께서는 잘 모르신다고 하였다. 제보자가 안 해주려는 것을 메주를 찜어드린다고 하면서 억지로 시작시켰다. 여러 차례 부탁을 하자 이 이야기를 구술하여 주었다.

(옹기집을) 짙어지고 가다가는 먼 산에 보다가는, 짙어지구 앉았다가, 아가씨 보구 앉았다가. 허부적 허부적 해가지구, 고기 한 짐이 다 부서졌다! 그라가지구 앉아서 통곡을 했다!(조사자 웃음) 통곡을 해다가는 집에 가니께,

“머 하구 왔느냐?” 니께는,

“아가씨 보다가, 버지덕 거리다가 다 깨뜨려 버렸다.”

구. 그러구 왔디야. [조사자 : 별 얘기두 아는데.] 뭘, 별 얘기여. 별 얘기가. [조사자 : 야냐. 그리구 에 속 속이 있어요. 말씀올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 그래서 뭐야. 엄마 아버지한테 혼나구는 옹기를 절대 안지고 가드랴. 옹기 팔러 다시 안 가드랴. [조사자 : 근데요. 보다가 그랬다구요?] 응!. 아가씨 보다가. [조사자 : 그냥 그냥 보다가? 예. 아닌 거 같은 데요.](조사자들은 야한 이야기라며 구술하여 주지 않으려는 할머니에게 절구대를 빼앗어 찌면서 해달라고 하자 구술함.)

[조사자 : 해주세요. 아시면서.] 별떡벌떡 하다가는, 허부적 하다가는 옹기집을 다 깨뜨렸다. [조사자 : 근데 그게 뭐예요? 아저씨 무슨 어떻게 했다구요?. 별떡벌떡 했다구요?. 왜요?] 꼬추가 별떡벌떡 일어나서. (웃음) [조사자 : 진짜요?] 그랴. [조사자 : 그래서 옹기를 찼대?] 그래서 옹기 밀창에서 버쩍버쩍 하다가는, 아가씨 보구서는 그 늪을 가지고 주 무르다가는, [조사자 : 깨뜨렸다구?] 옹기집이 훌쩍 넘어갔다. 그래 앉아서 통곡을 했다.(일동 웃음) 젊은 아가씨 땀에. [조사자 : 또 땀 옹기장수 얘기 없어요?]

땀 옹기 장수가 뭐가 있어. 그것 뻘에, 그것 뻘게 못 들었다.

“저 년 땀미 다 깨뜨렸다고, 아이구 어떻게 하느냐?”
구. 앉아서 통곡을 하다가 집에 가갖고 혼났데 잔여.

Ⅱ 오누이의 집 지키기

교회집사(?, 여)/봉무리T 1뒤

[봉무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박은예, 임추자, 정경순 조사(1995. 11. 4.)

웅기 장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다시 마을 안쪽으로 더 옮겼다. 그러나 할머니들은 하나같이 다 모르신다고 하실 뿐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다. 이때 교회 집사님이라는 분을 만나 무조건 잡고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자, 집으로 가서 하자며 우리를 방으로 데려가 주셨다.

옛날에 옛날에, 옛날 사람이 옛날에 옛날에, 응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딸 하나에 아들 하나가 있다나. 그런데 지 엄마가 가난하게 살았어, 지 엄마가 바느질 품 팔러 땀뻘대. 그런데 계(그 애)들 보러,

“누가 와서 문을 열어 달래도 열어 주지 마라.”

하구 갔는데. 한 번은 누가 와서, 지 엄마 소리를 하더라. 요렇게 문구멍으로 내다본게 엄마가 아니더라. 그래서 가만히 있을게로 인저,

“떡 하나 줄게 문 열어 다오”

그래서,

“떡 하나 주면 문 열어 달라나, 그랬다냐? 그랬다냐.”

그래서 이렇게 손을 내밀으라 드라. 그래서 이렇게 보니께 호랭이드라. 그래서 안 열어 주구며 어쨌다구드마. 다 몰라. 다 잊어 먹어서 그런게 못현다지. [조사자 : 문 열어 주었대요?] 그래서 안 열어 주었데.

안 열어 줬는데, 어떻게 문을 긁고 들어 왔나 봐. 그래가꾸 애들을 다 잡아 먹었대. [조사자 : 호랑이가?] [조사자2 : 애들을 다 잡아 먹었어요?] 그런다고 그려. 이것두 이것두 영터리인지 뭘 알라? 몰라. 그래서

옛날에 그런다구 허대. 그것두 내가 다 모른게 못혀. 왜 그렇게 잊어 먹는지 몰러.

12 도깨비 이야기

지성해(63, 남)/봉무리T 2앞

[봉무리 제보자택] 박종수, 강현모, 정난영, 김지현, 조은이 조사(1996. 11. 26.)

앞에서 민속에 대해 여러가지를 조사를 마치고, 전해오는 다른 이야기가 없냐고 물었지만 아는 것이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도깨비 대해 묻자 들은 이야기라며 구술하여 주었다.

들은 건 많지만 자세히 아는 얘기는 없어.

어느 집안이구 뭐 저 소당 뚜껑을 솔 안에다 집어 넣구 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 노인네들이 말야 우리를 놀려 주려구 말여, “어느 모퉁이 가면 달걀 귀신이 있다구. 지나가지 말라.” 구. 그러구 이런 저기가 있었지. 그런데 그것이 아- 노인네덜이 꾸며서 한 얘기 같야. 지금 생각해 보문.(웃음)

13 아들을 묻으려는 효자

유근영(68, 남)/봉무리T 2앞

[봉무리 제보자택] 박종수, 강현모, 정난영, 김지현, 조은이 조사(1996. 11. 26.)

여러가지 민속 조사를 마치고 이야기를 부탁하자 ‘무슨 얘기를 해야 하는냐’ 조사자에게 물었다. 그래서 ‘효자에 관련된 얘기 없느냐’는 물음에 대해 구연한 이야기이다.

옛날에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두 내외가 있었어. 없는 살림이라 부모님 공양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음에도 두 부부는 열심히 어머니를 공양하였지.

그런데 이들 부부에게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어머니께 드리는 밥이며 반찬이며 모두 뺏앗아 먹는 거였어. 아무리 좋은 반찬을 해 드려도, 아들이 다 먹으므로 어머니는 제대로 드시질 못하였어.

이를 안타까워 하던 부부는 곰곰히 생각한 끝에, 아들을 산에 묻을 생각을 해내었어. 자식은 또 낳으면 되지만 부모님은 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날은 아버지가 지계를 준비하고 아들에게,

“좋은 데 가자.”

고 속여서는 지계 위에 아들을 태우고 산속 깊이 들어갔어.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아버지는 아들을 묻기 위해 땅을 팠지. 땅을 파자 커다란 석종이 하나 나왔어. 아버지는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다시 지계에 태우고 석종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

그 소문은 사람들의 입을 거쳐 성안의 임금님에게 까지 전해지게 되었지. 임금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 부부에게 큰 상을 내려, 부모님 공양 잘하고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하여.

그리고 그 석종은 임금님이 계신 궁에 갖다 놓고, 그것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효의 모범으로 삼았다고 하여.

14 삼 형제와 여우

유근영(68, 남)/봉무리T 1앞

[봉무리 제보자택] 박종수, 강현모, 정난영, 김지현, 조은이 조사(1995. 11. 26.)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생각이 나지 않는지 이야기 구술이 중단되었다. 그래서 조사자 여우 이야기를 부탁하자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주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소장사 하는 집이 있었는데 아들만 삼형제가 있어. 부부는 딸 갖기를 소원하며 정성기도를 드리면서 여우라도 좋으니 딸 하나만 점지해 달라고 기원하였지.

그 후 아내가 태기가 있는 지 10달 만에 딸을 낳았는데, 인물이 빼어났어. 부부는 딸을 금지옥엽처럼 아끼고 사랑했다. 그런데 언제 부턴가 팔려고 매어둔 소가 매일밤 죽는 것이었어. 집안 식구들은 이상히 여겼으나,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어느 날은 아버지가 큰 아들을 불러,

“누가 소를 죽이는지 잘 살피라.”

고 하였어. 큰 아들이 밤에 보니, 누이동생이 부엌에서 기름을 가져다 손에 바르고 소 똥구멍에 손을 집어넣고 간을 쭉 빼먹는 것이여. 이 일을 아버지께 이르자, 아버지는 노발대발 하며 꾸짖었어. 아버지는 이제, 둘째 아들에게 지키라 했는데, 둘째도 여동생이 손에 기름을 묻혀 소 간을 빼 먹었다고 아버지에게 일렀어.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이 지키게 되었는데, 막내도 자기 동생이 간을 빼먹는 걸 보고는, 삼 형제는 이래선 안 되겠다 생각하고 무당집엘 찾아갔대. 무당은,

“어느 곳에 가면 하얀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하면 빨간병 파란병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알려 주었데. 삼 형제는 무당이 알려주는 곳에 가서 할아버지에게서 빨간병, 파란병을 얻어가지고 집에 왔어. 집에 돌아와 보니 이미 집은 폐허가 다 되었고, 어머니와 아버지도 계시지 않고 여동생만 집을 지키고 있었어. 삼 형제는 동생을 피해 부리나케 도망을 가는데 누이동생이 뒤쫓아 오니까 파란병을 던졌데.

그러자 큰 물이 생겨 동생을 따 돌릴 수 있었지. 그러나 여동생은 물을 건너 곧 삼형제 뒤를 바짝 따라 붙었어. 삼 형제는 빨간병을 뒤로 던졌는데, 큰 불이 일어나 누이동생은 타 죽었데.

결국 삼 형제만 살아남았다는 얘기에.

2. 방아리

1) 마을개관

박종수, 강현모, 윤지선, 류수민, 김혜정, 구수미, 최주영, 홍현정 조사
(1995. 11. 4., 1996. 6. 9.)

용인에서 낡은 버스를 타고 넓은 들판을 질러 아곡리를 지나 4~5분 후에 도착한 마을이었다. 조사자들이 처음 이 마을을 조사한 것은 한창 추수기라 사람들이 거의 눈에 띄지 않고 조용했다. 마을 앞에 널리 펼쳐져 있는 논에는 젊은 사람보다 노인들과 아이들이 많다. 이곳은 벼농사를 주로 하고, 비교적 정리되어 있는 마을회관과 축사들이 깊은 인상을 주었다.

방아리는 새로 생긴 마을인데, 처음에는 거지도 많았고 어려웠다 한다. 이 마을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현내면 지역의 방축리와 남촌면의 아곡을 합하여 방아리라고 칭하여 남사면에 편입시켰다. 이 방아리는 크게 네 마을로 나뉘어졌다. 보통 시골 농촌이라 생각하여 안 좋게 상상하였는데, 잘 정돈된 길과 다니는 많은 차들이, 깨끗하면서도 한적한 분위기를 연출하여 기분이 상쾌해지기도 했었다. 이런 것은 이 방아리 젊은이들이 협동하여 지금과 같은 평화로움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이 마을이 한적하게 보인 것은 기계로 농사를 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일꾼도 많이 필요 없다고 한다. 조사한 날이 일요일이어서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게이트볼 시합을 하러 갔고, 부녀자들도 놀이를 갔다 하니 부촌이 아닌가 싶다.

버스에서 무작정 내려서 방아리를 물어보니, 보이는 곳 전부가 방아리라고 했다. 상쾌하던 기분도 잠시 조사일정이 막막해기만 하였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 한 집에 무조건 들어가, 이 마을에서 오래 사신 분으로 이야기를 잘 해 주시는 분을 소개시켜 달라고 했다. 소개시켜 준 곳을 찾아갔더니 방아리 토박이라는 할머니를 만났으

나, 수술 이후로 아무 것도 모르지만 놀다 가라며 놓아주지 않았다.

조사자들은 왔던 길을 다시 나와, 노인정이 있는 마을로 찾아갔다. 그 노인정에서도 음료수는 물론이고 점심까지 얻어 먹을 수 있는 인정이 많은 모습을 보았으나, 조사자들이 원하는 이야기의 채록은 별로 정확이 없었다. 조사자들이 마을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으나 대부분 빈집들이어서 집집마다 들어가 얘기를 해 달라고 때를 쓸 수밖에 없었다. 찾아온 목적을 말하자 긴장하며 어색해 하는 바람에 곤란하였다.

조사자들은 다음에 6월 9일에 이 마을을 다시 찾아가게 되었다. 이때 노인정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2편 정도 듣고, 한 할머니의 소개로 찾아가던 곳이 1차 조사 때 2편을 채록한 정남기할아버지 댁이었다. 그곳에 점심을 얻어 먹으면서 이야기를 채록하였으나,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채록하지는 못하였다.

2) 설화

① 개떡을 해 딸네 집에 간 사람

황춘수(70, 여)/방아리T 1앞

[방아2리 마을회관] 박종수, 강현모, 윤지선, 류수민, 김혜정 조사(1995. 11. 4.)

수수께끼를 마치고 조사자들이 두 조로 나누어 조사를 시작하였다. 이때 제보자에게 열네 이야기나 어떤 이야기도 괜찮다고 하자 구술하기 시작하였다. 제보자가 구술할 때 방안에는 5분의 할머니가 계셨는데, 서루 미루다가 제보자가 수수께끼를 내면서 이야기 판이 형성되었다.

이거는 나도 들은 소리 애긴데, 그전에 옛날에 저기, 그렇게 가난해고 어려웠데. 그래가지고서는 이냥 딸을 시집을 보냈는데, 아무 것도 못 해 주고, 그냥 엄마 아버지가 기냥, 옛날엔 다 그렇게 보냈잖아. 그래놓고 그랬는데, 딸네 집을 삼 년이 돼도 안 갔데요. 안 가가지고서는 이 저 아버지가,

“아휴, 세상에 자식을 남들 주고서 한 번도 가보질 않아서 가 봐야겠

다.”

고 그렇게 엄마가, 그때만 해도 조금 딸 보낼 때보다 더 나아졌는데, 썩을 뜯어다가 이거 쌀을 해가지고, 또 개떡을 해가지고, 개떡을 해서 이렇게 싸가지고 버(보)재기에다 돌돌 말아서 허리에다 이렇게.

아버지가 땡기고 후루메기 입구 그래구 갔는데, 가니까 딸네 집을 가니까, 딸이 그렇게 부자가 되가지고, 지금 어려운 집에 갔는데 부자가 되가지구서는 세상에 그냥 갔는데, 개떡을 어따 내 놀 수가 없더라.

하두 식모 두고 그래요. 그냥 그 친정 아버지가 갔는데, 세숫물도 떠다 바치고, 뒷간에도 가며는 그냥, 그냥 참 밀두 씻겨 줘. 이노무 개떡을 질머지구서는 그냥 갈라무는, 그냥 딸이 못 가게 하구, 사둔두 못 가게 하구. 그러니까는 그냥 있는데. 방에서 시어머니가,

“아이, 에 뭐가 이렇게 썩는 내가 난다.”

이 개떡을 쳐 메고 있으니까, 거기서 등어리에서 썩는 거야. 살에서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아이,

“어머니! 뭐 썩는게 없는 데요.”

그러니까 기냥,

“뭘 암만해도 썩는가 보다.”

그러니까 며느리는,

“없어요.”

이 아버지는, 이걸 어디다 버려야 할텐데 당체 버릴 수가 없더라. 뭐 밥상도 갖다 놓고 이걸 다 먹을 때까지 지키고 앉아 있고 똥 누러 갈 때 쫓아오고, 기냥 세숫물도 떠다 바치고 그래니까. 그래가지고선 인제 한, 그래도 거기서 몇 칠을 묵었데. 그렇게 잘 해주고 그래서.

“아이, 이젠 가야겠다.”

딸보고, 그런게,

“아버지! 더 계시고 가시라.”

고 그랬네. 게 어느 내동(나중)에 노비덜이 죄 모시다 주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집을 왔는데 인제. 그 마누라가,

“아휴. 게는 그래 어떻게 살아유?”

그래니깐,

“이미, 허구 많은 떡에 왜 이렇게 개떡을 했느냐.”

고 그래면서 갖다가 그냥 집에다가 죄 불러가지구 냅다 집어 팽게 치니까 개떡이 끊어가지고 그냥 똥마냥 딱 떨어지더래요. 그래케 친정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 해구. 기냥 딸이 잘 사니깐 인지. 친정은 이렇게 딸이 잘 사니까, 기냥 많이 대주구 그래가지구 양쪽집이 다 그렇게 잘 살더래.

그냥 그래 얘기두 난 짧게 해지 뭐. 그랬다구 그래네. 노인네들이 그래드라고. ‘사람이 있으면은 음식을 해두 좋게 해가구, 없이 살며는 왜 떡을 해두 왜 해필 개떡을 해 주냐.’ 노인네들이 그래면서, 자식이라두 잘 살구 그래면 저기 해구, 그런데 못 사니깐 그렇게 해 줬다구. 할머니들이 그전에, 우리 할머니들이 우리더러 하시는 소리, 어려서 들었는데. 그래 노인네들이 았으면 뭐 그냥 우수한 얘기만 하지. 또 그래구선 책 얘기 했는데, 그건 아주 길구. 저, 다 잊어 버렸어. 몰라.

② 승무가곡노인탄

정남기(73, 남)/방아리T 1악

[방아리2리 제보자택] 박종수, 강현모, 윤지선, 류수민, 김혜정 조사(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장소를 옮겨 이런저런 말씀을 하다 효자에 대해 생각이 나셨는지 구술하여 준 것이다. 이 이야기는 50년 전인 장가들 후인 20살 정도에 들었다고 한다.

‘아까 켜 나왔죠? [조사자 : 그럼 들어가 있죠. 얘기하시면 돼요.] 지금 부터. [조사자 : 예, 녹음되고 있어요.]

그 왕이 계셨는데 그 왕께서 신하를 하나 데리고 민간 평복을 하고

응? 민간 평복을 하고 이 백성들이 어느 정도 하고 사나 하고 시찰을 나온 거예요, 왕이. 그래서 한 곳에 이렇게, 아주 무인지경, 옛날엔 집도 많지 않고 길도 잘 안 되어 있고 하나까. 산예를 가다가 무인지경을 당했어요. 갈 때 오갈 때를 방향을 잘 잡을지 모르는 산골에 들어갔단 말 이야.

그래서 한 곳엘 가다 보니까 요행히, 다행히도 초가집이 하나 보여요. 그래 두 사람이 거길 갔는데, 가다 지나가다 들으니, 에 곡소리가 나고 노랫소리가 나고 그래요. 그 집에서. 그래서 인제 그 왕은 거기 앉었고, 한 선비가 가서 엿을 듣다가, 들으러, 들으러 들어간 거예요.

가서 들어가진 못하고 바깥에서 들으니까, 문틈으로 찢어 들여다 보니까 노인은 곡을 하고, 여승은 춤을 추고 아들은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사람이란 맞지 않는 일이에요. 노래를 불르면 다 불러야 하고 울으면 다 울어야 되는데, 노래 소리하고 곡하고 섞였다는 건 이게 이치가 있을 건 아니에요. 그래 도로 가서 고 선비한테 고했어요.

“이렇더라.”

하니께.

“그러나!”

구. 그래서,

“에, 그러면 괴이한 일이다. 가 보자.”

그서 두 분이, 두 선비가 그 집엘 들어가서 주인을 찾으니까, 그 아들이 문을 열고 나와서 반갑게 맞이 해요. 반갑게. 그래 들어갔죠. 들어가서는 에 그 연유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인은 밥상머리에 앉았는데, 그 두되 산골에서 흰쌀 밥에 고깃국 앞에 놓고 그래 우는 거예요. 에 이런 데서 이런 그 쌀도 볼 수도 없는 곳에서 고깃국에다 쌀을 밥을 앞에 두고 운다는 것이 이상해서 자세히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수일 전부터 자기 부인이, 부인이 항상 잠을 이루질 못하고, 걱정을 하드라.”

이거여. 에 부인이. 그래서,

“왜 그러냐?”

고 물으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몇 일 있으면 아버님 생신인데, 며칠 있으면 보통 생신도 아니고 회갑이신데,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뭔가 그날만은 진지래도 참 좀 제대로 한 번 해드렸으면 해서 그런다.”

고 그렇게 워낙에 가진 게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초근목피로 생활하는 사람이 그런게 있을 까닭이 없죠. 그래서 그 부인이 하는 말이,

“헐 수 없이 내가 하나가 머리, 생각 나는게 있으니 그대로 해 달라.”는 거여. 남편을 보고

“그래, 나는 그게 뭐냐고 얘길 해 보라.” 니젠.

“내, 이 머리를 깎으라.”

는 거요 자기 머릴 깎으라. 그러니까 이게 남편으로서 차마 거 뭐 깎을 수가 없죠. 그런데 부인이 가위를 가져와서 머리를 자른 거예요 자기 머리를. 그런데 기왕 깎은 거니까, 에 그 머리를 싹 깎어야 되겠다 말이여. 그래 남편이 할 수 없이 울면서 이놈의 머리를 다 깎어준 거여. 그런데 머리를 잘 싸매 줬지. 지금은 머리를 뭐 대응 머리도 나오고 해서 필요가 없겠지만, 옛날엔 머리라는 거 가치가 있었던 말이여. 그래 그걸 가서, 어느 장날인데,

“거기 가서 팔어 가지고 오라.”

고 시켰지.

“팔아 가지고 고기도 좀 사고, 쌀도 좀 사고 아버님 해드릴 건 해 가지고 오라.”

고 이렇게 시켰어요. 그런데 그 두메 산골에서 그 시장꺼정 갈려면 상당한 시간을 소요해가지고 가서 왔다 말이여. 거 참 그 부인이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왔어. 머리를 팔어 가지고 쌀도 사고 고기도 사 가지고 온 거여. 그래 이제 그 부인은 가족들한테 거 머리 자른 흔적을 안 보일려고 수건을 쓰고 다니는 거여. 그래서 그 아버님 생신 그날 준비했던

거니까 잘 차려서 조반을 차려낸 거여.

차려 내니까 아버지가 그 모를 리가 없죠. 고기라는 거 구경도 못하고, 쌀이라는 거 듣지도 못하는 일인데. 그렇게 차려다 아버지 앞이다 놓구서 내외가 부복하고서,

“많이 잡수라.”

그러는데. 그런게 이제 그 며느리를 뒤 아버지가 쳐다보니까, 머리를 짝은 흔적이 수건 틈이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생각에는 그 매느리의 효심도 지극하거니와, 그 두 사람의 그 정성이 참 보람있는 거 아니란 말이여. 그러니까 그냥 통곡을 한 거여, 먹지를 못하고 [조사자 : 먹지도 못하고요?] 못 먹구. 그냥 밥상을 받아 놓구 못 먹지. 그냥 통곡을 하는 거여.

그러니젠 오늘은 어버님이 즐거우신 날이니깐, 매느리는 춤을 추고 그 아들은 노래를 부르는 거여. 그러니젠 노래와 곡과 모두가 한데 합친게 되게 그게 원인이예요.

그래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그 왕이 가만, 왕은 그 사람들을 모르지 만은, 왕이 생각을 하니께, 참 그런 효자가 없어요. 효자는 나라에 충성도, 충신이 될 수가 있는 거여. 효자는. 그런게 그 왕이 ‘야! 이런 사람을 나라에다 데려다가 두면은 참 충성을 다 할 꺼다.’ 생각해서 쪼그만 쪽지를 하나 써 줬어요. 뭐라고 써 줬냐면, [조사자 : 누구에게요. 아들에게요?] 그치. 아들에게 써 줘서,

“이걸 갖다 고을 원한데 갖다 줘라. 그러고 우리는 과거보러 가는 사, 선비들 인데, 어느 날이 과거니까, 과거일이니까 그 날 꼭 오라.”

했다 말이여. 그래니까 공부는 해야, 하는 척이 사람이란 말이요, 주인이.

“그래 그날 꼭 만나자. 고 거기서.”

그래 이제 뭐 지필묵 살 돈도 없구,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 행장도 차릴 수 없는 사람이니깐. 잉 대답은 했죠, 고마우니깐. 그래 그 쪽지를 갖다 원을 주라고 하니깐, 그러고 저 갔어요. 그러구,

“그날 만나자. 과거장에서 만나자.”

하고 잤단 말이여. 그래 이 저기 원을 갖다. 고 옛,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의 군수쯤 되죠? 갖다 주니깐, 왕의 이 명령이여. 그래 거기서 이냥 바리바리 해 보낸 거여. 쌀도 보내고, 돈도 보내고, 뭐 피륙도 보내고 다 보내준 거여. 주라는대로. 그래 인제 그걸 받아가지고서 보니깐, 난데없이 부자가 뒀단 말이에요. 그집이.

그러니께 ‘그, 그 선비들이 과절보러 간다고 하고 그날 만나자고 했는데, 내가 거기를 가야겠다.’ 인자 결심을 쓴 거여. 뭐 피륙두 주고 했으니깐 옷도 준비될테고. 그래 그날 거기 과거장엘 간 거여.

과거장을 가서 과거를 보면은, 지금 학생들 거 시험 볼래면 뭐가 문제가 나와야 할 꺼 아니여. 그렇데끼 옛날에는 현판에 글이 걸려야 돼요. 그날 과거 영, 과거 그 제목이 나와야 된단 말이여. 그래 제목이 뭐라고 걸렸느냐면, 각 지방 선비들이 모여서 바글바글 있는 거여.

그래서 이 사람은 단독에 가가지고서 그걸, 현판에 이 걸림을 이렇게 글을 읽어 보니깐, 노인고 응? 자창, 노인고자창. 이 부인은 그거 춤을 쳤다. 그래서 중은 춤을, 여승은 춤을 쳤다 이렇게 된 거여. 승무노인곡이라고 이렇게 그 제목이 써 있는 거여요.

그래서 그걸 누가 알 사람이 읊어요. 뭐 암만 공부를 많이 하고 선비래도 그 과제를 풀을 사람이 읊어. 그러나 그 선비는 자기에 당한 일이여, 엇그제. 응? 자기를 엇그저께 당한 일이기뻔에 사실대로 써낸 거예요. 자기베끼 모르는 거여. 다른 사람은 알 리가 읊어. 그것 풀을 수가 읊는 거지.

그래서 인제 이거 다 수집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물론 합격을 한 거예요. 그 아들이. 그래서, 왕. 인저 왕 앞에 가서, 그렇게 옛날에는 베슬을 해서 합격을 허면 어조삼배하고 해서, 왕이 술을 숙(석)잔을 하사를 하게 되 있는 거예요. 술 숙잔을 하사를 해요. [조사자 : 술 석 잔을.] 술 숙잔을 따러 준단 말이에요. 왕이 직접. 그래서 그 그것만 먹으면은 그날 아주 완전히 인정이 된거지, 왕한테. 그래서 그 왕이 그랬다는 거여.

“경이 이렇게 나와서, 응? 이렇게 참 좋은 성적을 얻어서 고맙다구. 나를 쳐다 보라.”

구 그랬어요 ‘내 얼굴을 쳐다봐라.’ 그랬더니 얼굴을 들어서 쳐다보니깐 그때 봤던 선비란 말이에요. 응? 아버지 환갑날 왔던 그 선비란 말이에요, 왕이. 그제서야 사죄를 한 거예요. 보구두 몰랐으니깐 왕을 알 수가 있나요.

그래서, 거기서 사죄를 해고 있는데, 인제 그 이가 왕이 인제 거 어사 화라는 거 학생들은 다 알꺼 아니여. 어사화를 쓰고 피(귀)향을 했어요. 귀가를. [조사자 : 이렇게 개나리 그거요?] 응. 그걸 쓰고 그게 어사화 거등. 그걸 쓰고 집을 왔단 말이에요. 그런게 금의환양을 한 거지. 그래 왕이 베풀려고 하는 거여.

그리 다 불러가는 거여, 대궐로. 충신, 효자는 충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효심있는 사람에게 왕도 그만큼 충성으로 섬기게 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양반을 갖다가, 그렇게 신하를 신복을 삼고, 그때 나라가 잘 됐다란 이런 얘기가 있어요.

③ 아들을 땅에 묻으려던 효자

정남기(73, 남)/방아리T 1앞

[방아리2리 제보자택] 박종수, 강현모, 윤지선, 류수민, 김혜정 조사(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이만하면 되었지 하여, ‘아 테이프를 다 해야 한다’고 하자 구술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앞서 장황하게 시대상황을 말하고 생각이 나셨는지 구술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이야기도 50년 전인 80살이 넘어서 들은 것이라 한다.

[조사자 : 이번에 해 주실 얘기는 어떤 건데요?] 응. 얘길 한 번 해 볼려구 그래요. 내 간단하게 헐라구 그래요. 시간을 자꾸 끌 것 읍고, 나는 길게 할 줄도 모르고, 나 또 효, 효도했다는 얘길 한 번 헐려구 그러

는 데요.

옛날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내우가 살았는데, 거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 할머니에게 손자지 할머니의 손자. 내외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할머니 혼자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으니까, 그 할머니한테는 손자여. 거 참 귀여운 손자란 말이에요.

근데 뭐가 옛날엔 먹을 게 풍족하지 않으니깐, 하다 못해 뭐가 좀 생겨도, 이웃집에서 허다 못해 이 떡을 좀 가져 와도 우선 할머니를 갖다 드리면은, 내우가 효, 효자들이니까, 효자 효부니깐. 어머니를 갖다 '잡수라'고 드리면은 꼭 손자부터, 개가 먹구 남으야 차례가 가신단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외가 한 번은 상의를 했어요. 도대체 그 애, 그 아들이름을 부르매,

“개똥에 어머니가 잡수고 싶어도 전혀 못 잡습게 되 있으니, 우리 둘이 무슨 결단을 냅시다.”(웃음)

아, 효부 효자의 얘가지, 말하자면. 그래니까,

“어떻게 했음 좋겠냐?” 니겐

“개를 없애 버리자.”

이거지. [조사자 : 손주를요?] 그 사람들한테는 아들이지. 할머니는 못들은 얘기가, 듣지 않는 장소니깐 애를 없애버리야 어머니를 뭘 갖다 드리면 어머니가 잡수시지 않느냐. 어머니는 못 잡수고 손자만 메기다가 보니까, 어머니한테 돌아갈게 별루 적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못 잡습 거 아녜요, 실컨을. 그러니겐 그 효자 효부가 생각엔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부모가 더 중하지, 자식이 중한 게 아니지 않느냐.

지금 시대에 이런 말 해당도 안 되는 얘기고. 지금 세상에는, 지금 자식들한테 희생 안 할라고 자식을 안 낳아. 하나나 둘 밖에 안 낳아. 지금 세상이 그러. 딸 하나 낳고도 안 낳는 세상인데. 옛날마냥 그렇게 자꾸 낳을라고 해요? 자식들한테 희생 안 하겠다는 정신 그거예요. 내가 볼 때는 편히 살리라는 거. 자식 하나 지금 대학까지 가르치자면 그 부

모의 정성이 어디까지 들어가는 지 알아요? 죽어도 1억 이상 들어갈 거야. 대학 마쳐 출라면 출가까지 시킬라면, 그 두 사람이 무슨 직업인지는 몰라도 어렵지. 그 옛날 8-9씩 막 넣는데, 그 다 어떻게 할거나 그렇지 않아요. 생기면 생기는 대로 넣어야 돼요. 그러면 명 짧으면 죽을까 명 길으면 살어. 배가, 배를 줄여 가면서 살았다고요. 그 학생, 아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모를 위해서 자식을 희생을 시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우가 결단을 낸 거여.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합의한 거여. 그래서 애기를 업고 산엘 간 거여, 밤에. 갖다 버틸려고 말이여, 어머니를 위해서. 그래가지고서 산, 엘(아이를) 업구서 산엘 가서 땅을 파는 거여, 옆에다 놓고. 거다 물어빠릴라구. 물어빠리면 못 올, 못 쫓아올 거 아네요.

그래 땅에다 묻을라고 땅을 파는데, 그게 뭐 하나님도 도와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효심에서 그게 상을 받은 걸 꺼여. 하나님이 내리신 거로 봐두 되요. 그 파는 자리에서 금은 보화가 나왔어요. 그 자리에서. 아들을 파 묻을라고 한 자리에서 금하고 은하고 나왔단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내우가 그걸, 어린애를 옆에 놓고 땅을 파다가 본게 금하고 은하고 나왔으니, 그 넉넉 돈만 있으면 옛날에도, 돈만 있으면 개 있어도 어머니 실컷 대접할 수 있잖어. 돈이 없어서 그랬던 거니까. 그러면 애 복에 태어났으니, 내우가,

“애 복에 태어났으니, 애는 데리고 갑시다.”

그 내우가 다 얘기에요. 같은 마음일 꺼라구. 그래서 금은 보화를 잔뜩 쌓아서 들고, 애기를 업고 귀가를 한 거여. 그러니까 애기한테 아무 이상이 없던 거여. 산에만 가 구경만 하고 온거지. 그래 가서 그 재산으로 잘 살았단 그런 얘기에요.(웃음) 됐어요.

4 방축골 유래

제보자(70대, 남)/방아리T 2앞

[방아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구수미, 최주영, 홍현정 조사(1996. 6. 9.)

조사자들은 마을 도착하여 길가에서 한 할머니를 만나 이야기를 채록하려고 하였지만 실패하였다.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모여 있는 노인정을 찾아가서,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고 이 마을을 선택한 이유를 말하자, '우리 동네가 다른 동네보다 역사가 깊은 동네인가 보지'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이 동네가 이 방아리라는 동네데, 여기가 방아리 방축동이여. 근데 여기 네 동네가 방아리인데. 요게 예전에 방축이 있고 숲이 있어. 숲. 숲이 있어가지고, 숲이 많다고 해 가지고서 방축골이라고 그래.

그레가지고선 예전, 그러니까 임술년이면, 내가 임술생인데 한 200년, 300년 전에 방축이 터진 거야. 터져가지고서는 논이 되고 밭이 되고, 아 자리가 되고서, 그러고 났다가, 인제 왜정 소화 17년도에 승년(흥년)이 들어가지고선, 여기서 16년도에 승년 들어가지고 17년도에 이 방축을 시작해 가지고선 18년, 19년도에 이거 완성했어.

그레가지고선 여기가 녹두간 우물이라고, 아주 큰 방축이 있었던 자리가 아주 곤(가난)하기가 비극적인 노다지(계속) 묵는다고. [조사자 : 예?] 노다지 묵었다가 이 방축을 막아가지구선, 이 방축이 여기 동네서 부춘이 됐어.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이 동네가 저, 동네 젊은 사람들이 단합이 잘 돼가지고선, 그런게 이제 여름이면 퇴비, 면이고 군에서 퇴비를 시켜서 퇴비를 열성으로 이 동네 6년을 일등 했어, 6년올. 그래서 이 회관도 여기가 모범거리로 뽑혀가지고선, 용인 도청(군청?)에서 이거 지어준 거야, 이거야. 그래서 이 마을 들어와서 늙은이들이 참 이거 유지하고 그런 거야.(중간부분 생략)

나무 큰 거 있지. 천년 묵은 거. 여기 숲이 있었다니까. 숲이, 그래 숲

을 다, 다 나무를 다 베어내고 그 방죽을 메고, 이웃을 돌아 앉혔다니까. 그리고 숲이 숲이 그냥 나무가 아름답리 나무가 솔허게 있었어. 그래서 쪽 나갔다는 거여, 여기서.

[청중 : 방축동이라는 글자가 방축동이 막을 방자 쌍을 축자거든 그 대로 글자하고 맞은 거여. 그래서 방축동이 생겼다는 거여.]

5 빈부가 바뀐 방축과 중붓들

제보자1(70대, 남)/방아리T 2앞

[방아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구수미, 최주영, 홍현정 조사(1996. 6. 9.)

앞의 이야기를 마친 제보자는 생각이 났는지 계속하여 구술하여 주었다. 이 이야기는 이곳에 살아오면서 실제로 보아왔던 이야기라 한다.

이건 살기 어려운 얘기인데. 남산면에서 여기서 이 방축골이라는 거 어렵기로 [청중 : 제일 어렵지.] 제일 어렵지. 제일 거랭이 거렁뱅이 같 이 왜 유명했지. 여기가 산방축골 어려웠는데,(청중들의 대화 생략) 그렇게 어려웠는데, 그런데 이게 쌀방이 된 거여. 이 방축이. 그러면 강마도 심어가지고 이 동네가 부촌이 된 거여.

그전에 저 아래 동네, 중붓돌이란 동네, 그 내려다 보이는 동네는 보답이여 보, 하천을 막아서 내리는 물로 대고. 여기 물 없으면 하나도 못허는 거여. 그때는 거기가 부촌이었는데, 시방은 죄 배졌어. 이 동네가 부촌이고, 거 거기가 어려워. 그래 자꾸 거기 땅이 이 방축골 사람이 자꾸 사는 거, 지금은.

방축골로 땅 넘어온 거 많아, 저 동네 농촌 땅이.

6 손순매아형 효자

정남기(74, 남)/방아리T 2앞

[방아리 방축골] 박중수, 강현모, 구수미, 최주영, 홍현정 조사(1996. 6. 9.)

앞의 이야기를 조사자들은 할머니님의 인도를 받아 새로운 제보자를 찾아 제보자를 택
으로 방문하였다. 그곳에 점심을 얻어 먹으면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제보자는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가르침이 있는 것을 이야기 해야 한다’면서 구술하여 준 것이다.

내가 저기 옛날에 효자, 효자 얘기는 한 마디 할게요. 옛날에 젊은 부
부가 아들 하나 허고 홀어머니 허고 모시고 사는데, 그 옛날에 그 생활
이 어렵기 때문에, 누가 좀 별식이라고 얘기하나, 옛날말로 별식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런 걸 다른, 다른 집에서 할머니가 계시고 하니까 ‘잠수라’고 가지
고 오면, 할머니 입에 들어가기커녕, 할머니는 손자 멕이는 것이 좋기
때문에 손자만 재빨리 주시는 거라, 할머니가.

그렇게 그 얘기 아버지하고 엄마하고가, 참 엄마한테 죄송하고 아주
미안하기 짝이 없단 말이며. 할머니가 잠술 것을 자기 아들이 먹어 대
니까, 그러니 그 내우가 암만해도 부모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아 그러면 우리가 내우가 이것 무슨 저기를 해서, 참 어머니한테 효
도를 좀 해야겠다.”

고, 그래서 부부가 밤에 소근소근 결정을 한 거야. 그 무슨 결정을 했는
가 하면, 어머니가 계시면 안 되니까, 어머니를 어디 좀 갔다 오시게, 인
제 나들이를 가시도록. 이렇게 내우가 주선을 해서 어머니를 모셔다 드
리고 왔단 말이며,

“거기 며칠 계시다 오시라.”

고, 그래고서는 인제 그 무슨 결정을 했느냐면 얘기를 읊어야 되겠다
말이며. 아들을. 이담이 나면 되니까. 자기들 내우 생각에는 그거여. 그

래서 인제 어머니를 나들이 시켜드리고선, 밤에 애기를 안고 산으로 간 버린 거야. 그냥 파묻어 버릴려고 그냥. [청중 : 아이 살았어요.] 아 살았지 뭐, 그래.

산에 가서 데리고 가선 인자 아빠는 땅을 파는 거지. 게를 묻으려고 말이여. 산 애를 묻을라고 그래 한 동안 파는데, 엄마는 애기를 인제 안고 있고 그리고 파는데 그냥 별안간 거기서 서광이 비춰서, 그 땅 속에서. [조사자 : 판 데서요?] 앵. 서광이 비춰서 거기를 자세히 들여다 보니, 금덩이가 무지한게 들어 있더라 그거야. 그런데 그, 그걸 꺼내가지고 보니, 게 애, 어린애의 복에서 딸린 거란 말이여. 어린애에 복에 딸린,

“자기네들에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애기의 복이니깐, 애기를 희생시키지 말고 데리고 가자!”

고 그래서 금덩어리하고 애기하고 집으로 가지고 왔단 말이. 그래 이 나라님께 이것이 소문이 들어 갔어요. 저. 소문이 들어가니깐 나라에서, “참 이런 효자가 어디 있겠느냐.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 가며 어머니한테 잘 할려는 이런 그 효자가 있다.”

고 해서 아주 크게 특상을 내려서 왕에게 특상을 받고, 그렇게 부모에게 잘 할 마음이 있어서, 애기도 잘 되고 자기도 잘 되고 그 후 그렇게 잘 살았다는 토막 얘기는 내가 한 거예요.

7] 콩쥐 팥쥐

김간난(75, 여)/방아리T 2완

[방아리 방축골] 박종수, 강현모, 구수미, 최주영, 홍현정 조사(1996. 6. 9.)

앞의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옆에 있던 제보자는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주었다. 이 이야기는 어릴 때 할머니 등 동네 어른들한테 들었다고 한다.

콩쥐 팥쥐가 있지 않았어. 그것을 내가 대강만 알고서나 잊어버려서 잘 몰려. 콩쥐 팥쥐가 있는데, 저기 콩쥐 엄마가 죽었거든. 죽어서 서모를 얻었던 말이야. 서모를 얻어가지고설랑은, 이젠 저기 서모가 이젠 그 전실의 딸을 얼마나 들볶았는지 말이야. 말도 못하게 들볶았다고 그래. 그래 서모가 와가지고서 또 딸을 하나 낳안게 팥쥐가 되었거든.

그랬는데 자기딸은 안 시켜 먹고, 밤날 인제 콩쥐, 전실 딸만 그렇게 부려먹고. 그렇게 일을 시켜 먹고 그러는게. 그 만날 인제, 집에설랑은 뭐 저기런 허는 거는 다 두고, 딸하고 저 팥쥐라는 애하고 저저 엄마하고 잘 먹고설랑은, 콩쥐라는 애는 밥도 잘 안 주고, 그냥 참 저 들에가 서랑은 나왔어 있고, 저기 시(쇠)호미도 아니고 막대기 호미를 해가지고,

“자갈밭을 매라!”

고. 자갈밭 매라고 야단을 친게. 인제 어쩔 수 없어 밭에 가서 어디 막대기로다 자갈밭을 파니 그게 다 못 팠지. 그래,

“무(무엇)하고 안 가냐?”

그러면 인제 밭을 매다가 한 골도 못 매고 그냥 울다 시(쉬)다 허다가. 부엌으로 가 밥을 먹으려고 하니깐, 밥이 있나 읊지.

그런게 팥쥐라는 애는 지 엄마가 그렇게 싸고 도니께는 그넌은 밥, 기와집 밑에 그냥 있고, 콩쥐라는 애는 참 콩쥐꺼지 밥을 해서는 주면서 먹으라고 해서 그렇게 먹을 수 있을까. 그렇게 먹고 하도 그러니까 이제 이웃 집에서 저기 청년 하나가 불쌍해설랑은, 너무나도 불쌍해서 그거를 인자, 자기가 인자 여자로 삼으려고 신발을 하나 이쁜 것을 갖다주면서, 이거 밭에 맞는 사람은, 그러니께 상, 상감이 그런 거야.

“밭에 맞는 데로다가, 신을 신는 사람은 자기 부인을 삼겠다.”

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팥쥐 엄마가 적의 딸 [청중 : 자기가 낳은 딸.] 팥쥐, 자기 낳은 딸을 신겨보는, 빼앗가지고 신겨 보는 거야. 그게 안 맞지. 해서 콩쥐를 신겨 보니까 꼭 맞거든. 그러니, 이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인제 자기가 부인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콩쥐, 팥쥐 엄마가 인제

샘이 나니 지랄을 해는 거야, 샘이 나서. 그것을 빼앗아 신을라고 허는데 발에 맞질 않지. 맞질 않지.

그것을 또, 인자 콩쥐가 어디 간새, 갔다 왔다 찢어버리고설랑은 다른 신발을 준비해 주니깐 발이 안 맞잖아. 발에 안 맞지. 그래 안 맞으니까 이제, 그걸 꺼내가지고선은, 어느 날짜, 에- 데리러 온다고 인저 정해고서 갔는데, 그 신발을 찾아야 되는데, 신발은 찾는데 없고, 신발을 감춰서. 그런게 그냥 들에 갔다 오며는 그렇게 우는데, 그 백마가 우는 거여. 신발을 좀 인제 그렇게 그 사람이 쫓쫓 그러면서, 발이 신발에 맞는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 감췄으니, 찾지 못하면 자기 그것 저기 자기가 책임 아냐.

그러니까 울고 그냥 그러고 가는데 그냥. 그걸 보고설랑은 하도 딱하니까 이제 저기, 인저 하늘에서 내려온 법정을 만나지. 그런데 자상하게 얘기 하니까. 그래가지고설랑은 결국 그 날짜에 와 가지고서는 신발을 가 파묻은 곳을 인제 찾았던 말이야. 찾아가지고설랑은 그를 데리고 가지. 그러니까 이제 팔쥐 엄마가 심통이 나가지고 인제 자기딸을 두들겨 패고 지랄하면서 패고 죽이려고, 콩쥐는 새집에 가서 잘 사는데, 그러니까 배가 아프지. 그렇게 자기 딸을 안 되고, 그 딸은 그렇게 잘 가서 왕비로 훌륭히 되고.

그래가지고 샘이 나가지고 그전에 저기 했다는 그 세상살이를. 그래서 결국 죄 짓고 말이야. 아버지에게, 잊어버렸어 반은.(웃음) 그렇게 되는 거여. 그런게 자기가 정실 딸이든 내 딸이든, 자기가 맘을 고쳐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거여.

⑧ 억울한 간계로 죽은 여인

김간난(75, 여)/방아리T 2앞

[방아리 방축골] 박종수, 강현모, 구수미, 최주영, 홍현정 조사(1996. 6. 9.)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생각이 났는 계속하여 구술하여 주었다. 조사자들은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은 줄 알고 앞 부분은 녹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생각나는 대로 적어놓은 부분이다. 이때 제보자는 조사자에게 밥을 주어 맛있게 먹으면서 채록할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고소설 <숙영낭자전>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옛날, 한 마을에 공부하는 한 선비와 그 아내가 살았는데, 그 선비가 공부를 해야하는데 부부 금슬이 너무 좋아. 선비가 아내 곁에만 있으려만 해서, 선비를 걱정한 부모는 선비를 멀리 공부하는 곳으로 보냈다. 그러나 이 선비는 며칠을 아내 곁을 떠나지 못하고, 부모 몰래 그 부인을 만나곤 했었다. (이상은 녹음하지 못한 부분임.)

아들이 나가설랑은 저기 허니께, 며느리 혼자 있으니까, 시아버지가 저녁에 순찰을 들잖아. 순찰을 도니께시리, 인저 저 지금 그러고 나가는 데, 그렇게 사흘 저녁을 오고오고 그런 데여. 그렇니까 인저 색시가,

“당신이 이렇게 자꾸 나갔다 들어오고 나갔다 들어오고, 어머니 아버님이 잉 공부해라고 했을랑은 이렇게 저기 해면은 나중에 나 어떻게 되느냐고 그러니께 제발 날 봐설랑은 좀 가서 공부해고서, 장원급제 해야 헐티니께 공부를 열심히고설랑 오라!”

고 그러고설랑은 그냥 아주, 저기 그전에 사진도 읍잖아. 읍어니께 이제 들어가지고선 그냥 갔단 말이여. 인제 약속을 하고선 ‘오지 말라’고 그러고 새벽같이 또 보냈어. 그런데 그 이우지 머슴놈이 그걸 알았던 말야, 그런 거를. 그런게 저녁이면 죄 아버지가 순찰을 한 바퀴 들잖아.

도니께 이젠 그걸 알고 그렇게 해서 보내고 났는데, 그 이우지 신청사는 놈이 그걸 알았던 말야. 인자 안 오는 걸로다가. 알고설랑은 인제 ‘오늘은 신랑이 저녁이 안 올 거다.’ 그러고설랑은 시아버님이 저기 순찰 들 임시에, 그 저 미느리방 그 옆에설랑은 섰다가, 시아버니가 순찰을 들란께 기침을 해야할 것 아니야. 기침을 하고설랑은 순찰을 돌아오니께니, 이놈이 그냥 방문에서 나오는 것몬냥 배깁에서 섰다가 방문에서 나오는 것몬냥 덜컥 나와가지고 방문을 확 닫고 나오며, 담을 뛰어

넘어갔단 말이야.

담을, 담을 뛰어 넘어갔으니까 인제 시아버지님이 그걸 본 것 아냐. [조사자 : 오해하겠다. 그것.] 응. 시아버님이 그걸 봤잖아. 그래 이 방에 들어가지고 앉고 이제, 바깥에 그 방문턱에 가서 섰다가, 곧 순찰 들려고 그럴 적에, 섰다가 들어와 그걸 보고서, 기침하는 소리를 듣고서 방문을 탁 닫고, 굳게 닫고 뛰어 나가 담을 넘어갔단 말이야. 그런게 며느리는 모를 것 아니야.

그런게 인자 그러고 담을 뛰어넘어 갔은게 쫓아가 보니까. 인제 이우지에 어떤 놈이 그랬으니까 인자,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야단치는 거야. 며느리는 불러가지고 야단을 치면서,

“너 어느, 어느 놈이 그랬느냐?”

인자 그러니까, 생판 모르지. 생판 모르고선,

“저는 그런 일이 읍다고. 인제 잡아 오라.”

고 허니까, 아 시아버님은,

“자기, 자기 눈이 확실히 봤는데, 어째 그런 저기 하느냐?”

그러니까서리, 이제 거기서 인제 시어머니가 야단을 치는 거지.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런 년은 며칠 저녁씩.”

며칠 저녁 소리가 났거든. 사흘 저녁을 소리가 났는데, 인제 그때 마지막으르다가 인자 그 사내가, 신랑한테 약속을 하고설랑은 간 날짜에 그랬으니까, 그 며칠을 드나들어 잔 걸로 뒤집어 씌운 거지.

그러니까니 하도 복잡할 노릇이지.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적 이를, 험덕을 뒤집어 썼으니까 얼마나 저기야. 그러면 인제, 시어머니가 야단을 치고, 인제 그 시아버님도 야단을 치고,

“아! 이렇게 잡았는 데도 모른다는 거냐?”

그러면서 야단을 치면서 하도 그러니까, 저녁에 말이야 딸 하나 있었어. 세 살 먹은 딸이 있었어. [청중 : 그 여자한테?] 응. 그랬는데 하도 생활을 살면 뭐 해. 이렇게 저기 자꾸 그렇게 애만소리, 시아버지한테 허고 시어머니한테 애만소리를 들었으니까 살면 뭐 해. 살 수가 읍지.

그래설랑은

“차라리 널 죽어야 옳다.”

고 그리고설랑은 저녁에 자기가 그냥 칼로다가 그냥 가슴을 찔렀단 말이야. 가슴을 찔러가지고 죽었잖아. [조사자 : 죽었어요?] 응 죽었어. 그래서 인자 아침에 시아버니가, 시어머니 시아버니가, 애가 울어설랑은 이 딸, 손녀딸이 울어설랑은 들어가 보니께, 그냥 칼로 가슴을 찔러고서 죽어, 그 자리에서 죽었거든.

그래 이제 아들이 오면은 이것을, 저기를 해야 할텐데 어떻하나 걱정이 되는 거여. 걱정이 되서 칼을 빨란게 영 안 빠지드라. [조사자 : 그게?] [청중 : 안 빠지지.] 안 빠져서. 그래니 이제 시어머니가 빼려도 안 빠지고, 시아버지가 빼려도 안 빠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와서 빼려도 안 빠지거든. 안 빠지니께니 그냥 그 칼 채, 칼을 꽂혀 있으니까 그대로 갖다 파문을 수도 읊고, 파문을 수도 읊고. 그리고 나더니 그렇게 하고서는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몇 일이 죽은 지 한 몇 일이 돼도, 도저히 칼을 빨래야 빨 수 읊으니, 안 빠지니께 못 한 거여.

그래가지고 인제 아들이 왔단 말이여. 아들이 왔는데, 아 아들이 오긴 왔는데, 며느리가 저렇게 죽었으니 뭐라고 방패막을 해, 아들한테. 그래서,

“자기 색시가 어떻게 저기 됐느냐?”

그러니께.

“있다.”

고 그러콧 했는데. 갖다 치울 수도 읊는 거. 파문을 수도 없는 거여. 그 칼이 안 빠지니께. 파문을 수 없으니께 그냥, 그래가지고서는 아들이 와가지고, 남편이 와도 나오지 않으니께 이상하지. 그러니께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니께 가슴에 칼이 꽂힌 채로 죽었거든. 그래서 벼락같은 소리로 그 지 어머니한테 물어,

“왜 이러냐고? 으뜨게 돼서 그러냐?”

고 사실 얘기를 해는 거야.

“왜 그러냐?”

고 그러니까 인저 그때 가서,

“사흘 저녁을 어느 놈하고설랑은 응, 그러다가 한날 저녁에 나흘째 되는 날 저녁에, 아버지가 순찰을 도는 중에 방문을 열고 어떤 놈이 나갔다. 그랬으니까 그런 며느리를 내가 둘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길래 ‘나가라!’고 그러니까 나가지고 앓고, 지가 칼로 저렇게 찢러 죽었다.”

그러고 나니께서, 인저 그냥 그때서 인저 자기가 그러는 거지. 어머니 아버지 보고.

“사흘 저녁은 내가 들어와 왔다 갔단 말야 잉. 가다가 들어오고, 가다가 들어오고 이려고 왔었었는데, 멀쩡한 사람을 이렇게 했다.”

고 그러면서. 울어불며 들어서면서 칼로 뽑으니까, 칼이 빠졌단 말야. [조사자 : 남편이 빠니깐?] 응. 남편이 빠니까. 인제 애매하게 죽었으니까. 남편이 그저 쓰러지면서 울며불며,

“나 때문에 자기, 당신이 죽었으니까, 이 저기를 어떡 하느냐?”

고 그러구서 들어서면서 그냥 빠니까, 칼이 쑥 빠졌단 말야. 그러니까 그게 묘한 일 아니야. 딴 사람이 격 빼도 안 빠지거든. 안 빠지는데 남편이 그렇게 해서 빠니까 칼이 쑥 빠졌단 말야. 그래가지고설랑은 그러고 칼을 빼고 냈는데, 거기설랑은 무슨 하얀 비둘기 같은 새가 날아, 날아 나왔디야. [조사자 : 그 찢린 자리에서요?] 찢린 자리에서. 그게 오매 불망이 되가지고서는 새가 되서 날아간 거지. [조사자 : 그 남편이 알았으니까 한이 풀린 거지.] 그래 한이 풀렸지.

그래가지고설랑은 죄그(자기) 남편이 그 칼을 빼니까 빠지드랴. 그러니 세상 사람이 칼을 빼도 안 빠지더니, 자기 남편이 와서 ‘이게 무슨 저기냐고 그러면서, ‘나 때문에 당신이 죽었다’고 그러면서 통곡을 하며 울며 칼을 빼니까, 그때는 쑥 빠지더라 그게. 그래가지고 빠지고 냈는데, 거기설랑은 무슨 하얀 새 같은 게 특 날라 가드랴. 그러니 그 사람의 인제 원한을 풀은 거지. 그랬다는 그런 저기가 있다고. 그래서, [조사자 : 그냥 묻었겠네요 그 싸움에는.] 그렇지 그냥 묻어지. [조사자 : 새가 돼

서 날아간 뒤예요?] 응. 그러니까 그 사람의 허물을 벗은 거지 인자. 남편이 인자 그리고, 아버지한테도,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내가 저녁이면 왔다 가고 왔다 가고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을 아무 죄도 없다.”

고 그 사람 허우 원한을 풀은 거지. [조사자 : 오해가 다 풀린 거네요?] 그랴. 다 풀렸으니깐 인저, 하두 저기 됐으니깐 인저 새가 돼서 날라간 거지. 인저 그런 저기가 있었다고.

3) 기타

① 수수께끼

황춘수(70, 여)/방아리T 1앞

[방아2리 마을회관] 박중수, 강현모, 윤지선, 류수민, 김혜정 조사(1995. 11. 4.)

조사자들이 두 조로 나누어 조사를 시작하였다. 이때 제보자에게 열녀 이야기나 어떤 이야기도 괜찮다고 하자 구술하기 시작하였다. 제보자가 구술할 때 방안에는 5분의 할머니가 계셨는데, 서루 미루다가 제보자가 수수께끼를 내면서 이야기판이 형성되었다.

*왜 먹어라 군심아 저기 산 배 똥뚜이 불러 있는게 뭐냐?

-항아리

*강은 강인데 못 꿩는 강이 뭐냐?

-오강

*고리는 고리인데 [청불] 무슨 고리아?

-문고리

3. 창리

1) 마을개관

박중수, 강현모, 김정은, 박미나, 임미진 조사(1995. 11. 4.)

남사면 창리는 용인 터미널에서 16Km정도 떨어진 아주 작은 마을이다. 이곳을 울러면 창리 낚시터를 지나 5171부대를 지나면 바로 그곳이다.

창리는 옛날에 창고가 있었던 곳이라 해서 창말 또는 창동이라고 불려졌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현내면의 월곡과 화동 일부를 합쳐 창리라고 하여 남사면에 편입시켰다. 읍지에는 외창이 영조 연간에 40리 남쪽 현내면에 있었다고 하고, 고종 연간에는 남고가 50리 남쪽에 현내면에 있었다고 한다.

조사자들은 마을에 도착하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여 있을 듯한 새로 준공한 노인회관을 찾아갔다. 노인회관 맞은편에 놀이터와 현대식 정자가 지어진 곳에 할아버지 6분이 모여 마포걸레를 손보면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조사자가 예를 취한 후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했다. 서로 미루면서 선뜻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했는데, 한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아주 잘 한다는 윤기분씨를 소개하여 주었다. 쿡을 끼고 있다던 윤기분씨는 망설임도 없이 달려와 설화를 제공하였다.

또 다른 제보자를 찾아다녔으나, 어느 집에 잔치가 있어 일을 도와주러 사람들이 거의 다 갔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었다. 조사자는 제보자를 찾아 잔치집에 갔지만, 바빠서 음식만 얻어 먹고 설화를 제공 받을 수 없었다. 조사자는 윤기분씨를 다시 찾아가 일을 도와 주면서 조사하였다. 그리고 잔치집에서 소개받은 이야기꾼으로 소문난 목복남씨를 찾아갔다. 피곤하다며 거절하던 목복남씨를 끈질기게 부탁하여 설화를 제공받았다.

창리는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간이 버스정류장 조차도 없었고 상점은 두 곳

만 있을 뿐 모두가 농가였다. 다리와 도로를 사이로 윗마을과 아랫마을로 나뉘어져 있었고 윗마을과 아랫마을은 서로 자주 왕래하면서 잘 지내는 것 같았다.

2) 설화

① 유정무한

윤기분(72, 여)/창리T 1앞

[창리] 박종수, 강현모, 김정은, 박미나, 임미진 조사(1995. 11. 4.)

조사자가 창리가 도착하여 조사를 찾아다니던 중에 노인회관에서 한 할아버지로부터 소개로 만난 분이다. 제보자는 일을 하다가 오신 분으로 조사자들이 찾아온 목적을 말하고 옛날 이야기를 부탁하자 담배를 하나 집어 피우시면서 망설이지 않고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옛날에, 옛날에 넣어야지, 옛날에 아랫집엔 이진사가 살고 웃집은 김진사가 살았는데. 이진사가 외아들을 뒤서 장가를 들었더니, 첫날밤에 아들의 목가지가 도망을 갔더라. 누가 잘라 갔더라. 그래서 며누리가 억울함을 당해서, 인저 시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는 처녀적에 좋아 지내던 사람이 이렇게 우리 아들 목가지를 잘라 갔다.”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답답하니까, 장독간에도 물을 떠 놓고 칠성님 께다가 백일 기도를 드렸다. 그랬더니 칠성님이 보시고 그냥 이만한 불덩이가 그냥 물사발에, ‘대글대글 대글대글랑’

그래 그러더니. 가만히 시아버지가 보니까, 그 불덩이가 어디로 가나 보니까 광으로 들어 가드라. 그래 며누리가 쫓아가더니, 그 밀가루 떡으로 들어 가드리만. 그래 이렇게 비취보니까 남편 머리가 거기 들었드래. 그래서 시아버지가 그거를 보시고, 메누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고 종들을 불러다가,

“느이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야?”

하니까로.

“상전이 장가를 들오며는 죄가 가주구 나갈게 적어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오나! 얼마나 가지며는 살, 니가 살겠느냐?”

하고. 재산을 먹을만큼 비어서 어, 참 종문서를 없애고 상전에 양반 문서로 해서 내보내고.

이 그러니까 첫날밤에 애기가 있어서 아들을 낳더라든. 그런데, 인저 할아버지는 손자를 보고, 그냥 개나리 보쌈을 해고 끼고 한밤새 팔도강산 유람을 나가시고 그 손자가 자라서 일곱 살이 됐는데. 인저, 옛날에는 글방에를 다니니까 글방에를 갔다, 가며는 아이들이,

“이 애비없는 후래들 자식! 애비없는 후래들 자식!”

그러니까. 그게 인저 와서 어머니께 묻는 거여.

“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고? 우리 집은 어떻게 된 겁니까?”

물으니까.

“어, 느의 아버지가 외아들인데, 결혼을 해가지고 첫날밤에 너의 아버지 목가지를 누가 잘라 갔다, 어떤 사람이. 그래서 엄마가 하도 억울하니까 칠성기도를 백 일을 드렸더니, 칠성님이 내려 오셔서, 어 일러 줘서 밀가루 항아리에서 느이 아버지 머리를 찾았더니, 응 할아버지가 어 종들을 불러서 물으니까, 종들이 ‘그랬다’고들 해서 종들한테 재산을 제퍼서 잘 살게 해 주고. 할아버지는 팔도강산 나가시고, 어 나는 너하고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들이, 손자가 할아버지 연세를 제 물어보고 참 이름을 제 물어보고, 아버지 이름을 물어보고, 성은 물론 아는 거니까. 그렇게 손자도 10년 한을 하고 나갔디야.

“어머니! 10년에 할아버지를 찾아가지고 오겠습니다.”

하고. 절로 절로만 멍기는 거여. 손자가. 하루는 어느 한 절로 가니까,

할아버지가 낭구해가지고 끄끔. 그래 인저.

“참 할아버지! 저도 부모도 없고 이렇게 홀로 돌아 댕기니까, 할아버지! 저하고 같이 낭구 좀 하십시다.”

“그래라.”

그냥 매일 먹으면 질에서 낭구질 하는 게 인사야. 그래 그렇게 했는데, 한날에는 인저 세월이 가니까, 할아버지의 내무지를 물어 봤어. 할아버지가 다 얘기를 해 줬어.

“난 아무데 아무데 살고,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해서 내가 나왔다.”

그러니깐. 들어보니까 지 할아버지가 분명하거든. 얼굴은 못 봤어도 지 얘기를 다 해 줬어. 지 아버지 얘기를 다 해 주니까, 할아버지는 손자 얼굴을 봐서도 잊어버렸지만, 내 손자가 분명해. 할아버지 찾아가지고 왔어.

왔는데, 그제 벌써 자라서, 옛날이려는, 10년이면 열 일곱살이야, 장가가 늦었어. 그래고 웃집을 김진사 딸하고 인저 혼인을 하게 되었는데. 도둑놈이 인저 도둑질을 이진사네로 가서 고뽕을 끌르니까, 할아버지가 방에서 내다보고,

“이 사람아! 들어 와. 고뽕이를 끌르며는 파래돈이니께로 들어오게.”

그래 가지고. 주저 앉혀 놓고 메뉴리를 붙렸어.

“아가! 오늘 저녁이는 내가 출출하니까, 대추 놓고 찰밥 좀 해 다(오).”

고 하니까. 찰밥을 해다가 도둑놈을 매겼어.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

오백냥을 쥐서 주고,

“필요하거든 또 와. 고뽕이 끌리지 말고.”

또 와서 인자 고뽕이 또 끌려서 다 주고. [조사자 : 고뽕이 끌리는 뭐예요?]

“이 사람아! 이리 와. 들어 와. 고뽕이 끌리지 말고.”

그래 불러 앓혀 놓고 또 머누리를 불른 거여. [조사자 : 고뽕이가?] 소 소 [조사자 : 아! 소 고뽕요?] 잉. 우량간에 가서. [조사자 : 아, 소 흠쳐 가는 거예요?] 어, 어 그래서,

“메눌 아가!”

“예!”

“오늘 저녁은 내가 또 출출 하니까 찰밥 좀 해 오느라, 대추 좀 놓고.”

해 가지고 도둑놈을 또 멕였어. 멕이고 나서,

“얼마나 필요한가?”

“오백 냥이 필요합니다.”

줬어. 필요하거든 또 와, 고뽕이 끌르지 말고 세번 짜는 못 가는 거 있지. 아무리 도둑놈이라도 얼굴이 있으니까. 그래 김진사네는 갔더니, 자야지 도둑질을 할텐데, 땡글땡글 땡글땡글 그냥 자지도 안하고 얘기도 잘 하거든.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냥 주작같은 떡거머리 총각하고 속삭이는 거여.

“아무 날, 저 아래 이진사 손자하고 나하고 결혼하게 되었으니 어떡하면 좋냐고? 양반으로서 으른이 하는 일을 안할 수도 없고, 이런 독재라.”

고 하니까.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활 배워가지고 다락에 있을테니, 당신이 너의 신랑 자거든 다락문을 열어라 이거여. 내가 죽일테니.”

도둑님이 그 소리를 듣고 혈레벌떡 간 거여, 이진사네로 가서 인자 또 고뽕이를 또 끌르는 거여.

“이리 들어 오너라. 고뽕이 끌르지 말게. 왜 고뽕이 끌러. 이리 들어와.”

또 불러서 인지 메누리보고 찰밥을 해 가지고 메긴 거여.

“어 돈이 얼마나 필요해서 왔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옵고요. 세 번은 미안해서 못 와서 위에 김진사네로 갔더니, 별장으로 도란도란 얘기 하는 소리가 나서, 가서 엿을 들으니까, 여기사 손자님하고 아무 날 아무 때 결혼한다라고 한다던데. 딱거머리 총각이 죽인다고 그러더라고. 딱거머리 총각이 있더라.”

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살려야지, 아들도 죽였는데. 그래 손자를 불러가지고,

“이러이러 하니 결혼하지 말라.”

이러니까.

“그 양반의 규수는 이런 일 없다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양반이 이런 일이 어디 있냐고. 결혼을 해야 된다.”

고 했어.

“그러면 내가 그 집으로 장가를 가자.”

도둑놈과 약속을 했어.

“어,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니덜 부르테니, 문에 가서 대기해 있었라.”

“예!”

가서 인저, 가만히 있어 색시 맘을 보고, 남자는 삼오(사무)관대를 입었거든. 삼오관대도 안 벗고, 색시 족두리 낭자도 안 벗기고 그냥 두리누워 참 코를 고는 거여. 색시가 가만히 일어나는 거여. 다락문 열으려고. 별떡 일어나,

“여보! 규수가 무엇이 그렇게, 다락에 귀중한 게 들어서 다락문을 열으라고 그러느냐?”

고 그러니 얼른 주저 앉지. 인자 두 번째인데, 또 그러는 거여. 세 번째에서는 불른 거여.

“애들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저 다락에 무이가 들었나, 귀중한 게 들었나, 아기씨가 어 아까, 애사기 칠려고 하니까 거기다가 대구는 활을 썩라.”

활을 쏘니까 거기서 죽었지. 이진사 손자를 데리고 가서, 이진사 손자를 살려서 얼마나 좋아. 기가 막히게 좋지.

그래서 그 도둑놈들을 큰 손주를 삼는 거여. 크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자기 손주는 작은 손주로 삼고, 똑같이 재산을 배주더라.

② 부자집 손자를 살린 거지

윤기분(72, 여)/창리T 1앞

[창리] 박종수, 강현모, 김정은, 박미나, 임미진 조사(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제보자 스스로 생각이 났는지 계속하여 구술하여 주었다. 제보자는 이 마을이 이름난 이야기꾼이라고 한다.

그러고 옛날에 어떤 사람이 부자가 있는데, 계(개)울이 있어, 이렇게. 큰 계울이 있는데, 계울 건너 사람이 돈을 얻어 갔데, 부자집에서. 영 안 가져 와, 돈을.

그래 장마가 많이 들었는데, 비가 오는데 아들을 그 집으로 돈을 받으러 보냈어. 아 글썸 장마가 들었지 뭐여. 못 건너 오지, 그 물을. 다 그 집에 물이 채어가지고 지붕 꼭대기에 앉았는 거여, 아들이.

그냥 집이 떠 내려가는 거여. 둥둥둥둥둥 떠내려 가는데, 지붕에 앉아서. 사람들이 그냥 물구경 하느라고 많지. 사람 떠내려 가는 거 보느라고 많지.

“나 좀 살려 달라.”

고 소리 질러도, 누가 그걸 건져 주나? 못 건지지. 그런데 그지가 그 동네 사는데, 여럿이 하는 말이,

“천만 원 주면 저 사람 건져 주나. 천만 원 주면 건져 주나?”

그러니까.

“천만 원 줘도 못 건져, 천만 원 줘도 못 건져.”

전부들 그러더라. 그지가 뛰어 들어갔어. 그지가 뛰어들어 가서, 그 사람을 끌고 나왔어. 끌고 나왔는데 그 사람은, 그 저 실신상태가 빠져서 정신을 모르니까. 그지가 즈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지 동냥해다 놓은 것을 미음을 섞어서, 메겨서 인저 몇 일을 메겨서 인저, 완치를 만 들어 났는데. 그 아버지는,

“우리 아들은 물에 빠져서 죽었다.”

고 날마다 앉아 우는 거여. 그러더니 그지가, 인저 그 아들이 이 완치가 된 다음에 인저,

“어디 사시고? 니집 아들인고?”

그것 알아가지고 인저 데리고 갔어. 그 집을 가니까, 그냥 그 아버지가 그냥 기가 막힌 거지 뭐여. 손자가 죽은 줄말 았았는데, 손자가 그냥 살아서, 사람들이 질번이 데려다 놓고 사실 이야기를 다 하는 거야.

“그렇게 떠내려 갔었는데, 어느 누가 건질 사람도 없고 서로 하는 말이 ‘천만 원 주면 건져 줄래, 천만 원 건져 줄래’ 하는 말들이 ‘천만 원 줘도 나는 못 건진다’고 그러는데. 그지가 보다 딱해서 뛰어들어 가서 죽뿌리 잡지 않고 뛰어들어 가서, 어 참 서방님을 모셔다가 이렇게 참 몇 일을 곤경을 헤가지고 완치를 만들어서, 이렇게서 서방님을 여기로 간단히 모시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좋으시거든, 그 양반이. 거기 역시.

“네가 우리 아들 살려 주었으니 너가 은인이다.”

그지를 집을 사서 살게 부자로 만들어 주고, 자기 아들 데리고 살더라. 그렇게 마음을 닦아야 된다 그거여. 잉. 착하면 덕이 오는 거여, 착하면.

③ 삼괘전(어사 박문수)

윤기분(72, 여)/창리T 1앞

[창리] 박종수, 강현모, 김정은, 박미나, 임미진 조사(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잠시 멈추었다. 그래서 조사자가 어사나 훌륭한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부탁하자 해 주신 것이다. 제보자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밝히지 않았지만 박문수의 삼괘전을 들어 있는 내용이었다.

옛날에 한 선비가 서울에 살았는데, 인자 벼슬을 갓어, 저 시골로다가. 산중으로. 산중으로 댕겨야 벼슬을 못 했거든. 댕기다 댕기다 보니 밤은 저물어 졌으니 갈 곳은 읍지. 산중에 무슨 집이 그렇게 있나?

그래 어두우니까. 둘러 보니까 불빛이 어데 있던 자꾸자꾸 비쳐. 그래서 찾아갔어. 가서 주인을 찾으니까, 그냥 머리는 쟁반같이 그냥 딱 처너가 나와. 그래,

“내가 이렇게 나왔다가 벼슬하러 왔다가 늦어서 갈, 잘 데가 없어 그러니 하루밤 자고 왔다.”

고 하니까.

“여기서 주무시는 것을 어렵지 않으나, 생명이 위태 하니까 못 주무십니다. 어서 길을 찾아 가십시오.”

하니까.

“왜 그러느냐?”

고 물으니까.

“이 꼭대기 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이 나를 강탈을 하느라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를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도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중이 시주를 나갔습니다. 밤 늦으려는 올 겁니다. 그러니 어서 피하십시오.”

그러니까. ‘평생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원수를 못 갚아서 한이 된다’

고 하니까는.

“그러냐. 그러면 내가 원수를 갚아줄테니,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다락에 가 있을테니, 그 종이 들어오거든, 인지는 아까는 얘기 안 했어. 조금 피해 앉아 있어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피해 앉았는데. 그 선비가 내려다 보니까, 중이 눈은 그냥 술방울 같고, 귀는 짙신짝 같고. 그냥 코는 질병코여, 아가리는 접시 같고. 그냥 정말 엄중하거든. 이야기 책에 있는 말이며. ‘엄중하다’ 하고 있는데. 그냥 이놈의 세끼가 색시가 귀여워서,

“아! 아! 뭐 물 본 기러기 같구나, 꽃 본 꽃나비 같구나. 볼수록 어여쁘구나!”

구냥 환장을 하는 거여. 그냥 그 소리에 그냥 잘못 듣고, 그 사람이 칼을 내리쳤어. 그래서 정실로 맞아서 죽었으니까 내려 왔지. 내려 왔는데 날 밝기를 지들러가지고, 날 밝기 전에 끌어다가 선비가 묻었어. 그레 색시가 밥을 제 지어놓고 와서 아침 식사를 하고.

“나는 간다.”

고 그러니까. 아이고 처녀가 막 다리 가랭이를 붙들고 울면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원수를 갚았으니, 무엇을 가지고 신세를 갚으리라고. 내 몸을 받쳐서 신세를 갚겠다.”

고. ‘아 그래서 내 몸을 받쳐서 신세를 갚는단게’ 열이 난 거, 선비가.

“오냐! 어 선비가 너의 행동이 이런 것을 어지러우니 내 생사람을 죽였구나!”

그런게 화가 나서 갔어. 그러니 처녀가 그냥 썩일 울으니 누가 울기를 말려나. 그냥 기진하고, 에,

“무서워서 죽을 거여. 여기서 혼자 살지도 못할 거여.”

에라. 명주천으로 목을 메어 죽었어. 어 그런데 벌써 혼이 먼저 따라간 거지 뭐여. 그런데 이 선비가 가서 갔어. 자니까 이 처녀가 와서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

“선비님! 선비님! 나를 데리고 갔으면 나는 안 죽었을 텐데, 나를 떼

놓고 와서 아무리 내가 혼자 무서워도 못 살거요. 이 으떻게 살 수 없어서 죄가 명주천으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아 그래 눈만 감으면 그냥 옆당이 앉았고, 병이 들었어, 이 선비가. 곳을 해도 안 듣고, 약을 먹어도 안 듣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그냥 저 산중으로다가 절로다가 수양을 가서 거기서 수양을 하고 앉았는데.

참 오래 있는 거지. 인자 앉아 있었는데, 웬 난데없는 중이 또 왔더라요. 그래 돌이 있는 기지. 그래 낮이며는 부처님 앞에 가 앉아 불공을 하고, 밤이며는 그냥 글공부를 하고. 어떨 때는 산에 올라가서 인저 산도량을 돌고. 그 산도장을 돌면 그 산 큰 바위가 있는데, 거기를 가 보면 그냥 절벽인데 그냥 큰 물이 있데. 깊은 물이 있데. 그래서 인저 바위에 앉아서, 돌이 앉아 이야기를 하는 거지, 오래 되니까 친해니까.

“그래 선비님은 왜 이렇게 여기, 여기 와서 계시냐?”

고 중이 먼저 묻더라느문. 그러니까,

“아 나는 참 이만저만하고, 아 어디 시골로다가 3년을 벼슬을 갔는데, 외딴 집에서 거기서 자고 났는데, 그 처녀가 어떤 중생을 죽여서 원수를 갚았는데, 그냥 ‘나에게다 몸을 받쳐서 산다’고 쫓아오는 것을 그냥 뿌리치고 왔더니, 그 처녀가 죽어가지고 나한테 와서, 그냥 나한테 감겨서 그냥 못 베겨서 내가 산중으로 왔다.”

고 그래니까. 아뻘사 중생이 또 하는 거라.

“나는 목화 시주를 어디를 갔더니 어떻게 색시가 이쁜지, 목화를 안 받고 손목을 잡아가지고 들어가 강탈을 했더니, 강탈하고 죽이고 그 놈의 지집애가 몸에 감겨서, 들볶아 못 살겠어서 이리로 왔다.”

고 그랬더라. 아 그 소리가 끝나지도 않아서 그냥, 선비가 물로다 벌컥 떠드락(떼미뜨리) 옆질렀어, 중을. 그런게 뭐 죽지 살어. 그래 그리고 와서 자니까 얘기를 하는 거여. 그 목화 시주 가서 죽인 처녀가 찾아 뵈면서,

“선비님! 선비님! 고맙다고. 인저 지금 가시라고. 내일 가시라고. 가시며는 이제 몸도 안 아프다고. 가시다가 어느 골목길을 지나가면, 그냥

‘아이구—’ 타고 우는 집이 있을테니, ‘왜 그렇게 우는냐?’고 가서 물으시며는 ‘간밤에 자다가 죽었다’고 남편이 그럴거요. 그러면 가운데 머리를 이렇게 더듬어 보시라고. 그러면 대못이 박혀 죽었다고 또 가시다가 어느 집에서 사람이 많이 모여 가시고 떠들거라고. 죄인을 잡으려고. 그런데 거기서 혼한 별장에서 신랑하고 있는데, 어떤 새 신랑이 와서 죽여서, 노끈으로 복을 베어 죽여서 뒤 연못에 갖다 넣었다고. 그것을 발견하시라.”

고 그러더라. 그리고 한 가지는 잊어버렸다. 세 마디를 일뤼 줬는데. 그래 그 목 베 여기 못 박혀서 죽인 사람 글로 풀어서 지어주고, 또 연못에서 노끈으로 복매 죽은 것 글로 풀어 지어주고. 또 한 가지 글로 지어 줬는데, 잊어버렸어. 그걸. 두 마디는 아는데, 한 마디는 암만 모르겠어.

“거기 가설랑은, 그리고 원한테 올라가셔서, 임금님이지. 거기 가서 인자 글을 상주를 하시면 급제를 하실 거라.”

고. 그래 서울 올라가서 참 임금님한테 글을 지어 올렸는데, 그래 상쾌녀라고 지은 것도 됐더라. 그게 그냥 그래서 장원급제를 하고 인자 그랬는데, 요즘의 기집에 들어서 싸우는데 무섭더라, 귀신들도 그냥,

“이놈의 기집에야! 그에 선비한테 갱기지 말라.”

고. 그냥 패주고 그냥,

“선비님! 걱정 말으시고 가시라고. 이젠 괜찮다고. 지가 다 도와드린다.”

고 그러더라. 그래 옛날에는 얘기 책마두 다 양반네 집에서 재 바람이 나고, 옛날엔 다 그래. 양반네 집에서 바람이 나고, 양반네 집에서 다 정이 생기는 거여.

④ 장화 흥련

[창리] 박종수, 강현모, 김정은, 박미나, 임미진 조사(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더 많은 이야기를 부탁하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제 보자는 이제부터는 요점은 따서 구술하여 준다면 스스로 생각하여 구술하여 준 것이다

아버지가 상처를 하고 딸을 둘을 낳고, 또 마누라를 얻었어.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낳은 건은, 큰 건 장화고, 작은 건 홍년이여. 그래 장화홍년이여.

그 서마(서모)가 데리고 들어온 것은 장세여, 이름이 장세여.[조사자 : 이름이?] 응. 장화홍년 들었을 걸. [조사자 : 아주 어렸을 때 책으로 한번 읽었어요.] 인제 그랬는데, 그 스모가 볶는지, 그냥 홍년하고 장화하고 맨날 자는 거지. 여간 암잔 혀, 옛날 처녀가.

들볶아 못 살아. 음해를 잡고. 그러자 한날은 스모가 쥐를 잡아서 지 집에 홍년이에다가, 가랭이 맞이에다가 거기다 넣 주었어. 그럼 ‘낙태했다’고. 그리고 한 가지 뭐를 삶아 먹었는지, 뭐를 먹었는지 대가리가 이렇게 부었었어. 그래 가지고 몸이 부었었는데 낙태했다고 그려.

그래가지고 그냥 들볶여 살 수 있어? 못 살지. 그래서 그 장세란 놈 보고 ‘홍년이를 말에다 태워가지고 가서 큰 무슨 산꼭대기가 있어. 거기 연못 속으로 갖다 넣으라.’고 그랬어. 근데 홍년이 동생을 세워 놓고 장화가, 울며 가는 거여 인자. 뭐라고 데려 가느냐 하며는 ‘이모네 데려 간다’고. 보따리 이렇게 싸서 들고 이모네 집에 보내는 거여. 그러니까 울며 이모네 집에 가는 것이, 간거지 뭐여. 이젠 말을 태워가지고 가서 인자, 한 고개 넘어가지고, 또 넘어가 연못에 옆맹에 가서,

“여기서 죽어라는 거여. 빠져 죽어라.”

어떻 해여. 사람이 죽일라고 하면 못 살잖어. 그래서 못 견디어서 이렇게 죽었어. 막 죽었는데, 막 그냥 죽이고 장세가 돌아서니까, 호랭이가 그냥 귀를 잘라 먹었어. 귀를 잘러먹고 다리를 그냥 절뚝발을 만들어 냈어. [조사자 : 누구요?] 장세. [조사자 : 장세요.] 그 실고 간 스모

의 아들. 그러고 온거여. 인자 절뚝절뚝 그러고 왔는데, 말 많지 뭐.

그래가지고 인제 그게 흥년이야, 죽은 애가 귀신이 돼 가지고, 그냥 울어 맨날. 동네방네 울고, 동네가 안 돼. 그래서 나라 임금에 장화네 식구를 다 불러드렸어. 아버지 엄마를 불러들여가지고 문초 해, 장세도 별 받아 죽는 거지. 지금 같으면 그렇게 되고, 엄마도 누명 써서 그렇게 잘 못한 것을 다 불었어, 가서. 아버지는 내가 속었다는 것을 다 그렇게 되서, 아버지는 안 죽고. 장세하고 그 마누라하고는 죽은 거여.

사람은 그렇게 맘을 나쁘게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장화흥년이 보면 눈물 많이 나오는 거여. 이 말이 많지. 흥년이는 그 죽은 애가 새가 됐어. 새가 맨날 문 앞에서 짹짹거리고 울어. 형 때문에.

5 심청전

윤기분(72, 여)/창리T 1뒤

[창리] 박종수, 강현모, 김정은, 박미나, 임미진 조사(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자신의 경험담을 장황하게 말씀하여 주었다. 그런 도중에 스스로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하여 준 것이다.

심청 아버지. 어, 성함을 잊어 버렸다. 심청 어머니 괘가는 아는데. 심청 아버지 승이 뭐더라. [조사자 : 성이 심씨, 심봉사.] 어. 성이 심가로구나. 심봉사.(일동웃음) 심청이 어머니는 괘가고.

그 심청이 어머니가 심청이를 낳아 가지고 7일만에 세상을 떴어. 심청이 어머니를 잃은 심청이 아버지가 그 심청이를 동냥젖을 해서 맥여 키우느냐고. 눈이 안 보이니까 뭐, 뭐가 보여. 물을 ‘자갈자갈’ 하면은 우물가에 쫓아 나가서, 우물로 사람들은 물을 길러 나오고. 거기 가서 동냥젖을 얻어 먹이고서는 심청이를 길렀는데, 고 건너 마을, 아이구 그것

도 얘기 할라니께 잊어 먹어버렸다. 그 무슨 며느리가 그 심청을 많이 참 받들어 주었어. 참 잘 봤지. 참 그러는데 심청 아버지 눈 멀으니께, 심청이가 얼마나 효자여.

한날은 심청이가 건너마을 잔치집 누군가, 건너 동네 누구네 집으로 갔다가, 안 오니까, 그 잘하는 시형 어머니 집으로 의논하러 갔는데, 그 래 영 안 오니까, 혈 중 모르고 나가다가 개천에 빠졌지 뭐야. [조사자 : 심봉사 가요?] 심봉사가. 딸을 지들러도 안 오니까 더듬더듬 나가다가, 개천에 가서 빠져서 허우적 거리고 있다고. 저 아래 스님이 내려오더니 건져준 거여. 건져 쥐가지고는,

“삼백 석 공양미를 절에다가 받치며는 심봉사 눈을 뜬다.”

고. 그러니까, 욕심에 그래도 ‘한다’고 했지 뭐여. 한날 그래 가지고 할 도리가 있어? 그래 ‘안 한다’고 그러니까, 할 수 있어.

“안 한다.” 니까루

“한다고 그러다가 안 하면 안 된다고 해야 된다.”

고 하니까. 천상 뭐 심봉사는 인자 은전, 요 불알밖에 안 물려 주고, 참 쌀 한 톨백이 그냥, 안 나는 거지 그냥. 그런게 아무 소리 안하고 밥도 잘 안 먹고. 딸이 한날은 물었어, 아버지한테.

“개천으로 빠졌는디, 그 스님이 살려주자 삼백 석 공양미 받치면 눈 이 뜬다니, 우리가 재산을 다 받쳐도 삼백 석은 못 맨들어. 읊는 걸로 안 한 걸로 읊는 걸로 해잖니께, 안된다고 하니께.”

딸이 깜짝 놀래잖아, 그냥.

“해야 된다.”

고. 그래 뭐 있어야 해지. 봉사로는 봉사 마음으로는 자기가 뭘로다가 자기 헨다는 거여. 헨다고 써 올린 거지. 삼백 석 공양미를 갖다. 날은 부득부득 돌아오고, 그러더니만 그저 한날에 있어 인당수에 처녀 잡아다가 제수 잡게 한다고, 아 상인들이 처녀 사러 다니잖어. [칭취불능] 심청이가 인자 좋아. 쫓아나가 삼백 석에 몸을 팔려간다고 적어서 놓은 거여. 계약서, 인저 계약한 거지. 그래 인저 몸을 팔어서 삼백 석 공양미

를 올렸어. 절로 올라 갔는데. 날은 부둣부둣 돌아오고, 심청이가 걱정이 돼서 죽었지. 밤에도 아버지 보고, 자던지 말던지 안하던 말던지.

부모님 눈 뜨신다니까 나 죽는 것은 원심치 않으나, 아버지 눈만 뜨기를 바래고. 내일은 갈 건데 오늘사 얘기를 하는 거라. 밤 새워서 좋은 도복을 꼬매 놓고 깨끗하게도 해 놓고. 그냥 진수성찬을 차려서 내일 떠날텐데, 아버지 쌀을 대접하니까. 철모는 소리로, 아버지가 뭐하러 구경 갈 것, 모,

“누구 생일이냐? 왜 이렇게 밥맛이 괜찮니 이게 뭐냐?”
고 그러니까.

“건너 마을 누구네, 장차 결혼하는 집 생일이라.”
고 했어. 그래 아버지 밥 위에 반찬도 떼어 놔 주고, 그러고 아버지 방 정리를 해 주고, 떠날 무렵이 되니까 설명한 거. 그런게 조금 있으니까, 상인들 텔리러. 아이 아버지가 팔팔 뛰고,

“몸 팔아서 눈 뜨면 뭘 하느냐고. 자식 팔아 눈을 뜨며는 뭐 하느냐고. 자식 몸 팔아 눈 안 뜬다.”

고. 그냥 막 필필 뛰고 못 가게 하는 거지. [청취 불능] 당부하고 인당수로 몸이 팔려 간거지 인자. 아버지는 그냥 혼자 살 수 있어? 어떻게 해서 뺨덕어멈을 하나 얻었지. 뺨덕어멈하고 사는 거지, 인저. 심청이가 인당수에 가서, 팔려 가서 인저, 선녀가 되고.

진짜 그 놈의 뺨덕어멈이 다 주서 먹었어. 살아 천금 있다 다 주서 먹고 살 수 있어? 뺨덕어멈이 애 슴다고 그냥 살구 값에 그냥 뭐, 그야 말로 떡값에 뭐, 여간 많아. 그것 먹고 야중에 인자 서울서 맹인 잔치한다고 하니까, 인저 그 저기가, 심청이가, 심청이가 인저 물에 빠져 연꽃이 되가지고, 인자 그게 임금한테 올라와서 사람이 됐잖여. 그래 그게 앉아서, 맨날 ‘우리 아버지가 눈을 떴나 안 떴나’ 그게 한이지. 그러니까 인저 남편보고 하는, 댁에서 남편 보고 하는 말이,

“맹인 잔치를 하자.”

그러는 거여. 아버지가 행여나 부처님께 공양하고 눈을 떴나. 그래 맹

인잔치를 한다고 그러니까 가는 거지. 뽕떡어멈 데리고. 그래 그 잔치에 맵인은 다 가는 거지. 그런데 요놈의 뽕떡어멈 행실이 더러워서, 가면서 이냥 저기 어따 가다가 탄놈하고 쫓아가 부부여. 심봉사 떼어 내버리고.
“여보!”

하면서. 배 끌고 자꾸 울고 자꾸 울고.

그런데 인저 맵인 잔치도, 인저 예를 들어서 지금 같으면 내일이면 그만 둘 거여. 인저 다 왔는데, 지 아버지만 안 왔어. 그러니까 올 사람은 하야튼 맵인은 다 왔다는 거여. 인자 지 아버지만 안 왔는데. 응 지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인자 안 왔지. 그런데 내일이면 끝날텐데 오늘 저녁에도 반잖아.

거기를 찾아갔지. 보니까 지 아버지지 뭐여. 그래 쫓아나와서 심봉사를 심청이가, 격 아버지를 끌어 안고서 우니까, 심봉사가 우는 바람에 눈을 뜬 거지. 딸 얼굴을 그때서야 보는 거여, 얼굴을. 넣었도 못 보고. 그러니 효녀지.

그것은 거짓말 같어, 나는. 어떻게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꽃으로다가 도로 원 이 세상에 사람이 걸어 나온다는 것은 거짓말 같어. 얘기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또 몰라. 이 처녀가 꽃에 나와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거짓말 같아.

6 과부댁과 홀아비

윤기분(72, 여)/창리T 1뒤

[창리] 박종수, 강현모, 김정은, 박미나, 임미진 조사(1995. 11. 4.)

조사자는 제보자가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그 이야기에 대해 묻자 이런저런 말씀을 하다가 생각이 나셨는지 구술하여 주었다. 심청의 아버지가 홀아버지로 고생하였다는 점에서 같은 홀애비와 과부간이 일어났던 것이라 생각이 났는지, 옛날 이야기라며 구술하기 시작하였다.

동네 홀애비 사는 집은 부자고 아니 가난하고, 과부 사는 집은 부자고 그런데 홀애비가 과부 사는 집에서 빚을 얻어가 썼디야.

그런데 그 노인네가 짚신 짚신을 삼는데, 그거를 삼아 팔아 먹는데, 그래 맨날 받으러 가는 거여, 뭐여. 그이가. 과부댁이 이자 받으러. 한날 과부댁은 맨날 받으러 다니다 보니까루 마음이 이상하거든. 그런데 가니까루 내 이렇게 하면 짚시기 허는 것을 방안에 봐니 못 봤니 허지. 그래서 걸구 이렇게 해서 잔뜩 묶고, 짚세기, 짚세기. 짚세기를 삼으면 이렇게 해 가지고 착착착 챙기는 거여. 그래 과부 가만히 안자 보니까,
“아이 영감! 짚신을 삼아 가지고 언제 줄라우?”

“줘야지.”

“아이 인자 언제 줄라우?”

“줘야지.”

영감은 그러고 앉었고, 나는 달라고 그러지. 그래 짚신을 삼는데 그냥 짚신을 잔뜩 만들어, 그냥. 그야말로 그 아래 밑천이, 그냥 남자가 흔들 흔들 허드랴. 그래 인저 과부댁이 그것을 보고 욕심이 난거라. 암만 없는 집 영감이라도. 얼마 앉았다가,

“이자 언제 줄라우?”

“줘야지.”

인제 그러다가 밤이 늦었어 인저. 늦었으니까 마누라가 마음이 변해 가지고,

“안 잘라우?”

“자야지.”(일동웃음)

“그래 잡시다.”

“자야지.”

인제 그랬는데. 영감이 능청맞아. [조사자 : 능청 맞다고요?] 응. 그래 인자 과부댁이 마음이 변해 그런 거여. 그래 과부댁은 마음이 흠족하게 안 해 주는 기라. 그러니까루 과부댁이,

“왜 이렇게 하느냐?”

고 하니까루.

“난 이자만 할라우.”

[조사자 : 네?] ‘이자만 할라우.’ [조사자 : 이자? 어.] 흠족하게 안 해
고, 인저 약을 올리는 거여.(일동웃음) 여자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이자만 할라우.”

[조사자 : 이자만 할라우.] 응.

“아이 본전까지 다 해요. 본전까지 다 해요.”

그래 본전까지 다 해 버렸지 뭐. 허망하게 할 수 없으니까 본전까지
다 한거여, 인자. 그래 여자가 그냥 가더니 그냥 옥양목을 해서, 백금을
놔서 가죽을 해서 그냥(사양하려는 말 생략) 인자 그랬는데, 아 그래서,
가더니 그냥 백금을 놔서, 그냥 아주 유리 관주로 해서 가죽은 금방 해
서 입혔거든. 해가지고 왔거든, 여자가. 하아 영감이 여간 좋아. [청중 :
하루 저녁 자고 그냥 흘려서.] 빛 다 갠았지. 가죽을 딱 그렇게 얻어 입
었지. 부자 물었지. 그런데 시아버지가 보니까 그냥 계속 중절거리더라,
시아버지가.

“중절중절 음—! 중절중절 음—!”

그런 소리가 나더라. 그래서 저 시아버지가 왜 저러나 그러고 방구녁
을 문안을 가만히 드려 보니까, 시아버지가 하는 말이, 자기 밑천을 가
지고,

“니가 잘 나서(조사자 웃음) 응, 음 내가 잘 나서 합바지 저고리 생겼
니, 니가 잘 나서 합바지 생겼지.”

응, 너 때문에 합바지 저고리가 다 해 입혔다 말이여. 자기가 잘 난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여. 너 땀에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잘 나서 합바지 저고리가 생겼니. 니가 잘 나서 합바지 저고리
가 생겼지.”

그러기에 그러드라. 그래서 쫓아 가갖고 영감도 잘 해 주고 그러드

랴. 그래 돈 받으러 댕기다가 영영 과부가 일이 나면 다 뺏쓰지 뭐. 있고 없는 거 나중이고. 그래서, '니가 잘 나서 합바지 저고리가 생겼지. 내가 잘 나서 합바지 저고리 생겼냐느냐'고.

7 바보 색시(1)

윤기분(72, 여)/창리T 1뒤

[창리] 박종수, 강현모, 김정은, 박미나, 임미진 조사(1995. 11. 4.)

제보자는 앞의 음담패설의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잠시 멈추었다. 그래서 조사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 달라'고 말하자, 곧 생각이 났는지 계속하여 구술하여 주었다.

어떤 사람이 시집을 갔는데, 그냥 신랑이 아주 바보인지. 어디가 그런 얘기를 듣고 왔다고 그러겠어. 그런데. [조사자 : 아니예요 이런 얘기 많아요]

신랑이 어떻게 바보인지 첫날밤에, 인저 색시 손을 갖다가 신랑에게 댔나 봐, 어디를. 그렇게 하면 알지 인저. 그래서 인자 색시가 기절해서 내뺐어. 뒤로. [조사자 : 여자가요?] 응. 내뺐어. 내뺐는다,

"아이구! 왜 왔니? 첫날밤에 왜 왔니? 첫날밤에 왜 왔니? 아이구 이 년아! 시집을 가서 왜 왔어?"

아니 지집애가 바보야. 신랑이 바보가 아니고. [조사자 : 신부가?] 응. 신부가.

"아이구 이 년아! 첫날밤에 왜 왔어, 이 년아! 시집을 가서 오는게 아닌데, 왜 왔어!"

"엄마! 엄마! 우리 집에 가 봐. 한방 뒤텔 거야. 한방 뒤텔 거야."

이러드라. [조사자 : 한방?] 한방. 한 방, 방으로 하나 뒤텔을 거라고.

"아이고 미친 년아! 뭐가 한방 되어, 이 년아!"

“엄마! 우리 집 가 봐. 한방 됐을 거야. 한방 됐을 거야.”

“아이 뭐이가 한방 돼냐?” 니까루.

“아이 신랑 고추가 한방 됐드라.” (일동웃음)

그게 막 한없이 커질 줄 알았나 봐요. 그리고 쫓아가서 정을 쳐데요.
그게 천치라.

8 바보 신랑(1)

윤기분(72, 여)/창리T 1뒤

[창리] 박종수, 강현모, 김정은, 박미나, 임미진 조사(1995. 11. 4.)

앞의 이야기에 마치고 같은 바보에 관한 이야기라서 생각이 났는지 계속 이어서 구술하여 주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시집을 갔는데요. 색시는 똑똑하고 신랑은 어렵데요. 아 신랑은 천치래요.

시집을 갔는데, 그냥 삭시가 시집을 가 보니까, 신랑이 아주 바보지 뭐요. 신랑이 아주 실망을 했어. 그래 아무 것도 안 먹고 옆드려 자는 거여. 그냥 머리싸고 드러눕는 거여.

그러니까로 그래도 바보 신랑이 인자 여편네한테로 간 거여. 인자 가 니끼로 장모가 하는 말이,

“아이고 잘 왔네. 아이고 잘 왔네. 아무 것도 안 먹고 저렇게 두려 누웠으니 어땡 하나. 아이고 잘 왔네.”

흰죽을 주면서,

“이것 좀 갖다가 자네가 먹여 보게.”

응. 그러니까 아주 잘난 척하고,

“예!”

하고 그러고 갖고 돌아 가더랴. 아이 색시가 드러누워 있다가 보니까, 신랑이 그냥 들어오니까 꼴도 보기 싫어 푹 었드렸지 뭐여. 그래 옛날에 짝 벌려졌지. 그냥 딱 벌어져서 훌쩍훌쩍 해. 이 신랑 바보 녀석이 그냥 아래서 밥을, 아니 죽을 쑤는지, [청중 : 염병하네, 아이.] 슬슬 기여 내려오니까로, 신랑이 거기다가 가만이 있지도 않고 하는 말이,

“어저께 쑤겨여 다 식었어. 불리지 말어.”

그러더랴. 그래 자꾸 나오니까,

“그게 어저께 부은 거라, 어저께 쑤 죽이니까 불지 말라.”

고 그러더래. 그런 얘기 그런 것 다 웃음거리지 뭐여. 옛날 얘기 그거여. 옛날에 그렇게 천치도 있었데요.

9 바보 신랑(2)

윤기분(72, 여)/창리T 1뒤

[창리] 박종수, 강현모, 김정은, 박미나, 임미진 조사(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또 있어요’ 하자 없다며 이야기판에서 빠지시려고 하였다. 그래서 조사자가 ‘하나만 더 해 달라’고 조르자, ‘하나 하나 하다가 조선팔도 얘기 다 하겠네.’ 말하면서 구술하여 준 것이다.

똑똑한 놈들도, 이내 옛날에는 맨 천치들이라. 그 장가를 들었는데, 아들이 뭐를 알아야지. 신랑은 모르고 색시는 똑똑하고. 그냥 시어머니가 일부러 걱정을 하는 거여.

“애이, 남의 자식을 데려다가 손주를 봐야 할텐데, 우리 자식이 뭐를 알아야지.”

그것만 걱정을 하는데, 속이 세월이 타는 거여. 영감탱이가,

“여봐. 내 말 들어.”

“무슨 말을 들어요.”

“밀을 벗을, 들을 밭을 매러 내보내라.”

고 했어. 그래 들이 밭을 매러 인저 내보냈디야. 그러니까루 참 옛날에 그 가래고쟁이를 그거를, 그냥 치매를 걸어서 여기다 이렇게 질근 둘러 매고는 옆드려서, 가래고쟁 마루를 이렇게 곁에서, 냅대 밭을 매서 옆드려서 하니까루, 그 놈이 것 또 옆드려 졌으니까는 신랑이,

“아퍼?”

그 안 보다 보니까 이상하거든. 신랑이,

“아퍼?”

“안 아프다.” 고.

“약 발르지. 아퍼?”

애원을 하더라.

“안 아프다고 괜찮다.”

고. 하도 신랑이 애원을 하니까, 색시가 이야기를 해 줬대. 가리켰대 남자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아픈게 아니라고 하니까로. [조사자 : 아퍼?] 응.

“아퍼? 약 발르지. 아퍼?”

그러구 나서,

“아니라고. 아픈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라.”

고. 그러니까 신랑이 거기서 좀 가리켜서 인저 한 번 일을 치르고 왔다고. [조사자 : 일을 치르고 왔어요?] 응. 신부가 가리켜서. 아 그런데 인저 집을 오니까, 시어머니가 밀가루 내서 이를테면 이쯤은 점심 때 됐잖어. 밀가루 수제비를 푹푹 때 넣잖어. 불을 때서 그걸 끄리니까루, 며누리가 인자 들에서 와 가지고 요렇게 앉아서 옆에서 불을 요렇게 때니까, 신랑 녀석이 들어오더니 냅다 부엌에서 그냥 앉아서 불을 때는 놈을 냅다 끌어 잡아 놓고는, 대펠쳐 놓고는 인자 그 지랄 하니까, (조사자 웃음) 시어머니가 그냥 수제비를 쭈면서, 보면서 좋아서,

“우리 집이 경사 났다. 우리 집이 경사 났다. 우리 집이 경사 났다.”

그러니까 덴뿌라가 다 붙었드라. 수제비가. 좋아서. 남자 일색을 아는

거니까. ‘우리 집이 경사 났다’고 아들이 아주 바보인데 그걸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집이 경사 났다. 경사 났다’. 그저 둘러보며, 수제비를 떼며,

“우리 집이 경사 났다. 우리 집이 경사 났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벽에가 다 붙었드라. [조사자 : 수제비? 그 밀가루가?] 어. 수제비 뜨는 것. 왜 이렇게 떼 놓잖아. 그랬는데 주걱을 갖다 놓고서 이렇게 띠어 놓잖아. 자꾸 둘러보니까, 그것 둘러 보다가 그것 둘러 보다가 투정하니까 보다가, 벽에가 붙었, 벽에가 다 붙었드라.

옛날에도 미련도 하고. 그리고 신랑이 바보면 색시가 가르키고, 색시가 바보면 신랑이 가르키고. 옛날에 그리고 살았디아.

10 내 똥인데

안순녀(53, 여)/창리T 2앞

[창리] 박종수, 강현모, 김정은, 박미나, 임미진 조사(1995. 11. 4.)

조사자들은 윤기분 할머니의 조사를 마치고 새로운 제보자를 찾아 나섰다.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아주머니들이 많이 모여 있던 집에 들어가 보니 잔치준비를 하던 집이었다. 조사자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찾아온 목적을 말하자, 제보자가 선뜻 나서 이야기를 시작하여 주었다.

옛날에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아주 의종게 살고 있었는데. 근데 원체가난했기 때문에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먹는 걸루 보였어.

하루는 할아버지가 나무를 하러 갔는데, 나무를 해러 가서 똥이 마려웠어. 똥이 매려워서 거기, 거기 논둑에다 똥을 누었어요 [조사자 : 농이요?] 응. [청중 : 논뚝. 논두랑.]

그런디 할머니가 인자 또 반찬을 할라고 나물을 해러 가야 되잖아. 나물. [조사자 : 응 나물.] 응. 나물을 해다 보니까는 된장 냄새가 나. 그

리니까,(일동 웃음) 그래서, ‘이게 왜 된장이냐’ 싫어가지고서, 두리번 두리번 하니깐 된장이 여기서 있어. 이렇게 수북하게. [청중 : 옛날 얘기, 못된 옛날 얘기.] 그래서 그 된장을 갖다가.

“이게 왜 된장이냐! 나한테 큰 덕을 주셨구나!”

하고선 갖다 저녁에 맛있게 끓였다, 그놈을. 인자 맛있게 보글보글 끓이고 나더니, 할아버지가 나무를 해가지고 오셨어. 나무를 담구 그렇게 해서 인자 상에 놓고 그랬더니,

“여보! 오늘은 이상한 반찬 냄새가 나오.”

그랬대.(웃음)(녹음 작동의 잘못으로 지워졌음)

㉫ 나무꾼을 살려준 포수

이명순(49, 여)/창리T 2앞

[창리] 박종수, 강현모, 김정은, 박미나, 임미진 조사(1995. 11. 4.)

앞의 제보자는 이야기를 마치고, 복숭아 나무의 가지를 꺾어버리는 유래에 대해 설명하여 주었다. 이런 동안에 옆에 있었던 제보자는 생각이 났는지 이야기판에 끼어들어 구술하여 주었다.

옛날에, 옛날에 인제 나뭇꾼이 맨날 나무를 해다 팔구. 막 그걸로 갖구 연명을 하구 살아가잖아. 인제 나뭇꾼이 나무를 하러 갔어. 인제 나뭇꾼이 나무를 해러 갔는데, 아이 나무를 한 짐 해서 그냥 질라고 하니 까, 아 이 저쪽에서 그냥 뭐야 호랭이가 그냥 달려오더니 그냥, 잉 잡으려고 그냥, 막 잡으려고 인제 막 잡아 먹으라구 그러는 거겠지.

그래가지고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떨고 있는데, 이게 옆에서 인제 기억이 안 나. 어쨌.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포수가 포수가 그냥 저기를 쏜 거야. 뭐여 호랭이가 바짝 오구, 포수는 좀 멀리 있었구. 그런데 인자(다른 아주머니와 대화 생략) 포수가 이제 어떻게 된 거야.

나무를 아니, 호랭이가 나뭇군을 잡아 먹으려구, 잡아 먹으려구 그런게 호랭이가 바짝 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나뭇군이 막 잡아 먹히게 생겼어, 호랭이한테. 나뭇군이 잡아 먹히게 생겼는데, 그냥 포수가 총을 겨누는 거야, 호랭이를 보구서. 호랭이를 보고서 총을 겨누니까, 호랭이도 얼은 거야. 인자 포수는, 포수한테는. 얼어가지구 가만히 있는 거야. 이렇게 하구. 막 부동자세로 가만히 있으니까. 저기 포수가 소리를 지르는 거야.

“거기 국민, 큰 나무 똥그르 같은 게 뭐요?”

그러는 거야. 그 총알군한테, 아니 나뭇군한테. 그러니까 인자 호랭이가 인제 무, 무언으로 통했던지 원래 그랬던지,

“내가 호랭이라 그러지 말고, 큰 나무, 못 쓰는 나무라 그래라.”

인제 그러니까루.

“나무 똥그루 큰 거 쌓아둔 거요.”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 포수한테. 건너가에다.

“그러면 그 나무를 조금 똑똑 쪼개시오.”

그러더리야. 그 포수가.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인자, 호랑이는 가만히 있는 거지. 움직이면 호랑인 줄 알까 봐.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나뭇군이 핑계김에 그냥 대갈 탁 친거야, 인자 도끼로. 도끼루 치니까루.

“치는 척 해라. 치는 척 해라.”

그랬다고. 자르는 척 해라 해서 탁 치니까, 호랭이는 안 죽으려구, 총에 맞아서 안 죽으라구, 도끼는 맞았을망정 가만히 있는 거야. 인자 그러니까 포수가 쫓아오면서,

“한 번 나무 똥그리기, 한 번 더 쳐 보라.”

구. 그러니까.

“한 번 더 치는 척만 해라.”

이거여. 인자 호랭이가 살살 치라는 거야. 그러니까 더 한 번 퍽 치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치면 칠수록, 이 호랑이는 그 총에만 안 맞으려구 영, 그 잔피를 썼지만은 도끼 맞아서 죽어가는 것은 모르고. 점점 쪼끔

씩 조금씩 더 이렇게 막 힘이 없어지는 거지. 이 나뭇군한테 달려들으
힘이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구 위기를 면해 면했대요. 그러니까 포수가,
사냥군 아니 나뭇군을 살려주고 자기도 사냥을 하고 그런 이 이야기를,
할머니, 우리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릴 때 들은 얘기라
길을 못 맞추겠네. 내가. [조사자 : 처음 들은 얘데요. 정말] 처음 들
은 얘데요. 그러니까 매일 할머니한테 ‘옛날 얘기 해 주세요. 옛날 얘
기 해주세요’ 하면 그 얘기를 매일 해 주시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그
얘기만 매일 들으신 거야. 그래 지금 그걸 못 맞추겠어.

하여튼 호랑이, 호랑이가 포수한테 안 맞을려고 잔피를 부리다가 도
끼한테 맞아가지고, 포수한테 사냥감으로 바쳤다는 거지. 나무꾼 살리
고 그것 밖에 없어요.

12 사나운 시부모를 꺾고 산 며느리

문복남(74, 여)/창리T 2앞

[창리] 박중수, 강현모, 김정은, 박미나, 임미진 조사(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하겠다, 이야기라면 둘째 가라면 서러워
할 할머니를 소개하여 주겠다’며 소개하여 준 분이 제보자였다. 조사자들은 제보자를 택
으로 찾아갔으나 피곤하다며 거절하였다 그래서 그 마루에 한 동안 앉아 있자, 그냥 보
내기가 안 되었던지 이야기를 구술하여 준 것이다.

옛날에, 요 아래 윗 동네에 이렇게 사는데, 며느리를 얻으며는 시어머
니 잔소리가, 시어머니 시아버지 하도 잔소리 해. 그러면 며느리를 얻으
면 나가고 얻으면 나가고 그냥. 이자 다섯을 내보냈어, 며느리를. 근대
여섯째 며느리, 등너머 사는 한 집이 딸이 있는데, 인저 글루 결국 시집
을 보내 달라고 했어.

“어떻게 하든지 시아버지, 시어머니 휘어 잡아가지고 지가 살겠다.”
고. 그래 여섯 번째로 인제 들어간 거야. 여섯 번째. 들어갔는데, 삼일
날 그냥 시어머니가 나오더니 뭐, 삼일 날이면 새색시 나와서 부엌에
와서 개치고 밥 하잖아. 아 머짜고, 무어짜고, 어짜고 시어머니가 잔소
리를 하더라. ‘요놈의 늙은이가 며느리를 다섯째 내쫓고, 나 여섯째 들
어왔는데 또 잔소리 하는군.’

광하고 부엌하고 한데, 옛날에는 그렇게 다 있잖아. 그래서 그냥 쌀 두
가마디리, 이렇게 세 가마디리 항아리에다 쌀은 퍼 뷘 놓고 먹었어. 항
아리에다 변쩍 들어서 이냥 꺼꾸로 박아 놔지, 시어머니를. 아 그러니
까꾸로 박아 놔으니, 이놈에 늙은이가 나올 수가 있어. 밥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옛날이라 그런지 잔치꾼들도 삼일 날이든지 없던지, 밥을 해
가지고 겸상을, 시어머니 시아버지 겸상을 해가지고 이냥 갖다 무릎을
꿇고 공손이 놓으면서, 그래 밥상 드려가지 전에 시어머니를 끄내서 놔
어. 그런데 영금영금 겨 들어 갔지. 영감 있는 디로.

“아이 식사 하시라.”

고. 인자 갖다, 무릎을 꿇고 상을 갖다 놓고선,

“아우 어머님! 어디가 편찮으신가 왜 그러시나?”

고. 무리쳐서 인저 시치미를 떼고 아주. 지가 그렇게 하고도 인제 가만
히 그 시어, 아 근데 밥상 퍼 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그 영감보고 그 얘
기를 했지 뭐여.

“새 며느리가 날 독에다가, 쌀 두 가마디리 독에다 까꾸르 박아서 이
런 데가 이렇게 결리고 그렇다.”

고. 그 영감탱이가,

“오 요놈에 늙은이가 꼭 이래서 미느리를 내쫓는구나! 아 저렇게 정
성껏 밥을 해 가지고 와서 상을 갖다 놓고, 뒷걸음질 쳐 나가고 그러는
색시가, 며느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고. 하고서는 인자 그 때부터는 말, 저 마누라 말을 안 들었어. 아, 그래
서 인저 삼일 날 그렇게 잡아가지고 시어머니 인자 잡았잖아. 그런젠

그리고 인자 하여튼 삼일 날서부터 저녁에 들어가서,

“아버님 어머님! 안녕히 주무시라.”

고 문안 인사 드리고, 식전에 가서 또 문안 인사 드리고, 일주일을 그렇게 받았는데,

“인제 그만하라.”

고 시아버지가 그래더랴. 하 근데 이놈에 시아버지를 어떻게 꺾을 수가 없더랴 그냥. 그러자 시할아버지 지사가 돌아오더랴. 인자 그걸로 해서 할라고, 구시월이 됐는다.

“내일 모래 잉, 시할아버님 기고라.”

고 하니깐.

“아 그럼, 쌀은 어디 있습니까? 지사 멍쌀 지을 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깐.

“떡던 항아리에 있지 어디 있나?” 고.

“아! 그래서 집안에 이렇게 미느리가 부전질 못 한다고. 광목 다섯 말을 바꿔다가 그걸 자루 지어가지고 땅바닥에 놓지 말고 베를 훑으라.” 고 했어. 지사 멍쌀 할려고, 훑어가지고선 와서 저도 죽겼지, 시아버지 꺾으려니깐. 도브 빠져가지고선 땅바닥에 안 놓는 거야. 두 구텡이 이제 며느리가 붙잡고 두 구텡이 시아버지가 붙잡고, 그걸 이틀을 말렸어. 인자 찌어서 지사 멍쌀을 해 냈지.

“아버님! 지사 멍쌀 찹 적에, 지사 밥 찹 적에 땔나무는 어디 있습니까?”

이러니까.

“없다.”

고 그랬어. 근데 부잣집이던지 머슴을 들씩 두었는데,

“닭소리 개소리 안 짓는데 가서 싸리 가지, 그냥 쪽쪽 뺀은 싸리 가지 그 거를 한 짐 해 오라.”

고 했어. 해 왔지. 자기 그 시아버지가 자기 생전에, 그 자기 아버지 지사를 그렇게 제일 그냥 차리더랴. 며느리가. 광엘 들어가서 그 쟁일 고

여서 소대사 지사마냥 고여 왔는데, 대견하기도 하고 며느리가 엄하기도 하고, 아, 가서 이렇게 들여다 보면서,

“저건 뭐이고 저건 뭐이나?”

하도 많이 고여 나오니깐.

“예! 그건 뭐고 그건 뭍니다.”

지사날 저녁에 딱 닥쳤는데,

“아버님! 세수하시고서는 지사 참례 하시죠.”

사랑에 가서. 그렇게 세수를 하고 들어오니깐, 탕 구탕, 탕이 아홉여. 탕 구탕. 이 탕 모인게. 잉 워낙 구탕 아니면 칠탕, 칠탕 아니면 오탕을 하라고, 잉 시방은 반대이지만, 암만 저기 해도 삼탕씩은 되거든 그전에. 그래 이제 탕 구탕을 담귀 놓고, 밥 두 그릇 탕국만 떠 놓고, 지사 고여논 건 하나도 안 갖다 놓고 그냥 지사를 지내드라. 며느리가 어려워서, “어째 그걸 안 갖다 놓고서는 지사를 참례하라나.”

지사를 지냈다는 거여. 인자 갖다가 채 썰어서 반주를 해다가 먹는데, 그래도 먹으면서 그 며느리허구 물어보지 못했는데, 지사를 다 지내놓고 인자 잘려고 했는디, 인자 문안 드릴려고 나간 거야, 며느리가. 그러니까 절을 하고 나올려고 하니깐.

“내, 너 보고 물어볼 말이 있다.”

무릎을 꿇고 공손히 앉았지.

“그 어째, 그렇게 일주일을 두고서 고인 제물을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도 안 갖다 놓니?”

이리 물었던 말이여.

“예, 부정해서 못 나왔습니다.”

“무이 부정하나?”

“저는 아주 제 정성껏 하는데, 이 놈의 시애미가 담뱃대로다가 저건 무어고 저건 무어고 저렇게 했단 말이여.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담배 먹는 거 보셨습니까?”

응, 아 담뱃대로다가 그렇게 했으니까 부정해서 어떻게 지내느냐 그

거여. 그러니까.

“인자 내일 아침부터 나한테 문안도 드리지 마라. 우리 집 가문이란 건 내 집 똥통간만또 못허니께, 문안도 드리지 마라.”

그래 시아버지를 꺾어서 살았디야. 좋지?(웃음)

13 바보 색시(2)

문복남(74, 여)/창리T 2앞

[창리] 박종수, 강현모, 김정은, 박미나, 임미진 조사(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쳤을 때, 조사자들이 앞에서 들었던 바보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 묻자 해 주신 것이다.

그냥 딸을 바보를 두고, 또 신랑집을 아들도 바보를 두고 시집을 보냈데. 시집을 보냈는데, 그 장인까지가 무슨 병인지 그냥 샅가라질 하고 었디려서 이렇게 하는데. 사는데, 고 아들의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애 너도 처 부모도 부몬데, 그 장인한테 가서 미음이라도 한 숟갈 떠드리고 오너라.”

오늘 내일을 죽기를 이주 날을 받아 났는데. 가니까는 그냥 이렇게 까꾸로 백혀서 이렇게 있는데, 무신 뱅이 들었는지 하문이 이렇게 열렸드려야. 미음이 거기 있드려야. 썩 들어가며 똥구녕에다 퍼 부었지 뭐여, 미음을. 그런께 두 숟가락째 퍼 넣은께,

“푸르르-!”

그러니께,

“뜨거워 그러십니까. 차거워 그러십니까? 지가 한 수갈 퍼-(웃음) 뜨겁지도 앓고 차겁도 앓은데, 왜 그렇게 내뻘리십니까.”

불알 두 쪽을 이렇게 늘어져 있지.

“어머, 저건 언제 먹던 짬지쪽이 저기 메달려 있나! 나라도 때 먹어야 지.”

하면서. 불알이 떨어져? 불알쪽이. 그런데,

“그건 여기 메달린 거로군. 메달린 거로구나!”

그랬다구.(웃음) 아유 그만 해. 아이 기운 없어.

14 색시의 모자란 아버지

문복남(74, 여)/창리T 2앞

[창리] 박종수, 강현모, 김정은, 박미나, 임미진 조사(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밖으로 나와서 이야기판을 형성하였다. 조사자가 옛날 이야기를 해달고 하자 부탁하자 주변 남자분이 못 받는다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웃고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옛날에 한 사람은 참 상놈이지요. 상놈이고 신랑집은 반중이더러야. 양반보다는 조금 낮은 반중. 그리고 인제 밥이라도 실컷 먹으라고, 그 상놈의 집에서 그 반중의 집으로 딸을 시집을 보냈는데, 그 색시 아버지가 어떻게나 천치같고 모자랐던지, 아 시집 보내놓고서 그날 그냥 끈해발을 하구, [청중 : 짬세기를 신구.] 끈해발을 하구 며느리를 가니까. [청중 : 시아버지가.] 그러는데 아이 산택에 그날 잔칫날 진수성찬을 차려서 디려 갔어. 이제 잘 얻어 먹고 왔지. 천치같은 친정 아버지가.

“에휴 아버지! 오시려거든 좀, 끈해라도 얻어 입구, 신발이래두 얻어 신고 오시지. 끈해발을 해가지고 동저고리 바람으로 오셨느냐?”

고 그 딸이 하는 말이. 그는 반중이고 살기도 괜찮으니까. 그러다 마다 하구 이노무 애비가 와가지고서는 그냥, 옷을 또 얻어 입구 신발을 얻어 신구, 그 이튿날 또 간거여. 딸네 집이름. [청중 : 딸네 집이름.] 또 갔으니 아이 어저께 왔다 갔는디, 오늘 또 왔으니까, 그 며느리 얻은 집

이, 그 사돈집이서도 이상히 생각할 거 얜여. 해서 인자 주안상을 해 드려가지구서, 시어머니가 문틈으로 누가 왔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딸이 앉아 울어. 즈 아버지가 그렇게 속이 모자서 그랬다고. 그걸 얻어 입고 얻어 신고, 얻어 입고 온 생각을 하고 질질 울고, 절을 하고선 질질 울고 앉았으니깐.

“음. 울긴 왜 울어. 뭇땀이 울어. 머이 부족해. 후루매 얻어 입고서 오라고 해서 후루매보다 더 좋은 냉꽃도 얻어 입었겠다. 신발 얻어 신어, 무슨 구두 얻어 신었겠다. 머이 부족해 우니?”

5살 먹은 시누가 있더라. 아 나가서, 요리 쪽쪽. 전에는 그래, 시방은 뺨스가 있지만, 그 뺨스가 읊잖어. 허이 요룩하고 고 앉았으니까, 아 요 노무 시-애비-이 그 어린애 사타구니를 보구. [조사자 : 시애비요? 친정아버지요?] 친정 아버지가,

“해해, 네 보지가 저럴덴, 네 에미 보진 어떻겠냐.”(일동웃음)

시 어머니가 그냥 마루에서 졸도를 하드리야. 그 놀랄 노릇이지 뭐여. 그지? 이제 시시 마 했어. 그만해. 기운 없어.

15 구렁이의 복수를 예방한 사람

문복남(74, 여)/창리T 2뒤

[창리] 박종수, 강현모, 김정은, 박미나, 임미진 조사(1995. 11. 4.)

앞에서 ‘집을 찾아온 구렁이’를 한 제보자가 이야기를 마치자, 같은 소재인 구렁이에 관한 이야기라 생각이 났는지 계속하여 스스로 구술하여 주었다.

딸을 인자 시집을 보내고, 딸네 집이를 앞, 앓 오늘 재수, 대우 만댕 일세(음료수를 대접하자.) 딸네 집을 가는데, 옛날에 육로를 걸어 다녔지. 차가 어디 있었어? 걸어서 가는데, 그늘 밑창에 가서 덤부살이(덤풀)

틈에 칠월달인데, 인제 가서 한참 앉아 쉬자니깐, 큰 구렁이가 그냥, 똑 저기 같은 구렁이가 있는데. 쪼금한 실뱀하고 동거더래요. 그 구렁이한테 실뱀이 홀래(성교)를 하더라.

그래 긴 장죽으로 담배를 피다가, 아무리 하물며 짐승이지만 혹 무지한 구렁이한테로 조그만 실뱀이 그래는게 밍살머리시러워서, 담배를 피다가 고 구렁이 대가리에다가 툽툽 털었다. 그래 막 비틀더랴, 구렁이가. [조사자 : 너무 뜨거우니깐.] 뜨거우니깐. 인자 눈 한짝이 멀더랴.

그래서, 그래놓고선 인자 딸네 집에 가서, 저녁을 인자 차려줘서 사돈끼리 이제 앉아 먹는데. 별안간 어서 뭐 소내기 들어오는 소릴 하더랴. 근데 이 그 사돈하고 그 얘기를 한 거야.

“아무리 미물 짐승이지만, 나 오는데 이러이러 하고 이러이러 해서, 그렇게 뱀, 구렁이 대가리에다가 그렇게 떨어뜨려, 그렇게 뒤틀고 그러더랴.”

구. 그러니깐 그 구렁이가 웬수 갇으려구. 거기 할아버지한테루 왔다가 그 얘기하는 소리를 듣구선, 그냥 후욱 풀려서 그냥 가더랴. 그런께,

“이상하다. 나를 웬수를 갇으려고 온게 분명하다.”

구. 어스럼 달밤인데, 그 종이 등에다 등불을 해 들고, 사돈하고 그 구렁이 대가리에 담배재 떨어 데를 갔데. 가니까는 그 구렁이보다 그 숫놈이 더 크더랴. 그러니깐 그 눈 먼 암놈의 구렁이가, 그 신랑보고 일러 거지 뭐여.

“어떤 이러이러한 할아버지가 내 눈에다가 재를 떨어져서 담뱃재를 떨어져 내가 눈이 멀었노라.”

고. 그런께 그 말하자면 그 신랑, 큰 구렁이가 그 웬수 갇으러 갔다가 그 얘기하는 것을 (듣고), 와가지고선 그냥 누갈 먼 암놈을 그냥 막 물어, 그냥 물어 뜯어 반을 적여 놓더랴.

사람이구 짐승이구. 그 저기한 걸 알구. 그래서 사돈한테 그 얘길 안 했으면 모면올 못 했다는 거지. 그렇지 않아. 그래서 모면올 했다고 전에, 속담에 그렇게 얘기를 전해 내려오데. 이제 그만 해.

16 못난 자식에 그 애비

문복남(74, 여)/창리T 2뒤

[창리] 박종수, 강현모, 김정은, 박미나, 임미진 조사(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서, 생각이 났는지 스스로 구술하여 주었다. 이 이야기는 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약간 음담패설의 내용을 담고 있다.

딸도 모자라고 사윗자리도 모자라고 그러더라. 그 결혼을 시켰는데, 딸네집이 인자 그 아버지는, 신랑의 아버지는 흠애비고, 색시 어머니는 흠어머니더라. 그러니깐 바깥 사돈 안 사돈끼리지.

이 저 딸네집을 인자 그것 애기를 낳았다. 그래서 가서 애기를 낳았다고 해서 갔다. 가을밭을 해가지고 한 보따리 해가지고서는, 저 한내 넷가라고 큰 바다같은 넷가를 건너야겠는데. 그리로 사위 보고 ‘나오라’고 그러고 갔는다. 버선발을 하고 저 딸네 집에 가서는, 사위는 지게 뿌리에다 떡보따리를 받아 언고, 장모를 인자 업은 거야. 지게 다리 위이다. 인자 언쳐 놓고선 한내 넷물을 건느는 거야. 건느는데,

“아이, 개는 몸은 풀었나?”

애기 낳았다는 소리 듣고선 아들인지 딸인디 모르는다. 그런데,

“몸은 풀었는지 모르고, 보지가 보지를 낳았어요.”

그러더라. 보지가.(일동웃음) 그러니깐, 거기서도 그냥 껌씹할 거 아냐, 사위 자리가. ‘아이구 어쩜 배워 처먹지도 못 해서 딸 낳아 몸 풀었다면, 딸 낳았다고 그러면 고만이지 보지가 보지를 난게 뭐여. 그랬더니 어찌면 그렇게 껌씹스러운지 모르게.

아 그놈의 사위가 그냥, 지게 그렇게 하면은 그냥 업고 그 넷물을 건넜으면 좋지만, 사타구니에다 자꾸 손가락으로 넣고 후비더라, 장모 거기를.(일동웃음) 아 재미있는 거 해봐라 웃는 것밖에 좋은 거 어디 있나.(청중에게 얘기 함)

그래서 인제 왔는데, 왔는데 인자 하루 저녁을 자고서는, 아휴 사위가 어쩌면 바보고 천치고 패씼스러운지, 온다고 그 이튿날 온다고 하다가, 그 바깥 사돈이 사랑방에 있는 데로 들어가서,

“아들님 좀 말이라도 좀 가르키고, 그렇게 배우지 못 해 아무리 일자 무식이지만 그렇게 말주변도 읊고 그러냐고. 사돈 양반이 그걸 좀 가리키라.”

고 인자 그 소릴 할려고 사랑방엘 들어갔다. 그래 그런 얘기를 했다.

“아휴! 사위가 너무도 모르고 좀, 사돈 어른께서 좀 훈계 좀 하고 가르치라.”

고 그랬다. 그 소리는 땃구도 안 하고, 사돈이 질질 울더라, 바깥 사돈이. [조사자 : 울어요?] 잉. 그래.

“어이 내가 괜한 소리 했나보다.”

구. 그러고 하니까.

“그게 아뉴. 내 방에 들어온 보지가 그냥 내보내기가 아까와서,(일동 웃음) 그래서 운다.”

고 그러드라. 그러니 그 밥에 그 나물여. 아무리 개천에서 용 난다고 해도, 부모가 모자라면 어딘가 모르게 다 닳게 마련이여. 그렇잖아. 그 놈은 사위만도 더 못 한 거지 뭐여. 사돈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나 그렇게. 안 사돈뎁을. 그렇지? 그거 아주 틀린 거여. [조사자 : 틀렸어요](일동웃음)

17 딸의 지혜로 망신을 모면한 아버지

문복남(74, 여)/창리T 2뒤

[창리] 박중수, 강현모, 김정은, 박미나, 임미진 조사(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계속하여 구술하여 준 것이다. 조사자들은 이것을 마지막으로

창리 조사를 마쳤다.

옛날에 색시가 어찌나 사납고 망하고 못 되먹었는지 시집을 못 가는 데. 어뜬 놈이 데려 갔데요. 그런데 아버지가 도둑놈이래요. 후양을 안 가야 되는데, 그냥 그 도둑놈이 간다고 지랄을 하드랴. 그래 어떡해 혀. 딸이 시집을 가니까 가야지.

가서 그날은 왔으면 좋으련만, 자게 되었다는구만. 아이구 마루 끝에 강(광)우리에 유기수를 많이 씻어 앞에 뉘는데, 그놈게 욕심이 나서 못 자는 거여. 사돈만 자면, 바깥 사돈만 그러니까 저 놈 안 자면, 내가 저 걸 들고 가야지. 사돈 잠들어 놓고 겨우 들어가서 그놈을 걸머지고, 지게 지고 나오다가 넘어졌데.

“와라라 딱딱.”

하니깐. 재 놀란 거지 뭐여. 제 식구들이,

“도둑이여.”

하고. 제 뛰어 나오고 한 뒤에, 딸이 나와 보니깐 아버지더라네. 이주 그냥 얼마나 의견 찬지, 마리에서 두 다리를 뺀고 울면서,

“우리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하시는 말씀이, ‘너는 첫날 밤에 망손(망신)을 해야 잘 산다. 망신을 해야 잘 산다’ 하더니, 이 여식이 못 사는 것이 낫지, 아버지가 새 사돈 벼슬에 망손하는 것이 낫냐?”

구. [칭중 : 그게 모면하는 거지 뭐여.] 응. 그러드랴. 그러니까두루 그냥 사돈 집이서, 이냥 사돈을 이렇게 해서 그냥 받들어서 말을 태워 보내드랴. [칭중 : 그것 모면하는 거야.] 응, 그만하여. 그렇지 뭐여, 얼마나 의견 차, 얼마나.

“이 딸 자식이 못 사는게 낫지. 아버지가 새 사돈 집이 와서 이렇게 망손, 첫날밤에 망손하는 것이 좋으냐?”

고. 그냥 두 다리 뺀고 통곡을 하드랴. 그렇게 사돈이 귀하드랴. 자기네 잘 되게 한다니깐.

여

백

4. 아곡리

1) 마을개관

박종수, 강현모, 김영학, 이홍주, 이승훈, 김은미, 김혜진, 김은숙 조사(1995. 11. 4., 1996. 5. 24.)

아곡리는 용인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20분 걸리는 곳에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은 이동면의 여러 마을을 지난 남사면에 들어서 두번째 마을이다. 마을의 교통편은 용인에서 남사면을 통과하여 오산, 평택, 안성으로 가는 버스들이 지나고 있으나 서지 않고, 완행버스만 정차하여 좋은 편이 아니다.

아곡리는 원래 고려시대 몽고의 장수 살리타를 죽인 처인성 있던 처인현의 치소였다. 이곳은 수원에 딸린 처인부곡의 마을이었으나, 조선 초기에 현으로 승격되었다. 그 이후에 이곳은 처인현의 관아가 있었으므로 처인골, 관아골, 아골, 아동, 아곡 등이라고 칭하여 왔다. 1914년에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이웃의 남산동과 합하여 아곡리라 칭하여 남사면에 편입되었다.

남산동이란 북쪽에 있는 아곡에 처인현 치소가 있을 때, 남쪽에 있는 동네라고 하여 남곡, 남산, 남산너머, 남산동이라고 불렀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아곡과 남산 사이에는 작은 산이 놓여 있는데, 이 산을 남산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생기기도 하였다. 그런데 과거에는 아곡마을이 중심이 되었으나, 현재는 교통의 요지가 된 남산마을이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 마을은 70년대까지 낙후된 마을로 차가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소로길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마을의 한 지도자가 나타나 찾길을 닦아 오늘날의 번영을 이루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91년 어느 일요일에 큰 비가 내려 위에 있던 저수지가 터져 마을이 절단이 났는데, 그 이후에 마을은 신앙심이 돈독한 지역으로 발전

하였다고 한다.

아곡리는 북쪽으로 완장리로 들어가고, 서쪽은 공장지대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남쪽은 면소재지인 봉무리로 가는 4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의 동쪽에는 완장천이 흐르고 있으나 넓은 평야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2) 설화

① 도깨비를 만난 사람

김홍희(71, 여)/아곡리T 1앞

[아곡2리] 박종수, 강현모, 김영학, 이홍주, 이승훈 조사(1995. 11. 4.)

조사자들이 제보자를 만나 처음 들은 이야기는 시집살이 관한 이야기였다. 고향이 충주인 제보자는 조사자 중에 충주 사람이 있어 더욱 친근하게 접근할 수가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도깨비에 관해 묻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조사자 : 할머니! 어렸을 때 들던 도깨비 얘기같은 것도, 잠깐 짚막하게 해 주셔도 되는 데요] 도깨비 누가 봤어, 나는 못 봤는데.

어떤 우리 집에 할아버지 하나, 일 해는 할아버지 하나 뒀는데, 저기 나무해 가지고 오시다가 저물게 오는데, 도깨비 흘러가지고 밤새도록 끌려다니다가 새벽에 들어오시더라고. [조사자 : 그때 끌려 다닐 때, 어떻게 끌려 다니셨는 데요?] 그냥 불이 흰해서 가면 아니고 아니고 그렇더라. 그래 아침에 오셨는데 그냥, 아주 그냥 기운이 하나도 옮겨가지고 오셨더라고. 그래,

“왜 그렇게 땡겨 오셨나?”니까,

“자주 집같은 데를 가서 가면 아니고 아니고”

그래서 자꾸 갔다야 그냥, 한정없이. 그래 아침에 정신 차려가지고 오셨더라고.

② 늑대가 유씨를 잡아먹지 않는 이유

유혜순(85, 여)/아곡리T 1앞뒤

[아곡2리] 박종수, 강현모, 김영학, 이흥주, 이승훈 조사(1995. 11. 4.)

조사자는 김홍희씨의 권유와 전도사님이 소개해 주신 제보자를 찾아갔다. 제보자는 이가 많이 빠져 있으나 발음을 알아듣기 충분하였다. 조사자들은 조사나온 목적을 말하고 전도사님이 보충 설명하여 주어 접근하기가 좀 수월하였다. 조사자가 손자에게 해 주시던 이야기를 묻자 다 잊어버렸다고 하였다. 그래서 호랑이 이야기도 좋으니 해달라고 하자 옛날 자신의 집안에서 경험하신 이야기라며 구술하여 주었다.

[조사자 : 호랑이가, 나무꾼이 도망갔다는 뭐, 그땐 얘기 아직도 기억이 안 나세요?] 내가, 우리가 내가 유서방넨데, 그게 옛날 얘기지 뭐. 우리가 유서방넨데, 늑대가 그러니까, 그때는 큰어머니도 있고, 징(증)조 할아버지도 있었어요.

그런데 늑대가, 나물을 갔는데, 늑대가 그냥 죽자 살자고, 내 친구 셋이 갔다가. 아 새끼가 이쁘잖아 그냥. 그래 늑대 새끼가 이쁘지, 그땐 늑대 새끼 줄도 모르구, 인자 강아지가 거기 많다고 이렇게 하는데,

“아유! 강아지 그냥 이쁘다.”

고 쓰다듬어 주구 하는데, 아이구 뭐가 그냥 검은 게 툭툭 털고, ‘허허흥’ 그러는데, 아이구 뭐가 보구니 들고 올 수 있었어유. 뭐시 시 지지배(여자)가, 그냥 열 세 살 됐나, 여남은 살 짜금 넘었어유 아마. 뭐 열시 살인지 열두 살인지 그렇게 열추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내려 왔는데, 인자 그래 그 해, 그 해에 잉 가을에, 가을인가, 아이라 사월이지. 인제 나물을 갔으니까. 나물을 갔는데, 늑대가 아가리를 벌리고,

“아흥! 아흥!”

하고 그래서, 잡아먹는 줄 알고 내려와서, 우리 큰어머니, 할머니 보고.

“아이구! 여기 늑대가 악아리(아가리)를 벌리고 ‘아흥 아흥’ 하고 그래서 우리가 무서워서 그냥 왔다.”

고 그러니까. 참 그말로,

“참 그렇, 어떡 하느냐?”

고. 그 저기라고 해서, 어떤 사람을 잡아 먹고는 비나가 거기 걸렸대요, 늑대가 악아리가. 그래서 인제 할아버지하고, 인제 큰엄니네 큰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이렇게 가서,

“그 저 아마 저게 뭐 빼내라고 그러는 것을, 저것들이 그냥 왔나 보다구. 우리 가 보자.”

구. 그래서 그, 저 안성에, 여기 안성에, [조사자 : 안성군요] 친정이 안성인데, 안성 미득이라고(살아온 내력 생략) 거기 산이 거(巨)해요 그래서 그전에 가 보러 갔는 데도, ‘아홍!’ 아! 허드래요 그래서 인제 그 아버지,

“아이구! 왜 그래? 왜? 왜 우리 강아지 왜 그래? 왜 목에 걸렸어. 왜 그래?”

이렇게 할아버지가, 우리 집, 가면서 그랬대요.

“아이구 왜 그래. 뭐 아가리에 걸렸어?”

걸렸은 게, 그래야 그 악아리를 벌리고 있는 거는 뭐가 백여서 그러는 거여. 가 보니까 비나가 걸렸대요. 사람을 잡아 먹었는지. [조사자 : 비나요?] 비나. 옛날 비나. 이것, 이게 비나여. [청중 : 비니여.] 비나여. 이런 거 비나, 이런 비나가 이것만 하잖아요. 옛날에는 이만이만 해여. 이만 혀. 인자 그래서 그저,

“왜 그러냐구?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점점 악아(아가)리를 이렇게 벌리더라여. 그래서 그래 인제 할머니 할아버지 큰아버지가 인자 이렇게 바툼바툼 가서, 그래 인제 뒤에 가서, 인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고 벌리고 보고,

“벌려라.”

고. 허고 이렇게 보니까, 이만한 비나지 뭐. 대가리만 하고. 그런게 이렇게 걸렸더라요. 그런게 이렇게 가로 안 걸리고, 이렇게 그냥 잡아먹은 채로. 그래 인제 뭔지 알고 생겼는지 이렇게 걸렸더라요. 그래 그것, 그

것 내 잊어빠리지도 않아. 그때 아마 열네 살이나 열서너 살 됐나 봐, 아마. 그랬는데 걸려서 그것 빼, 그걸 빼 냈대요. 그래 이 아가리, 손으로 할래니까 무서워서, 막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걸거 잡아 당겼디아.

[조사자 : 할머니 잠깐만요?](Tape1 뒷면에 계속)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꺼낼려니, [조사자 : 비너를 걸린 거를 꺼내는 거예요, 지금?] 꺼내야지. 꺼낼려고 이렇게 해니까, 아이구 이제 손을 들이대니, 막대를 어디서 쥐서다 주드래요, 그래 막대를 잡아 땡기니까, 여기 비나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나오더라여. 나와, 이런게.

“아가. 이것 이게 백였구나! 아이구 이런 짓 해지 말라.”

구. 그런게 사람 잡아 먹지 말라는 소리지.

“이것 이런 짓 하지 말고 저 좋게 지내야지. 이제 애들이 나무를 하러 와도, 니 아들 딸을 만지도 가만 두구. 가문 두구 물구 그렇게 말어. 가만 뒤. 귀해서 그러니까 가만 뒤.”

그래 가매, 자주 달래며 이렇게 끄내 주니까, 그냥 쫓지루 그냥 두덕 두덕 해 주더라여. 거기 할아버지. 큰아버지를 두덕두덕 해 줘.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장 그러지.

“이 유서방네는 늑대가 안 잡아 먹는다구. 비나를 꺼내 줘 살려 줘서, 그래 유서방네는 늑대가 안 잡아 먹는다.”

고 내리 말이 나온 거여. 옛말이지 그게. 숙녀들이, 지금도 큰 비나 있잖아, 테레비 보면 이렇게 왜. [조사자 : 네!] 큰 비나 이런 거. 그게 걸려서 그랬는데, 참 늑대를 봐도 그렇게 무서운 줄 모르구. 큰아버지 할아버지 뭐 산엘 가면, 그 높은 산인데, 거길 가 가지고, 거긴 산이 거(巨)해니까 노박(항상) 있지요. 지금이 귀해지. 그래 그래서 보아두 무섭두 안 해더라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인저 장덜(매번) 그러지요. 부모네도 그렇고.

“유서방네는 산에 어둔데 가두, 산에 늑대는 안 물어 간다.”

고 그래.(웃음) 그러군 인제 아무리 두덜거리고 그러더라여. 그래고 인제 그 나물 까서, 나물 가서 보구니 이렇게 놓구 그런 거를 그냥 그거

갖다 집집이 났잖아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유. 잇(옛)말에 있잖어유. 왜 나물 까면, 그런데 놓면 안 되지. 나물 까서 그런 것두, 나무 까서 보구니 내뿔구 나만 살려고 뒀은게 그게 집집마다 어떻게 알어유. 집집마다 갖다 났어유.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한 거라구. 그때는 열 살 안에 나물 갖다 봐요.

그랬는데 그렇게, 그러니 그 늑대유. 그 늑대가 사람을 잡아 먹었지유.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창사구(창자)만 잡, 꺼내 먹는다지만, 전에는 내리 깨물어 먹었대유, 늑대가. 그래서 비나가 목, 악아리가 걸렸지유. 그랬다구 해서 그게 잇말에 애들 데리구 그런 말은 했지유. 그런 얘기를. 아이고 다른 얘기 하는 거야 뭐. 그래도 그렇게 그때 기억이, 지금도 기억이 난다고.

③ 가족을 잘라준 호랑이

유혜순(85, 여)/아곡리T 1뒤

[아곡2리] 박종수, 강현모, 김영학, 이흥주, 이승훈 조사(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늑대가 유씨를 잡아먹지 않는 이유에 대해 중구난방식으로 계속하여 주었다. 그래서 조사자들이 새로운 이야기를 부탁하자, 다 잊어버렸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를 부탁하자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주었다. 이것은 재보자가 실제로 보았던 일이라고 한다.

근데 호랑이는 늑대 가족인지 호랑이 가족인지 모르는데, 여기서 동박굴이라고, 우리가 거기를 논을 하고, 동박굴 절인데, 지금은 절도 없었지만. 그 절에서, 그 절에서 사는 여편네가 호랑이 가족이라고 그냥 이만하게. 이만하게 겨울이면 불 때면 와 있다고 그래서,

“그걸 약에 쓴다고. 그러면 잘리 달라. 잘리 달라.”

고 하면. 잘르라고 가만히 들고 있는데요. 이만한 호랑이 가족, 한 번은 가

저오는 거 봤어유. 전에는 안 불(부엌)에서 불 때구 그럴 적에. 그래 몇 십 년 됐지. 인제 절도 없었는지, 댓 년 넘었을 꺼여. 그러면서 호랑가죽 이라 그랬는데, 여쭙 참 털, 털하고 여전 호랑이여, 지금 얘기해 보면, 예전 그 때 그 털이여. 그리고 호랑이 못 봤지. [조사자 : 그 가죽을 어떻게 얻었는 데요?] 가죽은 불 때는 데 노박 와테요. 와 있테요.

[조사자 : 호랑이가요?] 말은 호랑인데. 늑대지 뭐, 호랑이겠어유. 불 때는 데 와 있으면, 인저 이렇게 쓰다듬어 주구. 그래서 같이 불을 때고 그러면,

“이 가죽을 벗겨다구. 약을 쓴다. 약을 쓴다. 사람 살린다.”

고 허면 그랬다구. 그때 내가 백대구만 남아서 아팠어유. 그런데 그 절에 다니는 이 보고 그랬지유.

“호랭이, 늑대 가죽을 살, 털을 삶아 먹으면, 그거 삶아가지구 그냥 물하고 마신다구. 그러면 그개 좋대는데, 그것 좀 은어 달라.”

고 그랬지. 이듬해 누구나 그것을, 털을 찢라 가지구 찢다구 그래더래, 그래,

“나도 그것 좀 은어 달라.”

고 그러니까. 그 여편네 어디로 갔는지 몰르것네. 죽었는지 살았는지, 죽었지 뭐. 그런데 한 이만치 찢라 왔어. 아주 금방 찢른 거 같은게, 그냥 피가 있으니까. 그랬는데 찢러 왔는데, 그걸 그냥 태워가지구, 가죽 두 태우고 털도 태우구 다 태워가지구 해 먹구 난지 어쩐지 몰러. 그래 여태 살었으니까 난거지. 그래구 보기도 했을라구.

[조사자 : 그 호랑이네요, 가죽 찢라도 가만 있어요?] 모르지 인저. 참 불 때는 데, 노박 저녁이면 불 때면, 식전에 불 때면, 지금은 지금들은 불을 안 때지만, 그때는 불을 땀지유. 불 때는 집이 많지유. 우리 집은 지금두 때기는 하지만.

그러면서 저기 동박굴이라고 함곡에 가서, 절에서 짓고 사는데, 여기 아침에 불 때면, 식전이면 이렇게 온 완대유, 앞에. 오면 개같이 한대. 개같이 굴른테 그냥. 밥도 주면 먹고 가구. 그 뭐 생선 같은 거 주면 썩

어서 놓으면 먹고 이룬다는 데. 그랬는데 이렇게 ‘약하게 달라’고 그러면 디민 대여, 잘라 가라구. [조사자 : 호랑이가요?] 그랬다구 그래여. 그래 내 그전 안 잊어버려요 내가 먹고 약을 찾으니까. 그런 일도 있었어. 이제 오래 사니까 그런 일도 다.

아유 그렇게 그런 것도 약을 해 먹어서 그런지 이렇게 오래 살어. [조사자 : 오래 살면 좋죠?] 오래만 살면 뭘 하우. 지금들은 어디 오래 살게 두간. 어따 갖다 집어던지구 고려장 허고, 그런 그런 자식, 오래 살고 그러면 그럴까 무섭지. 그런 거 아 무서워. 그런 게 무섭지.

4 도깨비 일화

유혜순(85, 여)/아곡리T 1뒤

[아곡2리] 박종수, 강현모, 김영학, 이흥주, 이승훈 조사(1995. 11. 4.)

조사자들은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제보자에게 고려장에 대한 것과 용기장수에 대해 물었지만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다시 도깨비에 대한 이야기를 묻자 구술하여 준 것으로 자신이 경험하였던 일이라 한다.

[조사자 : 할머니! 도깨비 나타났다는 얘기 못 들어 보셨어요?] 도깨비는 말도 못해. 나는 도깨비 흘러서, 밤도 새우고 그랬는데. [조사자 : 그것도 얘기해 주세요.] [조사자2 : 언제요?] 우리 넷째 아들을, 두 살인지 시 살인지 어떻게 먹었는지.

그러카구 여기 판장로네, 판장로가, 부인이 우리 딸여. 개를, 개하고 이렇게 안성에 가다가, 안성 미룩에라고 가다가 인자 삼십리여. 삼십리. 지금은 저 차로 가니까 가깝지만. 가까워두 그 질이지 뭐. 여기서 가는 질은 다 고삼차 타고 가면 안성 미룩에라고. 그러구 가면 권말 한내, 한내라구 있으유. 그런 2월 스무엿세 날인지 닷새 날인지, 우리 사촌 동생이 여기서 장가를 들어가는데, 그 가마를 쫓아서 가며는 그냥 고개를

넘챙이고, 나는 이 미륵에를 요기 고개 넘어가야 잔치 집을 넘어가는 건데, 이 미륵에를 친정 동네인데, 친정 동상네 사는데.

거기를, 그리 가느라고 가는게, 쳐져서 그냥 한내를 건너 가는데, 그 사람들 하고 같이 건너 가는데 복도랑이 있었어유. 그래서 아이 어두웠서 그냥, 2월이면 달 있어유? 어둡지. 밤중이나 뜨는 거지. 그랬는데, 그 딸하고 인자 저 우리 오남이 제를 업고 딸하고 씻이 한내를 건너가지고, 복또랑이 가서 아이구 개명했던 걸 누가 알았어유.

전에 그 복또랑으로 건너 가면 가깝구, 이리 행길로 남성 가는 행길로 가면은 한참 돌아가구 그러기 때문에, 지내가느라고 그냥 그 복또랑을 건너 갔더니, 그래 질이 어떤 건지 몰라유, 그 잊어뿌렸어유. 잠잠해서 오도 가도 못하구, 완장이라구, 거기 완장이 지끔도 완장이지만, 그 완장이서만 한 집이만 불이 뽐짝뽐짝해유. 새루 두 시, 시 시가 되 놓은 게.

그래 거기서만 새는데, 도깨비불은 그냥 한내 질로 그냥, 덩불로 막 벌떡지에 가서 그냥 씻이 그냥 웅그리고 앉어 있는데, 도깨비 불이 왔다갔다 하고 그러는데, 참 그냥 아이구 숨저고리가 거죽겨장 다 젖었어유, 땀 때문에. 애들 다 죽이는 것 같아서. 그래 업고 있구, 옆에 이 학, 학쟁이라고 개는, 지금 왔다간 개 엄마유.(웃음) 그래 개 참 제, 개 엄마 옆에 앉었는데, 그년은 앉어서,

“허코, 허코”

코를 풀구 자구. 시상이 잠이 와야지. 어디야 늑대는, 도깨비는 흘러 가면 어떡 하나 하고, 늑대는 물어가면 어떡하나 하고 이렇게 늑대는 ‘앵앵’거리구 울어대고. 늑대는 참 겁이 안나지. 그랬는 데두 늑대는, 그 아주 완장이 왜 그(크다) 해오, 아주. 저 미륵에서 그 전에 그 넘어갈려면 아니 얼마나 거렸진 몰라유. 산이 이렇게 해서 가운데 질인데, 그냥 거기 그래서, 아이유 늑대 있다는 것은 알았어두, 우리 늑대 죄 타구 다니는데, 여기 오니까 가만히 앉어 있어. 그러나 애들 죄 늑대 업어 가는 것 같애유. 아 그런게 그게 도깨비 흘린 거지 뭐.

어둡긴 한데 이편쪽 질로 가지, 왜 가마 뒤로 쫓아가면 뛰어서 질러 가느냐구. 그리가가지고, 질이 그 복또랑을 이렇게 가로 막구는 딴 데로 복또랑을 냈어유. 그 후에 보니까, 그랬는데 거가 복도랑 건너 땡기던 걸 찾으러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감감하니까 그냥 새웠지 뭐유. 거기서 애를 업고는. 애를 업고 디리고. 그 여섯 살인가 그렇게 먹었어. 아 그랬는데 천상 도깨비불은 왔다갔다 하구. 그래도 혹시 마중 오나 하구, “아무 거나? 아무 거나?”

해두. 그냥 또 불을 갔다가 금방 꺼지고 또 갔다가 꺼지고.

“아유 저거 도깨비불이다.”

그러구 재는 대여섯 살 됐는데, 그 소리 할 수 있어유. 또, 도깨비 전에도 도깨비 있었지만, 여기도 홀리구, 그래두 아이구 그래가지구 죽을 뻔해서 도깨비 불에도 홀리구. 우리 아버님도 여기서 이 밭이유. 이 밭에 여가 앞이 높았어유. 가시 덩굴이구. 도깨비 홀려서 그냥 밤새도록 해마다 오시구 그랬는데. 다 알었슈 그런 거.[청취불능]

아 그래서 인저, 저 완장이라고 저 한내를 건너가지고 그 별판에 가서 인자, 한내 건내서 한참 가가지구 별판에서 밤을 새우는데, 아 그냥 큰 고 집 하나만, 그 완쟁이 사랑 고기 한 집만 불이 뵈짝거리고, 불리도 읊고 그러더니, 새로 두 시가 되는데, 그 종, 그 시계치는 소리가 나유. 그렇게 달이 이만큼 떴시유. 그랬는데 그냥 인저 그림자를 두고 갔지 인제. 달이 떴으니까 인제 환하겠지 허고. 조금 있으면 달이 있는다고 허고, 인제 그때 한심 잤나 봐요, 딸이.

“인자 조금만 더 참자.”

그러게 동이 트면 찾아가도 되니까. 동이 트며 찾아다니다가 그 불이 있는 집에 간 거여 그냥. 불이 있는 집이를 갔더니 노름들 해유. 그런데 그때는 이놈의 시루떡을 해가지고 이만치 쌓고, 그래가지구 잤는데, 아 이 그 집에 들어가니까 노름을 하는데,

“아유! 여기 좀 잠깐 조금만 여기.”

거기 가서 여기 해타리 고개, 갈라면 또 그냥 그쪽이 소낭구 잔뜩 있

어서 무서워요.

“에- 거길 못 가니까, 있다 좀 밝거든 가게, 좀 여기 좀 들어 앉을께, 방 좀 빌려 주시유?”

그래니까,

“예!”

노름하다가 건너방에서 자는데,

“좌우간 안방에 좀 가시유!”

그랴. 안방으로 가니까, 그 여편네가 코만 골지 ‘어쩐 사람이 왔느냐?’ 는 소리두 안허구. 그러니까 이 영감이 오더니, 막걸리 이런 사발로, 이만한 사발로 하나 허고, 지짐이 한 대접허고 퍼다 줘유. 아이 그걸 먹었으면 원래,

“갓어 왔으니까 국이나 추우니까 좀 먹어야겠으유.”

그러고는 술은 도루 가져 가구. 국, 국하고 인자 나하고 언넨하고 인자 이렇게 돌이 떠 먹으니까, 한길 들 떨려유. 국 한 대접을 먹으니까. 그래가지구 밝으며 인저 친정에 못가구, 인저 친정에 갈려면 소나무 건너가야 할테니까 못 가지. 그래가지구 그날 인자 전해를 간 거유. 도깨비 흘려서 그리 고상을 한 거유. 고상을 한 거지.

[조사자 : 직접 도깨비는 못 보시구요. 불만 봤어요?] 불만 봤지유. 그럼 도깨비 불만유. [조사자 : 이만한 불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럼요. 이냥 주루룩 갔다가 주루룩 폭 꺼지고, 주루룩 갔다가 폭 꺼지구 그랬지유. 도깨비 불이 아주 환, 아주 환한게, [조사자 : 공중에서요?] 그냥 그 질이에요. 이 덩불이니까 지끔은 허허 바다에 좋게 해서, 해서 좋지만. 그때는 가시덤풀이구 그냥 덩불이지 뭐. 달이 둥그러니까 덩불이지 뭐. 달이 둥그러니까 덩불이지 뭐. 산이니까 산에. [조사자 : 덩풀 사이로 도깨비가 왔다갔다 한다고요?] 그렇지요. 그렇게 이냥 그렇게 왔다갔다 하는데, 대포(배포) 놓으면 흘러 가거든.(웃음)

아이구, 그런 거 생각하면 아득해요. 그냥 지금두 죽지 않고 살았으니까. 아들 딸 다 잘 사니까 다 잊히는 거지요. 아유 그것도 하나 잃어버

릴까 무섭고. 빼갈까 무섭고. 그러나 저러나 그때는 말하기는 좋게, 남
은 도깨비 흘려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도깨비가 흘린 게 아니라, 어두워
서 못 봐서 못 가지. 어디가 질을 못 찾아서 그냥, 그냥 캄캄해, 이월이.
이월 그믐젠데 얼마나 캄캄해유. 달이 있나 뭐가 있나. 밤중에 그렇게
혜매고 고생하고. 가끔 그 애긴 하지, 지들 몰으면.

⑤ 늑대와 함께 다닌 아버지

제보자(?, 여)/아곡리T 2앞

[아곡2리] 박종수, 강현모, 김영학, 이홍주, 이승훈 조사(1995. 11. 4.)

조사자들은 유혜순할머니 집에서 나와, 아곡2리로 장소를 옮겨 조사를 시작하였다.
제보자에게 이야기를 묻자 아버지가 경험하였던 사실이라며 구술하여 주었다. 도깨비불
에 관해 말씀하시다가 구술해 준 것이다.

그러구 또 늑대가 저 대두미장 장에 갔다가 오시다가 저물었는데, 늑
대가 뒤에 쫓아와서 쫓아 오더래요. 그래서 완쟁이라고, 요 너머 완쟁
겨. 그러니까 험난장에 갔다 오다가 완전히 길로 왔지. 지금 길이 있는
데 좋잖어. 아니면 산길로 땡겨지고. 그러다 완쟁이 와서,

“밥 얻어다 준다, 밥 얻어다 준다.”

그랬대요. 어, 쪼끔만 더 가서 ‘밥 얻어 줄게, 밥 얻어 줄게.’ 이래. 그
러면서 저 늑대 쫓아오는 걸 데려서, 저 완쟁이다 와서 개가 짖으니깐
그냥 떨어졌대요, 늑대가. 우리 아버님 오셨다는데, 그냥 늑대, 늑대하고
도 말을 했대요.

“쪼끔만 더 와. 밥 얻어 줄게.”

아 무서워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쫓아오더래요. 글세. 그래 잡아 먹
을까 봐 무섭다구. ‘쪼끔만 더 와, 내 밥 얻어다 줄게.’ 그랬대요. 몇 번
그냥 그러더니 고개를 단쳐가지고, 그 완쟁이 고개 이 험헌디 거기 와

서 개 한 마리가 그냥 참 짓으며 쫓아 오더래요. 그래 그래, 저 잡아갔드라. 그 이튿날 들어보니깐 개를, 그 늑대가 잡아 갔지 뭐.

그 잡아가서는 업고 가서 창새를 빼 먹고는 그런데요, 개를. 사람도 그렇고. 지금은 그렇게 사람 창새구를 빼 먹고 그러지. 전에는 마그리막, 막 먹었대요. 다른 얘기는 정신이 없어서.

⑥ 개심한 불효자

권영주(78, 남)/아곡리T 4앞

[아곡리 권영주씨택] 박종수, 강현모, 김은미, 김혜진, 김은숙 조사(1996. 5. 24.)

조사자가 마을에 도착하였을 때 가장 나이가 많은 분을 묻자, 이분을 소개하여 주었다. 제보자는 천수답을 옥토로 바꾸는 등 마을을 위해 많은 일을 하였다.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이야기를 부탁하자 곧바로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준 것이다.

그래서만 어디 가서 저 동네에서 피기만 잡으러 가서, 늦게 와서 마중만 안 와도 격어머니한테 마구 때고 그러는데, 한날 피기를 팔러가서 이렇게 인제 벌려 놓고 있는데, 점잖은 갓 쓰고온 선비가 와서 고기를 큰 걸 몇 마리 사면서,

“너 피기를 살테니, 우리 집이까지 이거를 배달해서 지고 가야 된다.”

팔아먹을 욕심으로 이놈이,

“예, 저다 드리지요.”

그래 가는데 집이 멀어. 이게 아마 몇 킬로 되는 몬양여. 그래 인제 갔는데, 저물어.

“여그 너! 오늘 니네 집이 못 갈 거여. 그러니까 사랑에서 자라. 자라고 해서, 재워 줄테니 자고 가라.”

구. 해서 자는데, 그 저녁을 먹는데, 그 갓을 쓴 이가, 감투를 있으니까, 갓을 벗어놓고 감투를 쓰고, 판을 쓰고 앉아서, 그 어머니, 노인네 안 노

인네한테 밥을, 저녁을 먹는데, 무릎을 꿇고서 앉아서 그 사가지고 간 생선을 저녁에 양념을 해서 인제 이렇게 해서 짓갈을 이렇게 밥솥갈에 다 놔주면서,

“어머니! 이것 많이 잡수시오 생선 이것 무슨 생선이고, 이건 무슨 생선이고 설명해 가면서 아무튼, 많이 좀 자시라.”

고 부모노릇 해가면서 자꾸 짓갈 떼서 그 밥솥갈에다 생선을 놔 주고 이러거든. 그래 이놈이 가만히 보니까, 저는 밤낮 직어매 패기만 했는데, 저 이는 무릎을 꿇고 직어매한테서 그 생선을 떼워주며 ‘많이 잡수시라’고 저러니. 하이 이상해서 저녁에 물어봐야겠다고.

“그래, 아 선생님! 그 저 노인한테다 그냥 그 노인네 손이 없나요? 왜 그렇게 저 반찬을 떼서 밥솥갈에다 놔 줘요? 나 그런 것 처음 봐요.”

“예. 이놈! 노인네는 저 저 손이 옳는게 아니라. 자식이 아 부모를 많이 잡수도록, 맛나게 잡수도록, 배부르게 잡수도록 권유를 해야 그게 자식의 도리고, 무엇이든 맛있는 것이며 무엇인들 자꾸 해 드려야 되지.”

“아. 나는.”

그재사 이놈이,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패기만 했는데요. 아 어려서부터 자꾸 패래요 ‘어머니 패라’ ‘아버지 패라’ 그러고 둘이 가르쳤어요.”

“너희 어머니 아버지가 너를 귀엽다고……”(뒷부분이 잘렸음)

7 처인성 일화

이상목(40대 후반, 남)/아곡리T 4왕

[아곡리 권영주씨택] 박종수, 강현모, 김은미, 김혜진, 김은숙 조사(1996. 5. 24.)

앞의 노래를 부른 뒤에 처인성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목사님께서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준 것이다.

이 처인성 이게 이 한국에 이게 둘밖에 없데요. 이 토성이. [조사자 : 처인성이라는 것이 왜 이름에 붙었어요?] 처인성.

이게 몽고에서 몽고 그 대장이 여기 와서 이틀 저녁을 자구서, 군인들이 하루 저녁에, 이 처인이 산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성홀 개봉으로 똑 같았데요. 똑 같았었는데, 그 군인들이 그걸 그냥 똑 까뭇게 가지고 성을 만들어 가지구. 그 네 구간이 입구자로 되어 있잖아. 그것 들어오다가 봤지? 그래 그 성인데, 군인들이 그 이틀을 작업을 해서 군인들이 한 이틀 밤을 자구, 잤는데 거야, 거기서.

8] 처인성 일어난 일화

이상목(40대 후반, 남)/아곡리T 4앞

[아곡리 권영주씨택] 박종수, 강현모, 김은미, 김혜진, 김은숙 조사(1996. 5. 2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처인성에 관련된 이야기라 생각이 났는지 계속하여 구술하여 주었다. 일화를 조사하기에 앞서 제보자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아, 이 처인성이 아마 지금으로부터, 아— 한 350년 전 얘기에요. 여기가 아곡이라는, 그 ‘아’자는 보통 사전에서, 어 당나라 태조, 그 왕자가 머무는 디를 아전, 어전 이렇게 했어요. 그런게 여기가 상당히 지명으로 보면, 여기가 아주 옛날에는 상당히 높은 분이 취리하고 있는 장소이었어요.

그래 지금 용인이거든요? 용인이라고 하는 것이 저, 지금 현재 김량장 장이 그 용인에 조그만한 성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있는 성 이름하고 여기 처인성 하는 ‘인’자 하고 두 개를 합쳐가지고 용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인이 생기게 된 동기가, 그 용인에 있는 성 하나 하고, 여기 있는 처인성을 합해가지고 용인. 그래 지금 용인시로 됐죠?

그런데, 그 몽고 대장 살리타이가 옛날에 한양성을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개선장군이 됐죠? 그래가지고 인제 수원성으로 내려와서 초소 순시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인제 처인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한 번 여기를 아, '방문해 보자.' 하고 여기를 왔어요.

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처인성 밖에 있던, 그 김후직이라는 사람이, 말하자면 에- 민병을 일으킨거요. 응? 민병을 일으켜가지고 할(활)루다가 그 살리타이를 쏘 죽였어요. 그래 여기서 장수가 죽은 거예요. 그래 지금 현재 저 건너편에는 '사장터'라고 하는, 장수가 죽었다고 하는 사장터가 있고.

그 뒤로 인제 그 김후직이는 뭐 인제 충북에 가서 벼슬도 하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이름이 났고. 이 성 밖에 있는 이 순수한 민병이 말이죠. 응 구테타를 일으켜 가지고 몽고대장군 원수를 죽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옛날의 전봉준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유명한 거지요.

그래두 한양성을 먹고 지배했던 대장이 바로 이 쪼그만한 처인성에 와서 죽었다고 하는 것. 상당히 그래서 여기가 옛날부터 이름있는 고을이고, 에 내가 듣기로는 이 마을 전체가 다 옛날에는 하나의 거 고을 원님이 치리하는 아주 그 장소였는데, 지금은 전부 폐허 되가지고 땅 속에 다 묻혀서, 흔적이 땅 속을 파 보면 기왓장 같은 것이 나와요. 지금은 폐허가 되고 처인성도 저렇게 방치되 있고,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폐쇄되가지고 가난한 지역이었어요.

9 소를 끌어 올려라

이상목(40대 후반, 남)/아곡리T 4위

[아곡리 권영주씨댁] 박종수, 강현모, 김은미, 김혜진, 김은숙 조사(1996. 5. 24.)

앞에서 계속 권영주할아버지의 개인 경험담이나 시사 문제를 듣다가 이야기를 청하

자, 옆에 있던 목사님인 제보자가 생각이 나셨는지 스스로 구술하여 주었다. 이것은 제보자의 아버지한테 옛날에 들었다고 한다.

옛날에 들은 얘기가 있어. 우리 아버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아주 친한 친구 두 분이 있었어요. 그 잘 사는 문제 때문에, 서로 이제,

“너희가 잘 산다.”

“우리가 잘 산다.”

서로 인제 항상 만나면은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제 오늘은 이쪽 집이, 인제 친구네를 가 본 거야. 가서 그 친구네를 인제 방문했는데, 친구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오형제를 다 불렀어요.

“애야! 오늘은 내 가장 가까운 친구가 왔으니까, 저 송아지를 지붕 위에다 좀 끌어 올려놔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노망하셨습니까? 응! 아 지금이 백주 대낮에 무슨 송아지를 지붕 위다 끌어 올리느냐?”구.

“이거 보라구.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 불화한다. 잘 살지를 못한다.”

이말이여.

“그럼 다음에는 자네네 집이 한 번 가 보세.”

또 바뀌가지고 그 집이를 갔어요. 갔더니 그 집이 가서,

“애야! 내 가장 가까운 친구가 왔는데, 오늘 송아지를 좀 저 지붕 위 이다가 아래 지붕이다가 좀 끌어 올려야 되겠다.”

“예!”

멍석을 갖다가 피고, 사다리를 놓고 송아지를 막 끌어 올리드라는 거예요. 그런 데서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고 형제들이 화해를 하니까 잘 사는 가정이 되었고, 이 쪽에는 못 사는 가정이 되었더라 하는 얘기로 옛날에 그런 얘기가 또 있어요.

10 호랑이에게 새끼를 빼앗긴 소

이상목(40대 후반, 남)/아곡리T 4뒤

[아곡리 권영주씨택] 박종수, 강현모, 김은미, 김혜진, 김은숙 조사(1996. 5. 2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생각이 났는지 계속하여 스스로 구술하여 준 것이다.

그래 또 한 가지는 시골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제 소를 송아지 딸린 소를 산골 깊이이다가 매었어요 이 저녁 때 가 보니, 주인이 가 보니까 싸움이 벌어진 거야. 호랑이하고 깊은 산 속에서.

그런디 주인이 딱 보니까 호랑이하고 막 그 소 어미하고 말이야 막 싸우니까 무서워서 어, 숲바닥 밑에 가서 바작 숨었잖아. 근데 가만이 이렇게 보니까, 소는 결눈질해 가면서 말이야. 혹시 주인이 오지 않는가 결눈질 해가문선 크 죽을 힘을 다해서 새끼를 안 뺏길려고 싸우는데. 결국에는 고만 새끼를 뺏기고 말았어. 그 주인이 빨리 와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해서 새끼를 뺏겼으면 분명히 저 소가 가만히 안 있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앞에 싸리문 앞에 바윗돌 있는 데다가, 자기 입던 옷을 꺾해서 허수아비를 잘 만들어 났어요 만들어 놓고 피하고 있는 거야. 아닌가도 아니라 새끼 빼긴 소가 말이야, 막 그냥 미친 듯이 달려 와 가지고,

“왜 내가 싸울 때, 주인이 와서 말이야 ‘잘 한다’고 소리만 쳐도 어 새끼 안 뺏기고 이길 건데, 그게 아니라 무서워가지고 숨으니까 할 수 없이 새끼를 뺏겼단 말이지. 그러니깐 이번엔 주인을 죽여야 되겠다.”

하구서 이 소가 달려와 가지고 보니까, 주인이 싸리문 앞에 닥 버티고 있거든. 그니깐 막 머리로 받아 치니까, 그게 주인이 아니라 바위였어요 그 바람에 암소가 거기서 죽었죠. 그렇지 않았으면 주인이 죽는 거죠.

Ⅱ 어른 말을 잘 들어야 가정이 화목

권영주(78, 남)/아곡리T 4위

[아곡리 권영주씨택] 박종수, 강현모, 김은미, 김혜진, 김은숙 조사(1996. 5. 24.)

앞의 목사님 이야기를 마치자 마자 곧바로 받아서 제보자가 구술하여 준 것이다. 이것은 인화단결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 그 목사님 얘기와 비슷한 내용인데, 수단을 뉘라면 으른네 말을 들어야 되는 거여. 전에 한 사람이 앞뒷 집에 사는데, 앞집의 사람은 잘 사는데, 뒷집의 사람은 잘 못 살아. 그래 뒷집 사람이 친구간인데,

“자네 어떻게 그렇게 잘 사나, 매사 하는 일이 잘 되고 허니께. 자네, 나 자네하고, 자네 가도를 내가 좀, 내가 좀 가봐야 쟈네,”

그래 가서나

“나 시기는대로 자네가 아들을 시겨 보게.”

“그럼 어떻게 시기나?”

가서,

“자네 아들보고, 자네 마당을 좀 쓸으라 그러게네. 썰으라고 그러게.”

“너, 이 마당 좀 쓸어라,”

그러니까는. 한 번은 이렇게 썬단 말이야.

“한 번 더 썰어라.”

“아 한 번 썰었음 그만이지. 썰으라고 해서 한 번 썰었으면 그만이지, 왜 또 썰라는 거요. 아버지는 참 괜히 참, 별 걱정을 다 하시네요.”

그리고 투덜대고 안 쓰는 거야.

“그럼, 우리 집으로 가 보세.”

그래 앞집 사람이 와서 그 아들을 불러가지고,

“너! 이 마당 좀 쓸어라.”

그러니까, 참 깨끗히 쓸어 놓는단 말이야.

“한 번 더 쓸어라.”

“아이! 더 쓸라면 더 쓸지요.”

“또 쓸어라.”

그래 두 번을 쓸어.

“한 번 더 쓸어라.”

세 번을 쓸거든.

“이 정도는 되야, 되야지 가정이. 자네 아들은 한 번 쓸고는 안 쓸어. 자네 말을, 아버의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집안이 되겠나.”

그래 그런 정도는 가정이 통일이 되야 집안이 된다는, 지금도 그래. 지금도, 에미 애비 말 잘 듣는 집은 집안이 되고.

12 순조 임금의 지혜

이상목(40대 후반, 남)/아곡리T 4뒤

[아곡리 권영주씨택] 박종수, 강현모, 김은미, 김혜진, 김은숙 조사(1996. 5. 24.)

앞 이야기를 마치자 생각이 나는지 스스로 생각해서 구술한 것이다. 이야기를 마치 고도 이야기 할려면 한이 없다며 말씀하였다.

그 전에 그 순조 임금이 대신들을 전부 불러가지고.

“저 우물물을 좀 퍼라. 그래 독에다가 좀 채워라.”

그랬는데. 임금님이 시켰지만은 물을 독에다가 부니깐, 이 독의 물이, 인저 저 독의 밀구녕을 뺏겨야. 그래 허다가 다들 오전에 작업하고서는 오후엔 다 나가 떨어졌는데, 대신 하나는 그냥 저녁 때까지 또 푸고 푸고 또 퍼서, 결국에는 그 우물물을 말렸어요. 우물물을 다 푼겨야.

다 푸고 났는데 보니깐, 이상하게 그 바닥에서 뻘뻘 빛이 나거든. 그래 임금님한테 가서 ‘이 물을 다 뺏다’고 하기 전에 일단 한 번 그 속

을 들어가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물 나는 족족 다 풀나고 들어가 보니까 금덩어리가 하나 있거든. 그러니깐 그 순조 임금한테 가서,

“임금님! 우물을 제가 뚫더니 금덩어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꺄꺄 웃으면서.

“그것은 응 순종을 잘 하는 자에게 줄려고 내가 갖다가 넣어 놓은 거다. 이진 네 똥이니까 네가 가져라.”

그래서 그 임금이, 그 신하들의 충성심을 저울질도 해 봤고, 또 열심히 한 자에게는 또 포상도 되었고, 그때부터 조정 대신들이 순종을 잘 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여

백

5. 완장리

1) 마을개관

박종수, 강현모, 김현미, 김호성, 박미경, 오명희, 강아영, 김진영, 이상준 조사
(1995. 11. 4. 1996. 6. 1.)

완장리는 용인터미널에서 남사면행 와행버스를 타고 20분 정도를 와서 아곡리에 서 내렸다. 그리고 다시 그곳에서 4Km 정도 북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이 마을은 상동, 중동, 매릉동 3개 행정마을로 이루어진 곳이다.

이 마을은 원래 용인군 현내면에 속하는 지역으로, 마을의 지형이 말의 안장처럼 생겼다고 해서 안장이, 안쟁이라 하였다고 한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안쟁이, 매릉동, 조리봉을 합하여 완장리라고 하여 남사면에 편입시켰다.

마을 입구에는 돌레가 족히 2m는 넘는 풋말이 붙은 있는 오래된 느티나무 2그루가 있었다. 이 나무는 수령이 한 800년 전에 경주이씨가 마을을 처음 개척하였을 때 심었다고 전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 나무는 신령스러워서 국가에 위기가 닥치면 울었다고 하는데, 가장 최근에는 6·25 사변 전날 밤에 갑자기 우는 소리를 냈다고 한다. 이런 신령스런 나무이기에 마을의 당산제를 지내기도 하고, 여름철의 농한기에 마을 어른들이 나무 밑에 모여 노시기도 한 곳이다.

한편 마을의 북쪽에 있는 함봉산은 신령스러운 산이라고 한다. 이곳에는 기원을 하면 아들을 낳기도 한다고 전한다. 이곳에서 매화꽃이 떨어진 매화낙지형 혈이 있다고 하여 매릉동이란 지명이 생겼는데, 가장 남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한편 마을의 이름이 유래된 안쟁이는 중등마을과 상동마을을 통칭하는 것이다. 위 안쟁인 상동마을은 가장 북쪽에 위치한 마을이고, 아래 안쟁인 중동마을은 마을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2) 설화

Ⅰ 솔개의 유래

정현태(84, 남)/완장리T 1앞

[완장리 중동] 박중수, 강현모, 김현미, 김호성, 박미경, 오명희 조사(1995. 11. 4.)

우리는 첫 제보자의 협조 얻기가 그리 수월하지 않았다. 이야기를 청했을 때는 제보자의 막내딸이 우릴 못마땅히 여기는 듯 비뚤다며 쫓아 냈지만, 얼마 후 그 분이 눈에서 나락을 줌고 제실 때 우리가 다시 이야기를 청하자 어렵게 말문을 트셨다. 첫 이야기는 그 마을의 뒤에 위치한 함봉산에 관계된 이야기였다. 이 이야기는 함봉산의 한 바위와 샘의 영험한 기운에 대한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며, 제보자가 어린 시절 친구와 관련된, 생긴 지 80여년 정도된 이야기인 듯 하다.

인제 잘 얘기를 해설라므네. 이런 비행기 같은 게 떠 당기는데, 거길 타드는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올라갔다 내려오면 좋지! 하늘 구경하고 말야.

근데 그런게 그 미련한 놈이 선상님이 얘길 하는데, 잘못 듣기를, 선상님네들 얘기하는 걸 들은게,

“천하자! 천하자! 천하자!”

하늘 천(天)자. 그런게 하늘로 올라가라 해던지, 자꾸 그것만 가르쳐 주고,

“지(地)하자! 지하자! 지하자!”

그러면 땅으로 내려 와요 따 지자니께 땅으로 내려와요 그런게 지하자 땅, 지하자 소리를 안 가르, 안 일러주고 천하자 소리만 일러 줬어요.(청중웃음) 그런게 많이(웃음) 버릇장머리를 가르킬랑게. 시방은 그 하한 사람 버릇장머리 잘 가르치잖아. 그런게 인자,

“이젠 때가 되면 내려올 테니까 여길 타고서 자꾸 천하자만 불러라.”

이렇게 일러 줬거든. 그런데 인제 이놈이 좋아서나 웃도 잘 입고서, 인제 비행기 같은, 옛날, 시방으로 말하자면 비행기지. 옛날에 있었데요.

거기 화선장이란게 있는데, 거기다 태워 올라가면, 얼마든지 열대 번 가야 올라가니까, 그렇게 해라 일러 줬거든.

워낙에 욕심 많은 놈이니까 자꾸 ‘천하자’만 하고 노박 땡기네 인제. 생전 이게 뭐 내려올 수가 있어야지. 노박 ‘천하자’ 그거 알지. 그것만 알았으니까 노박.

“천하자! 천하자! 천하자!”

노바닥 그랬지. 나중에 이놈이 뱃대지도 고프고 춥고 뭐 어떻게 해! 거기서 죽었어요. 근게 지하자를 가르쳐 줘야 땅으로 내려 오는데, 천하자만 가르쳐 줬다 이거여. 그런데 인제 그게 이게 노박 떠 다녀서, 죽어서 인제 혼신이 뭐가 됐냐 하면 솔개미가 됐어요. [조사자 : 솔개미.(독수리)] 솔개미라고 있어. 산에, 밤낮 그전에 구경해. 그러면,

“빼옥 빼옥”

하고 그런단 말이여. 그리고 날라 땡겼지. 그게, ‘천하자! 천하자!’ 그 사람이 환생이 됐어, 인제.(웃음)

② 함봉산의 영험성

정현태(84, 남)/원장리T 1앞

[원장리 중동] 박종수, 강현모, 김현미, 김호성, 박미경, 오명희 조사(1995. 11. 4.)

앞 이야기를 마치고 계속하여 구술하여 준 것이다. 이 이야기의 앞부분은 테이프의 녹음 상태가 불완전한 관계로 알아듣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거기(함봉산) 물이 이렇게 졸졸 내려오는데, 탕이 요렇게 있지! [조사자 : 그 물이 나와 갖고 이렇게 탕에 고인 거예요?] 그렇지. 탕에 고였지. [조사자 : 그럼 거기 와서 정성을 들린 거예요?] 인제 물탕에 가면, 이 앞에 여간 튼튼하고 좋지. 그런게 거기서 인자 어둔 밤중에 가서, 인

자 떡시루 뒤,

“아들 낳아 달라.”

고 정성을 드린다고 그러니까 참! 워낙 정성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러잖아. 아마 정성을 드려서 아들을 낳어. 그러서 회안한 일이라고 ‘회안’이라고 졌다니께. [조사자 : 회안한 일이라구요?] 응. 그렇지. 회안이라구.

[조사자 : 함봉산.] 함봉은, 함봉산. 함봉이라고 졌지. 그 산에서 정성을 들이고 낳으니까 함봉이지. 이름이 두 개여.

③ 개화상이 새겨진 바위

정현태(84, 남)/완장리 T 1앞

[완장리 중동] 박중수, 강현모, 김현미, 김호성, 박미경, 오명희 조사(1995. 11. 4.)

개의 회상에 관한 전설은 후에 매경동에서 한 할머니에게 더 자세히 듣게 됐으나, 한 이야기는 하는 사람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수록하겠다. 역시 함봉산 샘물의 영험함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다.

그 그것도 큰 산인데, 중놈이 개를 몰래 매달아서 잡었데. 그 전설집이지만 알어. 아직 뚜렷하게 나 댕겨진 게 있어.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어. 시방도 있을 걸.

그런데 인제 말하자면 개를 한 녀석도 죽고 그러나 하야간 개가, 개를 잡을 적에 소당처럼, 개도 꼭 올가미를 해서 매달아서 이렇게 허물 데기를 뺐졌다고 이렇게 허물을 뺐겼어요. 옛날에 개를 잡을 때, 꼬나 풀로 매달았나. 이렇게 허물을 벗겨요.

그래서 그 중놈이 거기다가, 그곳에 살구나무라고, 나무가 바위 위에 저런 놈이 있었어. 그래서 잡았다는 거지. 그래 개를 잡아서, 그래서 벌을 받아서 중은 죽고, 그 중인이 바위에 나타났다 그거지. [조사자 : 신

이요?] 그 개, 개같이 그렇게 말하자면 화상이(개의 화상) 거기에 매달렸어. 화상이.

[조사자 : 중이 어떻게 죽었는데요?] 벌 받아서 죽었지 뭐. 그렇게 고사드리고 좋은 정성드리는 그런 함봉산에서 잡은게 기껏 벌 받아 죽어.

④ 개가한 여자와 자식(성황당 유래의 변형)

근점윤(81, 여)/완장리T 1앞

[완장리 매화동] 박종수, 강현모, 김현미, 김호성, 박미경, 오명희 조사(1995. 11. 4.)

우리들의 4번째 이야기는 중동에서 나와 매령동에 도착해 겨우겨우 만난 김치거리를 다듬으시던 할머니를 조르고 졸라 얻어낸 이야기다. 처음 TV 연속극인 “여울”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 과부 이야기가 나왔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과부가 지조를 지켜 자식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주는 듯하다.

지금들은 맨 죄 짓고 그러지. 옛날에도 그런 게 있어.

시집을 갈텐데, 애들이 밤낮으로 웃고름을 붙잡고 다녀, 매가지고. 옛날에 저고리에 웃고름 있잖아. 거기다가 애미가 ‘내일 시집간다’고 내뺌다녀. 그런데 애들이, 둘이 남매가 거기다가 지어미 못가게 밤낮 거기다 매고 잔데. 그런데 이노므 여편네가 그냥 가새로다가 손 맨 거를, 똑 거기를 웃고름을 거어코 똑 자르고 시집을 가느라고. 그런데 가 가지고는 이게 못 살아가지고는.

근데 이 아들 딸 남텐데, 그건 그냥 어깨 너머로다가 남들 공부하는데 가서, 밥을 얻어먹어 가며 동냥질 하며. 그런데 그전에는, 옛날에는 글당이 많았지. 한문 글당이. 그냥 남에 집에 가서 어깨 너머로 보고 기억력이 좋아갓구 애가 크게 됐더래. 남매는 지방 사는데. 아들이 과거를 가는데 서울로, 과거를 가는데, 인젠 말을 타고.

잘 살게 되었는데, 잘 사는데 아니라 가세는 그때는 여유있게 살았다

야. 그런데 인자 기억력이 좋아서 과거를 보니까, 옛날에 임금되는 거지. 지금 인제 '전두환'들 그런 거 되는 거마냥 임금되는 거지. 말을 타고 저 동생이, 이웃집에 갔다가 두루매기 동정을 달려니까 없더라. 그런데 이웃집에 가 사정을 하니가, 거기서 형끓대기를 줘서 두루매기에다 그거를 달아가지구는 과거를 갔다야.

과거를 가서 참 잘 돼가지고, 인제 그냥 군악을 두드리고 불구, 그냥 그렇게 야단하고 그냥 동네가 잔츠를 치루고, 이렇게 찾아가느라고 시방 보니까, 즈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타고 보니까, 꼭 지어미 같은 게 저 논바닥에서 피 있잖아, 피. 못 먹는 거. 그거를 이렇게 줘더라. 암만 봐도 지 엄마드라. 그런데,

“말을 이렇게 정지 시키라.”

고 하고 거길 쫓아 갔드라. 항아리가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쫓아가서 보니까 지 어머니 드라. 그러니 아들보고 미안해서 인사도 못하고 섰으니까, 아들이 이냥,

“엄마! 괜찮다고. 엄마가 그렇게 나오는 바람에, 우리가 이를 갈고 우리가 살아갔구, 이렇게 과거 봐서 잘 됐지 좋으니까 시전에 들고지고 살았다야. 영감되어 갖고 그래서 그 아들이 돈을 참 몇 백만원 옛날 치면, 지금으로 치면 몇 백만원 지 어머니를 주며,

“이렇게 살지 말고 잘 살라.”

고. 그러니 그 아들을 쫓아가고 싶으니 쫓아갈 수가 있어? 그러구 아들이 슬픈 눈물을 흘리고 헤어졌다야. 옛날에 그렇게. 지금도 과부를 상징도 아들 딸 둘 하나를 두고도 시집가는 사람 많잖아. 이것 큰 일여. 삼남매, 사남매, 고등학교, 중학교에 댕기는 것 보고도, 사내 두고도 시집 가잖어.

옛날처럼 그렇게 됐데. 그 아들은 살게 되어 어머니 기가 막히잖아. 중학교 고등학교 그 자식을 두고 시집 갔으니 얼마나 호강하여. 읍는 디로 또 시집을 가갖고, 먹을 게 읍으니까 그 논바닥에 피를 흘트라고. 그런데 피를 해 먹을라고.

5 이무기 전설

근점윤(81, 여)/완장리T 1앞

[완장리 매화동] 박중수, 강현모, 김현미, 김호성, 박미경, 오명희 조사(1995. 11. 4.)

마을의 입구에 위치한 800백년 된 느티나무에 ‘얽힌 전설이 있는 것 같은 데요’ 하면서 할머니께 여쭙보자 모른다시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외면하시다가 시간이 좀 지난후 계속 버티고 앉아있는 조사자들의 얼굴을 보며 웃으시면서 그래 하시다가 "이무기, 이무기 이야기 알지" 하면서 두번째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저 속에 들었어, 이무기가. 나 자랄 적에 한둥이란 얘기 달아서 [청취 불가능]처럼 낭구를 타고 올라가드라. 아이구 나가는 이름이, 우리 큰 아들 지금 대학교 있시유, 지끔. 그런데 어려서 이름이 관우여.

“아이구, 관우 엄니! 관우 엄니! 그냥 이것만한 굴속에 강아지가 들어앉았요. 강아지가 들어왔소.”

그랬는데. 그 이무기 뱀이 워낙 무거워서 강아지 대가리처럼 이렇게 귀를 늘어 틀여더란, [조사자 : 귀를?] 응 귀가. 강아지 귀처럼 이렇게 늘어트리고 널름널름 허고 내다 보드라. 그게 인자 그 느티낭구 속에 이무기. 옛날에 그 무거워서 용이 돼 올라가다가 못 되고 떨어가지고 낭구 속에 든 거여.

그런데 그 낭구탱이는 몇 아름 되는데, 커다랗게 지붕처럼 섰는데, 그 속은 비었는데, 낭구탱이 속에. 그런게 거기 그 뱀이 점령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기가 이무기가 점령하고 있는 거지. 새가 짹짹해서 새 새끼가 꼬낸다고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게 나오지. 그런게 새 잡아 먹으려고 느름느름 거리니까 새가 짹짹거린 거지. 그런데 그 느티낭구, 옛날에도 아직 영감여. 거기 이무기가 있는데 인자 내가 그 소리를 듣고는 10년을 서울 가 살았어, 내가.

⑥ 스님을 쫓아내고 망한 심씨

근점윤(81, 여)/원장리T 1앞

[완장리 매화동] 박종수, 강현모, 김현미, 김호성, 박미경, 오명희 조사(1995. 11. 4.)

앞의 마을의 내력을 해 주셨으나 설명조이었기에 생략하였다. 이어서 산 가까이 있는 절에 얽힌 두 스님의 이야기를 해 주셨다. 이 이야기는 시집오셔서 매화동에서 들은 것이고 가까이 위치한 절에 직접 가보셨다고 하셨다.

옛날 동네에 두 스님이 계셨는데, 저쪽 산의 골짜기에는 여승, 여승 중이 살고, 이 한중편 쪽에는 남자 중이 살았는데. 그러니께 심씨가 장판이었다야. 지금도 심씨네 고기 장판이야. [조사자 : 심씨네가 많이 산다고요?] 응. 그냥 많이 살었지.

그랬ندی 이 심씨네가 중을 내쫓으려고, 절 뒤의 살구나무를 지금 물탱이(물가) 있는 데다 개를 엮어다가 거기다 목을 땀다야. 중을 내쫓을라고. [조사자 : 그렇게 된 거루구나!] 응. 개를 거기다 줄을 땀더니, 인자 중이 나갈는 거 아니여. 그래 여승 중도 물, 그래서 거기서 못 살고 묘래 중도 못캐서 못 살고. 모르니 능자리에 묘를 쓸라고. 그것을 내보내라고 인자, 거기 우물 지금도 있디야. 나 가 봤어. [조사자 : 우물요?] 응. 우물 좋더라구. 그래 거기 딴 살림이 돼가, 돼서 개 기르고 뭐 짐승 키운다데. 그 무서와.

중이 나갈 것 아니여. 이제 거기 여승 중도 두 중이 쫓겨나가매 부처님을 거꾸로 미구 나가드라. 부처님 대갈을 이렇게 거꾸로 박아서 바람을 지고 나가며 하는 소리가,

“니희가, 정이 이렇게 해서 내쫓으면, 심씨 보고 허는 소리가, 한때는 과부로 망하고, 한때는 홀애비로 망한다.”

이렇게 악담을 하고 나가드라. 그 심씨가 아주 그 때판 홀애비로 망하고 과부로 망하고. 그래 결국에 [조사자 : 사당요?] 사당이 있는데, 옛

날에 그 심씨네 집에서 장수가 났는데. 그 장수가 그냥 이 칼을 가지고 이냥 그 저기에 그 중대리허고 함께, 어떻게 해서 전쟁에서 목이 찢려서 가지곤 대가리가 날라와서, 침 낭귀에 여기가 딱 붙고, 저기가 붙이고, 썩 붙고 그냥.

7 용이 돼서 올라가는 이무기

근점윤(81, 여)/완장리T 1앞

[완장리 매화동] 박중수, 강현모, 김현미, 김호성, 박미경, 오명희 조사(1995. 11. 4.)

조사자들이 동네를 둘러본 결과 오래된 고목이 많은 것을 보고 필시 오래된 고목에 얽힌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여겨 물어보았다. 이때 제보자는 어려서 듣고 경험하였던 나무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민속 신앙 또는 샤머니즘적 사고로 인해 귀이한 동물이나 오래된 식물이 신격화되는 일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신앙적 사고는 인간과의 친밀한 교감을 기짐으로써 인간의 존귀함을 드러내려한 것으로 보여진다. 제보자가 유년시절 고조부에게 들은 이야기를 증조부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하는데, 제보자 나이 81세이므로 1920년경 일제시대일 것으로 추정된다.

느티나무가 거기하고 나 시집은 동네 저 양달마을 그 저기, 이무기 있다는 느티나무, 또 그 바깥에 길 나가는데 느티나무 있어. 그거 이쪽 느티나무.

옛날 고리적 난리 세 번 겪은 저기 느티나무여.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 속에, 굴속에 다 뱀이 들겠지, 안 들것어.(실제적인 이외의 이야기는 생략) 아무 데라도 난리 겪고 한 나무가 썩어서 하여게 고목이 된대는 다 임자가 있어. [조사자 : 그 임자가 대부분 이무기예요?] 그렇지.

큰 뱀인께, 용이 되서 올라가다가 못 올라가고 떨어진 그런 나무 속에, 이무기로 들어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큰 물탕 속에, 땅 속에 쑤시고 들어가거나 그래. 그게 이무기여. [조사자 : 그게 이무기예요?] 그래서 저런 산에서두 뱀을 크게 만난 거 보구,

“아이고 그놈 구렁이다.”

그러면 황구렁이가 되고.

“아구! 용이다야. 큰 용만 하다.”

야. 그러면 그게 도둑아 용이 되고 만다야. 게 용이 한 번 될라면 인간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 뱀이 도를 닦아 용이 되는데. 그래 용이 산에서 삼천 년, 땅 속에서 삼천 년, 물에서 삼천 년, 육지에서 삼천 년, 사천 년을 닦아야 용이 되 올라간데. 게 용이 되 올라가다가 어느 인간이 보고,

“야! 저기 용 올라간다. 떨어진다 우쨌다.”

그러면. 그게 칠퍼덕 떨어져 내리머는 저, 이무기가 되서 고목나무 속으로 들어간 디야. [조사자 : 그런 사람이 말을 잘못 해가지고?] 응. 게 사람이 ‘용이다, 용이다.’ 용이 된 데는 겨여. 말해 줘야 용이 되는 겨. 사람한테 뭘 해꼬지 해, 새 새끼 같은 거 새끼 치면 밤에 나와 잡아먹구. 그지가 몸등이가 큰걸 육지에 어떻게 내려와 그 산에 인저 느티나무 가지가 많이 치니께 새 새끼 이런 거 치무는 잡아 먹구 그르지. 그냥 지금 그 느티나무는 올라가 보문 나무가 섞은게 그 안이 이렇게 흰하게 들이다 빈대. 그래 거긴 날아가던 새들이 낮히 앉으면 잡아먹구 그랬지. 어떻게 지가 몸이 큰 걸 나와.

[조사자 : 몸이 커서 못 나오는 거예요?] [조사자2 : 그러면 할머니! 용이 되면은 마을 잘 돼요?] 그래. 이무기가 한 번 떨어지믄 용 다시 못 되지. [조사자 : 다시 못 돼요?] 못 되지. 어떻게 지가 삼천 년 도를 헛 닦은 걸 어떻게 돼. 근데 저 물 속에서 땅 속에선 천 년씩 닦아야 되지만, 이 육지에서 닦기가 제일 어렵대. 인간의 눈에 안 띄고 닦을래니. 인간 눈에.

그런게 용 될 거를 눈에 띄면 그 뱀이 이 비늘 있잖아, 번쩍번쩍. 그 게 이렇게 죄 치붙는 디야. [조사자 : 벗겨진다고요?] 치붙어. 붕어비늘 같은 게 치붙는단 말이며, 치붙어. 이제 이게 이렇게 붕어 대가리믄, 이 비늘이 인제 이렇게 붕어가 비늘이 있잖여. 이진 위로 이렇게 치붙는

디아. [조사자 : 비늘이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응 그래. 치붙으면은 누가 지나가며는,

“아이 용님 도 닦는다고. 비늘이 치붙었으니까 큰 (용이) 될 거라.”

고. 그러면, 그 소리에 인간의 목소리로 한 번 들으르는 용으로 승천한 디야. 그렇게 그런게, 그렇게 용을 닦고 나르는, 인간 기냥 소년 과부가 되서, 용이 그 도를 다 닦고 나서 그걸 얻어 물어야 하늘에 천황이 되서 올라 가는데, 그거를 어떻게 얻어. 파리를 치는 디야, 파리를. [조사자 : 파리요?] 파리. 큰 이런 왜 이런데 파리 있잖여. 쇠파리 이런 거. [조사자 : 날아 다니는 거요?] 응. 그거를, 그 용이 될 사람이 파리를 친 해가지고, 옛날엔 오줌 똥 보리밭에 여다 떠 주지 않았어. 가며는 이 옛날엔 가래 고쟁이지, 지금 이렇게 막은 게 어디 있어. 쪽 벌어진 가래 고쟁이지. 거길 파리가 어떻게 들고 쭈시고 들어가서 그 불꽃을 잡아댕겼다, ‘따갑다’ 깜짝 놀란 거 아니여. 그럴 가래이 속으로 빠져서 날라서 갖다 전해 주면은 그 용이 그렇게 크게 황공해 올라간대.

그런게 그 불꽃 얻기가 그렇게 어렵대. 그래서 용 되기가 그렇게 어렵 디야. 사천 년 도를 닦고도 그걸 물어야 올라간 디야. [조사자 : 그것 못 물으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게 물어. 물어도 올라가지만, 아주 참용이 좋은 게 되 올라간 디야. 그거는 옛날 얘기가, 내가 지금 그런 옛날. 그냥 옛날 학자 노인네들이 전해 내려온 기야.

⑧ 검은 솔밭에 작대기 반쳐 놓은 것은

근점윤(81, 여)/완장리 T 1앞

[완장리 매화동] 박종수, 강현모, 김현미, 김호성, 박미경, 오명희 조사(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새로운 이야기를 부탁하였다. 제보자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수수께끼라고 하면서 구술하여 주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웃으며 즐기는 것으로 지금

말하면 음담패설이나 수수께끼 같은 것이다.

지금도 큰 산중 속에 검은 솔밭 속에 콩 두 말을 짚어서 작대 꽂혀 놓은게 뭐여? [조사자 : 콩 두 마요?] 콩 두 말을. [조사자 : 아, 두 말 요!] 응. 콩 두 말. 큰 산중 속에 검은 솔밭에다 콩, 지게에다 콩 두 말 담아서 작대 꽂이는 게 뭐여? [조사자 : 모르겠어요]

그거 옛날 고리적 얘기여. [조사자 : 모르겠는 데요. 처음 듣는 데요.] 나는 정신백이, 절에서도 나 정신백이 좋다는 거여. 말하자면 애들이 들으면 웃어 죽는 데지. 남자의 지기여 불꽃이여. 불알 두 쪽에다가 잠지는 작대기를 꽂혀서 두 다리는 지게여. 그렇게 나와, 옛날 역사가 그렇게 나오더라고.

[조사자 : 골짜기에다가?] 꺾어서, 다리 돌이지 등어리잖아. 거기다가 불알 두 쪽 달리고 잠지가 작대기이여.(일동웃음) 아주 내가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얘기를 하면, 학생애들이 웃어 죽는 디야지. 옛날 고리적 얘기여, 그건 몰러요 여기 사람.

9 진이망 기사

근점윤(81, 여)/완장리T 1앞

[완장리 매화동] 박종수, 강현모, 김현미, 김호성, 박미경, 오명희 조사(1995. 11. 4.)

제보자가 태어난 절 진이망기사 보살님께 대해 이야기하다가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 인간사 업보를 짓더라도 불교의 귀의하고 노력하면 그 업보를 씻고 좋은 곳으로 천도될 수 있다는 이야기로 종교에 귀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된다. 제보자 자신에게 불교공부를 지도했던 보살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로 어린시절에 들은 것으로 추정된다.

옛날에 기생 있잖여, 옛날엔. 지금은 술집 갈보. 어머니 아버지가 단

지 딸 하나 있던 게 기생노릇을 했던지,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돌아가 돈은 많은데 집이 없더라. 그래 진이망기사 찾아 왔디야. 돈을 많이 가지고 이제 절에 와서 스님노릇 할려고.

그런데 기생노릇 해 돈은 많이 가지고 들어왔는데 공부한 게 있어야지. 그래서 서울 삼각산 절 있잖아. 삼각산 절 염(연)주대가 있어. 염주대를 그 첩이로 들어왔은게, 염주대에.

근데에 돈을 많이 가지고, 시아버지가 죽었은게 자손들이 떠 받들잖아. 돈은 많이 갖었은게, 그 면장이라 이가 거길 땡기는데, 사귀서 그냥 소실로 들어갔는데, 저기 서울 삼각산 저기 염주대엘 가서 층층계를 올라가는데 며느리는 도를 절을 땡겨 거쩍거쩍 가는데, 그 보살님은 두 칸을 올라가는데 웬 산이 흔들리더래. 그냥 그렇게 땡굴렀 디야. 땡굴렀 디야. 그러니까 그 문지기가 그러드라.

“이러저러해서 굴러가지구, 이제 뒤늦게 절에 도 닦으러 들어 가셨어요 그러니 삼 년만, 일 년만 그 진이망기사 절에서 공부를 잘 해가지구 오시유.”

그러드라. 일 년을 공부를 죽어라구 해가지구. 재산도 큰 마누라 자손 아들 형제를 죄, 그 많은 자손 갈라서 주고. 그 절에다가 두 섬지기 부랑대궐 만들어서 절당을 만들어 놓고. 절에다 돈 많이 들어 넣었지. 그때 진이망기사 지금도 땅 많아.

그렇게 드러놓고 공부를 해가지고 올라가니까, 일 년 공부해 가지고 왔다니께 그 염주대를 거쩍거쩍 올라가지더래. 안 흔들리고, 어지럽지 않고. 가서 이 아래는 떨어지면 죽건는데, 거기 큰 비석 둘 하나가 있는데, 그걸 뺄돌아서 쳐다보는데 안 어지럽 디야. 조(죄)를 다 벗었어. 저 기생노릇한 거 다 벗구, 절 공부로 좋은 테로 됐어.

⑩ 애경사를 알리는 느티나무

박윤성(71, 남)/완장리T 3앞

[완장 3리 마을어귀] 박종수, 강현모, 강아영, 김진영, 이상준 조사(1996. 6. 1.)

6월 1일 오후 5시경 완장 3리에 도착했다. 마을 입구에는 뜻밖이 붙은 아주 오래된 느티나무가 2그루 있었는데 농한기에 마을 어르신들이 나무 밑에 모여 노사곤 한다고 한다. 그러나 아랫동네 애들이 농구공을 가지고 놀고 있을 뿐 어른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한 어른께 사정을 설명하니 마을에서 가장 연세 높으신 어른 중 기력이 생생한 할아버지를 소개해 주셨다. 할아버지는 농사일을 마치고 귀가 중이어서 길가에서 조사하게 되었다. 이분 외에도 90이 넘으신 노친께서 계시지만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시다고 한다. 마을 어귀에 있는 느티나무 둘레가 족히 2m는 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전설을 간단히 소개하였다.

[조사자 : 800년 됐다는 나무도 이렇게 있는데.] 그래 저게 그 나무지. 저게 인제 노인들 말씀에는 좀 국가에 불미스러운 사여, 일이 있다고 하면은 가지가 끊어진다는 거여. 가쟁이 끊어진다면, 지금 밤중에 12시 이렇게 되면 그 옆이 사람이 안 덩기는 거여. 그때에 그 자세히 들으면 저기서,

“꿈-꿈!”

우는다는 거여. [조사자 : 나무에서요?] 응. 나무에서. [조사자 : 슬픈 일 생겨도요?] 그래 인제 그러구선 얼마 지나면은 무슨 나라에 불, 경사가 났다던지, 아니면 인제 난리가 났다던지 그런 일에 일어나요.

6·25 사변 나던, 그러니까 6월 25일날 저녁에 일어난 것 아니여. 그때 노인들 다 돌아가셨지만, 그 분네들이 밤에 여기 나와 앉아 있으니까네, 소리가 나드래요. 그래서 그 이튿날 인제 6·25가 터졌다 그러는데,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나도 거기서 소리가 나고, 그 그런 불상사 있어도 소리가 나고 그런다고.

여기는 얘기할 게 그런 것 백이도 읊어요.

㉠ 함봉산의 효험이 있는 약수

박윤성(71, 남)/완장리T 3앞

[완장 3리 마을어귀] 박종수, 강현모, 강아영, 김진영, 이상준 조사(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친 제보자는 이곳의 있는 지명과 관련되어 생각이 났는지 곧 이어서 구술하여 주었다.

그리고 여기 올라가면 한봉산이라고 있어요 [조사자 : 한봉산요?] 응. 이름이 한봉산인데, 거기에 인제 다 올라가면, 바위가 이렇게 한 이층 자세에 인제 벽같이 인제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그 중간에서 구멍이 하나 있는데, 그 물이 고정(일정하게)으로 물이 흘러 나와요. [조사자 : 바위에서요?] 예. 바위에서요. 옛날에는 그 물을 앓은뱅이가 업혀 와가지고, 그걸 먹고서 걸어갔다는 전설이 있고.

그리고 인자 그런 뒤에, 어떤 짓곳은 사람이 거기 가서 개를 잡아 먹었데. [조사자 : 아 개를 잡아 먹어?](일동웃음) 그런게 그 개 잡은, 어느 땐지 그거는 생각을 못 히것는데, 개를 잡아 먹고 나니까 그 거기에서 물이 안 나와요. [조사자 : 지금 안 나오나 보지요?] 예. 근게 그만큼 물이 영험이 있다 이런 거지.

그래서 거기에 또 뭐 지성을 드러서는 아들을 낳고서, 산이 한봉산이라. 아들을 한봉이라고 이름을 지은 예도 있고. [조사자 : 지금도요?] 그러니 이렇게 내려온다고. 그런데 지끔은 그 중간에서 나오지 않고서 그 밑, 밑에서 인제 나온다고. [조사자 : 바위에 안 나오지요?] 응. 위에서 안 나오고. 그런데 지끔도 뭐 가서 뭐 이렇게 해 놓고서 먹으면 깨끗한데. [조사자 : 그것 깨끗하지요.] 그 올라갈라면 한참 올라가야 한다고. 지금도 산이들 안 올라가고, 사용을 안 해요.

여

백

6. 복리

1) 마을개관

박종수, 강현모, 정도명, 박성수, 윤영석, 이이랑, 정주희, 허윤영 조사(1995. 11. 4., 1996. 6. 1.)

복리는 용인터미널에서 오래 기다린 후에 복리행 버스를 타고 25분쯤 걸린 곳에 위치한 마을이다. 이곳은 용인시에서 하루 몇 차례 왕복하는 버스 노선이 있기는 하는데, 오히려 오산시에서 들어오는 것이 것이 교통편이 편한 마을이다. 이 마을의 이름은 남사면의 가장 북쪽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면소재지인 봉무리의 북쪽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 것 같다.

복리는 용인군 도촌면 지역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삼인동, 신흥동, 당하동을 합해 복리라 칭하여 남사면에 편입시켰다. 마을의 북쪽에 저수지가 있고, 그 위쪽은 산으로 둘러쌓여 있어 더 이상 도로가 없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오산으로 나가는 길목이고, 동쪽은 아곡리와 연결되어 있으며, 남쪽은 봉무리와 통삼리와 연결되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작은 단위의 마을로 당하동은 옛날 뒷산에 당집이 있었기 때문에 당집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공장지대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주막거리는 당하동 서쪽에 있는 교통이 요지로 주막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그리고 신흥동은 새미랭이 남동쪽에 위치하여 있는데, 새로 마을이 생기어서 신흥이란 이름이 붙게 된 마을이고, 삼인동은 저수지가 있는 마을의 가장 북쪽에 위치하여 있는데, 옛날에 어진 세사람이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마을인데, 새미랭이라고도 부른다.

2) 설화

① 아기장수 전설

마을 이장님/북리T 1앞

[북리 당하동 이장님댁] 박종수, 강현모, 정도명, 박성수, 윤영석 조사(1995. 11. 4.)

조사자들은 북리에 도착하여 이장님댁을 찾아갔다. 찾아온 목적을 말하자 구좌정씨를 불러와 이야기판을 형성시켰다. 조사자들이 이 마을에 대해 묻자 이장님께서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여준 것이다.

공룡리 쪽이래매! 어린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린 아이가 이렇게 노는데 특이 했다. 막 천장에 가서 붙고 근데- 그 일본사람이 뭐 죽었다고 그러지, 모르지.

② 품삯을 떼 먹는 양반들

구좌정(60, 남)/북리T 1앞

[북리 당하동 이장님댁] 박종수, 강현모, 정도명, 박성수, 윤영석 조사(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곧 이어서 제보자가 스스로 생각하여 구술하여 준 것이다. 이것은 옛날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로 보이는데, 사회적인 신분 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세간화로 여겨진다.

이런 얘기 들어 불러? 이 동네가 구씨네 촌인데 알지만 나도 구가에 한 사람이야. 여기가 옛날에도 그 아가씨들도 알지만 참 있고 없는 게 아주 대단히 그 층이 많았다.

그 참 벼슬을 좀 한 사람은 잘 먹고 못허나 사람은 노상 그 남의 일이나 댕기고 이렇게 간신히 남의 짐장 노름이나 해구 이렇게 지냈다.

근데 우리 집안 일이지만 그 우리 할아버지가 험 일을 조금 얘기 좀 해야겠네. 이 그 있는 사람에 그 점장에서 일할 때는 참 그 일날. 요즈음은 일날을 잡아서 가서 사정을 해서 그렇게 일을 해지만, 옛날엔 우리 일이다 하든 그냥 가서 그냥 밥 얻어 먹을라구, 그냥 가서 도와주기도 해구 품값도 받고 인제 이랬었는데.

일 다니는 사람은 옛날에는 어려워서 배우지도 못 했다고. 그래서 애들도 맥여 살려야 되고 식구들도 맥여 살려야 되구. 그래서 거 언젠가 품값을 좀 줬으면 해는데, 거 있는 사람의 거 할아버지가 별로 그런 데는 신경을 안 쓴다.(웃음) 그래서 수 개월이 지난 후에 우리가 가서,

“품값 좀 주십쇼.”

“자네가 우리 일을 왔어?”

“아, 그때 왔죠.”

그랬더니,

“어디 내가 적어 논 거 명단을 보면 알지.”

이렇게 딱 대고 명단을 보니까,

“없는데. 명단에 빠졌는데?”

그래서 옛날에 그런 거루 끝났다. 그렇게 이 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그 없는 사람들을 골탕을 먹였다.

근데 요즈음은 그런게 없지. 칼날 같지. 내가 하루 일을 갔다 그러든 품값을 꼭 받아야 물러나고 안 받으면 주먹싸움이라도 해서 이제 그런 데. 옛날에는 실력이 없으면,

“아휴, 네 알았어요.”

하고 물러나고 고거로 일단 마치고.

③ 어머니를 출가시킨 효자

[북리 당하동 이장님댁] 박종수, 강현모, 정도명, 박성수, 윤영석 조사(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효자에 관해 묻자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주었다.

여기 이씨네가 인젠 이렇게 사는데. 참 그 자기 할머니가 인저 옛날에 돌아가셔 가지고, 그 아들이 아들이, 요즈음 아들 그 아버지가 장가 든다른 허락하잖나? 안 하지.(웃음)

그때 그 옛날 이씨네 그 아들은, 자기 아들이 그 손수 그 어머니를 땡기메 그렇게 구했다고 그러던가. 어쨌든 어쨌든 은어 드렸다.

근데 지금 그 자기는 자기 아들이니까 했겠지만, 요즈음 손자놈들 대고 다음에 있잖아, 손자. 손자가 그 그렇게 잘 먹이고 참 효도를 한다 하는 정도 참 힘든 얘기지?(웃음)

④ 어머니의 죽음을 사흘 동안 모른 아들

구좌정(60, 남)/북리T 1앞

[북리 당하동 이장님댁] 박종수, 강현모, 정도명, 박성수, 윤영석 조사(1995. 11. 4.)

앞의 효자 이야기를 마치고 이 마을에 있는 농악대와 투레에 대해 설명하여 주었다. 그리고 투레패에 관한 일화도 하여 주었다. 그리고 이 마을 주변에 있었던 문제와 어려웠던 시절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주었다.

이것은 효도에 관한 얘길세.

아 저 거기 그 원암에 남산면서 원암인데, 자기 어머니가 천상 그 어머니하구 한데 방을 쓸 순 없잖아. 그래 책 작은 뭐 사랑방쪽에 이렇게 드렸고, 나는 안방쪽에 이렇게 살구 이러는데.

그 어머니가 안 나오셔. 안 나오셨어. 식사도 하러 나와야 됐는데 우째 안 나왔는지. 그 성의가 없으니까 불르지 않았는지 그걸 잘 모르는

데. 아! 사흘 전에 돌아가신 걸 몰랐대는 거야. 아, 그 이런 일이 있어. 큰일 났네. 어머니가 그 사랑방에서 사흘 전에 돌아가신 걸 그것두 모르고 지낸대는 거.

그러니까 요새는 그 너무 그 부모님한테 신경을 안 쓰는 거지, 한 마디로 안 쓰는 거지. 그 어머니 어머니 돌아간 거두, 사흘 전에 돌아간 것두 모르니 그 신경 안 쓰는 거야.

⑤ 집을 싸게 사려는 귀신 행각

구좌정(60, 남/복리T 1앞)

[복리 당하동 이장님댁] 박종수, 강현모, 정도명, 박성수, 윤영석 조사(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들이 귀신 이야기를 해 달라고 요청하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글쎄 그 집을 좋은 걸 하나 장만할려고 그러는데. [조사자 : 집이요?] 잉. 근데 그 집에 귀신을 나타나게 한 장본인이 있잖아. 그 그 신문에 그 얘기야.

“그- 그 집에 귀신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집이 팔릴 리가 없잖아. 귀신이 들먹인 데니까. 그래서 고것도 그 삼원사라고 잔치를 벌린 일이 있어. 근데 그 이 사람 저 사람 불러내서,

“아휴 귀신이 있어서 안 산다.”

이런다. 그런데 대들보 꼬챙이 같은 정신.

“무슨 귀신이나?”

하는 간 큰놈이 목을 지키고 있었어, 거기가. [조사자 : 목이요?]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한 번 지켜 보자. 웬 귀신이 들어오나.”

근데 이 이 사람이 그 둔갑을 해가지고 뭐, 그리고 별 것 다 해가지고 들어 왔는데. 주먹을 이 이렇게 해서(주먹을 휘두르신다) 잡빠졌는데 보니까 사람이었는데, 옛날에 그 옛날에 집을 좀 싸게 사 볼까 그것, 생각이 있어서 그놈이 그것을 부렸다 고런 얘기.

⑥ 겨울에 수박을 구한 효자

구충서(75, 남)/북리T 1앞

[북리 당하동 이장님댁] 박종수, 감현모, 정도명, 박성수, 윤영석 조사(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제보자가 오셔서 스스로 구술하여 준 것이다.

노인들이 하시는 말씀에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들어봤나? 하두 효성시러운데, 효성시러운데 효성시러운데 경주에 계시는데, 동지 선날에 눈이 이렇게 왔는데,

“수박이 먹고 싶다.”

그러셔서. 지금은 수박이 항상 있지만, 그땐 수박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인저 항상 걱정을 하고, 지금은 저 예수교 일반에 기도를 하고, ‘수박장사가 오게 해 줬으면 좋겠다’구 그렇게 했더니, 그 이튿날 수박이 아니구, 어떻게 해서 해결이 됐다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봤다구.

그러니까 맘이 많이 효성스럽구 해가지구, 인저 부모 가족이 애쓰는 걸 해드렸다는 이야기.

7 도깨비 불

변봉금(63, 여)/복리T 1앞

[복리 삼인동 마을어귀] 박종수, 강현모, 정도명, 박성수, 윤영석 조사(1995. 11. 4.)

조사자들은 이장님댁에서 구충서 할아버지의 생활상을 듣고 새로운 재보자를 찾아 집을 나섰다. 그때 길가에서 콩을 까고 있는 할머니들을 만나 일제시대에 배웠던 일본말 노래를 들으며 조사를 시작하였다. 조사자들이 귀신이나 도깨비에 대해 묻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옛날 얘기 몰라유? 참 저기 저 얘기 해 줘. 도깨비불 정자가 들구온 도깨비 불 얘기 해 줘. [청중 : 그것두 옛날 얘기야? 어 오래 됐어, 정말 그.](말씀을 낚아 채시며. 그 때 아주머니들 웅성 웅성거림) 아주 오래 됐어.

정말 그 오래 됐는데, 저 근너 저 저기 산 산밑이 논이 있었다만 논이 있어. 그런데 거기서 저 지금은 저 그런게 없, 이렇게 저 기계 댕끼 없지만은, 손으로다 쓸구 손으로 다 갈구 그러잖아.

저녁에 해가 깜깜만 해. 불이 고기서 뽐뽐뽐 그냥 그래. 그래서 인제 여기서 우리 문간에서 남자털이 여럿이 그냥 인제 이렇게 모여서털 그런 거여. 한 사람은.

“저기 도깨비다.”

분명히 그러구. 또 또 한 사람은.

“도깨비가 아니구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러문 가서 도깨비인가 아닌가 확인을 해 보자.”

이러구서는 죽털 갔어. 그래가지구 몽둥이를 이만큼씩(팔을 자 삼아 길게 뻗으며) 해서 하나 가져 갔는데, 논두렁서 왔다 갔다 하드래.

그 전엔, 옛날에는 병등이 있지. 왜 봤어? 학생들? 병등. [청중 : 지금에 호롱!] 그거 말구 병 안에다가. [청중 : 등잔 놓구.] 등잔. 아니 등잔

이 아니라. [청중 : 등잔이야. 촛불?] 아휴, 한 번도 못 봤나 봐. 왜 등잔이 아니구 철사루다 이렇게 해서(손짓함) 철사루다. [청중 : 등잔이네.]

철사루다 그게 등불이지. 병 근게 철사루 얹거매 가지구서는 그걸 등이라구 해가지구 해서 심지 담아가지구 속에다가 이, 그렇게 해가지구서 그걸 꺾가지구덜 가서 보니까는 왔다 갔다, 논두렁서. 그렇게 뭐 그러니까 도깨비가 니들을 되려 홀리고 큰일 날까봐서 그냥 몸사리다가 한 사람만 소리 질르든 다 때려 잡는 거여. 그러는데 가만이 보니까 경주 아버지가 보인 보니까 그러더라나 봐. 사람이라더잖아.(웃음) 펠라구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더라. 그래서 인제.

[청중 : 이것 옛날 얘기 아닌가?](웃음) [조사자 : 좋은 데요. 괜찮아요?] 펠라구 그러는데 깔깔 웃더라잖아. 그 정 정자가. 정자가 깔깔 웃더라. 그래서 그래서 그 사람이 매맞어 죽을 건데 그냥 살았지. 그게 옛날이지 뭐, 퍽 오래 됐어, 진짜. 병등 있을 텐데, 뭐 병등, 오래 됐지. 우덜 우덜 젊어선데. [청중 : 이건 좋은 얘기야 진짜. 진짜 이건 저건 책에 안 나온 애긴데, 좋은 애기지, 진짜.]

⑧ 전주 덕진 다리의 유래

박광희(56, 여)/북리T 1앞

[북리 삼인동] 박중수, 강현모, 정도명, 박성수, 윤영석 조사(1996. 11. 4)

앞의 도깨비불에 관련된 이야기를 마치고, 새로운 이야기를 부탁하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이 이야기는 덕진 다리가 생긴 유래로, 저승갔다운 이야기의 일종으로 적둑을 많이 하여야만 한다는 내용이다.

옛날에, 옛날에 인저 이렇게 주막에 있잖어. 왜 술 파는 주막에서 인저 이렇게 밥을 이렇게 지는데, 그니까 뭐야 이저 고양주지, [조사자 : 고양주?] 그니까 고양주지. 고양주가 주모, 주모[조사자 : 주모?] 근데.

이젠 그 사람이, 왜 주인인데, 저기 남이 집 사는 거야. 그 사람이 인제 돈 받고. 근데, 근데 주인이,

“밥 좀 한 상 해라.”

그래서리, 이렇게 내다보며는 그냥 옷을 잘 입구 온 사람은 쌀을, 주인이 내주는 데서 한 주먹 덜구, 또 옷을 좀 허름하게 입구 와서 이렇게 하며는 그냥 그 놈을 보태서 밥을 해 주구 그랬데.

근데, 그러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에, 인제 별안간에 고을 사또가 별안간에 죽었다. 그래서 인제 죽어갔구 저승에 갔는데, 덕이 없는 거야. 자기는 날마두 누굴 뭘 주질 알아가지구 뭐가 읊어. 그래서 그 사자가 하는 바람, 하는 말이, 인제 창고를 들어갔는데, 큰 곳간에 짚단 하나만 달콤하니 서 있더라.

[조사자 : 짚단이요?] 짚단. [조사자 : 벧단.] 근데 덕진이 창고라고 그러면서 들어가는데, 거기는 이냥 저런 벧단 짹짹 찬게 3개가 있드래는 거야. 남에게 적선을 많이 해야 된단 얘기지. 그래가지구 인제는 그 사또를 보내는, 그 인제 그 염라대왕 하는 소리가,

“이렇게, 덕진이 이렇게 쌀이 많으니까, 가 가지구 갇어라.”

그랬다. 그래서 인제 사또가 살아났으니까 또 굉장할 꺼 아녀. 그래서 살아나서 별안간에 덕진이를 찾는 거야.

“이 고을에 덕진이라는 사람이 있느냐?”

하니까,

“있다.”

그래서 ‘있다.’ 그래서 인제,

“데려 오라.”

그랬어. 그러니까는,

“아니 사또님! 제가 무슨 죄가 있길래 나를 이렇게 불러 드리나?”

고 이냥 막 그러니까는,

“고개를 들라.”

그랬어.

“삭시! 그게 아니라, 이래저래 해서 이러니까”

쌀을 몇 천 석을 준 거야. 덕진이한테 이젠, 그걸 갚느라구. 그랬는데 그 덕진이가 그걸 갓구 뭘 했는 줄 알아? 전라도 가문 지금 덕진 다리가 있어. 그래서 거기다 다리를 놓고, 사람 많은 사람들이 건너다니는 다리를 놔가지구, 그게 ‘덕진 다리’라 지금 불르고 있다는 거야.

㉑ 송장을 치워 주고 복 받은 벼락 부자

박광희(56, 여)/북리T 1뒤

[북리 삼인동] 박종수, 강현모, 정도명, 박성수, 윤영석 조사(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생각이 났는지 계속하여 구술하여 준 것이다. 죽은 시체를 물어주고 복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 하나가 있네. 자꾸 하나까 자꾸 나오네.(일동 웃음) 문경, 저기 문경 새재 웅. 거기 옛날에 벼락, 벼락 부자, 벼락 부자 그러더라. 그래서 어떻게 벼락 부자가 됐나? 애나 어른이나 쪼금마나 다,

“벼락 부자집! 벼락 부자집!”

그러더라나. 그래서,

“아니! 저 집에는 어쩌케서 애나 그냥 이렇게 벼락 부자 소리를 해느냐?”

그러니까. 인자 그 얘기를 쪽 하는 거야. 옛날에 인제 이거는 우리 논이구, 이것은 저 당신네 논이야, 말하자면. 그런데 사람이 가다가 죽었는데, 이렇게 비구 죽은 거야, 논두렁을. 이쪽 집 반, 이쪽 집 반.

그러니까 인제 이 사람이, 이쪽 집 논 있는 자가 먼저 가서 보니까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기가 책임 안 질라구 아랫집 논으로 떠 받드는 거야, 이렇게.(양손으로 미는 흉내)

그러니까 이 집 주인은 가가지구 보니까, 참 저거 안 됐잖아. 그래서
인저 잘 건져다 놓구서는, 집으로 와갖구 인제 며느리 보구,

“애, 아가! 이래저래서 이러니 시장에 좀 같이 가자.”

그러니까,

“아버님! 그러슈.”

해서 갔대. 가 가지구 베를, 광목인가 베란가 그걸 떠 갖구 와서, 옷
을 잘 꼬매가지구 딱 이렇게 잘 싸서, 따뜻하게 산에 갔다 이렇게 양지
에서 묻었대.

그랬더니 그러면서부터 비(벼)가 그냥 막 잘 된대. 그냥 무조건 무엇
이든지 하면 잘 되고, 막 땅에다 묻었대. 하문 잘 되구. 막 그래가지구,

“벼락 부자. 벼락 부자.”

한대. 인자 그거야 끝이야.(웃음)

10 저승 갔다온 사람(1)

백애현(79, 여)/복리T 2앞

[복리 삼인동] 박종수, 강현모, 정도명, 박성수, 윤영석 조사(1995. 11. 4.)

조사자들은 앞의 제보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살아온 내력과 세시풍속에 관한 이
야기 등을 들었다. 조사자들은 새로운 제보자를 찾기 위하여 자리를 옮기려다가 우연히
슈퍼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안에서 만나 제보자는 추위에 떨고 있는 조사자들에게 방으
로 안내하며 손수 만든 차를 끓여 주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부탁하자 스스로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준 것이다. 이야기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라 한다.

애깃거리나 되나 그게? 내가 서울 서대문서 살았어요. 종로, 종로구서
살았다구. 거기 살았는데 그때 아팠다구. 아파서 내가 약을 한 재를 저
다 먹는데, 그게 한 달을 낮아도 안 일어나, 먹어도 효과가 없구. 그게
어떻게 된게 꿈을 꿨는데, 낮에 잠이든 것두 같구 아니든 것두 같구. 현

데 꿈을 썼어요.

그런데 나를 잡으러 왔대. 나를 잡으러 왔대요, 거 사자들이. 잡으러 왔는데, 우리 세 사는 사람이 9사람여. 거기 그 집이. 9사람이 있는데. 이 꿈에도 그 세 사는 사람을 갖다 척 놓구 나는 그 뒤에가 숨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자 남자 두 명이 왔는데 사자래요 나를 잡으러 왔는데, 나는 숨어서 잘 지켜 보라구, 요렇게 요렇게 다 가리구. 그러니까 책장을 젓히며 이름을 모조리,

“너두 아니구.”

아니래. 죄 아니래. 그때 내 다리를 죽 잡아다니면서,

“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절을 땡기는 거며,

“나 10년만 살게 해 달라고 우리 막내가 몇 살이니까, 10년이면 한 열댓 살 된단 말이야. 그때까지만 봐 달라.”

고 그러니까. 그 잡으러 온 사람들은 봐 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봐 줄 수가 없으니까,

“저기 저 그 저승문을 열으면 12대문이 있는데, 3개 문을 열으면 부처님이 계시다. 거기 가서 부처님께 사죄하라.”

그래요. 그래 참 가니까, 뭐 신을 하나 신었는데, 하날 또 신을라니깐 못 신게 해. 시간이 없대. 참, 진짜 사자가 있으면 그렇게 무서운지. 신을 하날 신고 신을 하날 못 신었는데. 처음 인제 그 사람들이 인제 하나 앞서구, 난 가운데 놓구 여자가 뒤 쫓구.

이렇게 죽 가는데. 저 신작로가 여 여기서 한 4미터 5~6미터 돼. 그렇게 넓은 신작로가 쪽 이리 있는데, 문이 이렇게 문이 있으면 문지기가 있어요. 쇠몽치 같은 사람이. 그 전에 절에 가든 그런게 있죠? 그런 문지기가 요렇하구 이렇게 여니께 싹 하고 나와.

한 문, 두 문, 세 문을 통과하니까 부처님이 계시데, 부처님 단 위는 높고 나는 좀 낮히 앉히시는게. 이 옷을 이렇게 입고 갔는데, 거 가서는 베투리하고 배관을 썼드라구.

“이상하다. 내가 집이서 입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서 인저 부처님더러 내가 사되는 거야.

“지금 아이가 이래이래 해서 나 갈 수 없으니, 말하자면 10년이면 철이 드니까 자기 밥을 찾아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십 년만 봐 달라.”

지금도 눈에 선하다 말이여. 부처님이 곁곁곁 웃으시며,

“죽으러 온 여자가 저렇게 착한 여자는 처음 본데. 그러면서 네 소원대로 미루어 줄테니 말을 해라.”

그래 그렇다구. 애길 쪽 하니까,

“저 밑창을 쳐다 봐라.”

그래 보니까, 그냥 네모 반듯한 가마, 가마가, 기름 가마가 쪽 있어요. 근게 기름이 바닥은 요정도 될까. 그냥 막 끓어서 한 가마에서 그냥 끓어 요렇게. 그냥 전부가 다. 그래서 요렇게 있는데, 어느 신사가 안경을 쓰고 회색 양복을 입었는데, 거 가서 이렇게 기대고 있더라구.(무릎을 꿇으면서 구부리시는 흉내를 내셨다.) 그런데 한 가마만 기름이 있구 빈 가마예요. 부처님이 이래.

“너 나가서 10년을 살려줄 터니, 나가서 착하게 어질게 하거라. 저 아래를 내려다 보라.”

구. 내려다 보니까 참 그런 게 있어. 그런데 ‘저 사람은 왜 그러냐’ 하면. 돈도 이자 비싸게 받아 먹고, 못된 짓을 다 해 먹었디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은 자기 죄의 댓가를 받는 건데, 저 기름술에 끓여서 인제 이렇게 내려본다. 그러시면서 설명을 하시더라구. 그래 인제,

“잘 알겠습니다.”

하는데, 앞의 보당이 이것만 해요.(지금 자리를 잡으시며) 내 앞의 보당이 이것만 한데,

“그의 단추를 눌러 봐라.”

눌르니까, 그 강냉이 튀기는 소리 나죠? ‘뽕’ 하고 튀기는데, 그 신사, 회색 사복 입은 그 양반이 기름가마에 왔다 인근 가마로 튀겨져 나왔는데, 그래서 내가,

“아휴, 저 기름 가마에서 어떻게 하나. 머리두 안경이구 옷두 다 망가졌겠다.”

하고. 이렇게 쳐다 보니까, 입은 채 고대룬데 눈두 꾸먹꾸먹 해여.

“어머나, 부처님! 살았습니다.”

이런게. 안 죽는다 이겨여.

“이(저)승에서는 천 년을 살기 때문에 안 죽는다.”

참 그래서 인제 내가 그 신사분을 이렇게 디다 보니까, 이렇게 눈을 꿈벅꿈벅하고 있어요. 아! 꿈에서도 ‘아! 저승 이렇게 엄하구나! 꿈찍하구나! 내가 부처님께서 응 10년을 더 살려 주신 것은 더 어질게 착하게 이러구 살아야겠다!’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인자,

“그걸 봤느냐?”

구 해서,

“봤다.”

그런게 이 사람이 어째서, 남의 것 속여 먹고 그저 못된 짓을 다 해서 저승에 와서 그만 인자 그 죄를 받은 거래요. 그래 인저 부처님이 하는 소리가,

“인저, 10년을 살려줄터니. 꼭 개가 이것만 해요.(할머니가 키우시는 치와와를 가리키시면서) 하얀 개가. 나더러 가라.”

고 해여. 가는데, 정처를 몰르고 가네. 그 사람들이 데리고 왔으니 가는 길을 몰르지.

“모릅니다.”

허니께,

“저 강아지를 줄터니, 강아지가 가는 길로만 따라 가라.”

해요. 그래 강아지가 덜렁덜렁 가는데, 어딘지 몰르게 강이 있는데, 외나무 다리가 있어. 외나무 다리가 있는데, 어떻게 가다가 다리가 삐끗해서 꿈이 깨졌거든. 그래서 내가 우리 아빠가 주무시던 것 췌다고 시계를 딱 쳐다 보니까 2시야. 그 해서 깨니깐 내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 꿈이 이래이래 합니다. 아마 곧 죽을 것 같다.”

고 허니께. 개꿈이라고 그러시더라구. 근데 그 지금이 10 한, 십 한 5,6년 됐지. 됐지요. 그게 근제 고 10년 되는 해, 우리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구. 그래 내 대신 돌아가셨지. 시어머니께서 여든 여덟에 돌아가셨지. 그래가지구 한 5년을 지금 더 사는 거라구. 그래 사람이란게, 내가 절을 댕겨서가 아니라, 절이나 교회를 똑 같은게, 교회를 다니는 분은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절에 다니는 사람은 선을 베풀어야 되니까. 그래 가지고 인저, 말갈지 않은 말을 자꾸해서 미안하네.(인생 살아가는 방법의 설명 생략)

㉞ 구렁이가 된 욕심 많은 스님

백애현(79, 여)/복리T 2앞

[복리 삼인동] 박종수, 강현모, 정도명, 박성수, 윤영석 조사(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자신의 살아온 내력을 설명하였다. 그때 절을 다니면서 듣고 책에서 보았던 욕심 때문에 벌을 받은 스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주었다.

그런데 인제 옛날, 인자 예전에 왜들 책 보면 다들 잊어버려. 얘기를 또 가다가다 좇어들은 것이라.

삼백 명. 그 중이 삼백 명 스님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근데, 인저 그 수자 하나가 똑똑한 사람을 어려서 갖다 길렀는데, 아 그저 공부도 잘 하고, 말도 잘 듣구, 일도 잘 하고. 정말 하나 버릴 게 없이 잘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인저 나이가 거짐 차니까 큰 스님더러,

“스님! 스님! 우리 기도를 들어가지구. 도를 해러 가자.”

구 하니까는,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애, 내가 가문 이 삼백 명 중이 다 굶어 죽는다.”

그러니까. 그 수자가 하는 말이,

“이 곳간에 삼백 석이 있는데, 삼백 명이 왜 굶어 죽습니까? 가십시다.”

하니까. 그 아이 말도 웬아서 쫓아 갔어요 아주 조금 내려가니까. 이 큰 스님이, 또 중들이 다 먹을까 봐 무서워서, 욕심이 생긴 거지.

“나는 이 절을 돌아가야 돼. 삼백 명의 중이 굶어 죽어.”

하니까. 수자가,

“그럼 생각대로 하시라.”

고. 그래 인저 다 가셔서, 그 집이서 뭐 산 속에 오막집이서 밤이 되니까 자게 됐는데 인저, 그 산속에 두 내외가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저 스님 두 분이 들어가니깐 합장을 하면서,

“우리 아들 하나만 낳게 좀 해 달라.”

구 그러니까. 인저 수자가 있다가 하는 말이, 수자는 벌써 그 도를 통해지 않아두. 자기 귀될 걸 알았어요, 그 아이가.

“인저 몇 년도에 당신이 얘기가 있을테니까, 그 얘기가 인저 꿈을 꿀 때는 파란새가 당신 몸으로 들어가면 얘기가 있는데, 남자가 있소 남자가 있어서 이 얘기를 나쁜, 여섯 살이 되면 중이 와서 시주를 해서 당신 아들을 달라고 할테니, 승복이고 바랑 하나를 맨들어 노시오.”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때 아이 낳 욕심으로,

“하 치다 뿐이나?”

그랬거든. 그때 이 큰 스님은 절루 가구, 이 수자스님은 저 산으로 도를 통하러 가고. 그런데 도를 통하러 가문, 이렇게 그냥 벽돌인데, 사람 하나 들어가면 바늘 구멍도 없어요 얼마 간에 거기서 공부하면서 내가 도를 통해야 이 바늘 구멍에서 사람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도사가 될 수 있다구. 그래 얼마간 하셨는지 참 가만히 도를, 참 자기가 하다 보니까 바늘이 바늘 구멍만큼 뵈거든. 그래서 나오셨어요 고 구멍으로 나

오셔서 인저 그 집을 거쳐 오니간, 그저 그 스님이 애길 한 거야.

“그래시니깐 꼭 여섯 살 되믄, 그 시주하는 스님한테 그 아들을 바치시오.”

그래 약속을 하구 절로 갔어요. 그래 큰 스님이 죽은 거여, 가니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렁뱅이도 상비렁뱅이지. 몇 년을 그 기도하고 갔으니까, 수염은 이만하고 그냥 옷도 뭐 거 빨아 입지도 았구 했으니 뭐 형편 없지. 그러니까 삼백 명 중이,

“저 그지가, 어디가 그지 노릇하다 왔다?”

구. 쳐다두 안 봐요, 그 사람을. 그래 인저 여 스님이 돌아가셨다구, ‘좋은 디 가라’구 기도를 어떻게 해구, 그 삼백 명 중이 했었는데. 이 중이 아몽케두 안 되겠어. 그래서,

“설거지를 내가 해 줄테니, 니의는 허지 말고 혼자 삼백 명 먹을 걸 설거지 할테니께 맡기라.”

구. 그니께 설거지 하기 싫으니까 해 달랬거든. 해 주는데 인제 거기선 돌암이래요. 돌암에도 인전 사기 그릇을 씻는거래. 그러는데 이전에는 재, 검은 재 있죠?

“그 검은 재를 하나 가져 오너라.”

했어. 그래 검은 재를 갖다 주니까, 그냥 돌암에다 그릇을 놓구 다- 이래니께,

“저 놈. 저 그지같은 놈팽이 그릇 죄 깨뜨린다.”

어느 스님이 그랬거든. 그러다 이 바깥에서 어떤 스님이 보니께, 그냥 거기서 빛이 나오고 그냥, 어 그 스님 곁에서 그냥 이주 그냥 빛이 나더래요. 그래서 삼백 명 중이 거기 설거지 하는데 가서,

“잘못 했다.”

구. 옳드리구 사죄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일어나라구. 네 소원이, 스님 당신네 소원을 무엇이든지 들어 드리겠습니다.”

하구. 그런게. 스님을 옷을 바꿔 입힐라구 그러니께.

“관 뒤라.”

구. 그 옷을 입고 그냥,

“너의 스님이 신체는 이 방에 계시지만은, 육신은 계시지만 영혼은 여기 공간에 큰 검은 이무기가 되서 계시니까, 죽을 석 동이만 써 와라.”

했어요. 그러니까 인저 부라부라 죽 쓰면서 그러지만, 스님들이 나서서,

“볼 수 있느냐?”

“암만 봐다 뿐이냐!”

그런게.

“죽 석 동이가 다 써 졌습니다.”

하니께는,

“이리 퍼 오너라.”

그랬어.

“한 동이는 공간 앞에다 놓구, 한 동이는 고 위 고 앞에다 놓구. 또 한 동이는 조금 더 위에다 갖다 놓으라,”

구 했어. 그러니께 갖다 놓구설라므네, 스님 이름을 부르는 거야.

“나오라.”

하며, 나오라구 호령호령 해니께로, 그냥 큰 꺼먹 구렁이가 그냥 눈을 꺼떡꺼떡 허구 울면서 나오드래. 그러니 인저,

“그 욕심 채우려구 기도 안 했다.”

구. 이 스님이 호령호령하는 거야. 그러니깐,

“당신은 욕심이 많아서 기도를 안 해, 도를 못 닦았으니까 이 죽을 먹어라.”

했어. 그러니까 배가 터지도록 먹어라 이거지. 그래서 인저 그 죽을 구렁이가 한 동이를 먹으니까, 배불러 죽는다구 막 똥구는 거야. 그런 걸 절로 끌구 가서 또 한 동이를 먹으니까,

“이제는 못 먹겠다.”

구 그래.

“못 먹는게 어디 있느냐고 먹으라.”

구. 그래서 두 동이를 먹었데. 두 동이를 먹었는데, 세 동이째 먹일라니까,

“이제는 진짜 못 먹는다.”

구. 그냥 테굴테굴 구르더라. 테굴테굴 구르는 걸,

“니가 정 못 먹으면 죽으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냥 그 돌막애다 ‘딱’ 하고 부딪히니까, 그 구렁이 그 영이 파란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거기 오두막집이 그 집 엄마한테 가서, 배 속에 애기가 태여 준 거야.

그래서 인저 장사는 잘 치르구. 인저 그 고 애기가 날만 할제. 한 번 아니 6살 먹는 해에 그, 이 스님이 또 가서 시주를 헨 거야. 그 집 가서. 그런게 그 귀여운 아들을 어떻게 쥐. 참 못 주겠지. 나부터도 못 주지. 그런데 그때 약속한 게 있으니 안 줄 수도 없구.

“내가 환갑이 아무 맨데, 이 아들을 좀 내 환갑 때 볼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니께.

“환갑날은 보내드릴 터이니!”

했어. 그래 할 수 없이 인저 바랑을 지어 냈드래요. 그래

“바랑을 얼른 지고 가라.”

그 했으니께 스님을 쫓아 나간 거야. 나가다 그래두 죄가 남아서, 남의 배가 이렇게 수군 벼 한 이삭을 딱 꺾어서 까 먹드래요. 그런게 스님이 야단을 친 거야.

“너는 죄가 그래두 남았느냐? 그 벼, 남의 곡식을, 왜 가꾸어 논 곡식을 니가 니 입에 먼저 넣느냐?”

그랬어.

“또 다시 한 번 큰 저기가 닥쳐야 된다.”

호령호령 하거든. 그래 이제 절, 어느 절 깊은 절이구 가서 인저 공부를 허구 그러는데. 몇 년이 흐르다 보니께, 지 어머니 생일, 환갑이 왔거

든. 그래 스님이 가서,
 “너의 어머니 환갑에 가 보라.”

그래 인제 요것까지 밖에 몰라. 그래서 인제 거기 와 가지구, 그 아들이 엄니하고 잘 살다 죽었다는 디. 그 영이 또 뭐가 됐다는 말이 있어요. 곡식 이삭, 벼 이삭. 하고 까먹은 죄루. [조사자 : 그 하나 죄로요?] 응. 그런게 우리가 사는데 그만큼 모든 걸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지. 그렇게 안 돼. 사람이 살기 때문에.

12 저승 갔다온 사람(2)

백애현(79, 여)/북리T 2앞

[북리 삼인동] 박종수, 강현모, 정도명, 박성수, 윤영석 조사(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또다른 이야기를 부탁하자 저승에 갔다온 이야기에 대해 구술하여 주었다.

죽어서도 어느 부자가 죽었는데도 에 그것도 성도 몰라. 가운데 쪼금 아는다. 부자가 종을 많이 부리고 살았는데요. 나도 이것 뭐.

그런데 그 종을 함부로 부린 거야. 이 사람이. 좀 잘 산다구 해서 그냥 막 시키구. 제대로 대해 주지도 않구 그랬어요. 그러다 별안간에 감을 친거야. 이 사람이.

감(졸도)을 쳤는데, 인제 장사 지낼라구, 돈 많으니까. 인제 상포 흥정 뭐 하고, 인제 뭐 허구 야단 났겠지. 뭐 돈 많은 집이니까. 그렇게 허는데. 인제 다 그 사람을 배웃을 입힐라구 허니까. 아니 배웃을 입혀 가지고 관에다 넣는데, 관이 딱 뽕개지더라고. 관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기절할 수밖에. 그래서 그냥 일어나 앓더라고, 관 안에서.

“이게, 왜 이렇게 야단 떨이냐?”

하니께,

“아!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판까지 사다, 지금 장사 지낼라구 합니다.”

“내가 잠깐 잤, 잤지 죽기는 뭐 죽어. 내가 이래이래 해서 저승을 갔다 왔노라.”

구. 근께 종들을 죄 부르는 것야. 아 인저 저승을 갔는데, 이 문초를 하니깐 하나 좋은 일 한 게 없어요. 그런게 거짓말을 거기선 못하는 거지.

“좋은 일을 한 게 없으니깐, 그 많은 땅이구 돈이구 다 10년 동안 노나줄 수 있느냐?” 니께,

“노나줄 수 있다거든, 10년만 살게 해 달라.”

구. 10년 동안 암만 노나두 노나두 다 그 땅을 못 졌대, 그 땅을. 그래 이 저기가 종들한테 후하게 해니께, 그 죽었다 살아나서. 종들한테 쌀도 주고 옷도 해 주구, 그냥 돈두 주구 그냥 이러니깐, 종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별안간에 그래니께. 그래 물었대.

“어째서 이렇게 원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좋은 일을 베푸느냐?”

하니께,

“내가 저승을 갔다 왔는데, 너희들한테 잘 하라 하니께 잘 할 수밖에 더 있느냐? 그런게 마음껏 먹구 마음껏 갖다 써라.”

그렇게 종들을 주고, 친구를 쥐도 그 재산이 어떻게 많은지, 재산이 남, 남드래요. 그 끝엔 잘 몰라요. 아무게도 그렇게 노와 줬으니까, 좋은 사람이 되서 죽었겠지.

13 과객 제사상 차려주고 복 받은 맘머느리

김시황(86, 여)/복리T 3앞

[복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이이랑, 정주희, 허윤영 조사(1996. 6. 1.)

조사자들은 복리에 도착하여 동네사람에게 나이 많은 할머니를 묻자 제보자를 알려 주었다. 조사자가 댁으로 방문하여 만났는데, 제보자는 경상도 말투에다 고스름을 매우 좋아하였다. 그래서 조사자들은 할머니의 동을 주물러 드리고 고스름까지 하면서 이야기를 채록하였다. 이야기를 부딪하자 스스로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준 것이다.

옛날에 경상도 안동 땅에 김정승 부잣집이 있었거든. 그 부잣집으로 김정승 영감이 아주 부잣집인데, 한마치는 밑알이 서이로 봐 놓고, 아들이 서이라 말이어. 밑알 서이를 봐 놓고 죽어 빠렸거든.

죽어 빠렸는데, 영감 혼자 사랑을 지키고, 아들을 서이를 장개를 들었는데, 제일 만아들은 말이지 절에 공부하러 보냈어. 저- 나라에 진사 급제 해가지고 정승 판사 맨들려고 절에 보내 놓고. 미느리는 인자 안에서 시어머니 죽고 없으니까, 데로고 살림을 살고. 둘째 미느리, 셋째 미느리는 따로 살림 내 놓았거든.

살림을 내고 사는데, 이 김, 김대감 영감님이 사랑방을 널-다란히 내 놓고, 흑 오-다가 가다가 돈도 읊고, 또 배 고프고 누워 잘 디 읊는 사람은 밥 먹여 주고 그 사랑 재운다 말이어. 재워 보내는디, 그래 그래가지고 영감이 세월 보내는디, 한 번은 젊은 사람이 30전에 사람이 하나 오심, 하나 오면서, 그래 오는 것을 그래 들여가지고 저녁 먹고, 자리 허고 그래 하인을 시켜가지고 안에 알려,

“손님이 한 분 왔으니, 저녁 채려 오리라.”

이렇게 했거든. 그래 하인이 저녁을 채려 왔단 말이어. 저녁을 채려와 놓으니까네, 이 젊은 양반이 저녁을 안 먹고 그냥 상을 덮어 놓거든. 그래 그 대감이,

“와 그래, 젊은이! 그 저녁 와(왜) 안 자시뇨?”

이렇게 하니까네.

“아이구,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오늘 저녁에 우리 모친이 돌아가신 제 샷날인데, 비록 저 유리결식을 하지만 이 상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어머님한테 제사 올리고 먹을랍니다.”

이렇게 하거든. 그래 그 영감이 하두 그 효성에 탄복을 해가지고,
 “이 젊은이, 이 밥을 자시게. 밥을 자시면 내가 젓상을 차려 줄꾸만.
 그래 이 자시게.”

허고 먹었던 말이여. 그래 먹여 가, 먹여 놓고 가만히 생각허니께, 에 큰
 미느리는 점도룩 손님 밥을 해 주고 스(쉬)는데, 너무 미다(고생한다.)
 싫어가지고 둘째 미느리 집 찾아갔거든. 찾아 가여,

“야야! 내가 야상에 이만저만 허고 그랬는데, 채식이나마 나물밥이나
 마 깨끗하게 한 상 해 주면, 그 젊은이 엄마, 모친 제사를 들여주야 되
 겠다.”

이렇게 하니께네. 둘째 미느리 하는 말이,

“아버님! 점도룩 과객 치는 것도 과한데, 과객 제사까지 지내줄라까
 면 우리 살림 감당은 우애(어찌)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조사자 : 과객이 뭐예요?] 밥을 은어 먹으러 오는 사람. 그래 인자
 고만 딱 들어가쁘리 거든. 하두 기가 차니 시아버지 말도 못하고, 또 막
 내 미느리 집에 갔거든. 막내 미느리 집에 가니, 과이 막내 미느리 쫓아
 나오며,

“아이구 아버님! 우안 일이십니까?”

이렇게 하니까니,

“그래, 오늘 낮에 과객이, 젊은 과객이 하나 왔는데, 저녁상을 차려
 줬더니 안 먹어서 물어 보니, 오늘이 저희 모친 제삿날이라. 그래 이 밥
 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묵을라고 해서, 내가 채식에 나물밥이나 깨끗
 이 제사 차려 줄테니, 배 고편데 먹으라고 해서 먹여 놓고 나니, 그래
 너희 만동서한테 가니, 얘기 헐라고 만, 가 보니 점도룩 설치고 바쁘데,
 내가 된 사람에게 너무 무례다 싫어서, 그래 너희 둘째 집에 오니 그래,
 이만저만 허고 말허고 제사 안 차려 준다. 그러니 막내인 네가 좀 채려
 도고?”

이렇게 하니께네,

“아버님! 둘째 형님 말씀이 옳지요”

[칭취불농] 들어가 빠리거든. 기가 찬다 말이여. 하두 기가 차가지고, 우야할 수가 읍단 말이여. 큰 미느리한테 할 수 읍어서 갔거든. 그리 가 니께니, 그래 큰 미느리 쫓아 나오면서,

“아이구 아버님! 우안 일이십니까?”

이렇게 하거든. 그래 그래,

“약사 이만저만 허고 그 젊은이 저녁을 안 먹길네, 그래 물어보니 죄 모친 제사라고 그 밥을 가지고 제사를 올리고 먹으라고 해서 내가 제사를 차려 줄라고 먹으라고 했는데, 너한테 와 얘기를 헐라까니 점드락 너무 고생했던 말이지. 미안해 못 해가지고 들째 집에 가니께니 이만저만허고 안 해 주드라. 그래서 막내 집이 가니, 또 막내 집이 또 이만저만허고 안 해 주드라.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 미안하지만 너한테 새로 왔다.”

이렇게 하니,

“아이구 아버님! 제가 책임인데, 제가 아이구 하지요. 하겠습니까. 걱정마시고 가서, 하겠습니까. 그리고 모친 제사라고 허니께 안에다 차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래 나물밥이나마 깨끗하게 하여 제사 채려 놓고, 그래 인제 불러 들여거든,

“안이 와 제사지내라고 밥 해 놓았으니.”

그래 그 아들이 들어와 가지고 제사를 잘 지내고, 그 사랑채 읍어 먹으러 온 과객들 모두 있는 사람들한테 술허고 밥허고 다 먹여 주고 그래 누워 자는데, 누워 잘려고 자는데, 잠이 들동말동 허는디, 그 제사 지낸 부인이 말이지, 미느리가 큰 미느리가 뽀뽀 얽은 할머니가 키는 쪼맨허고 다리가 째룩째룩 절리시나 차매(치마)에다가 학을 한 마리 담아와 가지고,

“아이구 부인! 주무십니까?”

이렇게 허니까,

“그래 누구십니까?” 하니,

“문을 좀 여이쇼.”

이렇게 하더라네. 그래 문을 여니까네, 차매에다 학을 한 마리 담어 와 가지고, 학을 한 마리 차매에 담어 와,

“부인! 차매를 벌리쇼.”

이렇게 하더라. 그래 차매를 벌리니까는 학을 남겨 주면서나,

“지가 원체나, 제사를 원체 잘 얻어 먹었는지 은혜할 길 읊어가지고, 그래 내가 부인댁에 와 보니 아직까지는 아들이 읊어서, 아직 아를 안 낳았던 말이여. 아들이 없기 때문에 학을 한 마리 가져왔는데, 절에 가며 저저 차매에다 사(쌍)이쇼. 절에 가서 내일 당장 날 새겨들랑 인저 여 저기 대감님한테 보고하여 절에 서방님을 모셔와 가지고, 그 서방님 와가지고 잠잘 때나 그 차매를 피지 마시오. 서방님허고 잠잘 적이 차매를 피가지고, 그래 서방님 같이 주무시고 그러면 임신이 되겨들랑 애기를 놓을 참에는 아들을 놓을 겁니다. 아들 놓겨들랑 이름을 학 학자허고 받을 봉자허고 마 ‘학봉’이라고 지으소. 학봉이라 지으면 내일에 이 사람이 큰 사람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가거든. 그래 그렇게 하고 나가는다. 그래 인자 [청취불가] 그래 대감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 들어보니 그래 얘기를 죽 하니께 니,

“그래 자기 모친이 생기는 어떻게 생겼노?”

물어보라고 허거든, 미느리가 시아버지한테.

“그래 자기 모친이 어떻게 생겼노?” 하니,

“우리 모친은 뽕뽕 엷었고, 다리를 잘룩잘룩 절르고, 키는 쪼매하데 하드란다.”

그래 거처없는 사람이 그 제사를 얻어 먹고서 너무 고마워서, 그냥 그 아들도 학을 갖다주고 놓을라고 주었다 말이여. [조사자 : 훌륭한 아들을 낳으라고.] 응. 그래 갖다 주었다 말이야. 그래 놓으니 참 아들이거든. 그래 학봉이라고 지었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출세 먼저 해가지고, 미국 가고, 일본 가고 했다는 김학봉이 그 사람이여. 경상도 안동에, 안

동에 대감집이 아들 김학봉씨. 김학봉씨라고 대한민국 위인전에 있어.

14 부정한 제사를 알아낸 소금장수

김시환(86, 여)/북리T 3앞

[북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이이랑, 정주희, 허윤영 조사(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힘이 드신지 물어 누웠다. 잠시 후에 조사자들이 이야기를 부탁하자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준 것이다.

옛날에 두 부부가 살았는데, 그 젊은 부부가 아들 하나 낳아 놓고, 그 만 신랑이 죽어버렸다 말이며. 신랑이 죽어버리고 나니 없기는 없는데, 이 이 신랑이 확실히 사람이 말이지, 그래 착하고 존대가 맞추었고 그랬데.

그래 그 젊은 색시는 그 아를 데리고 직 혼자 사는데, 업고 녀의 집 발 쩌 주고, 녀의 집 빨래해 주고, 녀의 집 발 매주고 그럭그럭 혼자 아들 키웠거든. 아를 키웠는데, 이놈의 아를 키워 놓으니까, 야가 역시 직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직 엄마한테 착착 효자이고, 야 직그 동네 사람들한테도 모조리 언사를 듣고 그라는다. 그래 동네 사람들이,

“쟈가 저리 크고 저러니까는 없기는 읍어도, 몸통이가 젊으니, 저 직 엄마한테 저렇게 효자이니 허니까니. 직그 엄마, 직그 엄마를 말이지, 그래 여 그거 하는 불쌍한 색시를 하나 디려다가 우리 장가를 딜러 줄께 아니가.”

동네에서 장개를 들여 주었던 말이며. 그 동네에서 장개를 들여 주었는데, 그래 장개를 가가지고 그 색시가, 그 색시가 이우지간의 방아 쥘어주고, 밥 얻어 와가지고 그 시어머니 먹여 살리고. 아들은 녀의 집이 일 해주고 와 사는데. 그래 한 번은 직 엄마가 늙었는데, 직 엄마 생일

이 닥쳐 온다 말이어. 생일이 닥쳐 오니까니 그 미느리가 쥌그 신랑한테 걱정을 해서,

“미칠 안 있으면 어머님 생신이 닥쳐 오는데, 다만 자반 한 마리라도 사드려야 되는데, 살라 하니 살 돈이 읊다 말이어. 살 돈이 읊으니 어, 어떻게 돈을 맨들어 가지고 자반이라도 그렇게 한 마리 사야 안 되냐!”

이렇게 하니까. 사야 안 되냐 이렇게 하니까. 신랑이 허는 말이.

“내가 저걸 누, 내가 그러만 소금을 한 말 사가지고 와 저게다, 동네가 팔아가 와요. 그래 그 소금 팔은 돈 가지고 그래 엄마 생신날 자반 한 마리 사다 해 드리자.”

이렇게 하고 의논을 했거든. 의논을 해 가지고, 그래 소금을, 소금을 사가 줌 지게다 지고 점도락 돌아다녀야, 그놈 소금 하루 종일 못 팔았어. 못 팔았었는디 해는 저문디, 그 저 산을 하나 넘어가야 동네도 있고, 거기 가 누워 자도 자고 밥도 얻어 먹고 해야 되는데, 그만 그 산 중간쯤 가다가 그만 해가 빠져버리고 어두워 가지고 못 넘어 갔다 말이어. 못 넘어가고 어디설로므 자노 싶어가지고 그래 이래 살펴보니, 그 고산에 양쪽에 미가 두 낮 이렇게 있거든.

“아이구! 내가 저 미(묘) 새에 끼어가지고 자야 되겠다. 미룩에 맨당 카면 낫겠다.”

이렇게 하면서, 소금 지게를 받쳐 놓고, 미 새(사이)에 누워 잤다 말이어. 미 새에 돌르고 잤더니만, 그 누워. 밤에 누워 자는데, 꿈을 꾸니까는 꿈에 영감하고 할마니하고 어디를 갔다 오더니만은, 영감이 새로 차비 들어 오거든,

“에이! 쳇! 쳇! 에이! 쳇! 쳇! 쳇!”

이렇게 하면서 들어오거든. 들어오면서 그가,

“그래가지고 안 됐다. 그래가지고 안 됐다.”

허며, 뭐라고 허니까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일년 내 바라고 있다가 지사라고, 지사가 닥쳐 놓으니 인제 지사에 갔다 말이어, 여기 지사에. 그래 가니 밥이라고 하는 것은 전시(전부)에

돌케라 씹지 못하겠고, 국이라는 것은, 국하고 나물허고는 머리카락이 들어가지고 더러워서 못 먹겠어. 너무너무 패섬해서 막 내가 말이지 하루 저녁이, ‘너 일년 있다가 부모 제사 한 번 지내는데, 제사 이럴 수가 있나?’”

그래 그 제사 지내는 집은 동네에서 제일 큰 부자집이라. 헌데 그래서 그 인자, 소금쟁이 밤에 자니, 꿈에 보니 그렇게 하드라 말이여.

“내가 나오며 보니께니 화로에 불이 황조실룩, 5대독자 머스마(남자) 열 살 먹은 것, 있는 것 그 화로에 주저 앉혀 버리고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화로에 주저 앉히고 나왔다 이렇게 하니, 그 영감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 짓은 왜 해. 5대 독자 그걸 잘 키워야 되는데, 그것 죽으면 우 째려고 그런 짓을 하노” 까니.

“하도 어미가 너무너무 패섬해. 제사 지내기 일 년에 한, 한 번 제사 지낸다 허는디, 밥에 독케에 들어가 집도 못하겠고. 나물허고 반찬은 머리카락이 들어가 하도 패섬히 그래부리고 왔다.”

고 이렇게 허니까. 영감 하는 말이,

“아이구! 저걸 낮게, 빨리 낮아야 되는데, 날씨는 덥고 큰일이 났다. 저거 안 낮으면 죽는다. 어디로 기별을 해 주노. 이 길로 똑바로 올라가면, 저 오른쪽으로 가지 말고 왼쪽으로 가지말고, 똑바로 올라가면 그 산판덩이에, 그 길은 옹고 인자, 마지막 끝에 올라가면 웅달샘이 하나 있는데. 그 웅달샘 위에 보면 떡갈나무가 고목나무가 이래가지고 있는데, 그 떡갈나무 잎으로 따다가 붙여 주면 금방 낮는데, 저걸 어떻게 알려 주겠나.”

영감이 그렇게 하면서 걱정을 허거든. 그 걱정을 헌게, 직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막 깨인께는 꿈이라.

“그 이상하다. 그 영감 할마니가 그러면 지사를 얻어먹으러 가니 그랬는가 보다.”

이래 인정을 허고, 인제 날이 새 놓으니 소금을, 소금 지게를 다부 짚

머지고 그 산을 넘어간다 인자. 넘어가 밭이라도 얻어먹고 또 팔아 가야 안 되나. 그래 넘어가니께네 큰 부자집인데 대문 안에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했었니까니, 이 집에 원래는 직그 직 아버지 제사를 지내면, 본래 온 동네 사람을 먹이거든. 온 동네 사람을 먹이는데,

“오늘 이것들이 직그 아버지 제사를 지내고, 와(왜) 무소식도 읊노?” 하면서. 온 동네 사, 읊는 사람들이 얻어 먹으려 좀 하니까니, 그 집이서 하인들이 나와 뭐라고 허는고 허니까니,

“아이 죄송합니다만은, 밤에 도련님이 화로에 주저 앉아가지고 불에 데가, 녀의 갈라 줄 정신이 하나도 읊다.”

고 허면서나 소꿌채로 술채로 그냥 갖다 내주드랴. 그래 이 사람이 아마 박자를 치면서, ‘읊다. 꿈에, 내 꿈에 뵈는구나. 그래 꿈에!’ 그래,

“그럼 나는 이집에 한 번, 내가 한 번 가 보고 내가 조치를 할테니, 이 집에 나 한 번 들어 줄래?”

하니까니. 하인들이 들어갔다 나오더니만,

“들어 오라.”

하거든. 그래 들어가 보니, 아가 막 사지가, 전신이 막 불에 데가지고 반쯤 썩어 다 죽어 가거든. 그래 그 사람이 있다가, 그 주인이.

“그 사람 우애 가지고 빨리 낫게노고 아기가 안 죽고 낫게는가?” 하니,

“야는 낫아 드릴테까니, 날로 재산 얼마만치 줄래?”

이렇게 하니까니,

“직그 집이 수천 석 부자인데, 내 문서 반택이라도 야만 살려주면 줄꺼만. 그럼 약속하자.”

“약속 안 돼. 나는 녀의 살림 반턱썩은 받을 마음 안 먹는다. 돈 천냥 허고 논 몇 마지기만 허고 주면 된다. 그래 이 주일 안에 낫사 줄게.”

그래 약속을 했거든.

“그래 약속을 하자.”

그래 약속을 해가지고, 그 하인들 인저 부러가지고,

“여기서 오른쪽도 가지 말고 왼쪽도 가지 말고, 쪽바로 올라가면 올라가면 길이 끊겨 맥혀 있는 데가 웅달샘이 하나 있는데, 그 샘 위에 가면 떡갈나무와 고목나무가 하나 있다.”

고 하니. 그래 그 집 하인들이,

“우리 나무할 때 봤다.”

이렇게 하거든.

“거기만 가 가지고 그 떡갈나무 앞으로 따 오시라.”

그래 가 가지고 떡갈나무 잎을 따가지고 그 놈을 붙이니 그래, 고만 고만 물이 뜨떡하니 낮고, 붙이니 낮고 붙이니 낮고, 붙이니 낮고. 고만 일주간에 그만 하이얀 해 졌어. 낮사버려 놓으니께, 그래 이 주인이 막 좋다고 고맙다고 큰 소 한 마리다 사 와. 소에다가 돈을 천 냥을 싣고, 농사 짓도록 하인 하나 허고, 논 옛 마지기 그 논하고 가지고 그리 고향에 갔다 이거여. 그래 직 고향에 가니께니, 크게 고향 사람이,

“이것 어쨌 일이고. 어디가 도둑질 했다. 도둑질 할 사람은 안닌되, 사람이 너무너무 착하고, 교민하고 부모에게 하도 효자라서. 그래 동네 사람이 장가까지 보내 주었는디. 우얀 일이고?”

물으니까는. 이 사람 하는 말이, 모든 사람 동네 사람들 모다 놓고,

“내가 탄 게 아니고, 우리 모친의 생신이 미칠 안 돼가지고, 우리 안에서 걱정을 하길래, 돈을 구할 도리가 없고. 소금장사를 나갔더니, 날이 저물어가 소금은 안 팔리고, 어떤 미(묘) 자태에 누워 자니께 밤에 꿈을 꾸었다. 밤에 꿈을 보니께니, 이래 꿈이 이래이래 꾸이더라. 그래가 아침에 날이 새가지고, 그 인자 그 등넘어를 넘어가지고 가니, 큰 부잣집에서 그 소동이 났다 허길래, ‘이 와이 하까.’ 허니, ‘오늘날에 영감, 그래 직 아버지 지사를 지냈는디, 5대 독자 10살 먹은 아 하나가 화로에 주저 앉아가지고 시방 죽게 되었다.’ 허더라. 그래서 내가 꿈에, 그 말하고 거기서 꿈을 꿴다.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 봤더니 그렇드라. 그러니 우리 모이, 모든 젊은 사람들 자시 들어라. 제사로 나물깡 밥깡 드려도 정성드리, 깨끗이 제사를 다 지내자. 그 사람이. 그 기본께 동네 사

람 뿐 이랬한다. 제사를 지내면 아주 깨끗이 정성드려 가지고, 나물 한 가지 밥 한 가지 드려도 깨끗이 제사지내도록 하자고 내 꿈에 완전히 그려져가지고 날로 이래 부자로 만들었다.”

하니. 그래 동네 사람들이,

“하늘이 도와다 말이지. 하도 니가 부모한테 효성드리고, 동네 사람에게 잘 허니께니, 하느님이 도와서 그래 주었다.”

고 합디다. [조사자 : 어디서 내려 오는 이야기예요?] 응. 경상도 거 울진하는 섬이라고 하데. [조사자 : 울진?] 응. 경상도 울진하는 섬이래. 그건 울진 경상북도 아닌가. 그래 그랬단다.

그래 자랑을 한테 한 번 제사를 지내면, 참말 깨끗이 정성드려 드리세, 제사를 아무 짝에 없다고 말고. 이제 다 했다.

여

백

7. 통삼리

1) 마을개관

박종수, 강현모, 박은주, 채한일, 윤영배 조사(1995. 11. 4., 11. 11.)

통삼리는 용인터미널에서 북리행 버스를 타고 북리를 지나 봉명리 쪽으로 5분 정도 가면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도 용인시내에서 들어오기보다는 오산시에서 들어오는 것이 교통편이 편하다고 마을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다.

통삼리는 원래 용인군 서촌면 지역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동막동, 원포동, 북정동, 통곡동을 합하여 통곡과 3마을이 합하였다고 하여 통삼리라 칭하고, 남사면에 편입시켰다. 마을을 이루고 있는 작은 마을들을 보면, 통골 또는 통곡은 가장 전통이 있고 중심이었다는 뜻에서 통골이라 칭하였다고 하고, 마을의 형국이 소죽통을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이는 마을의 뒷산이 소가 누운 형상이므로 죽통에 비유하여 붙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은 네 마을 중에 가장 낙후되고 활발하지 못한 마을 분위기였다. 원포는 먼개, 멩개라고 하는데, 저수지와 가까운 곳이어서 배가 드나드는 나룻터가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즉 이름은 먼개를 한자어로 고쳐 써 원포라 하였으나, 현재는 나룻터의 흔적도 없고 저수지도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다. 동막은 옛날에 그릇을 굽던 마을로 '사금막'이라고도 불리다가 현재는 동막이라고도 하고, 평택군 진위면 통천리 근처에 장군묘터에 막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유래되었다고도 한다. 동막은 통삼리에서 교통이 가장 불편한 오지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주민과 가구수는 가장 많다. 북정은 북우물이라고 한다. 원포 북쪽에 마을인데, 마을의 큰 우물이 있었으므로 생겨난 이름이다.

이 마을은 총 가구수가 162호에 주민이 648명이라고 한다. 즉 통골 40호 원포 24호, 북정 42호, 동막 60호로 나타나 있다.

통삼리 진체는 농성 구씨들로 이루어진 씨족 사회로서 4개 부락 거의 다 영세한 농업 부락이며, 요즘 인접지역에 들어선 공장이나 골프장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 이외 사람들은 전통적인 벼농사가 중심 소득원이었다. 그런데 농사를 하는 대부분의 노동력은 60대 초반에서 70대 후반들의 고령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 농기계가 현대화 되어 있기도 하였다. 종교적인 특징은 마을에 당제를 지내는 당이 있고, 해마다 느티나무에 고사를 지내는 등 전통적인 관습이 많이 존재해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기독교, 천주교 신자들도 많았다.

2) 설화

① 원포의 유래

구자욱(72, 남)/통삼리T 1위

[통삼리 원포] 박중수, 강현모, 박은주, 채한일, 윤영배 조사(1995. 11. 4.)

일제 때 통신 학원을 나와 우체국장직을 30년 정도 하다가 정년 퇴임한 사람으로서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며 비교적 정확한 발음과 말하는 것도 논리정연 하였다.

용인군 남사면 통삼리 원포 부락이거든. 그래 원포란 것이 인제 뭘 유래가 어떻게 되느냐 허면, 멀 원 개포 포자 해서 원포여. 여기 마을 요기 앞에 그 옛날에 배 타던 그러던 자리가 있었요. 그 지금도 보면, 육안으로 보면 모르지만, 이렇게 똑 떨어진 데가 있고, 그 배 타던 자리가 있고 그런데.

그 옛날에 한국, 전에 보면 미인개라고 그랬다고, 미인개. 미인개. 그렇게 개가 미어(매워) 졌다 이렇게 해서 미인개라고.

일부에는 미인개라고 불렀는데, 그 후에는 발음이 바뀌가지고 인제 명(면)개라고 불르고, 명개라고 한참 불렀다고. 미인개가 명개로 되고. 그랬더니 그게 차츰차츰 인제 사람이 달라져 가지고, 그 후로 먼개로 됐다구. 먼개. 그래서 멀 원자, 개포 포자 이렇게 해서 원포라고 지어졌

고.

여기에 굴 따던, 그래도 될 원자 개포 포자 원포라고 이렇게 옛날부터 부락 유래가 이렇게 전해져 온다.

② 유명한 지관인 목 없는 할아버지.

구자옥(72, 남)/통삼리T 1위

[통삼리 원포] 박종수, 강현모, 박은주, 채한일, 윤영배 조사(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자신의 조상의 일이라 기억하고 있었는지 스스로 이야기를 구술하여 주었다.

옛날에 우리 웃대 조상 할아버지가, 뭐 유명한 그 지관이 계셨다는데. 내가 어르한테 들은 얘기인데. 확실히는 몰라도 그 분이 얘기 허기를, “여기가 지금 뭐 구정지향 옥명지향 뭐 어떻게 어디 어디 쫓 해서 9대 정승 지지가 있데는 거야. 고기다 산소를 쓰며는 9대를 정승을 해 먹는다.”

이거야. 그래 우리는 여기 능성 구씨거든. 근데 그 할아버지가 구씨데, 우리 구씨네한테는 운이 안 다(닿)아요 최씨 아니면 이씨, 고 두 사람한테만 운이 닿지. 우리 구씨는 거기다 썩 봤자 효과가 없다구. 그래서 이 낭반이 영 그걸 누구한테도 안 알렸어요 안 알리고, 워낙 그 유명한 낭반이라서 그 뭐 도선 앓히고 이런 낭반인데.

그 낭반은 경북궁인가 뭐뭐 건설인가의 궁터 잡을 적에, 그 낭반은 대궐에서 불렀어요 그래 불렀는데, 그 낭반이 결국엔 안 갔지. 그 안 간 이유는 자기가 가서 잡아줘 봤댔자 당대는 괜찮지만, 몇 대 안 가면 반란, 변란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그 어떻게 잘못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그래 그때 당시에 가머는 잘 하면 충신이지만, 잘못 하면 역적이

로 몰리거든.

“그 후대에 가서 내가 역적으로 몰려서 죽을 바 싫어서 내가 안 간다.”

이 양반이 안 갔어. 그래 안 가서 결국은 인저 왕명을 거역했다고 해가지고, 뭔가 그 웅 그 금부도사가 뭔가 와가지고 인자 머리를 비어 갔는데. 그런데 그 양반이 지금, ‘목이 없는 할아버지’라고 별명이 지어져가지고, 그 양반 산소도 지금 저 위에 모시고 그러구. 그 유명한 때야 아주 그 양반.

그 양반이 어따 누구 묘 써 주며는, 그 집이 잘 될 수도 있구 못 될 수도 있고. 그래 인자 한 가지 못 된 일이 내려와 있는데, 아주 옛날에 그 선비라는 거는 인자 가난하고, 인저 고지식 하잖여. 옛날 지나가다가 들에서,

“밥을 먹어라.”

그래두,

“에 이, 이 양반이 들에서 무슨 밥을 먹느냐.”

고. 그냥 배에서 ‘쫄르륵’ 소리가 나도, 이걸 안 먹고, 그냥 양반치레로 이렇게 갓만 쓰고 도포 입고 이려고 막 지나가고 이랬는데.

그 양반 친구 한 사람이 아주 그 갑부가 있었어. 갑부가 있고 종도 수십 명씩 거느리고 그랬거든. 옛날에는, 지금에는 백만장자라고 그랬지만, 옛날에는 천석군, 만석군 그랬지요. 그렇게 부자가 있었는데, 이 양반이 그렇게 생활이 궁핍해두, 영 뭘 가서 줌 눈치봐도 줌 도와줄 것 같더니, 영 도와 주질 않고.

한 번은 이 양반 뭘 사정을 하러 한 번 갔는데, 안 들어 주더라 이거야. 사정을 안들어 줬어. 그래서 인제 그 후에 친구에 뭐 아버지인가 누가 돌아가셔 가지고 인제 산소를 잡게 되었는데, 그 유명한 지관이니께, 그 인저 모시고 왔어. 그래 이 양반이 그 그냥, ‘나 그렇게 못 살고 고생활 적에 아무 것도 도와주지 않고 불펜대나 굴렀다’고 해서, ‘너 이놈 줌 두고 보라’, 두고 보라고 해 가주고 산소 자리를 잡아 주었어요.

근데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 하면, 종이 없어지는 자리라고 종이 하나두, 인제 종이 없어지며는 그 생활이 인제 기울어진다는 얘기지. 고런 자리에다 해주어가지고 집안도 뭐 기울어져 가고, 종이 하나 들썩 뭐 죽거나 어디로 도망 가거나 이렇게 싹 이래 없어져 가지고 그런 일이라도 있는데, 사실인지는 몰라도 하여간 그렇게 유명했다는 양반이여. 그런 일이 있는데, 그래 몇 대조인지도 나는 잘 몰러. 인제 족보 가지고, 족보를 찾아보면 알 수 있는데, 정말 그런 유명한 할아버지가 계셨었어.

③ 개심한 외아들

구자욱(72, 남)/통삼리T 2뒤

[통삼리 원포] 박중수, 강현모, 박은주, 채한일, 윤영배 조사(1995. 11. 4.)

구대지향이나 북향지향의 등 풍수에 관련된 말씀을 하다가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주었다. 제보자는 태어나서 우체국장을 정년퇴임 한 후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한 후 마지막으로 설화 하나를 더 해주었다.

두 내우가 외아들 데리고 사는 거. [청중 : 응!] 두 내외가 외아들 데리고 살면서, 맨날 뭐 할게 없으니까, 그냥 아버지는,

“엄마 때려라.”

그러구. 엄, 뭐 엄마는 뭐,

“아버지를 때려라.”

그러구 서로 자꾸 ‘때리라’ 그랬대나. 그런게 그 애들 까부는 거 볼라구, 어려서. [청중 : 그래 좋은 세상이지 뭐.] ‘아부지 때려라.’ ‘엄마 때려라.’ 그런 거여. 그런게 애가 어려서부터 맨날 때리는 게, 그게 보통 예사 줄 알고, 커서도 계속 때렸다는 거야 이놈이 커서두. 커서 계속 때리구 그냥. 맨날 돈 자주구 장에 가서 술이나 처 먹구 와서 이냥, 맨날 이냥 작대기로 후려 치고 이래서, 그 버릇을 못 가르쳤다는 얘기지.

근데 이놈이 인자 하루는 장엘 갔는데, 동네 인제 친구들과 같이 갔지. 갔었는데 한 놈이 뭘 자꾸 사는데, 그 놈이 뭘 사더라는 얘기가. 그래서,

“너는 뭐 할라구 자꾸 그걸 사니?”

그래니까.

“이거는 우리 어머니 드리고, 이거는 우리 아버지 드리고. 이거는 뭐해 드리구 뭐해 드리구.”

그래 자꾸 산다 이거여.

“아, 너 그까짓 것 왜 사 임마! 집에 다 있는데.”

그러니까.

“너두 이거 사다가 어머니 아버지 해 드리고 그래. 어머니 아버지가 오래 살고 좋은 거다.”

그랬는데. 아 이놈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걸 몰랐거든. 맨날 사랑만 받아서 그냥 잘 입히고 잘 맥이고 그냥, 맨날 그냥 어머니 아버지 서로 때리란게, 그게 그냥 일인 줄 알고 맨날 그짓만 했는데. 아니 뭐 가만히 이렇게 보니깐, ‘아 이게 내가 사람 구실을 못 하는구나!’ 그래 이게 친구놈 때문에 이놈이 정신이 번쩍 난 거여. 응. 근데 이놈이 동구 바깥에 오더니. 그냥,

“영!영!”

울며 들어 오더라는 거여. 이놈이. 응, 통곡을 하면서. 그래 인제 지 어머니가 쫓아 가서,

“아니 너 이놈의 자식! 장엘 갔다 오더니 왜 싸웠니? 왜 울며 들어 오니?”

그랬더니. 아 이 털썩 주저 앉으며 이놈이,

“어머니, 아버지한테 내가 여태 불효하고 잘못했다고 말이여. 아무개가 뭐뭐 엄마 아버지를 준다고 자꾸 사서 보따리 들고 그랬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여태 어머니 아버지 서로 때리는게, 그게 좋은 일인 줄 알고 여적지 평생을 그렇게 지내 왔는데 영 잘못했다고.(일동웃음) 불효

자식 노릇 했다고 이제 다시는 안 그런다.”

고 지 어머니를 붙잡고 영영 울었다는 그런 얘기를, 내가 한 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애들은 귀엽게 키우면 안 된다.’ 그런 얘가지 뭐.

④ 구대 정승 지지의 산소

이규식(77, 남)/통삼리T 3앞

[통삼리 통골] 박종수, 강현모, 박은주, 채한일, 윤영배 조사(1995. 11. 11.)

제보자는 직업이 전도 하는 일이다. 때문에 이 마을에 자주 있지 않고 주로 성당에 가거나 병자들과 노인들을 위하여 자원봉사를 하러 다니고 있었다. 첫번 조사 때 마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마을과 설화에 대하여 안다고 해서 찾았지만 만나지 못해, 두번째 조사 때 미침 성당에서 철야기도를 하고 막 돌아온 제보자를 만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나무도 맥을 못 춘다고 그래서 약 먹고 죽지, 그러면 그것이 연대 책임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유전본능, 그래서 우리 동네는 저수지도 있고 느티나무가 있는데, 그런 불행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대성이 살아요 구관하고 대성. 그래서 그런 불행한 일은 없었다고.

[조사자 : 구가에 대한 전설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그건 저 여기 저리, 에- 구씨들이 여기서 살았는데, 여기가 인제 구대 구대정승 9대째 가서 정승할 자리가 있다는 거야. 산소짜리가, 골짜구니에. 있는데 인제 9대라고 하니까, 구서방네에라구 풀이도 하거던. 애 이 가출 구자 아냐. 성 구짜라고 그러구. 9서방내, 그래 여기서는 그전에는 정서방도 살았고 여러 사람들이 살지 않았어. 그러니까 구가들이 정승을 할 수 있다 그런 자리가 있다는 얘긴데.

또 달리 해석을 하면 구대, 구대, 현대 이대 일대가 100년씩 아냐. 그러니까 인제 9대에 가서, 인제 정승을 한다고 볼 수도 있고 말이야. 그

러니까 여기서 오래 살다가 보면, 인제 9대 손에 가서 정승 될만한 정승이면, 지금 뭐야 국무총리 뭐 그런 거지. 국무총리며는 일인지하 만인지상 아냐. 뭐. 그런데 저 자리를 말이지. 여기 저 구서방들 조상들이 아껴주지 않고 죽었어. 그 자리를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성경에도 보면 만사는 때가 있다고 그랬어. 무슨 얘기냐? 집에 나가면 불 일 보는데 따라서 말이야, 한낮에 들어오는 사람, 저녁에 들어오는 사람, 밤에 들어오는 사람 있잖아. 응. 쓰러진 사람 쓰러졌다고 그대로 땅에 엎드려 있지 않지. 일어나지. 우는 사람 그칠 때 있지.(웃음) 그와 마찬가지로 때가 있는데, 때를 기다리지 않고, 고 자리가 9대 정승 자리라고 해가지고 산소자리를 쓰면 도리어 화를 입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이 골짜구니에 9대 정승 자리가 있다는 얘기만 하고 어른들이 돌아간 거야. 그러니까 인제 그 때가 돌아오며는 구서방들 그 자리를 쓸런지. 다른 사람들이 아직 영조, 오래 살아가지고 9대손 그때 가서 그 자리가 그저 그 묘지로다가,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써서, 옛날에 정승이 지금은 뭐야, 국무총리에 이런 사람들 이거든. 장관급 들이거든. 그래 그런 거 하나 한다 그 얘기야.

⑤ 와우형의 마을

이규식(77, 남)/통삼리T 3앞

[통삼리 통골] 박종수, 강현모, 박은주, 채한일, 윤영배 조사(1995. 11. 1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같은 풍수지리와 관련된 이야기라 생각이 났는지 계속하여 구술하여 주었다.

여기가 와우장이야 와우정. 통골 여기가 와우정. 자리가 말이야, 누울

와짜 소 우자 소가 이렇게 누워 있는 형상이야. 그리고 인제 여기 뒤가 그전에 그제 4~3개 요렇게, 7~8단 이렇게 여 느티나무 있는 데가 소가 이렇게 이렇게 누워 있잖아, 이렇게. 있으면 인제 한나절 되면, 소죽 먹으라고 점심 먹으라고 이렇게 소죽통을 갖다 놓은 자리야. 바로 요 느티나무 자리야.

인자 그랬는데, 어떤 돈 있는 사람 말이야, 주택 단지로다가 조성하느라고, 한 3~4개, 한 서너 길을 파 냈어요. 그러니까는 구녕이 없어진 거지 뭐야. 구녕이 없으니까는 어떻게 해. 소가 허기져 배고파 말이야 어떻게 돼. 사람이나 소나 말이야 배 고프면 지랄떨 거 아니야. 지랄 막 쓴다는 얘기가. 지랄빠며 어떻게 되. 미꾸라지 보안이 생길 수도 있단 얘가지 그제. 그런데 그럴 걸 갖다가 동네 사람들이 나이가 어리고, 또 예전 노인네들은 다 돌아가고 하니까는 그런 걸 말이지 믿지를 않아요. 인제 현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말이야.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이 풍수지리설에 입각해서 믿고. 그래서 이 동네에도 그 환자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전에는 없었는데.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이 걱정이 된다고.

⑥ 도깨비 홀린 사람(1)

양진숙(50, 여)/통삼리T 3앞

[통삼리 통골] 박종수, 강현모, 박은주, 채한일, 윤영배 조사(1995. 11. 11.)

슈퍼를 경영하는 제보자를 원포로 가던 중에 만났다. 조사자들은 우연히 슈퍼에 들렀다가 이야기를 듣게 되었지만, 제보자들 중 가장 많은 설화를 알고 있었다. 이야기 해 주는 동안 슈퍼에 손님들이 간간히 있었지만 끝까지 즐겁게 구술해 주었다. 남편은 농사일을 하고 있으며 두 딸만을 두고 있었다.

① 도깨비를 만났다는 물감장사

친정에 그 물감장사 하던 아줌마가 여기 오산장엘 나오는데, 이 오산장엘 갔다 오다 말고, 그 등너머에 산이 있는데. 고 산에 혼자 해는 무럭무럭 가는데, 장에 갔다가 물건을 해가지 이렇게 오는데, 산속에서 멧팅구리 쓴 사람이 어슬렁 어슬렁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무서워가지고, 이제 허리끈을 냅대 풀러 멘고 집이를 올라고, 막 도망을 올라고 가죽띠를 돈을 떨어 달라고 했ندی, 왜 나왔는지 그거는 모르지. 그런데 고기 있는데, 고 산중턱에서 어슬렁 어슬렁 멧팅구리 모자를 쓰고 내려오는데, 그 아주머니가 소변 보는 거 마냥 가만히 앉아서 각띠를 풀러 맷대, 허리빠를. 풀러 매고서 이렇게 일어서니까, 그 멧팅구리 아저씨가 그냥,

“너 요년! 고기 있어라.”

는 바람에. 그 아줌마가 놀레가지구, 그 산등성이를 갠신히 뛰어 넘어오니까, 고개 꼭대기까지 부들러 말락해다가 그날 안 잡혔데. 그레가꾸 넘어와 갖구 그니가 병이 들었는데, 그 니가(사람이) 그 저까지 살고 있어, 그거는.

② 도깨비 행세를 한 도둑

그레고 한 할머니는 그기서 멧팅구리 귀신. 귀신도 아니고 돈 빼앗서 먹는 강도겠지. 그레 고기서 있어 갖구, 한 할머니는 각띠를 풀라메고서, 그 할머니도 역시 인제 오줌, 소변을 보면 안 쫓아 올라 하고 길, 산길에서 인저 앉어 갖구, 그 할머니도 허리띠, 그 할머니는 더 노인 할머니지, 물감장수 하는 할머니라. 그레서 그 할머니가 고기 산중턱에서 그냥 이리도 못 가구, 저리도 못 가고 하는 사연이라. 그냥 각띠를 꼭 풀라메고서, 저기 뭐야 일어나니까, 그 할머니더러두,

“요 늙은 년! 고기 있어라.”

그래갖구 쫓아와 갓구 그 할머니는, 오산장에루 다시 급쳐 갔데. 집으로 못 오고 그 비탈에 올라가자니 힘이 드니께, 붙들릴까 봐. 그래 오던 길로다 막 뛰어가주고, 그 한 고향 젊은 남자들하고 만나갓고 집으로 왔대. 그런 소리를 듣고 그랬었거든, 그 할머니한테. 그 놀래서 병들은 사람은 그저 죽지 않고 살았어.

친정 동네에서. [조사자 : 그 무슨 년요. 그 할머니한테 하던 그 사람은, 그게 도깨비예요? 그게.] 도깨비가 아니고 도둑 놈인지. 그 할머니가 도깨비로 보였는지. 그냥 도깨비가 그냥 강도로 그냥 보였는지, 멍텅구리다. 그전에 도둑놈들, 나쁜 놈들은 멍텅구리 모자를 쓰고 다녔어.

⑦ 도깨비 홀린 사람(2)

양진숙(50, 여)/통삼리T 3앞

[통삼리 통골] 박종수, 강현모, 박은주, 채한일, 윤영배 조사(1995. 11. 11.)

앞의 이야기에 이어서, 소재가 같은 도깨비란 점에서 생각이 나셨는지 계속하여 구술하여 준 것이다.

한 이거는 실지 우리 친정 아버지가 저기 겪은 이야긴데. 우리 친정 아버지가 그전 때 소를 길러 가주고 소를 팔러 오산장엘 가셨어.

가셔 가주고 소를 팔아갓고 오는데, 그냥 그 중턱 길을 오는데, 밤에 저물어 갓고 모세를 막 끼언더래요. [조사자 : 모세요?] 응. 흙을 막 끼언구. 그래 양 큰 기침을 해구 그냥, 저기를 해구 그래도 그냥 계속 돌막을 던지며 쫓아오구 그래서, 밤새도록 싸우고 오셨는데.

돈이고 뭐고 빈 주머니야. 소값을 찾았는데, 빈 주머니여. 그래서 산 중턱에서 그렇게 밤새도록 날이 새도록 싸우다가, 어떻게 날이 새가주고 집으로 오셨는데, 싸운 자리에다가 거기다 담배고 돈이고 다 있드라.

도깨비를 완전히 흘린거지. 강도 같았씨면 돈을 뺏어갔지. 그거는 실지 겪는 얘기 들은 거여, 우리 친정 아버지가. 그냥 논에서도 계떼기를 치고 그래갖구 그냥 옷도 다 버리구 그리구 오셨더라고. 그거는 실지야. 소 팔아 갖구 오다가. 돈도 다 그냥 길에다 버리고.

그냥 다시 깨우갖고 가서, 날이 새서 가서 새벽녘에 오셨구만. 도깨비 하고 밤새도록 싸우서, 그게 지면 죽는데, 거기서 죽는 거래. 그런게 죽지 않고 오셨으니까, 다시 거기를 갔는데, 강도 같으면은 그 돈을 모두 가져갔을텐데, [조사자 : 거기 다 있었어요?] 잉. 그러니까 돈이 거기 있었으니까, 실제 그건 도깨비 흘린 거지. 그거는 실제 들은 얘그여. 우리 친정 아버지가 겪은 얘기고.

⑧ 도깨비 흘린 사람(3)

양진숙(50, 여)/통삼리T 3앞

[통삼리 통골] 박종수, 강현모, 박은주, 채한일, 윤영배 조사(1995. 11. 11.)

앞의 이야기에 이어서 같은 도깨비에 관해 계속하여 구술하였다.

한 사람은 소금을 사러 시장엘 갔는데 날이 저물어갖구 오는데, 한없이 그냥 산비알이 나타나더라. 그 길두 읍구. 그래가주고 그 소금자루를 지고 그게 얼마나 힘들졌어, 그 산비알 길도 없는 데로 험해니.

날은 그래 아무리 봐두 길도 읍고. 그냥 저기 동네 마을도 안 보이구. 그냥 산중이래. 그냥 밤새도록 소금자루를 지고서 싸우다 싸우다 지치고서, 거기서 싸운 데서 자고 일어나 보니까, 소금 자루도 읍구. 아무 것도 없구 산소에서 잤데.

그래가주구서 날 새가주구 보니까, 싸운게 빗자루에 피 묻은, 그 빗자루를 끌어 안구 잠든 거. 그러니까 그게 귀신인지, 그 할아버지 얼굴에

다 뭐 어떻게 잘못 보였는지, 그런 얘기는 들었어.

9 호랑이와 꽃감

양진숙(50, 여)/통삼리T 3앞

[통삼리 통골] 박종수, 강현모, 박은주, 채한일, 윤영배 조사(1995. 11. 1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호랑이와 꽃감이란 이야기를 부탁하자, 한 번은 들은 이야기라 틀릴 것이라고 주저하였다. 제보자는 전번에 방송국에서 나온 사람과 대화하였음을 자랑하였다.

그냥 얘기가 하두 올라가주고 달랠 길이 없더래. 빌거를 다 쥐도 울고울고 그래서, 그냥 그냥 업구서 그렇게 밤새도록 달래도 하도 울어서, “아이고, 꽃감 왔다.”

그러니까. 그 어린 애가 그때서 딱 그치더래. ‘꽃감 왔다.’ 그래는데, 그 할머니는 할머니 소리로다 애가 하두 울어서, 달랠 길 없어서는 그냥 문득 무심코 한 소리인데.

그 그날 저녁에 ‘꽃감 왔다’ 하는 소리가, 그 할머니는 그냥 무심코 했는데, 그날 저녁에 도둑놈이 와 가지고, 산중인데. 뭐야 호랭이, 호랭이가 두루(들어)와가지고 오양간에 들어가서 엎드려 있는데, 그 도둑놈이 소를 훔치러 왔다가, 캄캄한데 이렇게 가만히 만져 보니까, 반드러러하고 수수하니까 손(소)줄 알고 그 호랭이 등에 올라 뒀댄다. 타구서 그 호랑이가 손줄 알고 그 도둑놈이,

“이려, 짹짹!”

헌께. 호랑이가 놀래서 일어날 거 아니냐. 그래가꾸 그 호랭이가, 인제 벌떡 일어나서 밖이루 나와갓구 한없이 갓댄다. 들판을 타고 그래 한없이 가는데, 저기 밤새도록 그 호랭이가 달려 간거지, 놀래가주고.

그래니까, 이 저기 도둑놈은 손줄 알고, 밤에 가다 보니까, 캄캄해서

가다 보니까 날이 새서 보니깐, 그 등어리를 보니까, 소가 아니고 호랑이래요. 그 호랑인데, 이 호랑이가 인저,

“내 밥이다.”

해구서 지 굴로다가 갓구, 가갓고 도둑놈을, 인저 잡아먹을라꾸 호랑이가 지 굴루다가 새끼들 많은 데루 들어갈라구, 거길루다 막 달려 가갓구, 지 굴 속으로 들어갈라구 인저. 도둑놈은 손줄 알고 ‘잘 됐다.’ 나온 건데. 인저 훔쳐다 팔아 먹을라구 그 소등어리인 줄 알고 타고 나온 건데. 그래 인저 이 호랑이는 ‘내 밥이다’ 해구 새끼들 맥일라구 한없이 제 굴속을 쫓아서 가는 거여.

가는데 날이 새니께, 호랑인데 어떻게 헬 길이 없어. 떨어져두 그 호랑이한테 죽을꺼구. 정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굴 속에 들어가면 인저 고기밥이 되는 거여, 호랑이 새끼들한테. 그래가꼬 어떻게 헬 수가 없어서 한없이 가는데, 들판에 그냥 능수버들 나무가 있더래요. 축 늘어진게 땅에서부터 큰 무슨 나무가. 그래서 거기를 그냥, 그 밀구녕을 지나갈 적에 그 도둑놈이, 그 능수버들 가쟁이 척 늘어진 가쟁이를 그냥 탁 잡았데요. 탁 잡으니까 그냥 거기가 데롱데롱, 점프 뛰어갓고 탁 이냥 잡으니까, 대롱대롱 메달리고, 호랑이는 호랑이대루 도망갈 꺼 아냐. 그래가주구 그 호랑이가,

“아쿠! 꽃감, 꽃감 노쳤다.”

그래구 그냥, 자기들 집으로 막 뛰어가주구 새끼들 있나 조사해구 와가지구, 저기 와가지고 다시 그 도둑놈 느티나무 올라간 디를 와가지고 올려 보니까. 뭐 가지나무 붙잡고 있다가,

“저기를 어떻게 올라 갔니?”

그러더래, 호랑이가. 그러니까 그 도둑놈이 머리를 썼대요. 그 호랑이 못 올라오게.

“저 마을 가갓구 기름 한 병을 얻어다가 들어 붓고 미끈미끈하게 여기를 올라 왔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가갓구, 마을에 가서,

“으흥!”

그래니까. 그냥 마을 사람들이 다 도망 갔네.(손님이 와서 제보자는 잠시 후 마당으로 나와서 말을 잇는다) 그래가주구 호랭이가 마을에 가서 ‘어웁!’ 그러니까, 인저 기름 좀 은으러 내려가서 ‘어영’ 그래니까, 마을 사람들이 놀래갔고,

“아이쿠! 호랭이.”

다 도망 갔네, 마을 사람들이. 그래 뭐 사람이 있어야지 기름을 은지. 그냥 마을에 어떤 집을 들어가서, 찬장에 가서 기름 한 병 갖고 나왔데요, 호랭이가. 그래갖구 그 호랭이가 그 나무에다가 붓고 올라가니까, 이게 미끄러우니까 슛호랭이야. 미끄러우니까 그냥 ‘찍-’ 미끄러져 ‘퐁-’ 떨어지고 ‘찍-’ 미끌어져 ‘퐁-’ 떨어지고.

“너, 저기 콧감아! 콧감아!”

도둑놈더러. 인저 할머니가 애 달랠 때, ‘콧감 왔다.’ 하니까, 그게 도둑놈 이름이 콧감인 줄 알고 호랭이가.

“이 콧감아! 너 그거, 저기 어떻게 올라 갔나? 똑똑히 일러다오.”

그러니까. 기름 붓고 올라왔데니까. 그리고 인저 못 올러오게 하느냐고. 그래 기름을 부니까 더 미끄러져서 올라갈 수 있어? 그래니까 이놈의 호랭이가 이 마을에 다시 내려 갔다. 또 내려 가서 깔끼(갈퀴)를 하나 빌리러 내려간 거여. 빌리러 내려가서, 깔끼를 하나 빌러가꾸 와갖고, 호랭이가 깔끼로 그 나무를 ‘컱컱’ 미끄러운 거를, ‘컱컱’ 찍었다. 꺾쪽 꺾쪽 해야 기울라 가기 좋으니까. 그래가주구 ‘컱컱’ 찍구서, 쪼끔 올라가다가 컱컱 찍고 올라 갔어.

올라 가니까 이 도둑놈이 머리를 쓴 거여. 울무를 해가꾸, 이 늙은 호랭이 올러오는 거를 중간쪼 올러오는 거를, 울무로다가 호랭이 슛놈이니까, 불알을 울무으로다 탁! 얼그체 갖고 탁 잡아 다녔단다.(일동웃음)

그래서 그 꼬맹이를 놓쳐 갖고 팽 떨어져서, 호랭이가 나무꾸렁에 퐁구녕이 확 찢려갖구 죽엿덴다. 그거 끝이렌다.

10 노름에 딸 팔아먹은 사람

양진숙(50, 여)/통삼리T 3앞

[통삼리 통골] 박중수, 강현모, 박은주, 채한일, 윤영배 조사(1995. 11. 1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다. 조사자가 다시 부탁하자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였다. 이 이야기는 99에 돌아가신 할머니한테 들었는데, 그 할머니는 시집와서 신랑하고 잠을 못자게 시어머니가 가운데서 지키고 또 두드려 깨서 맨날 코피 터지고 그러면서도, 대문간에서 자구셔도 아들 육형제를 두고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라고 한다. 제보자는 이것을 마지막 설화로 풀어 놓는다.

옛날에는 가마 타고 시집을 갔잖아. 근데 옛날에는 어떤 아저씨가 그 마을에 사는 친정어머니, 우리 옆집에 사는 아줌마가 있는데, 그 집이 작은 집이래. 작은 집인데, 그 아저씨가 하두 놀음을 좋아 해가지고 돈을 다 잃어서 나중에 함께 없으니까,

“그럼 집에 딸이래두 줄 수 있느냐?”

“내 딸이래두 줄테니 또 해자.”

고 그 본전을 찾을래구. 그래 본전을 찾을래구. ‘딸이래두 짚히고 해라.’ 그래갖구 그날 저녁에, 내일 내일은 시집, 딴 데로 혼인을 정한 딸인데, 그거를 매껴 놓고 노름을 해라구. 그래가주고 돈을 다 잃었으니까 눈이 두집어 지잖어. 그런게 혹시나 인저 그렇게 해갖구 본전이라두 찾으까 해구 또 했단다. 놀음을.

그래가주구 했는데, 그 그나가 딸 저기 짚혀 놓고 헐거지. 그 돈을 찾을래구. 그런데 외려 훨씬 더 많이, 돈을 많이 잃어 갖구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없이 잃었대요. 날이 새두룩 했는데. 그래서 딸을 주기로 했대요. 그 딸은 딴 데로 시집가기로 했는데. 내일이 잔친데 오늘 저녁에.

그래가주구 인저 이 사람이 조으니까, 딸을 노름꾼한테 조야(취야) 되는 거 아녀. 그래께 집에 가서 어떡해 노름해서 잃었으니,

“아무개를 누구네 조야 되는데.”

그 말을 어떡해 하나, 아버지가 되가지고 못 하는 거지. 혼인이나 안 정했으면 몰르까, 혼인을 정해 논 딸인데. 새벽같이 인저 신랑이 가마 미고 올텐데, 데릴러. 그 때는 가마 타고 시집을 갔잖아.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 속셈에는 집에 가서 그 말을 못 해구. 흰히 날 새니까, 먼동 트니까, 인제 잃어도 잃어도 보통 잃은 게 아니지. 막 말로 부인네도 주게 생겼지. 그래서 인제 흰히 먼동 트니까, 일단은 집으로 가야 될 것 아녀, 잔치날이니께, 아버지가 되서. 그래 갔데요.

가서 인제 그녀는 걱정이 되서 이리께 마루, 마당에 나와서 저 마을 꼬트머리를 쳐다 보니까, 가마가 따루따루 왔으면 아무나 먼저 온 것을 얼릉 주는데, 가마가 앞뒤로 온댄다, 가마를 미고 인저 그 속 안에 신랑이 타고 하인들이 미고 오는 거지 뭐여. 옛날에는 하인이 미고 다니잖아.

그래니까 인저 하인이 미고서 앞뒤로다 오니 어떡해 핑계를 대요. 핑계 댈 수가 없지. 노름꾼이 먼저 오든 간에, 혼인 중인 사람이 먼저 오든 간에 해무는(하머는) 좀 떨어져서 오면은 얼릉 색시를 내주고 지가 어디로 가든지 얼른 가잖아. 그러니 앞뒤로 이렇게 오니,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줘. 보니까 혼인 중에 있는 사람이 뒤에 오고, 노름꾼이 앞에 오더라.

그래가꾸 요렇게 붙어서 오는데, 이 사람들은 인저 잔치가 각 집인 줄 알지. 그 집에 색시 하나를 둘이 내끼로 가는 것을 꿈에도 생각 못 하고 오는 거지 뭐여. 앞뒤로 오는 게. 그래니까 색시 아버지가 내다 보니까 기가 막해지 뭐여. 쌍가마가 오니까.

그래 그 하인들은 한 마을에 잔치가 두 집인가부다 해구, 신나게 들어서 걸머지고 오는 거지. 색시를 데릴러. 그래니까 색시 아버지가 내다 보니 기가 맥히지. 뭐라구 말을 못 해구. 그래니까 빨리 뛰어 들어 가서, 바를 갖구 가서 뒷동산에 가서 참나무에다 목을 매달아 죽었대드라. 그래가주고 죽었으니까, 혼인 중인 신랑이 이 색시를 데리가구.

본인이 있어야 말한 근거가 있어야 색시를 데려가지, 이 노름꾼이. 그

래니까 이 놀음해던 아저씨를 찾는 거여. 색시 아버지를 찾는 거여, 그 동안에. 근께 식구들은 죽은 지도 모르구, 뒤에 가서 목 맨지도 모르고. 그랜께 이 저 혼인 중인 신랑은 버젓이 색시는 가마에 태워서 데리구 가구. 아버지는 목 매달아서 뒤에서 죽구. 이 놀음꾼은 그 사람을 막 찾는 거여. 그거는 실지로 여기서 있었던 일이여. 그 얘기 옛날에 할머니 한테 들었어.

II 도깨비의 장난

윤정숙(50, 여)/통삼리T 3뒤

[통삼리 원포] 박종수, 강현모, 박은주, 채한일, 윤영배 조사(1995. 11. 11.)

조사자들은 슈퍼 아줌마에게 조사를 마치고 작별을 한 후 원포로 향했다. 원포 마을 어귀에는 큰 소나무가 보였고, 통골보다는 기구수나 규모가 작은 부락이었는데, 첫번째 민가에서 일하는 아주머니인 제보자를 만나 조사하게 되었다. 제보자는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었다.

여기서 살던 저기 주인은 서울서 살고 살았어. 살았는데 그 사람이 여기 사는데, 밤이면은 돌을 이렇게 마리(마루)에다 던진 데요, 도깨비가. 그러머는 문고리가 딸그락 딸그락 했데.

그래구 인제 나오면은 소당 뚜껑을 그냥 이렇게 바로 덮어 놓은 논거를 퍼떡 젓혀서 요렇게 얹어서 놓구. 그래두 빨래 같은 것두 해노서 넣어노면은, 다 걸어다가 저기 개구녕께에다가 내버리구 그렇데.

집안이 안 될라면 그랜데.

12 비 오는 날을 알리는 느티나무

구진회(69, 남)/통삼리T 3뒤

[통삼리 원포] 박종수, 강현모, 박은주, 채한일, 윤영배 조사(1995. 11. 11.)

조사자는 앞의 제보자에게 조사를 마치고 새로운 제보자를 찾아 나섰다. 마을 길을 따라서 계속 걷다가 집앞에서 일하고 있던 제보자를 만났다. 젊을 때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라면서 ‘도깨비 본 이야기’와 ‘느티나무 구렁이 이야기’를 해 주었다.

그이 느티나무는 한 오백 년 된 느티나무인데, 날이 꺾을라면은, 비가 올라믄은 거기서 큰 구렁이가 나온다는 거지. 구렁이가. 나오면은 번개 빛이 번득번득 해지면은 비가 온다는 거여. 그래 여기 썩 붙여더니 빼서 집어 내버렸어.(느티나무 앞 간판을 두고 한 이야기)

13 도깨비 홀린 사람(4)

구진회(69, 남)/통삼리T 3뒤

[통삼리 원포] 박종수, 강현모, 박은주, 채한일, 윤영배 조사(1995. 11. 11.)

이야기를 하기 앞서 도깨비를 만난 경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앞부분에 병장 구두를 사신으러 서울역에 갔다가 놀음을 하였다고 하는 부분을 생략하였다.

① 자신이 만난 도깨비

(병장구두를 사러 서울역에 가서 놀음한 과정은 생략.) 그래 가서 병장 구두 사서 신으러 서울 갔다가 서울역에서 다 내비리고 오는데, 여긴 능굴이라고 있어요, 능굴. 그전, 지금은 차로 땡기지만,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해서 오산으로 걸어 땡겨다고.

근데 인저 저녁에 오는데, 그 능굴이 하도 무서워서 그리 못 오고서, 저 동축골로 해서 이리 이 삼거리로 해서 이리 오는데, 늘 요기 행정축 있거든, 요 위에. 그전에. 그래 거기가 또 무서워서 못 오겠더라구. 그래서 원포 동네로 들어갔다가 요리 넘어오는 길이 있어요.

이리 넘어오는데, 기냥 머리빰이 쭈뼛 하더라구, 무서워서. 그래 그때 학생모자를 썼다가 이러키 보니까, 웬 하얀 노인네가 키가 구척 같은 양반이 앞에 나와 있어. 그냥 이 머리가 뺨치는 것야, 무서워서. 그래 아는 분이면 인사를 할라고 이러키 보니까 없어졌더라구.

그래 하두 무서워서 집에 와서 그런 얘기를 했었지.

② 친구집에 갔다가 도깨비에 홀린 사람

그러구 요 넘어 우리 친구가, 나하고 동갑네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이 개를, 워낙 절친했던 말이야. 그래 개를 붙잡아 놓고 ‘개국을 먹으러 오라’고 그러드래, 밤에.

갔다 오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술을 권하는지, 술이 참 이만큼 챜단 말여. 그래 또랑에 와서 씨러졌는데, 그래도 정신은 있어서 집이는 왔시유. 와서 자는데, 저 사람(옆에서 일하고 있는 부인을 가리키며)이 인저 옷을 훔강아지가 문었으니까, 베끼는데 퀘타리 그때만 해도 바지여 바지. 이런 양복이 아니고. 그 퀘타리에 송사리가 한 서너 마리 또랑에 씨러졌으니까.(웃음) 그 나왔다 그러더라구.

그래구 여기 이 팔정 사방이 우리 구서방네 선산인데, 거기 아릅드리 소나무가 있었어요. 여기 해방되고 나서 일본놈의 새끼들이 죄 비어 먹었지. 아릅드리 소나무가 있는데, 저기 인저 거기서 그네를 메고 뛰는데.

저 겨를이라고 거기서 웬 빨건 불이 그냥 환하게 비치여. 그래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때만 해도 어려서 무서워가지고. 그 모였던 사람도 다 해지고 그랬지.

8. 봉명리

1) 마을개관

박종수, 강현모, 유대웅, 유현진, 이지아 조사(1996. 6. 10)

봉명리는 용인에서 남사면의 소재지인 봉무리까지 왔다가 다시 이곳으로 오는 버스를 타고 도착하였다. 이 마을은 남사면 서쪽의 중앙에 위치하였다. 따라서 이 마을은 교통편을 용인에서 이용하는 것보다 오산에서 들어오는 것이 훨씬 편한 곳이라 한다.

봉명리는 용인군 서촌면과 도촌면 지역의 봉명산 밑에 있는 마을로 그 주변에 구명곡이라는 골짜기가 있어 봉명굴 또는 봉명동이라고 불려진 이름이다. 이 마을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버등이(유평동) 등축골, 도촌면의 수세울(수세동)을 합하여 봉명리라 하여 남사면에 편입시켰다.

이 마을을 이루는 유평동은 원래 버등이라고 하는데, 버등은 버덩에서 비롯된 말이라 한다. 버덩은 높고 평평하며 나무가 없이 풀이 주로 난 땅을 말하는데, 이런 곳에 자리 잡은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또는 이곳에 버드나무가 많이 있어 유평이라고 한자로 쓰였다고 한다. 그리고 수세울(수세)은 앞의 개포가 있어 조수에 밀려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동안에 씻겨나가는 곳이라고 해서 붙여졌고, 밤골(울동)은 밤나무가 많이 있어서, 그리고 남뜸은 현재도 남씨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붙여졌다고도 하고, 남쪽에 자리 잡은 마을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2) 설화

I 맹희 장군의 일화

제보자1(남)/봉명리T 1앞

[봉명4리] 박종수, 강현모, 유대웅, 유현진, 이지아 조사(1996. 6. 10)

조사자들은 봉명 4리에 도착하여 마을의 노인정을 찾아 갔으나 한 분도 안 계셨다. 그래서 길가에 서성이다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묻자 제보자를 소개시켜 주었다. 집으로 찾아가서 찾아온 목적을 말하고 이야기를 부탁하였다. 그러자 제보자는 이곳 주변에 있는 산성이 생긴 유래에 대해 말씀을 하였다.

이웃에 산성이 있는데, 산성이 있는데 그 산성을 누구래 쌓느냐. 맹희 장군이 쌓어. 맹희 장군. [조사자 : 맹희 장군요?] 맹희라는 거 알아? 맹희 장군이 산성을 쌓고.

싼 원인은 중국하구 전쟁을 해기 위해 쌓은 거야, 그 맹희 장군이. 그 옛날에는 이제 그 장군한테 항복을 받아야 전쟁을 하고도 승리가 되지, 항복을 받지 못하면 암만 해야 소용 읊어. 그 백성들 많이 죽여 봤자. 장군을 잡아야지, 장군을 잡지 못하면 아무 전쟁에 효과가 없어. 그래서 맹희 장군이 저 중국하구 싸우다가서, 그 구월산 상봉에 산성을 쌓구 거기가 들어서 있었어. 그래서 이 중국서 몇 해 동안을 잡으려구 허니 그리 올라가는 재간이 없어. 그래서 맹희 장군이 거기서 승리를 하구.

저 제주도를 탐라국이라고 했지. 제주도는 맹희 장군이 점령을 했어. 그 때 제주도 맹희 장군이 아니면 제주 그 나라가 상기까진 딴 나라가 되었을끼야. 딴 나라가 되었으면 우린 큰 골칫덩어리 아니야. 헨디 그 때 당시에, 그걸 맹희 장군이 그걸 그렇게 해, 우리나라가 탐라국을 점령하고서 우리나라 탐, 속국으로 맨들고.

그래 당시에 요 대마도라는 게 있지. 왜. 저 일본. 대마도를 그 때 맹희 장군이 점령해야 꼭 될건데. 그 때 대마도 점령 못한 게 후회를 한다.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

② 이순신 장군의 최후

제보자(남)/봉명리T 1앞

[봉명4리] 박종수, 강현모, 유대웅, 유현진, 이지아 조사(1996. 6. 10)

앞의 이야기에 마치고, 일본에 대한 것이라 생각이 났는지 계속하여 구술하여 주었다.

으 대마도 그것은 본래는 우리 땅인데. 우리 땅인데 임진왜란 때 그
게 뺏기게 됐어, 임진왜란 때. 그래서 저 이순신 장군이 대마도 섬을 못
뺏뜨리냐 하느라고, 그 때 어떻게 해서 이순신 장군이 그걸 못뺏게 돼
느냐 하면, 임진왜란 때, 그 때도 7년 동안 전쟁을 했어.

응 그렇게 했는데, 저 간신배 원균이라는 사람이 간신배로 있었지. 그
래서 왜, 인제 7년 동안 싸우는데 보급을 가져와야 돼잖아, 일본서. 가
져오면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으로 들러업고 들러업고 한게, 보급이 없
으니까 인제 전쟁할 수 없어. 7년 동안씩 전쟁을 하니까 우리 나라에서
도 나 먹을 농사도 못 짓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먹을게, 도저히
빼뜨려 먹을게 없어, 일본놈들도.

그래서, 할 수 없이 물러나는 기야. 물러갈 적에 이순신 장군이 대마
도 저천까지, 그래 어떻게 됐느냐 허면, 이 간신이,

“이순신 장군이 지금 일본이 물러갔는데, 요게 인제 왕할려구 역적을
할게다.”

요렇게 간신이 있었어. 그래서 그 이순신 장군을, 이려고 장군이 아니
지요. 이순신. 그 이 장군은 장군이라고 할까. 근데 그 역적을 할려고
하니 이순신 장군 저거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약사발을 내렸어.
약사발. [조사자 : 네?] 약사발을 내렸어.

“이순신 장군 죽여라!”

죽을 약, 약을 내려 보내니께, 그게 어디까지 왔느냐, 부산까지 그 약
사발이 내려왔어. 내려 왔는데, 아이 그렇게 될 줄 알고 이순신 장군을,

아니 가슴을 내놓고 도망질 하는 놈을 가서 잡고 이렇게 하니까, 그 총탄에 맞고 죽었지. 그래서,

“이순신 장군 총탄으로다 죽었다.”

허니까. 그 때는,

“아니, 이순신 충무공이라고 해라.”

해니까. 저희 삼촌이,

“애, 언젠 약사발을 내리오더니, 충무공이 뭐냐?”

약사발을 둘러 매쳤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지. 근데 우리, 우리 나라 이 앞으로 어드께 해야 잘 돼나 하면, 요 간신배가 읊어야 돼. 지금도 김영삼 대통령에게 간신배 노릇하는 사람은 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구만요. 고만합시다.

③ 흑부리 영감

제보자(남)/봉명리T 1앞

[봉명4리] 박종수, 강현모, 유대웅, 유현진, 이지아 조사(1996. 6. 10)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그만 두시려고 하자 조사자가 귀신 이야기를 꺼냈다. 제보자는 호랑이 도깨비 등은 옛날에 많이 보고 들었던 이야기라며 말씀하시지 않았다. 한참만에 구술하여 주었다.

도깨비 얘기.(즐거운 표정) 도깨비 얘기를 하라고. 헌데, 아니 우리에게게는 도깨비 나무라는 게 하나 있는데, 여기 어데 있느냐 허면, 여기로 말허면, 이거 전수 얘기 했는데 또 드립니다. 헌데 도깨비가 밤이면, 아 도깨비 망치로.

“또르락 딱딱, 또르락 딱딱.”

해. 아! 이놈에 도깨비한테 가서, 거기 가선 혼살라고 오고 오고 한다 말이야. 가다가 에 턱날(웃음) 한 번은 흑 달린 사람이, 요 입이 좀 괴롭

거든. 한데 이 사람이 그 뭘 부르나면 그 통소 통소를 그걸 잘 붙어. 잘 부는데, 그 도깨비를 맞은데 가서, 아! 통소를 치면서 잘 붙어놓으니까 도깨비들이 와서,

“영감!”

사람이지. 사람. 사람. 도깨비도 사람 모양으로 땡겨.

“여보! 그 소리가 그 어디서 그렇게 납니까?”

그러니까.

“하하. 그 내 이 요게, 이 요 흑통에서 아 그렇게 소리가 기미한 소리가 그렇게 나지요”

이렇게 말을 한다. 도깨비 사람인 줄 알았지. 도깨비로도 안 알았어. 그래서, ‘그기 가면 도깨비한테 흘린다. 흘린다.’ 그런 말만 했지. 해서, 아 ‘요기서 소리가 그렇게 난다.’ 그러니까 도깨비들이 하는 말이,

“자 그래. 그거 좀 팔 수 없느냐?”

히고. 도깨비가 그런게,

“아 그걸, 그 함부로 이렇게 파나. 아, 소리가 얼마나 귀엽고 좋은 소리가 나온다고 아. 소리 함부로 우는 사람 울잖게도 하고 아 웃는 사람 울게도 하는, 아 그 귀한 흑, 흑인데. 아! 그건 함부로 팔 수가 있네!”

“아 그래도 그 흑을 으푹하든지, 내가 돈을 얼마든지 줄테니, 아 그걸 응 팔으십시오.”

하니까.

“그럼 얼마나 주겠느냐?”

해니까,

“그 얼마 얼마 해줄테니.”

달래. 얼마면 될텐데. 파는 걸로 말로 금을 한 짐 지고 가리만삭 금을 달라고 했어. 금. 금 한 짐 지면 척수 되겠지.

“금을 한 짐 질꺼면, 나 지고가리적만석 내라. 그러면 이거 떼 줄라. 이걸 떼는데, 너희들이 요지 감쪽같이, 너희들이 재간이 있게 떼어야지 된다. 너희들이 잘못 뺏다간 너희들이 죽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 아 그런데 그 도깨비들이, 귀신들이 그 그런 거 떼는데 아주 도수 기묘있게 떼거든.

“아 그래라.”

고 금을 그 사람 지고가리만큼씩, 누런 놈의 금을 한 보따리 갖다 놓았던 말이야.

“이거면 되겠느냐?”

“으차 으차.”

해보더니,

“이거면 나 지고 가겠다.”

아 그런데 도깨비들이 그 흑을 띠었네. 흑은 띠다 가지고 가서, 아 이 놈의 흑에서 나리, 아 소리 나오나 불려고 안만 해니까 흑에서 소리가 나온 택이 뭐야. 하니께 야 그게, 한데

“저 아무데 영감은, 아 그 저 도깨비 촌에 가서 아, 흑 떼고 금 한짐 지고 왔데더라.”

아 이 소문을 들었다. 아. 이 흑부리 영감이 하나 있다가서,

“아 그 놈의 자숙 흑 떼고 돈 버는데 나도 가서, 가서 흑 떼, 흑 떼고 금 한줌 쥐오겠다.”

고 또 갔네요 가서 나니, 그리고 또 그 사람도 노래를 잘 하네요 하니까 이 도깨비 놈들이 딱 오더니만,

“야. 너 그 소리 어디서 그렇게 나냐?”

하니까.

“나 이 흑에서 난다.”

“야! 흑에서 나. 애 이놈에 자숙! 거짓말을 해도 요일 저녁에 어떤 놈 와서 거짓말을 하더니 너도 거짓말 해. 너 고 소리 잘 나는 흑, 너, 너 마저 불이라.”

고 이틈에 있던 놈을 하나 갖다가 떠 붙여 줬어. 흑은 ‘떼려 갔다 흑은 붙이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 하세요(웃음)

4 고려장을 폐지한 유래

제보자1(남)/봉명리 1앞

[봉명4리] 박종수, 강현모, 유대웅, 유현진, 이지아 조사(1996. 6. 10)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새로운 이야기를 부탁하자, 효자는 하늘이 내는 것이라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이 이야기는 어머니를 버리려고 갔다가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 국법을 어기면서 어머니를 봉양하였는데, 그것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효자가, 효자라는 것은 하늘이 내린 것여. 응 나, 옛날에 고려장이란 것이 있었지? 고려장이 어떻게 해서 그 고려장이 없어졌느냐 하면은, 효자 때문에 없어졌는데. 나, 고 효자 얘기 할테니 그거 방송 한 번 하라고.

아이고, 그전에는 65세만 될 거 같으면은 전부 내다 버려. 아이 이거 자체기 하는 것까지 나와서 파토다. 그거다 빼고서 하라고.

헌데 이 고려장을 하는게 언제 시작했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삼천리 강산 통일되었을 때 말이야, 이 전라도가 곡식이 암만 많아도 그걸 갖다 먹을 재간이 없어. 나는 황해도 사람인데, 황해도나 평안도나 함경도나 전라도에 곡식이 이렇게 많으니 갖다 먹으라고 해도 갖다, 가져올 재간이 없어. 그래서 이북서는 메라고 하는고 하니, 뭐 놓고서 먹지 못하면

“헤에헤 끝에 놔도 곱배기야”

그 먹지 못하는 것이 전라도 곡식이었거든. 전라도 곡식이 암만 많아도 배를 실어오는 재간이 없어, 그전에는. 지금은 기계, 기계 배지만, 옛날에는 풍선이 아니야. 오다가는 저 몽금포, 개안포 그 알지? 황해도. [조사자 : 네!] 그거는 땀뿜 하고 들어가. 그래서 도무지 갖다 먹을 재간이 없어. 그래서 전라도 곡식이라고 했어. 그 때 당시에 이북에 흉년이 들었어. 흉년이 들었는데, 아이고 자체기 나올라고 그러네. 흉년이 들었

는데, 그때 임금께서 나라에 곡식을 갖다 먹을 수도 없고,

“야! 그러면 고려장을 해라.”(웃음)

“고려장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5세 넘으면 내다 버려라.”

아 이렇게 되니, 남한에도 고려장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이복서는 고려장을 했다고. 그런데 아니 65세는 전부 내다 버려라 했는데, 뭐 임금님이 한번 명을 내리면 거두는 법이 없어서, 지금 민주주의는 임금님 잘못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면 저 해고하는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그거이 읊었어. 해서 그때 ‘고려장을 해라.’ 해놔서 그걸 델구 하는데,

아니 아 한 번은 저의 어머니가, 저의 아버지는 세상 가고 저의 모자 아들 데리고 사는데, 아 65세면 지금은 젊은이라고 안 해. 아 옛날에도 건강한 사람한테는 젊은인 거지 뭐. 현대 65세 되었으니 할 수 없이 저의 어머니가,

“야! 인제 나 갈대로 가야 않겠느냐? 그 나라 법이 그렇게 어떻게 하겠니?”

“그래요. 우리 엄마일 내가 어디 내다 버리겠오.”

“아니, 그러면 아 어떻게 하게. 인제 가자.”

그러니 할 수 없이, 인제 법에 눌러서 이젠 어머니를 내다 버리게 되었네요.

“그럼, 어머니! 그럼 갑시다.”

가는데 그 막 칠 것, 이제 거적배기 같은 거 이불, 호단, 이거 다 한집 다 떼기고, 다 짊어 놓고선,

“어머니! 나란히 나 지계에 앉으시오.”

그래게 지계에 딱 앉았네요. 딱 앉고서 내리, 그때는 그 먹을기랑 다 해가지고서 지고서 이젠, 이런 때야, 이때. 아 능파 속에 이제 산골로 들어가네요. 산골로 들어가는데, 아 나무가 우거진 대로 들어가는데, 아

어머니가 나뭇가지를 떡 꺾었네요. 이것을 꺾으니까니,

“어머니! 그 나뭇가지는 왜 꺾습니까?”

“야! 너 올 때 길 잃어버릴까 봐 꺾는다.”

자 이렇게 죽으러 가면서도, 자식의 사랑을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하니까.

“내가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모를 내가 어떻게 하노”
눈물이 앞을 가리워서 잘 보이질 않는데, 이제 그만 들어갔어.

“이즘 여기에, 어머니! 여기서 내려야겠습니다.”

“영! 내려라.”

내려놓고서 다 막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어머니!”

“왜?”

“여기 있지요. 아무리 나라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머니 여기서 꼭 보양할테니 안심하고 있으시오. 비 안 새게 다 만들어 놓고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어머니 네 보양할테니 안심하시오. 안심하고 계십시오.”

그러면서 다 해 놓고서는 제 밤중에 음식을 해 가지고 어느 때든지, 그 잡히면 죽지. 나라 법을 어기니까. 하지만은 밤중에 가서 하는 것이 한 해 이태가 아니야. 아. 10년같이 그렇게 나가는데, 한 번은 요만한 종이 조각이 하나 딱 접은 게 있어.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보겠다’ 이렇게 보니까,

“나라에서 큰 위기가 있을 때 퍼 봐라.”

이거야. 그러니까, 나라에서 무슨 위기가 있었느냐? 이것이 문제라. 근데 그때 당시에 동지상사라는 것이 있었지, 옛날에. 동지상사라는 것은 3년에 한 번씩 대국천자한테 가서 조공을 바치고, 거기 가서 물품도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대국천자가 우리나라를 먹으라고 꼭 마음을 먹어.

하지만은 먹질 못하고 있는데, 저 왕이라는 것을 없애면, 우리가 나가

서 이 조선이라는 걸 통치하겠다. 이 대국천자가. 지금 우리나라를 못 먹어서 대국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른다고 해.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떠한 걸 주었냐 하면, 이것을 못하는 날엔, 뭐 하라는 것 못하면, 왕이 죽기 마련이야. ‘왕만 죽으면 나와서 통치하겠다’ 이 마음을 먹은 대국천자야.

한데 이 뭘 갖다 주었냐 하면, 이만한 통방구리, 통방구리를 여기다 박을 꼭 하나 잔뜩 넣고, 요만한 구녕에다 박을 하나 잔뜩들 깨뜨리지 말고 여(녕)으라고 하니, 그 여겠어. 또 못 할건 또 절대로 시키지 않지. 그걸 하나 줬다. 한데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벗짚을 태워서, 새끼를 꼬아서, 엮어서 내리가지고 요 다음에 동지상사 올 때 가지고 오너라.”

하고. 동지상사 간 사람들에게나 그걸 주어 내보내. 한데 그걸 가지고 와서 대국천자한테 갖다,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임금님한테, 근데 그걸 다 사이 얘기를 해면서, 그걸 주면서,

“요 다음에 동지상사 올 적에 ‘요걸 벗짚을 태워서 꼬아서 엮어가지고 오라.’고 했는 데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또 해겠습니까?”

아! 대신들이 와서 그렇게 말하니까.

“아 벗짚을 꼬아서 어떻게 통방구리 그 그걸 엮느냐 말야. 벗짚을 재주껏 재간 읊지?”

또 거기에 박을 하나 깨뜨리지 않고 하나 잔뜩 들게 할 재간이 읊지.

“자, 이거 해라!”

했는데, 한 해 지났다. 또 이태를 지났어. 이제 3년 되면 인제 가야 될 판인데, 아 이거 큰일 났단 말야. 하니까 이거 임금님이 이거 뭐라고 하느고 하니,

“이것을 하는 사람이 천금상에 만호를 봉양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 그렇게 하니 할 사람이 도무지 나서질 않해. 이 일 큰 일 났지. 왕이 자신하니 인제 목 달아나게 됐어.

그 못 해 가는 날에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일본, 중국한테 빼앗기

고 말야. 천자 말을 거역하면 빼끼게 되어 있어. 그게 하란 데로 하고 사니께. 지금 미국놈 하라는 대로 하는 거 아니냐?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나라가 독립해 보고 살아본 예가 읍어. 그저 약한 나라가 돼서. 그때 중국에 매 가지고 그렇게 살았거든. 지금 아이 미국에 큰 나라야, 하 미국이어서 미국서 이렇게 하라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라하면 저렇게 사는 형편이 아니야.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해. 같지 뭐.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한테 뭐 녹음할 적에 빨건 빼시라오 한테 아니 퍼 보니까,

“위기설정에 퍼봐라!”

했어. 아하, 여 통방구리에다 박을 넣라면 어떻게 해야, 해야 되느냐 하면, 구덩이를 5군데를 파라고 했어. 거기다. 파보니까.

“구덩이를 5군데를 파고서, 길은 이렇게 엮고, 속은 이렇게 엮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다섯 군데를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다섯 나무를 심으라. 한 나무, 한 텍에 하나씩 심어. 다섯대기 가운데에서 제일 우수한 놈을 나오면은 통방구리 속이다가 고 박이 이렇게 맺히잖아. 그걸 내려서 요리 키워라.”

그렇게 썼어. 그런께 거기다가, 아니 지금 박을 녁쿨꺼치 그 맺힌게 있지. 근데, 그걸 구해다가 갖다 넣은게 차차차차 제일 큰놈을 갖다 넣은게 고걸로 하나 까뜩 찻어. 그래서 하나 풀었지.(웃음)

그 다음에는 그 한 장을 또 들치니까 뭐라고 썼는고 하니. 벚집을 잘 꼬아서 잘 얹어라. 잘 얹고서는 그거다가 소금물을 뿌려서 말리고, 소금물을 뿌려서 말리고, 몇 번을 그렇게 많이 해 놓으면, 소금물이 그가 잔뜩 뺄 거 아니야. 잔뜩 배어서, 그땐 소금물이 배어서 그게 착 붙어. 붙으면 그때에는 불을 피워서 살살 그걸 태워라. 태우면은 그때는 아무탄지 꼭 된다. 그렇게 대국천자도 할 걸, 못할 건 안하거든. 해서 그것을 불을 태워서 그렇게 잘 하니까 탄탄하지 뭐. 새끼가 바로 꼬아져져 있지 뭐. 아 소금이러는게 안 타. 땅판이 맨들어 가지고서는,

그땐 그 임금님한테 그걸 가지고 들어갔네요 그 그 통방구리를 임금님한테 타 온거니께. 해서 아 임금님한테 가지고 가니까, 대신들이,

“아 그렇게 해 왔느냐?”

하니께.

“야, 네 해 왔습니다.”

해니께

“그럼, 들어 가자.”

임금님 앞에 들어가서,

“아 어디 사는 누구냐?”

“아무데 사는 아무개요.”

“어떻게 왔느냐?”

“아 나라에서 위기 있을 적에 뭐 하라는 것 해, 그거 제가 해 가지고 왔습니다.”

“어, 거 뭐이냐?”

“통방구리에 저 벗짚 타서 꼬아서 여 엮어 왔습니다.”

“어 그거 드러라.”

야 보더니, 임금님이 입이 귀까지 돌아서 허벌떡해져서, 너무 좋아 죽지 않게 되었은게. 해 가지고서,

“야, 천금상에 만호를 봉해라.”

하니께

“아니요. 천금상에 만호 싫어요. 저 소, 소가 만 마리면 지금 돈으로 확실하지. 천금이면 얼마인지 알아. 천금도 무탕한디, ‘천금상에 만호를 봉해라.’ 천만 마리면 돈이 얼마야? 지금 돈도 어마어마한 돈이야. 천 마리면 천금상에, 만호면 만호 소 만 마리면.

“그것 일 없습니다.”

“그럼, 너 소원이 뭐 있느냐?”

“네! 제 소원은 어 고려장을 제거해 주시오.”

해서, 그 효자가 나서 고려장을 제거했다 하는 전설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합시다.

⑤ 구렁이에게 잡혀 먹을 뻔한 사람

제보자(남)/봉명리 T 1앞

[봉명4리] 박종수, 강현모, 유대웅, 유현진, 이시아 조사(1996. 6. 10)

조사자들은 제1 제보자 댁에서 조사를 마치고 새로운 제보자를 찾아 마을을 돌아다녔다. 이때 어느 집에 노인들이 앉아 있어서 이야기를 부탁하자 반가워 하며 구술하기 시작하였다.

[청취 불능] 예전에 그 저기 어른들 말씀이, 그 예전에는 초가 지붕이 있어. 초가. 지금 말이지 기와집이 없었구, 우리 대한민국에 조선 팔도 내에 개화집이라는 것은 그 일개 면에서 좀 부잣집이라는 사람은 조선 개화집이 있었구, 그리구는 그 기타는 전부가 초가집이야.

그래 집두 보문은 초가집에, 예전에 지은 집이라 잘 짓지도 못하구, 벽이 그냥 이렇게 썩, 그냥 벽이 폼사 주둥이마냥 벽이 나오구. 지붕(지붕)은 그냥 이렇게 두텁게 이구. 그 년년 이니께,

그래 그걸 그때 시절에 구렁이가 많았어. 구렁이 뿐만 아니라 뱀두 많았어. 그래 인제 울타리는 그전에는, 저 이런 흙으로 지은 울타리도 있었지만, 막대기를 저 소나무 같은 것을 갈려다가 이게 막대기로 그냥 이게 울타리를 했어. 울타리라고 하는 거여. 그게 담 치는 것은 흙으로 쳐서 담 치는 거구. 울타리, 그래. 그전에는 뱀이 울타리 같은 데서, 지병에서 나와 가지고 울타리 같은 데 많았었어. 구렁이 같은 게. 참 나 배암이 뭐 여간 많지 않았어.

그래 그 집이 그 집에서 뭐, 뭐가 잘 안 될라고 이렇게 안 되믄은 배암이 지병에서 떨어져서 방안으로 가서 있다여. 방안에. 방안에 방안에 가서 이렇게 서리구, 서리구 해서 이렇게 있거든? 그러믄은 그 집이 망해야. 배암이 지병 위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한대로 나가야지. 그 뱀이 그 방안의 안방에 가서 이렇게 서리서리하고 있으믄, 그 집안이 수사로

망한다는 거. 예전에 그 전설에.

그러면은 예전에 그렇게 뱀이 안방에 이렇게 서리고 있다가나, 여 사람들이 막대기로 그걸 때려가지고 죽여가지고 갖다 버리거든? 버리면은 그거 대신 그게 뭐 전설의 고향이지 뭐. 그것이 뭐 꼭 망한다는 것이 뭐, 보편적으로 그냥 배암이 안방에 들어오면 그 집이 망한다. 그런 뜻으로 그 떡을, 떡을 한 서너 되 해가지고 고사를 드려. 응 그렇게 고사를 드려. 그러면 인저 '망하지를 말아라. 잘 돼 달라'고 고사를 들이구 그렇하는 전설이 있어.

⑥ 물레방아간의 도깨비

제보자(남)/봉명리T 1앞

[봉명4리] 박종수, 김현모, 유대웅, 유현진, 이지아 조사(1996. 6. 10)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도깨비에 관한 얘기를 들려 달라고 하자, 제보자는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를 서서히 풀어 나갔다.

[조사자 : 그럼은, 예전에는 뭐 도깨비같은 게 있다고 허던데.]

근데 예전에는 그 뭐 도깨비 같은 것이 딴 것이 아니라, 그 저 그전에, 지금 이 젊은 사람들은 물방아 알아? 물방아? 물레방아 그 돌아가는 것. 그 물섬으로 돌아가는 물레방아가 있는데. 예전에는 그 물레방아가 어떻게 해서 방아를 켜나 하믄은, 그 물레방아가 돌아가면서두, 이렇게 막대기로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으 공일(공이)를 해 박어.

그래서 이게 물레방아가 돌아갈 적에는 이렇게 이게, 이게 이렇게 놀러 주면은 이것이 올라갔다 '팡' 하구 이렇게 방아. 그저 디딜방아라고 있지? 사람이 이렇게 해서 저 디딜방아도 있지만, 원 방앗간은 물레

방아가 돌아서 그 디딜방아로 예전에는 뵈(벼), 이 쌀도 뵈를, 쌀 찹는 것도 그렇게 하구 보리 방아두 그렇게 하구, 그렇게 했어. 예전에는. 그 리구 밀가루, 밀도 그걸로 빵아서 해 먹구 그랬어.

그런게 그 예전에는 방아라는 것이 그렇게 미미했어. 그 조선 사람이 사는게 그랬었어. 그래 가지구는 거기서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꽁’ 찌면은, 공이가 팍 찌른은 이게 흘잖어. 그라믄 비로 이리이러 자꾸 썰어 넣거든, 흘러나온 것. 풍 띠면은 이게 팡하면, 또 이게 뵈(벼)가 이렇게 흘러거든? 풍 띠면은 빗자루로 이렇게 썰어 놓잖어? 그래 그 방앗간에서 쓰던 비가, 말은 그게 탈이 붙어가지고 그것이 도깨비같이 보인다는 거여, 그 빗자루가.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사람이 허 해서. 지금마냥 사람이 단단허들 못하고 허 했어. 왜 허 했느냐믄 먹는게 시원찮어 가지고, 먹는게 시원찮구 약이 별루 읍구. 그래서 허한 사람이 있어, 허한 사람이. 마음이 허 해가지구. 그래 인제 술같은 거 많이 먹구 그라믄은 헛게 보여. 헛게 보여서 그게 도깨비가 돼. 눈에 헛게 보여가지고. 그래 뭐 밤새도록 싸우고서 그걸 뭐 짊어 놀루구 저 있다가, 날샌데 보면 별 수 없는 빗자루다. 그런 전설이 있는 거야.

그래 예전 사람은 그렇게 된 거지! [조사자 : 그 빗자루에도 그 뭐 있었다 그러데.] 아니. 근데 그게 몽지랑 빗자루가 그래 인제 도깨비 행세를 하는데, 예전에는 사람이 잘 먹들 못하고 그 [청취불능] 그래 아니구. 먹는게 시원찮게 먹구, 사람이 허 하니께 술 잔이나 먹으면은 헛 헛게 보여. 헛 도깨비라는게 그래 헛 도깨비라는 게 그래. 헛 도깨비. 그래서 그 저 방앗간에서 쓰던 빗자루가 도깨비로 보여가지구. 그 뭐 잡아 놀러가지고, 꼭 놀루구서 있다 보믄, 날샌데 보믄 별 수 없는 빗자루가 빗자루라는 거.(웃음) 게 예전 사람이 그렇게 허했어.

그래 허 한, 못 먹구 살아서. 그래 인제 도깨비라는 것이 있는 건 아닌데, 헛게 보여서 그러, 헛게. 사람도 그래. 그래서 그래 예전서부터 헛 도깨비, 헛 도깨비 하잖어. 헛 도깨비라고.

7 여우 구슬을 먹고 지리를 안 박주부

제보자(남)/봉명리 T 1위

[봉명4리] 박중수, 강현모, 유대웅, 유현진, 이시아 조사(1996. 6. 10)

조사자는 앞의 제보자의 이야기를 마치고 여러 가지를 부탁하였으나 더 이상 채록할 수 없어 새로운 제보자를 찾아 나섰다. 이 제보자는 전라북도 고창군 성승면이 고향인 분으로 긴 이야기 한 마디를 하고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하였다.

(테이프 교환) 핵교가 있는데 열 땃살 먹었는데, 서당을, 인자 베포를 싸가지고 서당을 당겨. 그러든 갈재 넘어가야 하거던. 그러든 선상이 가 만히 밖에서 보니까 자꾸 얼굴이 야와, 총각이. 아 그래서,

“주부야, 주부야!”

박주부인께.

“주부야, 주부야, 너 어찌 사람을 그리 모르냐. 마르냐?”

그란께,

“그런 것이 아니라, 갈재 벼나리를 넘어 오른은 예쁜 처녀가 나 귀를 잡고 이냥, 막 장 키스를 막 한다 이말이여. 입을 막 맞춘다 그말이여. 그 후로 내가 막 몸이 야윈다.”

말이여. 그러면 선생님 말이,

“그러든 너 좋은 수가 있다. 내일은 음서로 백봉을 헐라면 백여우가 나타날 것, 그저 백여우가 아니라 처녀가 나타날 것 아니냐. 처녀가 나타나는 가만히 입 안을 봐라. 입안을 보든 그것이, 그것 보고 뭇 여의주, 여의주, 백 년이 묵은 여시는 이 안에서 여의주가 논다. 구실이, 구실이 여의주가 놀든은 날름날름 하든, 그 놈을 니가 딱 입으로 깨물어라. 깨 물어 가지고 놔두었다가 보라.”

이것이여. 여의주를. 그러니까,

“예, 그러든 그렇게 하졌습니다.”

하고 집이를 잤어. 가가지고 밥 먹고 인자 또 벵또를 싸가지고, 인자 그 밥통을 싸가지고 재에 딱 올라스니께 또 백여우, 거 저, 그 처녀가 나서 서니 그냥 틀어잡고 입을 막 맞춘단 말이여. 하여튼 입을 맞추면서 보 니께, 안에서 구실이 나올라고, 여의주가 나올라고 보니께 구실이란 말 이여. 가만히 입맞춰 주니, 뭐 입으로 딱 뜯는 것이, 구실이 딱 넘어 가 버렸네. 넘어가버려서 할 수 없이 먹어 버렸지 인자, 잉? 먹고는, [조사 자 : 구실을 먹어 버렸어요?] 응. 먹어 버렸지. 여우한테서 나온 그 여의 주를 먹어버리고는 인자 서당에를 간게, 서당 선생님이,

“너, 오늘 일은 했나?”

하니께. 백주부가,

“아닌게 아니라, 처녀가 귀를 막 잡고, 입을 맞춰서 가만히 보니까, 속에서 여의주, 여의주가, 구실이 날름날름 하길래 그놈을 들었더니, 속 으로 들어가, 뱃속으로 들어가 버렸소 말이여. 그러니 그것을 어째야 할 것이요.”

그런게,

“그러믄은 별 수가 있냐. 한 번 먹은 것은 별 수가 없으니까, 오늘은 공부를 하고, 집에 가서 자고 나면 아침에 똥이 마려우면, 그 똥을 막대 기로 하작하작 해 봐라 이것이여. 그러믄 구실이 나올 것이다. 구실이 나오믄은 잘 씻쳐가지고, 잘 씻쳐가지고 날 갖다 쥐라.”

이것이여 그려. 대체나 집에 가서는 인자 잠을 자고, 아침에 똥이 마 렷길래 똥을 누고는 막대기로 하작하작 해본기네, 마침내 지가 먹은 여 의주 구실이 나와 있어. 나와 있길래 그 여의주 구실을 물에 씻쳤어. 선 상이 갖고 오라니까. 잘 씻쳐가지고 인제 그대로 여의주란 말이여. 구실 이. 그래 인자 밥 먹고 그 놈을 잘 싸가지고 인자, 손수건에 다 싸가지 고 갖고 갔더니, 그때부터 여우가 안 나, 안 나온단 말이여. 거시기 처녀 가 안 나온단 말이여. 그래 서당에 갔더니 선생님이,

“어찌 됐나?”

하니께.

“임마루에 똥을 싣더니, 이 허지거 본게 여의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의주를 물에 잘 씻쳐가지고 손수전에 잘 싸가지고 왔습니다.”

그런게,

“어디 보자.”

허더니, 그 양반이 먹었어, 여의주를. 먹고 보니. [조사자 : 왜요?] 그 여의주를 먹었다고 인자. [조사자 : 그니까, 왜 여의주를 먹었어요?] 들어봐. 여의주를 먹었는디, 박주부는 처음에 여의주를 먹고 땅속을 다 알아부렸어. 명당 속을 알아부렸다 그 말이여. 딱 지리 알아부렸다 그 말이여. 지리 알았는디.

이 선생님은 이 박주부가 한 번 먹은 놈. 창세기에, 창세기에 백여 뽕 뽕 나온 놈을 똥으로 나가지고, 그 놈을 씻쳐가지고 먹었기 때문에 위교만 알제. 선생님은 위교만 알제 땅 속을 몰라. 박주부만치로. 그래서 박주부란 사람이 우리 외손인디, 나중에 지리 알아가지고, 명당 사라고 막 외야.

“명당 사쇼, 명당 사쇼”

하고 막 외야. 그래,

“저놈이 우리 외손인디, 미친 놈이라.”

고 저놈 미친 놈이라고 해 버렸어. 근디 우리, 나 고향이 어디냐든 전라북도 고창인디, 정씨나, 정씨는, 진주 정씨는 아주 손이 죽어요. 손이 죽어가지고,

“야! 박주부! 박주부! 우리는 손이 죽으니까 계용감을 쓸라네. 계용감이란, 자리(작아)가지고 많이 여는 것이 감이, 잘 많이 여는 것 그것을 쓸란게, 그걸 잡아주소!”

그래, 그걸 잡아 줬어. 그래, 정씨는 그걸 잡아 줬단 말이여. 그래 가쓰고, 강씨는,

“우리는 손이 많은디, 좀 힘이 좀 장사가 낡으면 쓰것소” 현게.

“그러믄, 당신네는 장그를 쓰시요”

그런게 장그를 써 가지고, 큰 장 역사가 나가지고, 가만히 앉아서도

화리(화로) 그전에 화리 있거든, 불담은 화리 있거든. 가만히 앉아서도 화리를 발딱발딱 뛰어 넘고, 그 기와집을 발딱발딱 뛰어넘었다고. 그런 장사가 나브렸어. 그래서 예... 그 우리 전라북도 고창에 성승면이라는 정씨가 아, 거기서 삼대를 재상면 정승완이가 삼대를 민의원을 해 먹었다고, 수가 많은게. 시방도 그 정씨들이 민의원을 하고 있다고, 수가 많으니까. 안 끼는디 읍어, 정치가. 보다도 수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박주부가 땅 지리를 잘 알아가지고 명당을 팔고, 명당을 썼다 이말이여. 그래서, 이 여우라는 것은, 여우, 여시라는 것은 여그 말로는 여우고, 전라도 말로는 여시고, 이 여우라는 것은 백 년이 넘으면 둔갑을 혀, 인자. 산이 많이 깎아져서 그 여우가 별로 없지만은, 그 전날에는 여우가 많했어. 아, 내 말은 글로 끝나는 거여.

여

백

9. 진목리

1) 마을개관

박종수, 강현도, 성기도, 윤경애, 최준석, 김상미, 조정빈, 진미영 조사
(1995. 11. 4., 1996. 6. 1.)

진목리는 용인지역의 가장 끝의 안성과 평택에 인접하여 위치해 있다. 용인에서는 교통편이 불편하여 찾아가기 힘든 마을이었다. 그래서 오후 1시 가까이 되어 도착하게 되었다. 이 마을은 1리와 2리로 나누어져 있다. 진목리 지역도 집이나 기타 시설들이 많이 현대화 되어 있어 전통적인 면을 찾아보기 쉽지 않았다.

이 마을은 참나무 재목으로 지은 정자가 있어서 참나무정, 또는 진목정으로 불려졌다고 한다. 그런데 진목이란 말은 참나무의 참을 한자 眞자의 뜻을 취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아주 오랜 전에서부터 불려진 마을이라 한다. 이 마을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진위군 일북면 월경리와 마산면 월경리 일부를 합하여 진목리라고 하여 남사면에 편입되었다.

진목 1리는 순지마을이라 불리고 있다. 유래는 옛날에 연못이 있었는데 미나리가 무성한 곳이라 하여 순못이라 불리던 것이, 이 연못이 매워져 마을이 들어섰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순지마을에는 주민들이 소중하게 다루는 우물 2개와 300년이 된 상나무가 있었다. 이 상나무는 오래 됐다는 이유에서 '위하는 나무'라 부르며 아꼈는데, 이번 홍수로 죽었다며 무척 안타까워 하였다. 우물 2곳도 매년 동제를 지내고 있었다.

한편 마을은 모두 잘 지어진 2층 양옥집에 집집마다 승용차도 있어 꽤 부유하게 보였다. 마을 주민들은 비닐하우스로 오이 재배를 하는 관계로 농한기가 없이 매우 바쁘다. 이곳의 주 소득원 벼농사와 고추농사이고, 부업으로는 텃밭에다 여러 채소

를 가꾸어 내다 팔았다. 조사자가 처음 조사하는 날에는 ‘간 날이 장날이라’고 마을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서울로 가서, 마을에는 아이들과 몇 분의 노인들만이 지키고 있었다. 그래서 20여 가구 남짓하는 마을은 대단히 조용하고 개 짖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진목 2리는 순지마을과 약 1Km 떨어져 있었다. 이 마을은 약 7가구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데 젓소를 키우고 있고 벼농사도 짓고 있다. 마을이 더 작아서인지 매우 조용하였고, 바로 옆의 있는 경부고속도로의 붐비는 차량만이 토요일 오후의 활기를 느끼게 했다.

2) 설화

① 오세암 전설

최각스님(54, 남)/진목리T 1앞

[진목리 대한불교 원웅종 원주] 박중수, 강현모, 성기도, 윤경애, 최준석 조사(1995. 11. 4.)

제보자는 조사자들이 약수암을 찾았을 때 마당에서 낙엽을 쓸고 있었다. 제보자는 이곳 암자의 주지스님으로 마당쓸기틀 도와준 조사자들이 찾아온 목적을 말하고 이야기를 부탁하자, 처음에는 바쁘다고 거절하다가 조사자들을 방안으로 인도하여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그전에 저 강원도에 가면 설악산이 있었는데 지금도 오세암이라는 그 암자가 있어요 [조사자1 : 오세암이요?] 오세암. 다섯 오자 해 세자 바위 암자 암자 암자.

그래서 오세암이란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어린 아기를 다섯 살 먹던 해, 다섯 살 먹은 애를 키우다가 거기서 전설이 된 애긴데, 어느 스님이. 그전에는 뭐냐, 없이 저- 살았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들이 애를 갖다 맡기는 수도 많이 있었고, 또 스스로가 배가 고프면 절간으로 찾아와서 이렇게, 지금 학생들처럼 무엇 좀 부탁하는 수도 있었고,

저, 지금 큰 학생 마당 쓸고 있지만 그렇게 마당도 쓸어주고 밥도 얻어 먹고 그랬었다 이거여.

그런데 그 스님 혼자 그 아기를 하나, 참- 길거리서 좇어갖고서 이렇게 바르만테(망테)다 워다 없어 갖고서 지고 땡기면서 탁발을 해다 먹여서 이렇게 키우는 애긴데, 동자 아긴데.

어느 해 겨울에 이 스님들이 그전에는 전부 탁발을 해서 먹었어요. 에- 그래서 그 아래 동네 내려갈려면 한 10여 리 20여 리 내려가는 그런 길인데, 그런 산중에 있는 암잔데. 그 다섯 살 먹은 아기를 법당에다,

“너 여기서 잠깐 놀아라. 스님 가서 탁발 해갖고 올 테니까 놀아라.” 해서. ‘그러라’고 해서, 인제 다섯 살 먹은 애를 법당에다 놓고서 인제 자기는 탁발해러 갔다 이거여. 스님은 탁발을 해서 내려 갔는데, 그 해 아마 동지 선달이었던 모양이여. 겨울이었던 모양이여. 그러니까 눈이 오기 시작했지. 그래서 그 동네로 마을 어구로 내려가서 탁발을 하다가, 눈이 수북히 쌓여서(쌓여서), 눈이 쪼치면 올라갈라고 하다가 눈이 수북히 쌓여서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거여. 그래서 눈은 계속 더 오지. 쫓 하루 저녁 자면 괜찮을라나나 하고서 기다리면 더 오지 해서, 길이 다 묻혀 버린 거여 다. 그래서 그 마을 이장님 댁에 찾아가서,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나 그 암자에서 내려 왔는데, 눈이 이렇게 와서 갈 수는 없구. 그러니까, 나 좀 잠깐 유하게 해 달라.”

고 이래하니까, 그 동네 부락 사람들이 그 전이는 인정이 참 많았어요. 지금 세상이니까 막 너 죽이고 나 죽고 그냥 그렇게 하지만, 그전이는 인정이 귀했기 때문에, 사람 하나만 봐도 친절하게 대해주고, 이웃 사촌 처럼 그렇게 대해 줬는데. 그 동네 어르신네들이 모이를, 모의를 해 갖고 어느 사랑채에다가 불당을 쪼그맣게 이렇게 해 줬어.

“스님, 그럼 눈 녹을 때까지 여기 계시오.”

해서. 불당을 마련, 차려 놓고서, 주야장천 그 다섯살 먹은 애기 생각을 한 거여, 스님이. 기도를 한 거여. 그래서 기도라고 하면 빌 기자 빌 도자 뭐 기도라고, 뭐, 뭐라고 이렇게 염불하고 이러는게 기도가 아니고,

항상 자기 마음의 중심에 와 닿게 갖고 있는 게 바로 기도거든.

그러니까 염불은 생각 염자 염불이고, 기도는 빌 기자 기도고 그런데. 그 스님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 이듬해, 인제 개 애기는 죽었으려니 허는 거지 뭐. 하루 이틀에, 뭐 그 겨울을 나게 되니까. 눈이 쌓여서 도저히 올라가던 못하구.

그래서 인제 그 이듬해 봄에 삼가래 눈가래를 갖고 동네 사람들이 인제 눈이 얼죽(얼축) 저그 뭐야 해동할 땐게, 눈 안내릴 무렵에 눈을 치우며 올라가서 보니까, 그 방문 앞에 추녀가 있는데, 추녀 밑까지 안으로 눈이 안 쌓였더라 이거여. 그래서 그 눈을 헤쳐가며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보니까, 법당서 부처님 앞에서 놀고 있더라 거여, 애기가. [조사자 : 동자가요?] 동자. 동자가.

“너, 어떤 일이나?”

하면서,

“아, 스님이 저- 탁발하러 온다는 동안 저기 있는, 저 법당을 가리키며, 여기 있는 그 부처님이, 엄마가 밥도 주고 물도 주고 해서 먹고 살았다.”

이거여. 그래서 그렇게 있었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 스님이 딱 전면을 쳐다봐서 관세음보살님의 부처상을 보고서 합장을 하고 있으니깐, 과연 그 어린 동자가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으로 해서, 여기 다기 그릇 올리는 것 있거든, 요렇게. 다기 그릇에 운감을 해서 그 애기다 운기를 주고, 백미를 요렇게 조금(손을 오무려 보이며) 냉겨 놓았는데, 고기에서 운기를 주어서, 운감을 쥐서 개가 안 굶고 이렇게 살아났다 해서, 한해 겨울을 살아났다 해서 지금은 뭐 삼풍아파트 같은 데 무너져갔고, 삼풍 무너져갔고 며칠간? 한 달간 뭐 며칠 살았다고 그러지만, 개도 한삼동을 살았으니까, 한 백 일 정도를 살은 거 아냐?

그래갖고서 글자 그대로 오세암이, 다섯 살 먹은 애가 거기서 그렇게 죽지 않고 살아났더라, 눈 속에 갇혀서 살아났더라 그러한 전설이 있고. 그 뭐 전설이야 뭐 그런, 그러니깐 실질적으로 스님이 느낀 그 뭐냐, 이

수기 방법 같은 거, 이런 거 보탬도 이런 것은 전설의 고향 그 들은 애기지. 우리가 가서 보지도 않은 것이고 듣지도 않은 것이고. 그러니까 아 판세음 관음신앙 같은 그 책같은 것 보면 오세암이라는 그런게 나와.

2 임금을 알아본 파자 점쟁이

최각스님(54, 남)/진목리T 1앞

[진목리 대한불교 원웅종 원주] 박종수, 강현모, 성기도, 윤경애, 최준석 조사(1995. 11. 4.)

앞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들이 자신들의 취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토론을 하였다. 이때 운명이란 말과 관련되어 생각이 났는지 계속하여 구술하여 주었다.

요 두 자를, 간단하게 시간, 뭐 찬찬히 해도 되는 애긴인가 모르지 난. 어느 한 그 파대에 능통한 사람은, 그전이 뭐 그 이년 전만 해도 스님이 공무원 생활을 했었어. 공무원 생활을 할 적에만 해도 출근부에 도장을 찍었었어요. 도장을 꼭꼭. 오늘날에 와서 사인, 출근부에다 사인, 자기 하고 싶은 데로 사인을 하지. 이 그거를 필력이라 하구서, 자기의 필심이 그 필체가 거기 있는디, 그 저기에 그 자기 운명이 담긴 필체가 나타나는데.

어느 한 임금님이 그전에, 옛날에 길을 걷다 보니까 어느 육교 밑에서 참, 책을 펴놓고 파자법 허는 이가 있더라 이거여.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저런 데로 시내로 나가면 왜 사주책 같은 거 펴 놓고, 뭐 보라고 사주, 이름 짓고 뭐 보라고 하는 사람들 있지. 그러면서 뭐, 그런 셈이지. 그런 애들처럼 파자법을 하는 도인이 있었더라 이거야. 그래서 임금님이 하니, 그 사람이 어떻게 테스트 겸해서 인저 저 사람이 진짜로 저런 걸 잘 푸냐 해서, 딱 짚은 것이 임금님이 문문자를 딱 짚었어.

이 문문자를.

그러니까 아 이전 좌군 우군이잖아.(글씨를 보면서) 그러니까 그냥 기상이라. 요렇게 하면 좌구 요렇게 하면 또 우가 되거든. 그러니까 요게 임금 군자거든. 또 요렇게 아니, 요렇게 쓰거나 요렇게 쓰여지나, 우군이 되거든. 그러니까,

“좌쪽이나 우쪽이나, 좌군 우군허니, 당신은 군왕지상이다. 임금님이 다. 관상이 임금님의 사주다. 그 얼굴이 관상이 그렇다.”

임금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사복을 입고 암행어사처럼 해고 다니니까, 전두환 대통령 할 때 어디 나갔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암행어사식으로 그전이는 임금님도 더러 야, 야경을 돌을 때가 있었어. 그러니까 인자 그 파자법 허는 사람이 ‘당신은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기가 맥힌단 말이야.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자기 비서더러, 왈,

“너도 목욕재배 오늘 싹하고, 목욕 갔다 와서 옷 양복 한 벌 싹 맞춰 입고 잉, 아주 깨끗하게 하구 가서 문문자 이, 이자를 짚어 봐라. 문문자를 짚어 봐라. 내가 짚은 자를 짚어 봐라.”

그래서 그 비서가, 참- 비서가 인제 자기 일을, 잉 비서가 가는게 아니라 비서가 인자 딱 그지를 시킨 거야. 용한가 안 용한가 보기 위해서.

“어느 지역에 가며는 그 파자법 허는 도이사가 있으니까, 그 저기를 가서 딱 짚어 보시오.”

하고서. 거지를 목욕시켜가지고서, 이발 싹 시켜가지고서 옷 갈아 입혀 그대로 이렇게 보냈어. 그래서 거지가 가서 딱 짚으니까, 대문이잖아 이게. 대문이다 입을 달았잖아. 그러니까 대문이다 입을 달았으니께 구걸 허는 사주 아녀, 그지 잉.

“당신은 절인지상이다 이거여, 얻어먹는 사람이다.”

암만 깨끗하게 입고 갔어두. 그래서 요건 무엇을 뜻하는 기냐. 우선 여기 큰 학생이랑 학생들이 셋이 왔지만, 보는 눈이 다 각각 인거여. 어련에 그 예를 들어서, 기도를 많이 했다는, 정신 집중, 통일, 정신 통일

을 한 그런 사람들은 보면 눈이 달바요 그래서 어디 가서 뭐 점을 한다, 뭘 한다 혈 적에 절대 상대방을 알아서 점을 하는 게 아녀. (자기의 체험담이 이어짐)

③ 이성계의 아해조정 강도령

기장석(81, 남)/진목리T 1앞

[진목리 마을회관] 박종수, 강현모, 성기도, 윤경애, 최준석 조사(1995. 11. 4.)

조사자들은 약수암에서 조사를 마치고 진목 1리 마을로 내려와서 조사를 시작하였다. 우선 마을회관을 무작정하고 찾아가자, 그곳에 2명의 노인이 있었는데 화투를 띠고 있던 분이 제보자이다. 제보자는 이야기를 부탁하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며 마을 다른 사람이 호랑이 잡았던 옛날의 이야기를 마치고, 생각이 났는지 계속하여 구술하였다.

한 가지, 이 저 이성기(이성계). 그전 옛날 이성기가, 이 아해 조정은 강도령이란 것이 있어요 응? 이성기가 이 왕건 태조 때려 부술 적에 이성기란 사람이 이, 개성 왕건 태조 있을 적에 대령이요, 그 사람이. 대령인데 중국과 싸움을 해서, 중국 싸움을 허러 가다가 깃발이 날려와서, 인제 이성기가 이 개성 치고서 헨 거가 다들 알잖아. 그게? [조사자 :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해도 돼요]

그래구서 이성기가 총각 적에, 에- 절에 들어가 아 저- 공부하고 이 돌아댁기다가, 그 돌아다니다가 산중에 들어가서 정성을 드리는 거여, 이성기가. 아- 근대 강, 강도령이라는 그이가 총각인데, 선황성에 지나갔는데, 선황이 참 그 선황이, ‘아이고 나!’ 산신령이 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믄,

“아 그 뭇 이성긴가 뭐가 그 자식이 정성을 들이는데, 비린내 나서 음식을 못 먹는다.”

고 그랬걸랑.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강 강도령이란 사람이 거기서 자기를

엥 정성을 드리는 거여.

“당신은 뭐요?”

이렇게 물으니, 아 이성기가 큰 맘을 먹은 거 같은데, 비린내 나는데, 이 칼끈을 개가죽 끈을 해여 차고 있거든. 그거 가지고 했으니까 정성이 부족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 내가 잘못 했구나!’ 하구서. 이성기가 인제 다 다시 하구서는 그 강, 강씨를 인제 총각이여. 죽였어. 나가서 소문 퍼트리랴 봐. 소문 퍼트리면 자기가 큰일 나거든.

그래서 이 그래, ‘아해 조정은 강도령 강도령’이란 것이 거기서 나온 말이여. 이성계가 죽이고서는, 자기가 성공하고서는, 이 ‘아해조정은 강도령’이란 그 별명이 있는 것이여. 그밖에는 나 몰라.

④ 이성계의 개성 정복

기장석(81, 남)/진목리T 1앞

[진목리 마을회관] 박종수, 강현모, 성기도, 윤경애, 최준석 조사(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친 제보자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부탁하자 모른다고 하였다. 계속하여 간청하는 조사자의 요청에 앞의 이야기와 유사하여 생각이 나셨는지 스스로 이어서 구술하여 주었다.

그 이성기가, 이성기가 아— 이놈의 개성을 칠, 나가다가 깃발이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걸 칠라니, 인자 돌아서서 이제 재기(자기) 임금을 칠려고 들어오는데, 생전 쳐봤데자 국내에서 군인들이 냐다 치는데, 혈수가 있어야지. 혈수가 없걸랑. 그런데 이 산비탈이서 꺼먹소 가지고 발을 갈면서,

“야! 이놈의 소야!”

그러더니,

“아—, 이성기처럼 그렇게 미련한 놈이 읊다.”

고. 그 말을 헛거여,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소를 뒷구녕에서 때려야지, 소 받는 성(형)국에다 때리니깐, 받는 소가 자꾸 나오니깐 베길 수 있어? 그래 가만히 산 형체를 보니까, 아- 쇠 대가리를 갖다가 쥐고치고 들어가니깐 받는 소 이 놈이 들어가니깐 점점 더 나오지.

게 뒤 꿈무니를 쳐가지고서, 이 왕건 태조가 기냥 그때에 무릎을 깔고서 이성계한테 남겨 준 거야. 그건 내가 알아.

⑤ 춘향 아씨 놀이담

원난성(56, 여)/진목리T 2앞

[진목2리 제보자택] 박종수, 강현모, 김상미, 조정빈, 진미영 조사(1996. 6. 1.)

조사자들은 진목 2리에 도착하여 마을 이장님 댁에서 퇴자를 땅하고, 회관에서 한 사람에게 김영자할머니를 소개받았다. 조사자가 제보자 댁에 갔을 때에는 고부간에 집안에서 쉬고 있었다. 그래서 이곳에서 지내고 있는 세시풍속과 놀이, 산신제, 놀이 등에 대해 묻고 구술하는 도중에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주었다. 이것은 원래 주술적 놀이인데 설화적 가치가 있어 수록하였다.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뭐야 춘향 아씨 많이 하구 놀았어. [조사자 : 그게 뭐예요?] 저기 그러니까 정월에 춘향 아씨 내린다구, 막 등그렇게 앉아서 한 사람을 여기에 놓고 막 빌어. 말하자면 무당도신 내려서 하는 거 마냥 그걸 한다구.

“뭐 춘향이는 뭐, 나이는, 생일을 사월 초파일, 뭐 저기 나이는 18세, 뭐라구. 막 춘향 아씨, 춘향 아씨 뭐 내려라.”

구. 막 처녀들이 막 빈다구. 한 사람을 이렇게 해 놓고 그래서 조금 신 있는 사람은 금방 내려. [조사자 : 어떻게 내려요?] 내리는 게 무당 내리는 거 마냥 막 춤을 춰. 막 춤을 추구. 막 그래 가지구 우리들이 몰래 숨잖아. 찾아오라구 하면 다 찾아와. 무서워서 여기 막 숨고 저기 숨고

그런다구. 그러면 나중에는 정신이 막 신이 내려서 그냥 못 저기해.

나중에는 어떻게 우리 놀다가 한 번 그러고 나서 안 해. 처녀 때인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물을 끼얹었어, 옷에다가. 그러니까 정신이 나가지구 꼬때 깨더라구. 그러고 나서 그런 짓 안해.

[조사자 : 너무 놀랐겠다.] 우리는 전에는 그전에 놀게 없으니까 그런 거 많이 하구 놀았지.

6 고지식한 선비의 일화들

김영자(79, 여)/진목리T 2뒤

[진목리2리 제보자택] 박종수, 감현모, 김상미, 조정빈, 진미영 조사(1996. 6. 1.)

세시풍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을에 일이 있다며 나가신 할머니를 기다리면서 이곳의 세시풍속과 놀이와, 마을개관 등을 조사하였다. 이때 밖에서 들어온 제보자에게 이야기를 부탁하자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주었다.

그저 삼거리 다리 밑구렁에, 이 옛날에 어떤 촌 늙은이가 있는데, 인제 누가 서울을 올라 갔는데, 누구 글을 한대 지어, 저기 지어 달라고 그래서 글을 지어 줬데. 그랬더니 돈 옛날에 삼천 냥 주더라. 그거를 가지고는,

“아이, 여긴 도둑놈이 많으니께 여기다 잘 둔다.”

고. 한강 모래 갱변에다가 파묻고는,

“여기 이선달 돈 삼천 냥을 여기 묻었다.”

고. 인제 팻말을 해서 꽃았어.(짓는 개를 꾸짖음) 그러구서는 이젠 어디 가서는 자구서는 그 이튿날 가니깨루, 누가 흘랑 빼가고는 저기 팻말까지 읊어. 빼 빼내버렸드라.

“아유! 이건 누가 가져 갈까 봐서는 내가 팻말까지 해서 꽃아놓았더니, 세상에 그래 팻말까지 빼 갔느냐.”

구. 그렇게 어리석었어, 노인네가.

그라구 인제 그 노인네가, 또 인제 서울서 인제 하루 저녁 잠을 자는데, 어떤 집이 여관에 들어 가서 잠을 자는데, 그 노인네가 인제,

“아유, 이거 서울이라는 고장은 눈 없으면 코 비어간다는데 이 옷을 벗어서 이 방에다 두면 도둑놈이 가져가기가 무섭다.”

고. 그런께, 이 창문 열면 여기가 배깁 아니여. 그제 벽장인 줄 알고 옷을 벗어서 거기다 확 집어 내던지고서 문을 닫았더니, 아 식전에 일어나서 옷을 입을라고 일어나고 보니까 아 벽장까지,

“아유 세상에! 눈 없으면 코 비어간다더니, 벽장까지 도둑놈이 떠가지고 없다고 말이여!”

그래서 인제 주인을 청해가지고는 주인을 찾아가지고는 그런 얘길 하고선, 옷을 한 벌 인제 청해서 인제 입고선 집이를 와가지고는.

이젠 또 어디 가서 여럿이 자는데 잠을 자는데, 그 사람이, 나 이거 그전에 책에서 본건데 다 잊어 버렸어. 그런데 다리가 가려워서 내 다리 굽는다는게 남의 십종 앓은 다리를 굽었어. 남의 십종은 다리 앓는 병이 있어. 그러니까 십종 앓는 사람이 자다가 그냥 벌떡 일어나서 토막으루다 방바닥을 두드리면서,

“어떤 놈이(웃음) 내 다리를 굽어. 아픈 다리를 굽었느냐?”

구. 야단을 치니까. 가만히 두르너서(누워서)

“어이구! 누가 그래 남의 다리를 굽어. 내 다리두 몰르구.”

그러구 늙으니가 하드리야. 그거 옛날에 내가 책 본거여. 그라곤 그거여. 그라곤 읊어.

3) 민요

① 모심기 노래

김영자(79, 여)/진록리T 1뒤

[진록2리 제보자대] 박종수, 강현모, 김상미, 조정빈, 진미영 조사(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옛날에 모심기를 하면서 부르던 노래가 없느냐고 묻자 불러주신 노래이다.

여하 여기두 또 하나~

여하 저기두 또 하나~

10. 전궁리

1) 마을개관

박종수, 강현도, 강경숙, 유홍조, 이은영, 김명주, 박지나, 이재옥 조사
(1995. 11. 4., 1996. 6. 1.)

전궁리는 면소재지인 봉무리의 남쪽으로 3km 남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조사자들은 용인에서 버스를 타고 남사면 봉무리에서 내려 논둑길로 전궁리에 도착하였다.

이 전궁리는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남촌면 지역에 속하던 각궁리와 염심리를 합쳐 전궁리라 칭하여 남사면에 편입시켰다. 봉무리에서 가까운 쪽은 염삼동은 염시미라고도 하는데, 풍수지리에 밝은 도승이 지나가던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마음과 몸에 신념이 통하였다고 하여 붙여진 것이며, 각궁동은 마을 뒷산의 끄트머리가 황소 뿔이 난 형상으로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마을은 들판 한가운데 염신동이 있고, 남쪽에 각궁동이 있다. 마을을 전체적으로 볼때 남동쪽에 산지 있고, 북서쪽에 평야가 펼쳐져 있다. 그리고 봉무리와의 경계에는 하천이 흐르고 있다. 마을에 펼쳐진 넓은 들판은 이동저수지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편은 큰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좋은 편이 아니었다.

2) 설화

① 팔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최승립(64, 여)/전공리T 1앞

[제보자의 대문 앞] 박종수, 강현모, 강경숙, 유홍조, 이은영 조사(1995. 11. 4.)

조사자 일행이 전공리에 도착하여 돌아다니다가 이야기를 잘 한다는 제보자를 댁으로 찾아갔다. 제보자는 집에 계셔 대문 앞에서 이야기를 채록하였다.

옛날에, 이 옛날엔 걸어 땡겼잖어. 산 고개 고개 넘어가는데.(조사자들이 조사나온 목적을 설명함.) 옛날에 걸어 땡기는데, 새고개 넘어가니까, 호랭이 한 놈이,

“또부랑개 꼬부랑개, 할머니! 할머니!”

그래드라.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래니젠,

“할머니! 팔 한짝만 주면 내가 안 잡아 먹지.”(일동 웃음)

그러드라. [조사자 : 팔요?] 응! ‘팔 한짝만 주면 안 잡아 먹지.’ 그래드라. 그래서 팔 한짝을 뚝 떼갓어. 아 그래서 얼마쯤 가니까, 또 조금 있다 다 먹구 와서,

“할머니! 할머니! 팔 한짝 마저 달라. 할머니! 팔 한짝 하면 내가 안 잡아 먹지.”

그러드라. 그래서 인제 팔 한짝을 또 줬네. 아 그래 인제 고개를 넘어 한 고개를 넘어가니까 또,

“할머니! 할머니! 아! 그 다리 한짝 달라.”

고 그러드라.

“다리 한짝 주면 안 잡아먹지.”

그래드라. 아 그래서 다리를 한짝 또 떼, 떼어 줬다. 아 떼어 줬더니

만 또 얼마쯤 가는데, 돌 데굴데굴 굴러가니까,

“할머니! 할머니! 다리 한쪽, 마저 주면 안 잡아 먹지.”

그래드라. 그래서 또 줬다. [조사자1 : 다 준 거예요?] 다 줬지, 뭐. 다 집어 먹었지. 호랭이 한 놈이 그랬다. 옛날에는 호랭이가 많아가지구. 그런 얘기도 들었네.(웃음)

2 도깨비 일화(1)

최승림(64, 여)/전궁리T 1앞

[제보자의 대문 앞] 박종수, 강현모, 강경숙, 유홍조, 이은영 조사(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6·25때와 일제 때의 상황 등 제보자가 살아온 내력과 효자에 관한 단편적인 내용을 말하고는, 조사자가 도깨비에 관해 묻자 해 주신 것이다.

[조사자2 : 할머니! 혹시 저런 얘기 안 해요? 도깨비나 귀신 얘기?] 하이 도깨비 많지. 우리 옛날에. [조사자1 : 그럼 도깨비 얘기 하나만 해 주세요?] 도깨비가. 우리 여기 할아버지가, 시할아버지가 계신데, 도깨비 친구여. [조사자2 : 왜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래 인자 옛날엔 방아를, 이런 시방은 이런 기계로다가 전기루 짱짱아. 옛날엔 물이, 물이 흘러가지구 물래방아로다가 방아를 찼다구. 그래서 우리가 그 할아버님이, 시아버님허고 물래방아를 차려 가지구, 인제 동네 방아를 죄 찌어주는 거여. 샅 받구. 그러믄 이제 도깨비가, 우리 할아버지가 저기서 버든만 하면 벌써 불을 환히 비춰줬다. 그러믄 인자, 여 우리 손주보구,

“종복아! 종복아! 저 놈 봐라, 저놈 봐라. 저 앞선다.”

그랬다. [조사자2 : 앞선다는 게 무슨 말이예요?] 앞에 벌써, [조사자1 : 앞에 간다구요?] 불을 켜 준다구. 불을 켜 주믄은, 그냥 이렇게 쪽 비

쳐주든,

“아, 저 놈 보라.”

구. 그러음 여간 좋아, 불이 환하게 전기불도 없는데 켜 주구. 여까정 데려다 주구. 그러음 그냥 저, 저 냇갈에다가 물방아를 차려 놓으면 아, 이 놈의 도깨비란 놈이 떡을 안 해 줘. 인자 우리가 떡을 안 해 주면은, 홀랑 뒤집어 놔, 도깨비가. 홀랑 뒤집어 놓는다구. 그러든 인자 떡을 해서 고사를 드리구 그람은 또 며칠은 또 가. 떡을 안 해 주든 또 그래구.

아 그냥 옛날에는 이 동네에 부잣집이 있는데, 도깨비가 어찌나 많은지 술당, 술 있잖아. 아, 이 무쇠술이. [조사자1 : 무쇠술요?] 아 이 무쇠술 뚜껑 속에 들어가? 안 들어가지. [조사자2 : 못 들어가조?](조사자들 웃음)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못 들어가지. 그러든 그냥 거따 디민다. 디밀었다 그냥 끄냈다, 모래도 꺾었구 그냥, 불도 켜구, 도깨비 장난도 뭐 해구. 옛날엔 도깨비들 그렇게 많았다구.

[조사자2 : 도깨비한테 홀려가지구 정신도 잃구.] 홀린거지. [조사자1 : 그럼 그런 것도 있어요?] 아이 그럼. 아, 저 우리가, 저 우리 친정 아버지가 저 아산 읍내에서 사는데, 둔포라는 데서. 읍내 장에 가자면 아마 거기가 펍 멀은가 봐. 나 어려서. 우리 아버지가 장에 가시거니 영 안 오시더라구. 그 이튿날 까장. 하이 동네 사람들이 이난 발컨 뒤집혀가지구 그냥 사람 찾는다구 그냥 찾는데, 아, 그 이튿날 그냥 새벽에 추운데다가 이 서리가 하얗게 이냥 앉았더라구.

[조사자1 : 할머니! 아버님 어깨예요?] 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100살 넘으셨어. 시방. [조사자2 : 지금 살아 계셔요?] 아니 돌아가셨지. 그런데 그냥 가시나무한테 가서 쥘레꽃 그 두락 그 쥘레나무 가시 거기에다 자꾸 쳐 넣드라, 도깨비란 놈이.

아 그래가지구 거길 그냥 헤메이다가 인자 낮에 어치게 어치게 오셨는데, 석달을 앓으셨어. 석달을. 석달. 옛날에 그렇게 도깨비가 많았다구. 그래, 지금 도깨비가 어디 있어. [조사자1 : 지금요 저희는 못 봤는데.] 못 봤지. 나도 못 봤는데. 나도 못 봤는데. [조사자1 : 할머니도 못

보셨구요?] 영.

그런데 옛날에 빗자루에다 피를 묻히면 도깨비가 있다. 도깨비가 있다. 불 있으면 도깨비다. 도깨비. [조사자1 : 그래서 부엌에 빗자루 같은데 앉지 말구요 부지깅이 앉지 말라구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도깨비 있다구요?] 그래. 피가 묻으면 그렇다. 빗자루, 저런 빗자루에 피가 묻으면 도깨비가 된다. 그랬다. 나는 못 봤는데, 불을 보면 도깨비 장난한다구 그러구. 하루저녁에 집두 불이 세 번씩 나는 집두 봤어, 내가. [조사자2 : 불요?] 불, 불. 그건 도깨비가 그랬데요 내가 생각하시는 지금 사람이 그러는 것 같어. 옛날에 불이 나면 도깨비가 그런대. 그러믄 굿 해구 뭐 그냥, 아 무당 데려다 굿하구 그냥, 메칠을 두고 정을 읽구 야단이지. 그런 게 지금 어디 있어. 읊어졌지 다. 시방 시대가 발달해서 여간 좋아.

3] 도깨비 일화(2)

최승림(64, 여)/전궁리T 1앞

[제보자의 대문 앞] 박종수, 강현모, 강경숙, 유홍조, 이은영 조사(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또 씨름하였던 도깨비 이야기를 부탁하자, 생각이 나셨는지 계속하여 구술하여 주었다.

[조사자2 : 도깨비랑 씨름 해가지고] 아 씨름해고 [조사자2 : 네, 그런 얘기 좀 해 주세요요?] [조사자3 : 그런 것도 있어요?]

아 그럼. 저 아래 새마을 사람이라는데, 그 여자는 이 남편이 첩을 얻어가지구 저 판데 가서 살아. 아 그런께 남편이 그리웁잖어.

남편한테 밤에 간단 말여 그냥. 그냥 남편한테 옛날에 내뺄 줄도 모루구 그냥 가다가, 아이구 이 늑의 도깨비가 불을 환히 그냥 요렇게 비

취 주드라. 참나무 뜰에서 비취 주는디, 자기가 얘기를 해서 아는 거여.
아 그러서 왼발을 탁 굴르면서, 침을 탁 뱉으면서,

“사람이면 인간이른은 물러서구, 아니 인간이면 있구. 저 도깨비면 썩 물러서라.”

그러구 그냥 침을 뱉구 발을 탁 굴르니께 술 배달꾼이더라, 술 배달
꾼. 그게 이잔 괜히 그 빛 돼서 그렇지. 빛 돼서. 빛 돼서 그러는 거여.
도깨비. 무서우니께. 무서우니께 그러는 거여.

근데 그렇게 도깨비가 있다. 거기 불을 켜구 환히 비취 준다. [조사자
: 밤에요?] 응. 밤에 가면 [조사자 : 가을에 비도 좀 내리구 그럴 때요?] 응.
우리네는 그런 거 못 봤어. 얘기를 해요 그런 이들이. 도깨비를 실
지 봤대, 그렇게.

④ 며느리 보쌈을 막아낸 할머니

최승림(64, 여)/전공리T 1앞

[제보자의 대문 앞] 박종수, 강현모, 강경숙, 유홍조, 이은영 조사(1995. 11. 4.)

앞의 도깨비 이야기를 마치고 민요에 관해 여러가지를 물었다. 그런데 노래는 잘 못
한다고 하면서 16살 먹었을 때 아버지에게 들었던 이야기라며 구술하여 주었다.

[조사자2 :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자들, 노력 많이 했잖아요] 옛날
에는, 이전 혼자 과부가 되두, 청상과부가 되두 시집을 못 가, 열녀문을
세울라구. 생전을 그냥 혼자 사는 거. 청상과부로.

그러면 이제 청상과부를 살다가, 옛날에 이제 홀애비가 되잖어. 그러
른 이제 자루에다가, 보재기루다 자루를 해가지구 거기다 담아가지구
그냥 돼지를 잡아가지구 친구들끼리 그냥 잔치를 해가지구, 여자를 이
렇게 남자에다가 등끼리 업어다가 갖다가 놓는 거여. [조사자1 : 그 저

기 이렇게 보쌈 해온다구요?] 보쌈. 보쌈을 해가는 거여. 아, 그러믄 이
 냥 옛날엔 물레질을 했던 말여. 물레질.

아, 물레질을 하는데, 인자 할머니가, 하얀 할머니가 말여, 저 며느리
 를 인자 아랫목에다 숨겨 놓구, 며느리가 그냥 옷을 싹 갈아입구 그냥
 수건을 푹 뒤집어쓰고 물레질을 이렇게 그냥 명을 찾는 거. 실을 뽑구
 앉았으니께는, 아 이눔의 부잣집, 대감집이서 그냥 그렇게 훑쳐가는 거
 여, 여자들. 몰래 와서. 그냥 그래 이냥 물레질을 하고 있으니께, 인자
 아 이눔의 할머니를 업어 갔네, 바꿔서.(조사자 웃음) 할머니를 업어 갔
 여. 아 이눔의 할머니를 업어다가 아랫목에다 놓고서 부인을 삼을려구
 보니까 할머니네. 이눔의 할머니가,

“아! 이눔들, 먹을 거 갖고 오라.”

구. 아랫목에서 그냥 고성대우를 하구.

“아, 이눔덜! 그냥 어서 먹을 거 갖다 대령하라.”

구. 야단을 치구 그랬다. 그렇게 되, 피를 피는 거, 할머니가. 며느리 안
 뺏길라구. [조사자1 : 일부러 안 뺏길라구요?] 며느리 안 뺏길라구. [조
 사자2 : 그런데, 보쌈 해가는 그 쪽에서는 이렇게 부인이 있으면서 다시
 침을 들일라구요?] 아니, 부인이 읊으믄 그러는 거지. [조사자1 : 훑아비
 가 되면요?] 옛날엔 여자가 귀했거든. [조사자1 : 아, 그런게 과부를 이
 령게 업, 보쌈해 온다고요?] 열녀문 세울라구 빠드등 대구 안 갈라구.
 그러믄 그냥 푹 뒤집어 자루에 집어넣구 등끼리 업구 가는 거여. 그런
 게 했다,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한테 들은 거여. 우리 아버지가 그냥, 친구들이 그냥 여럿
 이 훑아비가 됐는데 우리 아버지가 거길 쫓아갔다. 옛날엔 돼지라구, 조
 선 돼지라구 쪼그만 돼지 있지. 고기를 잡아가지구 잔치를 해구 가자구
 그러드라. 술김에 가셨디야, 거기들.

아, 그랬더니 여자를 업었더니 발버등을 치더랴. 등에다가.(웃음) [조
 사자2 : 그럼, 돼지였어요? 그래.] 응. 그래 할 수 없이 업어오면 다시는
 못 가는 거여. [조사자1 : 한번으로요?] 응. 그 집서 사는 거여. 업혀 갔

으면 못 가, 인제. 아주 다시는. [조사자2 : 그쪽 집안에서는 찾을라구 안 해요?] 아이, 못 찾지. 한 번 가면 문 밖에 나가면 그만이야. 대감집에서는, 그냥 문 바깥을 못 나가게끔 돼 있어.(웃음) [조사자2 : 까마득한 얘기다.] 그럼. 못 나가지, 어딜 나가. 아이, 우리네두 그냥 찌그메서 씨커스 구경을 왔다구. 서정이 씨커스 구경을 갔더니, 우리 아버지가 큰 작대기를 그냥 옆에다 끼구매서는 섰다가 아랫도리를.

“어디를 갔다 왔느냐?”

구. 그렇게 후리구 호령을 했는데, 어딜 가. 가기는. 아이구 옛날엔 그렇게 엄숙했어, 옛날 양반덜은. 양반덜은 그랬다구.

5 저승 갔다는 이야기

최승림(64, 여)/전공리T 1앞

[제보자의 대문 앞] 박종수, 강현모, 강경숙, 유홍조, 이은영 조사(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제보자는 신분 문제, 이어서 할아버지에 대한 것, 결혼 풍속에 대해 말씀하였다. 이때 조사자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에 대해 묻자 생각이 났는지 계속하여 구술하여 주었다.

[조사자 :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할머니! 옛날에는 사람이 죽었다가 이렇게 관에다 묶어가지고 염을 해서 관에 넣어 놓았는데, 뭐 조금 지나니까, 하룻밤 지나니까 그 돌아가신 분이 다시 살아 돌아오셨다든가 뭐.] [조사자2 : 그런 일이 진짜 있었어요?] 아 그럼. 그런 건 나도 봤지. [조사자2 : 그럼 얘기 해주세요?]

그러면 옛날이는 인저 사람이 죽으면 매장을 허잖어. 매장을 허면은, 여기도 살은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인자 매장을 해 놓으면, 아 그 사람이 깨어나. [조사자 : 고향에도 그냥?] 응 깨나. 깨어나가지고 짜옥 짜옥이, 일곱 매 묶은 게 짜옥이 나구 그러잖어. 옛날이도 그런 사람도 있다구.

[조사자2 : 그러면 그 분이 저승에 가서.] 저승에 갔다 왔다고 그러지.
 [조사자 : 예. 뭐 만나가지구.] 아 뭐, 저거가 가다가 뭐 잉. 이렇게 강을
 건널라구 그러는데, 이 다리를 건널려고 하는데, 다리를 건널 도리가 있
 어. 고양이, 고양이가 그러드라. 업어 건너르라나 봐. [조사자 : 고양이
 가 죽은 사람어요?] 아니, 인자 도루 건너주었지. 인자 갈라구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최판판이가 ‘너는’ 그런 사람은 그런데. 최진판이가,
 “더 있다 오너라.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래서 온디야. 살아, 살아 나오는 사람은. 그러게 있어 그런게.

6 고려장이 없어진 유래

최승림(64, 여)/전궁리T 1앞

[제보자의 대문 앞] 박종수, 강현모, 강경숙, 유홍조, 이은영 조사(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죽을 때는 입고 있던 옷을 물어 준다거나, 꽃상여, 시체를 묻지
 않고 초분을 하였다든 것 등 상례절차에 관해 말씀하다가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주었
 다.

사람이 옛날이는 한 40만 되면은 ‘에힘’허고 일도 안 해고, 담배대만
 투닥투닥허고 웅달에 앉았었어, 나 불적에도 그래서 하두 지켜워서 고
 리장이 있었는 거. 고리장. [조사자1 : 할머니! 옛날예요?] 고리장이 왜
 생겼는가 하면은, 이 이놈의 저 아버지를 갖다가 인저 고리장을 시키구.

손주허구 아들허구 지계에다 지구 가서 고리장을 이제 밥, 반찬, 먹을
 거. 그렇게 이제 웅덩이를 파고서 사람을 산이로 갖다 집어넣어고 뚜껑
 을 딱 닫아 놓구. [조사자1 : 뚜껑을 닫아요?] 응. 초분을 해 놓고서 거
 기서. 때루다 산 이(사람)를. [조사자1 : 산 사람어요?] 산 사람을. 죽이
 지, 이 죽은, 죽, 죽지를 앓으니까 그냥 옛날엔 그렇게 사람을 산 이로
 갖다가 초분을 해 놓는 거 인저.

아, 고리장을 해 놓구선 지계를 인저 내뻔려구, 이제 지 어머니, 아버지를 내버렸은께, 지계도 내뻔구 와야잖어. 아 지계를 내뻔고 오니까 아들이 있다가.

“아버지! 저 지계 지구 가야죠”

그랬다.

“아, 지계를 지구, 아니다. 지계를 내뻔는 거다.”

그랬다.

“아버지! 그 지계 뒤탈다가, 아버지 또 갖다가 이렇게 고리장 시켜야 되잖아요.”

그랬다. 아 그러는 바람에 그것이, 식이 없어진 겨. 나를 갖다가, [조사자1 : 지금요?] 응. 나를 갖다가 아들이 또 갖다가 고리장을 시킬테니께. 산 이로 고리장을 시켰은께, 인자 아들이 그 지계로다 또 자기를 고리장을 시킬테이께. 그게 읊어졌다. 옛날에는. [조사자 : 살기가 힘들어서, 고려장을.] 살기도 어렵지 뭐. 살기도 어렵지.

⑦ 변기통에 목욕시킨 사람

김명자(67, 여)/전공리T 1뒤

[길가의 텃밭] 박중수, 강현모, 강경숙, 유홍조, 이은영 조사(1995. 11. 4.)

조사자는 앞의 제보자 댁을 나와 장소를 옮겼다. 한 할아버지 댁을 방문하였으나 무척 힘이 드시는 것 같아 조사를 포기하고 새로운 제보자를 찾아나섰다. 마침 길가의 텃밭에서 일을 하시던 제보자를 만나게 되어 이야기를 부딪히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이것은 설화라기보다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화로 보인다.

우리 팔촌 동세가 서울을 갔는데, 애를 데리구 서울을 갔는데, 서울을 츠음에 갔으니 뭐가 뭔지 알아야지.

그래서 애를 목욕을 시키는데, 시방 신식 변기통이 있잖여. 거기에다

애를 들여놓고 이렇게 해구서는 목욕을 시켰데요. 그리구 죄 시키구 물을 퍼서 이렇게서 씻기고 보니까, 그 주인이 들어오니께, 거기가 똥 늪은 거래요. 그렇다고들 깔깔 대구 웃었지.

[조사자3 : 이 제목이 어디 뭐?] 제목은, 화장실에서 목욕시킨 게 제목이지 뭐. [조사자 : 화장실에 목욕시킨 것예요?] 응. 옛날 노인네들은 그렇게 몰랐어. 그런게 얘기할 것이 또 있어야지.

⑧ 도깨비 일화(3)

김명자(67, 여)/전궁리T 1뒤

[길가의 텃밭] 박종수, 강현모, 강경숙, 유홍조, 이은영 조사(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도깨비나 효자, 귀신의 이야기를 부탁하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이 이야기도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마늘을 계속 심으면서 구술하여 주었다.

도깨비 얘기도 읊어졌어. 그 우리 오할아버지가, 옛날에 옛날에 하도 술을 좋아하셔서, 그냥 밤중이면 밤새도록 술 잠수시고 작은 마누래한테 가서 기시다가 오시면은, 도깨비가 흘러서 도깨비 불만 보구 어디꺼 정 간 데요 가면은. 그냥 어디 가서 보면은, 그냥 진수령에, 저 냇갈 또 랑, 냇가 숲에 가서, 거기 인자 자, 자구 그랬대요. 옛날 노인네들은 술이 심해서.

⑨ 영감을 생각이 나게 하는 음환

김명자(67, 여)/전궁리T 1뒤

[길가의 텃밭] 박종수, 강현모, 강경숙, 유홍조, 이은영 조사(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성과 관련된 같은 유형이라 생각이 났는지, 계속하여 구술하여 주었다.

옛날에 영감 생각이 나는데, 각시가. 하루 저녁이로 그냥 문을 열어 놓고 잤다야. 열어 놓고 잤더니, 때로 그냥 있었다야.(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해 주라고 한 분이 말하는 과정 생략)

그래서 과부가 문을 열어놓고 자는데, 사람은 안 들어오고 송아지가 들어와 자고 나가드라.(조사자 웃음) 그래서, 그러구서 천상 남편을 찾으려는, 인제 그렇게 사람이 다 얘기가 있을라면 음환이 있잖아. [조사자 : 네?] 얘기를 낳, 얘기가 있을라면 뭐가 있어, 그 음환이라든가 뭐라 드라.

그게 딱 터지고 있으니까 괜찮드라. 그러고는 영감 생각이 안 나드라. [조사자 : 그렇게 있어요?] 응. 그렇게 그래. 과부 얘기 그 얘기여.

10 호랑이가 살려준 사람

한이순(60, 여)/전공리T 1뒤

[길가의 텃밭] 박종수, 강현모, 강경숙, 유홍조, 이은영 조사(1995. 11. 4.)

앞의 제보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생각이 났는지 이어서 구술하였다. 앞의 이야기를 채록한 뒤에 제보자에게 다시 물어서 채록한 것이다. 이 이야기는 화자였던 할아버지에게 들은 것이라 한다.

그것 얘기도 안 혀. [조사자2 : 뭔데요 괜찮아요] 호랑이가 뭐 나타나 갖고, 뺨스가 그랬다고 허드라고. [조사자] : 아까 얘기 하시는데 그러더라구. 뺨스가 나타나고 호랑이가 나타나던데.] 아니 인자.

손자치고 할머니치고 차갖고 어디를 가는데, 그런데 저기가 굉장히 낭떨어진 저기라. 그렇게 인자 어느 산이서 이냥 호랑이 한 마리가, 그

냥 누런 호랑이 한 마리가 내려오더라. 그러다가 이 할머니가 인자, 아
니 이 할머니가 아니라, 인자 기사 인자 셋을 것 아니야. 버스 기사.
쫓금여. 버스가 못 가고 서니까, 그 사람들이 어찌졌어.

“제일로 나이가 든 양반이 응 내려야지 누가 내리겠느냐?”

고. 버스 안에서 인자 사람들이 인자 웅성웅성 그럴 것 아니야. 그러니
까 그 나이 잡순 할머니가.

“그러면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우리 손자하고 나하고 내리겠다.”

고. 그래놓고 그 할머니하고 손자하고 내리고, 그 버스가 이 할머니 뒤
돌아서 인자 저기하는 디, 그 버스가 그 낭떨어지로 떨어져갔고, 사람이
다 죽어다는데. 그 얘가지 뭐. [조사자 : 그럼 그 할머니는?] 그 할머니
는 살았지.

그러니까 그 산신령이 살려 주었다는 그거지 인자. 그런 얘가지 뭐.
그게 옛날 얘기여.(일동 웃음)

II 가문통을 내 놓소

김명자(67, 여)/전궁리T 1뒤

[길가의 텃밭] 박종수, 강현모, 강경숙, 유홍조, 이은영 조사(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노래를 부탁하자, 옛날에 노랫가락을 배우기는 했지
만 잊어 못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야기를 잘 하신다며 부탁하자 계속하여 구술하여 주
었다. 이때 남자 조사자는 마늘을 대신 심어 주면서 채록한 것이다.

[청중 : 얘기가 아니라, 부모가 굉장히 가난한 집으로 시집을 갔는데,
엄청 가난한 집으로 시집을 갔어 고모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는디 이
냥, 거 삼년 안에 근깨. 향아리에다 뭐 집어넣어도, 거기서 그냥 향아리
에서도 불불 타고, 또 저기치 끄내가지고 또 돼지막에다 놓아도, 돼지막
에서도 이냥 불이 막 벌건게 타고. 그래 그래서, [조사자3 : 아이 불이

보여요, 눈에?) 그럼. 그냥 불이 타는거여. 그냥.

옛날에 하두 가난해서(잠시 일에 대해 말하기 위해 중단) 어떤 사람 하나는 시집을 샀는데, 우리 경주 김씨여. 근데 인제 시집을 샀는데, 하도 어려워서 기냥 굶기를 밥 먹 듯하고 그랬데요 그래서 며느리가, 그런게 인제 친정이루는 딸이구. 그랬는데 친정에 와 가지구.

“아부지! 양반집 양반집만 찾는다구 찾더니, 배가 고파 못 살겠슈. 아부지! 가문통 내놓슈. 가문통 쓸어 먹게.”

[조사자2 : 가문통이 뭐예요?] 시방으로 말하면, 그런게 벼슬 해 먹은 거. [조사자3 : 아, 벼슬?] 그까짓 명이(명예)가 뭐냐 그 소리지. [조사자1 : 감투 말하는 거죠?] 그렇지. [조사자3 : 그걸 그만 두라구요?] 잉.

“명이, 명이 찾구 시집 보내드니, 내가 이렇게 배가 고파 못 살겠다.”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그 가문통, 가문 찾다가 그렇게, 이렇게 배가 고파 못 살졌으니께,

“아부지! 가문통 내놓슈. 가문통 내가 쓸어 먹을래요.”

그러더래요 이제 또 그만유.

12 소금장수 일화(정성드려 제사 지내기)

한이순(60, 여)/전공리T 1뒤

[길가의 텃밭] 박종수, 강현모, 강경숙, 유홍조, 이은영 조사(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끝내고, 조사자가 앞에서 들었던 자장가를 부탁하자 모른다고 하였다. 그런데 제보자는 도깨비나 귀신 이야기가 있다고 하여 해 달라고 부탁하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옛날에 소금장수가, 소금장수가 옛날이 소금장수를 했는데, 소금장수를 하는데, 아이구, 옛날이는 걸어 땀겨든. 차가 읊었어. 차가 읊어서 걸어 땀기는데, 가다가다 인자 길이 저물으니께, 인자 농촌에서 인제 재

위달라고 그래고 그러는 거거든.

그런게 농촌에서 인저, 지끔은 동네가 많지만 옛날엔 한참 가야 동네가 하나씩 있어. 그러니깐, 모이 인저, 아가씨들도 땡기다 보면 편편한 모이 좋은데 있지, 그러니께 따듯하고 그냥 노인네가 그런 디서 그냥 자는 거여. 소금 장수가. 그런디 자다가, 자다가 들으니까. 그러니까 모이가 요기 있구, 요기 있구. [조사자3 : 모이가 뭐예요?] 사람이 죽은 무덤. [조사자3 : 아! 묘 묘를 모이라고 하는구나.] 영. 무덤. 그런게 요렇게 있구 요기 있으니까, 요 가운데서 잔거야. 노인네가. 자다가 들으니까는,

“후-! 내 이냥 밥 은어 먹으려 갔다가 그냥, 이놈의 새끼들이 껏쌌스러워서,(마늘심기 작업으로 잠시 중단) 껏쌌스러워서 저기 손자를 그냥 저기 저 국그릇에다 빠치고 왔지.”

[조사자3 : 그 귀신이 허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 모이 속에서. 모이 속에서. 그래서 인자 그래서,

“요놈의 새끼! 내가 약을 가르쳐 주고 싶구만, 껏쌌스러운게 인자, 애는 울구, 밥에는 그냥 바위가 들고, 바위가 들고. 국에, 국에 가서는 구랭이가 들었지 뭐여. 거기다 내가 그냥 그 이냥 요놈의 애새끼를 갖다 그냥 불구덩이다 쳐 놓고 왔어.”

그러는 거여, 인자. 고게 인자 요렇게 묘가 이렇게 있구, 요렇게 있는데. 고기가 하나는 할머니, 하난 할아버지, 인자 두 내외의 엄마, 아버지란 말이여, 그게. 인자 그러구서 나서 고런게 그 소금장수가 고기서 찾으니까 들었잖아. 그래 인자 들었지. 그래서나,

“요놈의 새끼! 내가 인자 약을 가르켜 줄건데 내가 그냥 왔는디, 그 뭐, 뭐를 하며는 나을텐데, 왜 요놈의 새끼 뭐 껏쌌스러워서 암소리 안했겠어.”

인자 그러는 거여. 아 그래서 요 노인네가, 아 포음허니 이런 노인네가 왜 인제 그 소금장수가 들었지. 듣고서는 인제 날이 흰허게 인제, 날이 흰해지니까는 인제 저기 마을예를 니려갔어, 날이 밝으니까. 그래 가

니까는 그냥 애를 데가지고, [조사자 : 애를 데요?] 데. 데. 불에다가. 불구덩이다 넣고 왔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인제 불구덩에. 옛날 옛날이제는 저기 째어. 옛날에도, 지금도 불 때는 사람 있지마는 옛날에는 전수 낭구에다 불 뗏거든. 그래서 인자 불을 때는데, 인제 국 끄리고 밥을 했구. 인제, 12시면 밥을 해서, 밤 12시면 밥을 해서 지살 지내는 거거든.

그래 그 집이가 지사인데, 인제 구랭이는 국에 가서 머리칼을 떨어지면 구랭이라구 그러는 거여. 귀신은. 그러구 인제 밥에 가서 바위, 바위 이래는 거는 돌팍이 들은 걸 바위이라구 그래구. 그러니까 이 소금장수가 그 얘기를 들었잖어. 그래 인자 그래서는 그 소금장수가 인, 참 날이 밝아서 마을에를, 동네를 내려오니까 애를 디어가지구 야단이거든. 그러니까 그 무덤 속에서 얘기한 소리를 이 니(사람)가 가르쳐 준거야.

“당신네 옛저녁에 엄마 아버지 지사 지냈지요?”

그러니까,

“그렇다.”

구 그러더라. 그래서,

“당신네가 밥을 깨끗이 못했기 때문에, 잉 얘기를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한 것이니까 이 다음에는 정성드려서 지살 잘 지내라구. 그런데 내가 약을, 그 엄마 아버지가 가르쳐 주는 소리를 내가 들었으니까는 저 수채구녕에 가서, 저 물 내뽀는데, 물 내뽀는데 땅이 썩었거든. 그런게 그 흙을 떠, 저 퍼다가 붙여 주라.”

구. 그러구서 얘기를 했어. 그래서는 그렇게 해구, 그러구로 다음부터는 지사를 잘 지내주는 게여. 그 옛날이제는 그런게 그렇게 역사가 그래. 그래서 그런 그렇게 했다구.

13 고려장의 형태

한이순(60, 여)/전궁리T 2뒤

[길가의 텃밭] 박종수, 강현모, 강경숙, 유홍조, 이은영 조사(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잠시 마늘심기에만 주력하였다. 그래서 조사자가 이 마을에 관해 묻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조사자 : 이 동네에 관한 무슨, 어디 가면 무슨 저런 얘기가 있다 그런 거 없어요?] 왜 없어. 어디 가면 고린장 있다고. [조사자 : 고린장이 뭐예요?] 고린장은 옛날에, 지금 저기 노인네들 많으면 저기다가 보내지 않아. 양노원 보내지.(웃음)

옛날에는 그런 데를 못 보내니까는 저 산에다가 양지바른 데다가 구덩이를 파놓고, 밥이고 떡이고 많이 해다 놓고서는 얼마나 아버지 늙은 사람 있으면 거기다 놓는 거야. 그러면 그것 다 먹고 나면 굶어 죽는 거지.

[조사자 : 여기 고린장터 저기 산에 있단 말이에요?] 있었다. 옛날에는 산에도 있었다야. 넘어 산에도 있었다야. 옛날에도 옛날에, 그랬는데 옛날에 그렇게 있었는데, 아들이 아들이 보고서, 커 가니까, 저다가 인자 할아버지 버리고, 할머니 버리고, 저다가.(이야기 도중에 베를 잘못 잡았다고 이야기를 중단함.)

14 나가는 복을 막아준 스님

정순애(46, 여)/전궁리T 2뒤

[제보자의 댁] 박종수, 강현모, 강경숙, 유홍조, 이은영 조사(1995. 11. 4.)

조사자는 마을을 심던 곳에서 조사를 마치고 새로운 제보자를 찾아 나섰다. 그때 어

는 집에 할머니와 아주머니 두 분이 계셔 들어가서 이야기를 부탁하자, 제보자가 선뜻 이야기 판에 끼어들었다.

중이 길을 가다가 인제 날이 저물어가지고 어느 집이를 들어갔는데, 잠을 자는게 밥을 인자 얻어먹고 보는데, 사람을 보며는 팽장히 부자로 잘 살게 생겼데.

근데 이 사람이 복이 읊어가지고 어떻게 가난한지. 아주 그 중이 이해가 안 가더라는 거여. 그 중이. [청중 : 복이 나가서?] 그런데 그 중이 몇 번을 그 집을 가도, 아무리 그 사람을 봐도, '복이 있어서 잘 살게 생겼는데, 어째서 저 사람이 저렇게 못 사는가?' 하고는, 아무리 봐도 그 저기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게 하루 저녁 잠을 자고 자면선, 잠을 자는데, 어떻게 저 잠자는 걸 유심히 보니까, 사람이 잠자는 데도 복이 들어 있데잖아요 [조사자 : 잠자는 데도 복이 들어 있나요?] 잠을. 잠을 잘 자야. [청중 : 그럼 잠을 자야지.] [조사자 : 잠을 자는 것이 자기 의지대로 되는데 아한테 어떻게 해요?] 그런데 자다가, [청중 : 똥 싸는 데도 복이 들어 있디야.] 응. 다리를 '달달달달' 떨드래드만. 다리를 떨드래요 [청중 : 그런게 복이 읊는 거지.] 응. 그런게 인자 자다가 복을 떨, 발로 털어내는 거여 인자. 그래서,

“아! 이 사람이 다리를 털어 내니까, 이 사람이 못 사는구나!”

하고는, 이 중이 그냥 도치 찾아다가 다리를 찢라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인제. 그랬는디 도망가 버렸는데, 인자 다리가 찢라져 버렸는디, 그 후로 나중에 그 중이 다시 찾아와 보니까, 그렇게 부자로 잘 살드래요.

[청중 : 다리가 끊어졌으니까.] 영. [청중 : 복을 안 떨어내니까.] 응. 그 다리를 하두 덜덜 떨어서 복을 털어내고 복을 떨어내고 하니깐. 그래 못 살았었던 거여.

그런데 인자, 그 중이 인제 그 다리를 떨어내빼리고 도망갔다가, 거기 있으면 맞아 죽지. 도망갔다가 인자 몇 년 후에 이렇게 다시 와 보니까

그렇게 부자로 잘 살드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복 없는 짓을 하면은, 아무리 복 있게 생겼어도 안 된다는 식으로 그게 인자 속담이지 인제. 그것도 그러니까 안 하지, 하지 말고 정식으로 잘 살으라 이 말이지. 사람이 희안하게도 밥 먹을 때도 별별 떨고 앉아서 밥 먹는 사람도 있지. 왜 읊까니. 손도 떨고 앉었고.

15 정성드려야 할 젓상

정순애(46, 여)/전궁리T 2뒤

[제보자의 맥] 박종수, 강현모, 강경숙, 유홍조, 이은영 조사(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계속하여 구술하여 주었다. 내용은 앞의 것과 달리 정성을 드려서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소금장수 이야기이지만, 좀 다르다.

옛날에 형제간이 이렇게 살았는데.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려는 이렇게 초본(초본) 밑에다가 산에다 갖다가 여 놓데. [조사자 : 초본이 뭐예요?] 초본이 이렇게 사람을 산에다 이렇게 날개로 해서 엮어 놓아, 엮어서 덮어 놔. [조사자 : 날개?] 잉. 영 엮어가지고서. 영이라고 그러지. [조사자 : 엮?] 영. [조사자 : 영?] 영. [조사자 : 영이 뭐예요?] 영이라고 그러잖아, 짚이로 날개 엮어서. 이렇게. [청중 : 알어요] 그 소금장수 얘기야 이게.

그래 인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초본을 해 놓으면, 이렇게 처마 밑마냥 생기잖아. 처마 밑 마냥요. 작은 어매 그렇지요. 그랬는데 소금장수가 소금을 팔고 오면서, 그개 그 밑에서 잠을 자게 되는 거야. 옛날에는 차가 읊고 걸어다니고 하니까.

근데 하루는 그러드라는 거. 잠을 자는데,

“아무게! 아무게!”

이렇게 불 부르드래, 귀신들이. 그래서 ‘이상하네. 어째서 무슨 소리가 나는가’ 그랬더니,

“아무게! 오늘이 내 날인데, 저기 술 얻어 먹으러 안 갈느냐?”

고 그렇게 소리를 하더라요. 그러니 그렇게 하드랴. 그래 인자 그래서 인자 자다가 가만히 들으니까 그랴드래. 그래서 인자, 그랴면서 인제 귀신들이 인자 자기 제삿날을 찾아가는 거야. 제삿날을 찾아가는 데, 저 찾아 간다고 그러면서.

“내 날인디 안 갈라냐?”

고 인자 그랴면서나 그랴더니, 새벽녘쯤 되더니,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작은 아들은, 작은 아들이 그 제사를 지냈나 봐, 작은 아들이. 근데 하도 가난해가지고, 참 콩을 볶아놓고 제사를 지냈데요. 그러니 인자 큰아들은 먹을만치 사는데, 지사 지낼 생각은 안하고 장작만 패더라요. 장작을. 나무를 패드라는 거여. 그래서나 그 아버지가 하도 부화가 나갔고 저기,

“그 놈의 새끼 다리나 훌딱, 내가 다리를 찢러놓고 왔네!”

그랴드랴 참. 그 귀신이. 지들끼리 얘기하면서. 그랴면서 ‘내가 다리를 찢어 놓고 왔다.’고 그 아버지가 하는 소리여.

“내날이라고 갔더니 먹을 것은 안하고 나무만 패고 자빠졌다고. 그래서 내가 다리를 찢어 놓고 왔다.”

고 그런데 [청중 : 제수를 마련해야 하느디.] 웅, 그러디.

“작은 놈한테 갔더니, 참 내 날인디 갔더니 그렇게 하도 가난해갖고 이 사람아! 콩을 볶아놓고, 콩을 볶아 놓았데, 이 사람아. 잉 그래서 콩을 갖고 왔네.”

그랴면서 그렇게 콩을 갖고 왔다고 하면서 그랴드래. 그래서 인자 그렇게 해 놓고 인제, 그 소금장수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드랴. 그래서 그 동네를 인자 그 이튿날 낮에 찾아가니까, 가서 보니까 참 그 나무 패는 사람이 다리가 도치로 찢었드랴, 도치로 그러

니 그 귀신이 그래, 자기 아버지가 찍어 놓고 왔다고 얘기를 해 주는데 영락없이 그게 맞드래요. 그러면서 그 작은 아들네 집을 갔더니 콩을 볶아 놓고 했다고, 콩을. [청중 : 하나만 해서] 응. 콩을 먹고 있드래요.

그러니까. 그 제삿날이면은요 아들네 집을 다 돌아다닌다잖아요. 그 혼신도. 그래서 제삿날은 이렇게 큰 집으로 제사를 가도 불을 안 끈데요, 그 집을, 자기 집도 안 끈데요. [조사자 : 아 그래서 제삿날 불을 안 끄는게!] 잉. 그래서 불을 안 꺼. 그리고 이 제삿날은 정성을 다 드리라는 뜻이지 그게. [조사자 : 작은 아들에게 정성껏 했는데, 뭐 복 받은 것 없어요?] 그렇지. 복은 받지, 인제. [조사자 : 무슨 복을 받았는데?] 무슨 복을 받아. 복 받는 것은 눈으로 안 보이지만, 손해 보는 건 바로 보는 것 알지. 그런게 나무 패고 있으니께 발을 도치로 찍은 거지. 그게 한 마디로 그게 자기 부모한테 잘 못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참 죽은 사람 조상을 위할 때는, 참 죽은 사람 생각해서 지내는 사람보담도 나를 위해서 지낸다는 사람이 더 많지. 그래 없이 살거니 콩이라도 볶아서 지사를 지내니까, 그 아버지가 하도 고마운게 그 콩을 집어갖고 왔는데는 거여. 집어갖고. 그래서 초분 밑에서 가만히 밥새 들으니깐, 소금장사가 들으니까 그러드라.

16 진정한 친구

정순애(46, 여)/전궁리T 2위

[제보자의 맥] 박종수, 강현모, 강경숙, 유흥조, 이은영 조사(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계속하여 구술하여 준 것이다.

하도 지그 성한테는, 지그 형제간한테는 안 하고 남하고만 그렇게 친철하게 지낸게. 지그 형님이 허는 말이, 인자 그랬어.

“그러면은 저 뭐 술 친구, 막 그런 친구를, 그러잖어. 친구를 이렇게 사귄 때 진실한 친구가 누가 기냐.”

고 그러니까 자기 동생 하는 말이.

“형님! 나는 굉장히 많아요 그 친구가 굉장히 많다.”

고 그러니까. 그러며는 자기 형님이 그랬어. 자기 형님은 친구가 없어. 딱 하나나 둘 백이는 아니고 자기 동생은 인자 엄청 많은가 봐. 인제 술만 먹으면 인자 친구여, 인제. [조사자 : 우리과 선배 중에도 술친구 무지게 많은 사람 있는데.] 그래 갖고 인제, 자기 형님이 동생하고 내기를 했어.

“그라몬은 돼지를 한 마리를 잡아 갖고, 이놈을 가마니다 넣어서 끓어지고 느그 친구들 집을 먼저 가 봐라. 가서 ‘내가 이 사고를 내는데, 이것 사람을 죽였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라.”

는 거야. 자기 친구한테 가서.

“그러면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가 한 번 보자.”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로 인자 내기를 했어요. 누구 친구가 진실한 친구인가. 그래 그 동생이 인자 참 그 돼지를 잡아갖고, 인자 가마니이다 갖고 갔는데. 친구한테 가갖고,

“아이고 이 사람아! 내가 이렇게 사고를 내서 사람을 죽였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느냐?”

고 현께. 친구들이 집이 들어오두 못하게 하더라는 거.

“그걸 끓어지고 나는 해결 못하니까 얼른 가라.”

고 그러더니 이 친구한테 가도 그렇고 저 친구한테 가도 그렇고 가라더라. 동생 친구들은 다 그렇더라. 그래 인자 형님한테 와서,

“이만 저만 이렇다.”

고 하니까.

“그럼, 내가 끓어지고 가마.”

그러면서. 자기 형님이 인자 그 돼지를 한 마리를 질머지고 인자 나

가는 겨. 나가서 그 형님네 친구한테 가갖고,

“아이구 이 사람 아무게야! 저기 뭐야, 내가 이렇게 사고를 내갖고, 이렇게 사람을 하나 죽였는데, 이걸 어디다 묻을까. 이것 큰 일 났네!”
하니까.

“잉, 어서 들어, 가지고 오라.”

고 그 친구는.

“빨리 가지고 오라.”

고 해서 자기 ‘마루 밑에 파고 묻어야 된다’고 자기 마당에다라도 묻어야 된다고 하면서 빨리 갖고 들어오라고 허드래.

“누구 볼까 무섭다.”

고 세상에 그런 친구가 어디 있어요. 작은 어매. 잉. 그런게로 그냥 그 사람이, 자기 동생보고,

“야 이놈아! 봐라. 친구를 사귈려면 이런 친구를 사귀어야지. 너 같은 친구 백 개가 있으면 뭐 하나.”

그라면서,

“이 사람! 이게 돼지네.”

하면서 딱 땅에다 내려놓고,

“이놈, 잡아서 먹고 놀자.”

하면서, 그렇게 먹고 놀드라는 겨. 그런게 아무리 친구가 많으면 뭐 해. 죽게 생기면 나를 구해 줄 수 있는 친구야 그게 친군거지. 근게 필요 없다 이 말여. 그것도 근게, 친구도 잘 봐서 친구를 잘 사귀라는 뜻이야 그게. 그렇게 해야 느끼는 게 아니야. 참 ‘먹고 웃는 친구는 다 필요가 없구나’ 깊은 생각을 그 때 한 거야. [조사자 : 먹고 웃는 친구는?] 먹을 때는 좋고, 돌아서면 끝나지. 아이 그렇게 뭘 잘못된 일이 잉겨 봐. 다 뒤로 다 빠지지, 누가 앞장 서서 일 나서주는 놈이 몇 놈이나 되는가?

17 도깨비 일화(4)

안일남(66, 여)/전공리T 3앞

[전공리] 박종수, 강현모, 김명주, 박지나, 이재옥 조사(1996. 6. 1.)

조사자들이 방문한 집은 이사를 하느라고 분산한 중이었다. 그집 주인 아주머니에게 라면을 얻어먹고는 화성군 지역에서 지낸 산신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채록할 수 없어 집을 나왔다. 그때 걸어가는데 두 분의 할머니를 만나 조사나온 사실을 말하고 부탁하자, 어느 할머니댁으로 가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살아온 사실담을 이야기를 하여 커피를 얻어마신 조사자들이 도깨비 이야기를 부탁하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조사자]1 : 그런데 무슨 산에서 막 그런 일들, 무서운? 그때 우리, 우리 오이할아버지가 장애를 가셨어. 그 때만 해도 장애 가셨는데, 그때 소 팔아가지고 오시니깐 암만해도 그냥 사람이 쫓아올까 봐 무섭잖아. 그러면은 우리 오삼촌이, 옛날 두루매기, 지금은 오바라도 있지만 그전에 두루매기를 입었어. 소 팔러 가셨어. 소 팔아 가지고 오는데,(할머니 들끼리 대화 생략.)

그런데 오이할아버지가 장애를 가셨는데, 아마 그 때가 소 팔기 시작할 때니까, 소장이 쏙고개장애, 고기로 나가시니, 아마 쇠장에 가시니깐 멀리 가시는 시장이여. 그런데 고 하나 산고개를 넘었어. 근데 그냥 이쁜 아가씨가,

“오빠! 어저 언제 오시냐?”

고, 그냥 끌고 가드랴. ‘오빠 어쨌 일이나?’고 그래서 그냥 세상에 산으로 산으로 그냥 끌려대니면서 생각을 해니깐 기가 맥히거든. 그러니젠 가시덤플로 해서 끌고 멩기는 거여, 아가씨가. 그 아까 색시가. 아이 내가 이러구, 그때 풀었으니까, 밤 12시 넘도록. 인자 끌고 다니다가 놀래 가지고 인자,

“안 되겠다.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

이러구. 담배를 피던 성냥이 생각 나가지고, 그때는 성냥이 있잖아.

그 성냥으로 불을 딱 켜 보니까는 도리깨 장대더랴. [청중 : 도깨비 짓이여.] 응. 도깨비여. 도깨비. [청중 : 옛날에 눈에 거시기 했잖어.] 여자가. 여자가 도리깨더랴. 불을 켜고 보니까. 그래구서 보니까는 가시덩쿨에다가 끌어다 놓았더랴. 그래서 갠시니 해서 집이를 찾아 오셨는데, 우리 할머니가 보니까는 이런데 다 찢어진 옷을, 가시덤불 그냥 끌고 땡기고 그래. 옛날에 우리네 그런 소리는 많지.

[조사자2 : 그런 얘기 또 해 주세요?](일동웃음) 아. 그래가지고, 우리 외할머니가 그때 놀래가지고 쇠장사를 안 했다는 거여, 그때부터. [조사자1 : 할머니께서요. 도깨비를 도깨비라고 안하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도깨비가 도리깨나 빗자락에다가 찢칠질만 해 놓으면, 옛날에는 이게 다 도깨비가 되었다는 거여.

[조사자1 : 도루께가 뭐예요?] 도리깨, 도리깨 이렇게 보리 뚜드리는, [청중 : 도리깨!] 도리깨. 거기다 찢칠만 해 놓으면, 그전에는 그게 다 그냥 도깨비가 되어서 지랄을 했다는 거여. [청중 : 몽당 빗자락, 몽당 빗자락 이런 거에다가.] 그래서 불을 켜 보니까, 도리깨 장치가 되드란 거여.

[청중 : 그때는 장력이 있으면, 그냥.] 그렇지 뭐여. 담력이 시니까 살지. 담력이 없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요. [청중 : 옛날에는 지랑풀, 이렇게 해갖고, 그 지랑풀 붙들려 밤새도록 씨름을 했드래요. 도깨비여.] 응, 그게 도깨비여. [청중 : 그러면 날 새고 보면은 그게 지랑풀이여.]

18 도깨비 일화(5)

안일남(65, 여)/전궁리T 3앞

[전궁리] 박종수, 강현모, 김명주, 박지나, 이재옥 조사(1996. 6. 1.)

앞의 도깨비 이야기를 마치고, 화장실 귀신에 대해 묻자 그곳에는 달걀귀신이 있다고

하면서 구술한 이야기이다.

[조사자1 : 화장실에 관한 귀신 얘기 없어요?] 아이구 왜 화장실에 노인네들 그래가지고 달걀귀신 있다고 그래가지고 잘 가지도 못했지.

옛날에 왜 우리 만날 여 돌아갈시려면 장씨네 달걀귀신.(웃음) 그래가지고 우리 가지도 못 했어. 저 집에 저기에 도깨비가 있다고 도깨비 있다고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 골목에 잘 가지도 못했지. 그래가지고 담장 하나가 떨어져가지고 이 다음에 죽어요.

[청중 : 저 집은 술단지, 저기 술뚜껑을 술 속에다 집어넣고 그랬었다며. 그랬디야. 그 집이. 묘자락 파다가 그냥 그대로 집어 넣쓰고] 그 같은 날에는 속에다 넣어서 밥을 못해서 못 먹고. 이튿날 자고 나며는 그걸 빼놓고 그랬디야. 그래 봉태네 그랬다고 혀. 뭐 모래판에다 문에다 막 깨뜨리고 [청중 : 잠 잘려고 하면.] 잠 잘려고 하면. 그래서 도깨비가 그랬다고 해.

[조사자2 : 그 집에 살아요. 지금?] 안 살아. 비였어. [조사자2 : 폐가 됐네요. 그럼.] 그래 워낙 부자니까 서울로 집 사가지고 가고. 여기 옛날 노인네들이 살아서 추억되었다는 역사가 깊은 집이여. 자기네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지어놓은 집이라 헐어놓으면 와서 또 메꿔 놓고 다시, 다시 지어 놓고 그려. 참 큰 집이야.

19 바람 때문에 망한 여인

안일남(65, 여)/전공리T 3동

[전공리] 박종수, 강현모, 김명주, 박지나, 이재욱 조사(1996. 6. 1.)

앞의 도깨비와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고 먹는 것에 대해 5분 정도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사실경험담과 혼속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조사자가 음담패설과 같은 이야기도 필요하다고 하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조사자 : 할머니. 옛날에 야한 얘기. 음담패설.] 응? [조사자 : 야한 얘기.] 야한 얘기면, 저기 우리가 방우리에 살다가 우리 아버지가 여기 로다가 양자를 가셨어. 양자를 여기로다.

나 열한 살 먹어서 양자를 가셨는데, 참 재산이 엄청 많은데 자식이 없어, 그 사람이.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양자로 거기 아들 훙내를 냈지. 동기간 이니까, 아들이 없으니게. 우리 할머니가 그리 양자를 보냈잖아, 우리 아버지를.

근데 재산은 많고. 그 노인네가 양자한 아들한테 줄라니까 아깝거든. 그래서 재산을 다, 그래서 뭐 아깝지 뭐여. 그 재산을 다 그냥. 그러니까는 저 어디서 말마당이라고 있어. 말마당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우리 할아버지에 사촌인가 사촌 누이가 살았는데, 아들 하나는 공부를 워낙 많이 해서 학교 선생이었어. 그리고 딸만 성(형)제여. 딸 성제에 아들 하나 삼남매를 두었는데, 그런데 내가 나이 열 살인가 몇 살인지 나도 모르겠어. 아무튼 조금 알았어.

우리 할머니가 부자니께는 일꾼을 두고 해 먹었는데, 그 애들을 뒀어요. 애들을 뒀어. 한 20세, 이 정도 넘지한 머슴을 두었는데, 근게 딸 하나하고 일꾼하고 세 식구 되었어거든. 그러니까는 그 할머니가 어디를 못 가는 거여, 딸 땀에. 일꾼도 젊지 딸도 있지. 그러니젠, 어디를 이 노인네가 못 가시는 거여. 나더러 들어와서 여기 아줌마하고 자라는 거여, 거기서. 근게 맨날 짝금한 게 뭐 알았어. 재워놓고 얼마나 되야지.(웃음)

그때는 뭘 알아. 근데 거기서 자긴 자는 거여. 내가 자다 보면 없어요. 막 아줌마가 없어 졌어. 그 때는 뭐 이상하다 소리도 못하고, 뭐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랴. 내가, 옛날이는 껌껌할 적에 개떡을 잘 했잖아. [청중 : 그려. 개떡이.] [조사자 : 밀가루 가지고요?] 밀가루는. 얼마나 부자집이라 미숫가루도 많이 하고, 밀가루도 많고. 인자 떡 해서 맨 들어서 나를 찌시는 거여.

“너! 할머니더러 나 같이 안 잤다 그러면 너 혼난다.”

고. 그래놓고는 막 찌시는 거여, 나를.

“아이구! 큰일 났다.”(웃음)

그러구서 거기 잘 얻어 먹는 거여. 그 아줌마가 잘 해 줘.

“뭐 먹고 싶으나? 뭐 없으면, 뭐 먹고프나?”

이러면 잘 해 주거든. 인자 허다 보면 일꾼이 와서 불을 때 준다 말
이여. 항상 아침이면 아침에 들어와서 불을 때 주고, 낮에 물 데워 주고
이러는 거여, 남자들이. 그랬는데 아무 것도 읊는 놈이 머슴을 살어. 이
집이 부잣집이니깐 머슴을 둔게 아니여. 농사짓기 위해서. 아들은 선생
노릇 하고 나가서 있고. 그래서 할머니가 아들네 집을 갈라면, 나를 거
기 갖다가 거기다 놓고 간 거여. 그래 그까짓 거 백날 갖다 놓으면 무엇
하는 거여.(일동웃음) 조금만 것이니까 피시니까.

[조사자 : 그래 나중에 안 들켰어요?] 왜. 안 들켜!(웃음) [조사자 : 꼬
리가 길면 잡힌다더니.] 그럼. 아! 할머니가 오셔서

“너 엿저녁에 아줌마하고 잤었니?”

“예!”

“같이 잤어?”

“예! 자다보면 없어, 아줌마가!”(웃음)

그러니까 이 아줌마는 이제 야단나는 거여. 그래서 나를 불러다 놓고
막 야단치고 지랄하는 거여. 그 아줌마가 잉.

“같이 나하고 잤다고 그러지. 잉 내허고 잤다고 그래라고 했더니, 왜
혼자 잤다고 그랬나?”

거짓말을 했더라면서. 자고 보면 없어졌는데 어떡해 무서운데. 그냥
그랬지 뭐. 할머니가 있는데, 아줌마는 나를 잡아다 놓고서 양쪽이서 물
어오는 거여. 할머니 물어 보시지, 아줌마 물어 보시지. 나는 어떡게 해.
그러니까 현대로 그냥 허는 거여. 그게.

“자다 보면 아줌마가 없어졌다.”

그러렇게 분명허지 뭐여.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그때만 해도 남편의 정
체를 몰르지. 모르긴 모른데, 그냥 아줌마가 배가 불러오는 것여. 배가
불러오니깐,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심란하니까 통곡을 허고서 우는 거

여. 그러니까 재산은 많은데, 그 일꾼을 그때 주기도 너무 억울하거든. 일꾼 주기는 너무 억울해. 그러니 자기는 상속자 읍지. 자기 오빠는 선생, 옛날에 선생이로 댕겨. [청중 : 사람이 착실하면 되지.] 착실하면 뭐여. 착실헌 것도 모르고 애들은 뭇 알아. 착실헌 것도 모르고, 저 산 것도 모르는데. 그냥 할머니가 얘기하면 나도 그냥,

“한 혼차 잤다.”

그랬어. ‘한 혼차 자고 왔다.’ 그런게 그 모녀지사, 그저 할머니가 막 야단을 치는 거여. 그러면 이것 말도 못하고 그냥 그때, 일꾼도 그냥 제대로 들어와서 밥을 못 먹었어. 그리고 나를 데려다가 얘기 허면 아저씨라고 그랬어.

“아저씨 어떻게 지냈어. 너 그래 이즘마 읍나?” 고.

“그래 자다 보면 없어졌어.”

그래 그 해 어린애가 있었어. 그 인공치고 난리가 났던 해, 집안이 그 난리가 나고 세상이 그러니 그것 째매 주지도 못하고, 째매주는 것도 모르지 않았어. 그래 그 사람하고 결혼식 시켜 주고 그냥 데릴사위로다가 들어선 거여.(이후 청취 불능) 옛날 얘기 내가 많이 해 뵈어.(웃음)

㉔ 애 낳을 때 개 잡고 벌 받은 사람

안일남(65, 여)/전궁리T 4앞

[전궁리] 박종수, 강현모, 김명주, 박지나, 이재옥 조사(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제보자가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해 몇 마디를 나누었다. 그리고 이때 민속에 대한 이야기와 비슷하게 구술하여 준 것이다.

왜 댕겼느냐 하면, 나는 아들 낳으려면 일주일씩 비손이라고 뭐 해다 나르고 빌고 뭐. 뭐. 맨날 그러는 거여. 응 아니 그래서 일년에 한 번씩

긋을 해. 한 번씩 긋을 해야 애가 크다 이거여. 그러니깐 애미 맘은 해
야지 안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 미치겠어.

근데, 영구 아버지가 개를 먹어야 된다는 거여, 애를 낳으려면. [청중
: (웃음)근게 그게 그 소리였구먼.] 응. 개고기를 먹으면은 기운이 나가
지고 쉽게 낳는다고 배 속에 어린애 들어 있구. 그래가지고 개를 낳다
그게 소문이 낫다는 거여. [청중 : 그러. 개 낳다고 그랬잖어. 킁킁.]
아니여. 킁킁 안 하고, 영구아버지가 개를 잡으러 갔다고 나는 배가
아픈데, 개를 잡으러 갔다, 그 개를,

“아니 나 애를 낳라고 그러는데,”

그런게 기운이 나서 얼른 낳는 디야. [청중 : 개 잡은 사람이, 인제 개
를 낳으니깐. 내가 그 소리 듣고, 저 마누라 개, 개를 낳다고 그래서 ‘어
머나 개를 잡으러 갔더니 인식네가 어쩐다냐. 아고! 개를 잡으러 갔으니
까, 진짜 괜찮을 진짜 개를 잡으러 갔으니까, 개를 낳구나]

아니여. 개는. 개를 낳은게 아니라. [청중 : 개 낳은게 아니라. 그게 반
은 강아지.] 강아지가 아니라, 이것 사람이 나왔는데. 하얀 풀칠을 해고
나왔어. 하얀 풀칠을 해서 나오고. [청중 : 털이 있드랜데.] 털이 읍었어.
내가 본걸. 본 사람이 있는데.

[청중 : 얘기받는 이.] 받은 사람도 우리 고향 사람이 받은 거여. 그러
니까 저기 했는데, 그냥 하이얀 분가루를 칠하고 나왔더라니께. 이렇게
보니께. 하얀 분가루를 칠하고 나오고, 손발은 다 있어. 환성은 다 있어.
사람인데 그냥 하얗게 나오니젠 이 노인이 그냥 놀랜 거여. 이 노인네
가 지지려 쓰러져 쪼버렸지. 하얗게 나오니께. 눈도 이렇게 빠졌어. [청
중 : 거 봐.] 그러니께 눈도 빠졌어. 그래

“왜 그렇게 됐느냐?”

허니께. 영구 아버지가 그러는 거여. 자기는 어린애 낳 낳다구 그래가지
고 개를 안 잡았는데, 그런데 딴 사람이 잡았는데, 가서 태울려고 그러니
께 개가 벌떡벌떡 일어나드라. 그래서 그제 부화가 나설랑 뒷통수를 몽
땡이로 때려 죽였데. 그래가지고 글세 그 어린애가 눈이 다 쏟아진 거여.

[청중 : 어휴. 세상에.] 그래서 그 개새끼 낳았다고 그러는 거여. 그 맨튼게 아니고, 몸뚱이는 다 사람이여. [청중 : 사람 모양을 했는데, 몸뚱이가 이상하다고 그런 거여.] 몸뚱이는 하얀 분가루로 칠했어. [조사자 : 풀요?] 풀이 아니고 분가루를 하얗게 칠하고 나오고, 눈이 앞으로 툽 빠졌어.

그리고 얼마나 무서워서 어린애 받는 사람이, 그 눈이 나왔으니 얼마나 무서워. 그레가지고서는 이냥 그 노인네는 충격받아 내가 죽을 것을 봐, 그러니까. [청중 : 그렇지.] 그래서 있는게 싫은 거여. 나, 나 간다 그랬지. 글썸. 그런 일이 있었던 거여.

3) 민요

① 자장가

최승림(64, 여)/전공리T 1앞

[제보자의 대문 앞] 박종수, 강현모, 강경숙, 유홍조, 이은영 조사(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벼의 나락을 훑는 것에 대해 말을 하였다. 조사자가 청이 좋다고 일할 때나 시집살이 할 때 부르던 민요를 부탁하자, 시집살이 못했고 시어머니가 부르시던 것을 들었다며 불러 주었다.

[조사자2 : 손주들 재울 때 하는 자장가 같은 거요?] 자장가? 우리 할머니가 했거? 우리 할머니가 그러대.

금자댁아, 옥자둥아

우리 애기 잠 잘잔다. (그래대)

금을 주니 우리 애기를 사나

금을 주니 우리 애기를 사나

우리 애기 잘도 잔다. (그러대)

역

백

11. 원암리

1) 마을개관

박종수, 강현모, 서현민, 양성수, 임공택, 정민희 조사(1995. 11. 4.)

원암리는 남사면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마을로, 용인터미널에서 남사면 봉무리까지는 직행이나 완행 버스를 타고 와서 다시 안성시 지역으로 가는 버스를 갈아타고 도착하였다. 마을이 산계곡을 끼고 동서로 길게 뻗어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논보다는 밭이 많다.

원암리는 우아미라고 하였는데, 용인군 남촌면 지역에 속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우아미, 외미, 사기막 합쳐 원암리라고 하여 남사면에 편입시켰다. 이 마을을 이루고 있는 작은 마을을 보면, 외암동은 외미라고 부르는데, 원암동인 우아미의 바깥쪽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리고 사기막은 옛날에 그릇을 굽던 사기점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2) 설화

① 죽지 못한 사람

정박규(69, 여)/원암리T 1앞.

[원암리] 박종수, 강현모, 서현민, 양성수, 임공택, 정민희 조사(1995. 11. 4.)

원암리 주민 몇 분에게 이야기를 청했으나 모두 거절하여, 지나가는 아주머니에게 누

구 옛날 이야기 잘 하시는 분 없느냐고 여쭙자, 때마침 정박규 할머니가 밭에서 일하시는 걸 보고 소개해 줬다. 이 제보자는 유난히 조사자에게 호의적으로 대해 주셨고, 입담도 좋은 분이어서 이 동네분들은 모이면 정박규 할머니가 수수께끼도 내고 옛날 이야기도 다 하신다 했다.

하도 힘이 들어서 목을 매서 죽을라고 산에 가서 목을 매니께.

“이놈! 너 쓰레기 석똥을 누가 다 먹으라고 죽느냐? 어서 그거 빨리 풀러라.”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목을 못 매고선, 그 쓰레기 석똥을 다 먹고 죽을려고, 그걸 목을 매지 못하고 풀렀다지 뭐여. 뭐 옛날 그런 얘가지 뭐.

[조사자 : 그런 얘기 괜찮아요]

② 청실홍실 천생 연분

정박규(69, 여)/원암리T 1앞.

[원암리] 박종수, 강현모, 서현민, 양성수, 임공택, 정민희 조사(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결혼한 일에 대해 묻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남녀의 연분은 이미 전해져 있다는 내용이다.

그래 이젠, 옛날에 지금들은 서로 연애를 걸고 그러지만, 옛날에 어떤 사람이 30을 먹고 장가를 못 들었는데, 거디(어디)를 가느라고 가니까 고개서 할아버지가 명주실을 감고 있드려. [조사자 : 명주실여?] 으.

“그래 할아버지! 그 실을 왜 감으시느냐?” 고

“아, 나는 백년 촌(婚)을 맺어 주는 사람이라.” 고.

“그 할아버지! 나는 여적지 30살을 먹어서도 장가를 못 들었으니, 어떻게 하느냐?”

고 하니께.

“으-으, 자네는 지금 3살 먹었어.”

[조사자 : 3살요?] 잉, 3살. 배필이 인저 3살 먹었다고 그라드랴. 그 여자도.

“그러면 그 3살 먹은 애가 어서 사느냐?”

고 그라드랴. 그래서,

“저기 아무 동네를 가면은 그 할아버지가 정자낭구 밑창에다 애를 재워 놓고 새를 볼테니 그리 가 보라.”

고 그래.

“내 요놈을 것을 죽여야만 내가 여자가 있지. 이걸 언제 길러가지고 장가를 드느냐.”

고. 그 애를 배를 푹 찢러 놓고 그냥 도망을 간거지 뭐야. 그래 그래고선 10년이 됐는데, 혼인말이 들어오드려요. 그래서 13살을 먹었대드레. 애이, 그래 인제 40이지 뭐여, 10년이니께. 그래서 이때 저때도 다 놓치고 인제 장가 뭐 안 들 수가 없다고. 그래 들어야겠다고. 그 색시를 저, 결혼을 할라고 날을 잡아서 결혼을 해가지고 첫날밤에 자니께, 배를 더듬으니까 숨(흉)이 숨직하드래요. 그래서,

“도대체 이 숨가는 왜 있느냐?”

고. 그래서,

“나 어려서, 세 살 먹어서 할아버지가 정자나무 밑차다 재워 놓고 새를 보는데, 어떤 사람이 칼로 찍었다.”

고. 그래서 그 남자가 탄복을 했테요.

“아무 때라도 내 부부가 되는 거를, 이걸 앓느냐고 얼마나 고상을 했을까?!”

라고. 그냥 신랑이 그 한탄을 했다지 뭐여. 그래서 그냥 부부가 됐다. 그런 얘기나 하는 거지 뭐. [조사자 : 예 그런 얘기에요. 잘 하시네요. 많이 아신다.]

③ 아내가 먹는 것을 아끼지 말라

정박규(69, 여)/원암리T 1앞

[원암리] 박중수, 강현모, 서현민, 양성수, 임공택, 정민희 조사(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 또다른 이야기를 부탁하자 무엇이 있을까 잠시 동안 생각이 잠기었다. 그러다가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준 것이다.

기(쥐)나 기집을 먹는 걸 애끼지 말랬다는 거. [조사자 : 기나 기집 여?] 그러. 기집이나 쥐나 먹는 거 애끼지 말고 먹게 두라는 거여.

어떤 사람이 마누라가 있는데, 마누라가 먹는 게 너무 먹어서 못 살 것 같아서 여자를 자꾸 얻어 들였데요 언더래도 그냥 밥을 많이 먹고 그래서, 결국 또 버리고 또 해서 또 아홉번째 인자 얻었데요 여자를.

이 여자를 인제 아홉번째 얻을텐데, 선을 보래더래. 그래서 보니까 꼭 입이요 달기 눈만하게, 쪼그만 눈인데, 공기에다 밥을 가지고 그냥 쪼끄만 저 젓가락을 가지고 한 알갱이를 넣어서 먹고, 그 밥을 다 못 먹더라.

“웁다. 내가 저 마누라를 얻으면 잘 살겠다.”

그래서 그 마누라를 얻어 왔는데, 개가 아홉 마리 쌀이 아홉 말인데, 날마다 나물(나무를) 갔다 오면 이놈의 개 한 마리, 낭구 쌀도 한 말이 없어지는 거여. 그래서 이상하단 말야.

그래서 하루는 쌀 한 말, 개 한 마리가 남았는데, 이 남자가 낭구를 간다고 지켰지, 뭐여. 그랬더니 여자가 나오더니 개를 두들겨 패서 잡, 꼬실려 구고 또 저기 쌀 한 말을 굶어다가 그 가마솥에다 밥을 해서, 개를 한자(합지)박에다 떠서 바가지를 띄우고 밥을 퍼서 주걱으로, 하얏튼 정수리를 쓱 헤치고선 거기다 한 주걱 퍼 붓고, 국을 퍼 붓고 밥을 퍼 붓고, 그래서 남자가 나와서,

“나 보는 데는 이케 안, 안 먹더니 이게 뭐냐?” 니께.

“이놈! 내가 니가 먹는 사단을 하두 해서, 내가 불아귀 귀신이니께 너도 마저 들어가라.”

고 그 남자도 잡아다 거기에다 놓다.(일동 웃음) 그런 얘가지 뭐.

④ 효자래도 부부만 못하다

정박규(69, 여)/원암리 T 1앞

[원암리] 박종수, 강현모, 서현민, 양성수, 임공택, 정민희 조사(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효자에 관해 물었다. 그러자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준 것이다. 이 이야기는 아들보다 아내가 낫다는 내용이다.

아무리 자식이 효자래도 이 부부만 못하다는 거여.

거 옛날에 세 살 먹은 아들을 두고, 마누라를 두고서 버려 놓고 나간 거지 뭐여, 남자가. 나갔는디 그 아들이 하고 옛날에는, 지금같이 이렇게 사는 세상이라서 벌어 먹는 고통이 크지 뭐여. 그래서 거지가 되가지고 쫓대, 그래. 그 아들이 장남을 해서, 하니까 그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니께 인제 찾아온 거 아녀. 찾아 오니께 마누라, 배깁에서 찾더래요 그 아들 이름을. 그래 나가니께, 마누라가 가만히 듣자니께,

“내가 느 아버지다.”

그러니께. 그 아들이 하는 말이,

“나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길을 잘못 찾으셨다고. 다른 데 가 보시라고. 내가 아버지가 있으며는 이 거지 노릇을 하겠느냐고. 나는 부모가 없다.”

고 그러니께, 그 마누라가 나오면서,

“들어 오라.”

고. 이제 영감을. 뽕편을. 들오라고. 그러니께 그 뽕편이 하는 말이,

“제 말이 맞다구. 나는 여기 아들한테 있을 자신이 안 된다.”
고. 그래 뒤를 돌아서 가는 거지 뭐여. 여자는, 마누라는 들어오래도 아
들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인저 그 어머니가 아들보고 하는
말이,

“부모, 좋아도 부모고, 망, 망해도 부모지. 부모없이 네가 이 세상에
나왔겠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인저 그 아들이 생각을 하니께 참 그렇더래요. 그래서 쫓아나
가 그 아버지를 붙잡으러 나가니께, 벌써 물에 빠져 죽었더래요. 그런
얘기지 뭐 옛날 얘기.(웃음)

⑤ 형의 패철을 훔친 가짜 지관

정박규(69, 여)/원암리T 1앞

[원암리] 박중수, 강현모, 서현민, 양성수, 임공택, 정민희 조사(1995. 11. 4.)

조사자는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또다른 이야기를 부탁하였다. 그러자 잘 생각이 나지
않는지 이야기를 잊지 않았다. 그래서 풍수나 지관에 관한 이야기가 없느냐고 묻자 구술
하여 준 것이다

① 패철이 울어 잡아준 묘지

옛날에 형이 지관 노릇을 하고, 동상은 지관이 아닌데 무척 가난하고
형은 잘 살더래요. 도저히 그 지관을 할, 할 수 없더래요.

그래서 한 날은 형 옷을 훔쳐 입고 나갔데. 그래 형, 훔쳐 입고 나갔
는데 아침에 일어나보께, 형이 옷을 보니께 옷이 없는 거지 뭐여. 그래
서 동상이 훔쳐 입고, 입고 간 생각이 나서,

“아,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망신을 안하고 괜찮을까?”
하고. 하나 형이 고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어디를 그 갔더니, 상가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남철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놓고 산소자리를 보는 게 있는데. 그걸 놓고 혼자 인자 상제들도 읊고 혼자 이렇게 보는데, 그 동안 상제가 배깁에서 이렇게 문틈으로 디다 보니까, 그 지남철을 놓는데 그 지남철이 떨어면서 이렇게 남쪽으로 그게 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 상제가 문을 열면서,

“참, 지관님! 용하시다고. 그러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저쪽 남쪽 기슭에다 묻어 달랐는데, 참 이렇게 참 용하시다.”

고. 그러니까 아무 것도 몰르고 돈을 벌어난 거지 뭐여.

② 칠삭동이 낳은 여자를 구함

그래, 또 한 군대를 가니까, 또 상가집을 찾아 갔더니, 상제, 한 소복한 사람이 들어 왔더라고요. 아버지, 시아버지가 화에 죽었대, 화병에. 그래 무슨 화병에 죽었나 하믄, 며느리가 시집을 온 지 일곱 달만에 칠삭동이를 낳대. [조사자 : 칠삭동ियो?] 응.

“칠삭동이를 낳는데, 양반의 집에서 이렇게 칠삭동이를 낳다고 그냥, 그 시아버지가 그냥, 아주 그냥 냄새 부끄럽고 그렇게 애걸을 하다가 화병에 돌아갔는데. 이제 장산데, 그래서 그 이것을 낳 한 마디 해 달라.”

고 그러드라.

“내가 그러믄, 당신 소원대로 내가 얼마를 줄테니 해 달라.”

고 해서.

“우리 산소가 우데(위의 대) 산소가 아무 데가 있으니, 거기 가서 이렇게 해 달라.”

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우데 산소에, 산소 자릴 잡으러 가서 이렇게 산세를 가 서서 이렇게 보더니,

“아, 여기 몇 대 몇 손 칠삭동이를 나리라.”

이렇게 해 줬대. 아 그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영감하고 한 걸, 그걸 헨 거를 이렇게 팔자에 있는 걸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화병에 돌아가셨다.”

고. 그래가지고 그 여자한테 그 있는 그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③ 우연하게 맞는 풍수

또 한 군데는 가니께, 산소자리를 도무지 모르는 거지 뭐여. 그래서 장사집이만 찾아가서 인자 한 군데를 갔더니, 산소자리를 봐 달라지 뭐여. 그런데 이 놈이 뭐 도대체 뭘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산엘 가서 묘이에 가, 올라가서.

“뻘다. 뻘다.”

이랬다. 할 말이 읊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시체가 뻘나 보다고. 그래서 산소를 막 파헤치니께, 그냥 물이 이렇게 한강이 신체가 떠 더래요. 그래 사람이 때가 있으면, 아무 짓을 해도 벌어 먹는다는 거여. 그래가지고 그 지관 노릇을 해서, 큰형은 이냥 맞나, 동상이 어디서 매를 맞고 오나 걱정을 하는데, 한 날은 보니께 동상이 잔뜩 지고 콧노래를 부르고 오더래. 그래서,

“난, 너 어디 가서 맞아 죽은 줄 알고, 내가 며칠을 몇 날을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었는데, 너는 어찌 콧노래나?”

“아휴! 형님만 벌어 먹, 벌어 먹습니까? 저도 지관 노릇 잘 하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상이 부자가 되더래요.(일동 웃음) 그래서 사람이라는 건 때가 있는 거지. 아무 때도 사는, 아무리 살려고 노력을 해도 때가 있다는 거요. 그래 다 했어.

[6] 어린 아이의 지혜

정박규(69, 여)/원암리T 1앞

[원암리] 박종수, 강현모, 서현민, 양성수, 임공택, 정민희 조사(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계속하여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준 것이다.

한양, 한양이 서울 아니여.

“한양 뭐 뒷집 박서방네 가서 빛을 갓고 오래.”

드랴. 그러믄 [조사자 : 빛요?] 빛을. [조사자 : 머리 빛는 빛?] 아니, 빛을. 돈 빌려서 갓는 빛. [조사자 : 아, 돈 빛] 돈 빛을 갓으라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 문제를 풀어서 거길 찾아야 하는데, 도저히 못 찾겠 데잖여. 그래 이렇게 길을 가니까, 애들이 싸우면서 막 울더라무랴. 그래서,

“야 니들, 여기 저기 한양 응, 뒷집 박서방네가 어디냐?”

라고 그러니까. 때린 애가,

“모른다.”

고 그러니까. 그 우는 애가 하는 말이,

“사람을 때려도 그런 것도 모르냐.” 고

“저기, 이 펄펄 저 펄펄, 이 후럭 저 후럭, 이 똑딱 저 똑딱, 뒷집 박서방네라.”

고 그랬데요. 그래서 그게, 그걸 얘기를 해 준게, 그걸 문제를 풀어 주더라고요.

“그 이 펄펄 저 펄펄은 서울 포목장에 비단이 펄펄 날르는 거고. 또 이 후럭 저 후럭은 팔죽 먹는 거고. 이 똑딱 저 똑딱은 대장집, 대장집이고. 그 뒷집은 나라의 임금님이래.”

그 애가 문제를 풀어 주더라고요. 그 쪼끄만 애가, 우는 애가.(일동 웃음) 요것도 수수께끼여 이게. [조사자 : 이 펄펄 저 펄펄] 이 펄펄 저 펄

펼, 이 후력 저 후력, 이 똑딱 저 똑딱 뒷집 박서방네가 어디냐? 그렇게 하니께, 그 애가 문제를 다 풀어 주더러잖여. 서울 한양이라고.

7 사돈집에 가서 실수한 사람

권유순(74, 여)/원암리T 1앞

[원암리] 박종수, 강현모, 서현민, 양성수, 임공택, 정민희 조사(1995. 11. 4.)

조사자들은 앞의 제보자에게 조사를 마치고 새로운 제보자를 찾아 옮기게 되었다. 마을 길을 따라 어떤 집에 가니, 앉아서 쉬는 한 할머니에게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자 이야기를 구술하여 주었다.

딸을 시집을 보내구서는 보내면서,
“나 느집에 가글랑 팔죽이나 쑤어 달라.”

그러니까. 그래서 딸을 시집을 보내고 있다가, 인제 딸내 집을 갔어. 그랬는데 딸이 참, 팔죽을 쑤어 왔는데, 그렇게 먹고는 앉아 얘기하고, 두 사돈이 놀다가는 잘 때 되니까 그놈 팔죽을 더 먹고 싶어서. 인제 자는데 가만히. 딸이 인제 왔는데,

“애, 팔죽 남았니?”
“예, 남았어요”
“그러든 어따 됐니?”
그러니까,
“안방 다락에 됐다.”

고. 자다가 인제 팔죽을 훔쳐 먹으려고 그 방을 들어간 거여.(웃음) 들어 갔는데 들어가서 팔죽을 안고 나오다가 예전엔 이렇게 저기 노끈으로 자리 매, 자리 매는 매고. 자리 매는 것 모르지. [조사자 : 자리 매는 거요?] 응. [조사자 : 예, 알아요] 왕골로. 자리 매는 거 그 노를 인자 간격게 앉아서 이렇게 끈다구. 그러면 거기다 대추나무로 이렇게 모두 입

구자를 그 해서 돌을 이렇게 꺾 내려오다가 이렇게 잡아 땡겨. 그러며는 이렇게 엮어져.

천장에다 매달았는 데, 나오다 거 왕골자리에다 상투가 걸린 거여.(웃음) 상투가 걸려서 이리 돌려도 안 되고 저리 돌려도 안 돼고 그냥 그러더라. 그래서, 그래서,

“아, 사둔! 윗 사둔 다르고, 저런 사둔 달라유.”

아주, 저는 점잖은 척 하고, 안 사둔이 붙잡은 줄 알고 안사둔이 붙잡은 줄 알고 ‘이럴 사둔 달르고 저럴 사둔 달르다고 놓으랴’고. 그래서 하도 그냥 안 놓고 실갱이를 하다가 그냥 오줌이 다 나왔드랴. 근데 사둔 색시 자는 입에다 오줌을 넣지 뭐여.(웃음) 그러니까 색시가 자다가, “엄마! 엄마! 내 입에는 뭔가 찢질한 게 떨어진다.”

고. 그러니까 그냥 사둔 마누라가 일어나서 불을 키고 보니까는, 사둔이 상투가 걸려 가지고는 그라고 매달려 있더라. 어휴, 그게 무슨 망신이여 글썸.(웃음) 그래서 그냥 이냥 아침에 이냥 부끄러워서 그냥 도망쳐 나왔지. 사둔집에서.

⑧ 방구 때문에 벌어 먹은 며느리

권유순(74, 여)/원암리 T 1앞

[원암리] 박종수, 강현모, 서현민, 양성수, 임공택, 정민희 조사(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들이 ‘또 없어요’ 하고 묻자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준 것이다.

한 사람이 도둑질을 갔는데, 가서 도둑을 인자 다 훔쳐 가서 지계에 다 잔뜩 짊어 놓, 지나가는 뉘.

“핑! 핑!”

해는 소리가 나더래. [조사자 : 펑펑하는 소리요?] 그래서 들여다 보니까 방구를 끼고 있는 거여. 그래서 들레들레 보니까 가지가 열었드래. 그래서 가지를 따가지고 와서 그 놈을 틀어 막고서는, 똥구멍을 틀어 막고 도둑질을 해서는 잔뜩 지게에다 질머놓고, 지고 일어날려고 하니까 그냥 그 놈의 가지가 쑥 빠지며 문이 확 열리면서 그냥,(일동 웃음)
“펑!”

하는 소리가 나더래. 고만 그거 내던지고 도망을 쳐갔지 뭐여. 그래도 하도 분해서 며칠 있다가, 그냥 분해서 그전에 물지게 있지. 동태 한 짐을 해가지고서,

“동태 사려. 동태 사려.”

인자 거기 가서. 그러니까는 나오더랴. 나와서 마누라가 이것 저것 끌르니까는 남자가 나오더니,

“아! 그놈의 해여. 테여. 그놈 잡어.”

그래서 저 잡으라고 하는 줄 알고, 죄 지은게 있으니께. 그만 또 내뺐더. 그래서 도둑질 한 거 잔뜩 먹고, 동태도 또 한 짐인 거 잔뜩 먹고 그 사람은 앉아서 벌고 먹었디야. 그래, 복이 딸리면 그렇다고.

9 문상할 소리를 잊은 바보

정박규(69, 여)/원암리T 1위

[원암리] 박종수, 강현모, 서현민, 양성수, 임공택, 정민희 조사(1995. 11. 4.)

권유순 할머니 댁에서 나와 새로운 제보자를 찾아 나섰다. 그런 중에 윤순구 할머니를 만나 개인 인생담을 뒤고 다시 돌아다니다가 처음에 만났던 제보자를 만나 이야기를 부탁하여 이야기편이 형성하게 되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좀 바보래. 바본데 상가집에 가야 할텐데, 조상을 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조상하는 걸 가르쳐 줬대잖어.

“어이! 어이!”

허고 가라고. 그렇게라도 할라고, 인저! ‘어이! 어이!’ 하라고. 그 사람이 그걸 잊어버릴까미 ‘어이, 어이’ 하고 가다가 또랑을 건너가다가 잊어버렸지 뭐야.(조사자 웃음) 그래서 또랑도 그냥 더듬더듬거리고 찾은게 미꾸래미가 한 마리 잡히더라. 그 말이 이들이 또랑에 빠져. 그 못났지. 그래서 미꾸래미를 인저 잡았는데, 그 미꾸래미가 목가지를 짝 빼고는,
“ 짹! 짹!”

허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 상가집에 가서, 목가지를 길게 빼고서,
“ 짹! 짹!”

하더래. 그러니까 초상객들이 그냥 갈갈 대고 웃더래잖여. 그게 웃을 일이지 안 웃을 일여. 그래서 초상택에 ‘뭘 저기 하면 초상 상제가 다 웃겠다’ 그러는 소리가 옛날에 난 거지 뭐여. 그래 바보라 그런 거지, 바보라.

10 첫날밤에 소박 맞은 원귀

정박규(69, 여)/원암리T 1뒤

[원암리] 박종수, 강현모, 서현민, 양성수, 임공택, 정민희 조사(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하나만 더 한다고 하고는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인제 하나만 더 한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혼인을 했어. 혼인을 했는데, 그 여자, 저기를 물었다는 거여. 신방을 꾸몄는데 꼭 그림자가 이렇게 칼, 칼을 대는 것 같아서, 그 신랑이 자다,

“너! 처녀 적에 어떤 놈을 좋아해서, 날 죽일려고 저 어떤 놈이 왔다.”고. 그냥 첫날 저녁에 신랑이 뛰어나간 거여. 뛰어 나갔는데, 그 여자는 너무나 억울하걸랑,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러니께.

그래서 그 신랑이, 신랑짜리가 10년 만에 거기를 왔다, 그 집을. 와 보니까 그대로 색시가 곶냥 쪽두리 낭자 쓴 채로 그대로 앉아 있더라. 그냥. 죽은 줄 알았는데도 그대로 앉아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방안에 와서 가만히 이렇게 다녀나 앉았으니께, 그 안마당에 대나무가 있네. 그 대나무가 있는데, 그 대나무 잎새귀가 꼭 칼날 같으더라잖아. 그 그림자가 이렇게 그 문에가 있어서 그래 보인께, 열어 보니까 그 대나무 잎새귀가 바람에 흔들흔들 비취서,

“아! 내가 너무, 나도 이렇게 억울한 혼덕(누명)을 씌어서, 이렇게 죽지 않고서, 죽어서도 이렇게 산 사람같이 그 허물을 벗고 갈라고 이렇게 안 갔느냐고. 내가 너무 잘못 했다고. 내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대나무 잎새가 칼같이 보였다.”

고 그러니까 그냥 막 재가 파삭되고 싹 없어지더라. 그냥 여자가 너무나도 억울해니께니 그냥, 그 억울한 허물을 못 벗고선 갈 수가 없으니 그렇다는 거지 뭐. 뭐 얘기 할 것 있어야지. [조사자 :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자가 인제 허물을 벗어서 갈 데로 가는 거지. [조사자 : 저 승으로 간 거예요?] 응. 그런거지. 아이 옛날 얘기 뭐 할 줄을 알아야지.

㉠ 석 삼 년의 시집살이

정박규(69, 여)/원암리T 1위

[원암리] 박중수, 강현모, 서현민, 양성수, 임공택, 정민희 조사(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시집살이에 관련된 이야기가 없느냐고 묻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시집살이는 장님, 귀머거리, 병어리 각각 3년씩을 살아야 한다는 내용에 대한 반박으로 보여진다.

옛날에 딸을 기르면서 엄마가 하는 소리가,

“여자는 시집을 가서 장님이 되어 3년, 귀머거리 3년, 병어리 되어 3

년, 석 3년 9년을 살아야 시집살이를 다 한다.”

라고 인자 길르거지 뭐여. 그래, 이 여자가 좋은 저기로 시집을 갔는데, 대감집으로 시집을 갔는데. 그런데 세상 통 말을 하나. 그냥 통. 그런데 1년을 데려 놔도 말을 안하고, 꼭 당채 꼭 병어리 만이지 병어리 아니 구는 그렇게 말을 안 할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시아버지가 한 날은 하 인들을 불러가지고, 신랑이,

“친가에다 데려다 주야겠다.”

고. 그래도 말을 안하고 그냥 보곤 탄 거여, 가마를. 타고 가다가 인저 좀 힘드니까 그 상전이,

“좀 쉬었다 가라.”

고. 시아버지가. 그래서 쉬었다가 가마를 내리고 쉬니까, 그 덩불 속에서 꿩이 한 마리 날라가더래. 꿩이 날라가니까 인제 색시가 하는 말이,

“저기저기 날라가는 저 꿩. 이 날개 저 날개 덮어주는 날개는 시아버지 드리고, 이 발 저 발 흔드는 발은 시어머니 드리고, 이 가슴 저 가슴 썩는 가슴은 나를 주고, 요 주둥이 저 주둥이 노는 것은 시누를 주자.”

고 그러더래. 그래서 시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한 며느리를 내가 왜 쫓느냐.”

고. 그 며느리를 도로 가마에 도로 태워서 데리고 왔다는 거여. 그게 시집살이가 옛날에는 그렇게 어렵다는 거여. 지금은 아무 것도 아니지만, 시집살이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여.

12 흑부리 영감

정박규(69, 여)/원암리T 1위

[원암리] 박종수, 강현모, 서현민, 양성수, 임공택, 정민희 조사(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들이 흑이 난 영감의 흑을 떼 이야기에 대해 묻자 구술

하여 준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낭구(나무)를 샀는데 날이 저물었나 봐. 그래서 도깨비들이 와 가지고, 뭐 그 사람이 날이 저물어서 도깨비들한테 붙잡혀 간 거여. 그랬더니 도깨비가,

“노래를 하라.”

고 해서. 노래를 하니께,

“당신은 그 노래가 어디서 그렇게 나오냐?”

고 그래서,

“이 흑부리에서 나온다.”

하니까.

“그 흑을 나한테 팔아라.”

그래. 그 돈을 그냥 많이, 이게 도깨비가 주고 사, 사서, 인저 흑을 던져서 뭐여. 그런데 그 동네 욕심많은 부자가 있는데, 그도 흑부리래요. 그래 그 사람이 인제 물어봐서 그렇게 했더니, 아 이 사람이 거길 가서 낭구를 하다가 붙잡혔는데 소리를 했데. 그랬더니 아! 그 도깨비들이,

“이놈! 잘 만났다. 너 이놈! 흑에서 소리가 나온다고 그러더니 무슨 흑에서 나오냐?”

고 그랬더니(웃음) 또 흑을 하나 갖다가 덜컥 붙여 주더래. 더 붙여 주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흑 띠러 갔다가 붙였데는 소리가 그것 아니여.(일동웃음) [조사자 : 흑 띠러 갔다가 흑 붙였다.] 흑 띠러 갔다가 흑 붙였데는 것이 그거지 뭐. 그래서 하나를 더 붙여 주었다잖아, 그 사람이.

[조사자 : 욕심 부리면 안 되겠네요?] 욕심이 많이, 욕심이 절대 안 되지.

13 발가락 잘라 복 받게 한 관상장이

정박규(69, 여)/원암리T 1위

[원암리] 박종수, 강현모, 서현민, 양성수, 임공택, 정민희 조사(1995. 11. 4.)

조사자들이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또다른 이야기를 부탁하자, ‘아이 얘기도 큰일 났네.’ 하면서 구술하여 준 것이다.

아이 얘기도 큰 일 났네. 옛날에 어떤 사람이 가다가 길이 저물어서 그 산에 가 잠을 자는데, 그 집 남, 주인 남자를 보니까, 아무리 봐도 잘 살게 생겼는데, 도대체 가난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세상에 저렇게 복이 많게 생긴 사람이 뭐 때문에 이렇게 못 살고 고생하나’ 하고 보니까, 자다 보니까, 자다가 이렇게 다리를 흔들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이 장래 이런, 이게 지지랄이라.

“아! 저 사람이 저 지지랄을 해가지고선 거기가 복이 나가나 보다.”

요 발가락 하나를, 요기를 딱 잘라 놓고는 도망을 갔데. 그레가지고 그 사람이 10년 만에 거기로 오니까, 그냥 큰 부자가 됐더라. 그레 거기서 인자,

“길이 저물어 하루 저녁 쉬어 간다.”

고 그러면서 주인한테,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됐나?”

하니까,

“자연이 부자가 되었다.”

고 그래서,

“발가락 왜 이렇게 잘려 있느냐?”

니까, 이 참 안 재워 준다고 그러드랴. 그래서,

“왜 안 재워 주느냐?” 니께.

“옛날에 사람을 하나 재웠더니 이렇게 발가락을 잘려 놓고 갔다.” 고

“그래서 발가락 잘려 놓고 사는 형편은 어떠냐?”

그러니까,

“음, 발가락 잘려, 잘린 후부터는 형편이 늘었다.”

그러드라.

“그게 바로 나다. 당신이, 내가 보니까, 다 어디로 봐도 팔모로 봐두 잘 살 관상인데 하도 못 살아서, 내가 보니까 당신이 지지탈을 하길래 내가 잘려 놓고 간 거라.”

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의형제를 맺었다잖여. 좋은 일 했다고.

14 억울하게 죽은 장화 홍련

정박규(69, 여)/원암리T 1뒤

[원암리] 박중수, 강현모, 서현민, 양성수, 임공택, 정민희 조사(1995. 11. 4.)

앞의 이야기에 이어서 생각이 났는지 계속 구술하였다.

(옛날에 딸) 둘을 낳고 죽었어. 죽었는데, 새 엄마가 있었는데, 새 엄마가 와가 아들을 하나 낳은 게, 아들이 좀 바보라고, 모자른다고 그냥 막 어머니를 그냥 아버지 있는 데는 잘 하고, 또 아버지 없는 데는 심하게 너무하고

그러니 두 형제가 자는데, 이렇게 아들을 시켜 쥐를 잡아다가 그걸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래서 딸들 자는 데로 가만히 들어가서, 딸 자는 데에다 갖다 논 거여. 그렇게 넣어 몰래 넣어놓고는 아침에 일찍 들어가서,

“왜? 일어나서 조반을 안 하고 자느냐?”

고. 보니까 아이 이만한, 꼭 애 지운 거 같이 보여. 그래서,

“허, 이런 변이 어디 있느냐?”

고 그 영감보고 그 얘기를 지웠다고 그냥 너무나도 이 딸들은 억울한
거지 뭐여. 그래서 그 아버지 보고, 딸을 불러가지고,

“그런 일 없다.”

고 그러니까.

“이렇게 증거가 있는 데도 없다고 그러냐?”

고 그러니까 그 저 아버지가,

“그 외할머니 댁으로 보내라.”

고 그 바보같은 아들을 시켜서, 그 조랑말을 태워가지고 갔는데. 아버
지는 오가집에다 갖다 두라고 그랬는데. 인자 그 서모는,

“어떤 연못에다 갖다 빠치라.”

는 거여. 그런데 그것 인저 타고 가는데. 그 동생이,

“언니! 언니! 가지 마라고 나도 같이 간다.”

고 그리고 애걸하고. 그 동생은 못 갔는데, 아이 한없이 가서,

“어디로 가냐고 왜 오가집으로 안 가고?”

그냥 연못에다 집어 넣으면서,

“내가 여기서 죽이라고 어머니가 시켰는데, 왜 오가집은 데려다 주느
냐?”

고 그래서 그 연못에 빠져 죽은 거여. 죽었는데. 아 그런데 오다가 그
놈이 호랑이가 물어서 이냥 다리가 하나 찢렸지 뭐여. 아 그래 말만 펴
떨 뛰어오고. 자기 아들은 안 온 거여. 그 바보, 서모가 본께, 바보 아들
은 안 왔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여. 전실 딸은 죽여 놓고 지 자식
만 그럴게비 저기 하는데, 가 보니까 그 다리가 하나 부러져 있드래, 그
니 아들이. 그래 아들을 데리고 오고서 그냥,

“딸은 그 오가집에 데려다, 갖다 찢느냐?”

고 그러니까.

“가다가 짐승(짐승)을 만나서 누나도 그것이 잡아먹고, 나도 다리 하
나 잃었다.”

고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여.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줄로만 아는 거지

뛰여. 그런데 동상이 애통을 하고 있는데, 파랑새가 와서 뒷걸에서,
“ 짹짹.”

하더라. 그래서 동상이,

“우리 언니 죽은 혼이면, 나를 알려 달라고 우리 형 혼이 아니면 나
한테 와서 그렇게 할 필요 있느냐?”

고 그 새가 그렇게 그냥 날라가면 이렇이렇 해서 그 쫓아 갔다야. 그
저기를, 같이. 그 새를. 쫓아가서 그 연못에 언니가 빠져 죽은 거지. 그
동상도 거기 연못에 빠져 죽은 거여. 같이 같이 죽어가지고, 그 원인을,
원을 그냥 나라에 저기만 원님한테, 원님만 들어온다면 죽은 거여. 그래,
그래서, ‘이상하다’고 원님이 이렇게 보면서, 한 날은 그 딸들이 함께 소
복을 허고, 가면은 그 원님들이 죽는 거여. 놀래 가지고 하두 저기 사람
이,

“아 어찌 이렇게 죽느냐?”

하니까. 그 아가씨들이 둘이 새벽에 소복을 허고 와서,

“우리들은 하두 억울하게 이렇게 원통하게 죽어서, 우리들의 억울한
흠덕을 베껴 달라.”

고. 그리는 거여. 그러니까.

“너무 놀래지 말라고 우린 사람을 해치러 온게 아니고 내 얘기를 잘
듣고, 내 이 원한을 풀어 달라!”

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그랬더니,

“무슨 원한이냐?”

그러니까.

“그 서모를 얻었는데, 그 사람이 오해했는지 얘기가 있어가지고 졌다
고. 그래서 연못에다 집어 넣어서 그 흠덕을 벗을라고, 그래 저녁마다
나타나면 그 원님들이 죽고 죽고 한다.”

고. 그래서 죽은 혼신들이래도 그 허물을 벗고 죽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서모 손에서 살면, 살아만 그렇게 억울한 소리도 듣고. 그런 얘기지 뭐.

15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꺾쥐

정박규(69, 여)/원암리T 1뒤

[원암리] 박종수, 강현모, 서현민, 양성수, 임공택, 정민희 조사(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들이 도깨비와 민속에 대해 물자 구술하여 주었다. 민속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도중에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준 것이다.

옛날에도 호랑이가 애를 잡아 먹으러 왔는데. 세상 애가,
“호랑이가 왔다.”

해도 안 그치고

“늑대가 왔다.”

해도 안 그치고. 별짓을 다 해도 안 그치더라. 그래서,

“아이구! 꺾쥐 왔다.”

고 하니까. 애가 딱 그치더라. 호랑이가 그걸 듣고,

“나보다도 더 무서운 짐승이 있나 보다.”

라고 호랑이가 도망을 가서, 그 애가 안 잡아 먹드래잖아.

16 과부상을 면하게 해 준 스님

정박규(69, 여)/원암리T 1뒤

[원암리] 박종수, 강현모, 서현민, 양성수, 임공택, 정민희 조사(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또다른 이야기를 부탁하자 ‘아무 얘기나 해 주어야겠네’ 하면 구술하여 준 것이다.

아이구 아무 얘기나 해 줘야겠네. 어떤 중이, 한번은 어떤 집을 가더니, 그 며느리를 딱 보더니 시어머니보고 그러더니.

“며느리를 그냥 아무 소리도 말고 그냥 친정으로 보내라.”
라고. 그래 비가 오는데 그래서,

“그냥 내 말 묻지 말고, 그냥 미느리를 그냥 보냈다(라).”
고 그러니까 며느리는 입던 채로 가니께, 영문도 없고, 그냥 이것 분하지 뭐여. 그래서 그 신랑이 어디를 좀 갔다 오는데, 비를 거(피) 해느라고 왜 이렇게 산에 장마져서 이렇게 쓸리면, 위에는 독이 있고 밑에는 이렇게 폭 패였지. 그게 어쟁이라고. 그래 그 신랑은 거기에 들어가 앉아 있는게 비를 안 맞는 거 아녀.

그래 거기서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비를 거하니께, 색시가 그래 울고 오더라. 울고 이렇게 친정 길로 가더라. 그래서 신랑이 아무리 봐도 비속 서서 이렇게 봐도 자기 부인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이냥 한 발짝을 내놓고, 한 발씩 또 내 놓으며 그 여자를 쫓아오려고. 쫓아갈라고 해니께, 어쟁이가 폭씩 주저 앉드레. 그래 그 색시만 안 왔으면, 그 그 어쟁 속에서 죽는 거여. 그러니까 그 중이 그 과부를 면하게, 그 얼굴을 보니께 면할 상이라 그렇게 일러 주더래잖여.

그래서 외아들인데, 그 아들이 살았다는 거 아녀. 암만 죽을 저기가 있어도 그 고비만 넘기면 산다는 거지. 예날 그렇게 명이 짧아도 죽으네 어찌도 그 고비만 넘기면 살 수가 있다는 거여. 그런데 옛날 말 하나 글른가 봐. 그런데 옛날 말이 전설로 이렇게 내려오는 말이잖어 그제.

17 구슬을 찾은 고양이와 개

진달래(12, 여)/원암리T 1위

[원암리] 박종수, 강현모, 서현민, 양성수, 임공택, 정민희 조사(1995. 11. 4.)

정박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손녀딸로 할머니가 말씀을 멈추고 있을 때 할머니

니께서 해 주신 것이라며 구술한 것이다.

할아버지랑 할머니랑여 개와 고양이를 데리고 살았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거기서 왕자가 고기로 변한 게 잡혀가지고요.

그것을 살려 쥐가지고요 바닷속으로 같이 들어 갔는데요. 가서여 옥황상제(용왕)께서 은빛 구슬을 하나 주셔가지고요. 그걸로요 소원이 있으면 그것을 문지르고 말하면 된다고 해가지고요, 그걸 받아들고 집에 왔는 데요.

그걸을 인제 이웃 마을에 어떤 할머니가 듣고, 방울 장수가 와 가지고요, 나무에다 노란색을 칠하고 그거와 바꿔가지고 와가지고요, 그거하고 인제 바뀐는 데요. 그 할아버지가, 그 아줌마가 가니깐 집이 집도 읊어지고 다 그런 거, 없어진 거 알아 가지고요, 인제 개하고 고양이하고 그걸 찾으러 갔거든요. 근데 고양이가 우선은 쥐한테 가지고,

“그 은빛 구슬 어디에 있는지 찾아 오라.”

고 해서 찾았는 데요. 올 때 강물이 깊은 데가 있으니까는, 고양이는 다리가 짧아서 못 가가지고 인제, 개가 고양이를 등에 업고 가는 데요, 자꾸만,

“그걸 입에 잘 물고 있나?”

고. 강아지가 개, 고양이한테 말을 시키니깐 입에 물고 있으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어.”

인제 그러는데 풍덩 빠진 거예요. 그 때문에 인제 싸워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왔는 데요. 고양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개는 그냥 갔는 데요, 고양이는 그걸 찾으려고 그랬는데. 어떤 어부가 고기를 잡았는데, 배가 툭 튀어 나와가지고 그걸 내다버렸는데, 고양이가 그걸 보고, 입속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그 곳에 은빛 구슬이 있더

라구요. 그래서 그걸 물고 집에 가니까, 강아지는 뭐,

“그런 것도 안 찾아 오냐.”

고 막 구박받고, 그래서 마루 밑에서 누렁지만 먹고. 고양이는 귀여움을 받았데요.

18 벌주부전

정박규(69, 여)/원암리T 2앞

[원암리] 박중수, 강현모, 서현민, 양성수, 임공택, 정민희 조사(1995. 11. 4.)

손녀딸을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보자는 생각이 났는지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이 이야기는 바다와 관련된 점에서 생각이 난 것 같다.

용왕이 병이 났는데, 육지에 가서 토끼 간을, 저기 잡아서 그 토끼간을 먹어야 낫는다는데. 그래서 그 거북이가 육지를 나왔어. 육지를 나와서 찾아서, 토끼를 찾았는데. 저기,

“바다에를 들어가면 얼마나 좋은지 아느냐고 왜 육지에서만 사느냐고 용왕님한테 가면은 얼마나 좋은지 아느냐고 가자.”

고 그 인제 토끼하고 둘이 인제 그 용왕을 들어간 거여. 들어갔는데 용왕님이,

“그 간을 빼 왔느냐?”

그러니까,

“토끼를 이렇게 잡아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토끼를 대령하라”

그래서 토끼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병이 들어 죽게 됐는데, 니 간을 먹여야 내가 살게 낫

는데, 너를 잡겠다.”

그래서,

“아 용왕님! 저는 육지에서는 간을 가지고 땡기지만, 이 용왕에 들어올 적에는 간을 즈이 육지에다 빼놓고 왔습니다. 그렇게 그 간을 가서, 육지에 가서 가지고 와야지 간이 없는 걸 우치게 저를 잡겠습니까?”

그래서. 저 거북이 보고 용왕이,

“그러면 그 토끼를 어서 데리고 가서, 그 저기 그 저기를, 간을 빼 가지고 찾아가지고 오너라,”

그런데 거북이 등에 타가지 와가지고, 거북이 하는 말이,

“너 간, 간을 었다 뵈니?”

그래서.

“이놈아! 이 못난 놈아! 간도 빼 놓고 데니는 놈 있느냐?(조사자 웃음) 내가 안 죽을라고 피를 부린 거지. 간을 왜 육지에 두고 데니는 걸로 봤느냐, 이 놈아!”

그래서는 토끼가 그냥 살은 거지 뭐여. 또 그 토끼가 그냥 머리가 좋대는 거여. 토끼가.

19 ‘미련하기가 곰과 같다’는 유래

정박규(69, 여)/원암리T 2앞

[원암리] 박종수, 강현모, 서현민, 양성수, 임공택, 정민희 조사(1995. 11. 4.)

앞의 이야기에 마치고, 생각이 났는지 이어서 구술하여 준 것이다.

그 곰은 왜 미련하냐 하면은, 그 곰, 곰 같으다는 소리 하잖여덜. 그래서 인저 호랭이 하고 곰하고 인저 어테를 갔는데, 사람이 하나가 있어서 그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하니께, 이냥 사람이 큰 고목낭구로 막

기어 올라가는 거여. 그러니까 어떻게 잡아먹을 수가 없으게. 이 꿈이,
“호랑네 아저씨! 호랑네 아저씨! 내가 가서.”

그런게 굴이 있었다. 나무가 느티나무는 그 큰 굴이 있잖아, 오래된
건. 그래서 굴 속으로 들어가 앉았으게, 그 꿈이 하는 말이,

“내가, 호랑네 아저씨! 호랑네 아저씨! 내가 가서 저 구역을 막을 테
니까, 호랑네 아저씨는 이렇게 그 나무를 뿌레기를 막 파라.”

고 그러디라. 그래서 호랑이는 막, 그럼 막 그게 쓰레질 거 아니여, 나무
가. 호랑이는 이렇게 막 파고, 꿈은 올라가서 이렇게 인자 가랭이를 벌
리고 있으니까. 아고, 그 꿈 불알이 이렇게 늘어진 거지 뭐여.(일동 웃
음) 그러니까 인저 그이가 움에매러가지고 꿈 불알을 푹 채니까, 그냥
꿈이 그냥,

“나 좀 살려달라구. 나 좀 살려라. 호랑네 아저씨! 나 좀 살려라.”

허니까, 호랑이가,

“이놈아! 거 봐라”

고 호랑이는 뒤도 불사하고 내뺨더라잖아. 그래서 미련하대는 거여. 거
가만히 있을 거여, 사람이.(일동 웃음) 그래서 꿈은 미련하대는 거여.

20 인불구환

정박규(69, 여)/원암리T 2앞

[원암리] 박종수, 강현모, 서현민, 양성수, 임공택, 정민희 조사(1995. 11. 4.)

이 이야기도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계속하여 구술하여 준 것이다.

그래고 이 ‘검은 머리를 구해지 말라’는 얘기가 또 있다네. 이거 하나
만 하고 인제 안 한다. 검은 머리 구해라는 얘기는, 사람이라는 건 구해
주지 말라는 거여.

옛날에 어떤 사람이 혼저가 됐는데, 뒤편에 밤나무가 있었는데. 그 밤나무 밑에 가 항상 오줌을 누었더니, 그 달부터 애기가 있어서 낳는데, 아들을 낳았다. 그런게 글방에 땡긴게,

“애비없는 후래자식이라.”

고 막 놀리고 그러더리어. 그래서 어머니 보고 그랬더리어.

“나는 우째 아버지가 없느냐고 글방에 안 간다고. 애들이 이렇게 놀린다.” 니께

“왜, 니가 아버지가 없느냐? 뒤편에 가서 저 밤나무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믄 대답을 할 거야.”

라고. 그래서 밤나무서,

“아버지! 아버지!” 한께

“오냐!”

이렇게 대답을 하더리야. 그래가지고 개가 글방에 가서,

“나도 아버지 있다. 왜 내가 아버지가 없느냐?”

고. 그래가지고 어느 해 그냥 큰 장마가 와서, 와가지고 그냥 동네가 다 썰렸대. 그냥 썰렸는데,

“아버지! 아버지! 나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께. 이 밤나무를 타래. 그래 그 애는 이렇게 밤나무를 탔어. 밤나무가 막 떠내려 가는데, 강 띄거머리 총각이 와 막 허우지면서,

“나를 살려 달라.”

고 하더리야. 그래서,

“아부지! 아부지! 저 총각을 어뜨게(어떻게) 하느냐?”

고 하니께.

“여기 타라.”

고. 태워주니께 얼마를 가니께. 또 여우가 나타나드리야. 여우가 나타나가지고,

“너는 어떻게 하느냐?” 난께

“태워 주라.”

고. 막 태워가지곤 아버지 되는 이 밤나무가,

“어디를 이렇게 찾아가면은 딸 하나 두고 혼자 된 어매가 있으니, 있으니 너는 거기 가면 인연이 맺어질 거다. 그랑께 그 장모를 부모로 삼고 살아라. 거기를 가면 있을 거라.”

그래 거기를 갔더니, 참 주인을 찾아 갔더니께 거기 엄마하고 딸하고 둘이 살더라. 그래서 그냥 그 집에서 사우를 삼는다고 이렇게 했는데, 아 그 떡거머리 총각이 나타난 거여. 떡거머리 총각이 나타나 가지고서 둘이 사위 노릇을 헨대네. 그 밤나무 아들이 살려 줬는데도 둘이 이렇게 서로 사우를 삼는 다니께 그걸 어떻게 혀. 곤란해지. 그래서 잔디밭에다가 참깨를 끼얹어 놓고,

“누구든지 참깨를 한 말을 도로 좃어서 채워놓는 사람을 사위로 삼겠다.”

고. 공께 잔디밭에 있는 거 세상 없어도 그 한 말을 좃어도 채우겼어! 그런데 그 여우가 포섭을 해가지고, 그 사람네 해서 이렇게 한 말을 채워 줬대잖어. 그래서 그 사람을 사우로 삼고 떡거머리 총각은 사우를 못.

그래서 짐성은 이 사람 공을 갚는 데여. [조사자 : 김씨성요?] 짐성. [조사자 : 짐승.] 짐승. 그 여우는 그렇게 갚어준 거 아녀. 그 사람을 살려준 걸. 사람은 해꼬지 할라고 오히려 지가 저기라고

그래서 이 검은 머리를 구해 나가지 말랬다는 거. 옛날부텀. 그 참 누구든지 어떤 사람 이렇게 도와 주믄 해꼬지 하고 가는 사람 많잖여. [조사자 : 맞아요] 진짜 그렇다고 [조사자 : 속담도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 줬더니.] 보따리 달라고. 보따리 달라고. 딱 맞는 말여.

아닌게 아니라고 틀리는 말 하나도 없다고. 옛날에 그렇게 다 내려온 소리여, 그께. 빙신자식 효도 본다고 말도 있잖여.

㉑ 할미꽃의 유래

정박규(69, 여)/원암리T 2앞

[원암리] 박중수, 강현모, 서현민, 양성수, 임공택, 정민희 조사(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곧 이어서 구술하여 주었다. 홀로 사는 홀어머니의 애환을 그리고 있는 이야기이다.

딸들 다 셋을 시집을 보내고 [조사자 : 할미꽃요?] 이 할미꽃. 할머니가 딸 삼형제를 뒀는데. 딸을 셋을 다 시집을 보내가지고 살다가 영감이 죽었으니께, 재산을 딱 시 딸을 노나 줬대.

그래서 인저 그 큰 딸네 가서 있다, 작은 딸네 가 있다, 막내 딸은 인저 셋째딸로 인저 댕겼었다. 댕겼다가 인제 큰 딸네 가고 둘째 딸네 사는데, 그 막내 딸네 같 시간이 됐는데, 정 안 오드래잖어, 엄마가. 그래서,

“우째 이렇게 오실 때가 되도 안 오냐?”

고 하니께. 서울 무슨 뭐 고개라대. 거기서 이렇게 돌아겠대야. 꼬부러져. 그래서 그 자리에 할미꽃이 피어서,

늪어서도 할미꽃
 쭉어서도 할미꽃
 호호백발 할미꽃

이러는 거 아녀. 쭉어서, 할미꽃은 퍼서 바로 꼬부러지잖어. 그니께 쭉어서도 꼬부러지고 늪어서도 꼬부러지는 할미꽃이래는 겨. 그게.

그래서 고 자리에서 죽었는데, 고 자리에서 그렇게 꽃이 퍼서, 할미꽃이 그게 할미꽃이 전설에 맥히는 거 아녀. [조사자 : 할미꽃이 고사리 날 때.] 봄에 피는 겨여. 그것도 [조사자 : 그쵸 산소 근처에서요.] 응.

22 3년 고개

정박규(69, 여)/원암리T 2앞

[원암리] 박종수, 강현모, 서현민, 양성수, 임공택, 정민희 조사(1995. 11. 4.)

앞의 노래를 마치고, 앞의 할미꽃 이야기를 할때 넘어졌다는 점에서 생각이 났는지 스스로 구술하여 주었다.

고, 왜 가다가 넘어졌대 잦어. 넘어져서, [조사자 : 할아버지가.] 그래. 그 고개를 넘어지려는 3년백이 못 산다고. [조사자 : 고개에 가 넘어지면요?] 3년백이 못 산다고 그래서.

“그럼 내 고개를 더 한 번 더 가서 넘어지면은 속 삼년, 속 삼년 하면은 6년이려?”

[조사자 : 아, 예.] 그래 세 번을 넘어져 가지고 9년을 살았대여. 9년. 그래서 삼년 고개지 뭐여. [조사자 : 세 번 굴러가지고요?] 이 세 번 굴러서. 그것도 잘 해야 하는데, 잊어뿌렸어.

23 사나운 아내 길들이기

이정원(51, 여)/원암리T 2앞

[원암리] 박종수, 강현모, 서현민, 양성수, 임공택, 정민희 조사(1995. 11. 4.)

조사자는 정박규 할머니의 조사를 마치고 새로운 제보자를 찾아다니다가 만난 분이 다. 이 제보자는 이 한편의 이야기만 해 주고서 바쁘다며, 나이 많은 할머니를 찾아가라며 이야기판을 떠났다.

옛날에 어떤 동네 아주 그냥 억신 처녀가 있었는데요. 그 억신 처녀가 있어서,

“저 처녀를 누가 데려가 사나.”

그랬대요 응. 저 처녀를 저렇게 억신 여자를 누가 데려다가, 저걸 어떻게 사나 그랬더니, 어떤 남자가,

“날 달라.”

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를 주면 어떻게 살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래, 걱정 말고 날 달라.”

고 하더라. 그래서,

“그러라.”

고 그랬더니, 그 여자를 데려가더니 한 없으니까 첫날밤에, 첫날밤에 그냥 장가를 가는데, 첫날밤에 그날 저기, 메주를, 메주를 갖다가, [조사자 : 메주?] 메주를 갖다가, 그냥 똥싼 거마냥 조금 조금 떠났더라고. 그래서 그 뭐라고 그러면은, 그 여자가 뭐라고 그러면은,

“첫날 밤에 똥싼 년이 그러내!”(일동 웃음)

그러면 꿈쩍 못하고 살더라고 됐어요, 이제.

㉔ 호랑이 입 안의 비녀를 빼 준 사람

이것난(91, 여)/원암리T 2앞

[원암리] 박중수, 강현모, 서현민, 양성수, 임공택, 정민희 조사(1995. 11. 4.)

제보자는 남편이 일제 시대에 징용으로 끌려갔다는 말씀을 하였다. 그래서 조사자가 마을의 유래와 전설에 대해 묻자 이 이야기를 구술하여 주었다.

호랑이는 뭐 저런 바위 산길이, 저런 산으로 길이 있잖아. 그리 가면은. 아 그냥 여자가 지나 가니까. 그냥 호랑이가 그냥 앞을 막더라야.

저만치 가서 막고, 저만치 가서 막고. 그냥 아주 죽을 직정을 하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무슨 죄가 있잖레, 있어서 그러느냐고 살려 달라고 살려 달라.”

고 그러니까. 저만치 가서 입을 딱 벌리드라. [조사자 : 어, 호랑이가요?] 응. 그래서나 잡아먹을 줄 알았대여, 막 이렇게 디리대면서 벌리드라. 은비나가 걸렸더래. [조사자 : 아.] 은비나. [조사자 : 은비녀가 입예요?] [조사자2 : 비녀가요? 호랑이 입안에?] 응. 바로 걸렸디야? 그걸 빼달라고. [조사자 : 빼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걸 빼줬어요?]

그래설랑 인자 그걸 빼달라고 그러나 보다 하고. 그래 인자 다 살라고 그런게 돼. 그래 손을 넣서 확 잡아 뺐다. 그러니까는 ‘꿈실굽실’ 하고 어이 가라고 길을 밝혀 주더리야. [조사자 : 호랑이가요?] 응. 그런 소린 들었어.

㉔ 도깨비 일화

이종덕(70, 남)/원암리T 2앞

[원암리] 박종수, 강현모, 서현민, 양성수, 임공택, 정민희 조사(1995. 11. 4.)

앞의 제보자에게 조사를 마치고 마을을 돌아다닐 때 제보자를 만났다. 그래서 찾아온 목적을 말하고 이야기를 해 줄 것을 부탁하자 이는 것이 별로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어릴 때 보았던 도깨비에 대해 묻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젊었을 적에 [조사자 : 젊었을 때요?] 그럼. [조사자 : 어떻게요?] 도깨비가 키가 되게 큰데. [조사자 : 키가 되게 커요?] 그럼. 붙어사는 산 같은데, 안 붙잡혀, 붙잡을라고 하면은. [조사자 : 할아버지께서요?] [조사자2 : 잡으려고, 도깨비를 했어요?] 그렇지.

그래서 여까지 왔지. 여까지 와서 이제 소리 지르니까 동네 사람들이

지나갔을 거 아녀. 그러니까 도망가대, 뭐. [조사자 : 도깨비 눈이 어떻게, 눈이 막 광채가 나고 그래요?] 아 그럼. 환하지 그럼. [조사자 : 눈이 막 뽀짝뽀짝 거리고 그래요?] 도깨비가 가는 길은 가시덤불이거나 말거나, 냇가거나 말거나. 그냥 일등살이 그냥 하냥 뜬 거여.

[조사자 : 일등 뭐요?] 거 그냥 쫓아가다 보면 가시덤쿨도 들어가고, 냇가로도 들어가고 웅지로도 들어가고 그러는 거여. 그제 흘리는 거지 뭐여? 흘리는 디. [조사자 : 도깨비가 나중에 보면은 뭐 빗자루나 뭐 그런 거라메요 뭐 이상한 나무같은 거나.] 그렇지. 근데 뭐 누가 봤어. 붙잡어 봤어? 붙잡히지 않는 걸? 그 동네 사람들 죄 뛰어 나오니까 인자 도망갔지. 잘 도망도 안 가.

26 호랑이보다 무서운 꽃감

황유순(78, 여)/원암리T 2앞

[원암리] 박중수, 강현모, 서현민, 양성수, 임공택, 정민희 조사(1995. 11. 4.)

앞의 제보자에게 조사를 마치고 새로운 제보자를 찾아 나섰다. 길가에서 나이 많고 이야기를 잘 하는 사람을 물었는데, 제보자를 소개하여 주었다. 조사자가 택으로 찾아가서 이것저것 묻는 도중에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준 것이다.

아, 저기 뭐여, 옛날에 호랑이가, [조사자 : 호랑이가요] 사람을 잡아 먹을라고 어느 울타리 밀창에 가서 가만히 앉아 들으니까. 엄마가 얘기를 달래는데, 엄마가 얘기를 달래는데. 아구,

“꽃감 준다, 뭐 밤 준다, 대추 준다.”

세상 별 걸 달라고 해도. [조사자 : 얘기가 안 그쳐?] 응. 얘기가 안 그치는 거여. 안 그쳐서 하두 울어서,

“호랑이가 온다.”

고 그래도 그래도 안 그치고 울어서,

“꽃감 준다.”

고 하니까. 그때서야 뚝 그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호랑이가,

“야! 이게, 저 뭐야, 내가 온대도 무서워 하지 안 하고 그치지 않는 사람이, 꽃감 인저 그 꽃감이 나보다 더 무서운가 보다.”(일동웃음) ·

그라고는 호랑이가 그 얘기를 잡아 먹으러 왔다가 그냥 도망갔다.
[조사자 : 아 꽃감 때문에?] 꽃감 무섭대서. 나보다 더 무서워서.

27 사람 흘린 도깨비

황유순(78, 여)/원암리T 2뒤

[원암리] 박종수, 강현모, 서현민, 양성수, 임공택, 정민희 조사(1995. 11. 4.)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머뭇거릴 때, 조사자가 도깨비에 관해 묻자 해 주신 것이다.

말하자면 이런 데 땡기며는 저기 불이 번쩍번쩍 하고는 거기에 그제 불덩어리가 저리 쪽 가고, 이리 쪽 오랄 적에 술취한 사람이나, 술취한 사람이나 흘러가지고 밤새도록 돌아땡기지. 정신, 술 안 먹고 말짱한 사람은 안 데리고 다닌다고. 그 사람이 저리 쫓아가면 어디로 그냥 싹 사라져 버리고, 술 먹은 사람은 밤새도록 끌고 땡겨. 그 사람 술여 술. 그 불을 보고서 같이 땡긴다고.

그러면 갖다가 도깨비가 어떡 하나든, 갖다 저런 명구렁텅에 집어넣고. 그제 이런 사람 술 취한 사람 눈에는 환한 신작로로 보이기 땡에, 환한 신작로로 보이기 땡에 거꾸로 그냥 영구렁텅이다 쑥 빠져서 그냥 가시덤풀이 되고, 그걸 모르고 그냥 환하게 보이니까 들어가는 거여. 도깨비가 사람을 그렇게 흘린다고.

그리고 흘리는데 옛날 우리 아버지가 저 밤중 밤절을 잘 걸어서, 밤

길을 잘 다녀가 꿈 밤중에 오는데, 이 다리를 건너오는 데 다리 한 복판에 뭐 넷갈 한 복판에 오니께, 키가 한 구척같은 사람이,

“씨름 하자!”

고 댐비드리야. ‘씨름 하자’고 댐비는데 손에다가 그 철사를 이렇게 기드랴게 사서 손에다 들었는데. ‘씨름 하자’고 댐벼서 갖다 물에다 거꾸로 잡어느리게, 다리 밑창으로 떨어졌단 말여. 떨어져서,

“이거, 어떤 놈이 나보고 씨름을 하자느냐.”

고. 그래 얼쩡하게 먹었지. 그리고 도로 올로 와서, 다리를 겨 올라와가지고 또 걸어가니께, 재차 또 갖다 잡어 넣는 게지. 이 그냥 아랫도리를 낚다 그 철사로 후려 때린다는 게 때리고 보니께 그놈 아랫도리가 아니고 다리여, 다리. [조사자 : 아 다리요?] 다리를 후려 때렸어. 왈그닥 하고 소리가 나니께 어디로 싹 없어졌어.

[조사자 : 도깨비 다리를 때린 거군요 철사 갖다가.] 응. 그래가지고 동지 선달인데, 옛날에는 숨두루매기를 해 입었어. 까만 숨두루매기. 지금은 저기 오바 같은게 있지만. 그 옛날에는 손으로 품매가지고, 내가 꼬매가지고 이렇게 숨을 넣서 두루매기를 해 입는데. 집으로 왔는데 그 놈이 팡팡 일어서 집이 들어오는데 바깥에서 뭐가, ‘왓삼벗삼’ 소리가 나서, 이래 보니까 문을 열고 내다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럭하고 들어오신 거여. 입은 게 열어가지고 그 물에가 빠져서. [조사자 : 아, 도깨비 만나신 거구나] 예.

아이, 그럭하면 옛날에 물방아 있잖어. 물방아 있는데, 물방앗간에 거기에 그런 도깨비가 많다고 얘기 하나. 도깨비가 사람을 쫓아다니고 저기를 하. 그 정신 좋고 그 힘 좋은 사람들은, 도깨비를 붙들어 가지고 어디 나무에다 갖다가 붙들어 맨데. 붙들어 매면, 그 이튿날 가보른 저기 뭐 빗자루다. [조사자 : 아! 빗자루요?] 어. 도깨비가 아니고, 그게 빗자루가 요술을 부러가지고 땡기는 거지. 지킴은 불도 많고, 다 사방이 환해서 그런 거 읍어. 안만 밤중에 땡겨도.

3) 민요

① 파랑새

정박규(69, 여)/원암리T 2앞

[원암리] 박종수, 강현모, 서헌민, 양성수, 임공택, 정민희 조사(1995. 11. 4.)

앞의 할미꽃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그 중간에 음영조의 노래말이 있었다. 그런데 제보자는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이번에 새가 생각이 났는지 구슬하여 준 것이다. 이 노래는 음영조로 불러 주었다.

새야새야 파란새야
 녹두밭에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사 울고간다.

② 디딜방아 노래

이갓난(91, 여)/원암리T 2앞

[원암리] 박종수, 강현모, 서헌민, 양성수, 임공택, 정민희 조사(1995. 11. 4.)

이정원씨에게 소개를 받은 할머니다. 이 할머니는 마을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편으로, 고향인 충북 음성에서 장호원으로 시집을 갔다가 90년 전에 이곳으로 이사를 왔다고 한다. 지금도 빨래를 걷고 고추를 딸 정도로 정정한 분이였다.

덜커덩 덜커덩 짙는 방아
 언제나 다 짙고 잠을 자나

3] 아주까리 동백아

이갓난(91, 여)/원암리T 2앞

[원암리] 박종수, 강현모, 서현민, 양성수, 임공택, 정민희 조사(1995. 11. 4.)

앞의 노래에 이어서 계속 불러주신 것이다.

아주까라 동박아 가지
참팔에 큰 얘기 못 끝는다.
일란은 콩팔은 아니 일고
아주까리 동백은 왜 저리 여나

4] 아리랑

이갓난(91, 여)/원암리T 2앞

[원암리] 박종수, 강현모, 서현민, 양성수, 임공택, 정민희 조사(1995. 11. 4.)

앞의 노래를 마치고 고향과 집안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불러주신 노래이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난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이 아래 부분은 뒤 ‘할미꽃’ 뒤에 있는 것을 붙여놓은 것이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날버리고 가시는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나요

5 백발가(1)

이것난(91, 여)/원암리T 2앞

[원암리] 박종수, 강현모, 서현민, 양성수, 임공택, 정민희 조사(1995. 11. 4.)

앞의 노래를 부른 뒤에 계속해서 불러 주신 것이다. 이 노래는 옛날에 밭을 매면서 부른 노래라 한다.

이팔 청춘 소년들아
 백발을 보고 옷지를 마라
 나도 어그저께 청춘이더니
 오늘날로 백발일세.

백발이 나올 줄을 알았다면
 십리밖에다 성을 쌓을 거를
 왜 몰랐나.

청춘이 갈길을 알았다면
 청실홍실로 매듭을 질 것을
 왜 몰랐어

6 백발가(2)

이것난(91, 여)/원암리T 2앞

[원암리] 박종수, 강현모, 서현민, 양성수, 임공택, 정민희 조사(1995. 11. 4.)

앞의 노래를 마친 다음에 그 노래를 기능에 대해 묻자 받을 땐 때 부른 것이라 하면서 계속하여 불러주시는 것이다.

세월아 내월아 오고가지를 말아라
아까운 청춘 다 늙는다.

7 할미꽃

이것난(91, 여)/원암리T 2앞

[원암리] 박종수, 강현모, 서현민, 양성수, 임공택, 정민희 조사(1995. 11. 4.)

조사자는 앞의 이야기를 마친 후에 여우 이야기를 유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리고 할머니는 이 노래를 불러 주었다.

늙으나 젊으나 꼬부러
무슨 꽃이 못 되어서
할미꽃이 되었다.
이팔 청춘에는 푸르더니
나이 먹으니까 늙어간다.

여

백

龍仁文化院 鄉土文化資料叢書

- 1983. 내고장 民謠 (李仁寧, 洪順錫)
- 1984. 내고장 龍仁 (李仁寧)
- 1984. 내고장의 얼·人物編 (洪順錫)
- 1985. 내고장 옛이야기 (李仁寧, 洪順錫)
- 1986. 내고장의 얼·遺物遺蹟編 (李仁寧)
- 1987. 내고장 民俗 (河周成)
- 1989. 내고장 龍仁·義兵抗爭 및 獨立運動史 (李仁寧)
- 1991. 내고장 龍仁 地誌總覽 (李仁寧)
- 1994. 龍仁郡 時事年表 (李仁寧)
- 1995. 내고장 龍仁·人物總覽 (共編)
- 1996. 내고장 용인·동부지역의 구비전승(박종수, 강현모, 이용준)
- 1997. 내고장 龍仁·文化遺産總覽 (李仁寧)
- 1997. 내고장 용인·북부지역의 구비전승(박종수, 강현모)
- 1998. 내고장 용인·남부지역의 구비전승(박종수, 강현모, 이용준)

여

백

저자 약력

박종수(朴鍾洙)

- 공주사대 졸업
- 문학박사(단국대)
- 현재 용인대 교수
- 주요논저: 『대학한문』, 『문학과 인생』,
『용인 동부지역의 구비전승』(보경문화사)
『조선조 기류 문학의 연구』(학위논문) 「충남 연기지방의 설화연구」 외 다수

강현모(姜賢模)

- 한남대학교 졸업
- 문학박사(한양대)
- 현재 한양대, 한남대, 용인대 강사
- 주요논저: 『부여지방의 구비전승』(1)(2)(보경문화사)
『용인 동부지역의 구비전승』(보경문화사)
『비극적 장수설화의 연구』(학위논문). 「이문학 설화의 연구」 외 다수

이응준(李應駿)

- 서울농대 졸업
- 용인문화원 사무국장 및 향토문화연구소 소장
- 주요논저: 「향토문화의 활성화 방안 소고」, 「전통문화와 효사상 연구」 외 다수

향토문화지서 14

내고장 용인 **남부지역의 구비전승**

1998년 5월 10일 인쇄

1998년 5월 30일 발행

엮은곳 : 용인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용인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지은이 : 박종수 · 강현모 · 이응준

발행인 : 송 재 권

인쇄처 : 태 학 사

발행처 : 용인문화원

(우)449-020 경기도 용인시 김량장동 133-61

전화: (0335) 35-2033 FAX: 35-0835

* 이 책은 지방비로 발간되었음.

(비매품)



용인문화원